

발간등록번호

11-1543000-100559-10



2025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

식품산업정보분석 전문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2025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12월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이 계 임 (책임연구원)
연구참여자: 박 성 진 (연구원)
최 윤 영 (연구원)
전 무 경 (연구보조원)

본 보고서는 「2025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사 보고서의 성격상 분석 방법과 결과에 관한 기술 방식은 전년도 보고서와 상당 부분 유사할 수
있습니다.

차 례

1편: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4
2. 조사 체계	5
3. 조사 방법	21
4. 조사 내용	21
5. 검증 방법	22
6. 수익성·생산성 분석 지표 설명	22

2편: 사업자 및 사업장 정보

1. 사업자 정보	29
2. 사업장 정보	62

3편: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1. 전체 외식업체	260
2. 일반음식점	336
3. 한식	401

4편: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1. 식재료 구매 행태	470
2. 식재료 거래 특성	522

표 차례

〈표 1-1〉 조사 연혁	4
〈표 1-2〉 한국표준산업분류: 음식점 및 주점업	5
〈표 1-3〉 업종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6
〈표 1-4〉 업종별 규모별 종사자 수	7
〈표 1-5〉 지역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8
〈표 1-6〉 지역별 업종별 사업체 수	9
〈표 1-7〉 전국 외식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증감	10
〈표 1-8〉 시도별 외식업 사업체 수 증감	11
〈표 1-9〉 시도별 외식업 종사자 수 증감	12
〈표 1-10〉 총별 목표표본 수	14
〈표 1-11〉 총별 최종응답사업체 수	16
〈표 1-12〉 총별 무응답 조정 후 가중치	17
〈표 1-13〉 시도별 사후총화 조정계수	18
〈표 1-14〉 조사 내용	21
〈표 2-1-1〉 사업장 특성별 음식점 업종 분포(전체)	30
〈표 2-1-1〉 사업장 특성별 음식점 업종 분포(전체) (계속)	31
〈표 2-1-2〉 사업장 특성별 음식점 업종 분포(프랜차이즈)	32
〈표 2-1-2〉 사업장 특성별 음식점 업종 분포(프랜차이즈) (계속)	33
〈표 2-1-3〉 사업장 특성별 음식점 업종 분포(비프랜차이즈)	34
〈표 2-1-3〉 사업장 특성별 음식점 업종 분포(비프랜차이즈) (계속)	35
〈표 2-2-1〉 사업장 특성별 한식(세분류) 분포(전체)	36
〈표 2-2-2〉 사업장 특성별 한식(세분류) 분포(프랜차이즈)	37
〈표 2-2-3〉 사업장 특성별 한식(세분류) 분포(비프랜차이즈)	38
〈표 2-3-1〉 사업장 특성별 사업주 연령 분포(전체)	39
〈표 2-3-2〉 사업장 특성별 사업주 연령 분포(프랜차이즈)	40
〈표 2-3-3〉 사업장 특성별 사업주 연령 분포(비프랜차이즈)	41
〈표 2-4-1〉 사업장 특성별 총 외식업 종사 기간 분포(전체)	43
〈표 2-4-2〉 사업장 특성별 총 외식업 종사 기간 분포(프랜차이즈)	44
〈표 2-4-3〉 사업장 특성별 총 외식업 종사 기간 분포(비프랜차이즈)	45
〈표 2-5-1〉 사업장 특성별 현재 업종 종사 기간 분포(전체)	47
〈표 2-5-2〉 사업장 특성별 현재 업종 종사 기간 분포(프랜차이즈)	48
〈표 2-5-3〉 사업장 특성별 현재 업종 종사 기간 분포(비프랜차이즈)	49
〈표 2-6-1〉 사업장 특성별 현 사업장 운영 기간 분포(전체)	51
〈표 2-6-2〉 사업장 특성별 현 사업장 운영 기간 분포(프랜차이즈)	52
〈표 2-6-3〉 사업장 특성별 현 사업장 운영 기간 분포(비프랜차이즈)	53
〈표 2-7-1〉 사업장 특성별 가업승계 여부(전체)	55

〈표 2-7-2〉 사업장 특성별 가업승계 여부(프랜차이즈)	56
〈표 2-7-3〉 사업장 특성별 가업승계 여부(비프랜차이즈)	57
〈표 2-8-1〉 사업장 특성별 사업주의 전문조리사 자격증 보유 여부(전체)	59
〈표 2-8-2〉 사업장 특성별 사업주의 전문조리사 자격증 보유 여부(프랜차이즈)	60
〈표 2-8-3〉 사업장 특성별 사업주의 전문조리사 자격증 보유 여부(비프랜차이즈)	61
〈표 2-9-1〉 사업장 특성별 주차 가능 여부(전체)	63
〈표 2-9-2〉 사업장 특성별 주차 가능 여부(프랜차이즈)	64
〈표 2-9-3〉 사업장 특성별 주차 가능 여부(비프랜차이즈)	65
〈표 2-10-1〉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신고면적 분포(전체)	67
〈표 2-10-2〉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신고면적 분포(프랜차이즈)	68
〈표 2-10-3〉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신고면적 분포(비프랜차이즈)	69
〈표 2-11-1〉 사업장 특성별 상권분류 분포(전체)	71
〈표 2-11-2〉 사업장 특성별 상권분류 분포(프랜차이즈)	72
〈표 2-11-3〉 사업장 특성별 상권분류 분포(비프랜차이즈)	73
〈표 2-12-1〉 사업장 특성별 상권 구분(전체)	75
〈표 2-12-2〉 사업장 특성별 상권구분(프랜차이즈)	76
〈표 2-12-3〉 사업장 특성별 상권구분(비프랜차이즈)	77
〈표 2-13-1〉 사업장 특성별 과세 종류 분포(전체)	79
〈표 2-13-2〉 사업장 특성별 과세 종류 분포(프랜차이즈)	80
〈표 2-13-3〉 사업장 특성별 과세 종류 분포(비프랜차이즈)	81
〈표 2-14-1〉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차 여부 분포(전체)	83
〈표 2-14-2〉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차 여부 분포(프랜차이즈)	84
〈표 2-14-3〉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차 여부 분포(비프랜차이즈)	85
〈표 2-15-1〉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대계약 기간 분포(전체)	87
〈표 2-15-2〉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대계약 기간 분포(프랜차이즈)	88
〈표 2-15-3〉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대계약 기간 분포(비프랜차이즈)	89
〈표 2-16-1〉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대조건(전체)	91
〈표 2-16-2〉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대조건(프랜차이즈)	92
〈표 2-16-3〉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대조건(비프랜차이즈)	93
〈표 2-17-1〉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차보증금 분포(전체)	95
〈표 2-17-2〉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차보증금 분포(프랜차이즈)	96
〈표 2-17-3〉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차보증금 분포(비프랜차이즈)	97
〈표 2-18-1〉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월세 분포(전체)	99
〈표 2-18-2〉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월세 분포(프랜차이즈)	100
〈표 2-18-3〉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월세 분포(비프랜차이즈)	101
〈표 2-19-1〉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수수료 분포(전체)	103
〈표 2-19-2〉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수수료 분포(프랜차이즈)	104
〈표 2-19-3〉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수수료 분포(비프랜차이즈)	105
〈표 2-20-1〉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차권리금 분포(전체)	107
〈표 2-20-2〉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차권리금 분포(프랜차이즈)	108

〈표 2-20-3〉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차권리금 분포(비프랜차이즈)	109
〈표 2-21-1〉 사업장 특성별 1일 기준 영업시간 분포(전체)	111
〈표 2-21-2〉 사업장 특성별 1일 기준 영업시간 분포(프랜차이즈)	112
〈표 2-21-3〉 사업장 특성별 1일 기준 영업시간 분포(비프랜차이즈)	113
〈표 2-22-1〉 사업장 특성별 한 달 평균 영업 일수 분포(전체)	115
〈표 2-22-2〉 사업장 특성별 한 달 평균 영업일수 분포(프랜차이즈)	116
〈표 2-22-3〉 사업장 특성별 한 달 평균 영업 일수 분포(비프랜차이즈)	117
〈표 2-23-1〉 사업장 특성별 정기 휴무 분포(전체)	119
〈표 2-23-2〉 사업장 특성별 정기 휴무 분포(프랜차이즈)	120
〈표 2-23-3〉 사업장 특성별 정기 휴무 분포(비프랜차이즈)	121
〈표 2-24-1〉 사업장 특성별 휴무 요일 분포(전체)	123
〈표 2-24-2〉 사업장 특성별 휴무 요일 분포(프랜차이즈)	124
〈표 2-24-3〉 사업장 특성별 휴무 요일 분포(비프랜차이즈)	125
〈표 2-25-1〉 사업장 특성별 테이블 수 분포(전체)	127
〈표 2-25-2〉 사업장 특성별 테이블 수 분포(프랜차이즈)	128
〈표 2-25-3〉 사업장 특성별 테이블 수 분포(비프랜차이즈)	129
〈표 2-26-1〉 사업장 특성별 전체 좌석 수 분포(전체)	131
〈표 2-26-2〉 사업장 특성별 전체 좌석 수 분포(프랜차이즈)	132
〈표 2-26-3〉 사업장 특성별 전체 좌석 수 분포(비프랜차이즈)	133
〈표 2-27-1〉 사업장 특성별 운영형태(전체)	135
〈표 2-28-1〉 사업장 특성별 개업 시 투자 비용(전체)	137
〈표 2-28-2〉 사업장 특성별 개업 시 투자 비용(프랜차이즈)	138
〈표 2-28-3〉 사업장 특성별 개업 시 투자 비용(비프랜차이즈)	139
〈표 2-29-1〉 사업장 특성별 개업 시 투자 비용 중 인테리어 비용(전체)	141
〈표 2-29-2〉 사업장 특성별 개업 시 투자 비용 중 인테리어 비용(프랜차이즈)	142
〈표 2-29-3〉 사업장 특성별 개업 시 투자 비용 중 인테리어 비용(비프랜차이즈)	143
〈표 2-30-1〉 사업장 특성별 개업 시 투자 비용 중 주방 관련 비용(전체)	145
〈표 2-30-2〉 사업장 특성별 개업 시 투자 비용 중 주방 관련 비용(프랜차이즈)	146
〈표 2-30-3〉 사업장 특성별 개업 시 투자 비용 중 주방 관련 비용(비프랜차이즈)	147
〈표 2-31-1〉 사업장 특성별 개업 시 투자 비용 중 홀 관련 비용(전체)	149
〈표 2-31-2〉 사업장 특성별 개업 시 투자 비용 중 홀 관련 비용(프랜차이즈)	150
〈표 2-31-3〉 사업장 특성별 개업 시 투자 비용 중 홀 관련 비용(비프랜차이즈)	151
〈표 2-32-1〉 사업장 특성별 가장 최근 리모델링 비용(전체)	153
〈표 2-32-2〉 사업장 특성별 가장 최근 리모델링 비용(프랜차이즈)	154
〈표 2-32-3〉 사업장 특성별 가장 최근 리모델링 비용(비프랜차이즈)	155
〈표 2-33-1〉 사업장 특성별 리모델링 경과년수(전체)	157
〈표 2-33-2〉 사업장 특성별 리모델링 경과년수(프랜차이즈)	158
〈표 2-33-3〉 사업장 특성별 리모델링 경과년수(비프랜차이즈)	159
〈표 2-34-1〉 사업장 특성별 포스단말기 사용 여부(전체)	161
〈표 2-34-2〉 사업장 특성별 포스단말기 사용 여부(프랜차이즈)	162

〈표 2-34-3〉 사업장 특성별 포스단말기 사용 여부(비프랜차이즈)	163
〈표 2-35-1〉 사업장 특성별 포스단말기 미사용 이유(전체)	165
〈표 2-35-2〉 사업장 특성별 포스단말기 미사용 이유(프랜차이즈)	166
〈표 2-35-3〉 사업장 특성별 포스단말기 미사용 이유(비프랜차이즈)	167
〈표 2-36-1〉 사업장 특성별 무인 주문기 사용 여부(전체)	169
〈표 2-36-2〉 사업장 특성별 무인 주문기 사용 여부(프랜차이즈)	170
〈표 2-36-3〉 사업장 특성별 무인 주문기 사용 여부(비프랜차이즈)	171
〈표 2-37-1〉 사업장 특성별 사용 중인 무인 주문기(전체)	173
〈표 2-37-2〉 사업장 특성별 사용 중인 무인 주문기(프랜차이즈)	174
〈표 2-37-3〉 사업장 특성별 사용 중인 무인 주문기(비프랜차이즈)	175
〈표 2-38-1〉 사업장 특성별 무인 주문기 미사용 이유(전체)	177
〈표 2-38-2〉 사업장 특성별 무인 주문기 미사용 이유(프랜차이즈)	178
〈표 2-38-3〉 사업장 특성별 무인 주문기 미사용 이유(비프랜차이즈)	179
〈표 2-39-1〉 사업장 특성별 로봇 이용 현황(전체)	180
〈표 2-40-1〉 사업장 특성별 로봇 이용 원산지(전체)	181
〈표 2-41-1〉 사업장 특성별 로봇 이용 사유(전체)	181
〈표 2-42-1〉 사업장 특성별 로봇 도입 이후 변화(전체)	182
〈표 2-43-1〉 사업장 특성별 로봇 이용 애로사항(전체)	182
〈표 2-44-1〉 사업장 특성별 로봇 미도입 사유(전체)	184
〈표 2-44-2〉 사업장 특성별 로봇 미도입 사유(프랜차이즈)	185
〈표 2-44-3〉 사업장 특성별 로봇 미도입 사유(비프랜차이즈)	186
〈표 2-45-1〉 사업장 특성별 배달앱 이용 현황(전체)	188
〈표 2-45-2〉 사업장 특성별 배달앱 이용 현황(프랜차이즈)	189
〈표 2-45-3〉 사업장 특성별 배달앱 이용 현황(비프랜차이즈)	190
〈표 2-46-1〉 사업장 특성별 사용 중인 배달앱(전체)	192
〈표 2-46-2〉 사업장 특성별 사용 중인 배달앱(프랜차이즈)	193
〈표 2-46-3〉 사업장 특성별 사용 중인 배달앱(비프랜차이즈)	194
〈표 2-47-1〉 사업장 특성별 사용 중인 배달앱 개수(전체)	196
〈표 2-47-2〉 사업장 특성별 사용 중인 배달앱 개수(프랜차이즈)	197
〈표 2-47-3〉 사업장 특성별 사용 중인 배달앱 개수(비프랜차이즈)	198
〈표 2-48-1〉 사업장 특성별 월평균 배달앱 비용 분포(전체)	200
〈표 2-48-2〉 사업장 특성별 월평균 배달앱 비용 분포(프랜차이즈)	201
〈표 2-48-3〉 사업장 특성별 월평균 배달앱 비용 분포(비프랜차이즈)	202
〈표 2-49-1〉 사업장 특성별 배달앱 미사용 이유(전체)	204
〈표 2-49-2〉 사업장 특성별 배달앱 미사용 이유(프랜차이즈)	205
〈표 2-49-3〉 사업장 특성별 배달앱 미사용 이유(비프랜차이즈)	206
〈표 2-50-1〉 사업장 특성별 배달대행 이용 현황(전체)	208
〈표 2-50-2〉 사업장 특성별 배달대행 이용 현황(프랜차이즈)	209
〈표 2-50-3〉 사업장 특성별 배달대행 이용 현황(비프랜차이즈)	210
〈표 2-51-1〉 사업장 특성별 월평균 배달대행 비용 분포(전체)	212

〈표 2-51-2〉 사업장 특성별 월평균 배달 대행 비용 분포(프랜차이즈)	213
〈표 2-51-3〉 사업장 특성별 월평균 배달 대행 비용 분포(비프랜차이즈)	214
〈표 2-52-1〉 사업장 특성별 배달 대행 미사용 이유(전체)	216
〈표 2-52-2〉 사업장 특성별 배달 대행 미사용 이유(프랜차이즈)	217
〈표 2-52-3〉 사업장 특성별 배달 대행 미사용 이유(비프랜차이즈)	218
〈표 2-53-1〉 사업장 특성별 총매출액 대비 판매유형별 매출액 비중 분포(전체)	220
〈표 2-53-2〉 사업장 특성별 총매출액 대비 판매유형별 매출액 비중 분포(프랜차이즈)	221
〈표 2-53-3〉 사업장 특성별 총매출액 대비 판매유형별 매출액 비중 분포(비프랜차이즈)	222
〈표 2-54-1〉 사업장 특성별 서비스 유형 분포(전체)	224
〈표 2-54-2〉 사업장 특성별 서비스 유형 분포(프랜차이즈)	225
〈표 2-54-3〉 사업장 특성별 서비스 유형 분포(비프랜차이즈)	226
〈표 2-55-1〉 사업장 특성별 주요 고객 연령대 분포(전체)	228
〈표 2-55-2〉 사업장 특성별 주요 고객 연령대 분포(프랜차이즈)	229
〈표 2-55-3〉 사업장 특성별 주요 고객 연령대 분포(비프랜차이즈)	230
〈표 2-56-1〉 사업장 특성별 주요 고객 성별 분포(전체)	232
〈표 2-56-2〉 사업장 특성별 주요 고객 성별 분포(프랜차이즈)	233
〈표 2-56-3〉 사업장 특성별 주요 고객 성별 분포(비프랜차이즈)	234
〈표 2-57-1〉 사업장 특성별 주요 유입 고객 분포(전체)	236
〈표 2-57-2〉 사업장 특성별 주요 유입 고객 분포(프랜차이즈)	237
〈표 2-57-3〉 사업장 특성별 주요 유입 고객 분포(비프랜차이즈)	238
〈표 2-58-1〉 사업장 특성별 요일별 매출액 비중(전체)	240
〈표 2-58-2〉 사업장 특성별 요일별 매출액 비중(프랜차이즈)	241
〈표 2-58-3〉 사업장 특성별 요일별 매출액 비중(비프랜차이즈)	242
〈표 2-59-1〉 대표메뉴별 평균 금액 - 한식/중식/일식 음식점업	243
〈표 2-59-2〉 대표메뉴별 평균 금액 - 서양식/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244
〈표 2-59-3〉 대표메뉴별 평균 금액 - 기관 구내식당업/출장 및 이동 음식 서비스업	244
〈표 2-59-4〉 대표메뉴별 평균 금액 - 제과점업/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치킨 전문점	244
〈표 2-59-5〉 대표메뉴별 평균 금액 -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245
〈표 2-59-6〉 대표메뉴별 평균 금액 - 일반 유흥주점업/무도 유흥주점업	245
〈표 2-59-7〉 대표메뉴별 평균 금액 - 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업	246
〈표 2-59-8〉 대표메뉴별 평균 금액 -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246
〈표 2-60-1〉 월평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전체)	248
〈표 2-60-2〉 월평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프랜차이즈)	249
〈표 2-60-3〉 월평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비프랜차이즈)	250
〈표 2-61-1〉 월평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전체)	252
〈표 2-61-2〉 월평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프랜차이즈)	253
〈표 2-61-3〉 월평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비프랜차이즈)	254
〈표 3-1-1〉 업종별·지역별·운영 형태별 매출액 분포(전체)	261
〈표 3-1-2〉 업종별·지역별·운영 형태별 매출액 분포(프랜차이즈)	262
〈표 3-1-3〉 업종별·지역별·운영 형태별 매출액 분포(비프랜차이즈)	263

〈표 3-2-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객단가 분포(전체)	265
〈표 3-2-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객단가 분포(프랜차이즈)	266
〈표 3-2-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객단가 분포(비프랜차이즈)	267
〈표 3-3-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방문 고객 수 분포(전체)	269
〈표 3-3-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방문 고객 수 분포(프랜차이즈)	270
〈표 3-3-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방문 고객 수 분포(비프랜차이즈)	271
〈표 3-4-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배달 분포(전체)	273
〈표 3-4-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배달 분포(프랜차이즈)	274
〈표 3-4-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배달 분포(비프랜차이즈)	275
〈표 3-5-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 분포(전체)	277
〈표 3-5-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 분포(프랜차이즈)	278
〈표 3-5-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 분포(비프랜차이즈)	279
〈표 3-6-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자 수 분포(전체)	281
〈표 3-6-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자 수 분포(프랜차이즈)	282
〈표 3-6-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자 수 분포(비프랜차이즈)	283
〈표 3-7-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시간 분포(전체)	285
〈표 3-7-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시간 분포(프랜차이즈)	286
〈표 3-7-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시간 분포(비프랜차이즈)	287
〈표 3-8-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일수 분포(전체)	289
〈표 3-8-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일수 분포(프랜차이즈)	290
〈표 3-8-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일수 분포(비프랜차이즈)	291
〈표 3-9-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인건비 분포(전체)	293
〈표 3-9-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인건비 분포(프랜차이즈)	294
〈표 3-9-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인건비 분포(비프랜차이즈)	295
〈표 3-10-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고용보험 가입 여부(전체)	297
〈표 3-10-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고용보험 가입 여부(프랜차이즈)	298
〈표 3-10-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고용보험 가입 여부(비프랜차이즈)	299
〈표 3-11-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어려움’ 비율(전체)	301
〈표 3-11-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어려움’ 비율(프랜차이즈)	302
〈표 3-11-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어려움’ 비율(비프랜차이즈)	303
〈표 3-12-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업종 전환 경험 및 이유(전체)	305
〈표 3-12-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업종 전환 경험 및 이유(프랜차이즈)	306
〈표 3-12-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업종 전환 경험 및 이유(비프랜차이즈)	307
〈표 3-13-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업종 전환 의향 및 이유(전체)	309
〈표 3-13-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업종 전환 의향 및 이유(프랜차이즈)	310
〈표 3-13-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업종 전환 의향 및 이유(비프랜차이즈)	311
〈표 3-14-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로봇 도입 의향(전체)	313
〈표 3-14-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로봇 도입 의향(프랜차이즈)	314
〈표 3-14-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로봇 도입 의향(비프랜차이즈)	315
〈표 3-15-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도입 로봇 종류(전체)	317

〈표 3-15-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도입 로봇 종류(프랜차이즈)	318
〈표 3-15-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도입 로봇 종류(비프랜차이즈)	319
〈표 3-16-1〉 업종 중분류별 사업실적(전체)	321
〈표 3-16-2〉 업종 중분류별 사업실적(프랜차이즈)	321
〈표 3-16-3〉 업종 중분류별 사업실적(비프랜차이즈)	322
〈표 3-17〉 운영 형태별 사업실적(전체)	323
〈표 3-18-1〉 지역별 사업실적(전체)	325
〈표 3-18-2〉 지역별 사업실적(프랜차이즈)	325
〈표 3-18-3〉 지역별 사업실적(비프랜차이즈)	326
〈표 3-19-1〉 매출액 규모별 사업실적(전체)	327
〈표 3-19-2〉 매출액 규모별 사업실적(프랜차이즈)	328
〈표 3-19-3〉 매출액 규모별 사업실적(비프랜차이즈)	329
〈표 3-20-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수익성·생산성 분석(전체)	330
〈표 3-20-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수익성·생산성 분석(프랜차이즈)	331
〈표 3-20-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수익성·생산성 분석(비프랜차이즈)	332
〈표 3-21-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식재료비 사용 비중(전체)	333
〈표 3-21-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식재료비 사용 비중(프랜차이즈)	334
〈표 3-21-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식재료비 사용 비중(비프랜차이즈)	335
〈표 3-22-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운영 형태별 매출액 분포(전체)	337
〈표 3-22-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운영 형태별 매출액 분포(프랜차이즈)	337
〈표 3-22-3〉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운영 형태별 매출액 분포(비프랜차이즈)	338
〈표 3-23-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객단가 분포(전체)	339
〈표 3-23-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객단가 분포(프랜차이즈)	340
〈표 3-23-3〉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객단가 분포(비프랜차이즈)	341
〈표 3-24-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방문 고객 수 분포(전체)	342
〈표 3-24-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방문 고객 수 분포(프랜차이즈)	343
〈표 3-24-3〉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방문 고객 수 분포(비프랜차이즈)	344
〈표 3-25-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배달 수 분포(전체)	345
〈표 3-25-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배달 수 분포(프랜차이즈)	346
〈표 3-25-3〉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배달 수 분포(비프랜차이즈)	347
〈표 3-26-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 분포(전체)	349
〈표 3-26-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 분포(프랜차이즈)	350
〈표 3-26-3〉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 분포(비프랜차이즈)	351
〈표 3-27-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자 수 분포(전체)	352
〈표 3-27-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자 수 분포(프랜차이즈)	353
〈표 3-27-3〉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자 수 분포(비프랜차이즈)	354
〈표 3-28-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시간 분포(전체)	356
〈표 3-28-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시간 분포(프랜차이즈)	357
〈표 3-28-3〉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시간 분포(비프랜차이즈)	358
〈표 3-29-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일수 분포(전체)	359

〈표 3-29-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일수 분포(프랜차이즈)	360
〈표 3-29-3〉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일수 분포(비프랜차이즈)	361
〈표 3-30-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인건비 분포(전체)	363
〈표 3-30-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인건비 분포(프랜차이즈)	364
〈표 3-30-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인건비 분포(비프랜차이즈)	365
〈표 3-31-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고용보험 가입 여부(전체)	366
〈표 3-31-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고용보험 가입 여부(프랜차이즈)	367
〈표 3-31-3〉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고용보험 가입 여부(비프랜차이즈)	367
〈표 3-32-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경영상 애로사항 '어려움' 비율(전체)	369
〈표 3-32-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경영상 애로사항 '어려움' 비율(프랜차이즈)	370
〈표 3-32-3〉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경영상 애로사항 '어려움' 비율(비프랜차이즈) ...	371
〈표 3-33-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외식업 종사 이후 업종 전환 경험 및 이유(전체)	372
〈표 3-33-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외식업 종사 이후 업종 전환 경험 및 이유(프랜차이즈)	373
〈표 3-33-3〉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외식업 종사 이후 업종 전환 경험 및 이유(비프랜차이즈)	374
〈표 3-34-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업종 전환 의향 및 이유(전체)	376
〈표 3-34-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업종 전환 의향 및 이유(프랜차이즈)	377
〈표 3-34-3〉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업종 전환 의향 및 이유(비프랜차이즈)	378
〈표 3-35-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로봇 도입 의향(전체)	380
〈표 3-35-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로봇 도입 의향(프랜차이즈)	381
〈표 3-35-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로봇 도입 의향(비프랜차이즈)	382
〈표 3-36-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도입 로봇 종류(전체)	384
〈표 3-36-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도입 로봇 종류(프랜차이즈)	385
〈표 3-36-3〉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도입 로봇 종류(비프랜차이즈)	386
〈표 3-37-1〉 일반음식점: 업종별 사업실적(전체)	388
〈표 3-37-2〉 일반음식점: 업종별 사업실적(프랜차이즈)	388
〈표 3-37-3〉 일반음식점: 업종별 사업실적(비프랜차이즈)	389
〈표 3-38〉 일반음식점: 운영 형태별 사업실적(전체)	390
〈표 3-39-1〉 일반음식점: 지역별 사업실적(전체)	391
〈표 3-39-2〉 일반음식점: 지역별 사업실적(프랜차이즈)	392
〈표 3-39-3〉 일반음식점: 지역별 사업실적(비프랜차이즈)	392
〈표 3-40-1〉 일반음식점: 매출액 규모별 사업실적(전체)	393
〈표 3-40-2〉 일반음식점: 매출액 규모별 사업실적(프랜차이즈)	394
〈표 3-40-3〉 일반음식점: 매출액 규모별 사업실적(비프랜차이즈)	394
〈표 3-41-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수익성·생산성 분석(전체)	395
〈표 3-41-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수익성·생산성 분석(프랜차이즈)	396
〈표 3-41-3〉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수익성·생산성 분석(비프랜차이즈)	397
〈표 3-42-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식재료비 사용 비중(전체)	398
〈표 3-42-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식재료비 사용 비중(프랜차이즈)	399
〈표 3-42-3〉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식재료비 사용 비중(비프랜차이즈)	400
〈표 3-43-1〉 한식: 업종별·지역별·운영 형태별 매출액 분포(전체)	402

〈표 3-43-2〉 한식: 업종별·지역별·운영 형태별 매출액 분포(프랜차이즈)	402
〈표 3-43-3〉 한식: 업종별·지역별·운영 형태별 매출액 분포(비프랜차이즈)	403
〈표 3-44-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객단가 분포(전체)	404
〈표 3-44-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객단가 분포(프랜차이즈)	405
〈표 3-44-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객단가 분포(비프랜차이즈)	405
〈표 3-45-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 분포(전체)	407
〈표 3-45-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 분포(프랜차이즈)	407
〈표 3-45-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 분포(비프랜차이즈)	408
〈표 3-46-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배달 수 분포(전체)	409
〈표 3-46-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배달 수 분포(프랜차이즈)	410
〈표 3-46-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배달 수 분포(비프랜차이즈)	411
〈표 3-47-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 분포(전체)	412
〈표 3-47-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 분포(프랜차이즈)	413
〈표 3-47-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 분포(비프랜차이즈)	413
〈표 3-48-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자 수 분포(전체)	415
〈표 3-48-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자 수 분포(프랜차이즈)	416
〈표 3-48-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자 수 분포(비프랜차이즈)	417
〈표 3-49-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시간 분포(전체)	419
〈표 3-49-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시간 분포(프랜차이즈)	420
〈표 3-49-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시간 분포(비프랜차이즈)	421
〈표 3-50-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일수 분포(전체)	422
〈표 3-50-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일수 분포(프랜차이즈)	423
〈표 3-50-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일수 분포(비프랜차이즈)	424
〈표 3-51-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인건비 분포(전체)	425
〈표 3-51-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인건비 분포(프랜차이즈)	426
〈표 3-51-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인건비 분포(비프랜차이즈)	427
〈표 3-52-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고용보험 가입 여부(전체)	428
〈표 3-52-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고용보험 가입 여부(프랜차이즈)	429
〈표 3-52-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고용보험 가입 여부(비프랜차이즈)	429
〈표 3-53-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어려움’ 비율(전체)	431
〈표 3-53-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어려움’ 비율(프랜차이즈)	432
〈표 3-53-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어려움’ 비율(비프랜차이즈)	432
〈표 3-54-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외식업 종사 이후 업종 전환 경험 및 이유(전체)	434
〈표 3-54-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외식업 종사 이후 업종 전환 경험 및 이유(프랜차이즈) ..	435
〈표 3-54-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외식업 종사 이후 업종 전환 경험 및 이유(비프랜차이즈) ..	436
〈표 3-55-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업종 전환 의향 및 이유(전체)	437
〈표 3-55-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업종 전환 의향 및 이유(프랜차이즈)	438
〈표 3-55-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업종 전환 의향 및 이유(비프랜차이즈)	438
〈표 3-56-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로봇 도입 의향(전체)	440
〈표 3-56-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로봇 도입 의향(프랜차이즈)	441

〈표 3-56-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로봇 도입 의향(비프랜차이즈)	441
〈표 3-57-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도입 로봇 종류(전체)	442
〈표 3-57-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도입 로봇 종류(프랜차이즈)	443
〈표 3-57-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도입 로봇 종류(비프랜차이즈)	443
〈표 3-58-1〉 한식: 세분류별 사업실적(전체)	445
〈표 3-58-2〉 한식: 세분류별 사업실적(프랜차이즈)	445
〈표 3-58-3〉 한식: 세분류별 사업실적(비프랜차이즈)	446
〈표 3-59〉 한식: 운영 형태별 사업실적(전체)	447
〈표 3-60-1〉 한식: 지역별 사업실적(전체)	449
〈표 3-60-2〉 한식: 지역별 사업실적(프랜차이즈)	449
〈표 3-60-3〉 한식: 지역별 사업실적(비프랜차이즈)	450
〈표 3-61-1〉 한식: 매출액 규모별 사업실적(전체)	451
〈표 3-61-2〉 한식: 매출액 규모별 사업실적(프랜차이즈)	452
〈표 3-61-3〉 한식: 매출액 규모별 사업실적(비프랜차이즈)	453
〈표 3-62-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수익성·생산성 분석(전체)	454
〈표 3-62-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수익성·생산성 분석(프랜차이즈)	455
〈표 3-62-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수익성·생산성 분석(비프랜차이즈)	456
〈표 3-63-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식재료비 사용 비중(전체)	457
〈표 3-63-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식재료비 사용 비중(프랜차이즈)	458
〈표 3-63-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식재료비 사용 비중(비프랜차이즈)	459
〈표 4-1〉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대분류	471
〈표 4-2〉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축산물	477
〈표 4-3〉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곡류	479
〈표 4-4〉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수산물류	480
〈표 4-5〉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채소류	481
〈표 4-6〉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과일류	483
〈표 4-7〉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가공식품	484
〈표 4-8〉 취급 식재료(복수응답)	486
〈표 4-9〉 취급 식재료 중 주재료	487
〈표 4-10〉 ‘주재료’ 구매처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_1+2순위(중복응답)	489
〈표 4-11〉 면적별 식재료 구매 행태	491
〈표 4-12〉 상권별 식재료 구매 행태	496
〈표 4-13〉 업종(중분류)별 식재료 구매 행태	502
〈표 4-14〉 일반음식점 업종별 식재료 구매 행태	507
〈표 4-15〉 한식 세분류별 식재료 구매 행태	511
〈표 4-16〉 운영 형태별 식재료 구매 행태	514
〈표 4-17〉 연매출규모별 식재료 구매 행태	517
〈표 4-18〉 전처리 식재료 구매 이유_1+2순위(중복응답)	521
〈표 4-18〉 업종/한식 세분류/품목/지역/매출액별 국내산 비중 분포	523
〈표 4-19〉 업종/한식 세분류/품목/지역/매출액별 국내산 비중 분포 (계속)	524

〈표 4-20〉 업종별/품목별 국내산 식재료 사용 비중	525
〈표 4-21〉 한식 세분류별 국내산 식재료 사용 비중	526
〈표 4-22〉 국내산 원재료 사용 이유_1+2순위(중복응답)	527
〈표 4-22〉 국내산 원재료 사용 이유_1+2순위(중복응답) (계속)	528
〈표 4-23〉 외국산 소고기 원산지(중복응답)	529
〈표 4-24〉 수입 원재료 사용 이유_1+2순위(중복응답)	530
〈표 4-24〉 수입 원재료 사용 이유_1+2순위(중복응답)	531
〈표 4-25〉 업종/지역/매출액/한식 세분류별 식재료 가격정보 획득방법 분포(중복응답)	533
〈표 4-26〉 업종/지역/매출액/한식 세분류별 식재료 원산지 확인 여부	535
〈표 4-27〉 2024년 대비 2024년 매출 변화	537
〈표 4-28〉 연도별 판매유형 및 전망 : 홀영업	539
〈표 4-29〉 연도별 판매유형 및 전망 : 배달	541
〈표 4-30〉 연도별 판매유형 및 전망 : 테이크아웃	543
〈표 4-31〉 연도별 판매유형 및 전망 : 밀키트 판매	545
〈표 4-32〉 고용형태 변화 : 2024년 대비 현재	547
〈표 4-35〉 식재료 취급 품목 가이드	548

그림 차례

〈그림 2-1〉 음식점 업종 분포	29
〈그림 2-2〉 음식점 업종 - 한식 분포	36
〈그림 2-3〉 사업주 연령별 분포	38
〈그림 2-4〉 총 외식업 종사 기간 분포	42
〈그림 2-5〉 현재 업종 종사 기간 분포	46
〈그림 2-6〉 현 사업장 운영 기간 분포	50
〈그림 2-7〉 가업승계 여부 분포	54
〈그림 2-8〉 사업주의 전문조리사 자격증 보유 여부	58
〈그림 2-9〉 주차 가능 여부	62
〈그림 2-10〉 사업장 신고 면적	66
〈그림 2-11〉 상권분류 분포	70
〈그림 2-12〉 사업장 상권구분	74
〈그림 2-13〉 과세종류	78
〈그림 2-14〉 사업장 임차 여부	82
〈그림 2-15〉 사업장 임대계약 기간 분포	86
〈그림 2-16〉 사업장 임대조건	90
〈그림 2-17〉 사업장 임차보증금 분포	94
〈그림 2-18〉 사업장 월세 분포	98
〈그림 2-19〉 사업장 수수료 분포	102
〈그림 2-20〉 사업장 임차권리금 분포	106
〈그림 2-21〉 1일 기준 영업시간 분포	110
〈그림 2-22〉 한 달 평균 영업일수 분포	114
〈그림 2-23〉 정기 휴무 분포	118
〈그림 2-24〉 휴무 요일 분포	122
〈그림 2-25〉 테이블 수 분포	126
〈그림 2-26〉 전체 좌석 수 분포	130
〈그림 2-27〉 운영형태 분포	134
〈그림 2-28〉 개업 시 투자 비용	136
〈그림 2-29〉 개업 시 투자 비용 중 인테리어 비용 분포	140
〈그림 2-30〉 개업 시 투자 비용 중 주방 관련 비용	144
〈그림 2-31〉 개업 시 투자 비용 중 홀 관련 비용	148
〈그림 2-32〉 가장 최근 리모델링 비용 분포	152
〈그림 2-33〉 리모델링 경과 년수 분포	156
〈그림 2-34〉 포스단말기 사용 여부 분포	160
〈그림 2-35〉 포스단말기 미사용 이유	164
〈그림 2-36〉 무인 주문기 사용 여부 분포	168

〈그림 2-37〉 사용 중인 무인 주문기	172
〈그림 2-38〉 무인 주문기 미사용 이유	176
〈그림 2-39〉 로봇 미도입 사유	183
〈그림 2-40〉 배달앱 이용 현황	187
〈그림 2-41〉 사용 중인 배달앱	191
〈그림 2-42〉 사용 중인 배달앱 개수	195
〈그림 2-43〉 월평균 배달앱 비용 분포	199
〈그림 2-44〉 배달앱 미사용 이유	203
〈그림 2-45〉 배달 대행 이용 현황	207
〈그림 2-46〉 월평균 배달 대행 비용 분포	211
〈그림 2-47〉 배달 대행 미사용 이유	215
〈그림 2-48〉 총매출액 대비 판매유형별 매출액 비중 분포	219
〈그림 2-49〉 서비스 유형 분포	223
〈그림 2-50〉 주요 고객 연령 분포	227
〈그림 2-51〉 주요 고객 성별 분포	231
〈그림 2-52〉 주요 유입 고객 분포	235
〈그림 2-53〉 요일별 매출액 비중	239
〈그림 2-54〉 월평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247
〈그림 2-55〉 월평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251
〈그림 3-1〉 매출액 분포	260
〈그림 3-2〉 객단가 분포	264
〈그림 3-3〉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 분포	268
〈그림 3-4〉 1일 평균 배달 수 분포	272
〈그림 3-5〉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 분포	276
〈그림 3-6〉 월평균 근로 형태별 근로자 수 분포	280
〈그림 3-7〉 1일 평균 근로 형태별 근로시간 분포	284
〈그림 3-8〉 월평균 근로 형태별 근로일수 분포	288
〈그림 3-9〉 월평균 근로 형태별 인건비 분포	292
〈그림 3-10〉 고용보험 가입 여부	296
〈그림 3-11〉 경영상 애로사항	300
〈그림 3-12〉 외식업 종사 이후 업종 전환 경험 및 이유	304
〈그림 3-13〉 외식업 내 업종 전환 의향 및 이유	308
〈그림 3-14〉 향후 로봇 도입 의향	312
〈그림 3-15〉 향후 도입 로봇 종류	316
〈그림 3-16〉 업종 중분류별 사업실적	320
〈그림 3-17〉 운영 형태별 사업실적	323
〈그림 3-18〉 지역별 사업실적	324
〈그림 3-19〉 매출액 규모별 사업실적	327
〈그림 3-20〉 일반음식점: 매출액 분포	336
〈그림 3-21〉 일반음식점: 객단가 분포	338

〈그림 3-22〉 일반음식점: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 분포	341
〈그림 3-23〉 일반음식점: 1일 평균 배달 수 분포	344
〈그림 3-24〉 일반음식점: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 분포	348
〈그림 3-25〉 일반음식점: 월평균 근로 형태별 근로자 수 분포	351
〈그림 3-26〉 일반음식점: 월평균 근로 형태별 근로시간 분포	355
〈그림 3-27〉 일반음식점: 월평균 근로 형태별 근로일수 분포	358
〈그림 3-28〉 일반음식점: 월평균 근로 형태별 인건비 분포	362
〈그림 3-29〉 일반음식점: 고용보험 가입 여부	365
〈그림 3-30〉 일반음식점: 경영상 애로사항	368
〈그림 3-31〉 일반음식점: 외식업 종사 이후 업종전환 경험 및 이유	371
〈그림 3-32〉 일반음식점: 업종 전환 의향 및 이유	375
〈그림 3-33〉 일반음식점: 향후 로봇 도입 의향	379
〈그림 3-34〉 일반음식점: 향후 도입 로봇 종류	383
〈그림 3-35〉 일반음식점: 업종 분류별 사업실적	387
〈그림 3-36〉 일반음식점: 운영 형태별 사업실적	390
〈그림 3-37〉 일반음식점: 지역별 사업실적	391
〈그림 3-38〉 일반음식점: 매출액 규모별 사업실적	393
〈그림 3-39〉 한식: 매출액 분포	401
〈그림 3-40〉 한식: 객단가 분포	403
〈그림 3-41〉 한식: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 분포	406
〈그림 3-42〉 한식: 1일 평균 배달 수 분포	409
〈그림 3-43〉 한식: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 분포	411
〈그림 3-44〉 한식: 월평균 근로 형태별 근로자 수 분포	414
〈그림 3-45〉 한식: 1일 평균 근로 형태별 근로시간 분포	418
〈그림 3-46〉 한식: 월평균 근로 형태별 근로일수 분포	421
〈그림 3-47〉 한식: 월평균 근로 형태별 인건비 분포	425
〈그림 3-48〉 한식: 고용보험 가입 여부	428
〈그림 3-49〉 한식: 경영상 애로사항	430
〈그림 3-50〉 한식: 외식업 종사 이후 업종 전환 경험 및 이유	433
〈그림 3-51〉 한식: 업종 전환 의향 및 이유	437
〈그림 3-52〉 한식: 향후 로봇 도입 의향	439
〈그림 3-53〉 한식: 향후 도입 로봇 종류	442
〈그림 3-54〉 한식: 업종 분류별 사업실적	444
〈그림 3-55〉 한식: 운영 형태별 사업실적	447
〈그림 3-56〉 한식: 지역별 사업실적	448
〈그림 3-57〉 한식: 매출액 규모별 사업실적	451
〈그림 4-1〉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축산물	472
〈그림 4-2〉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곡류	472
〈그림 4-3〉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수산물류	473
〈그림 4-4〉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채소류	473

〈그림 4-5〉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과일류	474
〈그림 4-6〉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소고기/돼지고기	478
〈그림 4-7〉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닭고기/계란	478
〈그림 4-8〉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쌀/밀가루	479
〈그림 4-9〉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오징어/멸치	480
〈그림 4-10〉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마늘/양파	481
〈그림 4-11〉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파(대파)/고추	482
〈그림 4-12〉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배추/무	482
〈그림 4-13〉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당근/감자	483
〈그림 4-14〉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사과/배	484
〈그림 4-15〉 취급 식재료 및 취급 식재료 중 주재료	485
〈그림 4-16〉 ‘주재료’ 구매처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_1+2순위(중복응답)	488
〈그림 4-17〉 면적별 식재료 구매 행태 - 30㎡ 미만	492
〈그림 4-18〉 면적별 식재료 구매 행태 - 30㎡~50㎡ 미만	492
〈그림 4-19〉 면적별 식재료 구매 행태 - 50㎡~100㎡ 미만	493
〈그림 4-20〉 면적별 식재료 구매 행태 - 100㎡~300㎡ 미만	493
〈그림 4-21〉 면적별 식재료 구매 행태 - 300㎡ 이상	494
〈그림 4-22〉 상권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주거지	497
〈그림 4-23〉 상권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일반 상업지	497
〈그림 4-24〉 상권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유흥 상업지	498
〈그림 4-25〉 상권별 식재료 구매 행태 - 대학 및 학원가	498
〈그림 4-26〉 상권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역세권	499
〈그림 4-27〉 상권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오피스가	499
〈그림 4-28〉 상권별 식재료 구매 행태 - 교외/휴양지 등	500
〈그림 4-29〉 상권별 식재료 구매 행태 - 기타	500
〈그림 4-30〉 업종 중분류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일반음식점업	503
〈그림 4-31〉 업종 중분류별 식재료 구매 행태 - 기관 구내식당업	503
〈그림 4-32〉 업종 중분류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출장 및 이동음식업	504
〈그림 4-33〉 업종 중분류별 식재료 구매 행태 - 기타 음식점업	504
〈그림 4-34〉 업종 중분류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주점업	505
〈그림 4-35〉 업종 중분류별 식재료 구매 행태 - 비알코올 음료점업	505
〈그림 4-36〉 일반음식점 업종별 식재료 구매 행태 - 한식	508
〈그림 4-37〉 일반음식점 업종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중식	508
〈그림 4-38〉 일반음식점 업종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일식	509
〈그림 4-39〉 일반음식점 업종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서양식	509
〈그림 4-40〉 일반음식점 업종별 식재료 구매 행태 - 기타 외국식	510
〈그림 4-41〉 한식 세분류별 식재료 구매 행태 - 한식 일반	512
〈그림 4-42〉 한식 세분류별 식재료 구매 행태 - 한식 면류	512
〈그림 4-43〉 한식 세분류별 식재료 구매 행태 - 한식 육류	513
〈그림 4-44〉 한식 세분류별 식재료 구매 행태 - 한식 해산물	513

〈그림 4-45〉 운영 형태별 식재료 구매 행태 - 프랜차이즈	515
〈그림 4-46〉 운영 형태별 식재료 구매 행태 - 비프랜차이즈	515
〈그림 4-47〉 연매출규모별 식재료 구매 행태 - 5천만 원 미만	518
〈그림 4-48〉 연매출규모별 식재료 구매 행태 - 5천만 원~1억 원 미만	518
〈그림 4-49〉 연매출규모별 식재료 구매 행태 - 1억 원~5억 원 미만	519
〈그림 4-50〉 연매출규모별 식재료 구매 행태 - 5억 원 이상	519
〈그림 4-51〉 전처리 식재료 구매 이유_1+2순위(중복응답)	520
〈그림 4-52〉 세부 품목별 국내산 비중 분포	522
〈그림 4-53〉 국내산 원재료 사용 이유_1+2순위(중복응답)	527
〈그림 4-54〉 수입산 국가_1+2순위(중복응답)	528
〈그림 4-55〉 수입 원재료 사용 이유_1+2순위(중복응답)	530
〈그림 4-56〉 식재료 가격 정보 획득 방법 분포	532
〈그림 4-57〉 식재료 원산지 확인 여부	534
〈그림 4-58〉 2024년 대비 현재 매출 변화	536
〈그림 4-59〉 연도별 판매유형 및 전망 : 홀영업	538
〈그림 4-60〉 연도별 판매유형 및 전망 : 배달	540
〈그림 4-61〉 연도별 판매유형 및 전망 : 테이크아웃	542
〈그림 4-62〉 연도별 판매유형 및 전망 : 밀키트 판매	544
〈그림 4-63〉 고용형태 변화 : 2024년 대비 현재	546



1편: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2. 조사 체계
3. 조사 방법
4. 조사 내용
5. 검증 방법
6. 수익성·생산성 분석 지표 설명

1편: 조사 개요 요약

조사 대상	전국 외식업체 사업주 및 실제 운영자 (경우에 따라 매니저 및 유사 업무 담당자 진행)
조사 지역	- 전국 17개 시도 (세종시 포함) - 분석 시 6개 권역으로 구분
조사 규모	전국 3,138개 외식업체
통계 승인	-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 통계작성 승인: 2018년 6월 28일 -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 통계작성 변경 승인: 2023년 6월 8일
표본 설계	모집단: 2023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의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음식점업 및 주점업(56)”에 해당하는 793,082개 사업체 표본배분: 조사 모집단의 업종별 및 종사자 규모별로 층화, 지역별 내적 층화 실시 무응답 등에 대한 가중치 조정 실시
조사 방법	전문면접원 투입을 통한 면대면조사(Face to Face Interview)
조사 내용	- 외식업체 사업자: 업소명, 사업주 연령, 사업 연수, 사업장 신고면적 등 - 사업장 정보: 상권분류, 업종, 영업시간, 영업 일수, 주요 고객 특성 등 - 사업장 영업 정보: 매출액, 영업비용, 객단가, 방문 고객 수, 근로자 수 등 - 식재료 구입 및 구입처: 품목류별 구입처, 구입처 이용 이유, 구매빈도 등
분석 방법	통계 패키지(SPSS ver 20.0)를 활용한 자료 분석(빈도 및 교차분석) 절차를 거쳐 통계량을 산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모집단 기준 지역 * 업종 * 근로자 수 규모에 따른 가중치 적용
조사 기간	- 조사 기간: 2025.08.04. ~ 2025.10.31. (약 3개월) - 응답값 시점 기준 • 사업자 및 사업장 정보: 2025년 현재 기준 • 사업장 영업 정보(경영실태, 영업 사항): 2024년 1월~12월
조사 기관	(주)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1. 조사 개요

1-1. 조사 배경 및 목적

- 국내 외식산업은 그 양적 규모 대비 질적 수준을 대변하는 정보인프라는 매우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타 산업 대비 비효율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외식산업의 비효율적인 투자와 사업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식산업 이해관계자에게 실질적이고 시의 적절한 외식산업의 경영성과 정보가 필요함.
- 본 조사는 외식업체의 세부적인 경영실태 조사를 통해 외식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 사업을 개발하고 주기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외식업의 무분별한 진입을 방지하고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보 부재로 인한 비효율적인 투자와 사업 실패 증가, 소자본 창업에 따른 경쟁 심화 및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 또한, 외식산업 이해관계자에게 경영성과 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외식산업과 농업의 연계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1-2. 조사 연혁

-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는 2015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1번째 조사를 맞이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201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업의 세부 사업 중 하나로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를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해 옴.

〈표 1-1〉 조사 연혁

연도	조사명	수행기관
2015년	2015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2016년	2016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017년	2017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018년	2018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019년	2019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020년	2020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021년	2021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022년	2022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023년	2023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024년	2024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025년	2025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 조사 체계

2-1. 표본설계

1) 모집단 자료 (2023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음식점업 및 주점업(56)”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 2025년 6월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통계청 「2023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에 “음식점업 및 주점업(56)”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집단 명부 활용. 승인통계에 제공되는 통계청 명부서비스를 이용함.

〈표 1-2〉 한국표준산업분류: 음식점 및 주점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¹⁾	세세분류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	음식점업 (561)	한식 음식점업 (5611)	한식 일반음식점업 (56111)
				한식 면 요리 전문점 (56112)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56113)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56114)
			외국식 음식점업 (5612)	중식 음식점업 (56121)
				일식 음식점업 (56122)
				서양식 음식점업 (56123)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6129)
			기관 구내식당업 (5613)	기관 구내식당업 (56130)
			출장 및 이동음식점업 (5614)	출장 음식 서비스업 (56141)
				이동음식점업 (56142)
			제과점업 (5615)	제과점업 (56150)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5616)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6161)
				치킨 전문점 (56162)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5619)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5619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56199)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562)	주점업 (5621)	일반 유흥주점업 (56211)
				무도 유흥주점업 (56212)
				생맥주 전문점 (56213)
				기타 주점업 (56219)
			비알코올 음료점업 (5622)	커피 전문점 (56221)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56229)

1) 2016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비교

- 세분류에서, “일반음식점업”은 “한식 음식점업”과 “외국식 음식점업”으로 세분됨.
- 세세분류에서, “한식 일반음식점업”은 “한식 일반음식점업”, “한식 면 요리 전문점”,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으로 세분됨.
- 세세분류에서, “분식 및 김밥전문점”과 “그 외 기타 음식점업”은 삭제되고,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과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이 추가됨.
- 세세분류에 “생맥주 전문점”이 추가됨.
- 세세분류에서,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커피 전문점”과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세분됨.

2) 모집단 분석2)

- 전체 793,082개의 사업체 중, 업종별로는 한식 일반음식점업이 가장 많고(25.3%), 다음으로 커피 전문점(13.4%), 한식 육류 요리(9.3%), 기타 주점업(8.9%)이 큰 비중을 보여줌.
- 종사자 규모별로는 1인 사업체 45.3%, 2인 사업체 20.7%, 3~4인 사업체 20.1% 등으로, 종사자 1인 이상 4인 이하의 사업체들이 전체 외식사업체의 86.1%를 차지함.

〈표 1-3〉 업종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단위: 개소, %)

구분	1인	2인	3~4인	5~9인	10~49인	50인 이상	계	비 중
한식 일반	89,671	45,452	42,371	19,673	3,181	31	200,379	25.3
한식 면 요리	8,656	5,588	5,663	2,578	350	1	22,836	2.9
한식 육류 요리	20,936	17,583	21,278	11,716	2,252	35	73,800	9.3
한식 해산물 요리	8,719	7,796	7,990	3,272	393	4	28,174	3.6
중식 음식점업	6,328	8,997	9,888	5,029	1,031	5	31,278	3.9
일식 음식점업	5,745	3,955	5,218	3,599	879	6	19,402	2.4
서양식 음식점업	6,428	3,280	3,744	3,009	1,196	111	17,768	2.2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2,055	1,327	1,628	1,119	229	0	6,358	0.8
기관 구내식당업	2,034	1,257	3,359	3,064	1,422	103	11,239	1.4
출장 음식 서비스업	232	85	105	76	31	1	530	0.1
이동음식점업	273	72	10	1	0	0	356	0.0
제과점업	12,298	4,408	4,905	4,981	1,564	28	28,184	3.6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9,940	5,350	4,781	3,966	2,335	98	26,470	3.3
치킨 전문점	17,231	12,713	7,437	2,076	332	0	39,789	5.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3,554	9,738	8,260	4,148	510	1	46,211	5.8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5,461	2,360	1,367	472	106	8	9,774	1.2
일반 유흥주점업	18,323	3,550	2,529	716	100	2	25,220	3.2
무도 유흥주점업	670	190	119	54	58	1	1,092	0.1
생맥주 전문점	5,994	1,867	2,090	1,113	87	0	11,151	1.4
기타 주점업	48,007	10,784	8,232	3,165	304	0	70,492	8.9
커피 전문점	55,674	15,398	16,900	14,210	4,264	6	106,452	13.4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11,063	2,065	1,618	1,148	231	2	16,127	2.0
계	359,292	163,815	159,492	89,185	20,855	443	793,082	
비 중	45.3	20.7	20.1	11.2	2.6	0.1		

2)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다운로드 서비스'에서 추출한 「2023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시군구' 단위 자료 추출 시 종사자 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데이터는 제외한 결과임.

- 전국의 “음식점업 및 주점업” 종사자는 총 2,115,827명으로 집계됨. 이 중 한식 일반음식점업 종사자가 전체의 23.1%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으로 커피 전문점의 종사자가 13.7%를 차지하고 있음.

〈표 1-4〉 업종별 규모별 종사자 수

(단위: 명, %)

구분	1인	2인	3~4인	5~9인	10~49인	50인 이상	계	비 중
한식 일반	89,671	90,904	142,212	118,786	45,276	2,305	489,154	23.1
한식 면 요리	8,656	11,176	19,080	15,662	4,710	80	59,364	2.8
한식 육류 요리	20,936	35,166	71,851	71,819	32,422	2,534	234,728	11.1
한식 해산물 요리	8,719	15,592	26,805	19,705	5,336	228	76,385	3.6
중식 음식점업	6,328	17,994	33,439	30,652	14,494	382	103,289	4.9
일식 음식점업	5,745	7,910	17,841	22,287	13,338	383	67,504	3.2
서양식 음식점업	6,428	6,560	12,716	19,120	20,679	6,738	72,241	3.4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2,055	2,654	5,524	7,028	3,142	-	20,403	1.0
기관 구내식당업	2,034	2,514	11,745	19,347	24,861	10,756	71,257	3.4
출장 음식 서비스업	232	170	375	492	494	106	1,869	0.1
이동음식점업	273	144	31	5	-	-	453	0.0
제과점업	12,298	8,816	16,920	31,648	22,747	2,133	94,562	4.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9,940	10,700	16,186	25,669	40,801	5,832	109,128	5.2
치킨 전문점	17,231	25,426	24,587	12,254	5,116	-	84,614	4.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3,554	19,476	27,842	25,341	6,459	53	102,725	4.9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5,461	4,720	4,524	2,780	2,572	518	20,575	1.0
일반 유흥주점업	18,323	7,100	8,324	4,384	1,548	121	39,800	1.9
무도 유흥주점업	670	380	389	352	1,050	50	2,891	0.1
생맥주 전문점	5,994	3,734	7,134	6,641	1,101	-	24,604	1.2
기타 주점업	48,007	21,568	27,516	19,072	3,775	-	119,938	5.7
커피 전문점	55,674	30,796	57,683	90,267	54,553	427	289,400	13.7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11,063	4,130	5,501	7,264	2,876	109	30,943	1.5
계	359,292	327,630	538,225	550,575	307,350	32,755	2,115,827	
비 중	17.0	15.5	25.4	26.0	14.5	1.5		

- 지역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경기도에 전체 외식업 사업체의 21.9%인 173,687개 업체가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에 16.7%인 132,137개 업체가 있음. 한편,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비중이 작아 전체의 0.6%인 4,712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1-5〉 지역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단위: 개소, %)

구분	1인	2인	3~4인	5~9인	10~49인	50인 이상	계	비중
서울	54,471	21,385	28,400	21,377	6,374	130	132,137	16.7
부산	22,714	12,471	10,828	6,014	1,480	43	53,550	6.8
대구	16,983	8,073	7,309	3,725	801	20	36,911	4.7
인천	17,448	7,740	7,947	4,724	1,117	24	39,000	4.9
광주	9,294	4,361	4,524	2,657	487	8	21,331	2.7
대전	9,716	4,843	4,560	2,733	653	21	22,526	2.8
울산	10,145	3,594	3,335	1,646	261	13	18,994	2.4
세종	1,744	988	1,194	660	125	1	4,712	0.6
경기	74,251	33,636	37,382	22,850	5,469	99	173,687	21.9
강원	17,549	7,978	6,464	2,746	544	12	35,293	4.5
충북	14,084	6,663	5,314	2,428	507	10	29,006	3.7
충남	17,048	9,133	7,597	3,168	572	16	37,534	4.7
전북	13,098	6,519	5,822	2,550	439	4	28,432	3.6
전남	15,887	7,420	6,214	2,427	384	2	32,334	4.1
경북	25,746	11,339	8,167	3,140	551	7	48,950	6.2
경남	30,889	14,026	10,658	4,411	787	23	60,794	7.7
제주	8,225	3,646	3,777	1,929	304	10	17,891	2.3
계	359,292	163,815	159,492	89,185	20,855	443	793,082	100.0

○ 지역별 업종별 사업체 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한식 음식점업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경기도에 69,314개(21.3%)의 한식 음식점이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에 46,060개(14.2%)의 한식 음식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표 1-6〉 참조).

- 외국식 음식점의 경우 서울에 23.9%인 17,862개 업체가 있으며, 다음으로 경기도에 23.7%로 17,698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6〉 지역별 업종별 사업체 수

(단위: 개소)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관 구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음식점업	기타 간이음식점업	주점업	비알코올 음료점업	계
서울	46,060	17,862	1,323	132	26,308	17,815	22,637	132,137
부산	20,701	4,856	718	27	10,259	9,375	7,614	53,550
대구	14,499	3,247	547	64	7,303	5,462	5,789	36,911
인천	15,328	3,665	796	43	7,873	5,263	6,032	39,000
광주	7,977	1,648	277	37	4,214	3,602	3,576	21,331
대전	9,142	2,113	284	53	4,558	2,431	3,945	22,526
울산	8,137	1,439	290	15	3,555	3,019	2,539	18,994
세종	1,825	513	107	-	1,037	358	872	4,712
경기	69,314	17,698	2,774	250	35,463	21,124	27,064	173,687
강원	17,026	2,551	262	45	5,845	4,516	5,048	35,293
충북	13,277	2,390	565	38	5,287	3,380	4,069	29,006
충남	17,171	3,115	713	43	6,706	4,439	5,347	37,534
전북	12,255	2,278	382	15	5,247	3,635	4,620	28,432
전남	14,811	2,055	349	23	5,123	5,235	4,738	32,334
경북	23,003	3,521	718	23	8,302	6,005	7,378	48,950
경남	27,084	4,338	1,036	24	10,560	9,421	8,331	60,794
제주	7,579	1,517	98	54	2,788	2,875	2,980	17,891
계	325,189	74,806	11,239	886	150,428	107,955	122,579	793,082

3) 전국사업체조사 모집단 추세 분석(2014-2023)

○ 분석대상 및 내용

- 분석자료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에서 제공하는 「전국사업체조사」와 「경제총조사」추출데이터임.
- 대상 연도는 첫 번째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모집단이었던 2014년부터 최근 자료인 2023년까지임.
- 변수는 추출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주요 변수 중 행정구역, 산업분류, 종사자 수 등을 사용하여 종단면 분석을 실시함.

○ 분석 결과

- 전국적으로 외식업체 사업체 수와 전체 종사자 수의 변동을 보여줌.
- 사업체 수의 경우, 2014년 조사 기준 650,467개의 외식업 사업체가 2019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음. 2020년은 2019년 대비 약 10.6%의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2023년에는 사업체 수가 0.2% 감소함.
- 외식업 총종사자 수의 경우, 2023년에는 2022년에 비해 3.7% 증가하였음.

〈표 1-7〉 전국 외식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증감

(단위: 개소, 명, %)

조사 기준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체 수	650,467	656,687	674,664	691,376	708,628	727,014	804,173	800,648	795,024	793,082
전년 대비 증감		6,220	17,977	16,712	17,252	18,386	77,159	-3,525	-5,624	-1,942
전년 대비 증감률(%)		1.0	2.7	2.5	2.5	2.6	10.6	-0.4	-0.7	-0.2
종사자 수	1,893,938	1,943,182	1,987,276	2,035,457	2,137,523	2,190,660	1,919,667	1,937,768	2,039,754	2,115,827
전년 대비 증감		49,244	44,094	48,181	102,066	53,137	-270,993	18,101	101,986	76,073
전년 대비 증감률(%)		2.6	2.3	2.4	5.0	2.5	-12.4	0.9	5.0	3.7
사업체당 종사자 수	2.91	2.96	2.95	2.94	3.02	3.01	2.38	2.42	2.57	2.67
전년 대비 증감		0.05	-0.01	0.00	0.07	0.00	-0.63	0.04	0.15	0.10
전년도 대비 증감률(%)		1.6	-0.5	-0.1	2.5	-0.1	-20.1	1.7	5.7	3.9

〈표 1-8〉 시도별 외식업 사업체 수 증감

(단위: 개소, %)

조사 기준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특별시	119,635	119,701	121,155	123,127	123,709	125,724	138,826	135,182	133,027	132,137
전년 대비 증감률	-	0.1	1.2	1.6	0.5	1.6	10.4	-2.6	-1.6	-0.7
부산광역시	47,454	47,033	48,268	49,065	49,989	51,162	55,245	54,935	54,445	53,550
전년 대비 증감률	-	-0.9	2.6	1.7	1.9	2.3	8.0	-0.6	-0.9	-1.6
대구광역시	31,391	31,570	32,809	33,470	34,224	34,819	37,874	37,299	36,654	36,911
전년 대비 증감률	-	0.6	3.9	2.0	2.3	1.7	8.8	-1.5	-1.8	0.7
인천광역시	30,694	30,934	31,972	32,977	33,668	34,914	39,286	39,116	39,449	39,000
전년 대비 증감률	-	0.8	3.4	3.1	2.1	3.7	12.5	-0.4	0.8	-1.1
광주광역시	17,428	17,899	18,427	19,014	19,219	19,949	21,995	21,744	21,259	21,331
전년 대비 증감률	-	2.7	2.9	3.2	1.1	3.8	10.3	-1.1	-2.3	0.3
대전광역시	18,778	19,216	19,667	20,028	20,445	20,994	23,045	22,658	22,512	22,526
전년 대비 증감률	-	2.3	2.3	1.8	2.1	2.7	9.8	-1.7	-0.6	0.1
울산광역시	16,265	16,683	17,149	17,561	17,941	18,402	20,093	19,533	19,267	18,994
전년 대비 증감률	-	2.6	2.8	2.4	2.2	2.6	9.2	-2.8	-1.4	-1.4
세종특별자치시	1,926	2,286	2,644	2,964	3,361	3,757	4,346	4,486	4,703	4,712
전년 대비 증감률	-	18.7	15.7	12.1	13.4	11.8	15.7	3.2	4.6	0.2
경기도	130,641	132,258	137,506	141,634	146,005	151,827	171,667	172,168	173,084	173,687
전년 대비 증감률	-	1.2	4.0	3.0	3.1	4.0	13.1	0.3	0.5	0.3
강원도	29,405	29,310	30,077	30,912	31,692	32,230	34,776	35,139	35,063	35,293
전년 대비 증감률	-	-0.3	2.6	2.8	2.5	1.7	7.9	1.0	-0.2	0.7
충청북도	23,264	23,692	24,527	24,926	25,885	26,554	29,453	29,194	29,048	29,006
전년 대비 증감률	-	1.8	3.5	1.6	3.8	2.6	10.9	-0.9	-0.5	-0.1
충청남도	29,381	30,085	30,902	31,828	32,907	33,537	37,021	37,172	37,152	37,534
전년 대비 증감률	-	2.4	2.7	3.0	3.4	1.9	10.4	0.4	-0.1	1.0
전라북도	23,238	23,636	23,852	24,449	25,172	25,759	28,592	28,629	28,427	28,432
전년 대비 증감률	-	1.7	0.9	2.5	3.0	2.3	11.0	0.1	-0.7	0.0
전라남도	26,315	26,820	27,254	28,096	28,802	29,429	32,153	32,669	32,169	32,334
전년 대비 증감률	-	1.9	1.6	3.1	2.5	2.2	9.3	1.6	-1.6	0.5
경상북도	42,496	42,754	43,331	43,811	45,228	45,903	50,114	50,244	49,315	48,950
전년 대비 증감률	-	0.6	1.3	1.1	3.2	1.5	9.2	0.3	-1.9	-0.7
경상남도	50,898	51,191	52,777	54,179	55,921	56,684	62,134	62,518	61,653	60,794
전년 대비 증감률	-	0.6	3.1	2.7	3.2	1.4	9.6	0.6	-1.4	-1.4
제주특별자치도	11,258	11,619	12,347	13,335	14,460	15,370	17,553	17,962	17,797	17,891
전년 대비 증감률	-	3.2	6.3	8.0	8.4	6.3	14.2	2.3	-0.9	0.5

〈표 1-9〉 시도별 외식업 종사자 수 증감

(단위: 명, %)

조사 기준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특별시	425,950	444,359	436,034	439,854	457,957	454,977	399,613	394,405	411,872	431,385
전년 대비 증감률	-	4.3	-1.9	0.9	4.1	-0.7	-12.2	-1.3	4.2	4.7
부산광역시	138,490	138,967	145,027	146,852	151,956	154,516	130,216	133,175	142,489	146,382
전년 대비 증감률	-	0.3	4.4	1.3	3.5	1.7	-15.7	2.3	6.5	2.7
대구광역시	87,213	87,541	93,075	93,610	97,417	98,084	84,778	85,279	88,936	93,340
전년 대비 증감률	-	0.4	6.3	0.6	4.1	0.7	-13.6	0.6	4.1	5.0
인천광역시	89,443	92,313	94,978	97,682	103,758	107,156	94,694	96,060	102,807	106,834
전년 대비 증감률	-	3.2	2.9	2.8	6.2	3.3	-11.6	1.4	6.6	3.9
광주광역시	51,346	52,995	55,438	56,988	58,848	62,251	52,580	52,853	55,103	57,218
전년 대비 증감률	-	3.2	4.6	2.8	3.3	5.8	-15.5	0.5	4.1	3.8
대전광역시	55,586	57,590	59,019	60,494	62,916	63,704	55,980	55,953	58,922	62,905
전년 대비 증감률	-	3.6	2.5	2.5	4.0	1.3	-12.1	-0.1	5.0	6.8
울산광역시	45,587	45,586	47,656	47,969	49,994	50,634	43,177	42,597	43,857	45,009
전년 대비 증감률	-	0.0	4.5	0.7	4.2	1.3	-14.7	-1.3	2.9	2.6
세종특별자치시	5,553	7,287	8,154	9,137	10,771	11,948	11,127	12,124	12,926	13,585
전년 대비 증감률	-	31.2	11.9	12.1	17.9	10.9	-6.9	9.0	6.2	5.1
경기도	404,755	416,907	430,129	447,795	477,523	493,331	436,127	445,515	475,541	496,356
전년 대비 증감률	-	3.0	3.2	4.1	6.6	3.3	-11.6	2.2	6.3	4.4
강원도	70,826	71,122	73,341	76,148	80,249	83,566	74,337	75,300	78,201	80,770
전년 대비 증감률	-	0.4	3.1	3.8	5.4	4.1	-11.0	1.3	3.7	3.3
충청북도	58,664	59,757	62,162	63,702	67,790	71,113	61,575	63,024	66,011	68,241
전년 대비 증감률	-	1.9	4.0	2.5	6.4	4.9	-13.4	2.4	4.5	3.4
충청남도	75,431	78,480	81,303	84,574	88,358	92,548	80,769	81,903	87,427	90,109
전년 대비 증감률	-	4.0	3.6	4.0	4.5	4.7	-12.7	1.4	6.3	3.1
전라북도	62,534	63,586	64,275	66,004	69,053	72,054	63,138	63,716	66,917	67,819
전년 대비 증감률	-	1.7	1.1	2.7	4.6	4.3	-12.4	0.9	4.8	1.3
전라남도	63,272	64,165	65,599	68,271	71,369	74,936	66,700	67,186	69,601	72,175
전년 대비 증감률	-	1.4	2.2	4.1	4.5	5.0	-11.0	0.7	3.5	3.7
경상북도	97,826	98,534	100,490	101,793	107,065	110,278	97,478	98,346	101,923	103,495
전년 대비 증감률	-	0.7	2.0	1.3	5.2	3.0	-11.6	0.9	3.5	1.5
경상남도	128,519	128,389	132,918	134,297	138,994	143,619	126,029	127,464	132,818	134,848
전년 대비 증감률	-	-0.1	3.5	1.0	3.5	3.3	-12.2	1.1	4.0	1.5
제주특별자치도	32,943	35,604	37,678	40,287	43,505	45,945	41,348	42,868	44,403	45,356
전년 대비 증감률	-	8.1	5.8	6.9	8.0	5.6	-10.0	3.7	3.5	2.1

4) 표본 배분

- 총 조사비용 예산 안에서 표본의 대표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층화계통추출법(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을 적용하여 표본을 배분하였음.
- 2023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모집단 명부를 추출틀(sampling frame)로 사용함.
- 총 조사비용을 고려하여 전체 목표 표본 수는 3,000개로 설정함.
- 표본조사 후 추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a) 층(stratum) 내 표본 수가 일정 숫자 이상이 되도록 관리함과 동시에, (b) 각 층의 표준오차를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함을 목표로 함.
- 두 가지 표본 배정 목표에 부합하는 강제 배정과 제공근 비례 배정 방법을 단계적으로 사용함.
 - (1단계) 강제 배정
 - 일반 유흥주점업과 무도 유흥주점업은 모든 층에 9개 표본을 배정함.
 - 유흥주점을 제외한 업종 중, 층 내 총사업체 수가 500개 미만인 표본 층은 강제로 20개의 표본을 배정함.
 - (2단계) 제공근 비례 배정
 - 각 층의 표준오차를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층 내 사업체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수의 표본을 뽑아야 함.
 - 위의 1단계에서 강제 배정이 되지 않은 층들을 대상으로 제공근 비례 배정을 사용하여 표본을 배정함.

$$\text{층 } h \text{의 목표표본수: } n_h = \frac{\sqrt{N_h}}{\sum_{k \in \Omega} \sqrt{N_k}} \left(3000 - \sum_{k \notin \Omega} n_k \right)$$

N_h : 층 h 의 총사업체 수 (〈표 1-3〉 참조)
 Ω : 1단계에서 강제 배정을 하지 않은 층

- 〈표 1-10〉은 위의 표본 배정에 따라 결정된 각 층의 목표표본 수를 표시함.
- 외식업체 표본조사의 결과는 층화 변수인 업종별, 종사자별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성의 형태로도 요약됨. 따라서 최종목표표본에 각 지역별 사업체들이 충분히 들어가게 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함. 이를 위하여 각 조사 층 내에서 사업체들을 “행정구역코드”로 정렬한 후, 일정한 간격에 따라 계통 추출함.³⁾
- 조사 층 h 내 총 N_h 개의 사업체에서 n_h 개의 표본을 추출하므로, 정렬된 사업체들을 매 N_h / n_h 개의 간격을 두고 추출함.

3) 이렇게 사업체들을 지역별로 정렬한 후 계통추출을 할 경우, 다양한 지역들이 골고루 표본에 들어가게 됨. 이러한 계통추출법의 특성은 층화추출법의 장점과 비슷하여, “내재적 층화”라고도 불리움.

- 예를 들어, 어떤 표본 층에 $N_h=100$ 개의 사업체가 있고, 총 $n_h=20$ 개의 표본을 추출할 경우 $N_h / n_h = 5$ 개의 간격을 두고 추출함.
- 첫 번째 추출될 사업체의 번호는 1과 5 사이에서 랜덤하게 생성함. 예컨대 랜덤하게 생성된 첫 번째 사업체의 번호 숫자가 3이라면, 3, 8, 13, ..., 93, 98번째 사업체들을 표본으로 선정함.

〈표 1-10〉 층별 목표표본 수 (n_h)

(단위: 개소)

	1인	2인	3~4인	5~9인	10~49인	50인 이상	계
한식 일반	107	77	74	51	20	<u>20</u>	349
한식 면 요리	34	27	27	18	<u>20</u>	<u>1</u>	127
한식 육류 요리	52	48	53	39	17	<u>20</u>	229
한식 해산물 요리	34	32	32	21	<u>20</u>	<u>4</u>	143
중식 음식점업	29	34	36	26	12	<u>5</u>	142
일식 음식점업	27	23	26	22	11	<u>6</u>	115
서양식 음식점업	29	21	22	20	12	<u>20</u>	124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16	13	15	12	<u>20</u>	0	76
기관 구내식당업	16	13	21	20	14	<u>20</u>	104
출장 음식 서비스업	<u>20</u>	<u>20</u>	<u>20</u>	<u>20</u>	<u>20</u>	<u>1</u>	101
이동음식점	<u>20</u>	<u>20</u>	<u>10</u>	<u>1</u>	<u>0</u>	<u>0</u>	51
제과점업	40	24	25	25	14	<u>20</u>	148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36	26	25	23	17	<u>20</u>	147
치킨 전문점	47	41	31	16	<u>20</u>	0	155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55	36	33	23	8	<u>1</u>	156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27	18	13	<u>20</u>	<u>20</u>	<u>8</u>	106
일반 유흥주점업	<u>9</u>	<u>9</u>	<u>9</u>	<u>9</u>	<u>9</u>	<u>2</u>	47
무도 유흥주점업	<u>9</u>	<u>9</u>	<u>9</u>	<u>9</u>	<u>9</u>	<u>1</u>	46
생맥주 전문점	28	16	16	12	<u>20</u>	0	92
기타 주점업	79	37	33	20	<u>20</u>	0	189
커피 전문점	85	45	47	43	24	<u>6</u>	250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38	16	15	12	<u>20</u>	<u>2</u>	103
계	837	605	592	462	347	157	3000

주: 밑줄은 강제배분 된 조사 층(모집단 총사업체 수 500개 미만)을 나타냄.

2-2. 가중치 및 추정 산식

1) 가중치 조정

○ 최종 가중치=기본 가중치×무응답 조정계수×사후 층화 조정계수로 계산됨.

$$w_i = \frac{N_h}{n_h} \times \frac{n_h}{r_h} \times F_i$$

N_h : 사업체 i 가 속한 층 내 모집단 사업체 수
 n_h : 사업체 i 가 속한 층의 목표표본 사업체 수
 r_h : 사업체 i 가 속한 층의 최종응답 사업체 수
 F_i : 사후 층화 조정계수

- 기본 가중치(base weight, design weight)
 - 표본추출확률(inclusion probability)의 역수
 - 층화추출을 사용한 본 조사에서는 해당 사업체가 속한 층 h 의 총 모집단 사업체 수/목표표본 수(N_h/n_h)로 산정됨.
- 무응답 조정(non-response adjustment)
 - “사업체구분코드”와 “종사자 수”를 구분된 층을 기준으로, 그룹별 무응답 가중치 조정(weighting class adjustment)을 적용함.
 - 무응답 조정 가중 계수는 추정된 응답률의 역수, 즉, 본 조사에서는 목표표본 수/최종응답사업체 수(n_h/r_h)로 산정됨.
 - 즉, 층 h 에 속하는 응답사업체 i 의 무응답 조정 후 가중치는

$$\tilde{w}_i = \frac{N_h}{n_h} \times \frac{n_h}{r_h} = \frac{N_h}{r_h}$$

로 계산됨(〈표 1-11〉 및 〈표 1-12〉 참조).

〈표 1-11〉 층별 최종응답사업체 수 (r_h)

(단위: 개소)

	1인	2인	3~4인	5~9인	10~49인	50인 이상	계
한식 일반음식점업	161	101	92	61	23	4	442
한식 면 요리 전문점	49	50	38	18	18	-	173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80	65	57	45	19	11	277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50	42	48	25	25	1	191
중식 음식점업	31	36	46	34	7	2	156
일식 음식점업	26	20	31	24	12	1	114
서양식 음식점업	37	26	23	18	8	9	121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15	15	14	13	16	-	73
기관 구내식당업	17	11	21	13	9	10	81
출장 음식 서비스업	18	17	18	10	-	-	63
이동음식점업	9	8	8	-	-	-	25
제과점업	41	30	33	29	21	9	163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34	26	25	19	13	20	137
치킨 전문점	61	48	33	16	14	-	172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79	44	46	27	10	-	206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22	19	14	12	5	2	74
일반 유흥주점업	9	9	9	7	7	-	41
무도 유흥주점업	9	10	10	4	3	-	36
생맥주 전문점	33	16	13	10	7	-	79
기타 주점업	84	43	17	12	10	-	166
커피 전문점	93	45	50	42	25	3	258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35	17	12	13	13	-	90
계	993	698	658	452	265	72	3,138

주: 밑줄은 최종응답사업체 수 r_h 와 모집단 사업체 수 r_h 가 같은 조사층을 나타냄.

〈표 1-12〉 층별 무응답 조정 후 가중치 ($\tilde{w}_i = \frac{N_h}{r_h}$)

	1인	2인	3~4인	5~9인	10~49인	50인 이상
한식 일반음식점업	557.0	450.0	460.6	322.5	138.3	7.8
한식 면 요리 전문점	176.7	111.8	149.0	143.2	19.5	-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261.7	270.5	373.3	260.4	118.5	3.2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174.4	185.6	166.5	130.9	15.7	4.0
중식 음식점업	204.1	249.9	215.0	147.9	147.3	2.5
일식 음식점업	221.0	197.8	168.3	150.0	73.3	6.0
서양식 음식점업	173.7	126.2	162.8	167.2	149.5	12.3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137.0	88.5	116.3	86.1	14.3	-
기관 구내식당업	119.6	114.3	160.0	235.7	158.0	10.3
출장 음식 서비스업	12.9	5.0	5.8	10.8	-	-
이동음식점업	30.3	9.0	1.4	-	-	-
제과점업	300.0	146.9	148.6	171.8	74.5	3.1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92.4	205.8	191.2	208.7	179.6	4.9
치킨 전문점	282.5	264.9	225.4	129.8	23.7	-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98.2	221.3	179.6	153.6	51.1	-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248.2	124.2	97.6	39.3	22.8	-
일반 유흥주점업	2,035.9	394.4	281.0	102.3	14.6	-
무도 유흥주점업	74.4	19.0	11.9	13.5	19.7	-
생맥주 전문점	181.6	116.7	160.8	111.3	12.4	-
기타 주점업	571.5	250.8	484.2	263.8	30.4	-
커피 전문점	598.6	342.2	338.0	338.3	170.6	2.0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316.1	121.5	134.8	88.3	17.9	-

주 1) 항목무응답이 없는 항목에 적용함.

2) 밑줄은 최종응답사업체 수 r_h 와 모집단 사업체 수 R_h 가 같은 조사층을 나타냄.

○ 사후층화 (post-stratification weight)

- 본 조사는 “사업체구분코드”와 “종사자 수”를 이용한 층화추출을 사용하였음. 따라서 (i) 업종별, (ii) 종사자수별, (iii) 업종/종사자수별, (iv) 전국 모집단 평균을 추정할 경우 사후층화조정 없이 층화추출 산식을 이용하여 점추정량과 분산 추정량을 계산함.
- 그 외 각 시도별 모집단 평균을 추정할 경우 모집단 명부상의 지역별 총 사업체 수(N_k)와 수집된 샘플자료가 대표하는 지역별 사업체 수($\sum_{i \in \text{지역 } k} \tilde{w}_i$)의 차이가 발생함.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사후층화 조정계수 ($F_i = N_k / \sum_{i \in \text{지역 } k} \tilde{w}_i$)를 이용함.

〈표 1-13〉 시도별 사후층화 조정계수 ($F_i = N_k / \sum_{i \in \text{지역 } k} \tilde{w}_i$)

	표본 수	명부상 총사업체 수	표본 자료가 대표하는 사업체 수	사후 층화 조정계수
서울권	491	132,137	121,286	1.09
수도권	595	212,687	145,033	1.47
충청권	581	93,778	143,272	0.65
호남권	467	99,988	132,943	0.75
경남권	611	133,338	153,927	0.87
경북권	393	121,154	96,623	1.25

2) 추정 산식

- (i) 업종별, (ii) 종사자 수별, (iii) 업종/종사자 수별, (iv) 전국 모집단 평균을 추정할 경우 사후 층화 조정 없이 아래의 층화추출 산식을 이용함.

(1) 용어 및 기호

- N_h : 층 h 의 총사업체 수, r_h : 해당 문항에 대한 층 h 의 응답 표본 수
- y_{hi} : 층 h 내 i 번째 사업체, $i = 1, \dots, r_h$, $h \in \Theta$
- N : 전국 모집단 내 총사업체 수, r : 해당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 표본 수

$$N = \sum_{h \in \Theta} N_h \quad r = \sum_{h \in \Theta} r_h$$

- θ : 모집단 평균, p : 모집단 비율
- $\hat{\theta}$: 평균 추정량, $\hat{p}$: 비율 추정량

- $\hat{V}(\hat{\theta})$: 평균 추정량의 분산 추정량, $\hat{V}(\hat{p})$: 비율 추정량의 분산 추정량
- $SE(\hat{\theta})$: 평균 추정량의 표준오차, $SE(\hat{p})$: 비율 추정량의 표준오차
- $w_h = N_h / r_h$: 층 h 에 속하는 사업체의 해당 문항에 대한 최종 가중치

(2) 층화추출 층별 추정

○ 평균 추정

$$\hat{\theta}_h = \frac{1}{r_h} \sum_{i=1}^{r_h} y_i, \quad \hat{V}(\hat{\theta}_h) = \left(1 - \frac{r_h}{N_h}\right) \frac{s_h^2}{r_h}, \quad s_h^2 = \frac{1}{r_h - 1} \sum_{i=1}^{r_h} (y_{hi} - \hat{\theta}_h)^2, \quad SE(\hat{\theta}_h) = \sqrt{\hat{V}(\hat{\theta}_h)}$$

○ 비율 추정

- 비율 추정치 ($\hat{p}_h$)를 계산하기 위하여, 설문 사항에 “예”라고 응답한 사업체의 개수 (m_h)를 센 후, 층의 전체 표본 수 (n_h)로 나누어 줌.

$$\hat{p}_h = \frac{m_h}{n_h}, \quad \hat{V}(\hat{p}_h) = \left(1 - \frac{n_h}{N_h}\right) \frac{s_h^2}{n_h}, \quad s_h^2 = \hat{p}_h (1 - \hat{p}_h), \quad SE(\hat{p}_h) = \sqrt{\hat{V}(\hat{p}_h)}$$

(3) 전국 추정

- 위에서 계산한 각 층별 추정량을 아래에 산식을 이용하여, 모든 층(Θ)에 대하여 결합하여 추정함.

○ 평균 추정

$$\hat{\theta} = \frac{1}{N} \sum_{h \in \Theta} N_h \hat{\theta}_h, \quad \hat{V}(\hat{\theta}) = \frac{1}{N^2} \sum_{h \in \Theta} \left(1 - \frac{r_h}{N_h}\right) \frac{N_h^2 s_h^2}{r_h}, \quad SE(\hat{\theta}) = \sqrt{\hat{V}(\hat{\theta})}$$

$$\Theta = \{11, 12, 13, 14, 15, 16, 21, 22, \dots, 211, 212, 213, 214, 215, 216\}$$

○ 비율 추정

$$\hat{p} = \frac{1}{N} \sum_{h \in \Theta} N_h \hat{p}_h, \quad \hat{V}(\hat{p}) = \frac{1}{N^2} \sum_{h \in \Theta} \left(1 - \frac{r_h}{N_h}\right) \frac{N_h^2 \hat{p}_h (1 - \hat{p}_h)}{r_h}, \quad SE(\hat{p}) = \sqrt{\hat{V}(\hat{p})}$$

- 비슷한 방법으로 몇 개의 층을 합산한 그룹별 추정을 할 수 있음. 예를 들어서, “종사자 수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제과점”에 관한 추정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음.
- 조건에 해당하는 모집단 내 전체 제과점의 합을 계산함.

$$N_{group}^* = \sum_{h \in \{111, 112, 113\}} N_h$$

- 평균 추정

$$\hat{\theta}_{group} = \frac{1}{N_{group}^*} \sum_{h \in \{111, 112, 113\}} N_h \hat{\theta}_h, \quad \hat{V}(\hat{\theta}_{group}) = \frac{1}{N_{group}^{*2}} \sum_{h \in \{111, 112, 113\}} \left(1 - \frac{r_h}{N_h}\right) \frac{N_h^2 s_h^2}{r_h}$$

- 비율 추정

$$\hat{p}_{group} = \frac{1}{N_{group}^*} \sum_{h \in \{111, 112, 113\}} N_h \hat{p}_h, \quad \hat{V}(\hat{p}_{group}) = \frac{1}{N_{group}^{*2}} \sum_{h \in \{111, 112, 113\}} \left(1 - \frac{r_h}{N_h}\right) \frac{N_h^2 \hat{p}_h (1 - \hat{p}_h)}{r_h}$$

(4) 지역별 평균 추정 (사후 층화 조정계수 이용)

○ 각 시도별 모집단 평균 추정 시, 각 사업체는 다음의 최종 가중치 값을 이용함.

최종 가중치 = 기본 가중치 × 무응답 조정계수 × 사후층화 조정계수

$$w_i = \frac{N_h}{n_h} \times \frac{n_h}{r_h} \times F_i$$

○ 지역별 사후 층화 조정계수는 <표 1-13>에 표시되어 있음.

(5) 지역(시도) k 의 모평균 $\bar{Y}_k$ 추정 및 분산 추정치⁴⁾

$$\begin{aligned} \hat{Y}_{k, HT} &= \frac{1}{N_k} \sum_{i \in \text{지역 } k} w_i y_i \\ \hat{V}_{WR}(\hat{Y}_{k, HT}) &= \frac{1}{N_k^2} \frac{n_k}{n_k - 1} \sum_{i \in \text{지역 } k} \left(w_i y_i - \frac{N_k}{n_k} \hat{Y}_{k, HT} \right)^2 \\ SE(\hat{Y}_{k, HT}) &= \sqrt{\hat{V}_{WR}(\hat{Y}_{k, HT})} \end{aligned}$$

4) Durbin(1953)에서 제안한 with-replacement variance estimator.

3. 조사 방법

- 전문면접원이 외식업체를 방문하여 면대면 조사를 진행함.
 - 무응답, 폐업 등의 사유로 표본을 대체할 경우, 동일한 조사 층의 예비표본을 활용하여 대체함.
- 업종별, 규모별 조사대상 업체를 조사원이 순차적으로 조사하여 응답 되는 순서대로 표본을 수집함.
- 설문지는 조사대상자나 조사 대상업체 특성에 대한 문항을 포함함.
- 조사 기간은 2025년 8월 4일부터 10월 31일이며, 이후 보완조사가 진행됨.

4. 조사 내용

- 본 조사의 조사항목은 사업자 정보, 사업장 정보, 사업장 영업 정보로 나누어지며,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조사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1-14〉 조사 내용

항목	세부항목
사업자 정보	응답자 정보,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음식점 업종, 사업장 주소, 사업주 연령, 현재 업종 종사 년수, 총 외식사업 경력, 가업승계 여부, 사업주 조리사 자격증 보유 여부
사업장 기본 정보	개업 일자, 주차 가능 여부, 사업장 신고면적, 사업장 상권분류, 사업장 상권 구분, 과세 종류, 사업장 임차 여부, 사업장 임대조건, 사업장 권리금, 권리금 지급 년도, 영업시간, 영업 일수, 휴일 요일, 테이블 수, 전체 좌석 수, 운영형태, 개업 시 투자 비용, 개업 시 투자 비용 중 인테리어 비용, 개업 시 투자 비용 중 주방 관련 비용, 개업 시 투자 비용 중 홀 관련 비용, 가장 최근 리모델링 비용, 리모델링 경과 년수, 포스단말기 사용 여부, 포스단말기 미사용 이유, 무인 주문기 사용 여부, 사용 중인 무인 주문기, 로봇 도입 여부, 도입 로봇 형태, 로봇 도입 이유, 로봇 도입 영향, 로봇 이용 시 애로사항, 로봇 미도입 이유, 사용 중인 배달앱 및 개수, 배달앱 비용, 배달앱 미사용 이유, 배달 대행 사용 여부, 배달 대행 월평균 비용, 배달 대행 건수, 배달 대행 미사용 이유, 총매출액 대비 판매유형별 비중, 서비스 유형, 배달 수, 테이크아웃 수, 방문 고객 수, 주요 고객 연령, 주요 고객 성별, 주요 유입 고객 단위, 요일별 매출 비중, 평균 객단가, 대표메뉴 및 가격,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비용
사업장 영업정보	매출액, 영업비용(식재료비, 고용인 인건비, 임차료, 세금과 공과, 기타비용, 가족 종사자 인건비, 대표자 인건비), 영업이익, 식재료비 비중, 근로 형태별 근로자 수·일 평균 근로시간·월평균 근로일수·월평균 인건비,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자 수, 경영상 어려운 정도(구인 부문, 영업이익 부문), 업종 전환 경험, 업종 전환 이유, 업종 전환 횟수, 향후 2년 이내 업종 전환 의향 및 이유, 향후 로봇 도입 의향 및 도입 의향 로봇 종류
식재료 파트	현재 취급 식재료 및 주재료, 현재 취급 식재료 구입처별 비중, 식재료 구입처 선택 이유, 취급 식재료 구입 주기, 취급 식재료 월평균 구매량 및 구매금액, 국내산 식재료 사용 이유, 외국산 식재료 사용 이유, 사용 외국산 소고기 원산지, 식재료 구매 형태, 전처리 식재료 구매 이유, 식재료 가격정보 획득 경로, 식재료 구매 시 원산지 정보 확인 여부
기타	매출액 변화, 판매유형 변화, 고용 형태 변화

5. 검증 방법

- 표본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크게 표본오차(sampling error)와 비표본오차(non-sampling error)로 구분됨.
 - 비표본오차는 표본오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오차를 말하며, 주로 자료의 측정과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의미함.
- 기초조사 단계에서의 기입 오류 검증, 방문 조사 결과에 대한 일부 표본 재조사 실시, 특히 결과에 대한 재조사 실시, 조사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함.
- 외식업체 기초조사는 조사대상 업체의 기본사항을 파악하는 것으로 조사 내용은 대표자명, 대표자 현 사 업장 개업일, 운영형태, 점포면적, 좌석 수, 영업시간, 종업원 수, 주요 메뉴, 과세 형태, 객단가, 연 매출, 식재료비 비율, 인건비 비율, 수익성 여부, 서비스 형태, 점포 임대방식 등이 있음.
 - 이러한 조사는 기입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크며, 또한 시간에 따른 변동 가능성이 있어 조사자의 노력이 매우 중요함.
 - 실제 기입 오류를 체크하기 위한 방법으로 1차 입력된 데이터에서 다음과 같이 정확성을 확인함.
예) 보고된 영업이익 값과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값을 비교.
- 검증은 2025년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됨.

6. 수익성·생산성 분석 지표 설명

1) 수익성 지표

- 매출액영업이익률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 100$$

- 영업활동에 대한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관계를 나타냄.

- 매출 대비 식재료 및 인건비 비율

$$\frac{(\text{식재료비} + \text{인건비})}{\text{매출액}} * 100$$

- 외식업체 운영상 가장 많이 투입되는 비용인 식재료비와 인건비를 매출액 대비하여 나타낸 지표로 매출액 대비 투입되는 식재료 및 인건비 비중이 낮을수록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함.

2) 생산성 지표

○ 종사원당 매출액(RevPAL : Revenue Per Available Labor)

$$\frac{\text{매출액}}{\text{종사원수}}$$

- 가용 노동력당 발생하는 매출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종사원당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본 조사에서는 종사원당 발생하는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여 생산성을 판단함.

○ 좌석당 매출액(RevPAS : Revenue Per Available Seat)

$$\frac{\text{매출액}}{\text{좌석수}}$$

- 가용 좌석당 발생하는 매출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가용 좌석당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본 조사에서는 가용 좌석당 발생하는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여 생산성을 판단함.
- 좌석이 0인 경우와 무응답 경우는 분석 사례에서 제외함.

○ 테이블당 매출액(RevPAT : Revenue Per Available Table)

$$\frac{\text{매출액}}{\text{테이블수}}$$

- 가용 테이블당 발생하는 매출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가용 테이블당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본 조사에서는 가용 테이블당 발생하는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여 생산성을 판단함.
- 테이블이 0인 경우와 무응답 경우는 분석 사례에서 제외함.

○ 평당매출액

$$\frac{\text{매출액}}{\text{평수}}$$

- 가용 사업장 면적(평)당 발생하는 매출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면적(평)당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본 조사에서는 사업장 평당 발생하는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여 생산성을 판단함.



2편: 사업자 및 사업장 정보

1. 사업자 정보
2. 사업장 정보

2편: 사업자 및 사업장 정보 요약

1) 외식업 경력

- 사업주 연령은 평균 53.7세이며, 연령대 분포별로는 50대가 3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일반음식점의 경우 한식(56.7세)과 중식(54.9세), 일반음식점 외 업종의 경우 출장·이동음식점업(57.0세)과 기관 구내식당업(56.8세)에서 사업주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음.
- 총 외식업 종사 기간은 평균 13.0년으로 나타남. 사업 년수 분포별로는 5~10년 미만의 비중이 25.8%로 가장 높음.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중식(16.7년)과 한식(15.4년), 일반음식점 외 업종 중에서는 출장·이동음식점업(13.6년), 기관 구내식당업(13.0년), 제과점 및 치킨 전문점(각 12.7년)의 총 외식업 종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남.
- 현재 업종 종사 기간은 평균 9.8년이며, 5~10년 미만이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중식(12.9년), 한식(11.5년),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 중에서는 기관 구내식당업(10.1년)과 제과점(10.0년)의 현재 업종 종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조사됨.
- 현 사업장 운영 기간은 평균 9.2년이며, 5~10년 미만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중식(11.8년), 한식(10.9년), 일반음식점 외 업종에서는 기관 구내식당업(9.8년), 치킨 전문점(9.6년)의 현 사업장 운영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임.

2) 외식업체 정보

- 사업장 신고면적은 평균 90.1㎡이며, 신고면적이 50㎡~100㎡ 미만인 업체의 비중이 44.8%로 가장 높음.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서양식(112.1㎡)이, 일반음식점 외 업종 중에서는 기관 구내식당업(211.1㎡)의 사업장 신고면적이 가장 넓음.
- 사업장 임대계약 기간은 평균 2.3년이며, 임대계약 기간별 비중은 1~2년이 78.9%로 가장 높음.
- 사업장 임차보증금은 약 3,200만 원 수준이며,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 비중이 51.2%로 가장 높음. 일반음식점 중에서 서양식(3,740만 원), 일식(3,482만 원), 일반음식점 외 업종 중에서 기관 구내식당업(4,949만 원), 비알코올 음료점업(3,577만 원)의 임차보증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장 월세는 167만 원 수준으로, 100만 원~300만 원 미만의 비중이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서양식(207만 원), 일반음식점 외 업종 중에서는 기관 구내식당업(413만 원)의 평균 월세가 상대적으로 큼.
- 외식업체의 하루 평균 영업시간은 10.6시간으로 나타남.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한식과 기타 외국식(각 10.7시간)의 영업시간이 길고, 일반음식점 외 업종 중에서는 제과점(12.2시간),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11.6시간)의 영업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조사됨.

- 외식업체의 한 달 평균 영업 일수는 27.7일로 나타남. 매출액 규모별로는 매출액이 많을수록 영업 일수가 길게 나타남.
- 외식업체의 테이블 수는 평균 10.0개인 가운데, 일반음식점 외식업체의 테이블 수는 평균 11.9개, 일반음식점 외의 경우 평균 8.1개로 파악됨.
- 외식업체의 운영형태는 독립 운영(개인 경영권)이 73.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프랜차이즈(가맹점)은 24.9%임.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중식(87.9%)에서 독립 운영 비중이 높고, 일반음식점 외 업종 중에서는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80.2%), 치킨 전문점(67.3%)에서 프랜차이즈 비중이 높음.
- 외식업체 중 91.9%는 포스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음식점 중에서 기타 외국식에서 포스단말기 사용 비중이 100.0%로 나타난 반면, 일반음식점 외 업종 중에서 출장·이동음식점업(68.8%)은 사용 비중이 가장 낮음.
- 외식업체 중 13.0%가 무인 주문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기타 외국식(29.8%)과 서양식(18.1%)에서 무인 주문기 사용 비중이 높으며, 일반음식점 외 업종 중에서는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38.1%)에서 높은 비중을 보임.
- 외식업체의 서비스 유형을 살펴본 결과, 완전 서비스가 39.2%, 포장(테이크아웃) 29.9%, 배달 18.6%, 제한 서비스 12.4% 순서로 나타남.
- 총매출액 대비 판매유형별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음식점 내 비중은 75.0%, 테이크아웃은 14.0%, 배달은 11.1%로 조사됨.
- 외식업체의 로봇 미도입 사유를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로봇 도입 정도의 업무가 아니라서'의 응답이 가장 높음.
- 외식업체 중에서 30.0%가 배달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중식(45.0%), 일반음식점 외 업종 중에서는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86.2%)의 배달앱 이용 비중이 비교적 높음. 배달앱을 사용하는 외식업체의 월평균 배달앱 비용은 약 35.8만 원 수준으로 분석됨.
- 배달 대행을 이용하는 외식업체 비중은 29.4%로 나타남.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중식(43.7%), 일반음식점 외 업종 중에서는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84.0%)과 치킨 전문점(69.8%)의 배달대행 사용업체 비중이 높음. 월평균 배달 대행 비용은 약 88.2만 원 수준임.
- 외식업체의 주요 고객 연령은 40대(26.6%)이며, 다음으로는 50대(24.5%), 30대(22.0%), 60대(12.4%), 20대(11.6%) 등의 순임. 외식업체의 주요 고객 성별은 남성(53.2%)이 여성(46.8%)보다 많음.
- 외식업체의 주요 유입 고객은 1인(20.1%), 2~5인(64.9%), 6인 이상(15.0%)으로 나타남.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중식(18.8%)의 1인 고객 비중이 높고, 일반음식점 외 업종 중에서는 제과점(46.6%)의 1인 고객 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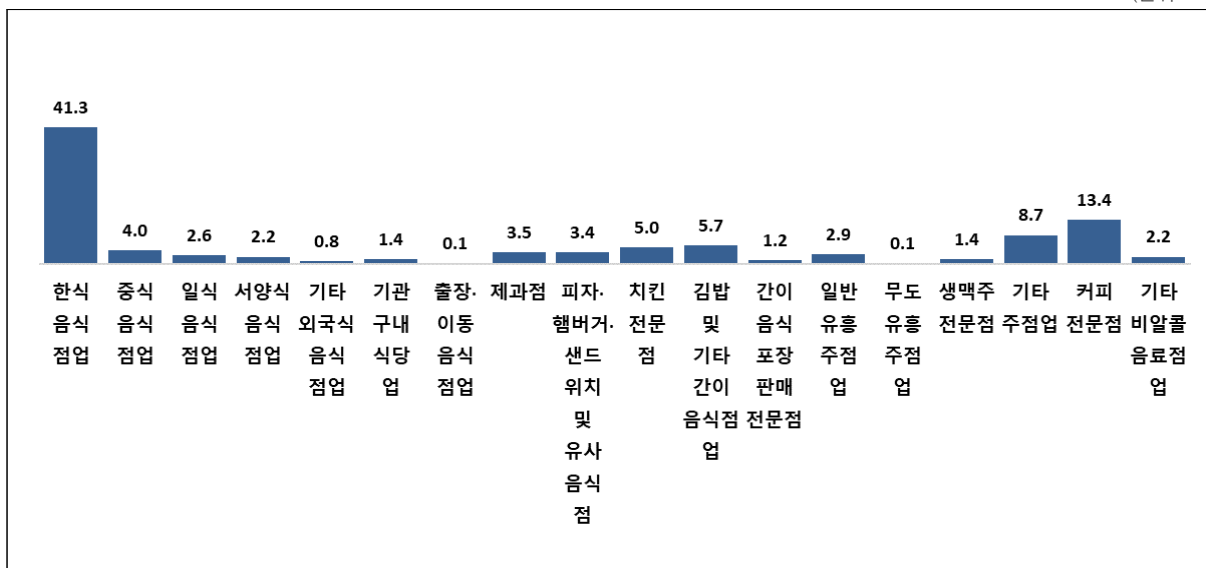
1. 사업자 정보

1) 음식점 업종

- 외식업체의 업종 분포는 한식 음식점업이 41.3%로 가장 많고, 커피 전문점(13.4%), 기타 주점업(8.7%),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5.7%), 치킨 전문점(5.0%), 중식 음식점업(4.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3.4%), 제과점(3.5%), 일반 유흥주점업(2.9%), 일식 음식점업(2.6%), 서양식 음식점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각 2.2%), 기관 구내식당업 및 생맥주 전문점(각 1.4%),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1.2%),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0.8%), 출장·이동음식점업 및 무도 유흥 주점업(각 0.1%) 등의 순서로 나타남.

〈그림 2-1〉 음식점 업종 분포

(단위: %)



- 일반음식점의 경우 한식 음식점업이 81.1%로 가장 높고,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 중에서는 커피 전문점(27.4%), 기타 주점업(17.8%),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11.6%), 치킨 전문점(10.2%), 제과점(7.1%),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7.0%), 일반 유흥주점업(5.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4.5%), 기관 구내식당업 및 생맥주 전문점(각 2.8%)의 순서로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한식 음식점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특히 경남권의 경우 한식 음식점업의 비중이 49.7%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도 모든 규모에서 한식 음식점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매출액 규모가 5억 원 이상 규모에서 한식 음식점업 비중(54.0%)이 가장 높음.

〈표 2-1-1〉 사업장 특성별 음식점 업종 분포(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기관 구내 식당업	출장 및 이동음식 점업	제과점업
전체			3,138	41.3	4.0	2.6	2.2	0.8	1.4	0.1	3.5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81.1	7.9	5.2	4.3	1.5	0.0	0.0	0.0
		한식	1,091	100.0	0.0	0.0	0.0	0.0	0.0	0.0	0.0
		중식	158	0.0	100.0	0.0	0.0	0.0	0.0	0.0	0.0
		일식	117	0.0	0.0	100.0	0.0	0.0	0.0	0.0	0.0
		서양식	118	0.0	0.0	0.0	100.0	0.0	0.0	0.0	0.0
		기타 외국식	72	0.0	0.0	0.0	0.0	100.0	0.0	0.0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0.0	0.0	0.0	0.0	0.0	2.8	0.2	7.1
		기관 구내식당업	78	0.0	0.0	0.0	0.0	0.0	100.0	0.0	0.0
		출장·이동음식점업	78	0.0	0.0	0.0	0.0	0.0	0.0	100.0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0.0	0.0	0.0	0.0	0.0	0.0	100.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0.0	0.0	0.0	0.0	0.0	0.0	0.0
			치킨 전문점	172	0.0	0.0	0.0	0.0	0.0	0.0	0.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0.0	0.0	0.0	0.0	0.0	0.0	0.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0.0	0.0	0.0	0.0	0.0	0.0	0.0
		주점업	318	0.0	0.0	0.0	0.0	0.0	0.0	0.0	0.0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0.0	0.0	0.0	0.0	0.0	0.0	0.0	0.0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26.0	1.8	2.0	2.8	1.4	1.3	0.0	5.3
	비프랜차이즈		2,114	46.9	4.8	2.9	2.0	0.6	1.4	0.1	2.8
지역	서울권		491	31.2	3.8	2.7	2.8	0.5	0.3	0.2	3.7
	수도권		595	29.2	2.9	3.7	3.0	1.8	3.4	0.1	2.4
	충청권		581	42.7	5.2	1.9	2.6	0.9	1.7	0.1	2.3
	호남권		467	48.5	4.3	3.3	1.2	0.2	0.5	0.1	3.7
	경남권		611	49.7	4.6	2.4	1.8	0.3	0.6	0.0	4.3
	경북권		393	47.2	2.9	1.6	1.5	0.9	1.6	0.3	5.0
매 출 액	5천만 원 미만		92	37.1	0.7	1.9	1.0	0.0	0.4	0.1	3.4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31.6	1.5	1.1	1.5	0.1	0.7	0.1	4.7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42.3	4.8	2.7	2.4	1.0	1.4	0.1	3.1
	5억 원 이상		446	54.0	3.8	5.2	1.9	0.5	2.8	0.4	4.5

〈표 2-1-1〉 사업장 특성별 음식점 업종 분포(전체) (계속)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주점업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전체			3,138	3.4	5.0	5.7	1.2	2.9	0.1	1.4	8.7	13.4	2.2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한식	1,09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중식	15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일식	11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서양식	11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외국식	7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7.0	10.2	11.6	2.5	5.9	0.3	2.8	17.8	27.4	4.5
		기관 구내식당업	7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출장·이동음식점업	7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0.0	0.0	0.0	0.0	0.0	0.0	0.0	0.0	0.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치킨 전문점	172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주점업	318	0.0	0.0	0.0	0.0	22.1	1.0	10.5	66.4	0.0	0.0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0.0	0.0	0.0	0.0	0.0	0.0	0.0	0.0	86.0	14.0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10.6	13.1	8.4	2.2	0.0	0.0	2.1	5.2	15.5	2.2
	비프랜차이즈		2,114	0.8	2.1	4.7	0.9	4.0	0.2	1.1	10.0	12.7	2.2
지역	서울권		491	4.6	3.1	6.3	1.7	0.6	0.1	2.0	16.3	16.5	3.7
	수도권		595	2.8	6.1	4.0	1.4	7.5	0.3	3.3	8.3	17.3	2.6
	충청권		581	3.3	8.1	6.6	0.8	2.1	0.2	1.3	7.9	11.8	0.5
	호남권		467	3.1	4.0	2.4	1.1	0.8	0.1	0.6	7.0	17.0	2.1
	경남권		611	3.4	4.8	8.4	1.5	0.7	0.0	0.8	8.9	7.0	0.8
	경북권		393	3.4	2.9	6.5	0.8	6.3	0.0	0.0	2.8	11.5	4.6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0.0	0.0	10.2	0.8	1.4	0.2	1.0	18.6	18.8	4.4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2.2	3.1	6.6	2.0	5.2	0.3	1.3	10.3	22.2	5.4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3.6	5.7	5.6	1.1	2.6	0.1	1.4	8.5	11.9	1.6
	5억 원 이상		446	5.4	4.9	2.3	1.1	1.4	0.1	1.5	3.1	6.8	0.2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업종은 한식 음식점업(26.0%), 커피 전문점(15.5%), 치킨 전문점(13.1%),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10.6%),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8.4%), 제과점(5.3%), 기타 주점업(5.2%), 서양식 음식점업(2.8%),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각 2.2%) 등의 순으로 파악됨.
- 서울권과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한식 음식점업 비중이 가장 높음.
- 매출액 규모 5천만 원 미만은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5천만 원~1억 원 미만은 제과점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1억 원~5억 원 미만과 5억 원 이상은 한식 음식점업의 비중이 가장 높음.

〈표 2-1-2〉 사업장 특성별 음식점 업종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 수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기관 구내 식당업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제과점업	
전체			1,024	26.0	1.8	2.0	2.8	1.4	1.3	0.0	5.3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76.5	5.4	5.8	8.3	4.0	0.0	0.0	0.0	
		한식	197	100.0	0.0	0.0	0.0	0.0	0.0	0.0	0.0	
		중식	23	0.0	100.0	0.0	0.0	0.0	0.0	0.0	0.0	
		일식	29	0.0	0.0	100.0	0.0	0.0	0.0	0.0	0.0	
		서양식	46	0.0	0.0	0.0	100.0	0.0	0.0	0.0	0.0	
		기타 외국식	36	0.0	0.0	0.0	0.0	100.0	0.0	0.0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0.0	0.0	0.0	0.0	0.0	1.9	0.1	8.0	
		기관 구내식당업	21	0.0	0.0	0.0	0.0	0.0	100.0	0.0	0.0	
		출장·이동음식점업	5	0.0	0.0	0.0	0.0	0.0	0.0	100.0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0.0	0.0	0.0	0.0	0.0	0.0	0.0	100.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0.0	0.0	0.0	0.0	0.0	0.0	0.0	0.0
			치킨 전문점	127	0.0	0.0	0.0	0.0	0.0	0.0	0.0	0.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0.0	0.0	0.0	0.0	0.0	0.0	0.0	0.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0.0	0.0	0.0	0.0	0.0	0.0	0.0	0.0
		주점업	69	0.0	0.0	0.0	0.0	0.0	0.0	0.0	0.0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0.0	0.0	0.0	0.0	0.0	0.0	0.0	0.0	
지역	서울권	166	12.1	1.9	1.2	3.2	0.5	0.0	0.2	7.7		
	수도권	233	25.2	1.5	2.4	3.0	4.2	3.6	0.0	2.7		
	충청권	165	21.2	2.4	1.4	3.8	1.0	1.4	0.0	4.3		
	호남권	118	18.2	3.2	0.6	1.3	0.4	0.0	0.0	4.7		
	경남권	258	40.3	0.8	3.1	2.2	0.5	0.8	0.0	6.0		
	경북권	84	28.1	2.6	1.9	4.1	0.1	0.0	0.1	9.3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0.0	0.0	0.0	0.0	0.0	0.0	0.0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12.3	0.0	1.0	2.0	1.2	1.4	0.0	14.3		
	1억 원~5억 원 미만	721	25.1	1.9	1.7	3.0	1.5	1.0	0.0	4.1		
	5억 원 이상	230	39.0	2.5	4.3	2.4	0.9	2.8	0.3	7.3		

〈표 2-1-2〉 사업장 특성별 음식점 업종 분포(프랜차이즈) (계속)

(단위: 개소, %)

구분			사례 수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일반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전체			1,024	10.6	13.1	8.4	2.2	0.0	2.1	5.2	15.5	2.2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한식	197	0.0	0.0	0.0	0.0	0.0	0.0	0.0	0.0	0.0
		중식	23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일식	29	0.0	0.0	0.0	0.0	0.0	0.0	0.0	0.0	0.0
		서양식	46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외국식	36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16.1	19.9	12.8	3.3	0.0	3.2	7.9	23.4	3.4
		기관 구내식당업	21	0.0	0.0	0.0	0.0	0.0	0.0	0.0	0.0	0.0
		출장·이동음식점업	5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0.0	0.0	0.0	0.0	0.0	0.0	0.0	0.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100.0	0.0	0.0	0.0	0.0	0.0	0.0	0.0
			치킨 전문점	127	0.0	100.0	0.0	0.0	0.0	0.0	0.0	0.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0.0	0.0	100.0	0.0	0.0	0.0	0.0	0.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0.0	0.0	0.0	100.0	0.0	0.0	0.0	0.0
		주점업	69	0.0	0.0	0.0	0.0	0.2	28.7	71.1	0.0	0.0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0.0	0.0	0.0	0.0	0.0	0.0	0.0	87.4	12.6
지역	서울권		166	17.0	7.6	10.6	2.3	0.0	2.5	6.5	20.5	6.4
	수도권		233	5.3	12.6	7.7	3.1	0.0	4.0	3.8	19.0	1.8
	충청권		165	11.6	20.3	6.9	2.6	0.0	2.3	8.3	11.1	1.3
	호남권		118	15.8	16.4	8.4	1.6	0.0	1.3	5.0	21.4	1.7
	경남권		258	7.0	11.5	8.4	1.7	0.1	1.2	5.3	10.7	0.3
	경북권		84	15.9	9.3	10.3	1.0	0.0	0.0	0.0	12.1	5.2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14.0	6.6	10.4	8.1	0.0	1.1	8.1	11.6	7.9
	1억 원~5억 원 미만		721	10.3	14.9	8.6	1.8	0.0	2.1	5.4	16.7	2.0
	5억 원 이상		230	10.8	7.5	3.1	1.4	0.1	2.6	3.2	11.4	0.5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업종은 한식 음식점업(46.9%), 커피 전문점(12.7%), 기타 주점업(10.0%), 중식 음식점업(4.8%),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4.7%), 일반 유흥주점업(4.0%), 일식 음식점업(2.9%), 제과점업(2.8%),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2.2%), 치킨 전문점(2.1%), 서양식 음식점업(2.0%)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한식 음식점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특히 호남권의 경우 한식 음식점업(55.9%)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도 한식 음식점업의 비중이 가장 높음.

〈표 2-1-3〉 사업장 특성별 음식점 업종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기관 구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제과점업
전체			2,114	46.9	4.8	2.9	2.0	0.6	1.4	0.1	2.8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82.1	8.5	5.0	3.4	1.0	0.0	0.0	0.0
		한식	894	100.0	0.0	0.0	0.0	0.0	0.0	0.0	0.0
		중식	135	0.0	100.0	0.0	0.0	0.0	0.0	0.0	0.0
		일식	88	0.0	0.0	100.0	0.0	0.0	0.0	0.0	0.0
		서양식	72	0.0	0.0	0.0	100.0	0.0	0.0	0.0	0.0
		기타 외국식	36	0.0	0.0	0.0	0.0	100.0	0.0	0.0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0.0	0.0	0.0	0.0	0.0	3.3	0.3	6.6
		기관 구내식당업	57	0.0	0.0	0.0	0.0	0.0	100.0	0.0	0.0
		출장·이동음식점업	73	0.0	0.0	0.0	0.0	0.0	0.0	100.0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0.0	0.0	0.0	0.0	0.0	0.0	100.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0.0	0.0	0.0	0.0	0.0	0.0	0.0
			치킨 전문점	45	0.0	0.0	0.0	0.0	0.0	0.0	0.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0.0	0.0	0.0	0.0	0.0	0.0	0.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0.0	0.0	0.0	0.0	0.0	0.0	0.0
		주점업	249	0.0	0.0	0.0	0.0	0.0	0.0	0.0	0.0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0.0	0.0	0.0	0.0	0.0	0.0	0.0	0.0
지역	서울권		325	37.8	4.4	3.2	2.7	0.6	0.4	0.2	2.3
	수도권		362	31.1	3.6	4.4	3.0	0.6	3.2	0.1	2.3
	충청권		416	49.9	6.1	2.0	2.2	0.9	1.8	0.1	1.7
	호남권		349	55.9	4.6	3.9	1.2	0.2	0.6	0.1	3.4
	경남권		353	55.2	6.9	2.0	1.7	0.2	0.4	0.0	3.2
	경북권		309	50.9	3.0	1.6	1.0	1.1	1.9	0.4	4.2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38.4	0.7	1.9	1.0	0.0	0.4	0.1	3.5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34.4	1.7	1.1	1.4	0.0	0.6	0.2	3.4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49.3	6.0	3.2	2.2	0.8	1.6	0.1	2.7
	5억 원 이상		216	66.8	4.9	6.0	1.4	0.2	2.9	0.5	2.2

〈표 2-1-3〉 사업장 특성별 음식점 업종 분포(비프랜차이즈) (계속)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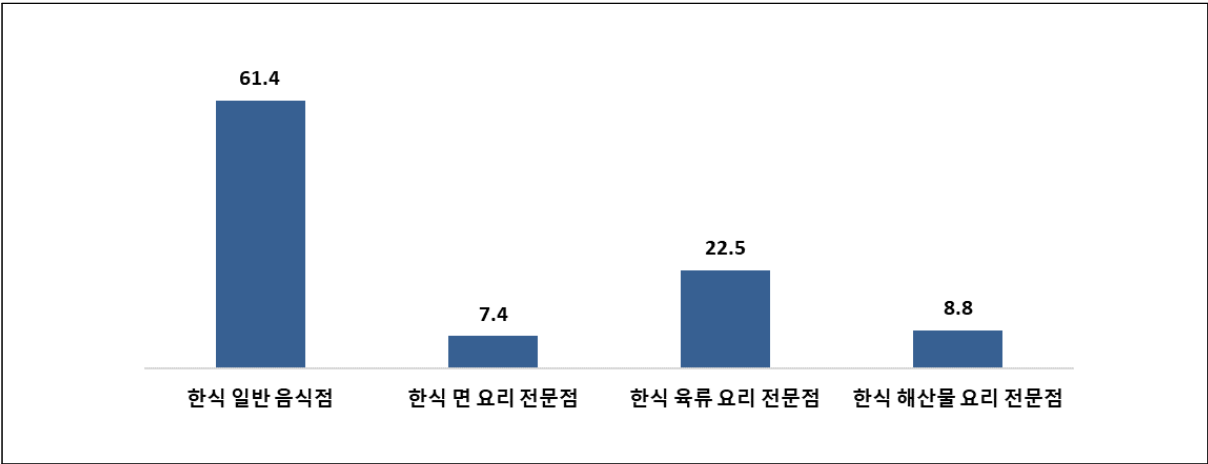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주점업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전체			2,114	0.8	2.1	4.7	0.9	4.0	0.2	1.1	10.0	12.7	2.2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한식	89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중식	13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일식	8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서양식	7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외국식	3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1.8	4.8	11.0	2.1	9.2	0.4	2.6	23.3	29.6	5.1
		기관 구내식당업	5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출장·이동음식점업	7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0.0	0.0	0.0	0.0	0.0	0.0	0.0	0.0	0.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치킨 전문점	45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주점업	249	0.0	0.0	0.0	0.0	26.0	1.2	7.3	65.5	0.0	0.0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0.0	0.0	0.0	0.0	0.0	0.0	0.0	0.0	85.4	14.6
지역	서울권		325	0.3	1.6	4.8	1.5	0.9	0.1	1.8	19.7	15.1	2.8
	수도권		362	1.6	3.1	2.3	0.6	11.0	0.5	2.9	10.4	16.4	2.9
	충청권		416	0.6	4.0	6.5	0.2	2.8	0.2	1.0	7.8	12.0	0.2
	호남권		349	0.0	1.0	0.9	0.9	1.0	0.2	0.4	7.5	16.0	2.2
	경남권		353	1.3	0.8	8.4	1.4	1.1	0.1	0.6	11.1	4.7	1.0
	경북권		309	1.0	1.7	5.7	0.8	7.5	0.0	0.0	3.4	11.4	4.5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0.0	0.0	7.1	0.8	1.4	0.2	1.0	19.3	19.4	4.5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0.5	2.6	6.1	1.1	6.0	0.3	1.3	10.6	23.7	5.0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0.9	2.0	4.4	0.8	3.7	0.1	1.1	9.7	9.9	1.4
	5억 원 이상		216	0.8	2.7	1.7	0.8	2.5	0.2	0.5	3.0	2.9	0.0

1-2) 음식점 업종 - 한식 분포

- 한식 세분류별 업종 분포는 한식 일반음식점이 61.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22.5%),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8.8%), 한식 면 요리 전문점(7.4%)의 순임.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한식 일반음식점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경남권(67.4%)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임.
- 매출액 규모별로는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한식 일반음식점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2-2〉 음식점 업종 - 한식 분포

(Base: 한식, 단위: %)



〈표 2-2-1〉 사업장 특성별 한식(세분류) 분포(전체)

(Base: 한식,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한식 일반음식점업	한식 면 요리 전문점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전체		1,091	61.4	7.4	22.5	8.8
일반 음식점	소계	1,091	61.4	7.4	22.5	8.8
	한식	1,091	61.4	7.4	22.5	8.8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97	59.9	4.6	31.8	3.7
	비프랜차이즈	894	61.7	8.0	20.6	9.8
지역	서울권	134	61.1	7.1	22.2	9.7
	수도권	151	54.7	8.9	28.5	7.8
	충청권	216	57.5	13.6	18.4	10.5
	호남권	198	63.3	3.1	24.7	8.9
	경남권	242	67.4	4.1	20.7	7.9
	경북권	150	60.2	9.5	22.4	7.8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79.7	10.2	2.3	7.8
	5천만 원~1억 원 미만	121	72.8	13.2	9.8	4.2
	1억 원~5억 원 미만	770	60.4	6.3	23.9	9.4
	5억 원 이상	171	48.9	7.1	33.8	10.3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한식 세분류별 업종 분포는 한식 일반음식점(59.9%),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31.8%), 한식 면 요리 전문점(4.6%),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3.7%)의 순서로 나타남.

- 모든 지역에서 한식 일반음식점 비중이 높고, 특히 경북권(76.5%)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1억 원 미만에서 한식 일반음식점업 비율이 가장 높음.

〈표 2-2-2〉 사업장 특성별 한식(세분류) 분포(프랜차이즈)

(Base: 한식,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한식 일반음식점업	한식 면 요리 전문점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전체		197	59.9	4.6	31.8	3.7
일반 음식점	소계	197	59.9	4.6	31.8	3.7
	한식	197	59.9	4.6	31.8	3.7
지역	서울권	17	70.8	12.4	13.3	3.5
	수도권	42	49.7	2.6	44.0	3.7
	충청권	25	58.1	8.1	31.3	2.5
	호남권	19	63.5	3.5	32.3	0.7
	경남권	77	59.9	1.4	33.2	5.5
	경북권	17	76.5	14.7	8.8	0.0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5	94.4	5.6	0.0	0.0
	1억 원~5억 원 미만	131	63.0	4.4	28.2	4.4
	5억 원 이상	61	42.8	4.9	50.3	2.0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한식 세분류별 업종 분포는 한식 일반음식점(61.7%),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20.6%),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9.8%), 한식 면 요리 전문점(8.0%)의 순서로 나타남.

- 모든 지역에서 한식 일반음식점 비중이 높고, 특히 경남권(70.6%)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한식 일반음식점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2-3〉 사업장 특성별 한식(세분류) 분포(비프랜차이즈)

(Base: 한식,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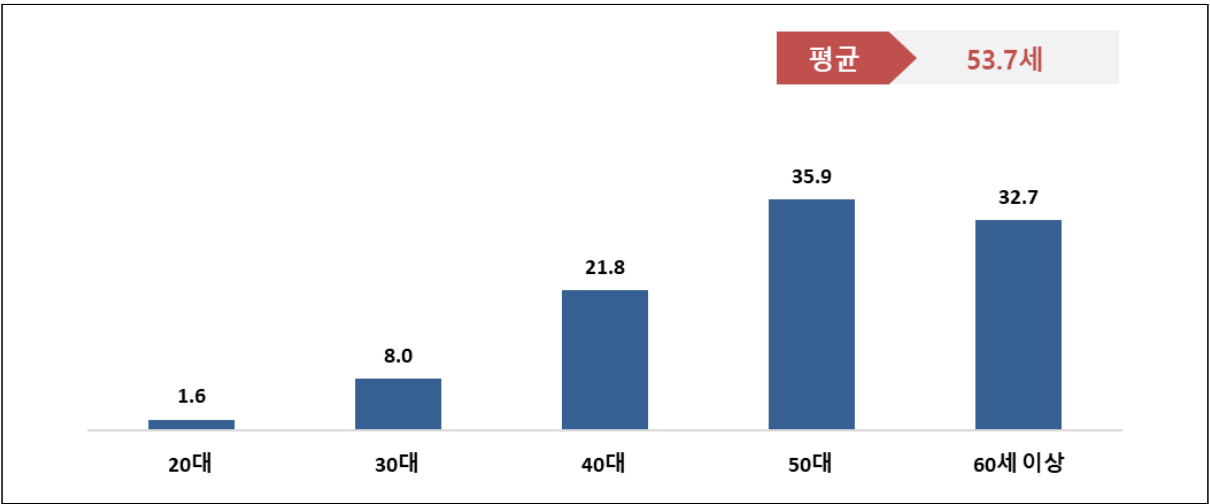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한식 일반음식점업	한식 면 요리 전문점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전체		894	61.7	8.0	20.6	9.8
일반 음식점	소계	894	61.7	8.0	20.6	9.8
	한식	894	61.7	8.0	20.6	9.8
지역	서울권	117	60.0	6.5	23.2	10.4
	수도권	109	56.6	11.3	22.7	9.4
	충청권	191	57.4	14.4	16.5	11.7
	호남권	179	63.2	3.1	24.1	9.6
	경남권	165	70.6	5.2	15.4	8.9
	경북권	133	58.5	8.9	23.9	8.6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79.7	10.2	2.3	7.8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6	71.7	13.6	10.3	4.4
	1억 원~5억 원 미만	639	59.8	6.7	23.1	10.4
	5억 원 이상	110	51.8	8.2	25.6	14.4

2) 사업주 연령

○ 사업주 연령은 평균 53.7세인 가운데, 연령대 분포별로는 50대가 3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60세 이상(32.7%), 40대(21.8%), 30대(8.0%), 20대(1.6%) 순서임.

〈그림 2-3〉 사업주 연령별 분포

(단위: %)



○ 일반음식점의 경우 사업주 연령이 전체 평균(53.7세)보다 다소 높은 55.8세로 나타남. 연령대 분포별로는 60대 이상이 42.1%, 50대가 34.9%, 40대(16.7%), 30대(5.1%), 20대(1.3%) 등임.

- 세부 업종별로는 한식(56.7세)과 중식(54.9세)의 사업주 연령이 비교적 높은 반면, 서양식(49.0세), 기타 외국식(47.1세)의 사업주 연령은 상대적으로 낮음.

- 일반음식점 외 업종의 사업주 연령은 평균 51.5세로, 전체 평균보다 낮음. 연령대 분포별로는 50대 비중이 37.0%, 40대(27.1%), 60세 이상(22.9%), 30대(11.1%), 20대(1.9%)의 순서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는 출장·이동음식점업(57.0세), 기관 구내식당업(56.8세), 주점업(54.5세),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54.2세), 치킨 전문점(52.1세)의 사업주 연령이 비교적 높은 반면, 제과점(51.3세),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50.5세), 비알코올 음료점업(47.4세) 등의 업종은 사업주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음.
- 지역별로는 경북권(55.7세)의 사업주 연령이 높은 반면, 수도권(52.5세)은 가장 낮음.
- 대체로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사업주 연령이 높으며, 5천만 원 미만 외식업체의 사업주 연령이 평균 59.9세로 가장 높음.

〈표 2-3-1〉 사업장 특성별 사업주 연령 분포(전체)

(단위: 개소, %, 세)

구분			사례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평균	
전체			3,138	1.6	8.0	21.8	35.9	32.7	53.7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1.3	5.1	16.7	34.9	42.1	55.8	
		한식	1,091	1.3	4.0	14.2	33.9	46.6	56.7	
		중식	158	0.9	5.1	16.6	43.4	33.9	54.9	
		일식	117	0.7	9.9	31.6	40.0	17.7	50.8	
		서양식	118	1.7	12.3	41.0	29.7	15.3	49.0	
		기타 외국식	72	1.9	21.3	31.9	40.5	4.4	47.1	
		소계	1,582	1.9	11.1	27.1	37.0	22.9	51.5	
	일반 음식점 외	기관 구내식당업		78	4.3	8.1	6.3	27.5	53.7	56.8
		출장·이동음식점업		78	1.2	4.8	13.2	34.1	46.7	57.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3.3	9.4	29.5	34.1	23.7	51.3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0.8	11.6	32.1	42.1	13.4	50.5
			치킨 전문점	172	2.7	4.4	26.1	45.7	21.1	52.1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1.2	4.4	20.6	42.0	31.9	54.2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5.1	5.6	19.7	33.8	35.9	53.8
		주점업		318	0.5	6.8	19.1	44.5	29.1	54.5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2.6	20.2	37.4	26.8	13.1	47.4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3.5	9.9	29.5	38.9	18.2	49.9	
	비프랜차이즈		2,114	0.9	7.3	19.0	34.8	38.0	55.0	
지역	서울권		491	0.5	11.1	25.0	36.4	27.1	53.1	
	수도권		595	2.2	8.2	27.1	37.4	25.1	52.5	
	충청권		581	0.2	2.8	22.3	46.4	28.3	54.8	
	호남권		467	3.6	10.2	18.2	32.7	35.3	53.5	
	경남권		611	1.3	8.4	22.1	27.7	40.4	53.1	
	경북권		393	1.8	7.9	13.4	35.2	41.8	55.7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1.7	2.8	13.5	14.6	67.3	59.9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2.0	9.2	16.1	32.1	40.7	55.3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1.5	7.9	23.5	37.8	29.3	53.1	
	5억 원 이상		446	1.6	9.1	21.7	37.3	30.4	52.8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사업주 연령은 평균 49.9세로 전체 평균(53.7세)보다 낮음.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경우 사업주 연령 평균이 49.9세로 조사됨. 세부 업종별로는 한식(50.6세)의 사업주 연령이 가장 높고, 일식(45.5세)의 사업주 연령이 가장 낮음.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업종의 사업주 연령은 평균 50.0세로 나타났으며, 세부 업종별로는 주점업(52.0세)과 제과점(51.7세)이 가장 높은 반면, 비알코올 음료점업(46.4세)의 사업주 연령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됨.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경우 지역별로는 충청권(51.9세)의 사업주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고,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사업주 연령이 평균 52.4세로 가장 높음.

〈표 2-3-2〉 사업장 특성별 사업주 연령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세)

구분			사례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평균
전체			1,024	3.5	9.9	29.5	38.9	18.2	49.9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4.9	9.8	25.5	38.5	21.2	49.9
		한식	197	5.1	8.4	22.6	39.4	24.6	50.6
		중식	23	7.6	13.2	14.1	57.4	7.7	48.8
		일식	29	3.6	23.5	37.0	21.9	14.1	45.5
		서양식	46	2.8	8.7	50.9	26.5	11.1	47.6
		기타 외국식	36	4.0	15.5	28.6	45.4	6.5	48.5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2.8	9.9	31.5	39.0	16.7	50.0
		기관 구내식당업	21	8.9	20.9	10.5	42.7	17.0	48.9
		출장·이동음식점업	5	0.0	0.0	77.6	22.4	0.0	48.8
		제과점	82	1.5	7.7	25.2	40.3	25.3	51.7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1.0	9.2	29.4	48.1	12.4	51.2
		치킨 전문점	127	2.8	4.5	27.5	42.1	23.1	51.6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2.1	5.3	30.2	43.8	18.6	51.2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10.7	3.5	33.3	30.2	22.3	49.0
		주점업	69	0.0	7.9	29.3	41.2	21.5	52.0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4.4	18.1	40.4	28.6	8.4	46.4
지역	서울권		166	1.9	7.6	28.0	46.8	15.7	51.6
	수도권		233	4.0	9.7	26.8	37.8	21.6	51.4
	충청권		165	0.9	3.2	33.0	43.9	18.9	51.9
	호남권		118	10.9	12.2	29.0	37.0	10.9	46.4
	경남권		258	2.3	13.4	31.9	32.0	20.4	48.2
	경북권		84	3.0	13.5	24.4	42.7	16.4	50.6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21.3	0.0	0.0	50.0	28.7	52.4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4.9	8.1	28.4	29.3	29.2	51.8
	1억 원~5억 원 미만		721	3.3	10.0	31.3	38.3	17.0	49.6
	5억 원 이상		230	3.0	10.3	21.2	46.6	18.8	50.9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사업주 연령은 평균 55.0세임.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경우 사업주 연령이 평균 57.0세로 나타남. 세부 업종별로는 한식(57.9세)의 사업주 연령이 높은 반면, 기타 외국식(45.9세)의 사업주 연령은 낮음.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업종의 사업주 연령은 평균 52.4세임. 세부 업종별로는 기관 구내식당업(59.4세)의 사업주 연령이 높은 반면,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47.0세)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지역별로는 경북권(56.7세)의 사업주 연령이 비교적 높고,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사업주 연령이 평균 60.2세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2-3-3〉 사업장 특성별 사업주 연령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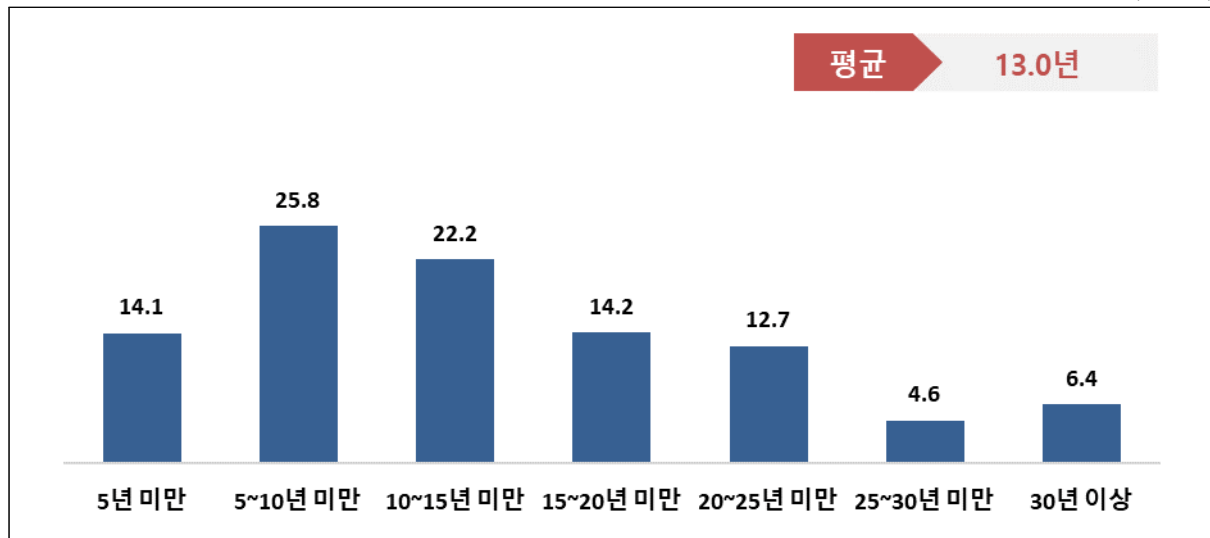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평균
전체			2,114	0.9	7.3	19.0	34.8	38.0	55.0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0.5	4.0	14.8	34.1	46.6	57.0
		한식	894	0.6	3.2	12.5	32.7	51.0	57.9
		중식	135	0.0	4.0	17.0	41.5	37.5	55.8
		일식	88	0.0	6.5	30.3	44.5	18.7	52.1
		서양식	72	1.1	14.2	35.8	31.4	17.5	49.7
		기타 외국식	36	0.0	26.3	34.8	36.3	2.6	45.9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1.4	11.7	24.6	35.9	26.4	52.4
		기관 구내식당업	57	2.9	4.0	4.9	22.5	65.7	59.4
		출장·이동음식점업	73	1.3	5.3	6.4	35.4	51.6	57.8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4.6	10.5	32.5	29.8	51.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0.0	23.4	45.3	12.8	47.0
			치킨 전문점	45	2.4	4.2	22.7	54.0	53.3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0.6	3.8	14.2	40.8	56.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0.0	7.4	7.5	37.1	58.0
		주점업	249	0.6	6.6	17.3	45.1	30.5	55.0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1.8	21.1	36.0	26.0	15.1	47.8
지역	서울권		325	0.0	12.3	24.0	32.8	31.0	53.6
	수도권		362	1.3	7.5	27.2	37.3	26.8	53.1
	충청권		416	0.0	2.6	18.7	47.2	31.5	55.8
	호남권		349	1.8	9.7	15.5	31.6	41.4	55.2
	경남권		353	0.8	5.6	16.4	25.1	52.2	55.9
	경북권		309	1.6	6.8	11.3	33.7	46.6	56.7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1.0	2.9	14.0	13.4	68.7	60.2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1.6	9.3	14.3	32.5	42.3	55.8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0.8	7.0	20.4	37.6	34.3	54.5
	5억 원 이상		216	0.3	8.0	22.0	29.4	40.2	54.5

3) 총 외식업 종사 기간

- 사업주(대표)의 총 외식업 종사 기간은 평균 13.0년으로 나타남. 종사 기간 분포별로는 5~10년 이하의 비중이 25.8%로 가장 높고, 10~15년 미만(22.2%), 15~20년 미만(14.2%), 5년 미만(14.1%), 20~25년 미만(12.7%) 등의 순임.

〈그림 2-4〉 총 외식업 종사 기간 분포

(단위: %)



- 일반음식점의 경우 총 외식업 종사 기간이 15.0년으로 전체 평균(13.0년)보다 길게 나타남. 종사 기간 분포별로는 10~15년 미만(22.0%), 5~10년 미만(21.6%), 20~25년 미만(17.3%), 15~20년 미만(15.0%), 30년 이상(9.5%) 등의 순서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는 중식(16.7년)과 한식(15.4년)에서 총 외식업 종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반면, 서양식(10.8년)과 기타 외국식(9.5년)의 총 외식업 종사 기간은 비교적 짧음.
- 일반음식점 외 업종의 사업주 총 외식업 종사 기간은 평균 10.9년으로 전체 평균(13.0년)보다 짧음. 종사 기간 분포별로는 5~10년 미만 (30.2%), 10~15년 미만(22.4%), 5년 미만(19.8%), 15~20년 미만 (13.3%)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는 출장·이동음식점업(13.6년), 기관 구내식당업(13.0년), 제과점 및 치킨 전문점(각 12.7년)의 평균 총 외식업 종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반면,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9.8년), 비알코올 음료점업(8.3년) 사업주의 평균 총 외식업 종사 기간은 비교적 짧음.
- 지역별로는 경북권(14.3년)의 사업주 총 외식업 종사 기간이 긴 반면, 수도권(10.9년)은 비교적 짧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14.7년) 외식업체의 평균 총 외식업 종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가장 긴 것으로 확인됨.

〈표 2-4-1〉 사업장 특성별 총 외식업 종사 기간 분포(전체)

(단위: 개소, %, 년)

구분			사례수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30년 미만	30년 이상	평균	
전체			3,138	14.1	25.8	22.2	14.2	12.7	4.6	6.4	13.0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8.7	21.6	22.0	15.0	17.3	6.0	9.5	15.0	
		한식	1,091	7.8	21.0	20.8	15.5	19.0	6.2	9.8	15.4	
		중식	158	7.6	19.0	21.7	12.1	15.4	8.6	15.6	16.7	
		일식	117	15.1	25.6	34.3	11.2	10.1	0.8	2.9	11.1	
		서양식	118	16.9	29.2	28.1	15.5	2.9	3.7	3.6	10.8	
		기타 외국식	72	16.0	35.8	27.1	17.8	1.4	1.9	0.0	9.5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19.8	30.2	22.4	13.3	7.8	3.2	3.3	10.9	
		기관 구내식당업	78	12.5	35.9	15.3	4.1	23.1	2.5	6.6	13.0	
		출장·이동음식점업	78	9.1	13.4	37.8	12.5	21.7	3.4	2.0	13.6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22.8	19.7	22.5	15.4	8.0	3.2	8.4	12.7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23.6	26.5	28.2	10.2	7.9	1.8	1.9	9.8
			치킨 전문점	172	23.2	19.1	19.4	15.3	12.1	5.1	5.8	12.7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16.8	23.1	25.8	16.6	11.9	3.7	2.1	11.8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18.4	25.4	26.7	11.8	9.9	5.1	2.8	11.4	
		주점업	318	7.4	31.8	26.7	18.2	7.7	5.3	3.0	12.5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29.4	38.3	17.4	8.6	3.5	0.8	2.0	8.3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22.5	27.0	21.8	13.0	9.9	3.4	2.4	10.7	
	비프랜차이즈		2,114	11.1	25.4	22.3	14.6	13.7	5.0	7.9	13.8	
지역	서울권		491	6.6	28.1	27.4	17.2	9.3	5.8	5.6	13.3	
	수도권		595	19.5	32.4	18.3	14.7	9.5	3.4	2.2	10.9	
	충청권		581	9.3	21.5	28.1	15.9	13.5	5.3	6.3	14.0	
	호남권		467	15.9	28.5	20.8	11.9	11.5	4.0	7.4	12.8	
	경남권		611	17.9	21.5	21.2	11.3	15.7	4.2	8.2	13.1	
	경북권		393	14.1	22.7	16.2	14.9	17.0	5.3	9.8	14.3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16.5	17.6	21.9	12.9	13.0	6.4	11.8	14.7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13.4	27.8	21.0	16.1	11.5	3.5	6.7	12.8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14.2	25.8	23.0	14.2	12.6	4.3	5.9	12.8	
	5억 원 이상		446	13.3	26.3	17.7	10.4	15.7	8.9	7.7	14.0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사업주의 총 외식업 종사 기간은 평균 10.7년임.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경우 총 외식업 종사 기간이 12.2년으로 나타남. 세부 업종별로는 서양식(12.8년)의 총 외식업 종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반면, 일식(8.9년)은 짧음.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업종의 사업주 총 외식업 종사 기간은 평균 10.0년임. 세부 업종별로는 주점업(12.2년)과 치킨 전문점(12.1년), 제과점(11.6년)의 총 외식업 종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반면,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8.7년)과 비알코올 음료점업(7.0년)은 짧은 것으로 파악됨.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경우 지역별로는 충청권(12.3년)의 총 외식업 종사 기간이 비교적 길고,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11.5년)인 외식업체가 가장 길게 나타남.

〈표 2-4-2〉 사업장 특성별 총 외식업 종사 기간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년)

구분			사례 수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30년 미만	30년 이상	평균
전체			1,024	22.5	27.0	21.8	13.0	9.9	3.4	2.4	10.7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14.7	27.6	21.4	13.7	14.5	4.3	3.7	12.2
		한식	197	13.7	26.4	21.1	13.5	17.1	4.3	3.9	12.6
		중식	23	9.4	37.1	32.9	10.3	3.9	6.5	0.0	10.5
		일식	29	26.1	29.9	29.9	1.8	12.4	0.0	0.0	8.9
		서양식	46	17.1	28.4	13.7	20.7	5.6	6.0	8.4	12.8
		기타 외국식	36	18.8	33.4	17.0	25.4	1.5	4.0	0.0	10.2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26.5	26.6	21.9	12.6	7.6	3.0	1.7	10.0
		기관 구내식당업	21	19.6	47.2	10.5	12.0	6.4	0.0	4.3	9.5
		출장·이동음식점업	5	77.6	7.5	14.9	0.0	0.0	0.0	0.0	3.8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28.9	11.0	21.5	22.4	8.8	4.0	11.6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20.4	29.2	30.0	9.6	8.6	1.3	9.7
			치킨 전문점	127	28.4	15.5	18.3	16.0	10.6	5.4	12.1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21.2	24.9	24.3	17.7	6.9	5.0	10.6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30.9	25.5	24.4	13.4	0.0	5.4	8.7
		주점업	69	9.7	27.8	30.1	14.3	14.6	3.7	0.0	12.2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37.5	37.1	16.0	5.9	2.7	0.5	0.2	7.0
지역	서울권		166	8.5	30.5	27.6	15.7	11.6	4.4	1.7	11.9
	수도권		233	25.9	29.0	17.9	13.4	10.5	2.8	0.5	10.1
	충청권		165	18.4	22.0	25.9	13.7	8.9	6.0	5.1	12.3
	호남권		118	25.9	38.2	21.4	5.8	5.0	2.2	1.5	8.9
	경남권		258	26.2	24.4	21.4	12.4	9.9	2.5	3.1	10.3
	경북권		84	30.6	15.9	13.8	18.7	15.8	2.6	2.6	11.1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0.0	71.3	0.0	0.0	28.7	0.0	0.0	10.2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26.9	22.6	25.7	13.9	9.2	0.0	1.7	10.3
	1억 원~5억 원 미만		721	22.8	26.1	22.5	13.2	9.7	3.7	2.0	10.6
	5억 원 이상		230	19.1	32.5	16.6	11.9	10.7	4.1	5.0	11.5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사업주 총 외식업 종사 기간은 평균 13.8년임.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경우 총 외식업 종사 기간이 평균 15.6년으로 나타남. 세부 업종별로는 중식(17.5년)의 총 외식업 종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반면, 기타 외국식(8.9년)은 짧은 것으로 조사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업종의 사업주 총 외식업 종사 기간은 평균 11.4년임. 세부 업종별로는 출장·이동음식점업(14.6년)과 기관 구내식당업(14.1년)이 길고,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9.9년)과 비알코올 음료점업(8.8년)은 비교적 짧음.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경우 지역별로는 경북권(15.0년)의 총 외식업 종사 기간이 길고,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인 업체(16.1년)가 비교적 길게 나타남.

〈표 2-4-3〉 사업장 특성별 총 외식업 종사 기간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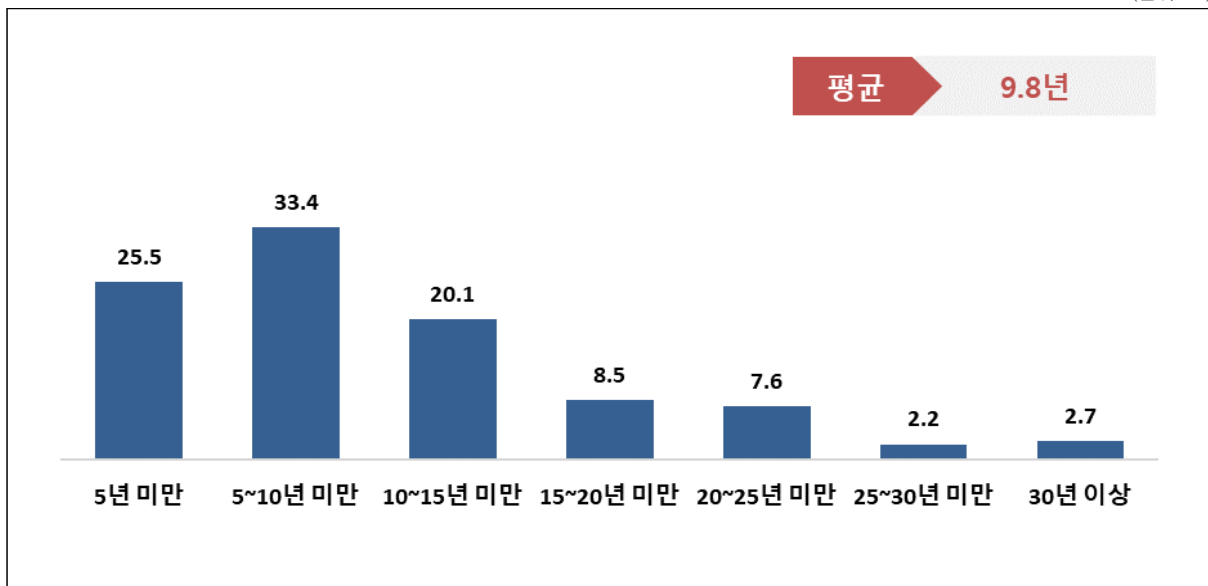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30년 미만	30년 이상	평균
전체			2,114	11.1	25.4	22.3	14.6	13.7	5.0	7.9	13.8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7.4	20.3	22.1	15.3	17.9	6.3	10.7	15.6
		한식	894	6.6	19.9	20.7	15.8	19.4	6.6	11.0	16.0
		중식	135	7.3	16.5	20.2	12.3	16.9	8.9	17.8	17.5
		일식	88	12.3	24.5	35.4	13.6	9.5	1.0	3.7	11.6
		서양식	72	16.9	29.6	35.6	12.8	1.5	2.5	1.1	9.7
		기타 외국식	36	13.5	38.0	35.9	11.3	1.3	0.0	0.0	8.9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16.0	32.2	22.6	13.7	8.0	3.3	4.1	11.4
		기관 구내식당업	57	10.2	32.2	16.8	1.6	28.6	3.3	7.3	14.1
		출장·이동음식점업	73	1.9	14.1	40.2	13.8	24.0	3.8	2.2	14.6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18.5	25.7	23.1	10.6	7.4	2.7	11.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39.2	13.3	19.3	13.1	4.5	4.2	6.4
			치킨 전문점	45	11.2	27.4	22.0	13.7	15.4	4.4	5.8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13.9	21.9	26.7	15.9	15.2	2.9	3.5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7.2	25.3	28.8	10.4	18.7	4.8	4.8
		주점업	249	7.0	32.5	26.1	18.8	6.5	5.6	3.5	12.5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25.9	38.8	17.9	9.8	3.9	0.9	2.8	8.8
지역	서울권		325	6.0	27.3	27.3	17.7	8.6	6.2	7.0	13.7
	수도권		362	16.4	34.1	18.4	15.4	9.0	3.7	3.0	11.3
	충청권		416	6.3	21.3	28.9	16.6	15.1	5.1	6.8	14.5
	호남권		349	13.4	26.1	20.7	13.4	13.1	4.5	8.8	13.7
	경남권		353	13.0	19.9	21.0	10.6	19.2	5.1	11.2	14.8
	경북권		309	11.0	24.0	16.6	14.2	17.2	5.9	11.1	15.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17.1	15.7	22.6	13.3	12.4	6.7	12.2	14.9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11.5	28.5	20.3	16.5	11.9	4.0	7.4	13.2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10.7	25.6	23.2	14.7	13.7	4.5	7.5	13.7
	5억 원 이상		216	8.4	21.1	18.7	9.1	19.8	12.9	10.0	16.1

4) 현재 업종 종사 기간

- 현재 업종 종사 기간은 평균 9.8년임. 현재 업종 종사 기간 분포별로는 5~10년 미만이 33.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년 미만(25.5%), 10~15년 미만(20.1%), 15~20년 미만(8.5%), 20~25년 미만(7.6%), 30년 이상(2.7%), 25~30년 미만(2.2%) 등의 순서로 나타남.

〈그림 2-5〉 현재 업종 종사 기간 분포

(단위: %)



- 일반음식점의 현재 업종 종사 기간은 평균 11.2년임. 현재 업종 종사 기간 분포별로는 5~10년 미만이 3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15년 미만(22.1%), 5년 미만(19.9%), 20~25년 미만(10.8%), 15~20년 미만(9.2%), 30년 이상(4.3%), 25~30년 미만(3.1%) 등의 순임.
 - 세부 업종별로는 중식(12.9년), 한식(11.5년)의 현재 업종 종사 기간이 비교적 긴 반면, 일식(7.9년), 서양식(7.4년), 기타 외국식(5.8년)은 상대적으로 짧음.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현재 업종 종사 기간은 평균 8.2년임. 현재 업종 종사 기간 분포별로는 5~10년 미만(36.3%)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년 미만(31.2%), 10~15년 미만(18.0%), 15~20년 미만(7.7%), 20~25년 미만(4.3%), 25~30년 미만(1.4%), 30년 이상(1.1%)의 순서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 기관 구내식당업(10.1년)과 제과점(10.0년)의 현재 업종 종사 기간이 비교적 긴 반면,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8.0년),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7.8년), 비알코올 음료점업(6.2년)은 상대적으로 짧음.
- 지역별로는 충청권(11.0년)의 현재 업종 종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경남권(9.9년), 서울권(9.5년), 수도권(7.7년)은 상대적으로 짧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11.9년) 업체의 현재 업종 종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임.

〈표 2-5-1〉 사업장 특성별 현재 업종 종사 기간 분포(전체)

(단위: 개소, %, 년)

구분			사례 수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30년 미만	30년 이상	평균	
전체			3,138	25.5	33.4	20.1	8.5	7.6	2.2	2.7	9.8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19.9	30.6	22.1	9.2	10.8	3.1	4.3	11.2
		한식		1,091	18.4	30.2	22.4	9.6	11.5	3.3	4.6	11.5
		중식		158	20.6	21.9	18.9	13.1	14.6	3.8	7.1	12.9
		일식		117	25.4	38.8	27.8	2.7	5.3	0.0	0.0	7.9
		서양식		118	34.4	38.3	18.8	5.6	1.1	1.7	0.1	7.4
		기타 외국식		72	38.7	48.8	11.6	0.7	0.2	0.0	0.0	5.8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31.2	36.3	18.0	7.7	4.3	1.4	1.1	8.2
		기관 구내식당업		78	17.6	42.1	18.2	7.0	12.5	0.0	2.5	10.1
		출장·이동음식점업		78	24.5	33.7	20.8	8.1	12.9	0.0	0.0	9.1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30.8	21.6	23.5	12.7	7.3	1.1	3.0	10.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30.1	36.4	19.4	8.9	4.3	0.0	0.8	7.8
			치킨 전문점	172	29.2	30.9	17.1	6.8	5.7	4.6	5.7	10.5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33.7	28.6	22.7	7.7	4.5	2.4	0.4	8.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38.3	34.0	12.4	5.1	7.3	2.5	0.2	8.0
		주점업		318	19.7	40.1	22.7	11.4	4.0	1.7	0.5	9.3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41.6	40.6	11.6	3.7	2.3	0.1	0.1	6.2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35.2	35.7	15.7	7.2	3.7	1.2	1.2	7.7	
	비프랜차이즈		2,114	21.9	32.6	21.7	8.9	9.0	2.6	3.3	10.5	
지역	서울권		491	21.7	39.0	18.8	10.2	4.9	2.8	2.5	9.5	
	수도권		595	33.9	39.7	15.3	4.1	5.5	0.8	0.7	7.7	
	충청권		581	14.1	33.2	29.2	10.6	8.4	1.6	3.0	11.0	
	호남권		467	28.6	30.7	17.1	7.5	8.5	2.3	5.2	10.4	
	경남권		611	28.3	27.7	21.3	7.0	9.2	3.4	3.1	9.9	
	경북권		393	25.4	29.8	17.7	13.4	9.1	2.8	1.7	10.3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27.1	18.4	22.9	14.1	7.2	3.3	7.0	11.9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23.5	33.1	19.8	11.3	7.1	1.6	3.6	10.0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25.8	34.3	20.3	7.6	7.5	2.2	2.4	9.5	
	5억 원 이상		446	26.1	33.5	17.6	7.6	9.7	3.5	2.0	10.0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현재 업종 종사 기간은 평균 7.7년임. 일반음식점의 현재 업종 종사기간은 평균 7.8년으로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현재 업종 종사 기간(7.7년)에 비해 긴 것으로 파악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 중에서 치킨 전문점(10.1년)과 주점업(9.1년)의 현재 업종 종사 기간은 긴 반면, 출장·이동음식점업(3.8년)은 비교적 짧음.
- 지역별로 충청권(9.1년), 매출액 규모별로 5천만 원~1억 원 미만(9.4년)인 업체의 현재 업종 종사 기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남.

〈표 2-5-2〉 사업장 특성별 현재 업종 종사 기간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년)

구분			사례수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30년 미만	30년 이상	평균
전체			1,024	35.2	35.7	15.7	7.2	3.7	1.2	1.2	7.7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31.2	38.5	18.1	5.3	5.6	0.6	0.7	7.8
		한식	197	28.6	37.9	19.1	5.7	6.9	0.8	0.9	8.2
		중식	23	47.0	39.7	9.4	3.8	0.1	0.0	0.0	5.8
		일식	29	35.5	40.9	18.8	0.0	4.7	0.0	0.0	6.6
		서양식	46	35.8	38.0	17.3	8.4	0.2	0.2	0.2	7.4
		기타 외국식	36	44.2	44.8	10.6	0.5	0.0	0.0	0.0	5.7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37.3	34.2	14.4	8.2	2.8	1.6	1.5	7.7
		기관 구내식당업	21	25.6	57.7	0.0	12.0	0.4	0.0	4.3	8.0
		출장·이동음식점업	5	77.6	7.5	14.9	0.0	0.0	0.0	0.0	3.8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35.2	22.3	20.8	16.3	3.3	1.3	9.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27.4	40.2	18.0	10.0	3.4	0.0	7.9
			치킨 전문점	127	35.3	26.6	12.7	8.9	5.3	5.6	10.1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34.9	37.1	15.4	9.8	1.2	1.7	7.2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50.0	37.4	12.1	0.0	0.0	0.0	5.4
		주점업	69	21.2	35.4	24.1	15.1	4.3	0.0	0.0	9.1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52.4	36.1	8.5	1.4	1.0	0.5	0.2	5.4
지역	서울권		166	26.5	36.6	18.7	12.8	3.5	1.2	0.7	8.5
	수도권		233	41.9	34.6	12.7	3.4	6.5	0.0	1.0	7.2
	충청권		165	24.2	38.8	20.6	7.9	3.7	2.0	2.8	9.1
	호남권		118	40.5	38.2	11.5	5.9	1.3	1.1	1.5	7.0
	경남권		258	38.6	34.2	15.7	6.5	3.0	1.5	0.5	7.2
	경북권		84	37.5	30.9	14.0	10.7	3.0	2.6	1.5	8.1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0.0	71.3	28.7	0.0	0.0	0.0	0.0	8.5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29.0	26.0	24.2	15.8	3.3	0.0	1.7	9.4
	1억 원~5억 원 미만		721	36.1	36.0	15.5	6.3	3.4	1.5	1.2	7.5
	5억 원 이상		230	35.1	37.8	11.6	7.9	5.9	0.6	1.1	7.9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현재 업종 종사 기간은 평균 10.5년임. 일반음식점의 현재 업종 종사 기간은 평균 11.9년으로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현재 업종 종사 기간(8.5년)에 비해 긴 것으로 파악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 중에서 치킨 전문점(11.3년)의 현재 업종 종사 기간이 긴 반면, 비알코올 음료점업(6.5년)은 비교적 짧음.

〈표 2-5-3〉 사업장 특성별 현재 업종 종사 기간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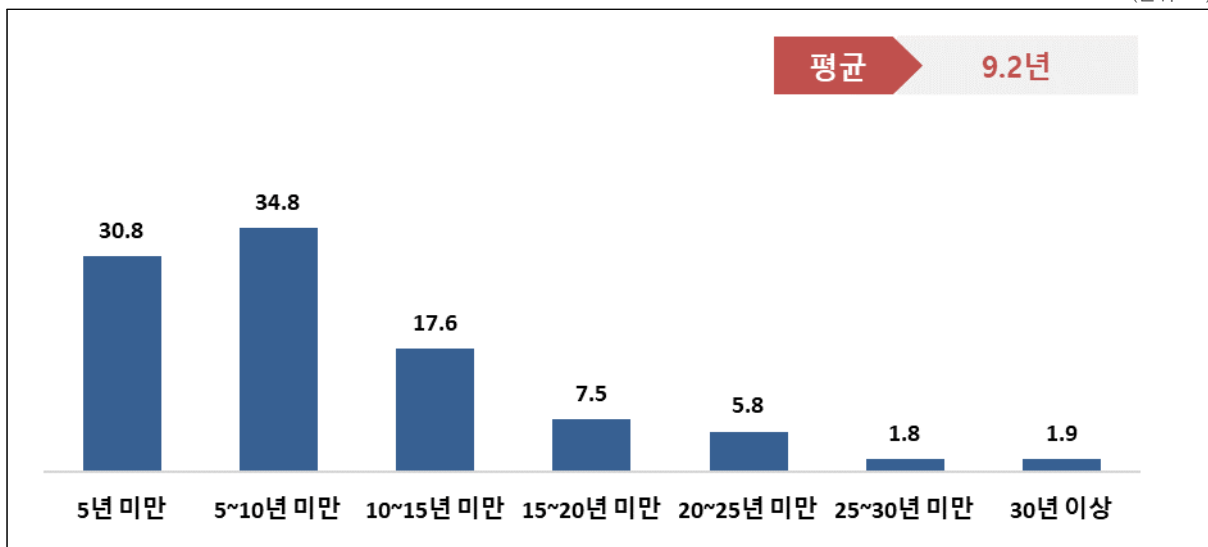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30년 미만	30년 이상	평균	
전체			2,114	21.9	32.6	21.7	8.9	9.0	2.6	3.3	10.5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17.5	28.9	23.0	10.1	11.9	3.6	5.1	11.9	
		한식	894	16.3	28.7	23.1	10.4	12.4	3.8	5.3	12.2	
		중식	135	16.9	19.5	20.2	14.4	16.6	4.4	8.0	13.9	
		일식	88	22.9	38.2	30.0	3.4	5.4	0.0	0.0	8.2	
		서양식	72	33.7	38.5	19.6	4.2	1.5	2.5	0.0	7.4	
		기타 외국식	36	34.0	52.3	12.4	0.9	0.4	0.0	0.0	5.8	
		소계	889	27.8	37.5	20.0	7.4	5.1	1.3	0.9	8.5	
	일반 음식점 외	기관 구내식당업	57	15.0	37.1	24.1	5.4	16.5	0.0	1.9	10.8	
		출장·이동음식점업	73	18.9	36.4	21.5	8.9	14.2	0.0	0.0	9.6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27.7	21.2	25.4	10.2	10.1	0.9	4.6	10.8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43.6	17.6	26.3	3.8	8.7	0.0	0.0	7.3
			치킨 전문점	45	15.2	41.0	27.4	1.9	6.5	2.2	5.8	11.3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32.9	23.1	27.4	6.3	6.6	2.9	0.7	9.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27.9	31.0	12.8	9.6	13.9	4.8	0.0	10.4
		주점업	249	19.5	40.9	22.4	10.7	3.9	2.0	0.6	9.3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37.0	42.6	12.9	4.7	2.9	0.0	0.0	6.5	
지역	서울권	325	20.0	39.9	18.9	9.3	5.4	3.3	3.2	9.9		
	수도권	362	30.2	42.1	16.6	4.4	5.0	1.2	0.6	7.9		
	충청권	416	10.7	31.3	32.1	11.4	9.9	1.4	3.0	11.6		
	호남권	349	25.7	28.9	18.4	7.9	10.3	2.6	6.1	11.2		
	경남권	353	22.3	24.0	24.5	7.3	12.9	4.5	4.6	11.5		
	경북권	309	23.1	29.6	18.4	13.9	10.3	2.9	1.8	10.7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28.0	16.6	22.7	14.6	7.4	3.4	7.2	12.0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22.7	34.1	19.2	10.6	7.7	1.8	3.9	10.1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21.5	33.6	22.3	8.1	9.2	2.5	2.9	10.4		
	5억 원 이상	216	18.4	29.8	22.7	7.3	12.9	6.0	2.8	11.7		

5) 현 사업장 운영기간

- 현 사업장 운영 기간은 평균 9.2년임. 현 사업장 운영 기간 분포별로는 5~10년 미만(3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년 미만(30.8%), 10~15년 미만(17.6%), 15~20년 미만(7.5%), 20~25년 미만(5.8%), 25~30년 미만(1.8%), 30년 이상(1.9%) 등의 순서로 나타남.

〈그림 2-6〉 현 사업장 운영 기간 분포

(단위: %)



- 일반음식점의 경우 현 사업장 운영 기간은 평균 10.6년임. 현 사업장 운영 기간 분포별로는 5~10년 미만이 3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년 미만(24.7%), 10~15년 미만(20.5%), 15~20년 미만(8.6%), 20~25년 미만(8.4%), 30년 이상(3.0%), 25~30년 미만(2.4%) 등의 순임.
 - 세부 업종별로는 중식(11.8년), 한식(10.9년)의 현 사업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긴 반면, 서양식(6.7년), 기타 외국식(5.7년)이 현 사업장 운영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음.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현 사업장 운영 기간은 평균 7.8년임. 현 사업장 운영 기간 분포별로는 5년 미만이 3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10년 미만(37.1%), 10~15년 미만(14.5%), 15~20년 미만(6.2%), 20~25년 미만(3.0%), 25~30년 미만(1.2%), 30년 이상(0.7%) 등의 순서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는 기관 구내식당업(9.8년), 치킨 전문점(9.6년)의 현 사업장 운영 기간이 비교적 긴 반면,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7.5년),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7.2년), 비알코올 음료점업(5.8년)은 현 사업장 운영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음.
- 지역별로는 충청권과 경북권(각 10.3년)의 현 사업장 운영 기간이 비교적 긴 반면, 수도권(6.9년)은 현 사업장 운영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음.
- 매출액 규모별로 5천만 원(10.1년) 업체의 현 사업장 운영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표 2-6-1〉 사업장 특성별 현 사업장 운영 기간 분포(전체)

(단위: 개소, %, 년)

구분			사례 수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30년 미만	30년 이상	평균
전체			3,138	30.8	34.8	17.6	7.5	5.8	1.8	1.9	9.2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24.7	32.3	20.5	8.6	8.4	2.4	3.0	10.6
		한식	1,091	23.1	31.5	21.3	9.1	9.0	2.7	3.3	10.9
		중식	158	24.1	24.2	19.9	12.7	12.2	2.6	4.3	11.8
		일식	117	33.4	43.7	17.0	3.7	2.2	0.0	0.0	7.4
		서양식	118	37.6	43.6	16.0	2.0	0.0	0.7	0.0	6.7
		기타 외국식	72	47.4	45.0	6.8	0.7	0.0	0.0	0.0	5.7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37.1	37.3	14.5	6.2	3.0	1.2	0.7	7.8
		기관 구내식당업	78	19.7	46.9	13.8	7.0	11.1	0.0	1.5	9.8
		출장·이동음식점업	78	24.5	35.0	20.1	12.9	7.5	0.0	0.0	9.3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35.8	25.6	19.5	11.6	5.4	1.1	9.1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38.7	37.8	16.9	4.3	1.4	0.0	7.2
			치킨 전문점	172	32.9	36.9	11.8	6.6	4.1	3.9	9.6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38.0	32.4	18.9	5.8	2.4	2.0	7.7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46.3	29.1	10.4	5.1	8.9	0.0	7.5
		주점업	318	23.5	42.6	18.9	9.6	3.2	1.7	0.5	9.0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50.4	37.1	8.6	2.6	1.3	0.0	0.0	5.8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41.8	36.9	12.5	5.6	1.9	0.8	0.6	7.1
		비프랜차이즈	2,114	26.8	34.0	19.4	8.1	7.2	2.2	2.4	9.9
	지역	서울권	491	29.4	40.9	16.2	5.4	4.0	2.3	1.8	8.6
		수도권	595	42.2	39.6	10.9	3.7	2.5	0.7	0.4	6.9
		충청권	581	18.6	36.8	26.7	9.0	6.1	1.2	1.6	10.3
		호남권	467	32.2	31.2	16.3	7.3	6.9	2.1	4.0	9.9
		경남권	611	32.1	31.1	17.9	7.1	7.4	2.4	1.9	9.4
		경북권	393	29.4	27.4	16.8	14.1	8.3	2.3	1.7	10.3
	매 출 액	5천만 원 미만	92	32.5	23.9	19.9	14.1	3.0	3.3	3.3	10.1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27.8	31.9	19.1	11.3	6.2	1.4	2.3	9.8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31.6	35.7	17.5	6.2	5.5	1.7	1.8	9.0
		5억 원 이상	446	29.3	37.6	14.0	7.5	8.1	2.4	1.0	9.5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현 사업장 운영 기간은 평균 7.1년임. 일반음식점의 경우 현 사업장 운영 기간은 평균 7.1년으로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7.1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에서 치킨 전문점(9.3년), 주점업(8.9년), 제과점(8.5년)은 현 사업장 운영 기간이 긴 반면, 비알코올 음료점업(4.8년),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4.7년), 출장·이동음식점업(4.1년)은 비교적 짧음.
- 지역별로 충청권(8.6년), 매출액 규모별로 5천만 원~1억 원 미만(9.3년) 업체의 현 사업장 운영 기간이 비교적 긴 것으로 조사됨.

〈표 2-6-2〉 사업장 특성별 현 사업장 운영 기간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년)

구분			사례 수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30년 미만	30년 이상	평균	
전체			1,024	41.8	36.9	12.5	5.6	1.9	0.8	0.6	7.1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37.7	40.6	13.9	5.0	2.8	0.0	0.0	7.1	
		한식	197	35.3	40.1	15.4	5.5	3.6	0.0	0.0	7.4	
		중식	23	53.5	38.9	3.8	3.8	0.0	0.0	0.0	5.8	
		일식	29	42.5	48.7	4.0	4.7	0.0	0.0	0.0	6.3	
		서양식	46	38.1	41.9	17.1	2.9	0.0	0.0	0.0	7.1	
		기타 외국식	36	55.0	38.0	7.0	0.0	0.0	0.0	0.0	5.6	
		소계	693	43.9	35.0	11.7	5.9	1.5	1.2	0.9	7.1	
	일반 음식점 외	기관 구내식당업	21	29.9	57.7	0.0	12.0	0.4	0.0	0.0	7.1	
		출장·이동음식점업	5	77.6	7.5	14.9	0.0	0.0	0.0	0.0	4.1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42.1	20.1	17.5	16.4	2.7	1.3	0.0	8.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37.3	42.4	15.0	3.5	0.9	0.0	0.9	7.2
			치킨 전문점	127	40.6	30.2	10.0	6.9	4.0	4.6	3.8	9.3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39.4	37.5	13.5	7.9	0.0	1.7	0.0	6.9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62.1	28.9	8.6	0.0	0.0	0.0	0.5	4.7	
		주점업	69	25.2	37.3	24.4	10.4	2.8	0.0	0.0	8.9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59.4	35.5	4.3	0.8	0.0	0.0	0.0	4.8	
지역	서울권		166	35.4	40.8	16.1	5.1	0.7	1.2	0.7	7.5	
	수도권		233	51.9	35.6	7.6	3.2	1.7	0.0	0.0	6.0	
	충청권		165	29.1	42.6	15.9	6.8	3.4	0.7	1.5	8.6	
	호남권		118	44.8	36.9	9.9	5.2	1.0	1.1	1.2	6.9	
	경남권		258	43.5	34.2	13.5	5.8	2.0	1.0	0.0	6.8	
	경북권		84	42.2	29.1	12.1	10.7	3.0	1.5	1.5	7.9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0.0	71.3	28.7	0.0	0.0	0.0	0.0	8.7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30.9	30.2	20.0	14.0	3.3	0.0	1.7	9.3	
	1억 원~5억 원 미만		721	43.9	35.8	12.6	4.6	1.5	1.0	0.5	6.9	
	5억 원 이상		230	37.3	45.0	7.0	6.4	3.6	0.0	0.8	7.4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현 사업장 운영 기간은 평균 9.9년임. 일반음식점의 경우 현 사업장 운영 기간은 평균 11.3년으로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8.1년)에 비해 길게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에서 기관 구내식당업(10.7년), 치킨 전문점(10.3년),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10.1년)의 현 사업장 운영 기간이 긴 반면, 비알코올 음료점업(6.3년)은 비교적 짧음.

〈표 2-6-3〉 사업장 특성별 현 사업장 운영 기간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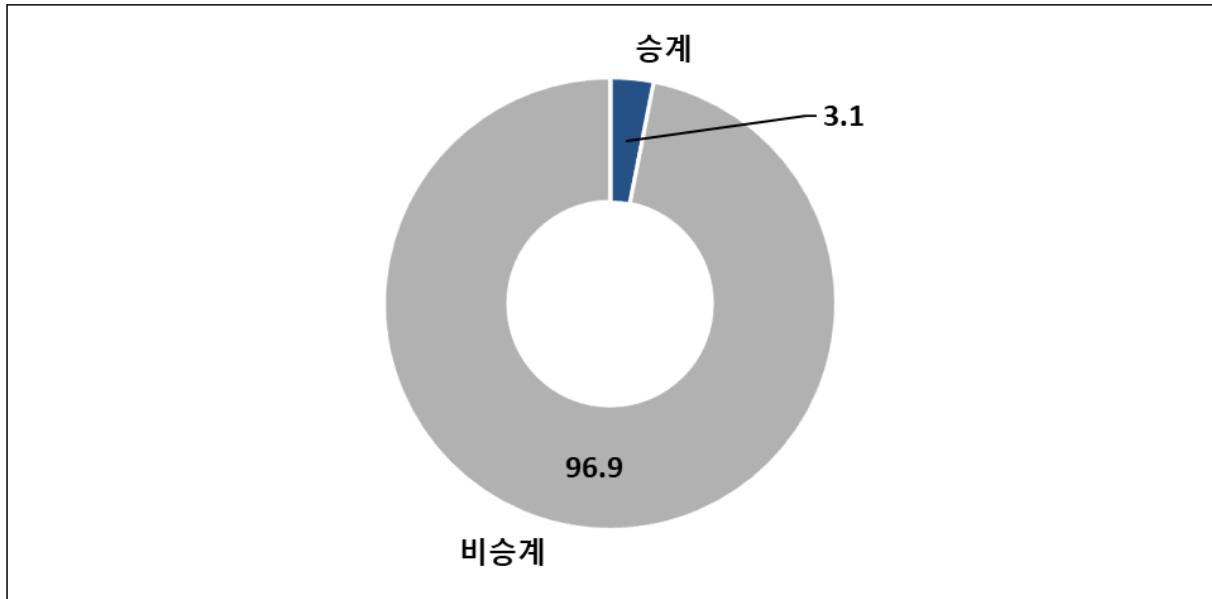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30년 미만	30년 이상	평균
전체			2,114	26.8	34.0	19.4	8.1	7.2	2.2	2.4	9.9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21.9	30.5	22.0	9.4	9.6	2.9	3.7	11.3
		한식	894	20.6	29.8	22.5	9.8	10.1	3.2	4.0	11.6
		중식	135	20.1	22.2	22.1	13.9	13.9	2.9	4.8	12.7
		일식	88	31.1	42.4	20.3	3.4	2.8	0.0	0.0	7.6
		서양식	72	37.4	44.5	15.5	1.5	0.0	1.1	0.0	6.5
		기타 외국식	36	40.9	51.1	6.7	1.3	0.0	0.0	0.0	5.7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33.4	38.6	16.0	6.4	3.8	1.1	0.6	8.1
		기관 구내식당업	57	16.4	43.4	18.3	5.4	14.5	0.0	1.9	10.7
		출장·이동음식점업	73	18.9	37.9	20.7	14.3	8.2	0.0	0.0	9.8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31.4	29.3	20.9	8.3	7.3	0.9	9.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46.1	15.1	26.3	8.3	4.2	0.0	7.3
			치킨 전문점	45	15.2	52.6	15.8	6.1	4.6	2.2	10.3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37.2	29.1	22.4	4.5	3.9	2.3	8.2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32.2	29.4	12.0	9.6	16.8	0.0	10.1
		주점업	249	23.2	43.5	18.0	9.5	3.3	2.0	0.6	9.0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46.5	37.8	10.5	3.4	1.8	0.0	0.0	6.3
지역	서울권		325	27.3	41.0	16.2	5.5	5.1	2.7	2.2	9.0
	수도권		362	37.6	41.5	12.5	4.0	2.9	1.0	0.6	7.3
	충청권		416	15.1	34.8	30.2	9.8	7.1	1.3	1.7	10.9
	호남권		349	29.1	29.8	17.9	7.8	8.3	2.4	4.7	10.6
	경남권		353	25.5	29.3	20.6	7.8	10.5	3.3	3.1	10.9
	경북권		309	27.0	27.0	17.7	14.8	9.3	2.5	1.8	10.8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33.6	22.2	19.6	14.6	3.1	3.4	3.5	10.2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27.3	32.1	19.0	10.9	6.6	1.6	2.4	9.8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26.5	35.6	19.5	6.9	7.2	2.0	2.4	9.8
	5억 원 이상		216	22.6	31.3	20.0	8.4	12.0	4.4	1.2	11.3

6) 가업승계 여부

○ 사업주가 가업을 승계한 업체는 3.1%이고, 승계하지 않은 업체는 96.9%로 조사됨.

〈그림 2-7〉 가업승계 여부 분포

(단위: %)



- 일반음식점의 가업승계 비중은 4.4%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는 일식(5.3%)의 가업승계 비중이 비교적 높음.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가업승계 비중은 1.8%로 대체로 낮음.
 - 세부 업종별로는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6.7%)의 가업승계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는 경북권(4.8%)과 경남권(4.6%)의 가업승계 비중이 비교적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이 6.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2-7-1〉 사업장 특성별 가업승계 여부(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승계	비승계	
전체			3,138	3.1	96.9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4.4	95.6	
		한식	1,091	4.7	95.3	
		중식	158	2.8	97.2	
		일식	117	5.3	94.7	
		서양식	118	2.9	97.1	
		기타 외국식	72	0.2	99.8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1.8	98.2	
		기관 구내식당업	78	2.7	97.3	
		출장·이동음식점업	78	0.0	10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1.7	98.3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0.4	99.6
			치킨 전문점	172	2.5	97.5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2.9	97.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6.7	93.3	
		주점업	318	2.1	97.9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0.7	99.3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2.4	97.6	
	비프랜차이즈		2,114	3.4	96.6	
지역	서울권		491	1.1	98.9	
	수도권		595	0.9	99.1	
	충청권		581	3.5	96.5	
	호남권		467	4.0	96.0	
	경남권		611	4.6	95.4	
	경북권		393	4.8	95.2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0.0	10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2.8	97.2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3.0	97.0	
	5억 원 이상		446	6.6	93.4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가업승계 비중은 2.4%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가업승계 비중은 4.2%로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가업승계 비중(1.5%) 대비 비교적 높음.
- 지역별로는 경북권(7.4%) 업체의 가업승계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임.

〈표 2-7-2〉 사업장 특성별 가업승계 여부(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승계	비승계	
전체			1,024	2.4	97.6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4.2	95.8	
		한식	197	4.7	95.3	
		중식	23	0.0	100.0	
		일식	29	1.8	98.2	
		서양식	46	5.8	94.2	
		기타 외국식	36	0.0	10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1.5	98.5	
		기관 구내식당업	21	0.0	100.0	
		출장·이동음식점업	5	0.0	10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0.1	99.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0.0	100.0
			치킨 전문점	127	2.8	97.2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2.0	98.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5.4	94.6	
		주점업	69	1.6	98.4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1.4	98.6	
지역	서울권		166	2.5	97.5	
	수도권		233	0.5	99.5	
	충청권		165	1.3	98.7	
	호남권		118	0.0	100.0	
	경남권		258	4.4	95.6	
	경북권		84	7.4	92.6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0.0	10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1.1	98.9	
	1억 원~5억 원 미만		721	2.2	97.8	
	5억 원 이상		230	4.7	95.3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가업승계 비중은 3.4%로 조사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가업승계 비중은 4.5%이며, 세부 업종별로는 일식(6.2%)의 가업승계 비중이 비교적 높음.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가업승계 비중은 1.9%이며, 세부 업종 중에서는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8.0%)의 가업승계 비중이 비교적 높음.
- 지역별로는 호남권(5.0%)과 경남권(4.7%),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8.2%) 업체의 가업승계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2-7-3〉 사업장 특성별 가업승계 여부(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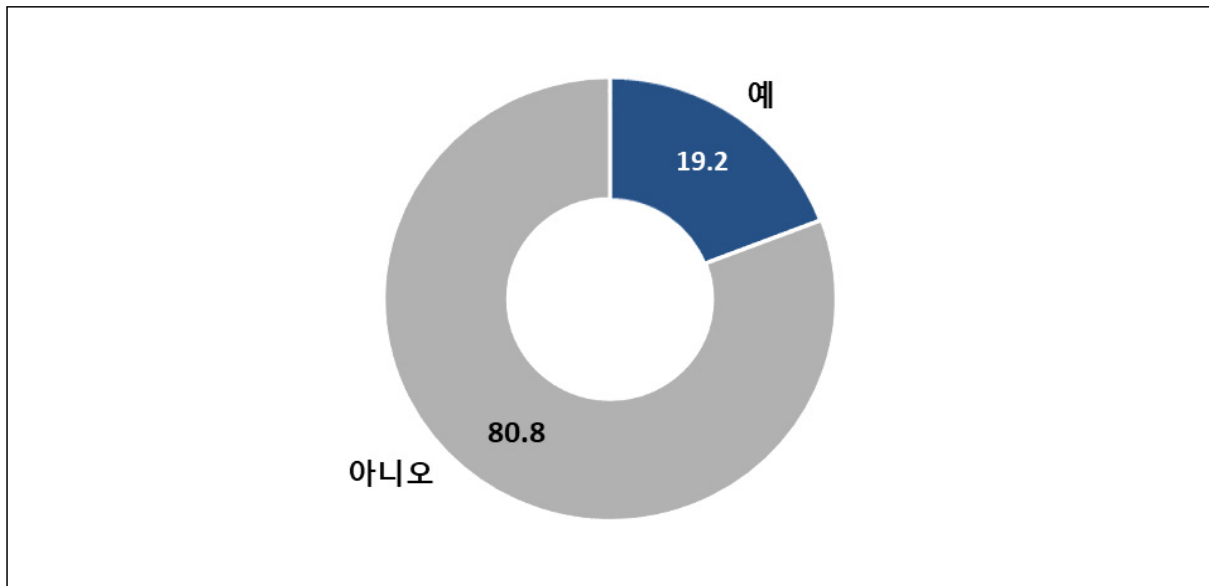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승계	비승계		
전체			2,114	3.4	96.6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4.5	95.5	
		한식		894	4.7	95.3	
		중식		135	3.1	96.9	
		일식		88	6.2	93.8	
		서양식		72	1.3	98.7	
		기타 외국식		36	0.4	99.6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1.9	98.1	
		기관 구내식당업		57	3.5	96.5	
		출장·이동음식점업		73	0.0	10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2.7	97.3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2.4	97.6
			치킨 전문점		45	1.9	98.1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3.5	96.5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8.0	92.0
		주점업		249	2.2	97.8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0.4	99.6	
지역	서울권		325	0.6	99.4		
	수도권		362	1.1	98.9		
	충청권		416	4.3	95.7		
	호남권		349	5.0	95.0		
	경남권		353	4.7	95.3		
	경북권		309	4.3	95.7		
매 출 액	5천만 원 미만		88	0.0	10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3.0	97.0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3.3	96.7		
	5억 원 이상		216	8.2	91.8		

7) 사업주의 전문조리사 자격증 보유 여부

- 사업주가 전문조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외식업체는 19.2%로 나타남.

〈그림 2-8〉 사업주의 전문조리사 자격증 보유 여부

(단위: %)



- 일반음식점 사업주의 전문조리사 자격증 보유 비중은 20.7%임.
 - 세부 업종별로는 일식(35.2%)의 사업주 전문조리사 자격증 보유 비중이 비교적 높음.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 사업주의 전문조리사 자격증 보유 비중은 17.6%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는 기관 구내식당업(45.0%)과 제과점(30.8%)의 사업주의 전문조리사 자격증 보유 비중이 비교적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권(31.0%),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28.7%) 업체 사업주의 전문조리사 자격증 보유 비중이 비교적 높음.

〈표 2-8-1〉 사업장 특성별 사업주의 전문조리사 자격증 보유 여부(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138	19.2	80.8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20.7	79.3	
		한식	1,091	18.6	81.4	
		중식	158	32.5	67.5	
		일식	117	35.2	64.8	
		서양식	118	24.0	76.0	
		기타 외국식	72	11.5	88.5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17.6	82.4	
		기관 구내식당업	78	45.0	55.0	
		출장·이동음식점업	78	11.7	88.3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30.8	69.2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18.5	81.5
			치킨 전문점	172	8.5	91.5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13.5	86.5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12.0	88.0	
		주점업	318	12.6	87.4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21.1	78.9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18.7	81.3	
	비프랜차이즈		2,114	19.3	80.7	
지역	서울권		491	31.0	69.0	
	수도권		595	20.1	79.9	
	충청권		581	19.8	80.2	
	호남권		467	21.5	78.5	
	경남권		611	15.2	84.8	
	경북권		393	5.0	95.0	
매 출 액	5천만 원 미만		92	13.0	87.0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13.2	86.8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19.8	80.2	
	5억 원 이상		446	28.7	71.3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사업주의 전문조리사 자격증 보유 비중은 18.7%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사업주의 전문조리사 자격증 보유 비중은 21.8%,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 사업주의 전문조리사 자격증 보유 비중은 17.1%임.
- 지역별로는 서울권(34.9%),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22.0%) 업체 사업주의 자격증 보유 비중이 높음.

〈표 2-8-2〉 사업장 특성별 사업주의 전문조리사 자격증 보유 여부(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1,024	18.7	81.3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21.8	78.2	
		한식	197	20.7	79.3	
		중식	23	29.5	70.5	
		일식	29	31.8	68.2	
		서양식	46	22.4	77.6	
		기타 외국식	36	15.5	84.5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17.1	82.9	
		기관 구내식당업	21	41.7	58.3	
		출장·이동음식점업	5	0.0	10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21.1	78.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19.6	80.4
			치킨 전문점	127	5.4	94.6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15.1	84.9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5.4	94.6
		주점업	69	7.6	92.4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27.9	72.1		
지역	서울권		166	34.9	65.1	
	수도권		233	22.8	77.2	
	충청권		165	8.0	92.0	
	호남권		118	18.8	81.2	
	경남권		258	17.7	82.3	
	경북권		84	2.2	97.8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0.0	10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18.2	81.8	
	1억 원~5억 원 미만		721	18.3	81.7	
	5억 원 이상		230	22.0	78.0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사업주의 전문조리사 자격증 보유 비중은 19.3%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사업주의 전문조리사 자격증 보유 비중은 20.4%이며, 세부 업종별로는 일식(36.0%), 중식(32.9%), 서양식(24.8%) 외식업체 사업주의 자격증 보유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 사업주의 전문조리사 자격증 보유 비중은 17.8%로 나타남. 세부 업종별로는 기관 구내식당업(46.1%)과 제과점(37.4%) 사업주의 전문조리사 자격증 보유 비중이 비교적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권(29.6%),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34.4%) 업체 사업주의 자격증 보유 비중이 높은 편임.

〈표 2-8-3〉 사업장 특성별 사업주의 전문조리사 자격증 보유 여부(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2,114	19.3	80.7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20.4	79.6	
		한식	894	18.2	81.8	
		중식	135	32.9	67.1	
		일식	88	36.0	64.0	
		서양식	72	24.8	75.2	
		기타 외국식	36	8.1	91.9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17.8	82.2
	기관 구내식당업		57	46.1	53.9	
	출장·이동음식점업		73	12.9	87.1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37.4	62.6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13.1	86.9
			치킨 전문점	45	15.9	84.1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12.5	87.5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17.9	82.1	
	주점업		249	13.5	86.5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18.2	81.8		
지역	서울권		325	29.6	70.4	
	수도권		362	18.8	81.2	
	충청권		416	23.7	76.3	
	호남권		349	22.2	77.8	
	경남권		353	13.8	86.2	
	경북권		309	5.6	94.4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13.4	86.6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12.5	87.5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20.4	79.6	
	5억 원 이상		216	34.4	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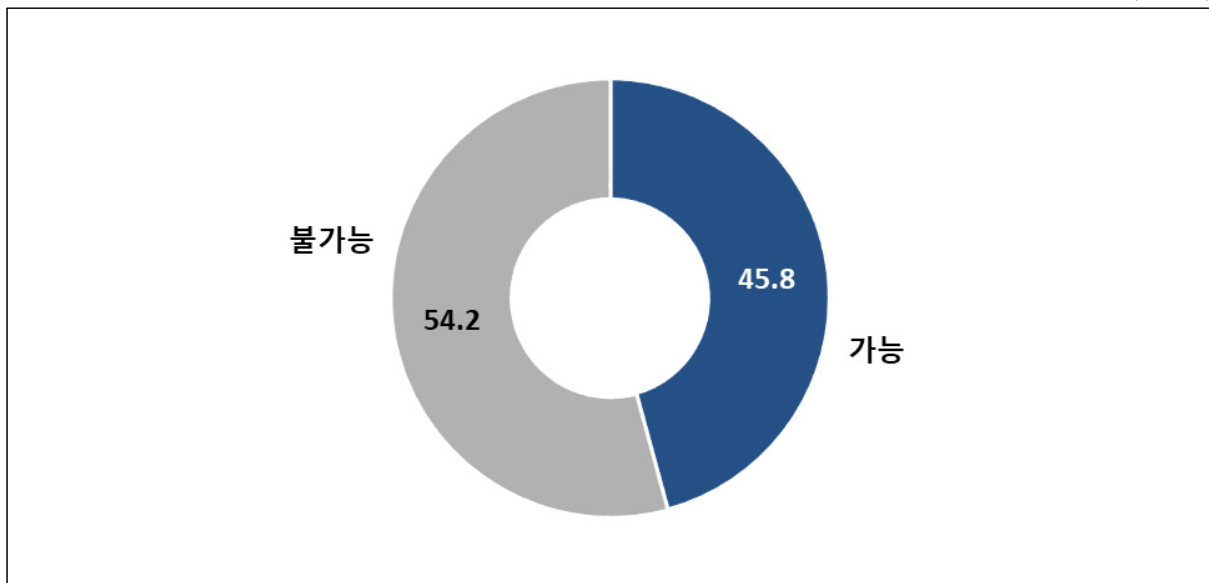
2. 사업장 정보

1) 주차 가능 여부

○ 주차가 가능한 업체 비중은 45.8%이고, 불가능한 업체 비중은 54.2%로 나타남.

〈그림 2-9〉 주차 가능 여부

(단위: %)



- 일반음식점의 경우 주차 가능 업체 비중이 51.8%로 전체 평균(45.8%)보다 높음.
 - 세부 업종별로는 일식(56.6%), 서양식(55.0%), 한식(51.9%)의 경우 주차 가능 업체 비중이 비교적 높고, 중식(46.9%)은 상대적으로 낮음.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경우 39.5%가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 세부 업종별로 기관 구내식당업(80.2%)과 제과점(46.2%)의 경우 주차 가능 업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29.3%)의 경우 주차 가능 업체 비중이 낮음.
- 지역별로 호남권(59.0%)의 주차 가능 업체 비중이 높고, 경남권(31.4%)은 주차 가능 업체 비중이 가장 낮음.
-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 업체의 경우 64.4%가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5천만 원 미만 업체는 22.0%가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표 2-9-1〉 사업장 특성별 주차 가능 여부(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가능	불가능	
전체			3,138	45.8	54.2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51.8	48.2	
		한식	1,091	51.9	48.1	
		중식	158	46.9	53.1	
		일식	117	56.6	43.4	
		서양식	118	55.0	45.0	
		기타 외국식	72	48.1	51.9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39.5	60.5	
		기관 구내식당업	78	80.2	19.8	
		출장·이동음식점업	78	41.2	58.8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46.2	53.8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39.8	60.2
			치킨 전문점	172	32.9	67.1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29.3	70.7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33.5	66.5
		주점업	318	42.1	57.9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38.4	61.6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46.2	53.8	
	비프랜차이즈		2,114	45.6	54.4	
지역	서울권		491	38.0	62.0	
	수도권		595	52.7	47.3	
	충청권		581	46.9	53.1	
	호남권		467	59.0	41.0	
	경남권		611	31.4	68.6	
	경북권		393	48.2	51.8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22.0	78.0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35.9	64.1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47.2	52.8	
	5억 원 이상		446	64.4	35.6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46.2%가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경우 57.7%가 주차 가능하며, 세부 업종별로는 기타 외국식(71.3%), 서양식(62.4%)의 주차 가능 업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는 40.3%가 주차 가능함. 세부 업종별로는 출장·이동음식점업(100.0%)의 주차 가능 업체 비중이 비교적 높고,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28.6%)의 주차 가능 업체 비중이 낮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55.6%), 경북권(52.7%),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59.1%) 업체의 주차 가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9-2〉 사업장 특성별 주차 가능 여부(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가능	불가능	
전체			1,024	46.2	53.8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57.7	42.3	
		한식	197	58.0	42.0	
		중식	23	45.6	54.4	
		일식	29	49.6	50.4	
		서양식	46	62.4	37.6	
		기타 외국식	36	71.3	28.7	
		소계	693	40.3	59.7	
	일반 음식점 외	기관 구내식당업	21	77.3	22.7	
		출장·이동음식점업	5	100.0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42.6	57.4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41.2	58.8
			치킨 전문점	127	38.6	61.4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32.0	68.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28.6	71.4
		주점업	69	43.4	56.6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41.7	58.3	
지역	서울권		166	33.4	66.6	
	수도권		233	55.6	44.4	
	충청권		165	50.1	49.9	
	호남권		118	49.9	50.1	
	경남권		258	39.7	60.3	
	경북권		84	52.7	47.3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0.0	10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41.6	58.4	
	1억 원~5억 원 미만		721	44.6	55.4	
	5억 원 이상		230	59.1	40.9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45.6%가 주차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경우 50.6%가 주차 가능하며, 세부 업종별로는 일식(58.3%), 서양식(51.2%)의 주차 가능 업체 비중이 높은 편임.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는 39.0%가 주차 가능함. 세부 업종별로는 기관 구내식당업(81.1%), 제과점(48.7%)의 주차 가능 업체 비중이 비교적 높고,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27.5%), 치킨 전문점(19.9%)은 주차 가능 업체 비중이 비교적 낮음.
- 지역별로는 호남권(61.3%),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68.9%) 업체의 주차 가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9-3〉 사업장 특성별 주차 가능 여부(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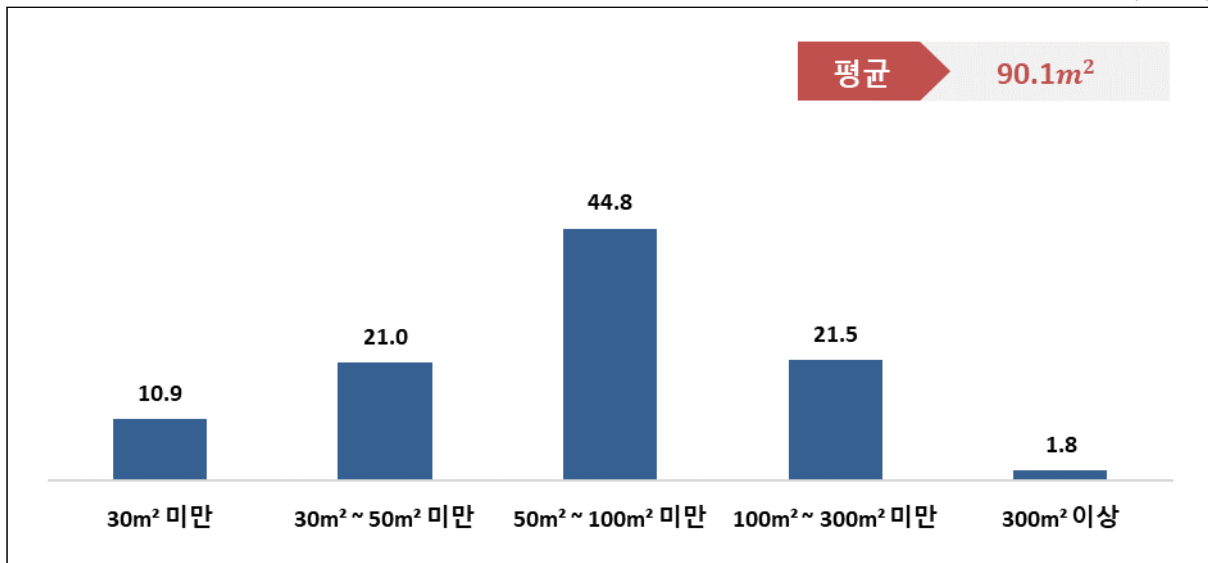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가능	불가능	
전체			2,114	45.6	54.4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50.6	49.4	
		한식	894	50.7	49.3	
		중식	135	47.1	52.9	
		일식	88	58.3	41.7	
		서양식	72	51.2	48.8	
		기타 외국식	36	28.0	72.0	
		소계	889	39.0	61.0	
	일반 음식점 외	기관 구내식당업	57	81.1	18.9	
		출장·이동음식점업	73	35.0	65.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48.7	51.3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32.7	67.3
			치킨 전문점	45	19.9	80.1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27.5	72.5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37.8	62.2
		주점업	249	41.9	58.1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36.9	63.1	
지역	서울권		325	39.5	60.5	
	수도권		362	51.4	48.6	
	충청권		416	45.8	54.2	
	호남권		349	61.3	38.7	
	경남권		353	26.5	73.5	
	경북권		309	47.3	52.7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22.8	77.2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35.1	64.9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48.2	51.8	
	5억 원 이상		216	68.9	31.1	

2) 사업장 신고면적

- 사업장 신고면적은 평균 90.1㎡임. 사업장 신고면적 분포별로는 50㎡~100㎡ 미만(4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0㎡~300㎡ 미만(21.5%), 30㎡~50㎡ 미만(21.0%), 30㎡ 미만(10.9%), 300㎡ 이상(1.8%) 등의 순서로 나타남.

〈그림 2-10〉 사업장 신고 면적

(단위: %)



- 일반음식점의 경우 사업장 신고면적은 평균 105.4㎡임. 사업장 신고면적 분포별로는 50㎡~100㎡ 미만이 4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0㎡~300㎡ 미만(28.2%), 30㎡~50㎡ 미만(15.5%), 30㎡ 미만(6.4%), 300㎡ 이상(2.3%) 등의 순임.
 - 세부 업종별로 서양식(112.1㎡)의 면적이 가장 크고, 기타 외국식(73.2㎡)은 비교적 작음.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사업장 신고면적은 평균 74.2㎡임. 사업장 신고면적 분포별로는 50㎡~100㎡ 미만이 4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50㎡ 미만(26.7%), 30㎡ 미만(15.7%), 100㎡~300㎡ 미만(14.4%), 300㎡ 이상(1.4%) 등의 순서로 파악됨.
 - 세부 업종별로 기관 구내식당업(211.1㎡)의 면적이 가장 크고, 출장·이동음식점업(89.5㎡), 주점업(85.0㎡)은 비교적 작음.
- 지역별로 경북권(104.6㎡), 충청권(100.8㎡)은 신고면적이 큰 반면, 서울권(78.5㎡), 경남권(81.0㎡)은 상대적으로 작음.
-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181.7㎡)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1억 원~5억 원 미만(85.3㎡), 5천만 원~1억 원 미만(73.1㎡), 5천만 원 미만(56.2㎡)의 순서로 나타남.

〈표 2-10-1〉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신고면적 분포(전체)

(단위: 개소, %, m²)

구분			사례 수	30㎡ 미만	30㎡~ 50㎡ 미만	50㎡~ 100㎡ 미만	100㎡~ 300㎡ 미만	300㎡ 이상	평균
전체			3,138	10.9	21.0	44.8	21.5	1.8	90.1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6.4	15.5	47.7	28.2	2.3	105.4
		한식	1,091	5.6	14.8	47.3	30.2	2.1	107.5
		중식	158	16.7	12.8	48.3	19.2	3.0	90.8
		일식	117	5.1	19.8	52.6	18.4	4.1	99.2
		서양식	118	4.7	20.4	47.7	24.0	3.2	112.1
		기타 외국식	72	3.1	34.8	47.4	14.5	0.2	73.2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15.7	26.7	41.8	14.4	1.4	74.2
		기관 구내식당업	78	2.2	8.0	18.9	48.0	22.9	211.1
		출장·이동음식점업	78	15.0	28.9	21.2	33.4	1.6	89.5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25.8	34.6	31.2	7.1	59.8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21.9	26.5	38.3	13.2	65.1
			치킨 전문점	172	24.1	28.3	38.7	8.8	54.3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28.4	41.4	29.2	1.0	44.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32.3	41.4	25.0	0.8	46.1
		주점업	318	6.4	21.0	50.0	22.4	0.3	85.0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12.5	24.4	47.2	14.3	1.6	77.8
경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15.4	23.6	38.9	19.4	2.8	87.0
	비프랜차이즈		2,114	9.3	20.0	47.0	22.2	1.5	91.2
지역	서울권		491	12.2	30.1	40.1	16.1	1.6	78.5
	수도권		595	12.1	19.4	47.4	19.4	1.7	88.1
	충청권		581	3.5	16.0	51.7	26.9	1.8	100.8
	호남권		467	7.7	22.2	46.2	22.1	1.8	91.2
	경남권		611	23.6	19.8	35.3	19.8	1.5	81.0
	경북권		393	2.9	19.5	49.7	25.1	2.9	104.6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17.3	34.1	39.5	9.1	0.1	56.2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14.6	29.4	44.3	10.9	0.9	73.1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10.6	19.9	46.7	21.8	1.1	85.3
	5억 원 이상		446	3.3	7.9	31.9	45.6	11.3	181.7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사업장 신고면적은 평균 87.0㎡임.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사업장 신고면적은 평균 122.2㎡이며, 세부 업종별로 한식(129.3㎡)은 큰 반면, 기타 외국식(67.3㎡)은 비교적 작음.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사업장 신고면적은 평균 68.9㎡이며, 세부 업종별로 기관 구내식당업(216.3㎡)은 큰 반면, 치킨 전문점(55.7㎡),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48.4㎡),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43.7㎡)은 비교적 작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경북권(103.2㎡),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168.4㎡) 업체의 사업장 신고면적이 큼.

〈표 2-10-2〉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신고면적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

구분			사례수	30㎡ 미만	30㎡~ 50㎡ 미만	50㎡~ 100㎡ 미만	100㎡~ 300㎡ 미만	300㎡ 이상	평균
전체			1,024	15.4	23.6	38.9	19.4	2.8	87.0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7.1	13.1	42.3	32.6	5.0	122.2
		한식	197	7.2	9.9	40.3	37.9	4.7	129.3
		중식	23	13.2	7.7	44.1	23.5	11.5	112.5
		일식	29	8.8	16.9	60.2	10.6	3.6	93.0
		서양식	46	2.8	27.8	46.9	15.7	6.8	109.7
		기타 외국식	36	3.6	44.1	42.8	9.0	0.5	67.3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19.6	29.0	37.1	12.6	1.7	68.9
		기관 구내식당업	21	0.0	4.3	24.1	44.7	26.9	216.3
		출장·이동음식점업	5	0.0	0.0	22.4	77.6	0.0	142.4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22.0	32.9	36.9	6.2	59.4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20.6	28.3	36.9	14.1	66.0
			치킨 전문점	127	23.4	27.1	39.5	10.1	55.7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32.9	36.6	28.9	1.7	43.7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30.5	38.2	30.3	0.0	48.4
		주점업	69	3.3	31.3	42.1	22.3	1.1	77.5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16.0	25.9	39.1	15.8	3.2	83.6
지역	서울권		166	13.0	35.4	31.9	15.2	4.6	96.0
	수도권		233	14.2	23.6	45.0	14.2	3.0	83.8
	충청권		165	6.1	27.1	41.5	23.0	2.2	88.3
	호남권		118	13.2	23.9	43.7	16.8	2.4	80.3
	경남권		258	27.6	15.7	29.9	25.0	1.9	82.5
	경북권		84	3.8	20.3	53.0	18.7	4.2	103.2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71.3	28.7	0.0	0.0	0.0	18.0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25.2	41.3	27.4	6.1	0.0	46.1
	1억 원~5억 원 미만		721	16.1	24.3	42.0	15.9	1.7	76.7
	5억 원 이상		230	3.7	10.1	29.3	46.5	10.4	168.4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사업장 신고면적은 평균 91.2㎡임. 일반음식점의 경우 사업장 신고면적은 평균 101.8㎡이며, 세부 업종별로 서양식(113.4㎡)은 큰 반면, 기타 외국식(78.4㎡)은 비교적 작음.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사업장 신고면적은 평균 77.1㎡이며, 세부 업종별로 기관 구내 식당업(209.4㎡)은 큰 반면, 치킨 전문점(50.8㎡),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및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각 44.1㎡)은 상대적으로 작음.
- 지역별로 충청권(105.0㎡),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193.0㎡) 업체의 사업장 신고면적이 큼.

〈표 2-10-3〉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신고면적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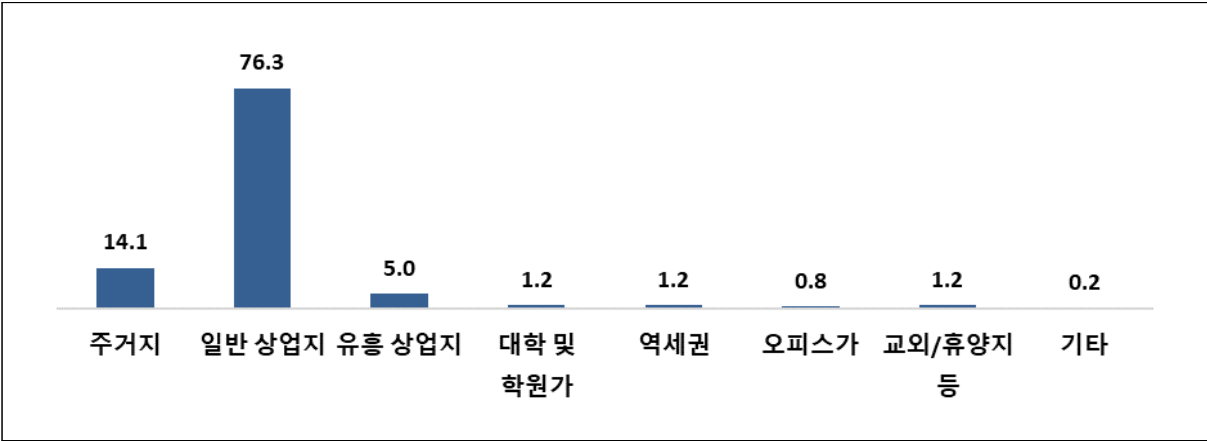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30㎡ 미만	30㎡~ 50㎡ 미만	50㎡~ 100㎡ 미만	100㎡~ 300㎡ 미만	300㎡ 이상	평균
전체			2,114	9.3	20.0	47.0	22.2	1.5	91.2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6.2	16.0	48.8	27.3	1.7	101.8
		한식	894	5.2	15.8	48.7	28.7	1.6	103.1
		중식	135	17.1	13.5	48.9	18.6	1.8	87.9
		일식	88	4.2	20.5	50.7	20.4	4.2	100.8
		서양식	72	5.7	16.5	48.2	28.3	1.3	113.4
		기타 외국식	36	2.7	26.7	51.4	19.3	0.0	78.4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13.5	25.4	44.5	15.5	1.2	77.1
		기관 구내식당업	57	2.9	9.2	17.2	49.1	21.6	209.4
		출장·이동음식점업	73	16.5	31.9	21.1	28.8	1.7	84.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28.3	35.8	27.3	7.7	60.1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28.2	17.5	45.5	8.7	60.4
			치킨 전문점	45	25.8	31.3	36.9	6.0	50.8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25.5	44.5	29.4	0.7	44.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33.8	44.4	20.2	1.5	44.1
		주점업	249	6.9	19.2	51.3	22.4	0.1	86.3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10.9	23.7	50.7	13.7	1.0	75.4
지역	서울권		325	11.9	28.3	42.9	16.4	0.6	72.5
	수도권		362	11.1	17.5	48.5	21.8	1.1	90.2
	충청권		416	2.6	12.3	55.2	28.2	1.7	105.0
	호남권		349	6.4	21.8	46.9	23.4	1.6	93.8
	경남권		353	21.3	22.1	38.4	16.8	1.3	80.1
	경북권		309	2.7	19.4	49.0	26.3	2.6	104.9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15.4	34.3	40.8	9.4	0.1	57.5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13.0	27.7	46.7	11.5	1.0	77.0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8.4	18.1	48.6	24.2	0.8	88.8
	5억 원 이상		216	2.9	6.0	34.1	44.9	12.1	193.0

3) 상권분류

- 외식업체의 상권은 일반 상업지가 76.3%로 가장 많고, 주거지(14.1%), 유흥 상업지(5.0%), 대학 및 학원가, 역세권 교외/휴양지 등, 대학 및 학원가(각 1.2%)의 순서로 나타남.

〈그림 2-11〉 상권분류 분포

(단위: %)



주: 중복응답한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적용한 비율임.

- 일반음식점의 경우 일반 상업지가 78.7%로 가장 많고, 주거지(14.3%), 유흥 상업지(2.9%), 교외/휴양지 등(1.8%), 대학 및 학원가와 역세권(각 1.0%), 오피스가(0.2%) 등의 순임.
 - 세부 업종별로 모든 업종에서 일반 상업지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거지 비중이 비교적 높음.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는 일반 상업지에 위치한 비중이 73.8%로 가장 높고, 주거지(13.9%), 유흥 상업지(7.1%), 오피스가(1.5%) 등의 순서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 대부분 업종이 일반 상업지에 위치하며, 기관 구내식당업의 경우 오피스가(37.5%)에 위치한 경우가 많음.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에 위치한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거지의 비중이 높으나, 수도권은 일반 상업지 다음으로 유흥 상업지(13.9%) 비중이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도 모든 규모에서 일반 상업지에 위치한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모든 규모에서 주거지에 위치한 비중이 비교적 높음.

〈표 2-11-1〉사업장 특성별 상권분류 분포(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주거지	일반 상업지	유흥 상업지	대학 및 학원가	역세권	오피스가	교외/ 휴양지 등	기타
전체			3,138	14.1	76.3	5.0	1.2	1.2	0.8	1.2	0.2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14.3	78.7	2.9	1.0	1.0	0.2	1.8	0.0
		한식	1,091	14.6	78.9	3.2	0.4	0.7	0.1	2.1	0.0
		중식	158	12.4	80.2	0.7	3.5	1.9	0.0	1.3	0.0
		일식	117	11.1	78.1	2.6	2.7	3.8	0.8	0.9	0.0
		서양식	118	19.1	68.7	2.9	5.4	3.0	1.0	0.0	0.0
		기타 외국식	72	7.3	87.6	1.8	1.4	0.5	1.4	0.0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13.9	73.8	7.1	1.4	1.3	1.5	0.6	0.4
		기관 구내식당업	78	8.2	42.5	0.0	1.5	7.5	37.5	0.0	2.9
		출장·이동음식점업	78	11.7	72.4	0.0	3.7	1.8	5.6	3.5	1.2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23.3	70.3	2.7	0.6	0.9	2.2	0.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10.1	86.2	1.5	0.7	0.8	0.0	0.8
			치킨 전문점	172	12.1	85.5	0.0	1.2	0.6	0.0	0.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16.6	75.3	3.9	1.1	2.3	0.0	0.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14.4	81.0	2.9	0.0	1.3	0.0	0.5
		주점업	318	11.3	69.6	18.0	0.3	0.0	0.3	0.0	0.5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14.8	73.2	4.8	3.0	2.0	0.5	1.4	0.3
경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11.4	78.1	5.3	1.6	2.4	0.7	0.3	0.2
	비프랜차이즈		2,114	15.1	75.6	4.9	1.0	0.7	0.9	1.6	0.2
지역	서울권		491	28.2	61.9	4.8	1.8	1.9	1.5	0.0	0.0
	수도권		595	11.0	71.3	13.9	0.3	0.8	1.4	1.1	0.2
	충청권		581	9.2	82.7	2.5	0.6	1.1	0.5	3.0	0.4
	호남권		467	19.7	71.5	0.9	3.1	2.0	0.5	2.0	0.4
	경남권		611	8.9	86.1	3.2	0.8	0.9	0.2	0.0	0.0
	경북권		393	9.1	83.2	4.0	0.8	0.4	1.1	1.1	0.2
매 출 액	5천만 원 미만		92	29.3	64.6	2.4	0.0	1.9	0.0	1.8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17.5	72.1	4.9	1.1	0.6	0.4	2.9	0.4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12.9	77.9	5.0	1.3	1.2	0.8	0.8	0.2
	5억 원 이상		446	11.0	75.9	6.2	1.2	2.1	2.1	1.2	0.3

주: 중복응답한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적용한 비율임.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상권 분포는 일반 상업지가 78.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거지(11.4%), 유흥 상업지(5.3%), 역세권(2.4%) 등의 순서임.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경우, 일반 상업지가 81.4%로 가장 많고, 세부 업종별로 모든 업종에서 일반 상업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주거지 비중이 높으나, 일식은 유흥 상업지(7.0%), 서양식은 역세권(8.6%)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경우 일반 상업지가 76.4%로 가장 높고, 세부 업종별로 모든 업종에서 일반 상업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매출액 규모별로는 모든 지역과 매출액에서 일반 상업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1-2〉 사업장 특성별 상권분류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주거지	일반 상업지	유흥 상업지	대학 및 학원가	역세권	오피스가	교외/ 휴양지 등	기타
전체		1,024	11.4	78.1	5.3	1.6	2.4	0.7	0.3	0.2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9.3	81.4	3.8	1.5	3.1	0.4	0.5
		한식	197	9.7	82.5	3.8	0.8	2.3	0.3	0.6
		중식	23	14.1	73.8	0.1	6.5	5.6	0.0	0.0
		일식	29	4.0	81.9	7.0	1.8	5.3	0.0	0.0
		서양식	46	8.2	71.6	3.4	5.3	8.6	2.8	0.0
		기타 외국식	36	6.5	89.1	4.0	0.0	0.5	0.0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12.5	76.4	6.1	1.7	2.0	0.9	0.2
		기관 구내식당업	21	13.4	44.4	0.0	0.0	12.4	23.8	0.0
		출장·이동음식점업	5	0.0	100.0	0.0	0.0	0.0	0.0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25.7	67.1	2.7	1.5	0.1	2.8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11.2	84.3	1.8	0.8	1.0	0.0
			치킨 전문점	127	12.4	85.1	0.0	0.8	0.9	0.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14.5	79.3	3.2	1.7	1.0	0.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8.1	82.9	5.4	0.0	2.7	0.0
		주점업	69	14.7	71.2	10.9	1.4	0.0	1.7	0.1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8.0	70.1	14.0	3.4	4.5	0.0	0.0
지역	서울권		166	22.2	68.9	2.6	0.7	3.3	2.3	0.0
	수도권		233	10.6	72.3	12.1	1.0	1.8	1.3	0.5
	충청권		165	7.5	84.3	3.6	1.3	2.3	0.0	1.0
	호남권		118	13.0	72.9	3.2	6.2	3.7	0.0	0.0
	경남권		258	8.7	85.1	3.4	0.5	2.1	0.3	0.0
	경북권		84	8.9	82.3	4.7	2.9	1.2	0.0	0.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28.7	71.3	0.0	0.0	0.0	0.0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18.2	74.2	6.8	0.0	0.8	0.0	0.0
	1억 원~5억 원 미만		721	11.6	77.8	5.2	1.7	2.4	0.7	0.3
	5억 원 이상		230	6.1	81.6	5.3	2.1	3.4	1.1	0.2

주: 중복응답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적용한 비율임.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상권 분포는 일반 상업지가 75.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거지(15.1%), 유흥 상업지(4.9%), 교외/휴양지 등(1.6%), 대학 및 학원가(1.0%) 등의 순서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경우 일반 상업지에 위치한 비중이 78.1%였으며, 세부 업종별로도 일반 상업지 비중이 가장 높음.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경우 일반 상업지에 위치한 비중이 72.3%이며, 세부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이 일반 상업지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거지 비중이 높으나, 기관 구내식당업은 일반 상업지 다음으로 오피스가(41.9%) 비중이 높음.
- 지역별, 매출액 규모별로 일반 상업지 다음으로 모든 지역에서 주거지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11-3〉 사업장 특성별 상권분류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주거지	일반 상업지	유흥 상업지	대학 및 학원가	역세권	오피스가	교외/ 휴양지 등	기타	
전체			2,114	15.1	75.6	4.9	1.0	0.7	0.9	1.6	0.2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15.4	78.1	2.7	0.9	0.6	0.2	2.1	0.0	
		한식	894	15.6	78.2	3.0	0.3	0.3	0.1	2.3	0.1	
		중식	135	12.2	81.1	0.8	3.1	1.4	0.0	1.5	0.0	
		일식	88	12.9	77.2	1.4	2.9	3.4	1.0	1.2	0.0	
		서양식	72	24.7	67.1	2.6	5.5	0.0	0.0	0.0	0.0	
		기타 외국식	36	8.0	86.4	0.0	2.6	0.4	2.6	0.0	0.0	
		소계	889	14.6	72.3	7.8	1.3	1.0	1.8	0.8	0.4	
	일반 음식점 외	기관 구내식당업	57	6.5	41.9	0.0	1.9	5.9	41.9	0.0	1.9	
		출장·이동음식점업	73	12.9	69.5	0.0	4.1	2.0	6.2	3.9	1.3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21.6	72.5	2.7	0.0	1.4	1.8	0.0	0.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4.5	95.5	0.0	0.0	0.0	0.0	0.0	0.0
			치킨 전문점	45	11.4	86.4	0.0	2.2	0.0	0.0	0.0	0.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18.0	72.8	4.3	0.7	3.2	0.0	1.1	0.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20.0	79.2	0.8	0.0	0.0	0.0	0.0	0.0	
		주점업	249	10.8	69.3	19.2	0.1	0.0	0.0	0.0	0.6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17.7	74.6	0.8	2.8	0.9	0.8	2.0	0.4	
지역	서울권		325	30.3	59.4	5.5	2.2	1.4	1.2	0.0	0.0	
	수도권		362	11.2	70.9	14.7	0.0	0.3	1.4	1.4	0.2	
	충청권		416	9.7	82.1	2.1	0.4	0.7	0.7	3.7	0.5	
	호남권		349	21.3	71.2	0.3	2.3	1.5	0.6	2.4	0.3	
	경남권		353	9.0	86.7	3.1	0.9	0.2	0.1	0.0	0.0	
	경북권		309	9.2	83.4	3.9	0.5	0.2	1.3	1.3	0.2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29.3	64.4	2.5	0.0	1.9	0.0	1.9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17.4	71.8	4.6	1.2	0.5	0.5	3.3	0.5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13.4	77.9	4.9	1.1	0.7	0.8	1.0	0.1	
	5억 원 이상		216	15.1	71.0	7.0	0.4	0.9	2.9	2.1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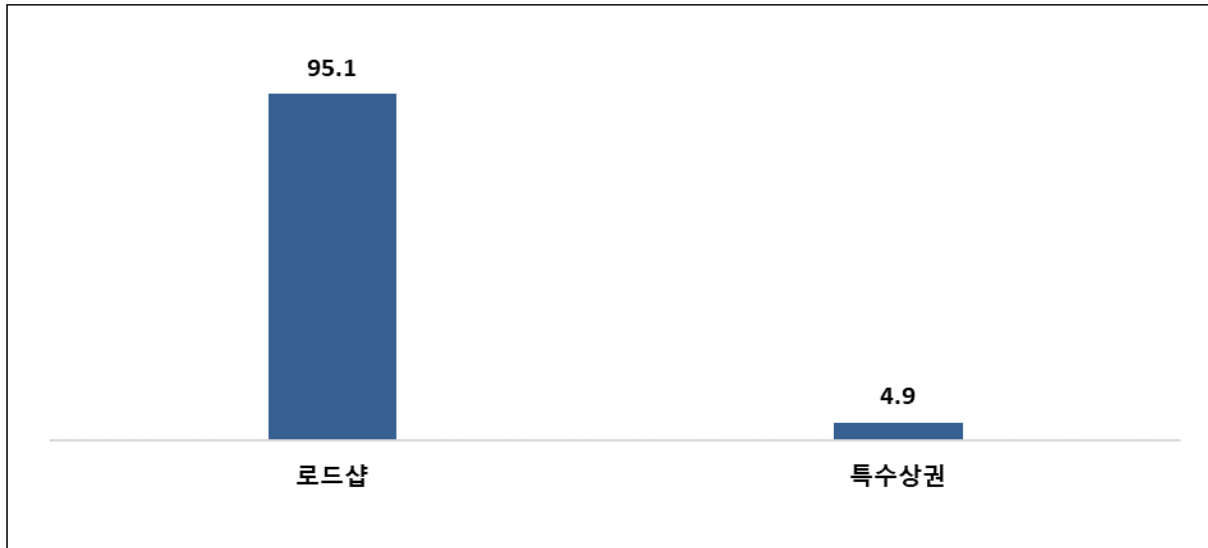
주: 중복응답한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적용한 비율임.

4) 사업장 상권 구분

- 외식업체의 95.1%는 로드샵에 위치하며, 특수상권 비중은 4.9%에 불과함.

〈그림 2-12〉 사업장 상권구분

(단위: %)



- 일반음식점의 경우 로드샵이 96.0%, 특수상권이 4.0%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는 중식(98.6%), 한식(96.0%)의 경우 로드샵 위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경우 로드샵 비중이 94.2%, 특수상권이 5.8%로 파악됨.
 - 세부 업종별로는 치킨 전문점(99.2%),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96.6%), 주점업(96.5%), 비알코올 음료점업(93.2%)의 경우 로드샵 비중이 높은 반면, 기관 구내식당업(74.9%)의 경우 로드샵에 위치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지역별로는 경남권(96.9%), 경북권(96.0%), 충청권(95.6%)의 경우 로드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도권권(92.6%)은 로드샵에 위치한 비중이 비교적 낮게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 1억 원~5억 원 미만(95.8%), 5천만 원 미만(94.1%)의 경우 로드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5억 원 이상(91.8%)은 로드샵에 위치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표 2-12-1〉 사업장 특성별 상권 구분(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특수상권	로드샵	
전체			3,138	4.9	95.1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4.0	96.0	
		한식	1,091	4.0	96.0	
		중식	158	1.4	98.6	
		일식	117	5.5	94.5	
		서양식	118	5.1	94.9	
		기타 외국식	72	7.3	92.7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5.8	94.2	
		기관 구내식당업	78	25.1	74.9	
		출장·이동음식점업	78	20.1	79.9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5.1	94.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3.4	96.6
			치킨 전문점	172	0.8	99.2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9.0	91.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7.2	92.8
		주점업	318	3.5	96.5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6.8	93.2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7.1	92.9	
	비프랜차이즈		2,114	4.1	95.9	
지역	서울권		491	5.0	95.0	
	수도권		595	7.4	92.6	
	충청권		581	4.4	95.6	
	호남권		467	5.2	94.8	
	경남권		611	3.1	96.9	
	경북권		393	4.0	96.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5.9	94.1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6.1	93.9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4.2	95.8	
	5억 원 이상		446	8.2	91.8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로드샵이 92.9%, 특수상권이 7.1%로 조사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한식(95.2%), 중식(94.4%),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 중에서는 치킨 전문점(99.9%)과 주점업(94.0%)의 로드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출장·이동음식점업(22.4%)은 로드샵보다 특수상권의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는 충청권(94.7%)의 로드샵 비중이 높고,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100.0%) 업체의 로드샵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2-12-2〉 사업장 특성별 상권구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특수상권	로드샵	
전체			1,024	7.1	92.9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5.9	94.1	
		한식	197	4.8	95.2	
		중식	23	5.6	94.4	
		일식	29	12.3	87.7	
		서양식	46	6.9	93.1	
		기타 외국식	36	15.3	84.7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7.7	92.3
	기관 구내식당업		21	36.4	63.6	
	출장·이동음식점업		5	77.6	22.4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6.7	93.3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3.6	96.4
			치킨 전문점	127	0.1	99.9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9.7	90.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9.0	91.0
	주점업		69	6.0	94.0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13.5	86.5	
	지역		서울권		166	5.7
		수도권		233	11.3	88.7
충청권		165	5.3	94.7		
호남권		118	7.9	92.1		
경남권		258	5.4	94.6		
경북권		84	5.9	94.1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0.0	10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7.8	92.2	
	1억 원~5억 원 미만		721	6.7	93.3	
	5억 원 이상		230	8.8	91.2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로드샵이 95.9%, 특수상권이 4.1%로 파악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기타 외국식(99.6%), 중식(99.2%),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 중에서는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과 치킨 전문점(각 97.6%)의 로드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경남권(98.2%),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 원~5억 원 미만(96.9%)에서 로드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12-3〉 사업장 특성별 상권구분(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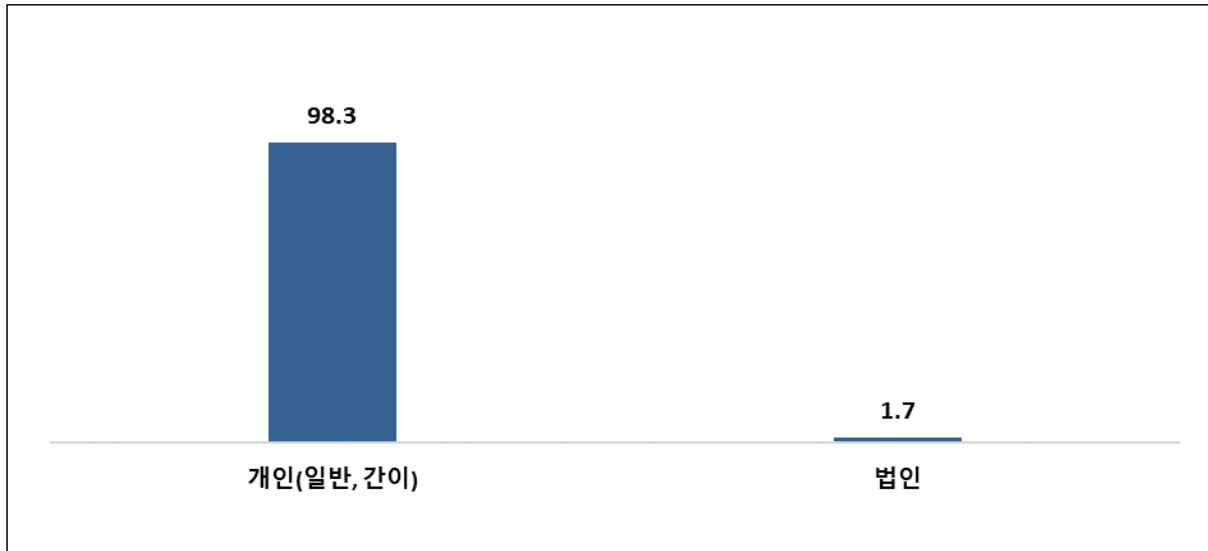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특수상권	로드샵	
전체			2,114	4.1	95.9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3.6	96.4	
		한식	894	3.9	96.1	
		중식	135	0.8	99.2	
		일식	88	3.8	96.2	
		서양식	72	4.2	95.8	
		기타 외국식	36	0.4	99.6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4.7	95.3
	기관 구내식당업		57	21.4	78.6	
	출장·이동음식점업		73	14.1	85.9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4.1	95.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2.4	97.6
			치킨 전문점	45	2.4	97.6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8.6	91.4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5.6	94.4	
	주점업		249	3.1	96.9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3.9	96.1		
지역	서울권		325	4.8	95.2	
	수도권		362	5.6	94.4	
	충청권		416	4.0	96.0	
	호남권		349	4.5	95.5	
	경남권		353	1.8	98.2	
	경북권		309	3.7	96.3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6.1	93.9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5.8	94.2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3.1	96.9	
	5억 원 이상		216	7.8	92.2	

5) 과세 종류

- 외식업체는 개인(일반, 간이) 과세가 98.3%, 법인 과세가 1.7%로 나타남.

〈그림 2-13〉 과세종류

(단위: %)



- 일반음식점의 경우 개인 과세가 98.7%, 법인 과세가 1.3%에 그치고 있음.
 - 세부 업종별로 중식(100.0%), 한식(98.7%), 일식(98.6%)은 개인 과세 비중이 높았고, 서양식(96.8%), 기타 외국식(96.3%)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음.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과세 종류별로는 개인 과세가 97.8%, 법인 과세가 2.2%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 주점업(100.0%), 치킨 전문점(99.9%)은 개인 과세 비중이 높고, 기관 구내식당업(64.7%)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음.
- 지역별로 충청권(99.3%), 서울권(98.6%), 수도권(98.4%)은 개인 과세 비중이 높은 반면, 호남권(97.5%)은 상대적으로 낮음.
- 매출액 규모별로 5천만 원 미만(100.0%), 5천만 원~1억 원 미만(98.9%)은 개인 과세 비중이 높은 반면, 5억 원 이상(92.9%) 업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3-1〉 사업장 특성별 과세 종류 분포(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개인(일반, 간이)	법인	
전체			3,138	98.3	1.7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98.7	1.3	
		한식	1,091	98.7	1.3	
		중식	158	100.0	0.0	
		일식	117	98.6	1.4	
		서양식	118	96.8	3.2	
		기타 외국식	72	96.3	3.7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97.8	2.2	
		기관 구내식당업	78	64.7	35.3	
		출장·이동음식점업	78	94.9	5.1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97.3	2.7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98.3	1.7
			치킨 전문점	172	99.9	0.1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99.7	0.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94.4	5.6
		주점업	318	100.0	0.0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97.9	2.1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96.5	3.5	
	비프랜차이즈		2,114	98.9	1.1	
지역	서울권		491	98.6	1.4	
	수도권		595	98.4	1.6	
	충청권		581	99.3	0.7	
	호남권		467	97.5	2.5	
	경남권		611	97.9	2.1	
	경북권		393	97.9	2.1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100.0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98.9	1.1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98.6	1.4	
	5억 원 이상		446	92.9	7.1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과세 종류는 개인 과세가 96.5%, 법인 과세가 3.5% 수준으로 조사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은 개인 과세가 96.6%, 법인 과세가 3.4% 수준임. 세부 업종별로는 중식(99.9%), 기타 외국식(99.0%)이 개인 과세 비중이 높음.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는 개인 과세가 96.4%, 법인 과세가 3.6% 수준으로 나타남. 세부 업종별로는 출장·이동음식점업(100.0%), 주점업(99.9%), 치킨 전문점(99.8%)의 개인 과세 비중이 매우 높음.
- 지역별로 서울권(98.6%), 매출액 규모별로 5천만 원 미만(100.0%) 업체의 개인 과세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2-13-2〉 사업장 특성별 과세 종류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개인(일반, 간이)	법인	
전체			1,024	96.5	3.5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96.6	3.4	
		한식	197	96.7	3.3	
		중식	23	99.9	0.1	
		일식	29	94.6	5.4	
		서양식	46	93.2	6.8	
		기타 외국식	36	99.0	1.0	
		소계	693	96.4	3.6	
	일반 음식점 외	기관 구내식당업	21	21.3	78.7	
		출장·이동음식점업	5	100.0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97.9	2.1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98.0	2.0
			치킨 전문점	127	99.8	0.2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99.1	0.9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99.0	1.0
		주점업	69	99.9	0.1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94.8	5.2	
지역	서울권		166	98.6	1.4	
	수도권		233	96.2	3.8	
	충청권		165	98.5	1.5	
	호남권		118	94.3	5.7	
	경남권		258	94.9	5.1	
	경북권		84	97.7	2.3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100.0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98.6	1.4	
	1억 원~5억 원 미만		721	97.6	2.4	
	5억 원 이상		230	88.9	11.1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과세 종류는 개인 과세가 98.9%, 법인 과세가 1.1%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은 개인 과세가 99.1%, 법인 과세가 0.9%로 나타남. 세부 업종별로는 중식(100.0%), 일식(99.6%), 한식(99.1%)의 개인 과세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는 개인 과세가 98.6%, 법인 과세가 1.4%로 나타남. 세부 업종별로는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과 치킨 전문점,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주점업(각 100.0%)은 비교적 개인 과세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남권(99.6%), 충청권(99.5%), 매출액 규모별로 5천만 원 미만(100.0%) 업체의 개인 과세 비중이 매우 높음.

〈표 2-13-3〉 사업장 특성별 과세 종류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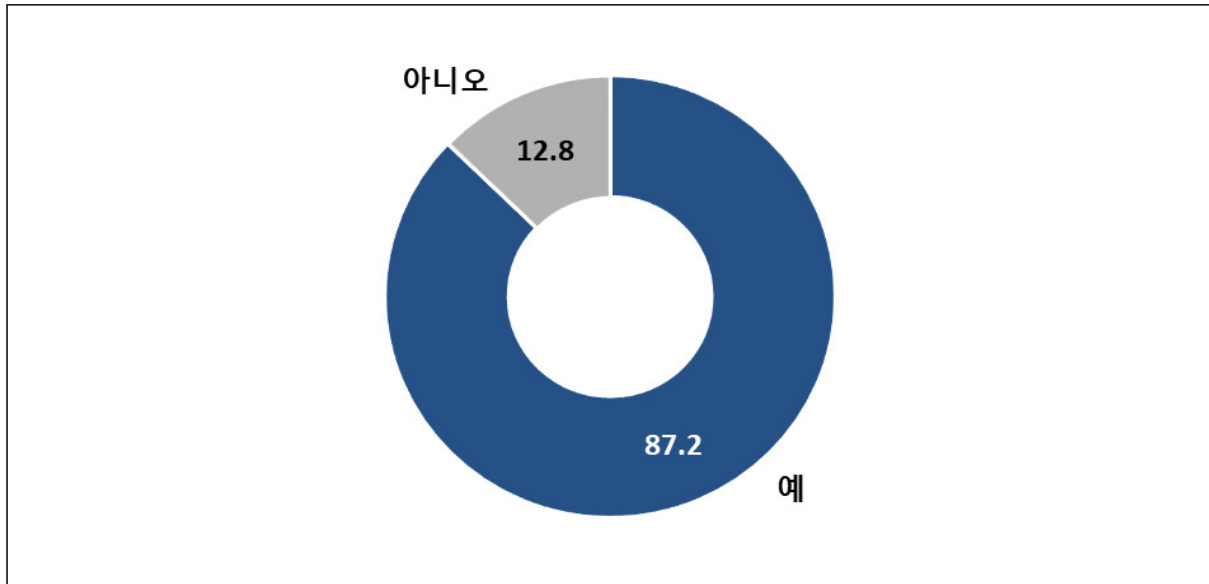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개인(일반, 간이)	법인
전체			2,114	98.9	1.1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99.1	0.9
		한식	894	99.1	0.9
		중식	135	100.0	0.0
		일식	88	99.6	0.4
		서양식	72	98.7	1.3
		기타 외국식	36	93.9	6.1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98.6	1.4
		기관 구내식당업	57	78.8	21.2
		출장·이동음식점업	73	94.4	5.6
		제과점	84	96.8	3.2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100.0	0.0
		치킨 전문점	45	100.0	0.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100.0	0.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90.4	9.6
		주점업	249	100.0	0.0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99.2	0.8
지역	서울권		325	98.6	1.4
	수도권		362	99.4	0.6
	충청권		416	99.5	0.5
	호남권		349	98.3	1.7
	경남권		353	99.6	0.4
	경북권		309	97.9	2.1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100.0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99.0	1.0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99.0	1.0
	5억 원 이상		216	96.3	3.7

6) 사업장 임차 여부

- 외식업체 중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는 비중은 87.2%로 나타남.

〈그림 2-14〉 사업장 임차 여부

(단위: %)



- 일반음식점의 경우 사업장 임차 비중이 81.9%로 나타나 전체 외식업체(87.2%)보다 낮음.
 - 세부 업종별로 일식(96.2%), 기타 외국식(94.1%), 서양식(87.1%)의 임차 비중이 비교적 높은 반면, 한식(80.8%), 중식(79.1%)의 경우 임차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는 92.8%가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세부 업종별로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98.5%), 주점업(97.5%), 치킨 전문점(94.5%),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91.7%)의 경우 임차 비중이 높은 반면, 출장·이동음식점업(80.5%), 기관 구내 식당업(68.7%)은 임차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지역별로 서울권(97.2%), 수도권(94.9%)은 임차 비중이 높은 반면, 충청권(83.8%), 호남권(77.0%)은 상대적으로 낮음.
- 매출액 규모별로 1억 원~5억 원 미만(88.5%), 5천만 원 미만(86.6%)은 임차 비중이 높은 반면, 5억 원 이상(82.1%)은 임차 비중이 낮음.

〈표 2-14-1〉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차 여부 분포(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3,138	87.2	12.8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81.9	18.1	
		한식	1,091	80.8	19.2	
		중식	158	79.1	20.9	
		일식	117	96.2	3.8	
		서양식	118	87.1	12.9	
		기타 외국식	72	94.1	5.9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92.8	7.2	
		기관 구내식당업	78	68.7	31.3	
		출장·이동음식점업	78	80.5	19.5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91.0	9.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98.5	1.5
			치킨 전문점	172	94.5	5.5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91.7	8.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88.7	11.3
		주점업	318	97.5	2.5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90.2	9.8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95.9	4.1		
	비프랜차이즈	2,114	84.1	15.9		
지역	서울권	491	97.2	2.8		
	수도권	595	94.9	5.1		
	충청권	581	83.8	16.2		
	호남권	467	77.0	23.0		
	경남권	611	85.8	14.2		
	경북권	393	84.6	15.4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86.6	13.4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84.3	15.7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88.5	11.5		
	5억 원 이상	446	82.1	17.9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95.9%는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은 94.6%가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음. 세부 업종별로는 일식은 100.0%로 사업장 임차 비중이 높은 반면, 한식(94.1%), 중식(89.7%)은 상대적으로 낮음.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사업장 임차 비중은 96.6%이며, 세부 업종별로는 출장·이동음식점업과 주점업(각 100.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99.1%), 비알코올 음료점업(98.0%)의 사업장 임차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는 충청권(98.9%), 수도권(97.7%),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100.0%), 5천만 원~1억 원 미만(99.3%) 업체의 임차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2-14-2〉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차 여부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1,024	95.9	4.1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94.6	5.4
		한식	197	94.1	5.9
		중식	23	89.7	10.3
		일식	29	100.0	0.0
		서양식	46	97.1	2.9
		기타 외국식	36	96.5	3.5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96.6	3.4
		기관 구내식당업	21	55.9	44.1
		출장·이동음식점업	5	100.0	0.0
		제과점	82	98.0	2.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99.1	0.9
		치킨 전문점	127	95.0	5.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93.3	6.7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98.5	1.5
		주점업	69	100.0	0.0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98.6	1.4
	지역	서울권	166	97.0	3.0
		수도권	233	97.7	2.3
		충청권	165	98.9	1.1
		호남권	118	93.9	6.1
		경남권	258	93.6	6.4
		경북권	84	93.1	6.9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100.0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99.3	0.7
	1억 원~5억 원 미만		721	96.0	4.0
	5억 원 이상		230	93.2	6.8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84.1%는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으며,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은 79.2%가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음. 세부 업종별로는 일식(95.2%), 기타 외국식(92.0%)의 사업장 임차 비중이 비교적 높음.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사업장 임차 비중은 90.6%로 나타남. 세부 업종별로는 주점업(97.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95.6%), 치킨 전문점(93.4%),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90.7%)의 사업장 임차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서울권(97.2%), 수도권(93.7%), 매출액 규모별로 5천만 원 미만(86.2%) 업체의 임차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2-14-3〉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차 여부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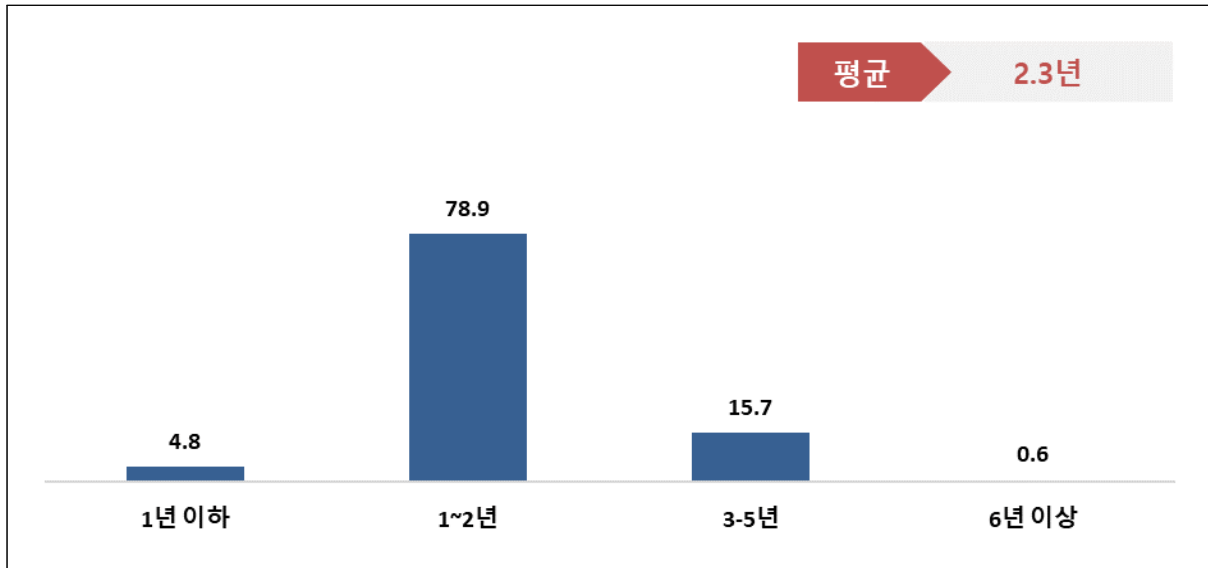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2,114	84.1	15.9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79.2	20.8
		한식	894	78.1	21.9
		중식	135	77.6	22.4
		일식	88	95.2	4.8
		서양식	72	81.9	18.1
		기타 외국식	36	92.0	8.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90.6	9.4
		기관 구내식당업	57	72.9	27.1
		출장·이동음식점업	73	78.5	21.5
		제과점	84	86.2	13.8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95.6	4.4
		치킨 전문점	45	93.4	6.6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90.7	9.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80.0	20.0
		주점업	249	97.1	2.9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86.6	13.4
	지역	서울권	325	97.2	2.8
		수도권	362	93.7	6.3
		충청권	416	78.8	21.2
		호남권	349	72.8	27.2
		경남권	353	81.3	18.7
		경북권	309	83.0	17.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86.2	13.8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82.1	17.9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85.5	14.5
	5억 원 이상		216	72.7	27.3

7) 사업장 임대계약 기간

- 외식업체의 임대계약 기간은 평균 2.3년으로 임대계약 기간별 비중은 1~2년이 78.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5년(15.7%), 1년 이하(4.8%), 6년 이상(0.6%)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5〉 사업장 임대계약 기간 분포

(단위: %)



- 일반음식점의 임대계약 기간은 평균 2.4년임. 임대계약 기간별 비중은 1~2년이 80.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5년(16.0%), 1년 이하(3.2%), 6년 이상(0.7%) 순임.
 - 세부 업종별로 한식과 중식, 일식(각 2.4년), 서양식과 기타 외국식(각 2.1년)의 순으로 임대계약 기간이 긴 것으로 파악됨.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임대계약 기간은 평균 2.3년인 가운데, 임대계약 기간별 비중은 1~2년이 7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5년(15.5%), 1년 이하(6.2%), 6년 이상(0.5%) 순임.
 - 세부 업종별로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2.7년), 기관 구내식당업과 치킨 전문점(각 2.4년), 출장·이동음식점업과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비알코올 음료점업(각 2.3년) 등의 순으로 긴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경남권(2.9년), 호남권(2.4년), 경북권(2.3년), 서울권(2.2년), 수도권과 충청권(각 2.1년)의 순으로 임대계약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 1억 ~5억 원 미만과 5억 원 이상(각 2.4년) 업체의 임대계약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표 2-15-1〉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대계약 기간 분포(전체)

(단위: 개소, %, 년)

구분				사례 수	1년 이하	1~2년	3~5년	6년 이상	평균
전체				2,732	4.8	78.9	15.7	0.6	2.3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93	3.2	80.1	16.0	0.7	2.4
		한식		883	3.2	79.2	16.8	0.7	2.4
		중식		129	2.6	82.7	13.8	0.8	2.4
		일식		112	3.0	79.8	17.2	0.0	2.4
		서양식		102	3.6	89.0	7.4	0.0	2.1
		기타 외국식		67	6.2	87.2	4.2	2.3	2.1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439	6.2	77.8	15.5	0.5	2.3
		기관 구내식당업		55	9.2	68.9	21.9	0.0	2.4
		출장·이동음식점업		63	0.0	82.0	18.0	0.0	2.3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48	2.4	86.6	11.0	0.0	2.2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38	5.4	64.2	29.3	1.1	2.7
			치킨 전문점	164	10.9	69.6	18.1	1.4	2.4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88	7.5	79.1	11.7	1.7	2.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61	9.1	78.2	12.7	0.0	2.2
		주점업		303	5.4	81.7	12.9	0.0	2.2
	비알코올 음료점업		319	5.6	78.3	15.9	0.3	2.3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968	8.2	72.2	18.9	0.7	2.4
	비프랜차이즈			1,764	3.4	81.7	14.4	0.6	2.3
지역	서울권			472	1.6	86.4	11.8	0.1	2.2
	수도권			557	0.5	89.9	9.6	0.0	2.1
	충청권			490	17.6	72.4	9.5	0.5	2.1
	호남권			360	8.1	73.3	15.6	3.0	2.4
	경남권			522	0.3	65.0	34.5	0.2	2.9
	경북권			331	0.6	88.7	10.7	0.0	2.3
매출 액	5천만 원 미만			79	9.4	75.4	14.1	1.1	2.3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4.1	83.3	12.5	0.2	2.2
	1억 원~5억 원 미만			1,945	4.4	78.9	16.0	0.7	2.4
	5억 원 이상			365	7.4	71.8	20.8	0.0	2.4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임대계약 기간은 평균 2.4년으로 나타남. 임대계약 기간별 비중은 1~2년이 72.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5년(18.9%), 1년 이하(8.2%), 6년 이상(0.7%) 등의 순임.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임대계약 기간은 평균 2.5년이며, 세부 업종별로 일식(3.0년), 한식(2.5년), 서양식(2.2년), 중식(2.1년), 기타 외국식(2.0년)의 순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임대계약 기간은 평균 2.4년이며, 세부 업종별로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2.8년), 치킨 전문점(2.4년), 제과점과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비알코올 음료점업(각 2.3년)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경남권(3.1년), 매출액 규모별로 1억 원~5억 원 미만(2.4년) 업체에서 임대계약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파악됨.

〈표 2-15-2〉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대계약 기간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년)

구분			사례수	1년 이하	1~2년	3~5년	6년 이상	평균	
전체			968	8.2	72.2	18.9	0.7	2.4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09	5.4	74.5	19.6	0.5	2.5	
		한식	182	5.0	73.8	20.5	0.6	2.5	
		중식	21	12.8	81.0	6.2	0.0	2.1	
		일식	29	0.0	64.9	35.1	0.0	3.0	
		서양식	43	6.6	79.3	14.2	0.0	2.2	
		기타 외국식	34	9.9	84.4	5.7	0.0	2.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59	9.6	71.0	18.6	0.7	2.4	
		기관 구내식당업	12	46.0	31.9	22.1	0.0	2.0	
		출장·이동음식점업	5	0.0	77.6	22.4	0.0	2.2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77	5.5	82.6	11.9	0.0	2.3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19	5.7	60.4	32.6	1.3	2.8
			치킨 전문점	122	13.4	66.5	18.0	2.0	2.4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87	8.6	74.5	15.9	1.1	2.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2	14.6	84.5	0.9	0.0	1.9	
		주점업	69	11.7	81.6	6.7	0.0	2.0	
	비알코올 음료점업	136	7.9	71.1	21.0	0.0	2.3		
지역	서울권		160	3.4	72.4	24.2	0.0	2.4	
	수도권		222	0.4	91.0	8.6	0.0	2.1	
	충청권		161	36.6	56.5	6.9	0.0	1.8	
	호남권		108	8.2	75.4	12.4	4.1	2.4	
	경남권		239	0.9	58.7	39.8	0.6	3.1	
	경북권		78	0.0	96.0	4.0	0.0	2.1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0.0	100.0	0.0	0.0	2.0	
	5천만 원~1억 원 미만		68	3.0	80.5	16.5	0.0	2.2	
	1억 원~5억 원 미만		694	8.1	72.0	19.1	0.8	2.4	
	5억 원 이상		202	12.3	67.4	20.2	0.0	2.3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임대계약 기간은 평균 2.3년으로 임대계약 기간별 비중은 1~2년이 8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5년(14.4%), 1년(3.4%), 6년 이상(0.6%) 등의 순임.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임대계약 기간은 평균 2.4년이며, 세부 업종별로 한식과 중식(각 2.4년), 일식과 기타 외국식(각 2.3년), 서양식(2.1년)의 순으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임대계약 기간은 평균 2.2년이며, 세부 업종별로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2.5년), 기관 구내식당업과 출장·이동음식점업, 치킨 전문점(각 2.4년) 등임.
- 지역별로 경남권(2.8년),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2.5년) 업체에서 임대계약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남.

〈표 2-15-3〉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대계약 기간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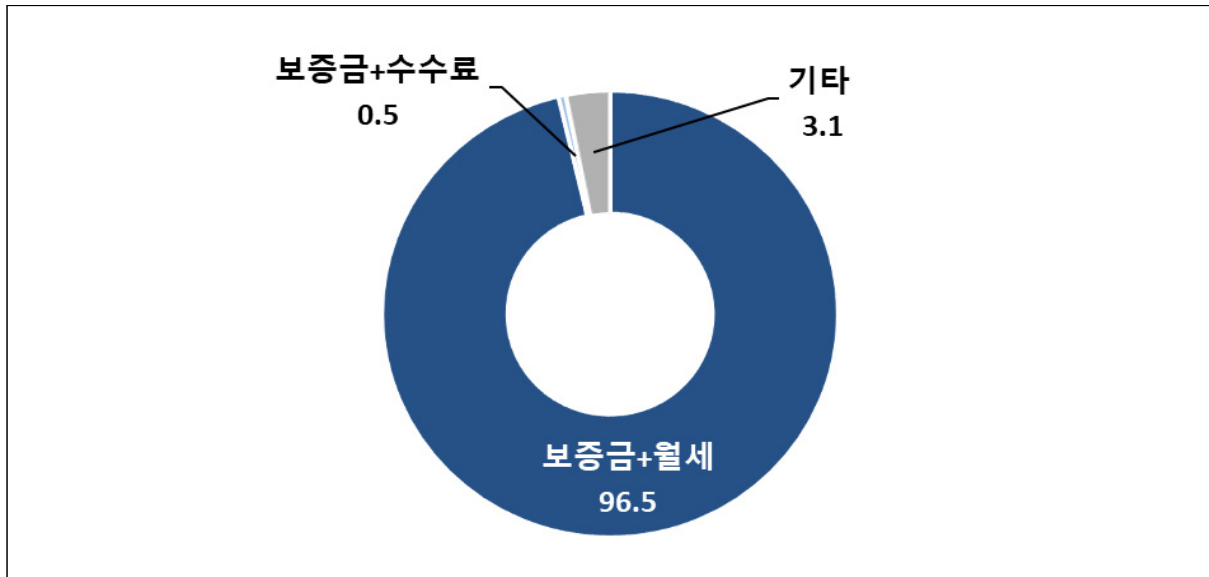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년 이하	1~2년	3~5년	6년 이상	평균	
전체			1,764	3.4	81.7	14.4	0.6	2.3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984	2.6	81.6	15.1	0.8	2.4	
		한식	701	2.8	80.5	15.9	0.8	2.4	
		중식	108	0.9	83.0	15.1	1.0	2.4	
		일식	83	3.7	83.7	12.5	0.0	2.3	
		서양식	59	1.8	95.1	3.2	0.0	2.1	
		기타 외국식	33	2.9	89.8	2.9	4.5	2.3	
		일반 음식점 외	소계	780	4.2	81.8	13.6	0.4	2.2
	기관 구내식당업		43	0.0	78.1	21.9	0.0	2.4	
	출장·이동음식점업		58	0.0	82.6	17.4	0.0	2.4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71	0.0	89.7	10.3	0.0	2.2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9	4.4	83.5	12.1	0.0	2.2
			치킨 전문점	42	4.9	76.7	18.4	0.0	2.4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01	6.8	82.1	8.9	2.1	2.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29	2.9	71.3	25.8	0.0	2.5	
	주점업		234	4.2	81.8	14.0	0.0	2.2	
	비알코올 음료점업	183	4.4	81.8	13.3	0.5	2.2		
지역	서울권		312	1.0	91.3	7.6	0.2	2.1	
	수도권		335	0.6	89.3	10.1	0.0	2.1	
	충청권		329	9.7	79.0	10.6	0.7	2.2	
	호남권		252	8.1	72.6	16.6	2.7	2.4	
	경남권		283	0.0	69.2	30.8	0.0	2.8	
	경북권		253	0.7	87.2	12.1	0.0	2.3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75	9.8	74.4	14.7	1.2	2.3	
	5천만 원~1억 원 미만		275	4.2	83.8	11.8	0.2	2.2	
	1억 원~5억 원 미만		1,251	2.7	82.0	14.5	0.7	2.3	
	5억 원 이상		163	2.1	76.6	21.3	0.0	2.5	

8) 사업장 임대조건

- 외식업체의 임대조건 중 ‘보증금+월세’의 비중이 9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보증금+수수료’는 0.5%, 기타 임대조건은 3.1%로 나타남.

〈그림 2-16〉 사업장 임대조건

(단위: %)



- 일반음식점의 임대조건에서도 대부분 업종이 ‘보증금+월세’ 형태의 임대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중식의 경우 98.2%가 ‘보증금+월세’ 형태의 임대조건을 갖고 있음.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에서도 대부분 업종이 ‘보증금+월세’ 형태의 임대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의 경우 100.0%가 ‘보증금+월세’ 형태의 임대조건임.
- 지역별로도 대부분 ‘보증금+월세’ 형태의 임대조건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이 98.2%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경북권은 92.0%로 가장 낮음.
- 매출액 규모별로 1억 원~5억 원 미만의 업체에서는 ‘보증금+월세’ 형태의 임대조건이 96.9%로 가장 높고, 5천만 원 미만(94.1%)에서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6-1〉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대조건(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보증금+월세	보증금+수수료	기타	
전체			2,732	96.5	0.5	3.1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93	95.9	0.6	3.5	
		한식	883	95.8	0.5	3.7	
		중식	129	98.2	0.0	1.8	
		일식	112	94.7	1.7	3.7	
		서양식	102	94.5	2.1	3.4	
		기타 외국식	67	95.4	2.3	2.2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439	97.0	0.3	2.7	
		기관 구내식당업	55	71.7	3.7	24.7	
		출장·이동음식점업	63	85.2	4.2	10.6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48	96.1	0.0	3.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38	97.2	0.8	2.0
			치킨 전문점	164	98.4	0.1	1.5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88	98.5	0.4	1.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61	100.0	0.0	0.0
		주점업	303	97.3	0.0	2.7	
	비알코올 음료점업	319	97.4	0.4	2.2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968	96.9	0.6	2.5	
	비프랜차이즈		1,764	96.3	0.4	3.3	
지역	서울권		472	97.9	0.9	1.2	
	수도권		557	98.2	0.2	1.6	
	충청권		490	97.1	0.6	2.3	
	호남권		360	94.4	0.2	5.4	
	경남권		522	97.2	0.1	2.7	
	경북권		331	92.0	1.1	6.9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79	94.1	0.0	5.9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95.7	0.7	3.5	
	1억 원~5억 원 미만		1,945	96.9	0.4	2.6	
	5억 원 이상		365	94.7	0.4	4.9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임대조건을 살펴보면, ‘보증금+월세’ 형태가 96.9%로 대부분이며, ‘보증금+수수료’는 0.6%, 기타 임대조건은 2.5%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에서는 한식(97.6%),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에서는 출장·이동음식점업과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각 100.0%)에서 ‘보증금+월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중 지역별로는 경북권(99.9%),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100.0%) 업체에서 보증금+월세 형태의 임대조건 비중이 높음.

〈표 2-16-2〉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대조건(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보증금+월세	보증금+수수료	기타	
전체			968	96.9	0.6	2.5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09	96.1	0.9	3.0	
		한식	182	97.6	0.0	2.4	
		중식	21	93.8	0.0	6.2	
		일식	29	84.9	8.1	7.0	
		서양식	43	94.6	2.6	2.8	
		기타 외국식	34	90.9	4.9	4.2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59	97.3	0.4	2.3
	기관 구내식당업		12	29.8	10.8	59.5	
	출장·이동음식점업		5	100.0	0.0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77	98.7	0.0	1.3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19	96.7	0.9	2.4
			치킨 전문점	122	99.8	0.1	0.1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87	96.4	0.9	2.7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2	100.0	0.0	0.0	
	주점업		69	99.3	0.0	0.7	
	비알코올 음료점업	136	97.5	0.0	2.5		
지역	서울권		160	95.9	1.0	3.1	
	수도권		222	98.0	0.4	1.7	
	충청권		161	96.4	1.0	2.6	
	호남권		108	96.9	0.8	2.3	
	경남권		239	96.1	0.3	3.6	
	경북권		78	99.9	0.0	0.1	
매 출 액	5천만 원 미만		4	100.0	0.0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68	96.6	1.0	2.4	
	1억 원~5억 원 미만		694	97.6	0.5	1.9	
	5억 원 이상		202	92.7	0.7	6.5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임대조건을 살펴보면, ‘보증금+월세’ 형태가 96.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보증금+수수료’는 0.4%, 기타 임대조건은 3.3%임.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에서는 기타 외국식(99.5%)과 중식(98.8%)에서 ‘보증금+월세’ 형태의 임대조건 비중이 높으며,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에서는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과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각 100.0%)에서 ‘보증금+월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지역별로는 서울권(98.6%),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96.8%) 업체에서 보증금+월세 형태의 임대조건 비중이 높음.

〈표 2-16-3〉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대조건(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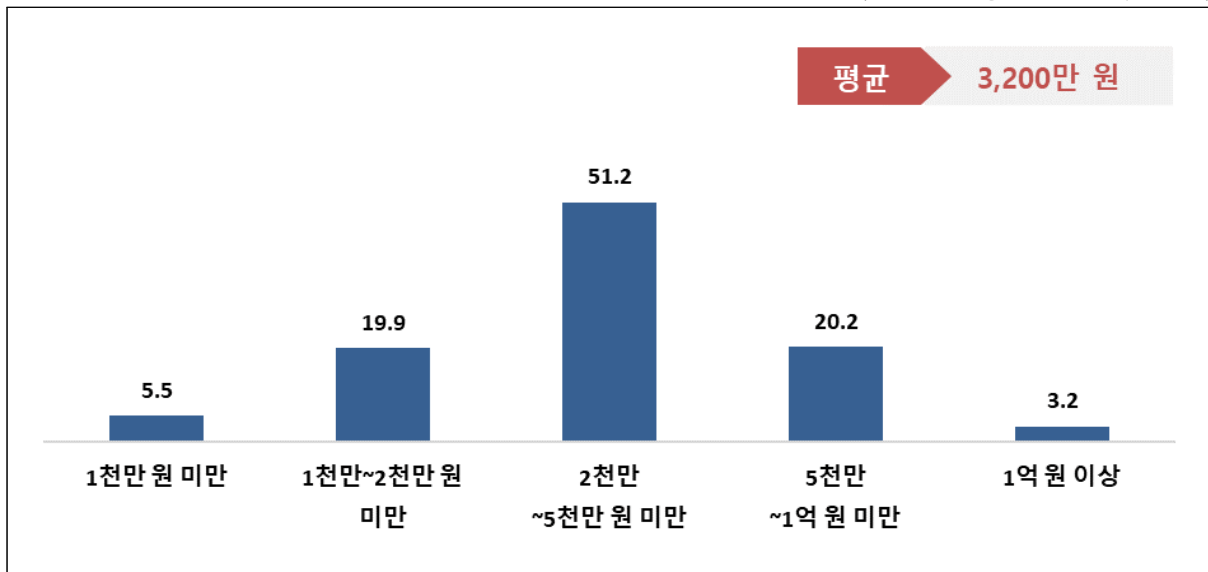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보증금+월세	보증금+수수료	기타	
전체			1,764	96.3	0.4	3.3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984	95.8	0.5	3.6	
		한식	701	95.4	0.6	4.0	
		중식	108	98.9	0.0	1.1	
		일식	83	97.2	0.0	2.8	
		서양식	59	94.5	1.8	3.7	
		기타 외국식	33	99.5	0.0	0.5	
		일반 음식점 외	소계	780	96.8	0.3	2.9
	기관 구내식당업		43	82.1	1.9	16.0	
	출장·이동음식점업		58	83.3	4.7	12.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71	94.2	0.0	5.8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9	100.0	0.0	0.0
			치킨 전문점	42	95.1	0.0	4.9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01	100.0	0.0	0.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29	100.0	0.0	0.0	
	주점업		234	96.9	0.0	3.1	
	비알코올 음료점업	183	97.4	0.6	2.1		
지역	서울권		312	98.6	0.8	0.6	
	수도권		335	98.3	0.1	1.6	
	충청권		329	97.4	0.4	2.2	
	호남권		252	93.6	0.0	6.4	
	경남권		283	98.0	0.0	2.0	
	경북권		253	90.3	1.3	8.4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75	93.8	0.0	6.2	
	5천만 원~1억 원 미만		275	95.6	0.7	3.7	
	1억 원~5억 원 미만		1,251	96.6	0.4	3.0	
	5억 원 이상		163	96.8	0.1	3.1	

9) 사업장 임차보증금

- 외식업체의 임차보증금은 평균 3,200만 원으로 나타남. 임차보증금별 비중은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 이 51.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천만 원~1억 원 미만(20.2%),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19.9%), 1천만 원 미만(5.5%), 1억 원 이상(3.2%)의 순임.

〈그림 2-17〉 사업장 임차보증금 분포

(Base: 임차보증금이 있는 업체, 단위: %)



- 일반음식점의 임차보증금은 평균 3,222만 원이며,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이 52.0%, 다음으로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20.1%), 5천만 원~1억 원 미만(19.1%), 1천만 원 미만(5.1%), 1억 원 이상(3.7%) 순으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 서양식(3,740만 원), 일식(3,482만 원), 한식(3,231만 원), 기타 외국식(2,773만 원), 중식(2,707만 원)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임차보증금은 평균 3,179만 원으로 파악됨.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이 5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20.7%), 5천만 원~1억 원 미만(18.1%), 1천만 원 미만(5.4%), 1억 원 이상(4.3%)의 순임.
 - 세부 업종별로 기관 구내식당업(4,949만 원), 비알코올 음료점업(3,577만 원), 제과점(3,500만 원), 출장·이동음식점업(3,415만 원),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3,349만 원), 치킨 전문점(3,052만 원), 주점업(2,786만 원),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2,726만 원) 등의 순으로 파악됨.
- 지역별로 수도권(4,092만 원), 서울권(3,702만 원), 호남권(3,347만 원), 경남권(2,939만 원), 충청권(2,408만 원), 경북권(2,350만 원)의 순서로 임차보증금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5,527만 원), 1억 원~5억 원 미만(3,169만 원), 5천만 원~1억 원 미만(2,512만 원), 5천만 원 미만(2,008만 원)의 순서로 임차보증금이 큰 것으로 조사됨.

〈표 2-17-1〉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차보증금 분포(전체)

(Base: 임차보증금이 있는 업체,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평균
전체			2,665	5.5	19.9	51.2	20.2	3.2	3,199.7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62	5.1	20.1	52.0	19.1	3.7	3,222.2
		한식	863	5.4	20.7	51.5	18.1	4.3	3,231.8
		중식	127	4.9	20.6	60.4	13.5	0.6	2,706.9
		일식	109	3.1	14.4	55.5	25.4	1.6	3,482.0
		서양식	100	3.1	16.8	42.5	36.0	1.7	3,740.4
		기타 외국식	63	7.2	17.6	51.1	24.2	0.0	2,772.5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403	5.8	19.8	50.5	21.1	2.8	3,179.0
		기관 구내식당업	45	3.8	6.3	44.2	31.0	14.7	4,948.6
		출장·이동음식점업	61	0.0	26.2	50.0	14.0	9.8	3,415.2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43	5.1	18.0	45.5	26.9	3,499.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33	1.1	18.2	53.3	24.5	3,348.6
			치킨 전문점	162	4.2	26.1	47.7	20.6	3,052.4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86	6.2	28.2	51.0	12.5	2,726.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61	0.0	25.3	61.1	13.6	2,708.5
		주점업	300	6.7	18.7	56.5	16.5	1.6	2,785.9
		비알코올 음료점업	312	7.2	16.5	45.9	26.7	3.8	3,576.9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934	2.6	14.4	53.4	24.9	4.7	3,693.7
		비프랜차이즈	1,731	6.7	22.2	50.3	18.2	2.6	2,994.8
	지역	서울권	466	1.5	10.1	58.3	26.1	4.1	3,701.7
		수도권	550	3.4	9.9	57.7	22.1	6.8	4,092.4
		충청권	481	5.6	33.6	47.6	12.6	0.6	2,407.8
		호남권	348	6.4	24.0	40.0	27.6	1.9	3,334.6
		경남권	499	5.2	20.4	54.9	16.3	3.2	2,939.1
		경북권	321	14.0	25.2	43.4	16.0	1.4	2,349.8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79	21.4	32.5	37.0	9.1	0.0	2,007.5
	5천만 원~1억 원 미만		332	13.8	26.6	43.9	14.7	1.0	2,511.8
	1억 원~5억 원 미만		1,916	3.3	19.1	55.3	19.8	2.5	3,168.5
	5억 원 이상		338	1.1	7.2	35.1	40.4	16.2	5,526.7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임차보증금은 평균 3,694만 원으로 나타남. 임차보증금별 비중은 2천만 원~5천만 원 이하가 53.4%로 가장 높고, 5천만 원~1억 원 미만(24.9%),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14.4%) 등임.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임차보증금은 평균 4,233만 원이며, 세부 업종별로 서양식(4,423만 원), 한식(4,389만 원), 일식(3,595만 원), 기타 외국식(3,195만 원), 중식(3,079만 원) 순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임차보증금은 평균 3,424만 원이며, 세부 업종별로 출장·이동음식점업(6,157만 원) 기관 구내식당업(4,458만 원), 제과점(4,188만 원), 비알코올 음료점업(4,052만 원) 등의 순으로 임차보증금이 큰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서울권(4,468만 원), 수도권(4,367만 원),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6,122만 원) 업체의 임차보증금이 비교적 큼.

〈표 2-17-2〉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차보증금 분포(프랜차이즈)

(Base: 임차보증금이 있는 업체,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평균	
전체			934	2.6	14.4	53.4	24.9	4.7	3,693.7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295	2.9	8.2	55.6	24.6	8.6	4,232.5	
		한식	177	3.5	7.6	54.3	24.4	10.1	4,388.9	
		중식	20	0.0	15.7	70.6	9.1	4.6	3,078.6	
		일식	26	0.0	7.6	73.2	15.4	3.8	3,595.0	
		서양식	41	0.0	12.1	43.1	40.4	4.4	4,422.9	
		기타 외국식	31	5.1	4.4	62.3	28.2	0.0	3,195.1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39	2.4	17.4	52.3	25.1	2.7	3,424.0	
		기관 구내식당업	8	0.0	10.3	39.1	49.7	0.9	4,458.3	
		출장·이동음식점업	5	0.0	22.4	0.0	38.8	38.8	6,156.7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76	5.5	5.5	44.2	38.9	6.0	4,187.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14	1.3	17.7	52.6	25.7	2.7	3,335.0
			치킨 전문점	121	3.9	24.4	52.8	16.9	2.0	2,962.7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85	0.0	21.0	61.2	15.6	2.2	3,067.8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2	0.0	20.7	69.4	9.9	0.0	2,587.7
		주점업	68	4.1	26.2	43.4	25.4	0.9	2,870.0	
	비알코올 음료점업	130	1.8	10.2	52.5	31.8	3.7	4,051.8		
지역	서울권		155	1.5	4.4	54.1	33.0	7.0	4,467.8	
	수도권		217	0.7	8.0	60.7	23.1	7.4	4,366.8	
	충청권		159	3.7	29.4	47.9	17.4	1.6	2,733.0	
	호남권		105	2.5	16.5	47.2	31.3	2.5	3,891.5	
	경남권		221	1.0	14.7	54.9	26.0	3.5	3,410.7	
	경북권		77	13.7	13.1	48.1	17.9	7.2	3,025.2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0.0	28.7	71.3	0.0	0.0	2,671.6	
	5천만 원~1억 원 미만		66	7.8	32.4	49.2	8.6	2.0	2,486.9	
	1억 원~5억 원 미만		683	2.5	13.3	58.6	23.3	2.3	3,407.8	
	5억 원 이상		181	0.0	9.3	24.9	45.0	20.7	6,122.2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임차보증금은 평균 2,995만 원으로 나타남. 임차보증금별 비중은 2천만 원~5천만 원 이하가 50.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22.2%), 5천만 원~1억 원 미만(18.2%), 1천만 원 미만(6.7%), 1억 원 이상(2.6%) 등임.
- 일반음식점의 임차보증금은 평균 2,962만 원이며, 세부 업종별로 일식(3,454만 원), 서양식(3,329만 원), 한식(2,949만 원), 중식(2,651만 원), 기타 외국식(2,403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임차보증금은 평균 3,033만 원이며, 세부 업종별로 기관 구내식당업(5,057만 원),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3,417만 원) 등의 순으로 파악됨.
- 지역별로 수도권(3,959만 원),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4,891만 원)에서 임차보증금이 큼.

〈표 2-17-3〉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차보증금 분포(비프랜차이즈)

(Base: 임차보증금이 있는 업체, 단위: 개소,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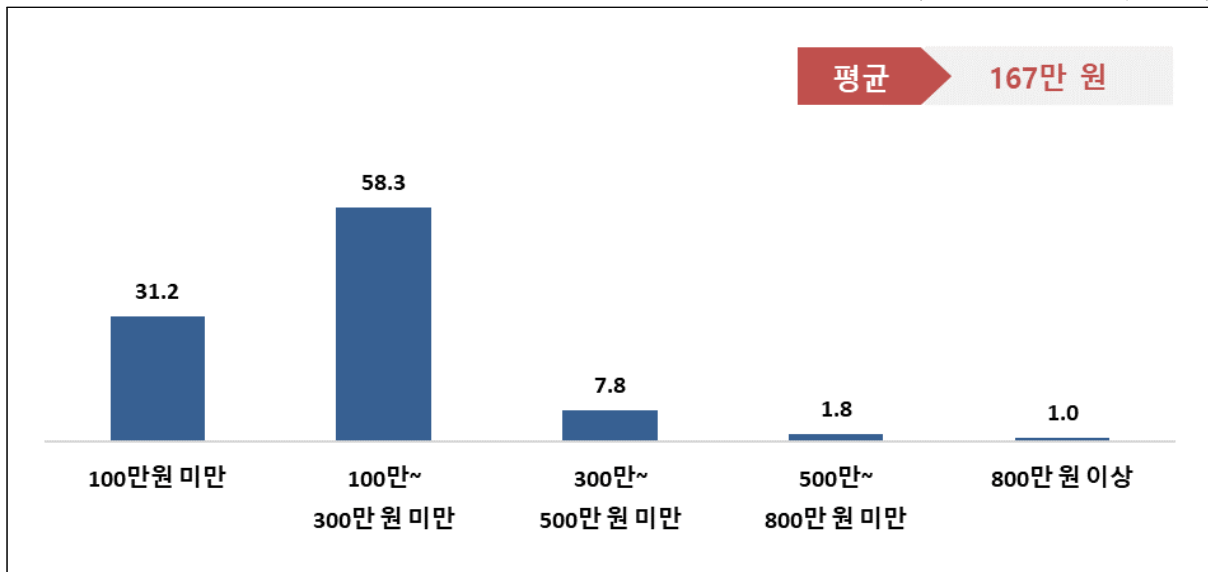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평균	
전체			1,731	6.7	22.2	50.3	18.2	2.6	2,994.8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967	5.7	23.1	51.1	17.7	2.4	2,962.2	
		한식	686	5.8	23.9	50.8	16.5	2.9	2,948.7	
		중식	107	5.6	21.4	58.9	14.1	0.0	2,651.0	
		일식	83	3.9	16.0	51.1	27.9	1.1	3,453.9	
		서양식	59	5.0	19.6	42.1	33.3	0.0	3,328.7	
		기타 외국식	32	9.0	29.1	41.3	20.7	0.0	2,403.2	
		소계	764	7.8	21.1	49.5	18.7	2.9	3,032.7	
	일반 음식점 외	기관 구내식당업	37	4.7	5.5	45.3	26.9	17.7	5,057.2	
		출장·이동음식점업	56	0.0	26.8	57.2	10.4	5.6	3,020.7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67	4.7	28.2	46.5	17.1	3.5	2,934.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9	0.0	20.8	56.5	18.7	3.9	3,417.2
			치킨 전문점	41	4.9	30.1	35.5	29.6	0.0	3,269.6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01	10.3	33.0	44.3	10.5	1.9	2,502.5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29	0.0	30.4	51.9	17.7	0.0	2,841.6
		주점업	232	7.2	17.3	58.9	14.9	1.8	2,770.6	
		비알코올 음료점업	182	9.8	19.5	42.6	24.2	3.8	3,345.8	
지역	서울권	311	1.4	12.0	59.7	23.8	3.1	3,445.5		
	수도권	333	4.8	10.9	56.2	21.6	6.6	3,958.9		
	충청권	322	6.4	35.4	47.4	10.6	0.2	2,272.0		
	호남권	243	7.7	26.4	37.7	26.4	1.8	3,152.9		
	경남권	278	8.0	24.2	54.8	10.0	3.0	2,628.2		
	경북권	244	14.1	27.9	42.3	15.6	0.1	2,198.9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75	22.3	32.6	35.6	9.5	0.0	1,980.4		
	5천만 원~1억 원 미만	266	14.8	25.6	43.0	15.8	0.8	2,516.2		
	1억 원~5억 원 미만	1,233	3.7	21.8	53.7	18.2	2.6	3,058.8		
	5억 원 이상	157	2.2	5.0	45.9	35.4	11.5	4,891.1		

10) 사업장 월세

- 외식업체의 월세는 평균 167만 원으로 나타남. 월세 구간별 비중은 100만 원~300만 원 미만이 5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0만 원 미만(31.2%), 300만 원~500만 원 미만(7.8%), 500만 원~800만 원 미만(1.8%), 800만 원 이상(1.0%) 등의 순임.

〈그림 2-18〉 사업장 월세 분포

(Base: 월세가 있는 업체, 단위: %)



- 일반음식점의 월세는 평균 178만 원인 가운데, 100만 원~300만 원 미만이 5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0만 원 미만(30.3%), 300만 원~500만 원 미만(9.0%), 500만 원~800만 원 미만(2.3%), 800만 원 이상(1.0%) 등임.
 - 세부 업종별로 서양식(207만 원), 기타 외국식(190만 원), 일식(188만 원), 한식(178만 원), 중식(145만 원)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월세는 평균 156만 원으로 조사됨. 100만 원~300만 원 미만이 5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0만 원 미만(32.0%), 300만 원~500만 원 미만(6.7%), 500만 원~800만 원 미만(1.3%), 800만 원 이상(1.0%) 등의 순임.
 - 세부 업종별로 기관 구내식당업(413만 원),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173만 원), 출장·이동 음식점업(168만 원), 주점업(167만 원), 제과점(164만 원), 비알코올 음료점업(156만 원),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125만 원), 치킨 전문점(123만 원),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115만 원) 순으로 파악됨.
- 지역별로 서울권(226만 원), 수도권(179만 원), 경남권(162만 원), 충청권(149만 원), 호남권(135만 원), 경북권(131만 원)의 순서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358만 원), 1억 원~5억 원 미만(163만 원), 5천만 원~1억 원 미만(111만 원), 5천만 원 미만(78만 원)의 순임.

〈표 2-18-1〉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월세 분포(전체)

(Base: 월세가 있는 업체,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100만 원 미만	100만 원~300만 원 미만	300만 원~500만 원 미만	500만 원~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평균
전체			2,660	31.2	58.3	7.8	1.8	1.0	166.5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56	30.3	57.5	9.0	2.3	1.0	177.6
		한식	861	31.7	55.9	8.9	2.5	1.0	178.0
		중식	128	30.9	64.5	3.4	0.6	0.6	145.9
		일식	106	23.1	60.7	12.7	2.8	0.8	187.7
		서양식	98	17.1	67.2	14.0	1.2	0.5	206.7
		기타 외국식	63	21.5	62.5	13.0	1.3	1.8	189.9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404	32.0	59.0	6.7	1.3	1.0	156.4
		기관 구내식당업	45	21.5	47.9	9.3	2.2	19.0	412.5
		출장·이동음식점업	58	42.3	41.6	5.8	10.3	0.0	167.9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45	31.8	56.8	8.0	0.9	164.1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32	27.2	58.4	11.4	2.2	173.1
			치킨 전문점	163	45.0	50.8	4.2	0.0	123.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87	48.4	48.0	3.1	0.5	115.3
			간이 음식 포장판매 전문점	61	23.8	76.2	0.0	0.0	124.5
		주점업	300	25.1	64.6	9.1	0.3	0.9	166.9
		비알코올 음료점업	313	30.0	60.9	5.7	2.7	0.6	156.3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933	21.1	63.8	10.3	3.6	1.2	194.5
	비프랜차이즈		1,727	35.4	56.0	6.7	1.0	0.9	154.9
지역	서울권		463	7.0	72.3	15.1	3.7	2.0	225.7
	수도권		541	18.4	72.1	7.7	0.5	1.4	178.9
	충청권		483	43.4	47.8	6.7	1.2	0.9	148.6
	호남권		348	43.8	49.3	4.9	1.6	0.4	135.4
	경남권		500	33.1	57.7	6.8	1.9	0.6	162.0
	경북권		325	51.6	42.0	4.2	1.9	0.4	131.3
매출 액	5천만 원 미만		76	77.9	19.7	2.4	0.0	0.0	78.1
	5천만 원~1억 원 미만		336	51.8	44.6	3.5	0.1	0.0	110.7
	1억 원~5억 원 미만		1,911	26.9	64.6	6.9	0.9	0.6	163.3
	5억 원 이상		337	5.7	45.3	27.9	14.4	6.8	358.0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월세는 평균 195만 원으로 나타남. 월세 구간별 비중은 100만 원~300만 원 미만이 6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0만 원 미만(21.1%), 300만 원~500만 원 미만(10.3%) 등임.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월세는 평균 229만 원이며, 세부 업종별로 기타 외국식(240만 원), 서양식(238만 원), 한식(237만 원), 일식(176만 원), 중식(152만 원)의 순서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월세는 평균 177만 원이며, 세부 업종별로 출장·이동음식점업(414만 원), 비알코올 음료점업(221만 원) 등의 순서로 조사됨.
- 지역별로 서울권(290만 원),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358만 원) 업체에서 월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8-2〉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월세 분포(프랜차이즈)

(Base: 월세가 있는 업체,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100만 원 미만	100만 원~300만 원 미만	300만 원~500만 원 미만	500만 원~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평균
전체			933	21.1	63.8	10.3	3.6	1.2	194.5
업종	일반음식점	소계	293	13.1	66.8	13.5	4.9	1.8	229.2
		한식	176	13.9	64.5	13.5	6.2	1.9	236.7
		중식	20	15.7	79.7	4.5	0.0	0.1	152.3
		일식	25	13.8	74.3	10.1	1.9	0.0	176.0
		서양식	41	9.8	71.7	17.2	0.0	1.3	238.4
		기타 외국식	31	0.0	74.1	21.5	0.5	3.8	239.7
	일반음식점 외	소계	640	25.0	62.3	8.7	3.0	1.0	177.3
		기관 구내식당업	5	19.0	79.3	1.7	0.0	0.0	145.9
		출장·이동음식점업	5	22.4	0.0	0.0	77.6	0.0	413.7
		기타음식점업	제과점	76	19.5	64.6	11.0	2.1	197.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13	27.9	54.9	13.7	2.7	184.2
			치킨 전문점	122	35.5	59.5	4.9	0.0	134.7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86	29.8	63.1	5.9	1.2	148.4
			간이 음식 포장판매 전문점	32	16.6	83.4	0.0	0.0	134.6
		주점업	68	26.1	64.1	9.5	0.0	0.3	167.3
		비알코올 음료점업	133	15.9	64.0	10.0	8.1	1.9	220.8
지역	서울권		156	8.9	61.3	15.0	9.8	5.0	289.5
	수도권		214	15.9	73.6	9.6	0.8	0.2	173.3
	충청권		158	25.2	60.7	9.9	2.0	2.2	189.2
	호남권		106	39.4	47.6	9.2	3.7	0.1	158.0
	경남권		222	18.7	69.4	8.6	3.2	0.1	185.0
	경북권		77	30.2	52.6	11.7	5.4	0.0	173.1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57.4	42.6	0.0	0.0	0.0	96.1
	5천만 원~1억 원 미만		68	36.4	62.0	1.6	0.0	0.0	121.5
	1억 원~5억 원 미만		682	21.9	68.0	8.0	1.8	0.3	175.3
	5억 원 이상		179	5.3	40.4	29.8	17.2	7.3	357.6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월세는 평균 155만 원으로 나타남. 월세 구간별 비중은 100만 원~300만 원 미만(56.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0만 원 미만(35.4%), 300만 원~500만 원 미만(6.7%) 등의 순임.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월세는 평균 164만 원이며, 세부 업종별로 일식(191만 원), 서양식(187만 원), 한식(164만 원), 기타 외국식(147만 원), 중식(145만 원)의 순서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월세는 평균 144만 원이며, 세부 업종별로 기관 구내식당업(442만 원), 주점업(167만 원), 제과점(138만 원), 출장·이동음식점업(130만 원), 비알코올 음료점업(124만 원) 등의 순서로 파악됨.
- 지역별로 서울권(204만 원),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359만 원) 업체에서 월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8-3〉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월세 분포(비프랜차이즈)

(Base: 월세가 있는 업체, 단위: 개소,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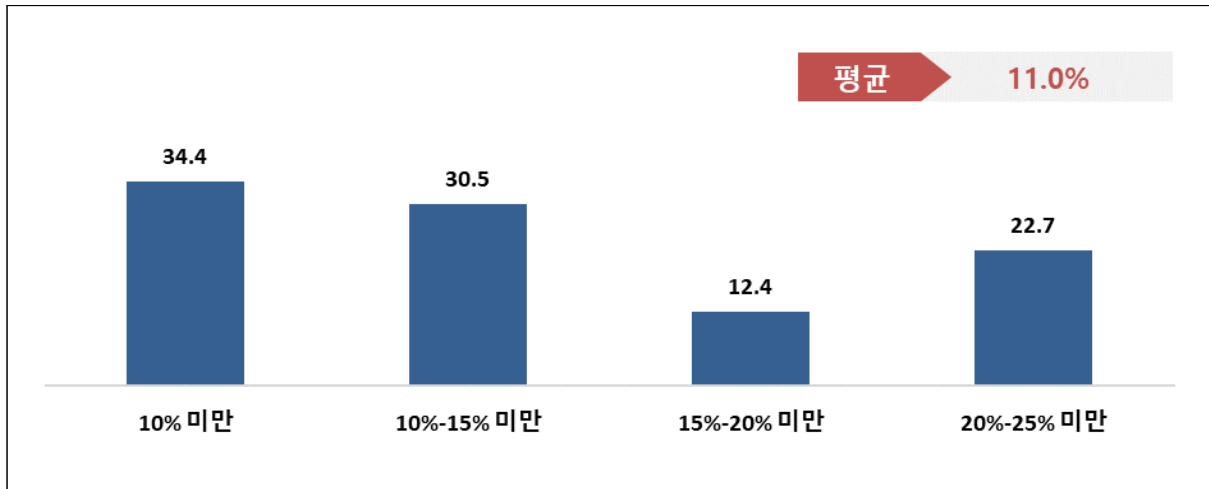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00만 원 미만	100만 원~300만 원 미만	300만 원~500만 원 미만	500만 원~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평균	
전체			1,727	35.4	56.0	6.7	1.0	0.9	154.9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963	34.7	55.1	7.8	1.6	0.7	164.4	
		한식	685	36.0	53.8	7.7	1.6	0.8	163.7	
		중식	108	33.1	62.3	3.3	0.7	0.7	145.0	
		일식	81	25.4	57.3	13.3	3.0	1.0	190.7	
		서양식	57	21.7	64.4	12.0	1.9	0.0	186.9	
		기타 외국식	32	39.9	52.5	5.8	1.9	0.0	147.2	
	일반 음식점 외	소계	764	36.2	57.1	5.5	0.2	1.0	143.8	
		기관 구내식당업	40	21.8	44.4	10.2	2.5	21.1	441.9	
		출장·이동음식점업	53	45.3	48.0	6.7	0.0	0.0	130.4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69	41.5	50.6	5.7	0.0	2.1	137.8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9	23.6	76.4	0.0	0.0	0.0	117.9
			치킨 전문점	41	67.7	29.7	2.6	0.0	0.0	94.8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01	60.8	38.0	1.2	0.0	0.0	93.3
		간이 음식 포장판매 전문점	29	31.8	68.2	0.0	0.0	0.0	113.3	
		주점업	232	24.9	64.7	9.0	0.4	1.0	166.9	
	비알코올 음료점업	180	37.0	59.4	3.6	0.0	0.0	124.2		
지역	서울권		307	6.3	76.0	15.1	1.6	0.9	203.9	
	수도권		327	19.6	71.3	6.7	0.4	2.0	181.7	
	충청권		325	50.9	42.5	5.3	0.9	0.4	131.8	
	호남권		242	45.2	49.9	3.5	1.0	0.4	128.1	
	경남권		278	42.6	49.9	5.5	1.0	1.0	146.7	
	경북권		248	56.4	39.6	2.5	1.1	0.5	121.9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72	78.8	18.7	2.5	0.0	0.0	77.3	
	5천만 원~1억 원 미만		268	54.5	41.6	3.8	0.1	0.0	108.8	
	1억 원~5억 원 미만		1,229	29.3	63.1	6.4	0.5	0.8	157.7	
	5억 원 이상		158	6.0	50.3	25.9	11.5	6.2	358.5	

11) 사업장 수수료

- 외식업체의 임대 수수료는 평균 11.0%로 나타남. 수수료 구간별 비중은 10% 미만(3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15% 미만(30.5%), 20%~25% 미만(22.7%), 15%~20% 미만(12.4%)의 순임.

〈그림 2-19〉 사업장 수수료 분포

(단위: %)



- 일반음식점의 임대 수수료는 평균 11.5%로 구간별로는 10%~15% 미만이 31.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 미만(31.1%), 20%~25% 미만(2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는 서양식이 19.6%로 수수료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식(18.0%), 일식(10.8%), 한식(10.1%), 기타 외국식(7.1%)의 순임.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임대 수수료는 평균 10.1%로 구간별로는 10% 미만이 41.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15% 미만(29.1%), 20%~25% 미만(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는 제과점이 1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출장·이동음식점업과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각 10.0%), 기관 구내식당업(9.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8.4%)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권의 수수료가 1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울권(10.7%), 경북권(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충청권(5.6%)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수수료가 낮음.
-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 업체의 수수료가 14.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억 원~5억 원 미만(10.8%), 5천만 원~1억 원 미만(10.1%)의 순으로 나타남.

〈표 2-19-1〉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수수료 분포(전체)

(Base: 수수료가 있는 업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10% 미만	10%~15% 미만	15%~20% 미만	20%~25% 미만	평균
전체			39	34.4	30.5	12.4	22.7	11.0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9	31.1	31.2	11.2	26.4	11.5
		한식	6	26.9	50.6	0.0	22.5	10.1
		중식	1	0.0	0.0	100.0	0.0	18.0
		일식	5	60.5	0.0	26.3	13.2	10.8
		서양식	3	3.7	0.0	0.0	96.3	19.6
		기타 외국식	4	76.1	0.0	8.0	15.9	7.1
	일반 음식점 외	소계	20	41.2	29.1	14.8	15.0	10.1
		기관 구내식당업	3	3.6	96.4	0.0	0.0	9.9
		출장·이동음식점업	3	0.0	100.0	0.0	0.0	1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3	0.0	0.0	59.8	18.2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	91.3	6.5	0.0	8.4
			치킨 전문점	1	100.0	0.0	0.0	2.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	0.0	100.0	0.0	10.0
		비알코올 음료점업	4	80.1	0.0	3.4	16.6	5.7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25	35.9	28.7	16.8	18.6	11.8
	비프랜차이즈		14	33.1	32.0	8.7	26.1	10.4
지역	서울권		7	46.6	12.9	0.0	40.5	10.7
	수도권		6	75.5	0.0	0.0	24.5	7.4
	충청권		4	82.1	0.0	17.9	0.0	5.6
	호남권		2	73.4	0.0	26.6	0.0	9.9
	경남권		14	0.0	34.4	27.3	38.3	16.2
	경북권		6	0.0	100.0	0.0	0.0	10.0
매출 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3	20.7	68.5	0.0	10.9	10.1
	1억 원~5억 원 미만		19	36.6	25.6	12.2	25.7	10.8
	5억 원 이상		17	40.3	7.4	31.5	20.7	14.2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평균 수수료는 11.8%이며, 수수료 구간별로는 10% 미만인 35.9%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10%~15% 미만(28.7%), 20%~25% 미만(18.6%), 15%~20% 미만(1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수수료는 평균 12.2%이며, 세부 업종별로 서양식(19.1%), 중식(18.0%), 일식(10.8%), 한식(10.5%), 기타 외국식(6.2%)의 순임.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수수료는 평균 11.0%이며, 세부 업종별로 제과점(23.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10.0%), 기관 구내식당업(9.8%),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8.4%) 등의 순서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서울권이 17.8%로 가장 수수료가 높았고, 충청권(5.0%)은 낮게 나타남.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은 14.4%로 가장 수수료가 높음.

〈표 2-19-2〉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수수료 분포(프랜차이즈)

(Base: 수수료가 있는 업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10% 미만	10%~15% 미만	15%~20% 미만	20%~25% 미만	평균
전체			25	35.9	28.7	16.8	18.6	11.8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3	33.8	22.4	25.2	18.6	12.2
		한식	2	0.0	95.4	0.0	4.6	10.5
		중식	1	0.0	0.0	100.0	0.0	18.0
		일식	5	60.5	0.0	26.3	13.2	10.8
		서양식	2	7.6	0.0	0.0	92.4	19.1
		기타 외국식	3	82.7	0.0	0.0	17.3	6.2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2	39.6	39.7	2.2	18.5	11.0
		기관 구내식당업	2	6.0	94.0	0.0	0.0	9.8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	0.0	0.0	100.0	23.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	91.3	6.5	0.0	8.4
			치킨 전문점	1	100.0	0.0	0.0	2.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	0.0	100.0	0.0	10.0
		비알코올 음료점업	2	83.1	0.0	16.9	0.0	5.5
지역	서울권		5	0.0	32.6	0.0	67.4	17.8
	수도권		5	100.0	0.0	0.0	0.0	3.3
	충청권		2	100.0	0.0	0.0	0.0	5.0
	호남권		1	100.0	0.0	0.0	0.0	8.0
	경남권		12	0.0	50.7	38.7	10.5	14.4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1	100.0	0.0	0.0	0.0	5.0
	1억 원~5억 원 미만		11	26.6	40.5	13.7	19.3	11.6
	5억 원 이상		13	43.5	2.8	31.3	22.4	14.4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평균 수수료는 10.4%이며, 구간별로는 10% 미만인 33.1%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10%~15% 미만(32.0%), 20%~25% 미만(26.1%), 15%~20% 미만(8.7%)의 순으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수수료는 평균 11.0%이며, 세부 업종별로는 서양식(20.0%), 기타 외국식(18.0%), 한식(10.0%) 등의 순임.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수수료는 평균 9.1%이며, 세부 업종별로 제과점이 15.0%로 수수료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관 구내식당업과 출장·이동음식점업(각 10.0%), 비알코올 음료점업(5.7%) 등의 순서로 조사됨.
- 지역별로 수도권이 20.0%로 가장 수수료가 높고, 충청권(5.9%)이 가장 낮음.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이 12.7%로 가장 높고, 1억 원~5억 원 미만은 10.1%로 가장 낮음.

〈표 2-19-3〉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수수료 분포(비프랜차이즈)

(Base: 수수료가 있는 업체,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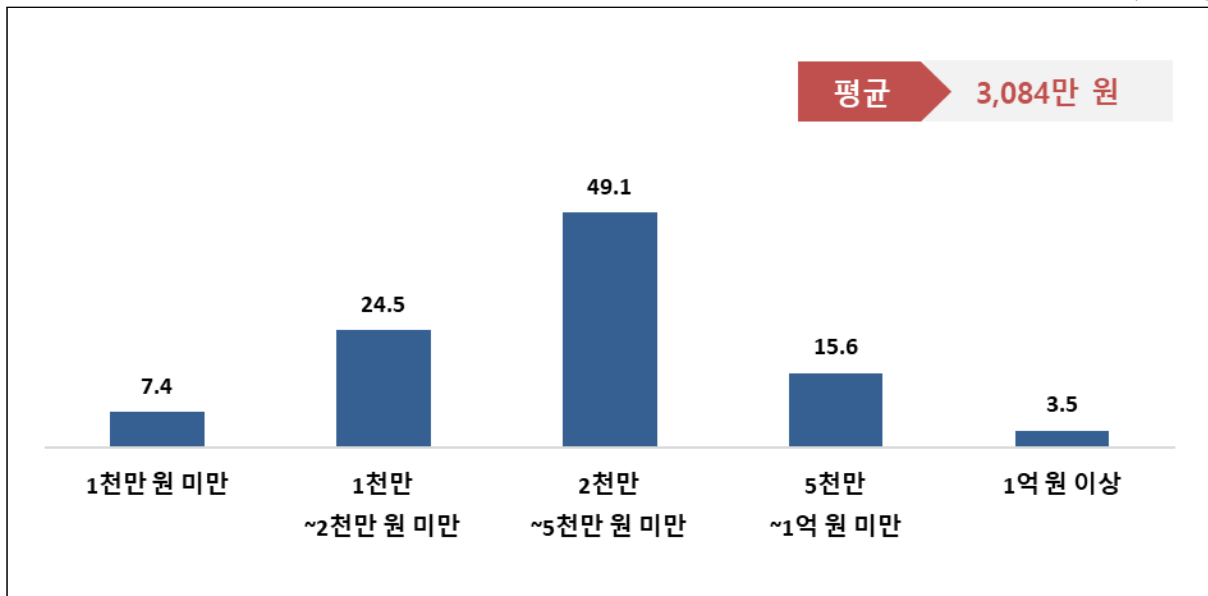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0% 미만	10%~15% 미만	15%~20% 미만	20%~25% 미만	평균
전체			14	33.1	32.0	8.7	26.1	10.4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6	29.1	37.8	0.7	32.3	11.0
		한식	4	32.2	41.8	0.0	26.0	10.0
		서양식	1	0.0	0.0	0.0	100.0	20.0
		기타 외국식	1	0.0	0.0	100.0	0.0	18.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	42.8	18.0	28.0	11.2	9.1
		기관 구내식당업	1	0.0	100.0	0.0	0.0	10.0
		출장·이동음식점업	3	0.0	100.0	0.0	0.0	10.0
		기타 음식점업	2	0.0	0.0	100.0	0.0	15.0
		제과점	2	0.0	0.0	100.0	0.0	15.0
		비알코올 음료점업	2	79.3	0.0	0.0	20.7	5.7
지역	서울권		2	76.9	0.0	0.0	23.1	6.2
	수도권		1	0.0	0.0	0.0	100.0	20.0
	충청권		2	69.7	0.0	30.3	0.0	5.9
	호남권		1	0.0	0.0	100.0	0.0	15.0
	경남권		2	0.0	0.0	3.1	96.9	19.9
	경북권		6	0.0	100.0	0.0	0.0	10.0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2	0.0	86.3	0.0	13.7	11.4
	1억 원~5억 원 미만		8	44.4	13.9	11.0	30.6	10.1
	5억 원 이상		4	0.0	65.7	34.3	0.0	12.7

12) 사업장 임차권리금

- 외식업체의 임차권리금은 평균 3,084만 원으로 나타남. 임차권리금 구간별 비중은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이 49.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24.5%), 5천만 원~1억 원 미만(15.6%), 1천만 원 미만(7.4%), 1억 원 이상(3.5%)으로 파악됨.

〈그림 2-20〉 사업장 임차권리금 분포

(단위: %)



- 일반음식점의 임차권리금은 평균 3,040만 원인 가운데,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이 46.5%로 가장 높고, 다음이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25.5%), 5천만 원~1억 원 미만(14.9%), 1천만 원 미만(9.2%), 1억 원 이상(3.9%)으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 일식(3,216만 원), 서양식(3,117만 원), 한식(3,077만 원), 중식(2,717만 원), 기타 외국식(2,182만 원)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임차권리금은 평균 3,124만 원이며,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이 51.6%로 가장 높고, 다음이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23.5%), 5천만 원~1억 원 미만(16.2%), 1천만 원 미만(5.6%), 1억 원 이상(3.1%) 등임.
 - 세부 업종별로는 비알코올 음료점업(3,720만 원),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3,363만 원), 치킨 전문점(3,158만 원), 제과점(3,152만 원), 출장·이동음식점업(3,053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경남권(3,799만 원), 서울권(3,678만 원), 호남권(3,434만 원), 수도권(2,769만 원), 충청권(2,613만 원), 경북권(1,874만 원)의 순서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5,518만 원), 1억 원~5억 원 미만(3,008만 원), 5천만 원~1억 원 미만(2,582만 원), 5천만 원 미만(1,888만 원)의 순임.

〈표 2-20-1〉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차권리금 분포(전체)

(Base: 임차권리금이 있는 업체,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평균
전체			1,206	7.4	24.5	49.1	15.6	3.5	3,083.5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580	9.2	25.5	46.5	14.9	3.9	3,040.3
		한식	379	9.7	25.1	47.2	13.6	4.4	3,077.1
		중식	64	5.7	33.1	41.3	17.9	2.0	2,717.4
		일식	49	6.2	16.4	51.8	23.8	1.8	3,216.2
		서양식	56	9.6	25.4	42.3	18.6	4.1	3,117.3
		기타 외국식	32	12.4	35.7	37.6	14.3	0.0	2,182.4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26	5.6	23.5	51.6	16.2	3.1	3,123.7
		기관 구내식당업	28	0.0	30.5	58.5	11.1	0.0	2,703.6
		출장-이동음식점업	19	0.0	41.7	23.3	35.1	0.0	3,053.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53	5.3	28.8	40.1	22.8	3,151.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48	0.0	19.4	58.3	17.4	3,362.7
			치킨 전문점	82	3.1	23.2	52.3	17.8	3,158.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82	11.7	28.8	50.7	7.9	2,447.1
			간이 음식 포장판매 전문점	22	3.2	47.0	36.3	13.5	2,128.4
		주점업	157	4.9	22.9	55.8	16.1	0.2	2,867.7
		비알코올 음료점업	135	6.9	19.9	47.9	18.1	7.3	3,719.7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412	1.7	19.3	51.6	21.8	5.7	3,746.5
	비프랜차이즈		794	9.5	26.5	48.2	13.2	2.7	2,828.9
지역	서울권		334	4.7	16.5	50.9	23.4	4.5	3,678.2
	수도권		374	4.0	23.6	60.1	11.7	0.6	2,769.0
	충청권		146	22.3	34.0	24.4	16.5	2.8	2,612.8
	호남권		89	13.0	16.2	52.2	10.3	8.3	3,433.8
	경남권		154	2.6	11.1	58.2	22.7	5.4	3,799.3
	경북권		109	6.6	59.1	29.0	1.4	3.9	1,873.8
매출 액	5천만 원 미만		26	17.9	30.6	47.1	4.4	0.0	1,887.8
	5천만 원~1억 원 미만		127	12.1	33.9	44.1	7.1	2.8	2,582.4
	1억 원~5억 원 미만		916	6.8	23.8	50.4	16.2	2.7	3,008.2
	5억 원 이상		137	0.0	9.1	45.0	30.5	15.5	5,517.5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임차권리금은 평균 3,747만 원으로 나타남. 구간별 비중은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이 51.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19.3%) 등의 순임.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임차권리금은 평균 3,740만 원이며, 세부 업종별로 한식(4,013만 원), 서양식(3,347만 원), 일식(3,346만 원), 기타 외국식(2,600만 원), 중식(2,378만 원)의 순서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임차권리금은 평균 3,750만 원이며, 세부 업종별로 비알코올 음료점업(5,008만 원), 출장·이동음식점업(5,000만 원), 기관 구내식당업(4,198만 원) 등의 순서로 조사됨.
- 지역별로 호남권(5,325만 원), 충청권(5,077만 원), 경남권(4,346만 원),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5,427만 원) 업체에서 임차권리금이 큼.

〈표 2-20-2〉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차권리금 분포(프랜차이즈)

(Base: 임차권리금이 있는 업체,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평균
전체			412	1.7	19.3	51.6	21.8	5.7	3,746.5
업종	일반음식점	소계	133	0.0	21.6	46.7	28.1	3.6	3,739.6
		한식	76	0.0	19.3	45.4	30.5	4.8	4,012.8
		중식	12	0.0	25.5	67.0	7.4	0.1	2,377.7
		일식	10	0.0	38.4	23.9	37.8	0.0	3,345.8
		서양식	18	0.0	24.1	53.1	22.4	0.4	3,347.3
		기타 외국식	17	0.0	29.8	47.3	23.0	0.0	2,599.9
	일반음식점 외	소계	279	2.6	18.1	54.1	18.6	6.7	3,750.0
		기관 구내식당업	4	0.0	0.0	70.1	29.9	0.0	4,197.9
		출장·이동음식점업	2	0.0	0.0	0.0	100.0	0.0	5,000.0
		기타음식점업	제과점	29	7.4	15.1	34.7	40.8	3,788.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42	0.0	16.1	57.8	20.4	3,542.1
			치킨 전문점	64	2.1	15.6	59.7	19.9	3,275.8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36	2.6	24.6	65.9	4.7	2,859.7
			간이 음식 포장판매 전문점	12	5.9	40.7	51.0	2.4	1,888.0
		주점업	26	4.4	23.7	67.6	2.5	1.9	2,783.3
		비알코올 음료점업	64	1.9	15.4	43.7	23.6	15.3	5,007.6
지역	서울권		102	0.0	10.7	51.3	31.0	7.0	4,312.6
	수도권		154	2.2	26.4	57.4	13.5	0.4	2,749.0
	충청권		40	0.0	19.8	26.7	45.1	8.3	5,077.4
	호남권		25	8.8	5.3	61.4	5.8	18.7	5,325.1
	경남권		72	0.0	5.1	58.0	27.4	9.5	4,346.2
	경북권		19	3.9	70.5	25.6	0.0	0.0	1,517.2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21	8.9	43.8	36.2	0.0	11.1	3,860.7
	1억 원~5억 원 미만		318	1.4	19.6	53.9	21.2	4.0	3,483.2
	5억 원 이상		73	0.0	4.7	44.2	37.1	14.0	5,426.9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임차권리금은 평균 2,829만 원으로 조사됨. 임차권리금 구간별 비중은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4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26.5%), 5천만 원~1억 원 미만(13.2%), 1천만 원 미만(9.5%), 1억 원 이상(2.7%) 등임.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임차권리금은 평균 2,870만 원이며, 세부 업종별로 일식(3,194만 원), 서양식(3,013만 원), 한식(2,861만 원), 중식(2,781만 원), 기타 외국식(1,780만 원)의 순서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임차권리금은 평균 2,781만 원인 가운데, 세부 업종별로 비알코올 음료점(2,940만 원), 주점업(2,878만 원), 치킨 전문점(2,847만 원) 등의 순임.
- 지역별로 서울권(3,493만 원),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5,623만 원) 업체에서 임차권리금이 큼.

〈표 2-20-3〉 사업장 특성별 사업장 임차권리금 분포(비프랜차이즈)

(Base: 임차권리금이 있는 업체, 단위: 개소,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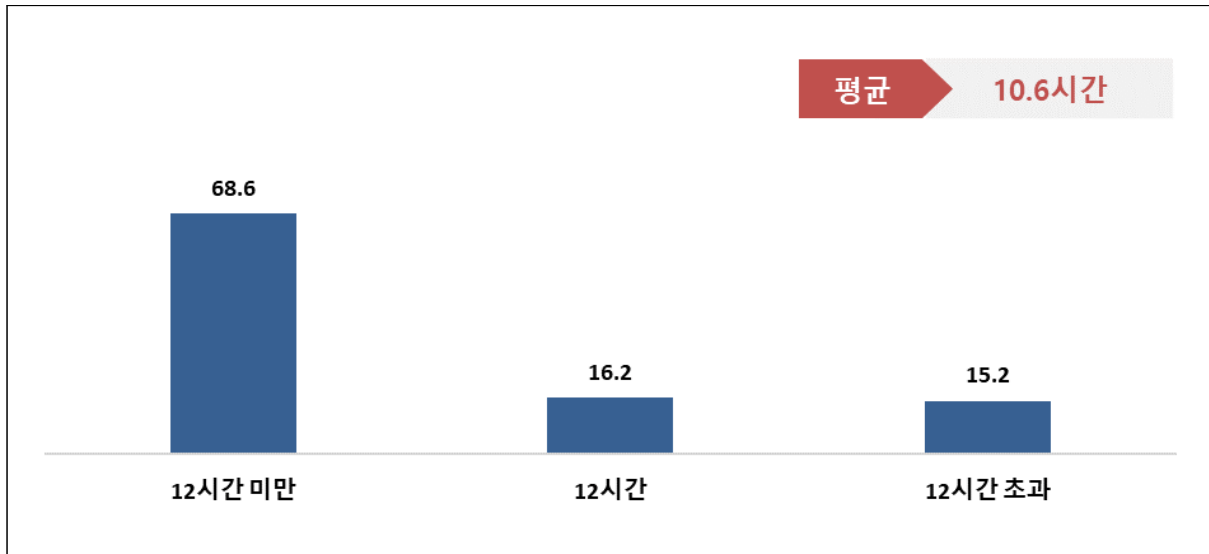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평균	
전체			794	9.5	26.5	48.2	13.2	2.7	2,828.9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447	11.5	26.4	46.5	11.7	4.0	2,870.4	
		한식	303	12.0	26.4	47.6	9.7	4.3	2,861.4	
		중식	52	6.8	34.6	36.5	19.9	2.3	2,780.7	
		일식	39	7.3	12.6	56.6	21.4	2.2	3,193.5	
		서양식	38	14.0	26.0	37.4	16.8	5.8	3,012.7	
		기타 외국식	15	24.3	41.4	28.3	6.0	0.0	1,780.3	
	일반 음식점 외	소계	347	7.3	26.5	50.2	14.9	1.1	2,780.7	
		기관 구내식당업	24	0.0	35.5	56.6	8.0	0.0	2,459.6	
		출장·이동음식점업	17	0.0	56.2	31.4	12.4	0.0	2,373.9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24	3.4	41.6	45.2	5.7	4.0	2,549.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6	0.0	38.4	61.6	0.0	0.0	2,324.2
			치킨 전문점	18	5.7	43.4	32.7	12.1	6.1	2,846.7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46	17.7	31.6	40.7	10.0	0.0	2,175.2
			간이 음식 포장판매 전문점	10	0.0	54.4	18.8	26.8	0.0	2,414.5
		주점업	131	5.0	22.9	54.4	17.8	0.0	2,878.1	
	비알코올 음료점업	71	9.9	22.6	50.4	14.8	2.4	2,939.7		
지역	서울권		232	6.1	18.1	50.8	21.2	3.8	3,493.4	
	수도권		220	4.9	22.2	61.5	10.7	0.7	2,779.4	
	충청권		106	28.9	38.3	23.7	7.9	1.1	1,874.2	
	호남권		64	14.4	19.7	49.3	11.7	5.0	2,836.2	
	경남권		82	4.5	15.5	58.4	19.2	2.4	3,398.0	
	경북권		90	7.1	57.1	29.6	1.7	4.5	1,936.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6	17.9	30.6	47.1	4.4	0.0	1,887.8	
	5천만 원~1억 원 미만		106	12.5	32.5	45.2	8.1	1.6	2,400.1	
	1억 원~5억 원 미만		598	9.0	25.6	49.0	14.1	2.2	2,812.6	
	5억 원 이상		64	0.0	14.2	45.8	22.8	17.2	5,622.6	

13) 영업시간

- 외식업체의 영업시간은 평균 10.6시간으로 나타남. 영업시간 분포별 비중은 12시간 미만이 68.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2시간(16.2%), 12시간 초과(15.2%) 순임.

〈그림 2-21〉 1일 기준 영업시간 분포

(단위: %)



-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은 평균 10.6시간으로 12시간 미만이 71.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2시간(16.4%), 12시간 초과(12.0%) 등임.
 - 세부 업종별로 한식과 기타 외국식(각 10.7시간), 일식(10.5시간), 중식과 서양식(각 10.4시간)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영업시간은 평균 10.7시간이며, 12시간 미만이 65.6%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12시간 초과(18.5%), 12시간(15.9%) 순으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 제과점(12.2시간),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11.6시간),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11.4시간), 비알코올 음료점업(11.3시간) 등의 순으로 영업시간이 긴 것으로 파악됨.
- 지역별로 서울권(11.2시간), 경북권(10.9시간), 호남권(10.8시간), 경남권(10.7시간), 수도권(10.3시간), 충청권(10.2시간)의 순서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11.9시간), 1억 원~5억 원 미만(10.7시간), 5천만 원~1억 원 미만(10.0시간), 5천만 원 미만(9.5시간)의 순임.

〈표 2-21-1〉 사업장 특성별 1일 기준 영업시간 분포(전체)

(단위: 개소, %, 시간)

구분			사례수	12시간 미만	12시간	12시간 초과	평균	
전체			3,138	68.6	16.2	15.2	10.6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71.6	16.4	12.0	10.6	
		한식	1,091	69.2	17.5	13.3	10.7	
		중식	158	80.5	12.8	6.8	10.4	
		일식	117	78.3	11.2	10.4	10.5	
		서양식	118	88.3	8.2	3.5	10.4	
		기타 외국식	72	83.0	13.4	3.6	10.7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65.6	15.9	18.5	10.7	
		기관 구내식당업	78	70.0	18.1	11.9	10.4	
		출장·이동음식점업	78	62.2	28.0	9.8	10.2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45.1	10.2	44.6	12.2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62.6	22.8	14.6	11.4
			치킨 전문점	172	66.0	17.9	16.0	10.4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55.0	24.2	20.8	11.6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70.8	20.4	8.7	10.9
		주점업	318	88.6	5.5	6.0	9.1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54.3	20.3	25.4	11.3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55.3	17.4	27.3	11.7	
	비프랜차이즈		2,114	73.5	15.7	10.8	10.3	
지역	서울권		491	67.4	15.1	17.5	11.2	
	수도권		595	78.4	11.0	10.5	10.3	
	충청권		581	73.9	15.6	10.5	10.2	
	호남권		467	63.6	21.6	14.7	10.8	
	경남권		611	67.5	13.6	18.9	10.7	
	경북권		393	56.3	22.6	21.1	10.9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82.2	13.6	4.2	9.5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77.2	13.0	9.8	10.0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67.2	16.8	15.9	10.7	
	5억 원 이상		446	57.4	17.9	24.8	11.9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영업시간은 평균 11.7시간으로 나타남. 영업시간 분포별 비중은 12시간 미만이 55.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2시간 초과(27.3%), 12시간(17.4%)의 순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은 평균 11.5시간이며, 세부 업종별로 한식과 중식(각 11.7시간), 기타 외국식(10.6시간), 일식(10.3시간), 서양식(10.1시간)의 순임.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영업시간은 평균 11.8시간이며, 세부 업종별로는 비알코올 음료점업(13.0시간), 제과점(12.9시간),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12.1시간)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경북권(12.8시간),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13.1시간) 업체의 영업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표 2-21-2〉 사업장 특성별 1일 기준 영업시간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시간)

구분			사례수	12시간 미만	12시간	12시간 초과	평균	
전체			1,024	55.3	17.4	27.3	11.7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65.0	14.1	20.8	11.5	
		한식	197	58.6	15.8	25.6	11.7	
		중식	23	76.4	13.2	10.4	11.7	
		일식	29	83.1	7.5	9.3	10.3	
		서양식	46	93.7	6.0	0.2	10.1	
		기타 외국식	36	86.9	10.1	3.1	10.6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50.2	19.1	30.7	11.8
	기관 구내식당업		21	52.7	22.9	24.4	11.0	
	출장·이동음식점업		5	22.4	77.6	0.0	11.8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35.3	11.9	52.8	12.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57.5	26.5	16.0	11.6
			치킨 전문점	127	62.5	21.6	15.9	10.5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47.1	27.3	25.6	12.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58.2	24.2	17.6	12.0
	주점업		69	82.1	5.5	12.4	10.1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28.4	15.7	55.9	13.0		
지역	서울권		166	53.0	18.4	28.6	12.1	
	수도권		233	66.6	15.6	17.8	11.1	
	충청권		165	62.8	18.0	19.3	10.9	
	호남권		118	39.3	24.9	35.8	12.6	
	경남권		258	56.5	12.0	31.6	11.7	
	경북권		84	31.1	26.9	42.0	12.8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78.7	21.3	0.0	10.4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66.1	20.0	13.9	11.8	
	1억 원~5억 원 미만		721	55.3	18.1	26.5	11.4	
	5억 원 이상		230	48.0	11.8	40.2	13.1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영업시간은 평균 10.3시간으로 나타남. 영업시간 분포별 비중은 12시간 미만 이 73.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2시간(15.7%), 12시간 초과(10.8%)의 순임.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은 평균 10.4시간이며, 세부 업종별로 기타 외국식(10.8시간), 일 식과 서양식(각 10.5시간), 한식(10.4시간), 중식(10.2시간)의 순으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영업시간은 평균 10.1시간이며, 세부 업종별로 제과점(11.7시 간),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11.2시간),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과 비알코올 음료점업 (각 10.6시간), 기관 구내식당업(10.2시간) 등의 순서로 영업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서울권(10.8시간),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10.9시간) 업체의 영업시간이 긴 것으로 파악됨.

〈표 2-21-3〉 사업장 특성별 1일 기준 영업시간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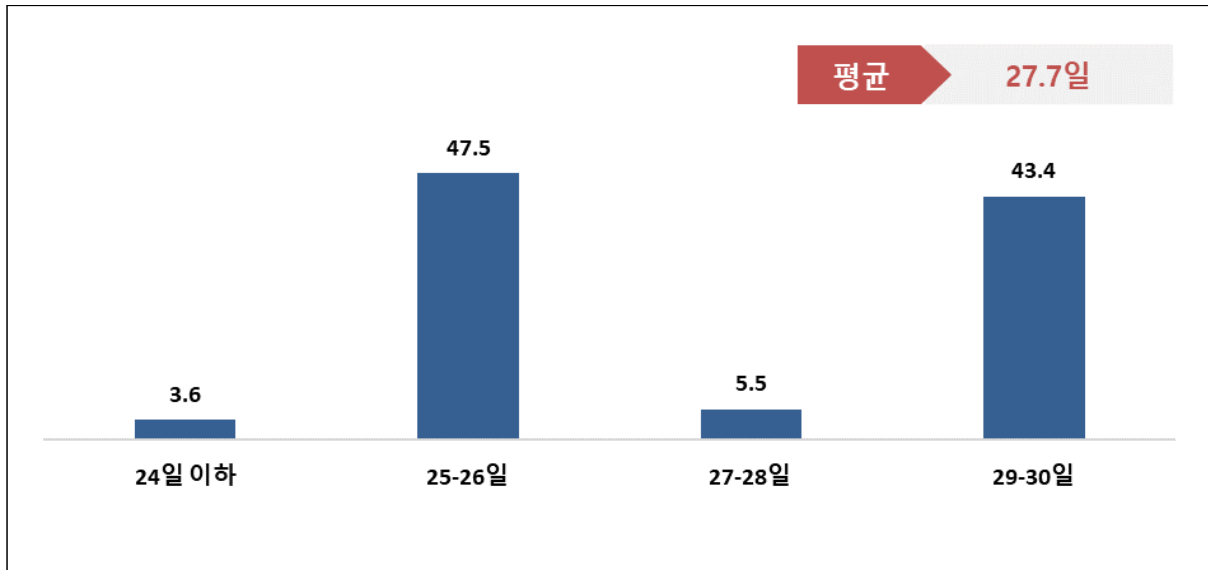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2시간 미만	12시간	12시간 초과	평균	
전체			2,114	73.5	15.7	10.8	10.3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73.0	16.9	10.1	10.4	
		한식	894	71.3	17.9	10.8	10.4	
		중식	135	81.1	12.7	6.3	10.2	
		일식	88	77.1	12.2	10.7	10.5	
		서양식	72	85.4	9.3	5.3	10.5	
		기타 외국식	36	79.6	16.2	4.1	10.8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74.2	14.2	11.6	10.1
	기관 구내식당업		57	75.6	16.6	7.8	10.2	
	출장·이동음식점업		73	66.4	22.7	10.8	10.1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51.9	9.1	39.0	11.7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87.8	4.2	8.0	10.6
			치킨 전문점	45	74.3	9.4	16.2	10.1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60.2	22.1	17.7	11.2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82.1	17.1	0.8	9.9
	주점업		249	89.7	5.4	4.8	8.9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65.6	22.3	12.1	10.6		
지역	서울권		325	72.3	14.0	13.6	10.8	
	수도권		362	84.0	8.9	7.1	10.0	
	충청권		416	77.6	14.8	7.6	9.9	
	호남권		349	69.6	20.8	9.6	10.4	
	경남권		353	74.0	14.5	11.4	10.1	
	경북권		309	61.1	21.8	17.1	10.5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82.3	13.3	4.4	9.5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78.8	12.0	9.2	9.7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72.1	16.3	11.6	10.4	
	5억 원 이상		216	65.3	23.0	11.7	10.9	

14) 한 달 평균 영업 일수

- 외식업체의 한 달 평균 영업 일수는 평균 27.7일로 나타남. 영업 일수 분포별 비중은 25~26일이 47.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9~30일(43.4%), 27~28일(5.5%), 24일 이하(3.6%)의 순임.

〈그림 2-22〉 한 달 평균 영업일수 분포

(단위: %)



- 일반음식점의 영업 일수는 평균 27.4일이며, 25~26일이 53.7%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29~30일(36.6%), 27~28일(6.4%), 24일 이하(3.3%)로 파악됨.
- 세부 업종별로 기타 외국식(27.6일), 한식과 중식, 일식(각 27.4일), 서양식(27.1일)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영업 일수는 평균 27.9일인 가운데, 29~30일이 50.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5~26일(41.0%), 27~28일(4.5%), 24일 이하(4.0%)의 순으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 치킨 전문점(28.5일),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등 유사 음식점업(28.3일),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과 비알코올 음료점업(각 28.0일) 등의 순으로 영업일이 긴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호남권(27.9일), 서울권과 경북권, 경남권(각 27.7일), 충청권(27.6일), 수도권(27.4일)의 순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28.6일), 1억 원~5억 원 미만(27.6일), 5천만 원 미만(27.4일), 5천만 원~1억 원 미만(27.3일)의 순임.

〈표 2-22-1〉 사업장 특성별 한 달 평균 영업 일수 분포(전체)

(단위: 개소, %, 일)

구분			사례수	24일 이하	25~26일	27~28일	29~30일	평균	
전체			3,138	3.6	47.5	5.5	43.4	27.7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3.3	53.7	6.4	36.6	27.4	
		한식	1,091	3.5	52.6	6.7	37.2	27.4	
		중식	158	1.8	57.8	6.3	34.1	27.4	
		일식	117	3.9	60.9	4.1	31.2	27.1	
		서양식	118	1.0	59.5	4.0	35.6	27.4	
		기타 외국식	72	2.8	49.5	5.8	41.8	27.6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4.0	41.0	4.5	50.5	27.9	
		기관 구내식당업	78	30.7	40.6	9.5	19.3	25.7	
		출장·이동음식점업	78	1.6	48.4	6.6	43.4	27.8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10.0	33.3	3.0	53.6	27.7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0.0	38.9	4.1	57.0	28.3
			치킨 전문점	172	0.0	32.1	10.3	57.6	28.5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3.0	51.4	5.8	39.8	27.5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2.5	40.1	6.0	51.4	28.0
		주점업	318	3.0	43.2	4.7	49.1	27.9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3.7	40.6	1.9	53.9	28.0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1.6	31.1	3.9	63.4	28.5	
	비프랜차이즈		2,114	4.3	53.5	6.1	36.1	27.3	
지역	서울권		491	5.7	43.1	3.2	48.1	27.7	
	수도권		595	4.0	54.9	5.0	36.1	27.4	
	충청권		581	2.4	49.2	6.7	41.8	27.6	
	호남권		467	4.6	40.4	5.5	49.6	27.9	
	경남권		611	2.8	48.3	6.5	42.4	27.7	
	경북권		393	2.2	48.0	5.7	44.1	27.7	
매 출 액	5천만 원 미만		92	4.8	53.5	1.4	40.4	27.4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4.4	55.1	5.0	35.6	27.3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3.6	47.6	5.9	42.8	27.6	
	5억 원 이상		446	1.6	28.1	4.7	65.6	28.6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영업 일수는 평균 28.5일로 나타남. 영업 일수별 비중은 29~30일이 63.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5~26일(31.1%), 27~28일(3.9%), 24일 이하(1.6%)임.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영업 일수는 평균 28.3일이며, 세부 업종별로 중식(29.1일), 한식(28.4일), 기타 외국식(28.3일), 서양식(27.8일), 일식(27.5일)의 순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영업 일수는 평균 28.6일이며, 세부 업종별로 출장·이동음식점업(29.7일), 비알코올 음료점업(29.2일), 제과점과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각 28.9일), 치킨 전문점(28.8일) 등의 순서로 파악됨.
- 지역별로는 호남권(29.2일),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29.3일) 업체의 영업 일수가 비교적 긴 것으로 조사됨.

〈표 2-22-2〉 사업장 특성별 한 달 평균 영업일수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일)

구분			사례 수	24일 이하	25~26일	27~28일	29~30일	평균	
전체			1,024	1.6	31.1	3.9	63.4	28.5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1.3	37.2	3.1	58.5	28.3	
		한식	197	1.7	34.8	3.4	60.1	28.4	
		중식	23	0.0	21.4	0.0	78.6	29.1	
		일식	29	0.0	59.4	4.0	36.5	27.5	
		서양식	46	0.0	52.0	2.8	45.2	27.8	
		기타 외국식	36	0.0	41.0	0.0	59.0	28.3	
		소계	693	1.8	28.0	4.3	66.0	28.6	
	일반 음식점 외	기관 구내식당업	21	44.9	21.5	12.0	21.5	25.3	
		출장·이동음식점업	5	0.0	7.5	0.0	92.5	29.7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3.3	19.7	0.0	77.0	28.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0.0	35.4	4.4	60.2	28.5
			치킨 전문점	127	0.0	24.7	10.0	65.3	28.8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3.3	39.2	5.1	52.3	28.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0.0	25.2	0.5	74.3	28.9
		주점업	69	0.0	46.8	1.8	51.4	28.1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0.9	16.1	1.8	81.2	29.2	
		지역	서울권	166	3.9	28.0	2.4	65.7	28.5
			수도권	233	2.3	34.7	3.9	59.1	28.3
			충청권	165	0.0	42.0	3.6	54.4	28.2
호남권	118		0.0	18.1	4.7	77.2	29.2		
경남권	258		2.0	29.3	5.5	63.2	28.6		
경북권	84		0.0	30.2	0.0	69.8	28.8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28.7	28.7	0.0	42.6	26.6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1.8	48.8	4.0	45.3	27.8		
	1억 원~5억 원 미만	721	1.5	32.5	4.4	61.6	28.5		
	5억 원 이상	230	1.0	14.0	1.1	83.9	29.3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영업 일수는 평균 27.3일로 나타남. 영업 일수별 비중은 25~26일이 53.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9~30일(36.1%), 27~28일(6.1%), 24일 이하(4.3%)의 순으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영업 일수는 평균 27.2일이며, 세부 업종별로 한식과 중식, 서양식(각 27.2일), 기타 외국식(27.1일), 일식(27.0일)의 순임.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영업 일수는 평균 27.5일이며, 세부 업종별로 주점업(27.9일), 치킨 전문점(27.7일), 출장·이동음식점업과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각 27.6일), 비알코올 음료점업(27.5일),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27.3일) 등의 순으로 파악됨.
- 지역별로는 호남권(27.6일),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28.1일) 업체의 영업 일수가 비교적 긴 것으로 조사됨.

〈표 2-22-3〉 사업장 특성별 한 달 평균 영업 일수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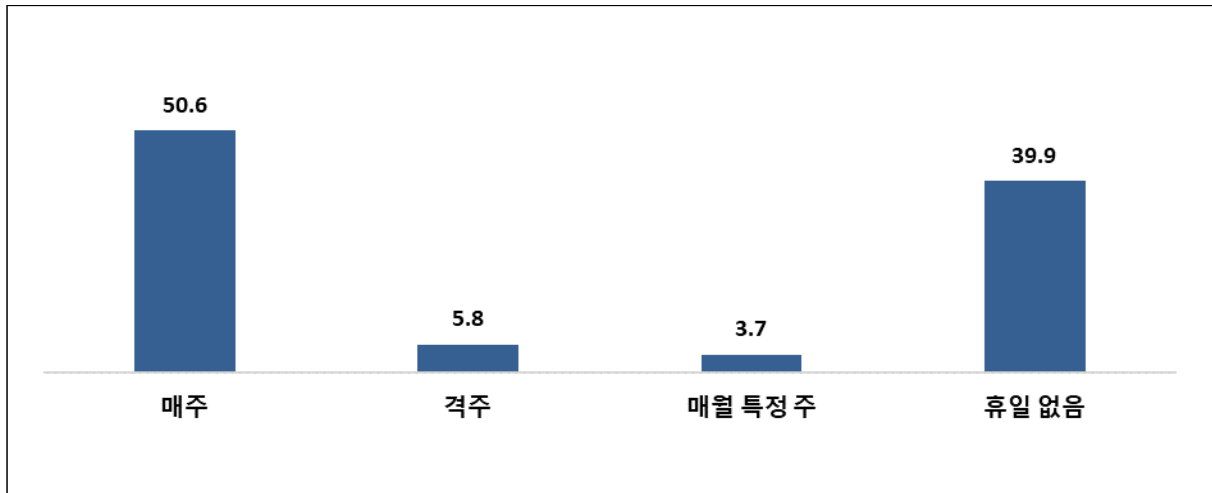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24일 이하	25~26일	27~28일	29~30일	평균	
전체			2,114	4.3	53.5	6.1	36.1	27.3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3.7	57.3	7.1	31.9	27.2	
		한식	894	3.9	56.2	7.4	32.5	27.2	
		중식	135	2.0	62.8	7.1	28.0	27.2	
		일식	88	4.9	61.2	4.1	29.8	27.0	
		서양식	72	1.5	63.4	4.6	30.5	27.2	
		기타 외국식	36	5.2	56.9	10.9	27.0	27.1	
		소계	889	5.2	48.4	4.6	41.8	27.5	
	일반 음식점 외	기관 구내식당업	57	26.1	46.8	8.6	18.5	25.9	
		출장·이동음식점업	73	1.7	52.7	7.3	38.2	27.6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14.7	42.8	5.0	37.5	26.8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0.0	56.5	2.4	41.1	27.6
			치킨 전문점	45	0.0	49.3	11.0	39.7	27.7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2.8	59.3	6.2	31.6	27.2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4.8	53.3	11.0	30.9	27.3
		주점업	249	3.5	42.5	5.2	48.7	27.9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4.9	51.2	1.9	42.0	27.5	
지역	서울권	325	6.3	48.3	3.5	42.0	27.5		
	수도권	362	4.8	64.3	5.5	25.4	26.9		
	충청권	416	3.1	51.6	7.7	37.6	27.4		
	호남권	349	5.7	45.9	5.6	42.7	27.6		
	경남권	353	3.2	59.4	7.2	30.2	27.2		
	경북권	309	2.6	51.3	6.8	39.2	27.5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3.9	54.4	1.4	40.3	27.5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4.7	56.0	5.1	34.1	27.2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4.5	53.8	6.5	35.2	27.3		
	5억 원 이상	216	2.0	40.0	7.8	50.2	28.1		

15) 정기 휴무 분포

- 정기 휴무 분포별 비중은 매주가 50.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휴일 없음(39.9%), 격주(5.8%), 매월 특정 주(3.7%)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3〉 정기 휴무 분포

(단위: %)



- 일반음식점의 정기 휴무 비중은 매주가 56.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휴일 없음(32.8%), 격주(7.0%), 매월 특정 주(4.0%)의 순임.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정기 휴무 비중은 휴일 없음이 47.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매주(44.9%), 격주(4.5%), 매월 특정 주(3.3%) 등임.
- 지역별로는 호남권(47.2%)에서 휴일 없음의 비중이 가장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 업체 중에서 64.1%는 휴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3-1〉 사업장 특성별 정기 휴무 분포(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매주	격주	매월 특정 주	휴일 없음
전체			3,138	50.6	5.8	3.7	39.9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56.1	7.0	4.0	32.8
		한식	1,091	55.1	7.5	3.9	33.6
		중식	158	59.6	6.3	3.4	30.7
		일식	117	64.8	4.1	6.0	25.2
		서양식	118	60.5	4.0	5.2	30.3
		기타 외국식	72	52.3	5.8	5.2	36.6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44.9	4.5	3.3	47.2
		기관 구내식당업	78	71.3	9.5	0.0	19.3
		출장·이동음식점업	78	50.0	6.6	0.0	43.4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43.4	3.0	53.4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38.9	4.1	55.5
			치킨 전문점	172	32.1	10.3	53.5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54.4	5.8	33.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42.6	3.5	45.9
		주점업	318	46.2	4.7	4.1	45.1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43.9	2.2	2.3	51.6
경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32.5	4.0	1.6	61.9
	비프랜차이즈		2,114	57.2	6.5	4.5	31.9
지역	서울권		491	48.4	3.1	2.6	45.9
	수도권		595	58.7	5.2	0.8	35.3
	충청권		581	51.1	7.1	9.9	31.9
	호남권		467	44.8	5.1	2.9	47.2
	경남권		611	50.8	6.8	1.8	40.6
	경북권		393	48.3	7.6	4.3	39.8
매출 액	5천만 원 미만		92	58.2	1.4	1.8	38.5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59.1	4.9	3.0	33.0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50.7	6.4	4.2	38.8
	5억 원 이상		446	29.7	4.7	1.6	64.1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정기 휴무 분포별 비중은 휴일 없음이 61.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매주(32.5%), 격주(4.0%), 매월 특정 주(1.6%) 등의 순임.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정기 휴무 비중은 휴일 없음이 56.5%로 가장 높고, 다음이 매주(37.9%), 격주(3.6%), 매월 특정 주(2.0%) 등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정기 휴무 비중은 휴일 없음이 64.6%로 가장 높고, 매주(29.8%), 격주(4.3%), 매월 특정 주(1.3%)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호남권(75.1%)에서 휴일 없음의 비중이 가장 높음.
- 매출액 규모 중 5억 원 이상 업체에서 81.9%는 휴일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2-23-2〉 사업장 특성별 정기 휴무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매주	격주	매월 특정 주	휴일 없음	
전체			1,024	32.5	4.0	1.6	61.9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37.9	3.6	2.0	56.5	
		한식	197	35.8	4.1	0.9	59.2	
		중식	23	21.4	0.0	7.6	70.9	
		일식	29	59.4	4.0	5.3	31.3	
		서양식	46	52.0	2.8	2.7	42.5	
		기타 외국식	36	41.0	0.0	8.2	50.8	
		소계	693	29.8	4.3	1.3	64.6	
	일반 음식점 외	기관 구내식당업	21	66.5	12.0	0.0	21.5	
		출장·이동음식점업	5	7.5	0.0	0.0	92.5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23.0	0.0	0.7	76.4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35.4	4.4	0.8	59.3
			치킨 전문점	127	24.7	10.0	1.0	64.3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42.6	5.1	1.9	50.5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25.2	0.5	11.6	62.7
		주점업	69	46.8	1.8	0.0	51.4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17.0	1.8	1.2	80.0	
지역	서울권	166	31.9	2.4	1.8	64.0		
	수도권	233	37.0	3.9	1.3	57.7		
	충청권	165	42.0	3.6	2.5	51.9		
	호남권	118	18.1	4.7	2.1	75.1		
	경남권	258	30.7	6.1	0.5	62.7		
	경북권	84	30.2	0.0	2.4	67.4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57.4	0.0	0.0	42.6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50.7	4.0	0.7	44.6		
	1억 원~5억 원 미만	721	33.8	4.6	1.6	60.1		
	5억 원 이상	230	15.1	1.1	2.0	81.9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정기 휴무 분포별 비중은 매주가 57.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휴일 없음(31.9%), 격주(6.5%), 매월 특정 주(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정기 휴무 비중은 매주가 6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휴일 없음(27.7%), 격주(7.8%), 매월 특정 주(4.5%) 등의 순임.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정기 휴무 비중은 매주가 53.4%로 가장 높고, 다음이 휴일 없음(37.4%), 격주(4.7%), 매월 특정 주(4.5%) 등으로 파악됨.
- 지역별로는 수도권(68.8%)에서 매주의 비중이 가장 높음.
- 매출액 규모 중 5억 원 이상 업체에서 49.0%는 휴일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2-23-3〉 사업장 특성별 정기 휴무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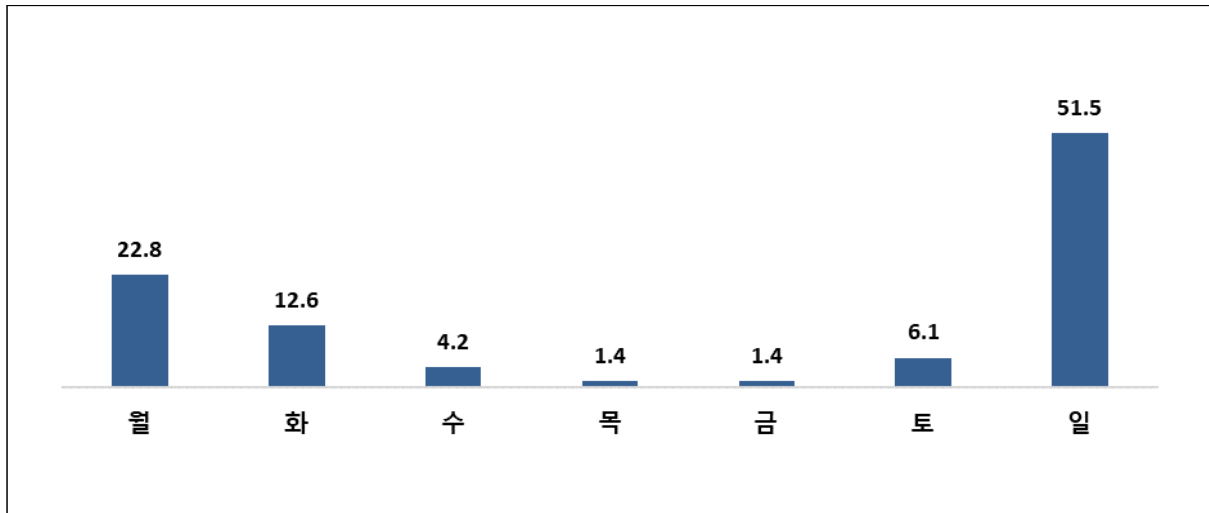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주	격주	매월 특정 주	휴일 없음	
전체			2,114	57.2	6.5	4.5	31.9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60.0	7.8	4.5	27.7	
		한식	894	58.9	8.2	4.5	28.4	
		중식	135	64.8	7.1	2.8	25.2	
		일식	88	66.1	4.1	6.2	23.7	
		서양식	72	64.9	4.6	6.6	23.9	
		기타 외국식	36	62.1	10.9	2.7	24.3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53.4	4.7	4.5	37.4
	기관 구내식당업		57	72.8	8.6	0.0	18.5	
	출장·이동음식점업		73	54.5	7.3	0.0	38.2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57.5	5.0	0.0	37.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56.5	2.4	4.5	36.6
			치킨 전문점	45	49.3	11.0	11.4	28.3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62.2	6.2	9.9	21.7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58.1	6.2	4.8	30.9
	주점업		249	46.0	5.2	4.8	43.9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55.7	2.3	2.8	39.2		
지역	서울권	325	54.1	3.3	2.9	39.7		
	수도권	362	68.8	5.9	0.6	24.8		
	충청권	416	54.2	8.2	12.4	25.2		
	호남권	349	51.3	5.2	3.1	40.4		
	경남권	353	62.6	7.2	2.5	27.7		
	경북권	309	51.8	9.0	4.7	34.6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58.3	1.4	1.9	38.4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60.4	5.0	3.3	31.3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57.6	7.1	5.3	30.1		
	5억 원 이상	216	42.0	7.8	1.2	49.0		

16) 휴무 요일 분포

- 외식업체의 휴무 요일 분포별 비중은 일요일이 5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월요일(22.8%), 화요일(1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4〉 휴무 요일 분포

(단위: %)



- 일반음식점의 휴무 요일 분포별 비중은 일요일이 5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월요일(21.0%), 화요일(12.6%), 토요일(6.8%) 등의 순임.
 - 세부 업종별로 일요일의 비중은 한식(55.1%), 일식(49.8%), 기타 외국식(43.2%), 서양식(37.1%), 중식(25.2%)의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휴무 요일 분포별 비중은 일요일이 5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월요일(25.3%), 화요일(12.5%), 금요일(5.1%) 등의 순으로 일반음식점과 동일한 순서임.
 - 세부 업종별로 일요일의 비중은 기관 구내식당업(66.9%), 출장·이동음식점업(63.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55.8%) 등의 순으로 큰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휴무 요일은 일요일의 비중이 경남권(58.3%), 서울권(57.0%), 경북권(56.7%), 호남권(5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 매출액이 많을수록 일요일의 비중이 낮고, 5억 원 이상 업체 중에서 30.9%는 월요일로 조사됨.

〈표 2-24-1〉 사업장 특성별 휴무 요일 분포(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전체			1,778	22.8	12.6	4.2	1.4	1.4	6.1	51.5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002	21.0	12.6	4.9	1.9	1.3	6.8	51.5
		한식	689	19.9	10.0	4.9	2.0	1.0	7.1	55.1
		중식	107	31.6	26.3	8.1	1.6	2.0	5.2	25.2
		일식	86	19.9	20.4	1.3	1.2	3.5	3.9	49.8
		서양식	78	24.9	16.7	5.0	1.4	4.0	10.8	37.1
		기타 외국식	42	14.4	38.1	2.1	0.0	0.0	2.1	43.2
	일반 음식점 외	소계	776	25.3	12.5	3.3	0.8	1.5	5.1	51.5
		기관 구내식당업	63	1.9	2.3	0.0	0.0	1.3	27.5	66.9
		출장·이동음식점업	35	14.4	2.3	14.9	0.0	5.4	0.0	63.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64	26.3	14.0	3.2	0.0	3.6	49.3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5	31.5	13.9	12.5	0.0	1.7	39.5
			치킨 전문점	71	31.3	29.5	13.2	1.4	0.0	24.6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26	24.9	15.0	1.6	0.0	2.1	55.8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30.1	11.4	0.0	2.1	0.0	52.1
		주점업	182	30.3	11.2	1.3	0.4	1.0	1.9	53.9
		비알코올 음료점업	143	21.7	9.1	2.4	1.5	2.6	8.3	54.5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358	25.9	17.0	2.5	1.2	1.2	8.2	43.8
	비프랜차이즈		1,420	22.2	11.7	4.6	1.5	1.4	5.7	53.0
지역	서울권		240	18.5	11.9	4.3	1.0	0.5	6.9	57.0
	수도권		366	25.6	11.5	3.5	1.3	1.5	6.6	50.0
	충청권		371	26.0	21.3	6.7	1.6	1.3	5.5	37.6
	호남권		245	19.8	8.0	6.4	1.3	4.1	6.7	53.7
	경남권		344	18.2	11.0	3.1	1.2	0.7	7.5	58.3
	경북권		212	29.2	8.9	0.4	2.4	0.0	2.4	56.7
매출 액	5천만 원 미만		60	18.8	5.5	1.8	0.0	0.9	5.0	68.0
	5천만 원~1억 원 미만		292	16.9	10.4	2.2	0.8	0.4	8.8	60.5
	1억 원~5억 원 미만		1,299	24.0	13.2	4.9	1.7	1.7	5.6	48.8
	5억 원 이상		127	30.9	16.5	3.8	1.0	0.4	3.8	43.6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휴무 요일별 비중은 일요일이 4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월요일(25.9%), 화요일(17.0%), 토요일(8.2%) 등의 순임.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휴무 요일별 비중은 일요일(37.5%), 월요일(27.4%), 화요일(18.4%), 토요일(13.8%), 금요일(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휴무 요일별 비중은 일요일이 47.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월요일(25.0%), 화요일(16.2%), 토요일(4.7%) 등임.
- 지역별로는 호남권(52.6%)에서 일요일의 비중이 가장 높고,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1억 원 미만(56.7%) 업체에서 일요일의 비중이 가장 높음.

〈표 2-24-2〉 사업장 특성별 휴무 요일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전체			358	25.9	17.0	2.5	1.2	1.2	8.2	43.8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39	27.4	18.4	0.3	1.1	1.5	13.8	37.5
		한식	74	27.5	14.6	0.0	1.6	0.0	17.3	38.9
		중식	6	73.7	13.2	0.0	0.0	0.0	0.0	13.1
		일식	18	15.4	40.2	0.0	0.0	0.0	6.9	37.6
		서양식	23	28.2	12.1	0.0	0.0	14.3	5.1	40.3
		기타 외국식	18	10.1	57.0	6.2	0.0	0.0	0.0	26.7
	일반 음식점 외	소계	219	25.0	16.2	4.0	1.2	1.1	4.7	47.8
		기관 구내식당업	16	0.0	0.0	0.0	0.0	0.0	36.4	63.6
		출장·이동음식점업	1	100.0	0.0	0.0	0.0	0.0	0.0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	39.4	2.5	2.5	0.0	9.9	45.8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41	28.5	11.9	10.9	0.0	1.1	45.3
			치킨 전문점	39	37.3	29.6	8.0	2.7	0.0	22.4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39	32.9	12.2	1.9	0.0	1.9	51.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15	12.1	2.3	0.0	7.2	0.0	78.4
		주점업	27	4.8	26.2	0.2	3.3	0.0	0.0	65.5
		비알코올 음료점업	25	23.4	14.4	0.0	0.0	4.4	8.7	49.2
지역	서울권		46	26.1	11.7	2.4	0.0	0.0	7.4	52.5
	수도권		98	20.8	19.2	1.0	1.2	2.7	9.5	45.6
	충청권		75	25.6	27.2	0.6	2.3	2.8	2.6	38.9
	호남권		25	28.8	7.7	10.9	0.0	0.0	0.0	52.6
	경남권		94	23.7	15.0	3.7	1.6	0.0	15.9	40.2
	경북권		20	54.5	8.2	0.0	0.0	0.0	0.0	37.3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	33.3	33.3	0.0	0.0	0.0	0.0	33.3
	5천만 원~1억 원 미만		42	22.4	10.9	3.1	0.0	3.7	3.2	56.7
	1억 원~5억 원 미만		278	26.2	17.7	2.6	1.3	1.0	9.3	41.9
	5억 원 이상		36	27.6	16.6	1.3	2.2	0.0	4.1	48.2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휴무 요일별 비중은 일요일이 53.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월요일(22.2%), 화요일(11.7%), 토요일(5.7%) 등임.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휴무 요일별 비중은 일요일(53.3%), 월요일(20.1%), 화요일(11.8%), 토요일(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휴무 요일별 비중은 일요일이 52.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월요일(25.4%), 화요일(11.4%)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경남권(63.9%)에서 일요일의 비중이 가장 높고, 매출액 규모별로는 매출액이 많을수록 일요일의 비중이 낮아짐.

〈표 2-24-3〉 사업장 특성별 휴무 요일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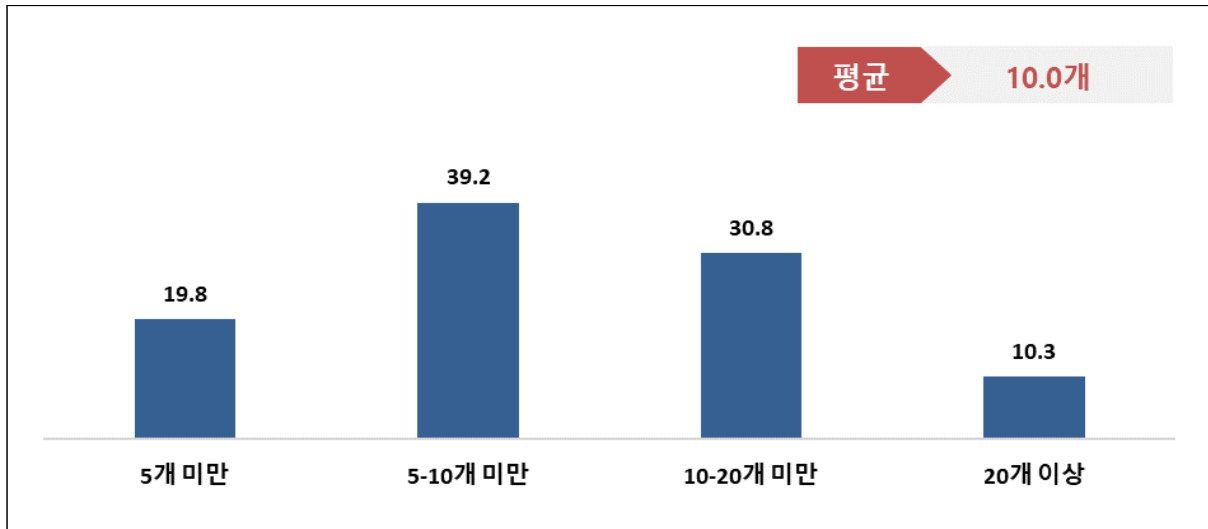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전체			1,420	22.2	11.7	4.6	1.5	1.4	5.7	53.0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863	20.1	11.8	5.5	2.0	1.3	6.0	53.3
		한식	615	19.0	9.5	5.5	2.1	1.1	5.9	56.9
		중식	101	29.4	27.0	8.5	1.7	2.2	5.5	25.8
		일식	68	20.9	16.2	1.6	1.5	4.2	3.3	52.4
		서양식	55	23.6	18.5	7.0	1.9	0.0	13.1	35.9
		기타 외국식	24	16.7	28.2	0.0	0.0	0.0	3.2	51.9
	일반 음식점 외	소계	557	25.4	11.4	3.1	0.7	1.6	5.3	52.6
		기관 구내식당업	47	2.7	3.1	0.0	0.0	1.8	24.2	68.2
		출장·이동음식점업	34	13.3	2.3	15.1	0.0	5.5	0.0	63.8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48	23.4	16.6	3.3	4.4	2.2	50.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	40.8	20.4	17.5	0.0	0.0	21.3
			치킨 전문점	32	24.4	29.4	19.2	0.0	0.0	27.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87	21.5	16.2	1.5	0.8	2.2	57.8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22	37.7	15.3	0.0	0.0	6.1	40.9
		주점업	155	34.0	9.1	1.5	0.0	1.1	2.1	52.2
		비알코올 음료점업	118	21.4	8.3	2.7	1.7	2.4	8.2	55.2
지역	서울권		194	17.0	12.0	4.6	1.2	0.6	6.8	57.9
	수도권		268	26.8	9.4	4.2	1.3	1.2	5.9	51.2
	충청권		296	26.1	20.1	7.9	1.5	0.9	6.1	37.3
	호남권		220	19.0	8.1	5.9	1.4	4.5	7.4	53.8
	경남권		250	16.6	9.7	2.9	1.1	1.0	4.9	63.9
	경북권		192	27.0	8.9	0.5	2.6	0.0	2.6	58.4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58	18.1	4.2	1.9	0.0	1.0	5.2	69.6
	5천만 원~1억 원 미만		250	16.3	10.3	2.1	0.9	0.1	9.4	60.9
	1억 원~5억 원 미만		1,021	23.5	12.2	5.4	1.8	1.9	4.8	50.4
	5억 원 이상		91	31.9	16.5	4.6	0.6	0.5	3.7	42.2

17) 테이블 수

- 외식업체의 테이블 수는 평균 10.0개로 나타남. 테이블 수 분포별 비중은 5~10개 미만(39.2%)로 가장 높고, 다음이 10~20개 미만(30.8%), 5개 미만(19.8%), 20개 이상(10.3%)으로 나타남.

〈그림 2-25〉 테이블 수 분포

(단위: %)



- 일반음식점의 테이블 수는 평균 11.9개이며, 10~20개 미만이 41.7%, 다음으로 5~10개 미만(35.6%), 20개 이상(13.8%), 5개 미만(8.9%) 등임.
 - 세부 업종별로 한식(12.2개), 서양식(12.0개), 중식(10.7개), 일식(10.0개), 기타 외국식(9.4개)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테이블 수는 평균 8.4개임. 5~10개 미만이 42.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개 미만(31.1%), 10~20개 미만(19.4%), 20개 이상(6.6%)으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 기관 구내식당업(27.0개), 비알코올 음료점업(9.4개), 주점업(8.4개),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6.7개) 등의 순으로 파악됨.
- 지역별로 충청권(12.7개), 호남권과 경북권(각 9.8개), 경남권(9.7개), 수도권(9.2개), 서울권(8.7개)의 순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20.2개), 1억 원~5억 원 미만(9.9개), 5천만 원~1억 원 미만(6.3개), 5천만 원 미만(6.1개)의 순으로 나타남.

〈표 2-25-1〉 사업장 특성별 테이블 수 분포(전체)

(단위: 개소, %, 개)

구분			사례 수	5개 미만	5개~10개 미만	10개~20개 미만	20개 이상	평균
전체			3,138	19.8	39.2	30.8	10.3	10.0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8.9	35.6	41.7	13.8	11.9
		한식	1,091	8.5	34.6	42.6	14.4	12.2
		중식	158	10.4	39.9	37.9	11.8	10.7
		일식	117	13.2	40.2	38.4	8.2	10.0
		서양식	118	11.5	36.9	34.3	17.2	12.0
		기타 외국식	72	2.2	47.3	47.5	3.0	9.4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31.1	42.9	19.4	6.6	8.1
		기관 구내식당업	78	2.6	13.7	29.6	54.1	27.0
		출장·이동음식점업	78	71.3	14.8	7.6	6.2	4.7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71.2	18.3	8.5	4.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47.6	31.7	14.4	6.7
			치킨 전문점	172	42.3	41.9	14.1	5.7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44.4	46.6	8.3	5.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64.9	22.7	9.4	4.2
		주점업	318	18.4	51.0	24.0	6.5	8.4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20.3	47.2	24.8	7.6	9.4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27.9	32.8	28.3	11.0	9.9
	비프랜차이즈		2,114	16.8	41.5	31.7	10.0	10.1
지역	서울권		491	18.4	49.2	27.3	5.2	8.7
	수도권		595	12.3	52.8	28.0	6.9	9.2
	충청권		581	17.0	27.5	36.3	19.2	12.7
	호남권		467	19.3	38.6	33.2	8.9	9.8
	경남권		611	26.4	33.3	30.3	10.0	9.7
	경북권		393	27.0	33.6	28.6	10.7	9.8
매 출 액	5천만 원 미만		92	42.0	40.2	17.8	0.0	6.1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32.8	54.7	10.9	1.7	6.3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17.0	38.4	35.3	9.3	9.9
	5억 원 이상		446	8.0	14.3	37.3	40.4	20.2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테이블 수는 평균 9.9개로 나타남. 분포별 비중은 5개~10개 미만(32.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개~20개 미만(28.3%), 5개 미만(27.9%), 20개 이상(11.0%)의 순임.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테이블 수는 평균 13.6개이며, 세부 업종별로 중식(14.3개), 한식(14.1개), 서양식(12.6개), 일식(10.8개), 기타 외국식(9.7개)의 순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테이블 수는 평균 7.9개이며, 세 부업종별로 기관 구내식당업(20.0개), 출장·이동음식점업(15.5개), 비알코올 음료점업(10.9개), 주점업(10.4개) 등의 순으로 많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10.5개)에서 가장 많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테이블 수가 비교적 많음.

〈표 2-25-2〉 사업장 특성별 테이블 수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개)

구분			사례수	5개 미만	5개~10개 미만	10개~20개 미만	20개 이상	평균
전체			1,024	27.9	32.8	28.3	11.0	9.9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10.4	24.3	46.9	18.4	13.6
		한식	197	10.8	20.5	49.0	19.7	14.1
		중식	23	12.0	33.8	29.4	24.7	14.3
		일식	29	14.1	34.6	42.5	8.9	10.8
		서양식	46	7.9	35.1	39.6	17.5	12.6
		기타 외국식	36	0.0	47.0	51.0	2.0	9.7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36.8	37.2	18.8	7.2	7.9
		기관 구내식당업	21	6.0	28.0	28.5	37.5	20.0
		출장·이동음식점업	5	22.4	0.0	38.8	38.8	15.5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56.2	32.0	8.2	5.3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49.4	31.6	13.4	6.6
			치킨 전문점	127	43.9	38.6	16.0	5.7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47.9	41.6	8.9	5.6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76.2	16.6	0.9	3.8
		주점업	69	9.6	49.8	30.4	10.2	10.4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21.7	37.0	28.8	12.5	10.9
지역	서울권		166	31.9	41.7	19.7	6.6	8.0
	수도권		233	18.2	42.0	28.2	11.5	10.5
	충청권		165	28.8	32.0	25.1	14.1	10.4
	호남권		118	33.4	25.8	30.9	9.9	9.7
	경남권		258	27.3	24.9	36.8	10.9	10.4
	경북권		84	38.8	30.0	18.1	13.1	8.5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100.0	0.0	0.0	0.0	2.6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53.7	33.1	9.8	3.5	5.5
	1억 원~5억 원 미만		721	27.9	35.9	29.1	7.2	8.7
	5억 원 이상		230	11.3	17.0	35.3	36.3	18.8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테이블 수는 평균 10.1개로 나타남. 분포별 비중은 5~10개 미만(4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20개 미만(31.7%), 5개 미만(16.8%), 20개 이상(10.0%)의 순임.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테이블 수는 평균 11.6개이며, 세부 업종별로 한식(11.8개), 서양식(11.7개), 중식(10.2개), 일식(9.8개), 기타 외국식(9.2개)의 순으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테이블 수는 평균 8.1개이며, 세부 업종별로는 기관 구내식당업(29.2개), 비알코올 음료점업(8.7개), 주점업(8.0개),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7.5개) 등의 순으로 많음.
- 지역별로는 충청권(13.4개)에서 가장 많았고,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21.4개)에서 가장 많음.

〈표 2-25-3〉 사업장 특성별 테이블 수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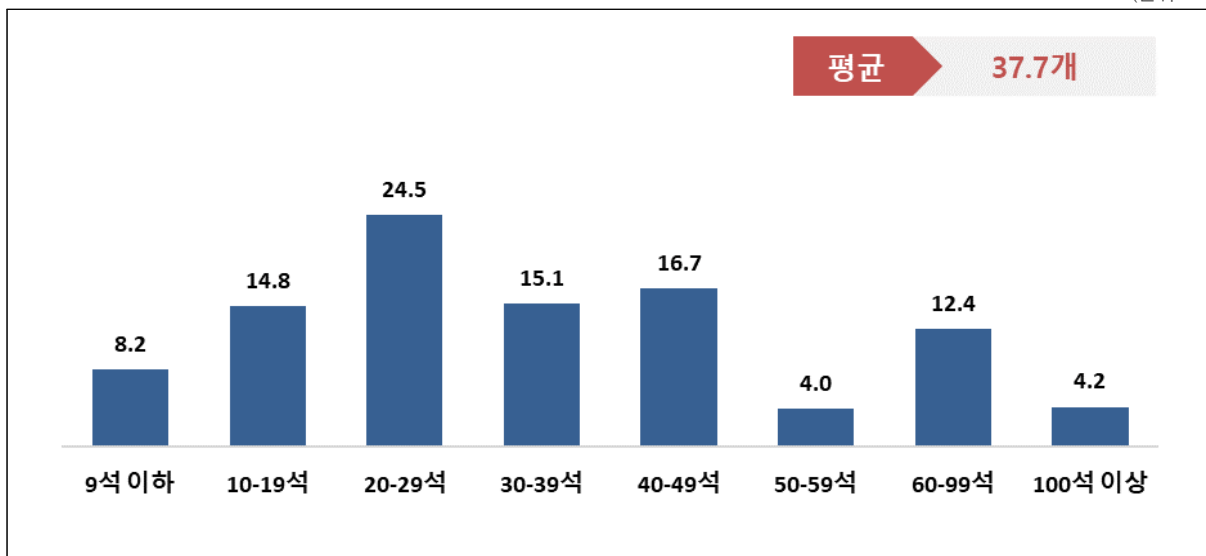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5개 미만	5개~10개 미만	10개~20개 미만	20개 이상	평균	
전체			2,114	16.8	41.5	31.7	10.0	10.1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8.6	38.0	40.6	12.8	11.6	
		한식	894	8.0	37.4	41.3	13.3	11.8	
		중식	135	10.1	40.8	39.1	10.0	10.2	
		일식	88	12.9	41.7	37.4	8.0	9.8	
		서양식	72	13.4	37.9	31.6	17.0	11.7	
		기타 외국식	36	4.1	47.5	44.4	3.9	9.2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27.9	46.0	19.8	6.3	8.1
	기관 구내식당업		57	1.5	9.1	29.9	59.5	29.2	
	출장·이동음식점업		73	76.5	16.4	4.3	2.8	3.6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81.5	8.8	8.8	0.9	3.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39.1	32.3	19.5	9.0	7.5
			치킨 전문점	45	38.6	49.5	9.8	2.2	5.8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42.2	49.9	7.9	0.0	5.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54.8	28.1	17.1	0.0	4.6	
	주점업		249	20.0	51.2	22.9	5.9	8.0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19.7	51.7	23.1	5.5	8.7		
지역	서울권		325	13.7	51.7	29.9	4.7	8.9	
	수도권		362	9.5	57.8	27.9	4.8	8.6	
	충청권		416	13.0	26.0	40.0	21.0	13.4	
	호남권		349	15.9	41.7	33.8	8.6	9.9	
	경남권		353	25.8	38.2	26.5	9.4	9.3	
	경북권		309	24.8	34.3	30.6	10.3	10.1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40.0	41.6	18.4	0.0	6.2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29.7	57.8	11.1	1.4	6.4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12.5	39.5	37.8	10.2	10.4	
	5억 원 이상		216	5.2	12.0	39.0	43.9	21.4	

18) 전체 좌석 수

- 외식업체의 전체 좌석 수는 평균 37.7석으로 나타남. 좌석 수별 비중은 20~29석이 24.5%로 가장 높고, 다음이 40~49석(16.7%), 30~39석(15.1%), 10~19석(14.8%), 60~99석(12.4%), 9석 이하(8.2%), 100석 이상(4.2%), 50~59석(4.0%)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6〉 전체 좌석 수 분포

(단위: %)



- 일반음식점의 좌석 수는 평균 45.9석이며, 40~49석이 22.4%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20~29석(19.5%), 60~99석(19.3%), 30~39석(16.7%), 10~19석(8.2%), 50~59석과 100석 이상(각 5.5%), 9석 이하(2.8%)의 순임.
 - 세부 업종별로 한식(47.1석), 서양식(44.1석), 중식(41.0석), 일식(38.0석), 기타 외국식(35.4석)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좌석 수는 평균 29.2석으로 조사됨. 20~29석이 29.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19석(21.7%), 9석 이하(13.7%), 30~39석(13.5%), 40~49석(10.9%), 60~99석(5.4%), 100석 이상(2.9%), 50~59석(2.4%)의 순으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 기관 구내식당업(96.5석), 주점업(32.4석), 비알코올 음료점업(31.6석),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24.6석), 치킨 전문점(22.6석),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19.3), 출장·이동음식점업(18.4석),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16.6석), 제과점(14.3석)의 순으로 파악됨.
- 지역별로는 충청권(49.7석), 경북권(38.9석), 호남권(37.0석), 경남권(35.4석), 수도권(33.5석), 서울권(31.3석)의 순임.
-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75.4석), 1억 원~5억 원 미만(37.4석), 5천만 원~1억 원 미만(23.8석), 5천만 원 미만(21.9석)의 순으로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좌석 수가 많음.

〈표 2-26-1〉 사업장 특성별 전체 좌석 수 분포(전체)

(단위: 개소, %, 석)

구분			사례 수	9석 이하	10~19석	20~29석	30~39석	40~49석	50~59석	60~99석	100석 이상	평균
전체			3,138	8.2	14.8	24.5	15.1	16.7	4.0	12.4	4.2	37.7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2.8	8.2	19.5	16.7	22.4	5.5	19.3	5.5	45.9
		한식	1,091	2.8	7.6	18.4	16.7	21.8	6.2	20.7	5.8	47.1
		중식	158	2.8	10.6	27.0	12.9	25.1	2.8	14.5	4.2	41.0
		일식	117	2.8	13.5	23.5	17.9	26.2	2.2	9.3	4.6	38.0
		서양식	118	4.6	11.7	17.9	19.7	21.7	2.6	16.9	4.9	44.1
		기타 외국식	72	2.2	3.3	33.0	19.7	30.6	4.3	6.1	0.9	35.4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13.7	21.7	29.6	13.5	10.9	2.4	5.4	2.9	29.2
		기관 구내식당업	78	2.6	0.0	6.5	12.3	14.3	2.2	27.6	34.6	96.5
		출장·이동음식점업	78	61.0	10.3	3.3	8.4	4.5	0.0	6.3	6.2	18.4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50.9	24.5	13.8	2.7	4.5	0.5	2.0	14.3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27.4	25.4	20.5	6.4	11.8	2.3	5.2	24.6
			치킨 전문점	172	16.9	29.6	28.1	8.5	11.9	1.8	2.4	22.6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17.8	34.4	30.0	11.4	4.2	1.1	0.4	19.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53.1	11.8	12.5	10.1	5.6	2.5	1.3	16.6
		주점업	318	2.9	17.7	36.3	16.6	14.7	2.4	7.0	2.4	32.4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6.5	19.2	33.3	17.7	11.1	3.5	5.9	2.7	31.6
경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13.2	17.1	21.1	13.5	14.3	4.8	11.1	4.8	35.9
	비프랜차이즈		2,114	6.3	14.0	25.7	15.7	17.6	3.7	12.9	4.0	38.3
지역	서울권		491	7.0	16.6	36.7	10.8	16.9	3.6	6.1	2.3	31.3
	수도권		595	4.9	13.7	34.0	19.2	16.7	2.9	5.4	3.2	33.5
	충청권		581	6.5	11.3	14.3	13.7	18.3	4.4	22.9	8.7	49.7
	호남권		467	6.7	14.1	24.6	16.4	17.6	3.6	13.8	3.1	37.0
	경남권		611	15.8	15.0	17.1	16.5	15.7	4.3	12.0	3.7	35.4
	경북권		393	7.0	20.2	21.4	12.8	14.7	5.5	14.4	4.0	38.9
매출 액	5천만 원 미만		92	20.1	25.9	22.8	16.7	10.8	0.0	3.8	0.0	21.9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11.1	26.1	36.2	16.6	5.4	1.5	2.3	0.7	23.8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7.3	12.7	24.0	15.5	19.3	4.8	13.0	3.2	37.4
	5억 원 이상		446	3.9	5.5	5.9	8.0	19.6	3.4	31.5	22.2	75.4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좌석 수는 평균 35.9석으로 나타남. 좌석 수별 비중은 20~29석이 21.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19석(17.1%), 40~49석(14.3%), 30~39석(13.5%), 9석 이하(13.2%), 60~69석(11.1%), 50~59석과 100석 이상(각 4.8%)의 순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좌석 수는 평균 50.0석이며, 세부 업종별로 중식(53.5석), 한식(51.8석), 서양식(43.5석), 일식(41.7석), 기타 외국식(34.9석)의 순임.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좌석 수는 평균 28.6석이며, 세부 업종별로 기관 구내식당업(65.6석), 출장·이동음식점업(62.1석), 주점업(39.2석), 비알코올 음료점업(36.7석) 등의 순으로 많음.
- 지역별로는 충청권(40.1석),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69.6석) 업체의 좌석 수가 비교적 많음.

〈표 2-26-2〉 사업장 특성별 전체 좌석 수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석)

구분			사례수	9석 이하	10~19석	20~29석	30~39석	40~49석	50~59석	60~99석	100석 이상	평균	
전체			1,024	13.2	17.1	21.1	13.5	14.3	4.8	11.1	4.8	35.9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4.0	7.0	14.2	16.0	20.2	8.1	23.8	6.8	50.0	
		한식	197	4.6	6.3	11.9	14.5	18.8	10.0	26.3	7.5	51.8	
		중식	23	5.6	6.5	26.1	14.1	11.5	3.8	24.7	7.7	53.5	
		일식	29	0.0	14.1	10.0	28.5	33.1	0.0	10.7	3.6	41.7	
		서양식	46	2.9	10.5	16.3	21.7	25.8	2.5	16.5	3.8	43.5	
		기타 외국식	36	0.0	4.0	42.5	16.0	27.9	0.0	8.0	1.5	34.9	
		소계	693	18.0	22.3	24.7	12.3	11.2	3.2	4.6	3.8	28.6	
	일반 음식점 외	기관 구내식당업	21	6.0	0.0	13.2	26.8	20.8	0.0	0.8	32.4	65.6	
		출장·이동음식점업	5	22.4	0.0	0.0	0.0	0.0	0.0	38.8	38.8	62.1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29.6	34.2	21.0	3.4	6.8	1.3	1.6	2.0	19.6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29.8	23.2	22.0	6.4	10.2	1.8	5.3	1.2	24.4
			치킨 전문점	127	18.2	30.7	22.9	9.2	14.2	1.8	2.1	1.0	22.5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18.9	34.0	28.8	9.9	4.1	1.7	1.0	1.7	20.7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60.1	16.0	10.7	5.9	0.9	0.0	0.0	6.4	14.8
		주점업	69	0.0	9.6	27.8	24.9	19.6	2.2	10.0	5.8	39.2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9.8	14.1	28.0	16.4	11.4	7.2	7.2	5.8	36.7	
지역	서울권	166	13.1	20.7	31.0	9.2	11.8	3.9	8.5	1.7	30.3		
	수도권	233	7.7	14.0	27.5	18.3	16.3	4.7	5.8	5.8	36.4		
	충청권	165	9.0	19.8	19.3	13.3	10.2	3.7	17.4	7.3	40.1		
	호남권	118	11.1	24.4	21.3	12.9	13.4	4.1	10.1	2.7	33.2		
	경남권	258	18.7	13.0	12.2	13.0	17.4	7.2	13.6	4.9	37.5		
	경북권	84	23.4	15.4	18.6	11.4	12.4	2.4	10.6	5.7	33.8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28.7	71.3	0.0	0.0	0.0	0.0	0.0	0.0	9.0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27.1	29.0	24.6	6.6	6.6	2.7	1.7	1.8	20.0		
	1억 원~5억 원 미만	721	13.3	17.5	23.8	14.9	13.3	5.3	9.6	2.3	31.5		
	5억 원 이상	230	4.9	6.7	5.1	10.0	24.0	3.7	25.2	20.4	69.6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좌석 수는 평균 38.3석으로 나타남. 좌석 수별 비중은 20~29석이 25.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49석(17.6%), 30~39석(15.7%), 10~19석(14.0%), 60~99석(12.9%), 9석 이하(6.3%), 100석 이상(4.0%), 50~59석(3.7%)의 순으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좌석 수는 평균 45.0석이며, 세부 업종별로 한식(46.2석), 서양식(44.4석), 중식(39.3석), 일식(37.0석), 기타 외국식(35.7석)의 순임.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좌석 수는 평균 29.5석이며, 세부 업종별로 기관 구내식당업(106.6석), 주점업(31.1석), 비알코올 음료점업(29.4석),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25.4석) 등의 순으로 파악됨.
- 지역별로는 충청권(52.9석),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80.3석) 업체의 좌석 수가 비교적 많음.

〈표 2-26-3〉 사업장 특성별 전체 좌석 수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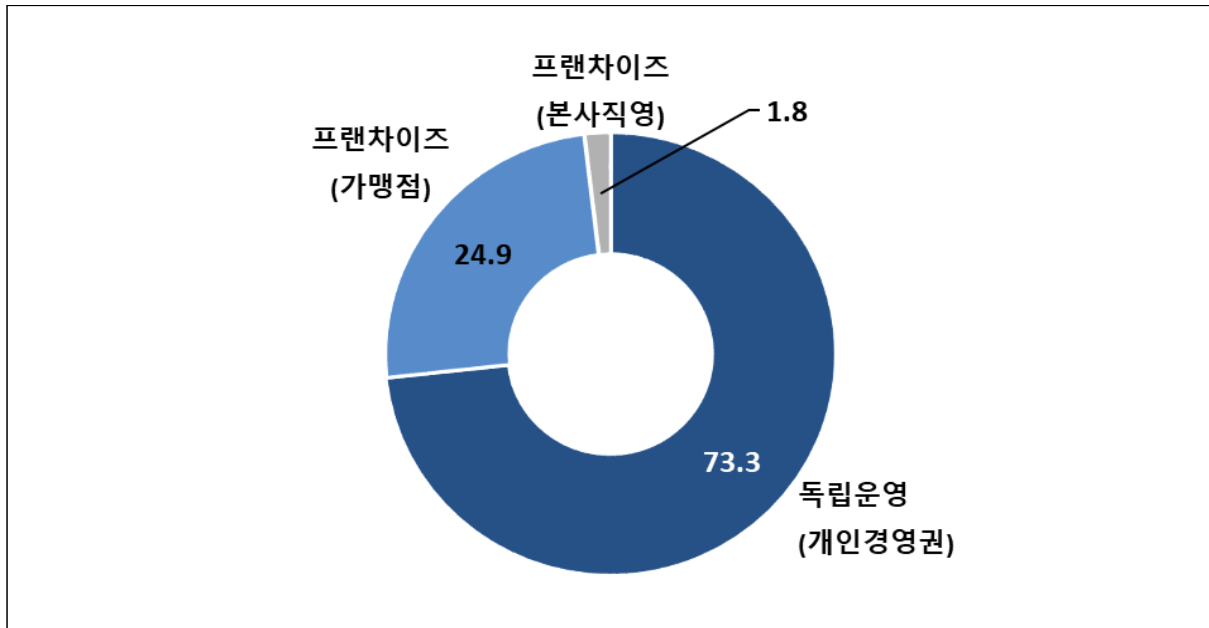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9석 이하	10~19석	20~29석	30~39석	40~49석	50~59석	60~99석	100석 이상	평균
전체			2,114	6.3	14.0	25.7	15.7	17.6	3.7	12.9	4.0	38.3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2.6	8.5	20.7	16.8	22.9	5.0	18.3	5.3	45.0
		한식	894	2.4	7.8	19.7	17.2	22.3	5.4	19.6	5.5	46.2
		중식	135	2.4	11.2	27.2	12.7	27.0	2.7	13.1	3.8	39.3
		일식	88	3.5	13.4	26.8	15.3	24.5	2.7	8.9	4.9	37.0
		서양식	72	5.5	12.3	18.8	18.7	19.5	2.6	17.2	5.4	44.4
		기타 외국식	36	4.1	2.7	24.8	22.8	32.9	8.0	4.4	0.4	35.7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11.3	21.4	32.4	14.3	10.7	1.9	5.8	2.3	29.5
		기관 구내식당업	57	1.5	0.0	4.3	7.6	12.1	2.9	36.3	35.3	106.6
		출장·이동음식점업	73	65.1	11.4	3.6	9.3	4.9	0.0	2.9	2.8	13.9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65.5	17.8	8.8	2.3	0.0	2.3	0.5	10.6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15.4	36.5	13.1	6.4	19.3	4.5	4.7	25.4
			치킨 전문점	45	13.9	27.1	40.3	6.8	6.8	1.9	3.3	22.9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17.1	34.7	30.8	12.4	4.3	0.7	0.0	18.4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46.9	8.0	14.2	13.9	9.9	4.8	2.4	18.2
		주점업	249	3.4	19.1	37.8	15.2	13.9	2.4	6.4	1.8	31.1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5.1	21.4	35.6	18.3	10.9	1.9	5.3	1.4	29.4
지역	서울권		325	4.9	15.2	38.7	11.4	18.7	3.4	5.2	2.5	31.7
	수도권		362	3.6	13.6	37.0	19.7	17.0	2.1	5.2	1.9	32.1
	충청권		416	5.6	8.5	12.6	13.8	21.0	4.7	24.7	9.2	52.9
	호남권		349	5.6	11.6	25.4	17.2	18.7	3.5	14.8	3.2	37.9
	경남권		353	14.0	16.2	20.0	18.5	14.6	2.6	11.1	3.0	34.1
	경북권		309	3.8	21.1	21.9	13.1	15.1	6.1	15.1	3.7	39.8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19.8	24.3	23.6	17.3	11.2	0.0	3.9	0.0	22.4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8.9	25.7	37.9	18.0	5.3	1.3	2.4	0.5	24.3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4.9	10.8	24.1	15.8	21.7	4.7	14.4	3.6	39.8
	5억 원 이상		216	3.1	4.4	6.5	6.3	15.9	3.2	36.9	23.6	80.3

19) 운영형태

- 외식업체의 운영형태는 독립 운영(개인 경영권)이 73.3%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프랜차이즈(가맹점, 24.9%), 프랜차이즈(본사 직영, 1.8%)의 순서로 나타남.

〈그림 2-27〉 운영형태 분포

(단위: %)



- 일반음식점의 운영형태는 독립 운영이 82.2%로 전체 평균 대비 독립 운영 업체 비중이 높음.
 - 세부 업종별로 중식(87.9%), 한식(83.2%)은 독립 운영 업체의 비중이 비교적 높으며, 서양식(65.6%), 기타 외국식(53.6%)은 상대적으로 낮음.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운영형태는 64.0%가 독립 운영이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33.6%,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은 2.3%로 나타나 일반음식점 대비 프랜차이즈 업체 비중이 높음.
 - 세부 업종별로 출장·이동음식점업(90.5%), 주점업(85.0%), 기관 구내식당업(75.5%)은 독립 운영 비중이 비교적 높고,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80.2%), 치킨 전문점(67.3%)은 프랜차이즈(가맹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독립 운영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 독립 운영 비중은 5천만 원 미만(96.6%), 5천만 원~1억 원 미만(87.4%), 1억 원~5억 원 미만(71.0%), 5억 원 이상(54.1%) 순으로 매출액이 클수록 독립 운영 비중이 낮아짐.

〈표 2-27-1〉 사업장 특성별 운영형태(전체)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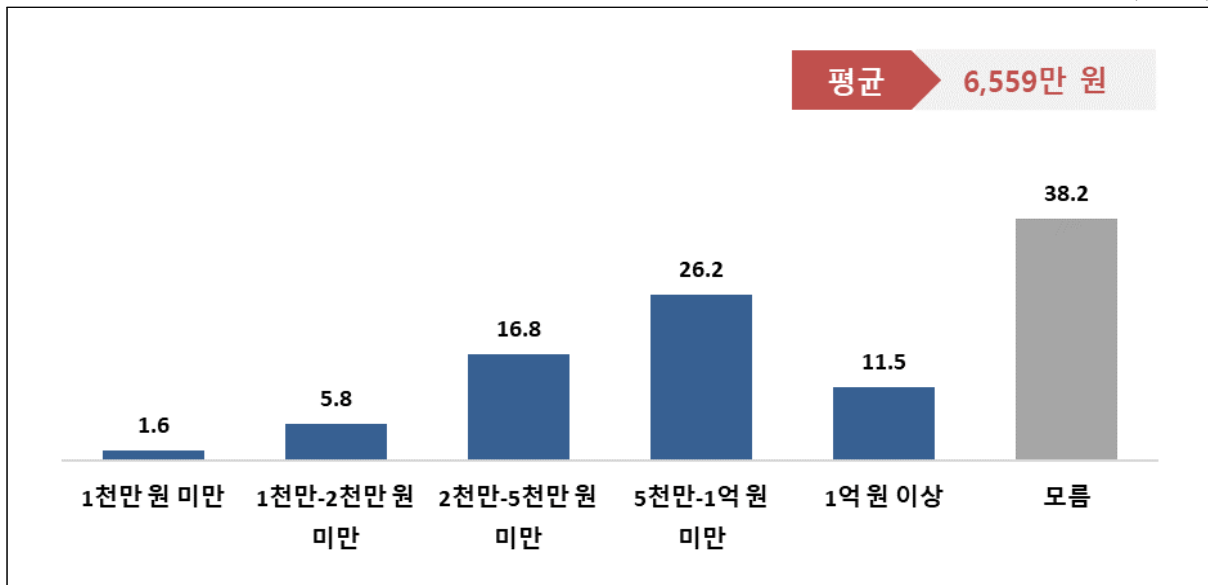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독립운영 (개인경영권)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본사직영점)	
전체			3,138	73.3	24.9	1.8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82.2	16.6	1.2
		한식		1,091	83.2	15.4	1.4
		중식		158	87.9	12.1	0.0
		일식		117	80.0	18.8	1.2
		서양식		118	65.6	34.0	0.4
		기타 외국식		72	53.6	46.4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64.0	33.6	2.3
		기관 구내식당업		78	75.5	10.3	14.2
		출장·이동음식점업		78	90.5	9.5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59.2	37.5	3.3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16.8	80.2	3.0
			치킨 전문점	172	30.1	67.3	2.6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60.5	37.8	1.7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52.8	47.0	0.2
		주점업		318	85.0	13.8	1.2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69.7	28.0	2.3	
지역	서울권		491	74.3	23.5	2.2	
	수도권		595	68.1	30.5	1.4	
	충청권		581	75.0	24.5	0.5	
	호남권		467	80.2	17.0	2.8	
	경남권		611	63.1	33.8	3.1	
	경북권		393	84.0	15.7	0.3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96.6	3.4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87.4	12.2	0.4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71.0	27.5	1.5	
	5억 원 이상		446	54.1	38.2	7.6	

20) 개업 시 투자 비용

- 외식업체의 개업 시 투자 비용은 평균 6,559만 원으로 나타남. 비용 분포별 비중은 5천만 원~1억 원 미만이 2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16.8%), 1억 원 이상(11.5%),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5.8%), 1천만 원 미만(1.6%) 등의 순임.

〈그림 2-28〉 개업 시 투자 비용

(단위: %)



- 일반음식점의 투자 비용은 평균 6,701만 원이며, 5천만 원~1억 원 미만이 25.0%로 가장 높음. 다음이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16.4%), 1억 원 이상(12.1%),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6.5%), 1천만 원 미만(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 일식(9,776만 원), 서양식(7,990만 원), 중식(6,579만 원), 한식(6,498만 원), 기타 외국식(5,369만 원)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투자 비용은 평균 6,413만 원으로 파악됨. 5천만 원~1억 원 미만이 27.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17.2%), 1억 원 이상(10.8%),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5.0%), 1천만 원 미만(1.7%) 등임.
 - 세부 업종별로 비알코올 음료점업(7,916만 원), 제과점(6,811만 원),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7,061만 원), 치킨 전문점(5,830만 원), 주점업(5,468만 원),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4,801만 원), 기관 구내식당업(4,436만 원),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4,417만 원), 출장·이동음식점업(3,005만 원)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호남권(8,096만 원), 수도권(7,405만 원), 서울권(6,869만 원), 경남권(6,398만 원), 충청권(5,939만 원), 경북권(2,747만 원)의 순으로 조사됨.

-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10,482만 원), 1억 원~5억 원 미만(6,579만 원), 5천만 원~1억 원 미만(5,542만 원), 5천만 원 미만(4,052만 원)의 순으로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개업 시 투자 비용이 큼.

〈표 2-28-1〉 사업장 특성별 개업 시 투자 비용(전체)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모름	평균
전체			3,138	1.6	5.8	16.8	26.2	11.5	38.2	6,558.6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1.5	6.5	16.4	25.0	12.1	38.6	6,700.5
		한식	1,091	1.8	6.5	17.5	25.0	11.9	37.3	6,497.7
		중식	158	0.0	6.3	16.6	24.7	10.2	42.2	6,579.4
		일식	117	0.0	9.5	1.6	28.1	18.1	42.8	9,776.4
		서양식	118	0.0	0.7	14.8	22.8	13.3	48.4	7,989.9
		기타 외국식	72	0.0	9.5	16.0	21.3	6.3	46.9	5,369.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1.7	5.0	17.2	27.5	10.8	37.7	6,413.1
		기관 구내식당업	78	0.0	4.3	7.9	3.6	2.5	81.7	4,436.6
		출장·이동음식점업	78	1.6	4.4	14.3	2.0	0.0	77.7	3,004.7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2.2	2.7	19.6	14.5	28.0	6,811.1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0.0	1.8	13.4	15.5	35.4	7,061.2
			치킨 전문점	172	0.0	4.7	19.3	8.3	44.9	5,829.9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1.3	7.1	28.0	22.0	35.6	4,800.8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0.0	6.3	29.1	23.7	38.8	4,416.9
		주점업	318	2.2	5.2	18.3	30.7	7.1	36.4	5,467.8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2.4	5.5	11.9	28.3	16.1	35.7	7,915.7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0.5	2.2	12.8	30.9	16.0	37.6	7,787.6
	비프랜차이즈		2,114	1.9	7.1	18.3	24.5	9.8	38.4	6,105.7
지역	서울권		491	1.7	6.1	21.0	41.8	14.8	14.5	6,868.9
	수도권		595	0.0	1.2	15.2	34.8	12.9	35.9	7,405.3
	충청권		581	1.2	7.0	13.8	9.9	5.8	62.3	5,938.8
	호남권		467	1.4	4.0	15.2	26.6	22.1	30.7	8,095.7
	경남권		611	0.5	1.3	16.0	34.0	9.3	38.9	6,398.2
	경북권		393	6.2	19.9	22.1	5.0	2.3	44.6	2,747.3
매 출 액	5천만 원 미만		92	4.7	12.5	23.5	21.4	3.4	34.5	4,052.0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2.9	6.0	22.8	25.6	8.4	34.3	5,542.0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1.3	6.0	15.7	27.3	11.7	38.0	6,578.8
	5억 원 이상		446	0.0	0.6	11.3	19.9	19.0	49.2	10,482.4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개업 시 투자 비용은 평균 7,788만 원으로 나타남. 투자 비용 분포별 비중은 5천만 원~1억 원 미만이 30.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억 원 이상(16.0%),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12.8%),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2.2%), 1천만 원 이하(0.5%)의 순으로 파악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투자 비용은 평균 8,532만 원이며, 세부 업종별로 중식(9,201만 원), 한식(8,555만 원), 서양식(8,517만 원), 기타 외국식(7,971만 원), 일식(7,613만 원)의 순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투자 비용은 평균 7,391만 원이며, 세부 업종별로 비알코올 음료점업(9,339만 원), 제과점(8,509만 원) 등의 순임.
- 지역별로는 호남권(9,888만 원),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11,589만 원) 업체의 비용이 큼.

〈표 2-28-2〉 사업장 특성별 개업 시 투자 비용(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모름	평균
전체			1,024	0.5	2.2	12.8	30.9	16.0	37.6	7,787.6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0.8	3.0	9.6	31.6	19.0	36.1	8,531.7
		한식	197	1.0	3.6	10.4	32.4	21.9	30.6	8,554.6
		중식	23	0.0	3.8	12.9	26.1	20.9	36.2	9,201.3
		일식	29	0.0	0.0	0.0	51.7	1.8	46.5	7,613.4
		서양식	46	0.0	0.0	11.5	18.6	8.4	61.6	8,516.7
		기타 외국식	36	0.0	0.0	0.0	20.3	7.0	72.8	7,970.7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0.4	1.8	14.4	30.6	14.4	38.4	7,390.6
		기관 구내식당업	21	0.0	0.0	12.3	6.0	0.0	81.6	3,978.9
		출장·이동음식점업	5	0.0	0.0	0.0	0.0	0.0	100.0	-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0.0	1.3	15.0	22.7	39.9	8,508.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0.0	2.1	9.1	34.2	35.8	7,591.6
			치킨 전문점	127	0.0	1.0	17.5	26.1	44.1	6,738.1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0.0	1.2	33.7	24.5	30.1	6,037.4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0.0	8.1	33.1	30.5	27.6	4,335.9
		주점업	69	3.7	2.7	10.5	46.6	10.5	26.1	6,222.1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0.0	1.6	5.3	32.0	18.4	42.6	9,339.3
지역	서울권		166	1.9	1.9	20.2	40.5	22.1	13.4	7,675.8
	수도권		233	0.0	0.3	12.3	41.2	20.2	26.1	8,411.7
	충청권		165	0.0	2.6	10.0	14.3	5.0	68.0	7,552.2
	호남권		118	0.0	0.0	6.3	27.0	29.3	37.4	9,888.4
	경남권		258	0.0	1.4	10.7	36.0	13.3	38.6	7,365.1
	경북권		84	3.6	14.1	24.0	7.0	3.6	47.7	3,393.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0.0	0.0	28.7	28.7	21.3	21.3	6,436.2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0.1	5.7	16.4	17.0	9.4	51.5	6,135.3
	1억 원~5억 원 미만		721	0.7	2.2	13.2	34.5	15.6	33.8	7,416.3
	5억 원 이상		230	0.0	0.4	8.0	18.5	21.3	51.9	11,588.7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개업 시 투자 비용은 평균 6,106만 원으로 나타남. 투자 비용 분포별 비중은 5천만 원~1억 원 미만(24.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18.3%), 1억 원 이상(9.8%),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7.1%), 1천만 원 이하(1.9%)의 순임.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투자 비용은 평균 6,285만 원이며, 세부 업종별로 일식(10,273만 원), 서양식(7,809만 원), 중식(6,177만 원), 한식(6,029만 원), 기타 외국식(4,557만 원)의 순으로 높음.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투자 비용은 평균 5,874만 원이며, 세부 업종별로 비알코올 음료점업(7,388만 원), 제과점(5,935만 원), 주점업(5,308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호남권(7,705만 원),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9,632만 원) 업체의 비용이 큼.

〈표 2-28-3〉 사업장 특성별 개업 시 투자 비용(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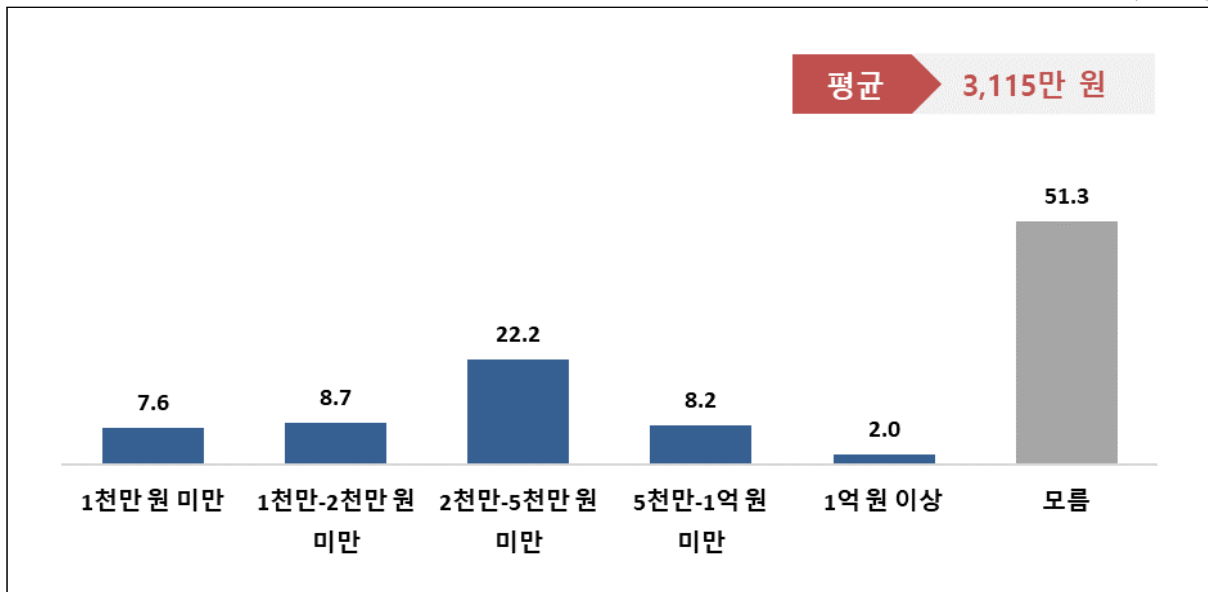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모름	평균
전체			2,114	1.9	7.1	18.3	24.5	9.8	38.4	6,105.7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1.6	7.2	17.9	23.5	10.6	39.1	6,284.6
		한식	894	2.0	7.1	18.9	23.5	9.9	38.7	6,028.5
		중식	135	0.0	6.7	17.1	24.5	8.8	43.0	6,176.6
		일식	88	0.0	11.9	2.0	22.1	22.2	41.8	10,272.8
		서양식	72	0.0	1.1	16.5	25.0	15.9	41.4	7,809.0
		기타 외국식	36	0.0	17.6	29.9	22.3	5.7	24.5	4,557.3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2.4	6.9	18.9	25.8	8.8	37.3	5,873.8
		기관 구내식당업	57	0.0	5.7	6.4	2.9	3.3	81.7	4,585.5
		출장 이동음식점업	73	1.7	4.9	15.8	2.2	0.0	75.3	3,004.7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3.8	3.7	22.8	40.0	19.7	5,935.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0.0	0.0	34.6	32.3	33.1	4,546.9
			치킨 전문점	45	0.0	13.4	23.6	15.1	46.8	3,615.6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2.2	10.9	24.3	20.3	39.2	3,871.6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0.0	4.8	25.6	17.6	48.8	4,519.4
		주점업	249	1.9	5.6	19.7	27.9	6.6	38.3	5,308.4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3.5	7.2	14.8	26.6	15.2	32.7	7,387.5
지역	서울권		325	1.6	7.6	21.4	42.2	12.2	14.9	6,584.9
	수도권		362	0.0	1.7	16.6	31.8	9.5	40.5	6,819.7
	충청권		416	1.7	8.4	15.1	8.4	6.0	60.4	5,504.7
	호남권		349	1.7	5.0	17.4	26.5	20.3	29.0	7,705.4
	경남권		353	0.8	1.3	19.1	32.8	7.0	39.0	5,829.0
	경북권		309	6.7	20.9	21.7	4.6	2.1	44.0	2,632.5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4.8	13.0	23.3	21.2	2.8	34.9	3,950.5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3.4	6.0	23.7	26.9	8.3	31.8	5,481.4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1.5	7.5	16.8	24.4	10.1	39.7	6,203.5
	5억 원 이상		216	0.0	0.8	14.2	21.0	17.1	47.0	9,632.0

21) 개업 시 투자 비용 중 인테리어 비용

- 외식업체의 개업 시 인테리어 비용은 평균 3,115만 원으로 나타남. 인테리어 비용 분포별 비중은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22.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8.7%), 5천만 원~1억 원 미만(8.2%), 1천만 원 미만(7.6%), 1억 원 이상(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9〉 개업 시 투자 비용 중 인테리어 비용 분포

(단위: %)



- 일반음식점의 인테리어 비용은 평균 2,881만 원인 가운데,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이 20.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9.9%), 1천만 원 미만(8.9%), 5천만 원~1억 원 이상(7.2%), 1억 원 이상(1.8%) 등임.
- 세부 업종별로 일식(4,197만 원), 서양식(3,773만 원), 기타 외국식(2,852만 원), 한식(2,783만 원), 중식(2,750만 원)의 순으로 조사됨.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인테리어 비용은 평균 3,355만 원으로 나타남.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이 23.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천만 원~1억 원 미만(9.2%),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7.5%), 1천만 원 미만(6.3%), 1억 원 이상(2.2%)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세부 업종별로 비알코올 음료점업(4,490만 원), 기관 구내식당업(3,759만 원),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3,545만 원), 제과점(3,248만 원) 등의 순임.
- 지역별로는 호남권(3,832만 원), 충청권(3,481만 원), 수도권(3,451만 원), 경남권(3,187만 원), 서울권(2,849만 원), 경북권(1,016만 원)의 순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이 평균 4,556만 원으로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개업 시 인테리어 비용이 큰 것으로 조사됨.

〈표 2-29-1〉 사업장 특성별 개업 시 투자 비용 중 인테리어 비용(전체)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모름	평균
전체			3,138	7.6	8.7	22.2	8.2	2.0	51.3	3,114.9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8.9	9.9	20.8	7.2	1.8	51.5	2,881.4
		한식	1,091	9.7	10.1	20.4	7.3	1.6	50.8	2,782.5
		중식	158	7.6	10.8	25.3	3.5	2.1	50.8	2,750.3
		일식	117	5.7	0.8	19.5	12.5	2.3	59.2	4,197.1
		서양식	118	0.7	12.6	21.5	6.6	3.2	55.4	3,773.3
		기타 외국식	72	1.4	13.8	19.1	7.4	0.2	58.0	2,852.2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6.3	7.5	23.7	9.2	2.2	51.0	3,355.3
		기관 구내식당업	78	1.1	3.6	8.2	2.9	2.5	81.6	3,758.8
		출장·이동음식점업	78	8.7	2.4	9.1	2.6	0.0	77.2	2,001.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6.0	15.2	28.4	10.1	36.5	3,247.7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3.9	7.7	24.8	16.8	45.2	3,544.9
			치킨 전문점	172	5.3	6.2	22.7	5.3	60.4	2,590.7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11.3	10.0	26.2	4.9	46.9	2,176.6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8.9	15.4	13.8	2.9	59.1	1,853.5
		주점업	318	6.1	6.7	29.3	8.9	2.1	47.0	2,996.1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5.9	5.8	19.5	11.4	3.5	53.9	4,490.1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3.9	5.3	26.8	11.6	2.1	50.3	3,768.5
	비프랜차이즈		2,114	9.0	10.0	20.6	6.9	1.9	51.6	2,870.2
지역	서울권		491	10.0	12.1	26.2	9.2	1.2	41.3	2,848.8
	수도권		595	0.5	3.4	18.2	4.4	1.2	72.4	3,451.1
	충청권		581	9.9	8.9	12.2	6.1	3.9	59.0	3,480.8
	호남권		467	4.8	10.5	26.9	17.5	3.1	37.3	3,831.7
	경남권		611	2.1	9.5	38.1	9.5	1.7	39.1	3,186.6
	경북권		393	24.7	8.5	6.7	0.6	0.2	59.3	1,015.8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12.8	16.1	22.4	4.6	0.0	44.1	2,077.8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7.6	14.0	22.0	7.8	1.5	47.1	2,659.8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8.0	7.6	23.0	8.3	2.1	51.0	3,173.7
	5억 원 이상		446	2.1	4.5	16.1	9.0	3.1	65.3	4,556.2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개업 시 인테리어 비용은 평균 3,769만 원으로 나타남. 인테리어 비용 분포별 비중은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2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천만 원~1억 원 미만(11.6%),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5.3%), 1천만 원 미만(3.9%), 1억 원 이상(2.1%) 등임.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인테리어 비용은 평균 3,609만 원이며, 세부 업종별로 서양식(5,297만 원), 중식(4,383만 원), 일식(3,975만 원), 기타 외국식(3,800만 원), 한식(3,426만 원)의 순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인테리어 비용은 평균 3,860만 원이며, 세부 업종별로 비알코올 음료점(5,335만 원), 제과점(4,215만 원) 등의 순으로 큰 것으로 파악됨.
- 지역별로는 호남권(4,290만 원),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4,856만 원) 업체의 비용이 큼.

〈표 2-29-2〉 사업장 특성별 개업 시 투자 비용 중 인테리어 비용(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모름	평균	
전체			1,024	3.9	5.3	26.8	11.6	2.1	50.3	3,768.5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7.0	3.6	29.2	11.0	2.4	46.8	3,608.8	
		한식	197	8.9	2.8	30.6	12.5	2.3	43.0	3,426.0	
		중식	23	3.8	22.3	10.3	3.8	7.7	52.0	4,383.2	
		일식	29	0.0	0.0	38.4	10.6	0.0	50.9	3,975.0	
		서양식	46	0.0	2.9	24.3	2.7	3.5	66.5	5,296.9	
		기타 외국식	36	0.0	0.0	24.3	9.4	0.0	66.2	3,800.3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2.3	6.1	25.6	12.0	1.9	52.1	3,859.5	
		기관 구내식당업	21	0.0	6.0	12.3	0.0	0.0	81.6	2,668.4	
		출장·이동음식점업	5	0.0	0.0	0.0	0.0	0.0	100.0	-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3.9	10.0	17.7	18.0	3.5	46.9	4,214.7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2.1	4.0	25.0	19.3	1.8	47.7	3,945.2
			치킨 전문점	127	0.8	3.7	27.5	7.6	0.2	60.2	3,101.1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2.7	4.9	35.3	6.7	1.9	48.6	3,067.7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13.4	11.6	17.3	0.9	0.0	56.8	1,724.2
		주점업	69	6.3	7.4	36.5	9.8	0.1	39.9	3,006.0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0.0	7.5	19.8	14.6	3.9	54.1	5,334.9	
		지역	서울권	166	4.2	16.1	31.0	18.2	1.7	28.8	4,005.2
수도권	233		0.0	0.9	27.0	6.0	2.2	64.0	3,848.1		
충청권	165		3.9	2.7	13.6	10.8	2.7	66.3	4,164.8		
호남권	118		0.9	4.3	31.8	18.7	2.2	42.1	4,290.0		
경남권	258		3.5	4.6	37.3	13.0	2.3	39.3	3,611.2		
경북권	84		21.8	6.7	1.3	0.0	0.0	70.1	760.4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0.0	0.0	57.4	21.3	0.0	21.3	3,082.7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2.9	11.9	20.6	7.5	1.3	55.8	3,016.5		
	1억 원~5억 원 미만	721	4.4	5.2	29.5	12.3	2.2	46.3	3,727.2		
	5억 원 이상	230	1.9	2.1	14.0	9.7	1.9	70.4	4,856.2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개업 시 인테리어 비용은 평균 2,870만 원으로 나타남. 인테리어 비용 분포별 비중은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20.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10.0%), 1천만 원 미만(9.0%), 5천만 원~1억 원 미만(6.9%), 1억 원 이상(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인테리어 비용은 평균 2,705만 원이며, 세부 업종별로 일식(4,267만 원), 서양식(3,244만 원), 한식(2,627만 원), 중식(2,533만 원), 기타 외국식(2,288만 원)의 순임.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인테리어 비용은 평균 3,081만 원이며, 세부 업종별로 비알코올 음료점(4,125만 원), 기관 구내식당(4,111만 원), 주점(2,994만 원) 등의 순으로 파악됨.
- 지역별로는 호남권(3,729만 원),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4,363만 원) 업체의 비용이 큼.

〈표 2-29-3〉 사업장 특성별 개업 시 투자 비용 중 인테리어 비용(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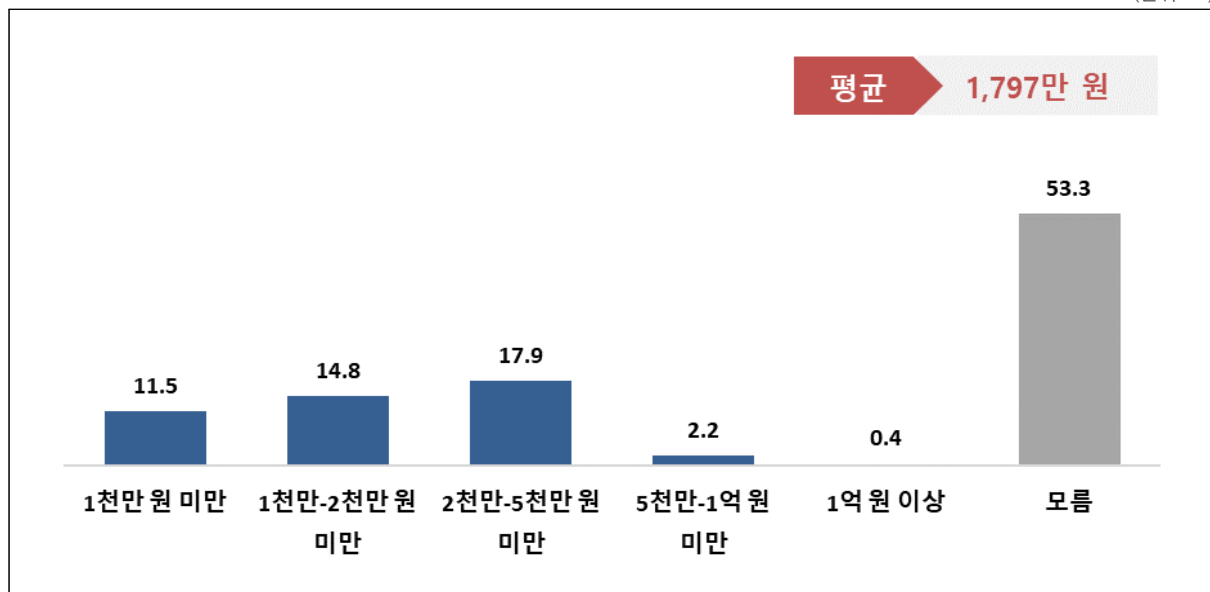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모름	평균
전체			2,114	9.0	10.0	20.6	6.9	1.9	51.6	2,870.2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9.3	11.2	19.0	6.4	1.6	52.5	2,705.2
		한식	894	9.9	11.6	18.4	6.2	1.5	52.4	2,627.3
		중식	135	8.1	9.2	27.3	3.5	1.3	50.6	2,532.7
		일식	88	7.1	1.0	14.7	13.0	2.9	61.3	4,267.3
		서양식	72	1.1	17.6	20.1	8.7	2.9	49.5	3,244.2
		기타 외국식	36	2.7	25.8	14.6	5.7	0.4	50.8	2,288.2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8.6	8.3	22.7	7.6	2.4	50.5	3,081.2
		기관 구내식당	57	1.5	2.9	6.9	3.9	3.3	81.5	4,111.0
		출장·이동음식점	73	9.6	2.6	10.1	2.9	0.0	74.8	2,001.0
		기타 음식점	제과점	84	7.4	18.8	35.9	4.7	29.3	2,747.2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	21	12.8	26.3	23.6	4.5	32.8	2,006.3
			치킨 전문점	45	15.8	11.8	11.5	0.0	60.9	1,383.8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	111	17.0	13.3	20.3	3.7	45.8	1,624.6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4.8	18.7	10.6	4.8	61.1	1,981.8
		주점	249	6.0	6.6	28.0	8.7	2.4	48.3	2,994.0
		비알코올 음료점	212	8.4	5.1	19.4	10.0	3.3	53.8	4,125.0
지역	서울권		325	12.0	10.7	24.6	6.1	1.0	45.6	2,325.4
	수도권		362	0.7	4.6	14.1	3.6	0.7	76.3	3,169.0
	충청권		416	11.8	11.0	11.7	4.6	4.3	56.6	3,303.9
	호남권		349	5.8	12.0	25.6	17.2	3.3	36.1	3,729.3
	경남권		353	1.3	12.3	38.5	7.4	1.3	39.1	2,939.2
	경북권		309	25.2	8.9	7.7	0.7	0.2	57.3	1,049.8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13.3	16.6	21.1	4.1	0.0	44.9	2,027.3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8.3	14.3	22.2	7.8	1.5	45.9	2,617.9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9.4	8.6	20.3	6.7	2.0	52.9	2,915.8
	5억 원 이상		216	2.2	6.5	17.8	8.5	4.1	61.0	4,363.3

22) 개업 시 투자 비용 중 주방 관련 비용

- 외식업체의 개업 시 주방 관련 비용은 평균 1,797만 원으로 나타남. 주방 관련 비용 분포별 비중은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17.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14.8%), 1천만 원 미만(11.5%), 5천만 원~1억 원 미만(2.2%), 1억 원 이상(0.4%) 등의 순임.

〈그림 2-30〉 개업 시 투자 비용 중 주방 관련 비용

(단위: %)



- 일반음식점의 주방 관련 비용은 평균 1,762만 원이며, 주방 관련 비용 분포별 비중은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이 1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15.5%), 1천만 원 미만(11.8%), 5천만 원~1억 원 미만(2.3%), 1억 원 이상(0.2%) 등의 순으로 파악됨.
 - 세부 업종별로 일식(2,214만 원), 중식(1,971만 원), 서양식(1,859만 원), 기타 외국식(1,763만 원), 한식(1,713만 원)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주방 관련 비용은 평균 1,834만 원 수준임.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이 18.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14.1%), 1천만 원 미만(11.1%), 5천만 원~1억 원 미만(2.1%), 1억 원 이상(0.5%)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세부 업종별로 비알코올 음료점업(2,364만 원), 제과점(2,274만 원),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2,176만 원), 치킨 전문점(1,527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호남권(2,317만 원), 수도권(2,142만 원), 경남권(1,924만 원), 서울권(1,700만 원), 충청권(1,393만 원), 경북권(638만 원)의 순으로 파악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2,708만 원)으로 매출액이 클수록 투자 비용 중 주방 관련 비용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30-1〉 사업장 특성별 개업 시 투자 비용 중 주방 관련 비용(전체)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모름	평균	
전체			3,138	11.5	14.8	17.9	2.2	0.4	53.3	1,797.1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11.8	15.5	16.9	2.3	0.2	53.4	1,761.6	
		한식	1,091	12.7	15.8	16.4	2.4	0.2	52.5	1,713.4	
		중식	158	11.7	14.2	18.8	1.1	0.8	53.4	1,971.3	
		일식	117	4.3	13.1	17.5	3.5	0.0	61.5	2,213.7	
		서양식	118	5.2	16.7	20.7	1.0	0.2	56.2	1,858.9	
		기타 외국식	72	7.3	9.4	20.0	0.2	0.0	63.1	1,762.7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11.1	14.1	18.9	2.1	0.5	53.3	1,834.0	
		기관 구내식당업	78	8.2	0.0	5.8	0.0	0.0	86.0	1,103.3	
		출장·이동음식점업	78	19.2	3.9	2.0	0.0	0.0	74.8	750.7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7.7	19.9	30.3	4.4	1.2	36.5	2,274.4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4.7	11.9	29.7	2.8	0.0	50.9	2,176.2
			치킨 전문점	172	8.2	14.6	15.7	0.0	0.1	61.4	1,526.8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10.3	25.0	15.9	0.7	0.0	48.2	1,482.6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5.5	22.1	13.4	0.0	0.0	59.1	1,363.9	
		주점업	318	17.6	15.6	16.9	0.7	0.0	49.2	1,371.7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9.7	8.7	19.5	4.0	1.2	56.8	2,364.5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5.0	13.6	26.0	2.9	0.2	52.4	2,133.3	
	비프랜차이즈		2,114	13.8	15.3	14.9	1.9	0.4	53.7	1,671.3	
지역	서울권		491	13.0	21.4	22.0	2.0	0.0	41.6	1,700.4	
	수도권		595	3.3	6.9	15.2	1.4	0.1	73.1	2,142.0	
	충청권		581	11.4	13.8	5.9	0.4	0.6	67.8	1,393.1	
	호남권		467	12.4	14.3	28.2	6.7	1.0	37.4	2,317.1	
	경남권		611	6.2	22.4	29.7	2.2	0.3	39.1	1,924.0	
	경북권		393	28.7	8.4	1.4	0.0	0.0	61.4	638.3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16.9	18.4	19.2	1.1	0.0	44.4	1,418.3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17.9	15.1	14.0	3.2	0.9	48.8	1,716.5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10.8	14.9	19.1	1.7	0.2	53.4	1,765.4	
	5억 원 이상		446	1.9	11.9	14.5	5.3	0.6	65.9	2,707.7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개업 시 주방 관련 비용은 평균 2,133만 원으로 나타남. 주방 관련 비용 분포별 비중은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2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13.6%), 1천만 원 미만(5.0%), 5천만 원~1억 원 미만(2.9%), 1억 원 이상(0.2%)의 순임.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주방 관련 비용은 평균 2,204만 원이며, 세부 업종별로 일식(2,355만 원), 한식(2,220만 원), 중식(2,199만 원), 기타 외국식(2,068만 원), 서양식(1,882만 원)의 순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주방 관련 비용은 평균 2,093만 원이며, 세부 업종별로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2,434만 원), 제과점(2,432만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호남권(2,954만 원),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3,045만 원) 업체의 비용이 큼.

〈표 2-30-2〉 사업장 특성별 개업 시 투자 비용 중 주방 관련 비용(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모름	평균
전체			1,024	5.0	13.6	26.0	2.9	0.2	52.4	2,133.3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5.6	14.6	26.4	4.2	0.2	49.0	2,203.7
		한식	197	6.7	15.5	28.2	5.1	0.3	44.3	2,220.3
		중식	23	3.8	16.8	19.7	3.8	0.1	55.8	2,198.5
		일식	29	0.0	5.8	29.9	1.8	0.0	62.6	2,354.8
		서양식	46	2.9	14.4	15.3	0.0	0.6	66.7	1,881.5
		기타 외국식	36	0.0	7.0	18.7	0.0	0.0	74.3	2,067.6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4.7	13.1	25.8	2.2	0.1	54.1	2,093.2
		기관 구내식당업	21	12.3	0.0	6.0	0.0	0.0	81.6	982.9
		출장·이동음식점업	5	0.0	0.0	0.0	0.0	0.0	100.0	-
		제과점	82	2.7	15.4	31.5	2.2	1.3	46.9	2,431.7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2.9	6.5	33.6	3.4	0.0	53.6	2,433.7
		치킨 전문점	127	3.9	14.9	19.5	0.0	0.1	61.6	1,799.4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2.9	24.6	21.2	1.7	0.0	49.6	1,896.2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2.7	29.8	10.7	0.0	0.0	56.8	1,462.5
		주점업	69	10.0	21.3	28.7	0.1	0.0	39.9	1,668.1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5.2	5.2	28.5	4.5	0.0	56.6	2,407.6
	지역	서울권	166	8.6	19.1	40.3	1.9	0.1	29.9	1,998.6
		수도권	233	2.4	7.7	23.9	1.4	0.1	64.5	2,174.7
		충청권	165	4.9	11.6	6.4	0.0	0.0	77.0	1,399.3
		호남권	118	2.0	6.4	38.8	10.7	0.0	42.1	2,953.5
		경남권	258	3.3	20.1	33.3	3.5	0.5	39.3	2,199.8
		경북권	84	16.7	13.2	0.0	0.0	0.0	70.1	728.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28.7	0.0	50.0	0.0	0.0	21.3	1,994.4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10.2	11.4	8.4	8.8	0.0	61.1	2,301.5
	1억 원~5억 원 미만		721	5.1	14.6	29.9	1.9	0.1	48.4	2,028.9
	5억 원 이상		230	0.4	9.8	13.3	4.8	0.7	70.9	3,045.4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개업 시 주방 관련 비용은 평균 1,671만 원으로 나타남. 주방 관련 비용 분포별 비중은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15.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14.9%), 1천만 원 미만(13.8%), 5천만 원~1억 원 미만(1.9%), 1억 원 이상(0.4%)의 순으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주방 관련 비용은 평균 1,655만 원이고, 세부 업종별로 일식(2,180만 원), 중식(1,942만 원), 서양식(1,851만 원), 기타 외국식(1,617만 원), 한식(1,589만 원)의 순임.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주방 관련 비용은 평균 1,692만 원이며, 세부 업종별로 비알코올 음료점(2,346만 원), 제과점(2,193만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호남권(2,175만 원),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2,490만 원) 업체의 비용이 큼.

〈표 2-30-3〉 사업장 특성별 개업 시 투자 비용 중 주방 관련 비용(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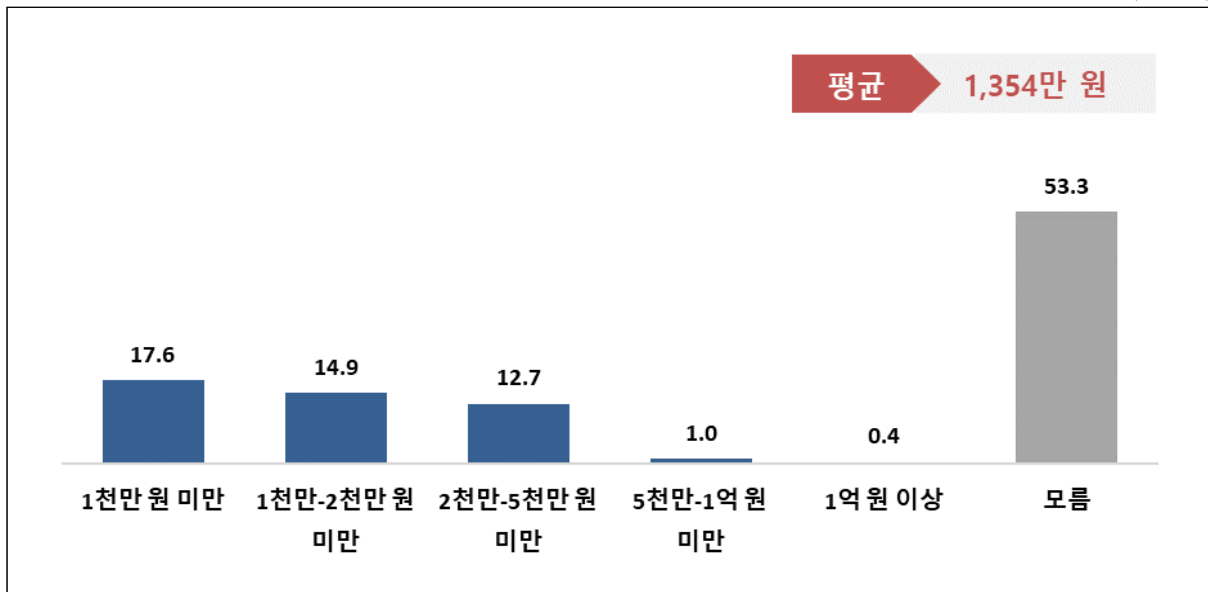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모름	평균
전체			2,114	13.8	15.3	14.9	1.9	0.4	53.7	1,671.3
업종	일반음식점	소계	1,225	13.1	15.7	14.8	1.9	0.2	54.3	1,655.0
		한식	894	13.9	15.8	14.0	1.9	0.2	54.2	1,589.2
		중식	135	12.8	13.9	18.6	0.8	0.9	53.0	1,942.0
		일식	88	5.4	14.9	14.5	4.0	0.0	61.3	2,179.7
		서양식	72	6.4	18.0	23.5	1.5	0.0	50.6	1,850.9
		기타 외국식	36	13.5	11.5	21.1	0.4	0.0	53.4	1,616.9
	일반음식점 외	소계	889	14.8	14.7	15.0	2.0	0.7	52.8	1,692.4
		기관 구내식당업	57	6.9	0.0	5.7	0.0	0.0	87.4	1,160.2
		출장·이동음식점업	73	21.3	4.4	2.2	0.0	0.0	72.1	750.7
		제과점	84	11.2	22.9	29.6	5.9	1.1	29.3	2,192.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13.3	38.5	10.9	0.0	0.0	37.3	1,234.6
		치킨 전문점	45	18.3	14.0	6.8	0.0	0.0	60.9	905.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15.1	25.2	12.4	0.0	0.0	47.3	1,224.4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8.0	15.2	15.8	0.0	0.0	61.1	1,266.2
		주점업	249	19.0	14.6	14.8	0.9	0.0	50.8	1,307.9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11.7	10.2	15.6	3.8	1.8	56.9	2,345.7
지역	서울권		325	14.5	22.3	15.6	2.0	0.0	45.6	1,567.4
	수도권		362	3.8	6.5	11.1	1.4	0.1	77.1	2,118.2
	충청권		416	13.6	14.5	5.7	0.5	0.8	64.8	1,391.8
	호남권		349	15.0	16.3	25.6	5.7	1.2	36.2	2,174.6
	경남권		353	7.9	23.8	27.6	1.5	0.2	39.1	1,763.2
	경북권		309	31.0	7.5	1.7	0.0	0.0	59.8	625.6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16.5	19.0	18.1	1.2	0.0	45.2	1,389.2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19.1	15.7	14.9	2.4	1.1	47.0	1,654.9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13.1	15.0	14.6	1.5	0.3	55.4	1,640.7
	5억 원 이상		216	3.2	13.6	15.4	5.7	0.5	61.7	2,490.4

23) 개업 시 투자 비용 중 홀 관련 비용

- 외식업체의 개업 시 홀 관련 비용은 평균 1,354만 원으로 나타남. 홀 관련 비용 분포별 비중은 1천만 원 미만(17.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14.9%)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12.7%), 5천만 원~1억 원 미만(1.0%), 1억 원 이상(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31〉 개업 시 투자 비용 중 홀 관련 비용

(단위: %)



- 일반음식점의 홀 관련 비용은 평균 1,431만 원이며, 1천만 원 미만이 17.3%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15.6%),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12.4%), 5천만 원~1억 원 미만(0.8%), 1억 원 이상(0.6%) 등임.
- 세부 업종별로 일식(1,811만 원), 서양식(1,740만 원), 한식(1,417만 원), 중식(1,261만 원), 기타 외국식(1,103만 원)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홀 관련 비용은 평균 1,274만 원으로 파악됨. 1천만 원 미만이 18.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천만 원~5천만 원 미만(14.2%),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13.1%), 5천만 원~1억 원 미만(1.3%), 1억 원 이상(0.1%) 등의 순임.
- 세부 업종별로 비알코올 음료점업(1,695만 원),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1,602만 원), 제과점(1,216만 원), 치킨 전문점(1,13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수도권(1,905만 원), 호남권(1,871만 원), 서울권(1,367만 원), 경남권(1,305만 원), 충청권(790만 원), 경북권(418만 원)의 순으로 조사됨.
-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2,554만 원), 1억 원~5억 원 미만(1,329만 원), 5천만 원~1억 원 미만(1,197만 원), 5천만 원 미만(777만 원)의 순으로 나타남.

〈표 2-31-1〉 사업장 특성별 개업 시 투자 비용 중 홀 관련 비용(전체)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모름	평균
전체			3,138	17.6	14.9	12.7	1.0	0.4	53.3	1,353.6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17.3	15.6	12.4	0.8	0.6	53.3	1,430.6
		한식	1,091	18.2	15.2	12.8	0.8	0.6	52.4	1,417.3
		중식	158	19.6	17.3	8.5	0.0	1.1	53.4	1,260.6
		일식	117	8.0	14.9	14.8	0.8	0.0	61.5	1,810.7
		서양식	118	7.8	20.6	11.7	2.7	0.2	56.9	1,740.1
		기타 외국식	72	13.8	16.6	6.3	0.2	0.0	63.1	1,102.6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18.0	14.2	13.1	1.3	0.1	53.3	1,273.5
		기관 구내식당업	78	9.3	3.6	1.1	0.0	0.0	86.0	580.0
		출장·이동음식점업	78	23.4	0.0	0.7	0.0	0.0	75.9	421.5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21.3	26.7	13.8	1.2	36.5	1,215.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8.9	16.1	22.7	1.5	50.9	1,601.7
			치킨 전문점	172	15.0	11.4	12.1	0.0	61.4	1,130.3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26.2	18.9	6.0	0.7	48.2	911.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18.7	18.4	3.9	0.0	59.1	778.4
		주점업	318	23.9	12.9	13.4	0.6	0.0	49.2	1,046.9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13.0	11.9	15.4	2.6	0.3	56.8	1,694.7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11.6	14.9	19.8	1.1	0.5	52.2	1,663.4
		비프랜차이즈	2,114	19.9	14.9	10.2	1.0	0.3	53.7	1,237.0
	지역	서울권	491	20.6	17.5	19.9	0.4	0.0	41.6	1,366.9
		수도권	595	4.4	13.5	8.0	0.2	0.8	73.1	1,904.8
		충청권	581	18.8	9.2	3.9	0.5	0.0	67.6	789.9
		호남권	467	16.0	18.6	23.5	3.6	1.0	37.4	1,871.4
		경남권	611	17.7	23.4	18.1	1.3	0.3	39.1	1,304.6
		경북권	393	34.2	3.6	0.8	0.0	0.0	61.4	418.2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33.0	14.2	8.3	0.0	0.0	44.5	776.5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23.6	14.8	11.0	1.6	0.2	48.8	1,196.8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16.5	15.7	13.4	0.7	0.3	53.3	1,329.3
	5억 원 이상		446	8.4	8.6	12.4	2.9	1.8	65.9	2,554.0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개업 시 홀 관련 비용은 평균 1,663만 원으로 나타남. 홀 관련 비용 분포별 비중은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1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14.9%), 1천만 원 미만(11.6%), 5천만 원~1억 원 미만(1.1%) 1억 원 이상(0.5%) 등의 순임.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홀 관련 비용은 평균 1,974만 원이며, 세부 업종별로 중식(2,066만 원), 한식(2,021만 원), 기타 외국식(1,649만 원), 서양식(1,607만 원), 일식(1,559만 원)의 순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홀 관련 비용은 평균 1,484만 원이며, 세부 업종별로 비알코올 음료점(1,857만 원),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1,728만 원) 등의 순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호남권(2,204만 원),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2,347만 원) 업체의 비용이 큼.

〈표 2-31-2〉 사업장 특성별 개업 시 투자 비용 중 홀 관련 비용(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모름	평균	
전체			1,024	11.6	14.9	19.8	1.1	0.5	52.2	1,663.4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12.4	12.8	24.4	0.6	1.3	48.4	1,973.8	
		한식	197	14.1	11.7	28.5	0.8	1.4	43.5	2,020.6	
		중식	23	10.3	15.8	14.1	0.0	3.9	55.8	2,066.4	
		일식	29	0.0	26.9	10.6	0.0	0.0	62.6	1,559.3	
		서양식	46	11.6	11.4	9.7	0.0	0.6	66.7	1,606.6	
		기타 외국식	36	3.0	12.3	10.5	0.0	0.0	74.3	1,649.2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11.1	15.9	17.4	1.3	0.1	54.1	1,483.9	
		기관 구내식당업	21	12.3	6.0	0.0	0.0	0.0	81.6	327.6	
		출장·이동음식점업	5	0.0	0.0	0.0	0.0	0.0	100.0	-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17.8	18.1	15.8	0.0	1.3	46.9	1,356.6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7.6	11.5	25.5	1.8	0.0	53.6	1,727.9
			치킨 전문점	127	7.7	15.3	15.3	0.0	0.1	61.6	1,348.5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20.1	20.7	7.7	1.9	0.0	49.6	1,115.6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19.1	18.0	6.1	0.0	0.0	56.8	805.7
		주점업	69	14.7	21.0	24.3	0.1	0.0	39.9	1,359.4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7.1	14.5	19.1	2.7	0.0	56.6	1,856.7	
지역	서울권		166	16.3	19.4	33.2	1.1	0.1	29.9	1,673.2	
	수도권		233	5.6	17.8	10.6	0.0	1.5	64.5	1,942.7	
	충청권		165	9.9	8.3	6.1	0.0	0.0	75.7	1,088.2	
	호남권		118	4.1	14.4	35.6	3.3	0.6	42.1	2,203.7	
	경남권		258	13.7	18.4	26.3	1.8	0.5	39.3	1,604.5	
	경북권		84	28.6	0.0	1.2	0.0	0.0	70.1	362.2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28.7	28.7	21.3	0.0	0.0	21.3	1,359.0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14.2	14.5	8.2	0.0	2.0	61.1	1,607.5	
	1억 원~5억 원 미만		721	11.9	16.3	22.4	0.9	0.4	48.1	1,600.9	
	5억 원 이상		230	7.5	6.4	12.0	2.5	0.7	70.9	2,347.4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개업 시 홀 관련 비용은 평균 1,237만 원으로 나타남. 홀 관련 비용 분포별 비중은 1천만 원 미만이 19.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14.9%), 2천만 원~5천만 원 이하(10.2%), 5천만 원~1억 원 이하(1.0%), 1억 원 이상(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홀 관련 비용은 평균 1,298만 원이며, 세부 업종별로 일식(1,871만 원), 서양식(1,788만 원), 한식(1,267만 원), 중식(1,157만 원), 기타 외국식(841만 원)의 순임.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홀 관련 비용은 평균 1,158만 원이며, 세부 업종별로 비알코올 음료점업(1,624만 원), 제과점(1,143만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수도권(1,877만 원),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2,687만 원) 업체의 비용이 큼.

〈표 2-31-3〉 사업장 특성별 개업 시 투자 비용 중 홀 관련 비용(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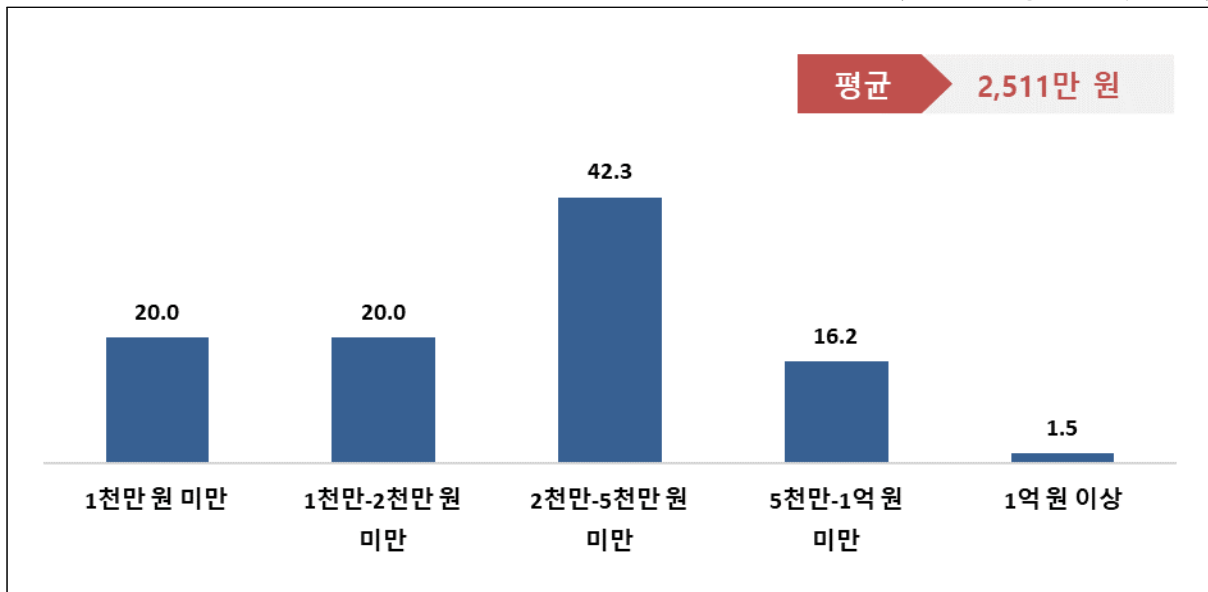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모름	평균
전체			2,114	19.9	14.9	10.2	1.0	0.3	53.7	1,237.0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18.3	16.2	9.8	0.9	0.5	54.3	1,297.8
		한식	894	19.0	15.9	9.6	0.8	0.5	54.2	1,267.2
		중식	135	20.9	17.5	7.8	0.0	0.8	53.0	1,156.7
		일식	88	10.0	11.9	15.8	1.0	0.0	61.3	1,871.3
		서양식	72	5.9	25.4	12.8	4.2	0.0	51.7	1,788.3
		기타 외국식	36	23.2	20.4	2.6	0.4	0.0	53.4	841.1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21.9	13.2	10.7	1.3	0.1	52.8	1,158.4
		기관 구내식당업	57	8.3	2.9	1.5	0.0	0.0	87.4	699.4
		출장·이동음식점업	73	25.9	0.0	0.8	0.0	0.0	73.4	421.5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23.7	32.6	12.4	2.0	29.3	1,143.1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15.3	38.5	8.9	0.0	37.3	1,140.2
			치킨 전문점	45	32.1	2.4	4.6	0.0	60.9	632.8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30.1	17.7	5.0	0.0	47.3	783.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18.3	18.7	1.9	0.0	61.1	751.3
		주점업	249	25.6	11.5	11.4	0.7	0.0	50.8	979.6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15.5	10.8	13.8	2.6	0.4	56.9	1,624.0
지역	서울권		325	22.1	16.8	15.3	0.2	0.0	45.6	1,230.3
	수도권		362	3.8	11.6	6.7	0.3	0.5	77.1	1,877.3
	충청권		416	21.8	9.5	3.1	0.7	0.0	64.9	721.2
	호남권		349	18.9	19.6	20.5	3.6	1.1	36.2	1,797.0
	경남권		353	20.1	26.4	13.3	1.0	0.2	39.1	1,129.7
	경북권		309	35.2	4.3	0.7	0.0	0.0	59.8	426.1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33.1	13.7	7.9	0.0	0.0	45.3	747.1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24.9	14.8	11.4	1.9	0.0	47.0	1,153.5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18.4	15.4	9.8	0.7	0.2	55.5	1,200.0
	5억 원 이상		216	9.1	10.4	12.7	3.3	2.7	61.7	2,687.0

24) 가장 최근 리모델링 비용

- 외식업체의 가장 최근 리모델링 비용은 평균 2,511만 원으로 나타남. 리모델링 비용 분포별 비중은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42.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천만 원 미만과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각 20.0%), 5천만 원~1억 원 미만(16.2%), 1억 원 이상(1.5%) 등임.

〈그림 2-32〉 가장 최근 리모델링 비용 분포

(Base: 리모델링을 한 업체, 단위: %)



- 일반음식점의 리모델링 비용은 평균 2,668만 원이며,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이 4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천만 원 미만(21.8%), 5천만 원~1억 원 미만(16.9%),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14.6%), 1억 원 이상(1.7%)의 순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 일식(3,457만 원), 기타 외국식(3,333만 원), 중식(3,090만 원), 한식(2,621만 원), 서양식(1,793만 원)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리모델링 비용은 평균 2,116만 원 수준임.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이 35.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33.6%), 1천만 원 미만(15.5%), 5천만 원~1억 원 미만(14.3%), 1억 원 이상(1.0%) 순으로 파악됨.
 - 세부 업종별로 제과점(2,643만 원), 주점업(2,491만 원),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2,00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경북권(3,397만 원), 수도권(2,664만 원), 호남권(2,660만 원), 서울권(2,539만 원), 경남권(2,517만 원), 충청권(1,753만 원)의 순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3,981만 원), 1억 원~5억 원 미만(2,461만 원), 5천만 원~1억 원 미만(2,104만 원), 5천만 원 미만(1,655만 원)의 순으로 많음.

〈표 2-32-1〉 사업장 특성별 가장 최근 리모델링 비용(전체)

(Base: 리모델링을 한 업체,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 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평균
전체			170	20.0	20.0	42.3	16.2	1.5	2,511.0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8	21.8	14.6	45.0	16.9	1.7	2,667.5
		한식	100	22.2	16.5	43.6	15.7	2.0	2,620.7
		중식	18	16.8	0.0	56.3	27.0	0.0	3,089.6
		일식	3	43.0	0.0	18.7	38.3	0.0	3,457.2
		서양식	4	21.3	21.3	57.5	0.0	0.0	1,792.7
		기타 외국식	3	0.0	0.0	100.0	0.0	0.0	3,333.3
	일반 음식점 외	소계	42	15.5	33.6	35.6	14.3	1.0	2,115.8
		기관 구내식당업	1	100.0	0.0	0.0	0.0	0.0	10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	0.0	58.7	23.8	5.9	2,643.4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4	0.0	57.2	42.8	0.0	1,869.9
			치킨 전문점	2	0.0	50.0	50.0	0.0	1,500.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5	43.5	0.0	56.5	0.0	1,351.8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1	0.0	0.0	100.0	0.0	2,000.0
		주점업	11	7.9	41.3	22.9	28.0	0.0	2,490.9
		비알코올 음료점업	10	28.8	18.6	52.5	0.0	0.0	1,654.8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35	6.9	13.4	66.5	11.4	1.7	2,607.9
	비프랜차이즈		135	22.6	21.3	37.5	17.1	1.5	2,491.9
지역	서울권		30	27.1	33.7	16.3	21.4	1.5	2,539.3
	수도권		10	0.0	13.2	74.1	12.7	0.0	2,664.1
	충청권		22	36.9	20.0	37.9	5.2	0.0	1,752.6
	호남권		32	33.5	12.0	35.1	13.1	6.4	2,659.8
	경남권		64	2.9	22.0	63.7	11.4	0.0	2,517.4
	경북권		12	29.6	0.0	12.8	57.7	0.0	3,397.1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27.1	51.0	21.9	0.0	0.0	1,655.4
	5천만 원~1억 원 미만		22	30.8	15.4	42.3	11.5	0.0	2,104.4
	1억 원~5억 원 미만		116	19.1	21.7	41.4	16.1	1.7	2,461.0
	5억 원 이상		28	6.5	0.0	58.9	31.3	3.3	3,980.8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리모델링 비용은 평균 2,608만 원으로 나타남. 리모델링 비용 분포별 비중은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6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13.4%), 5천만 원~1억 원 미만(11.4%), 1천만 원 미만(6.9%), 1억 원 이상(1.7%)의 순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리모델링 비용은 평균 2,889만 원이며, 세부 업종별로 한식(2,916만 원), 서양식(2,490만 원)의 순임.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리모델링 비용은 평균 2,078만 원이며, 세부 업종별로 제과점(9,882만 원),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2,000만 원), 비알코올 음료점업(1,965만 원),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1,870만 원), 치킨 전문점(1,500만 원) 등의 순으로 많음.
- 지역별로는 서울권(3,335만 원),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4,717만 원) 업체의 비용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32-2〉 사업장 특성별 가장 최근 리모델링 비용(프랜차이즈)

(Base: 리모델링을 한 업체,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 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평균
전체			35	6.9	13.4	66.5	11.4	1.7	2,607.9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20	0.0	10.2	72.3	17.5	0.0	2,889.4
		한식	18	0.0	10.9	70.4	18.7	0.0	2,915.5
		서양식	2	0.0	0.0	100.0	0.0	0.0	2,490.4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	19.9	19.5	55.6	0.0	5.0	2,078.2
		제과점	3	0.0	0.0	1.8	0.0	98.2	9,881.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4	0.0	57.2	42.8	0.0	0.0	1,869.9
		치킨 전문점	2	0.0	50.0	50.0	0.0	0.0	1,500.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	0.0	0.0	100.0	0.0	0.0	2,000.0
		주점업	3	53.3	0.0	46.7	0.0	0.0	1,440.0
		비알코올 음료점업	2	5.0	0.0	95.0	0.0	0.0	1,965.4
지역	서울권		9	31.0	15.8	24.0	21.1	8.1	3,334.9
	수도권		3	0.0	0.0	100.0	0.0	0.0	2,515.7
	충청권		4	0.0	0.0	100.0	0.0	0.0	2,567.9
	호남권		2	7.9	0.0	92.1	0.0	0.0	2,830.8
	경남권		17	0.0	17.6	70.4	12.1	0.0	2,339.3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2	0.0	53.8	46.2	0.0	0.0	1,923.5
	1억 원~5억 원 미만		22	9.8	14.2	76.0	0.0	0.0	1,981.2
	5억 원 이상		11	0.0	0.0	42.8	49.6	7.6	4,716.9

- 비프랜차이즈의 리모델링 비용은 평균 2,492만 원으로 나타남. 리모델링 비용 분포별 비중은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37.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천만 원 미만(22.6%),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21.3%), 5천만 원~1억 원 미만(17.1%), 1억 원 이상(1.5%)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의 리모델링 비용은 평균 2,628만 원이며, 세부 업종별로 일식(3,457만 원), 기타 외국식(3,333만 원), 중식(3,090만 원), 한식(2,564만 원), 서양식(850만 원)의 순으로 조사됨.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리모델링 비용은 평균 2,125만 원이며, 세부 업종별로 주점업(2,673만 원),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2,000만 원), 제과점(1,666만 원) 등임.
- 지역별로는 경북권(3,397만 원),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3,427만 원) 업체의 비용이 큼.

〈표 2-32-3〉 사업장 특성별 가장 최근 리모델링 비용(비프랜차이즈)

(Base: 리모델링을 한 업체, 단위: 개소,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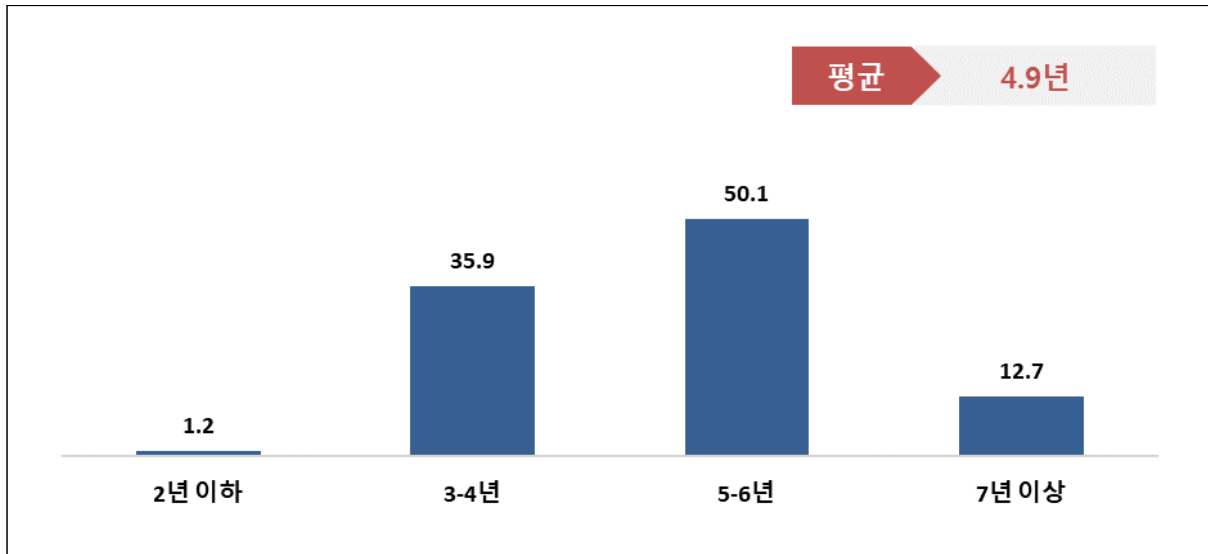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 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평균
전체			135	22.6	21.3	37.5	17.1	1.5	2,491.9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08	25.7	15.4	40.2	16.8	2.0	2,628.4
		한식	82	26.5	17.6	38.4	15.1	2.4	2,563.5
		중식	18	16.8	0.0	56.3	27.0	0.0	3,089.6
		일식	3	43.0	0.0	18.7	38.3	0.0	3,457.2
		서양식	2	50.0	50.0	0.0	0.0	0.0	850.0
		기타 외국식	3	0.0	0.0	100.0	0.0	0.0	3,333.3
	일반 음식점 외	소계	27	14.4	37.1	30.5	18.0	0.0	2,125.3
		기관 구내식당업	1	100.0	0.0	0.0	0.0	0.0	10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5	0.0	66.6	26.8	0.0	1,666.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4	55.5	0.0	44.5	0.0	1,171.9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1	0.0	0.0	100.0	0.0	2,000.0
		주점업	8	0.0	48.4	18.8	32.8	0.0	2,672.8
		비알코올 음료점업	8	31.7	20.9	47.4	0.0	0.0	1,617.3
지역	서울권		21	26.2	37.9	14.5	21.4	0.0	2,351.3
	수도권		7	0.0	17.7	65.2	17.0	0.0	2,715.0
	충청권		18	43.3	23.5	27.1	6.1	0.0	1,611.5
	호남권		30	34.1	12.2	33.8	13.4	6.6	2,655.8
	경남권		47	3.9	23.5	61.4	11.1	0.0	2,578.5
	경북권		12	29.6	0.0	12.8	57.7	0.0	3,397.1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27.1	51.0	21.9	0.0	0.0	1,655.4
	5천만 원~1억 원 미만		20	33.2	12.4	42.0	12.4	0.0	2,118.4
	1억 원~5억 원 미만		94	20.9	23.1	34.8	19.2	2.0	2,552.0
	5억 원 이상		17	11.4	0.0	71.0	17.6	0.0	3,426.8

25) 인테리어 리모델링 경과 년수

- 외식업체의 리모델링 경과 년수는 평균 4.9년인 가운데, 리모델링 경과 년수는 5~6년이 50.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4년(35.9%), 7년 이상(12.7%), 2년 이하(1.2%)의 순임.

〈그림 2-33〉 리모델링 경과 년수 분포

(Base: 리모델링을 한 업체, 단위: %)



- 일반음식점의 리모델링 경과 년수는 평균 5.0년으로 나타남. 5~6년이 5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4년(32.6%), 7년 이상(9.8%), 2년 이하(0.9%)의 순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 한식(5.0년), 중식(4.9년), 서양식(4.7년), 기타 외국식(4.3년), 일식(4.2년)의 순임.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리모델링 경과 년수는 평균 4.8년으로 나타남. 3~4년이 4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6년(33.3%), 7년 이상(20.3%), 2년 이하(2.1%)의 순으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7.0%) 주점업(5.4년), 제과점(5.3년), 기관 구내식당업(5.0년)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서울권(5.3년), 경북권과 경남권(각 5.2년), 수도권(4.8년), 호남권(4.6년), 충청권(4.2년)의 순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 원~5억 원 미만과 5억 원 이상(각 5.1년), 5천만 원 미만(4.6년), 5천만 원~1억 원 미만(4.2년)의 순임.

〈표 2-33-1〉 사업장 특성별 리모델링 경과년수(전체)

(Base: 리모델링을 한 업체, 단위: 개소, %, 년)

구분			사례수	2년 이하	3~4년	5~6년	7년 이상	평균
전체			170	1.2	35.9	50.1	12.7	4.9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8	0.9	32.6	56.8	9.8	5.0
		한식	100	1.0	33.3	54.4	11.3	5.0
		중식	18	0.0	25.0	75.0	0.0	4.9
		일식	3	0.0	57.0	43.0	0.0	4.2
		서양식	4	0.0	28.2	71.8	0.0	4.7
		기타 외국식	3	0.0	33.3	66.7	0.0	4.3
	일반 음식점 외	소계	42	2.1	44.3	33.3	20.3	4.8
		기관 구내식당업	1	0.0	0.0	100.0	0.0	5.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	0.0	6.0	82.5	5.3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4	0.0	99.0	1.0	3.6
			치킨 전문점	2	0.0	100.0	0.0	3.5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5	21.7	56.5	0.0	4.0
			간이 음식 포장판매 전문점	1	0.0	0.0	100.0	7.0
		주점업	11	0.0	26.0	42.5	31.4	5.4
		비알코올 음료점업	10	0.5	81.4	18.1	0.0	3.9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35	4.0	46.3	41.6	8.1	4.5
	비프랜차이즈		135	0.7	33.8	51.8	13.7	5.0
지역	서울권		30	3.3	37.5	28.6	30.6	5.3
	수도권		10	0.0	68.4	9.6	22.0	4.8
	충청권		22	4.0	53.3	42.6	0.0	4.2
	호남권		32	0.2	57.9	30.8	11.1	4.6
	경남권		64	0.0	20.0	68.9	11.1	5.2
	경북권		12	0.0	2.3	97.7	0.0	5.2
매 출 액	5천만 원 미만		4	0.0	43.8	56.2	0.0	4.6
	5천만 원~1억 원 미만		22	3.9	61.9	27.3	6.8	4.2
	1억 원~5억 원 미만		116	0.9	30.3	54.3	14.5	5.1
	5억 원 이상		28	0.0	35.1	50.7	14.2	5.1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리모델링 경과 년수는 평균 4.5년으로 나타남. 리모델링 경과 년수별 비중은 3~4년이 46.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6년(41.6%), 7년 이상(8.1%), 2년 이하(4.0%)의 순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리모델링 경과 년수는 평균 4.6년이며, 세부 업종별로 서양식(5.0년), 한식(4.6년), 중식(4.5년), 일식(4.4년)의 순으로 경과 년수가 긴 것으로 파악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리모델링 경과 년수는 평균 3.6년이며, 세부 업종별로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7.0년), 치킨 전문점(4.7년),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과 주점업(각 3.8년), 제과점(3.5년) 등의 순임.
- 지역별로는 서울권(5.5년),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1억 원 미만(5.4년) 업체의 리모델링 경과 년수가 긴 것으로 조사됨.

〈표 2-33-2〉 사업장 특성별 리모델링 경과년수(프랜차이즈)

(Base: 리모델링을 한 업체, 단위: 개소, %, 년)

구분			사례수	2년 이하	3~4년	5~6년	7년 이상	평균
전체			35	4.0	46.3	41.6	8.1	4.5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20	5.8	30.7	61.0	2.5	4.6
		한식	18	6.2	29.5	61.6	2.7	4.6
		중식	2	0.0	49.0	51.0	0.0	4.5
		일식	15	0.6	75.6	5.2	18.6	4.4
		서양식	3	0.0	0.9	99.1	0.0	5.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4	0.0	99.0	1.0	0.0	3.6
		제과점	2	0.0	100.0	0.0	0.0	3.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	0.0	0.0	0.0	100.0	7.0
		치킨 전문점	3	0.0	76.6	0.0	23.4	4.7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	5.0	95.0	0.0	0.0	3.8
		주점업	9	17.5	68.0	14.6	0.0	3.8
지역	서울권		3	0.0	49.5	1.0	49.5	5.5
	수도권		4	0.0	56.8	43.2	0.0	4.0
	호남권		2	7.9	92.1	0.0	0.0	2.8
	경남권		17	0.0	33.2	57.8	9.0	4.9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2	0.0	53.8	0.0	46.2	5.4
	1억 원~5억 원 미만		22	5.7	48.8	40.6	5.0	4.3
	5억 원 이상		11	0.0	36.6	56.4	7.1	4.9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리모델링 경과 년수는 평균 5.0년으로 나타남. 리모델링 경과 년수별 비중은 5~6년이 51.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4년(33.8%), 7년 이상(13.7%), 2년 이하(0.7%)의 순으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리모델링 경과 년수는 평균 5.1년이며, 세부 업종별로 한식(5.1년), 서양식(5.0년), 중식(4.9년), 기타 외국식(4.3년), 일식(4.2년)의 순으로 경과 년수가 긴 것으로 파악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리모델링 경과 년수는 평균 4.9년이며, 세부 업종별로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7.0년), 주점업(5.5년), 제과점(5.4년), 기관 구내식당업(5.0년) 등의 순임.
- 지역별로는 서울권(5.6년),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 원~5억 원 미만과 5억 원 이상(각 5.2년) 업체의 리모델링 경과 년수가 긴 것으로 조사됨.

〈표 2-33-3〉 사업장 특성별 리모델링 경과년수(비프랜차이즈)

(Base: 리모델링을 한 업체, 단위: 개소, %, 년)

구분			사례수	2년 이하	3~4년	5~6년	7년 이상	평균	
전체			135	0.7	33.8	51.8	13.7	5.0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08	0.0	32.9	56.0	11.1	5.1	
		한식	82	0.0	34.0	53.0	13.0	5.1	
		중식	18	0.0	25.0	75.0	0.0	4.9	
		일식	3	0.0	57.0	43.0	0.0	4.2	
		서양식	2	0.0	0.0	100.0	0.0	5.0	
		기타 외국식	3	0.0	33.3	66.7	0.0	4.3	
	일반 음식점 외	소계	27	2.5	36.4	40.4	20.7	4.9	
		기타 음식점업	기관 구내식당업	1	0.0	0.0	100.0	0.0	5.0
			제과점	5	0.0	6.6	80.3	13.1	5.4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4	27.8	72.2	0.0	0.0	3.2
			간이 음식 포장판매 전문점	1	0.0	0.0	0.0	100.0	7.0
			주점업	8	0.0	17.3	49.9	32.8	5.5
		비알코올 음료점업	8	0.0	79.7	20.3	0.0	3.9	
지역	서울권	21	0.0	30.3	31.9	37.8	5.6		
	수도권	7	0.0	74.8	12.6	12.6	4.6		
	충청권	18	4.7	52.7	42.5	0.0	4.2		
	호남권	30	0.0	57.1	31.5	11.3	4.6		
	경남권	47	0.0	15.5	72.7	11.8	5.3		
	경북권	12	0.0	2.3	97.7	0.0	5.2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0.0	43.8	56.2	0.0	4.6		
	5천만 원~1억 원 미만	20	4.3	62.6	29.5	3.7	4.1		
	1억 원~5억 원 미만	94	0.0	26.8	56.9	16.3	5.2		
	5억 원 이상	17	0.0	34.0	46.5	19.5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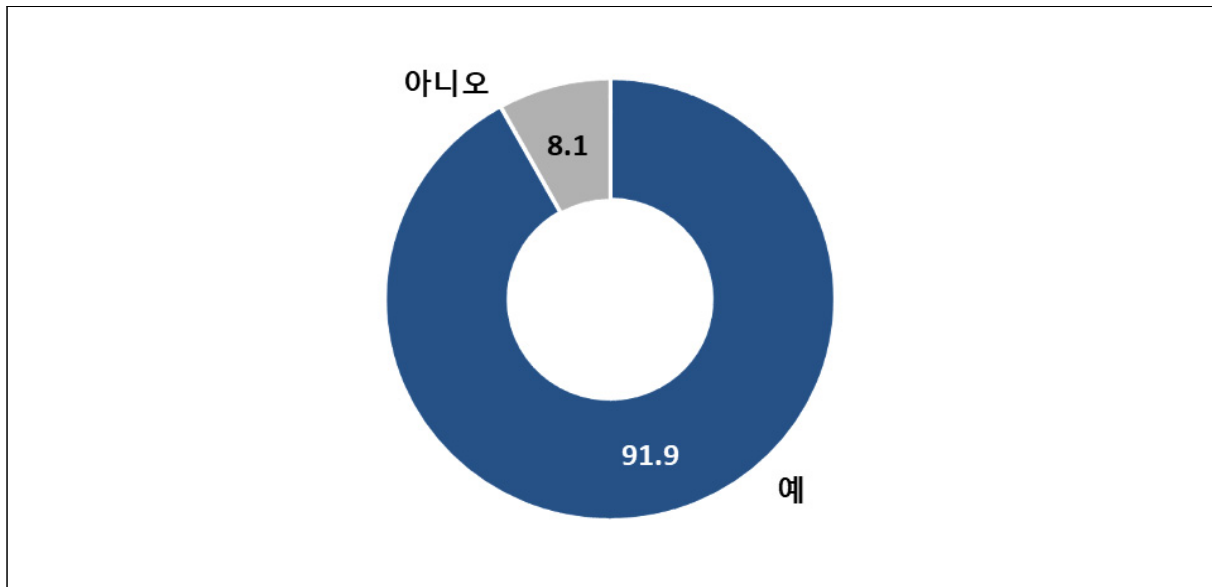
26) 포스단말기 사용

(1) 포스단말기 사용 여부

- 전체 외식업체 중 91.9%는 포스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포스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 비중은 8.1% 수준에 그치고 있음.

〈그림 2-34〉 포스단말기 사용 여부 분포

(단위: %)



- 일반음식점의 포스단말기 사용 비중은 92.4%이고, 포스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 비중은 7.6%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는 기타 외국식(100.0%)의 경우 포스단말기를 사용하는 업체 비중이 비교적 높고, 한식(91.8%)의 경우 포스단말기를 사용하는 업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포스단말기 사용 비중은 91.4%이고, 포스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 비중은 8.6%임.
 - 세부 업종별로는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98.9%), 치킨 전문점(98.1%), 비알코올 음료점업(96.2%)의 포스단말기 사용 비중이 높은 데 비해, 출장·이동음식점업(68.8%)의 포스단말기 사용 비중이 비교적 낮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94.4%) 업체들의 포스단말기 사용 비중이 높고, 서울권(91.0%)의 포스단말기 사용 업체 비중이 가장 낮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매출액이 많을수록 포스단말기 사용 비중이 높음. 5억 원 이상 업체는 96.1%가 포스단말기를 사용하는 반면, 5천만 원 미만 업체의 포스단말기 사용 비중은 59.4%로 나타남.

〈표 2-34-1〉 사업장 특성별 포스단말기 사용 여부(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138	91.9	8.1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92.4	7.6	
		한식	1,091	91.8	8.2	
		중식	158	93.0	7.0	
		일식	117	94.2	5.8	
		서양식	118	98.1	1.9	
		기타 외국식	72	100.0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91.4	8.6	
		기관 구내식당업	78	75.7	24.3	
		출장·이동음식점업	78	68.8	31.2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92.4	7.6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98.9	1.1
			치킨 전문점	172	98.1	1.9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87.3	12.7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94.8	5.2
		주점업	318	84.2	15.8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96.2	3.8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98.0	2.0	
	비프랜차이즈		2,114	89.7	10.3	
지역	서울권		491	91.0	9.0	
	수도권		595	94.4	5.6	
	충청권		581	91.2	8.8	
	호남권		467	91.2	8.8	
	경남권		611	92.0	8.0	
	경북권		393	91.2	8.8	
매 출 액	5천만 원 미만		92	59.4	40.6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81.0	19.0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95.7	4.3	
	5억 원 이상		446	96.1	3.9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포스단말기 사용 업체 비중은 98.0%로 전체 외식업체(91.9%)보다 높음.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포스단말기 사용 비중은 99.5%로 세부 업종별로는 한식(99.5%)과 서양식(97.5%)을 제외한 중식과 일식, 기타 외국식(각 100.0%)은 전부 포스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들의 포스단말기 사용 비중은 97.2%로 세부 업종별로는 출장·이동음식점업과 치킨 전문점(각 100.0%)은 전부 포스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호남권과 경북권(각 100.0%)의 포스단말기 사용 비중이 높음.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100.0%) 업체의 포스단말기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음.

〈표 2-34-2〉 사업장 특성별 포스단말기 사용 여부(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1,024	98.0	2.0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99.5	0.5	
		한식	197	99.7	0.3	
		중식	23	100.0	0.0	
		일식	29	100.0	0.0	
		서양식	46	97.5	2.5	
		기타 외국식	36	100.0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97.2	2.8
	기관 구내식당업		21	76.4	23.6	
	출장·이동음식점업		5	100.0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97.3	2.7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98.7	1.3
			치킨 전문점	127	100.0	0.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95.0	5.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95.2	4.8
	주점업		69	94.6	5.4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98.2	1.8	
	지역		서울권		166	90.5
		수도권		233	98.2	1.8
충청권		165	99.7	0.3		
호남권		118	100.0	0.0		
경남권		258	99.5	0.5		
경북권		84	100.0	0.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100.0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90.1	9.9	
	1억 원~5억 원 미만		721	98.7	1.3	
	5억 원 이상		230	98.5	1.5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포스단말기 사용 업체 비중은 89.7%로 프랜차이즈(98.0%)의 포스단말기 사용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은 90.9%로 나타남. 세부 업종별로는 기타 외국식(100.0%)은 전부 포스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식(90.2%)의 포스단말기 사용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들의 포스단말기 사용 비중은 88.1%로 나타남. 세부 업종별로는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99.8%)의 포스단말기 사용 비중이 높았고, 출장·이동음식점업(65.5%)의 포스단말기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수도권(92.6%),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 원~5억 원 미만(94.4%) 업체의 포스단말기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음.

〈표 2-34-3〉 사업장 특성별 포스단말기 사용 여부(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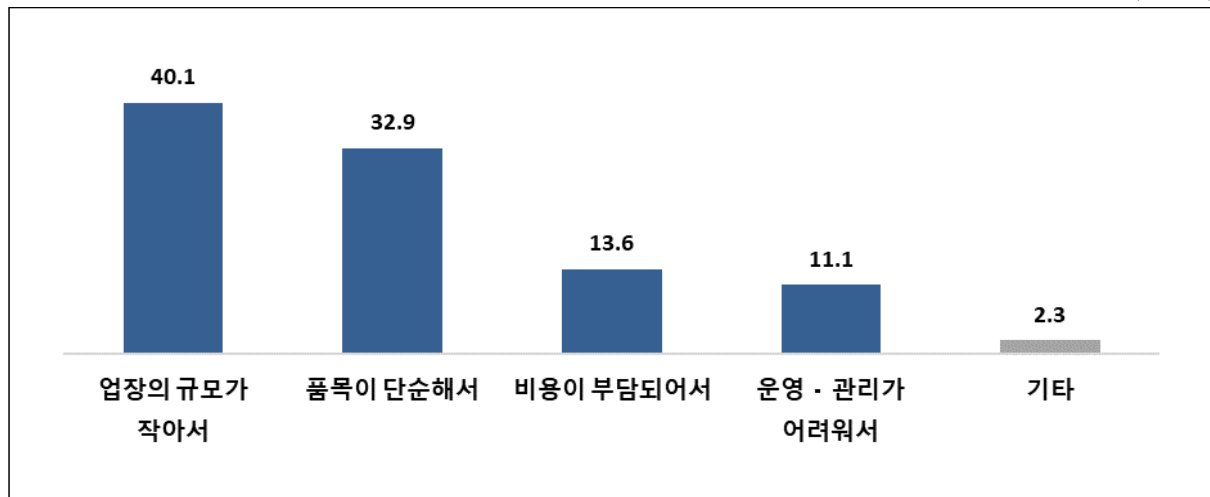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2,114	89.7	10.3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90.9	9.1	
		한식	894	90.2	9.8	
		중식	135	92.1	7.9	
		일식	88	92.8	7.2	
		서양식	72	98.5	1.5	
		기타 외국식	36	100.0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88.1	11.9
	기관 구내식당업		57	75.4	24.6	
	기타 음식점업		출장·이동음식점업	73	65.5	34.5
			제과점	84	89.0	11.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99.8	0.2
			치킨 전문점	45	93.5	6.5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82.2	17.8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94.4	5.6	
	주점업		249	82.3	17.7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95.3	4.7	
	지역		서울권		325	91.1
		수도권		362	92.6	7.4
충청권		416	88.4	11.6		
호남권		349	89.0	11.0		
경남권		353	87.6	12.4		
경북권		309	89.5	10.5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58.0	42.0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79.7	20.3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94.4	5.6	
	5억 원 이상		216	94.1	5.9	

(2) 포스단말기 미사용 이유

- 외식업체에서 포스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업장의 규모가 작아서’가 40.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품목이 단순해서(32.9%)’, ‘비용이 부담되어서(13.6%)’, ‘운영·관리가 어려워서(1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35〉 포스단말기 미사용 이유

(단위: %)



- 일반음식점의 경우 포스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업장의 규모가 작아서’가 38.5%의 비중으로 가장 높음.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경우 ‘업장의 규모가 작아서’가 41.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포스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충청권(64.4%), 경남권(55.2%)과 수도권(50.7%)은 업장의 규모가 작은 이유가 가장 높은 데 비해 경북권(50.3%), 서울권(49.1%)과 호남권(35.0%)은 품목이 단순한 이유가 가장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5천만 원 미만(47.0%)과 5천만 원~1억 원 미만(42.7%), 1억 원~5억 원 미만(36.1%) 업체는 업장의 규모가 작은 이유가 가장 높고, 5억 원 이상(49.8%) 업체는 품목이 단순한 이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2-35-1〉 사업장 특성별 포스단말기 미사용 이유(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비용이 부담되어서	운영·관리가 어려워서	업장의 규모가 작아서	품목이 단순해서	기타	
전체			237	13.6	11.1	40.1	32.9	2.3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98	16.5	15.0	38.5	27.6	2.4	
		한식	83	16.9	14.5	39.5	28.5	0.6	
		중식	9	0.0	31.5	52.3	16.2	0.0	
		일식	4	16.3	0.0	0.0	36.5	47.2	
		서양식	2	100.0	0.0	0.0	0.0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39	11.0	7.5	41.5	37.8	2.2	
		기관 구내식당업	19	6.1	0.0	10.4	56.9	26.6	
		출장·이동음식점업	27	10.1	28.1	0.0	53.1	8.8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	42.9	0.0	28.5	28.6	0.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	0.0	0.0	100.0	0.0	0.0
			치킨 전문점	3	0.0	0.0	65.7	34.3	0.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4	12.8	14.2	57.5	15.5	0.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4	0.0	48.7	26.9	24.4	0.0
		주점업	36	7.0	7.4	37.7	47.9	0.0	
	비알코올 음료점업	16	15.3	3.2	54.6	26.8	0.0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9	16.0	11.3	18.4	48.7	5.6	
	비프랜차이즈		218	13.5	11.1	41.6	31.8	2.0	
지역	서울권		43	6.4	35.2	9.3	49.1	0.0	
	수도권		39	23.0	6.6	50.7	18.3	1.4	
	충청권		43	15.2	5.9	64.4	12.5	2.0	
	호남권		42	26.1	6.2	25.6	35.0	7.0	
	경남권		41	2.1	7.7	55.2	35.0	0.0	
	경북권		29	11.2	3.8	31.6	50.3	3.2	
매 출 액	5천만 원 미만		37	8.5	11.3	47.0	33.2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72	9.5	7.4	42.7	39.4	1.0	
	1억 원~5억 원 미만		109	19.9	15.0	36.1	24.6	4.3	
	5억 원 이상		19	17.7	7.6	18.2	49.8	6.7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포스단말기 미사용 이유는 '품목이 단순해서'가 48.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업장의 규모가 작아서(18.4%)', '비용이 부담되어서(1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식업체의 경우 '운영·관리가 어려워서'가 53.8%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서울권(59.2%), 경남권(44.5%) 매출액별로는 5천만 원~1억 원 미만(85.5%), 1억 원~5억 원 미만(30.8%)의 경우 '품목이 단순해서' 포스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표 2-35-2〉 사업장 특성별 포스단말기 미사용 이유(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비용이 부담되어서	운영·관리가 어려워서	업장의 규모가 작아서	품목이 단순해서	기타
전체			19	16.0	11.3	18.4	48.7	5.6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2	46.2	53.8	0.0	0.0	0.0
		한식	1	0.0	100.0	0.0	0.0	0.0
		서양식	1	100.0	0.0	0.0	0.0	0.0
	일반 음식점 외 기타 음식점업	소계	17	13.5	7.7	19.9	52.8	6.1
		기관 구내식당업	5	0.0	0.0	18.2	44.5	37.3
		제과점	1	100.0	0.0	0.0	0.0	0.0
		치킨 전문점	1	0.0	0.0	100.0	0.0	0.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4	24.7	33.3	0.0	41.9	0.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2	0.0	0.0	44.0	56.0	0.0
		주점업	2	0.0	0.0	31.6	68.4	0.0
		비알코올 음료점업	2	0.0	0.0	0.0	100.0	0.0
지역	서울권		11	17.6	10.0	13.1	59.2	0.0
	수도권		5	0.0	21.1	45.7	19.3	13.8
	호남권		1	0.0	0.0	0.0	0.0	100.0
	경남권		2	55.5	0.0	0.0	44.5	0.0
매 출 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6	0.0	0.0	7.1	85.5	7.4
	1억 원~5억 원 미만		11	24.5	22.2	17.0	30.8	5.4
	5억 원 이상		2	33.8	0.0	66.2	0.0	0.0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포스단말기 미사용 이유를 살펴보면, '업장의 규모가 작아서'가 41.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품목이 단순해서(31.8%)', '비용이 부담되어서(13.5%)', '운영·관리가 어려워져서(1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경우 '업장의 규모가 작아서'가 3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경우 '업장의 규모가 작아서'가 44.3%로 가장 높음.
- 지역별로는 충청권(65.0%), 경남권(56.4%), 수도권(51.2%), 매출액별로는 5천만 원 미만(47.0%), 5천만 원~1억 원 미만(45.2%)의 경우 업장의 규모가 작아서 포스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5-3〉 사업장 특성별 포스단말기 미사용 이유(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비용이 부담되어서	운영·관리가 어려워져서	업장의 규모가 작아서	품목이 단순해서	기타
전체			218	13.5	11.1	41.6	31.8	2.0
업종	일반음식점	소계	96	16.2	14.6	38.9	27.9	2.4
		한식	82	17.0	14.0	39.8	28.7	0.6
		중식	9	0.0	31.5	52.3	16.2	0.0
		일식	4	16.3	0.0	0.0	36.5	47.2
		서양식	1	100.0	0.0	0.0	0.0	0.0
	일반음식점 외	소계	122	10.7	7.4	44.3	35.9	1.7
		기관 구내식당업	14	7.9	0.0	7.9	60.8	23.3
		출장·이동음식점업	27	10.1	28.1	0.0	53.1	8.8
		제과점	7	33.4	0.0	33.2	33.4	0.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	0.0	0.0	100.0	0.0	0.0
		치킨 전문점	3	0.0	0.0	65.7	34.3	0.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	10.7	10.7	68.0	10.7	0.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2	0.0	86.3	13.7	0.0	0.0
		주점업	34	7.4	7.8	38.0	46.8	0.0
		비알코올 음료점업	14	17.9	3.8	64.0	14.3	0.0
지역	서울권		32	2.2	44.5	7.9	45.3	0.0
	수도권		34	25.6	5.0	51.2	18.2	0.0
	충청권		42	15.3	5.9	65.0	12.7	1.1
	호남권		42	26.1	6.2	25.6	35.0	7.0
	경남권		39	0.9	7.8	56.4	34.8	0.0
	경북권		29	11.2	3.8	31.6	50.3	3.2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37	8.5	11.3	47.0	33.2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66	10.1	8.0	45.2	36.2	0.5
	1억 원~5억 원 미만		98	19.5	14.3	37.9	24.0	4.2
	5억 원 이상		17	14.3	9.2	8.0	60.4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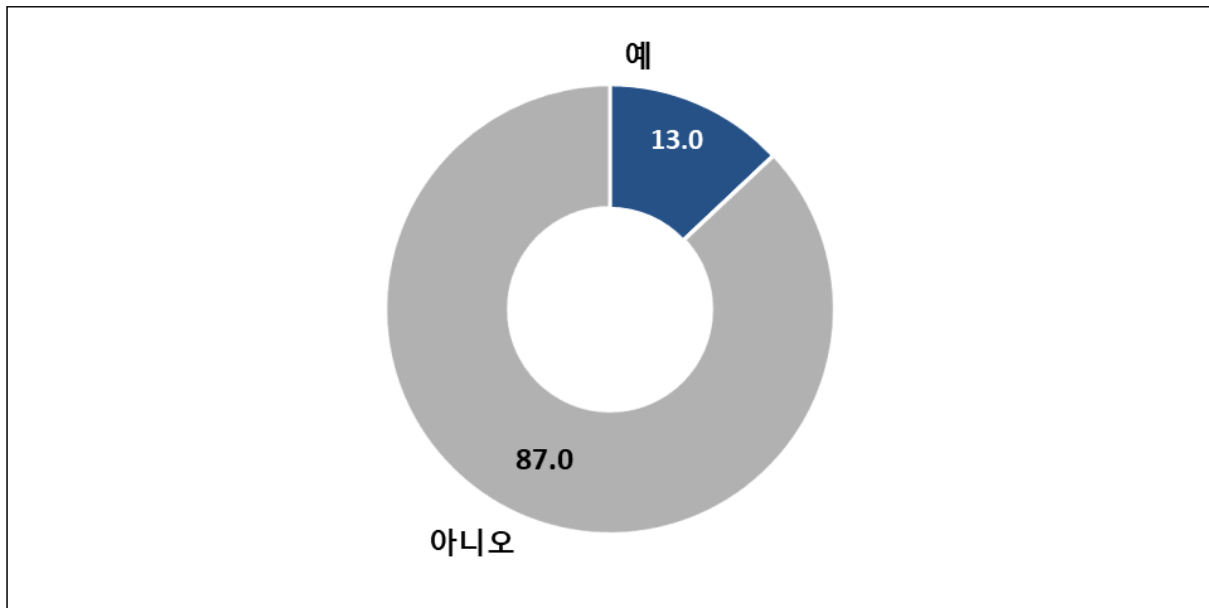
27) 무인 주문기 사용

(1) 무인 주문기 사용 여부

- 전체 외식업체 중 13.0%가 무인 주문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6〉 무인 주문기 사용 여부 분포

(단위: %)



- 일반음식점의 무인 주문기 사용 비중은 9.7%로 파악됨.
 - 세부 업종별로는 기타 외국식(29.8%)과 서양식(18.1%)의 무인 주문기 사용 비중이 비교적 높음.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무인 주문기 사용 비중은 16.4%로 파악됨.
 - 세부 업종별로는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38.1%)의 무인 주문기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경북권(22.3%)의 외식업체가 무인 주문기 사용 비중이 비교적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매출액이 많을수록 무인 주문기 사용 비중이 높으며, 5억 원 이상 업체의 20.6%가 무인 주문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6-1〉 사업장 특성별 무인 주문기 사용 여부(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138	13.0	87.0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9.7	90.3	
		한식	1,091	8.5	91.5	
		중식	158	9.0	91.0	
		일식	117	16.4	83.6	
		서양식	118	18.1	81.9	
		기타 외국식	72	29.8	70.2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16.4	83.6	
		기관 구내식당업	78	13.2	86.8	
		출장·이동음식점업	78	11.0	89.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5.6	94.4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38.1	61.9
			치킨 전문점	172	8.1	91.9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16.0	84.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24.3	75.7
		주점업	318	3.1	96.9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27.9	72.1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30.2	69.8	
	비프랜차이즈		2,114	6.7	93.3	
지역	서울권		491	11.6	88.4	
	수도권		595	16.6	83.4	
	충청권		581	5.9	94.1	
	호남권		467	13.8	86.2	
	경남권		611	10.7	89.3	
	경북권		393	22.3	77.7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0.0	10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6.6	93.4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14.3	85.7	
	5억 원 이상		446	20.6	79.4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무인 주문기 사용 비중은 30.2%로 전체 외식업체(13.0%)보다 높음.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무인 주문기 사용 비중은 23.9%이며, 세부 업종별로는 기타 외국식(50.2%)의 무인 주문기 사용 비중이 비교적 높음.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무인 주문기 사용 비중은 33.4%로 나타남. 세부 업종별로는 비알코올 음료점업(63.5%)의 무인 주문기 사용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경북권(42.3%)의 무인 주문기 사용 비중이 높으며,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26.8%) 업체의 무인 주문기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2-36-2〉 사업장 특성별 무인 주문기 사용 여부(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1,024	30.2	69.8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23.9	76.1	
		한식	197	21.1	78.9	
		중식	23	25.6	74.4	
		일식	29	31.9	68.1	
		서양식	46	30.0	70.0	
		기타 외국식	36	50.2	49.8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33.4	66.6
	기관 구내식당업		21	26.8	73.2	
	출장·이동음식점업		5	0.0	10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6.5	93.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41.4	58.6
			치킨 전문점	127	8.1	91.9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32.8	67.2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38.6	61.4
	주점업		69	14.3	85.7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63.5	36.5	
	지역		서울권		166	33.2
		수도권		233	38.5	61.5
충청권		165	14.1	85.9		
호남권		118	42.0	58.0		
경남권		258	23.1	76.9		
경북권		84	42.3	57.7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0.0	10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25.3	74.7	
	1억 원~5억 원 미만		721	30.3	69.7	
	5억 원 이상		230	33.2	66.8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무인 주문기 사용 비중은 6.7%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무인 주문기 사용 비중은 6.6%이며, 세부 업종별로는 일식(12.6%)의 무인 주문기 사용 비중이 비교적 높음.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무인 주문기 사용 비중은 6.9%로 나타남. 세부 업종별로는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21.9%)의 무인 주문기 사용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경북권(18.5%),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 업체(10.0%)의 무인 주문기 사용 비중이 높은 편임.

〈표 2-36-3〉 사업장 특성별 무인 주문기 사용 여부(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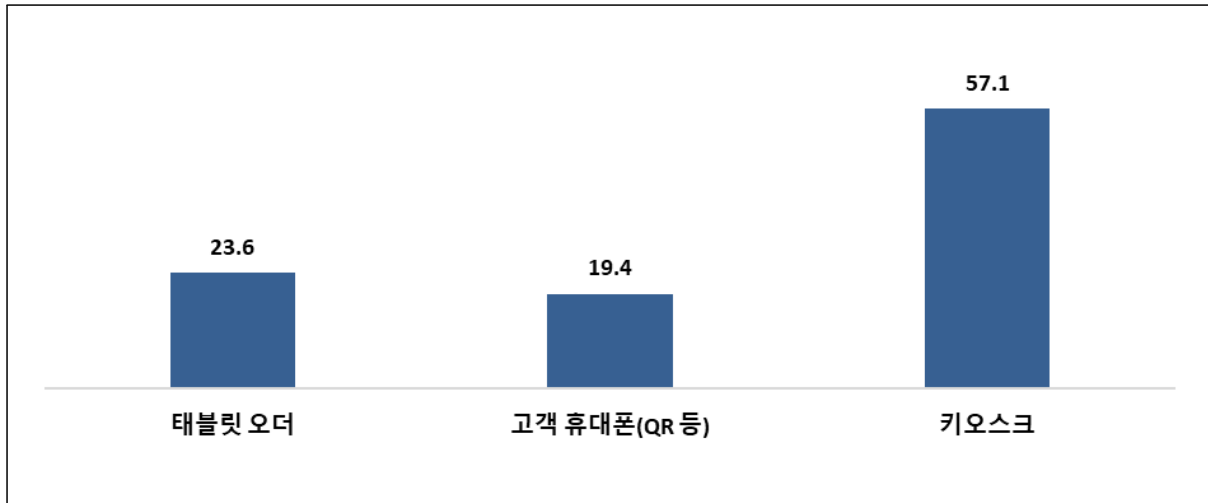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2,114	6.7	93.3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6.6	93.4
		한식	894	5.9	94.1
		중식	135	6.7	93.3
		일식	88	12.6	87.4
		서양식	72	11.9	88.1
		기타 외국식	36	12.2	87.8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6.9	93.1
		기관 구내식당업	57	8.8	91.2
		출장·이동음식점업	73	12.1	87.9
		제과점	84	5.0	95.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21.9	78.1
		기타 음식점업	45	7.9	92.1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5.0	95.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11.5	88.5
		주점업	249	1.1	98.9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12.4	87.6
지역	서울권		325	4.2	95.8
	수도권		362	6.4	93.6
	충청권		416	3.2	96.8
	호남권		349	6.8	93.2
	경남권		353	3.4	96.6
	경북권		309	18.5	81.5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0.0	10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3.9	96.1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7.7	92.3
	5억 원 이상		216	10.0	90.0

(2) 사용 중인 무인 주문기

- 무인 주문기를 사용 중인 외식업체 중 57.1%는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23.6%는 태블릿 오더, 19.4%는 고객 휴대폰(QR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7〉 사용 중인 무인 주문기

(단위: %)



- 일반음식점 외식업체의 키오스크 사용 비중은 27.7%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는 기타 외국식(68.0%), 서양식(39.0%)의 키오스크 사용 비중이 비교적 높음.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키오스크 사용 비중은 75.0%로 일반음식점 외식업체보다 높게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는 기관 구내식당업과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각 100.0%)의 키오스크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권(81.4%)의 외식업체가 키오스크 사용 비중이 비교적 높고, 경북권(73.9%)의 경우 고객 휴대폰(QR 등) 사용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1억 원 미만(63.3%) 업체의 키오스크 사용 비중이 비교적 높음.

〈표 2-37-1〉 사업장 특성별 사용 중인 무인 주문기(전체)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태블릿 오더	고객 휴대폰(QR 등)	키오스크
전체			498	23.6	19.4	57.1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79	45.8	26.4	27.7
		한식	94	46.2	29.1	24.6
		중식	17	38.0	31.6	30.4
		일식	23	66.6	14.7	18.7
		서양식	21	37.2	23.9	39.0
		기타 외국식	24	27.2	4.8	68.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319	10.0	15.0	75.0
		기관 구내식당업	9	0.0	0.0	100.0
		출장·이동음식점업	10	0.0	88.0	12.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4	46.2	53.8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65	16.1	79.4
			치킨전문점	22	9.0	42.2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42	22.6	69.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20	0.0	100.0
		주점업	24	78.0	7.8	14.3
		비알코올 음료점업	113	3.9	14.4	81.7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336	20.4	8.8	70.8
	비프랜차이즈		162	28.6	35.9	35.5
지역	서울권		73	16.4	2.2	81.4
	수도권		130	35.2	4.2	60.6
	충청권		41	29.0	8.1	63.0
	호남권		77	18.7	3.3	78.1
	경남권		86	38.2	0.1	61.7
	경북권		91	7.8	73.9	18.3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	-	-	-
	5천만 원~1억 원 미만		30	17.1	19.6	63.3
	1억 원~5억 원 미만		346	22.2	21.5	56.2
	5억 원 이상		122	35.6	5.9	58.5

- 사용 중인 무인 주문기 가운데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키오스크 사용 비중은 70.8%로, 전체 외식업체 (57.1%)보다 높음.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은 태블릿 오더 사용 비중이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는 키오스크 사용 비중이 8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권(87.2%)의 경우 키오스크 사용이 비교적 높고,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1억 원 미만 (75.0%) 업체의 경우 키오스크 사용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37-2〉 사업장 특성별 사용 중인 무인 주문기(프랜차이즈)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태블릿 오더	고객 휴대폰(QR 등)	키오스크
전체			336	20.4	8.8	70.8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87	51.7	15.6	32.7
		한식	41	51.0	16.6	32.3
		중식	7	85.1	14.9	0.0
		일식	9	79.7	0.0	20.3
		서양식	12	38.9	31.0	30.2
		기타 외국식	18	26.9	0.0	73.1
	일반 음식점 외	소계	249	8.7	6.3	85.0
		기관 구내식당업	4	0.0	0.0	100.0
		제과점	10	0.0	28.6	71.4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60	5.2	10.1	84.6
		치킨전문점	18	39.4	1.0	59.6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37	10.2	9.6	80.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14	0.0	0.0	100.0
		주점업	17	79.8	0.0	20.2
		비알코올 음료점업	89	1.4	5.0	93.6
	지역	서울권	57	9.8	3.0	87.2
		수도권	100	29.5	4.2	66.3
		충청권	28	15.2	5.9	78.9
		호남권	52	12.6	3.1	84.3
		경남권	67	29.5	0.1	70.4
		경북권	32	11.1	56.5	32.5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	-	-	-
	5천만 원~1억 원 미만		16	6.2	18.9	75.0
	1억 원~5억 원 미만		230	19.7	8.2	72.0
	5억 원 이상		90	29.3	7.6	63.1

- 사용 중인 무인 주문기 가운데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키오스크 사용 비중은 35.5%로 파악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은 태블릿 오더 사용 비중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는 키오스크 사용 비중이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호남권(68.8%)의 경우 키오스크 사용이 비교적 높고,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53.9%)업체의 경우 태블릿 PC 사용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2-37-3〉 사업장 특성별 사용 중인 무인 주문기(비프랜차이즈)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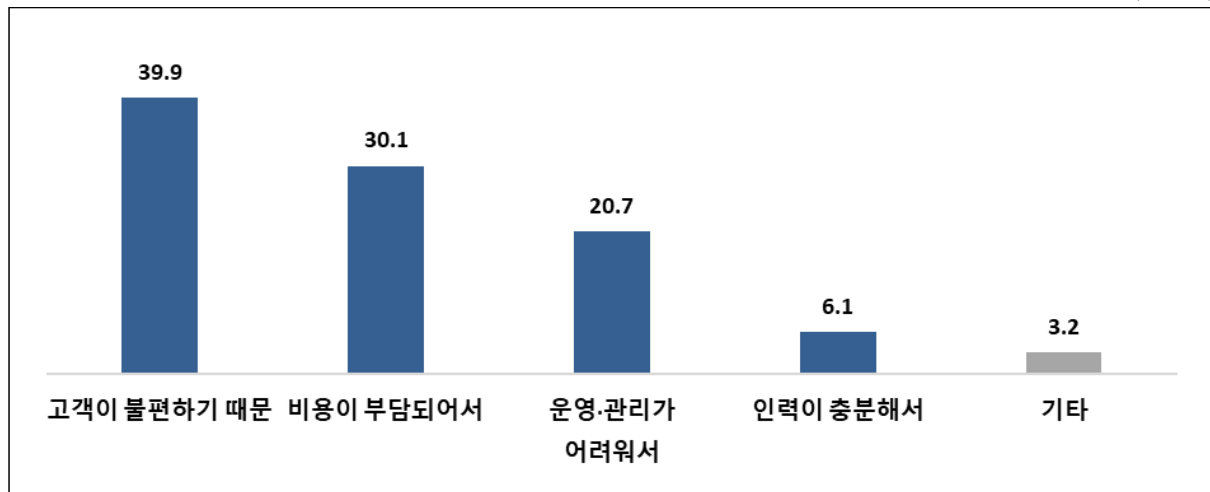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태블릿 오더	고객 휴대폰(QR 등)	키오스크
전체			162	28.6	35.9	35.5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92	41.3	34.9	23.9
		한식	53	42.8	38.0	19.2
		중식	10	13.3	40.4	46.4
		일식	14	59.0	23.2	17.8
		서양식	9	34.4	12.8	52.7
		기타 외국식	6	28.1	21.7	50.2
	일반 음식점 외	소계	70	13.3	37.1	49.6
		기관 구내식당업	5	0.0	0.0	100.0
		출장 이동음식점업	10	0.0	88.0	12.0
		제과점	4	0.0	63.5	36.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	0.0	54.4	45.6
		치킨전문점	4	71.9	28.1	0.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5	0.0	78.3	21.7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6	0.0	0.0	100.0
		주점업	7	73.8	25.0	1.2
		비알코올 음료점업	24	9.1	33.8	57.1
지역	서울권		16	34.5	0.0	65.5
	수도권		30	51.5	4.0	44.5
	충청권		13	49.3	11.2	39.5
	호남권		25	27.6	3.6	68.8
	경남권		19	73.7	0.0	26.3
	경북권		59	6.4	81.2	12.4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	-	-	-
	5천만 원~1억 원 미만		14	27.7	20.3	51.9
	1억 원~5억 원 미만		116	26.0	41.6	32.4
	5억 원 이상		32	53.9	1.1	45.0

(3) 무인 주문기 미사용 이유

- 외식업체에서 무인 주문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고객이 불편하기 때문’이 39.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용이 부담되어서(30.1%)’, ‘운영·관리가 어려워(20.7%)’, ‘인력이 충분해서(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38〉 무인 주문기 미사용 이유

(단위: %)



- 일반음식점의 경우 ‘고객이 불편하기 때문’이 38.6%로 비교적 높음.
 - 세부 업종별로는 기타 외국식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고객이 불편하기 때문’이(각 37.9%, 44.4%, 38.1%, 45.5%) 미사용 이유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에서도 ‘고객이 불편하기 때문’이 4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는 제과점,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주점업(각 35.2%, 57.0%, 48.5%, 40.4%, 47.5%)의 경우 ‘고객이 불편하기 때문’에 무인 주문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지역별로는 서울권(38.2%)과 수도권(43.5%), 충청권(53.9%), 경북권(28.5%)의 경우 ‘고객이 불편하기 때문’에, 호남권(35.9%)과 경남권(39.8%)은 ‘비용이 부담되어서’ 무인 주문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는 모든 ‘규모에서 고객이 불편하기 때문’이 가장 높게 파악됨.

〈표 2-38-1〉 사업장 특성별 무인 주문기 미사용 이유(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고객이 불편하기 때문	비용이 부담되어서	운영·관리가 어려워서	인력이 충분해서	기타	
전체			2,640	39.9	30.1	20.7	6.1	3.2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377	38.6	31.4	21.1	6.2	2.7	
		한식	997	37.9	31.7	22.0	6.1	2.3	
		중식	141	44.4	29.2	20.6	4.1	1.7	
		일식	94	38.1	29.6	15.1	10.8	6.5	
		서양식	97	45.5	30.9	9.7	5.6	8.3	
		기타 외국식	48	30.3	33.6	22.3	6.7	7.1	
		소계	1,263	41.4	28.7	20.3	6.0	3.7	
	일반 음식점 외	기관 구내식당업	69	14.0	11.4	26.6	20.7	27.3	
		출장·이동음식점업	68	18.6	25.8	43.1	7.7	4.8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52	35.2	31.4	24.4	4.9	4.1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78	57.0	20.5	12.3	6.1	4.1
			치킨 전문점	150	48.5	24.1	17.9	6.0	3.4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61	40.4	34.2	20.5	1.9	3.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52	25.2	41.2	17.0	11.4	5.2
		주점업	294	47.5	20.7	23.6	5.5	2.7	
		비알코올 음료점업	239	35.2	38.8	17.2	6.5	2.4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688	42.1	31.3	17.6	5.8	3.2	
	비프랜차이즈		1,952	39.3	29.8	21.5	6.2	3.2	
지역	서울권		418	38.2	26.7	24.5	10.0	0.6	
	수도권		465	43.5	29.4	18.1	5.5	3.5	
	충청권		540	53.9	22.7	15.5	3.3	4.7	
	호남권		390	29.4	35.9	16.9	11.6	6.2	
	경남권		525	39.4	39.8	15.0	4.4	1.3	
	경북권		302	28.5	22.8	45.1	1.1	2.5	
매 출 액	5천만 원 미만		92	29.3	25.1	24.9	14.1	6.6	
	5천만 원~1억 원 미만		382	37.9	33.6	19.9	5.1	3.5	
	1억 원~5억 원 미만		1,842	40.7	30.3	20.8	5.5	2.6	
	5억 원 이상		324	43.1	23.2	18.8	8.8	6.1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서 무인 주문기 미사용 이유를 살펴보면, 42.1%가 ‘고객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다음으로 ‘비용이 부담되어서(31.3%)’, ‘운영·관리가 어려워서(17.6%)’, ‘인력이 충분해서(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에서는 ‘비용이 부담되어서(37.2%)’의 비중이 비교적 높고, 세부 업종별로는 서양식(48.6%), 일식(48.2%), 중식(44.7%)은 ‘고객이 불편하기 때문’에 무인 주문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에서도 ‘고객이 불편하기 때문(48.6%)’의 비중이 비교적 높음.
- 지역별로는 호남권, 경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고객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표 2-38-2〉 사업장 특성별 무인 주문기 미사용 이유(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고객이 불편하기 때문	비용이 부담되어서	운영·관리가 어려워서	인력이 충분해서	기타	
전체			688	42.1	31.3	17.6	5.8	3.2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244	31.0	37.2	22.7	6.3	2.8	
		한식	156	27.6	39.5	25.3	6.1	1.5	
		중식	16	44.7	21.3	21.3	12.6	0.0	
		일식	20	48.2	32.9	11.1	0.0	7.8	
		서양식	34	48.6	26.9	4.5	8.0	12.0	
		기타 외국식	18	21.9	37.8	20.0	8.1	12.1	
	일반 음식점 외	소계	444	48.6	27.9	14.6	5.6	3.4	
		기관 구내식당업	17	0.5	0.0	8.2	46.5	44.8	
		출장·이동음식점업	5	0.0	0.0	100.0	0.0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72	48.3	29.8	14.6	4.3	3.1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62	54.9	23.9	10.5	7.8	3.0
			치킨 전문점	109	49.3	25.1	14.2	7.5	3.8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55	49.3	34.2	12.2	1.8	2.5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21	7.7	67.7	14.5	0.0	10.1
		주점업	52	61.1	25.5	11.0	2.4	0.0	
	비알코올 음료점업	51	44.1	28.0	25.4	2.5	0.0		
지역	서울권		109	37.6	34.3	16.8	10.4	0.8	
	수도권		133	42.0	26.9	20.2	6.5	4.4	
	충청권		137	63.8	19.3	10.8	0.7	5.5	
	호남권		66	19.7	43.4	17.6	16.7	2.6	
	경남권		191	35.6	39.7	18.2	3.7	2.7	
	경북권		52	48.3	18.1	31.2	2.4	0.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0.0	71.3	28.7	0.0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53	37.8	37.0	18.4	5.5	1.3	
	1억 원~5억 원 미만		491	42.1	32.1	17.0	5.5	3.3	
	5억 원 이상		140	46.9	21.0	20.1	8.2	3.8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서 무인 주문기 미사용 이유로는 39.3%가 ‘고객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다음으로 ‘비용이 부담되어서(29.8%)’, ‘운영·관리가 어려워서(21.5%)’, ‘인력이 충분해서(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에서는 ‘고객이 불편하기 때문(40.0%)’에 미사용 비중이 비교적 높고, 모든 업종에서 고객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가장 높음.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에서도 고객이 불편하기 때문에(38.5%)의 비중이 비교적 높음.
- 지역별로는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 매출액 규모별로는 모든 규모에서 고객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표 2-38-3〉 사업장 특성별 무인 주문기 미사용 이유(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고객이 불편하기 때문	비용이 부담되어서	운영·관리가 어려워서	인력이 충분해서	기타	
전체			1,952	39.3	29.8	21.5	6.2	3.2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133	40.0	30.4	20.8	6.2	2.7	
		한식	841	39.6	30.4	21.4	6.2	2.4	
		중식	125	44.4	30.0	20.5	3.2	1.9	
		일식	74	36.1	29.0	15.9	12.8	6.2	
		서양식	63	44.2	32.6	11.8	4.6	6.8	
		기타 외국식	30	34.4	31.6	23.4	6.0	4.7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19	38.5	29.0	22.6	6.1	3.8
	기관 구내식당업		52	17.5	14.4	31.5	14.0	22.7	
	출장·이동음식점업		63	20.8	28.9	36.3	8.6	5.4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0	26.3	32.5	31.1	5.3	4.8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6	64.7	8.2	18.8	0.0	8.2
			치킨 전문점	41	46.7	21.8	26.5	2.6	2.4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06	36.3	34.3	24.3	2.0	3.2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1	36.1	24.7	18.6	18.4	2.1	
	주점업		242	45.5	19.9	25.5	6.0	3.1	
	비알코올 음료점업	188	33.6	40.7	15.7	7.2	2.8		
지역	서울권		309	38.3	24.8	26.3	10.0	0.5	
	수도권		332	44.0	30.2	17.4	5.1	3.2	
	충청권		403	51.0	23.7	16.9	4.0	4.4	
	호남권		324	30.9	34.8	16.8	10.8	6.7	
	경남권		334	41.2	39.8	13.5	4.8	0.7	
	경북권		250	25.8	23.4	47.0	0.9	2.9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30.4	23.4	24.8	14.6	6.8	
	5천만 원~1억 원 미만		329	37.9	33.2	20.0	5.1	3.7	
	1억 원~5억 원 미만		1,351	40.3	29.7	22.0	5.5	2.4	
	5억 원 이상		184	40.7	24.6	18.0	9.1	7.6	

28) 로봇 이용 현황

(1) 로봇 이용 현황

- 조사대상 외식업체 중 로봇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8개소이고, 사용 대수는 서빙 로봇 평균 1.5대, 조리 로봇 평균 1.1대로 분석됨.
- 서빙 로봇과 조리 로봇은 렌탈하여 사용하며, 평균 비용은 서빙 로봇 318,397원, 조리 로봇 1,404,516원으로 나타남.

〈표 2-39-1〉 사업장 특성별 로봇 이용 현황(전체)

(Base: 로봇 도입 업체, 단위: 개소, 대, 원/월)

구분			사례수	서빙로봇			조리로봇		기타로봇		
				대수	렌탈비	구입비	대수	렌탈비	대수	렌탈비	
전체			8	1.5	318,397.2	-	1.1	1,404,516.1	-	-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7	1.7	361,837.9	-	2.0	400,000.0	-	-
		한식		3	1.7	359,271.8	-	-	-	-	-
		서양식		3	1.0	475,000.0	-	2.0	400,000.0	-	-
		기타 외국식		1	2.0	250,000.0	-	-	-	-	-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	1.0	150,000.0	-	1.0	1,500,000.0	-	-
		기타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1	1.0	150,000.0	-	1.0	1,500,000.0	-	-
지역	서울권		2	1.0	152,393.6	-	1.0	1,500,000.0	-	-	
	수도권		2	1.0	475,000.0	-	-	-	-	-	
	호남권		1	-	-	-	2.0	400,000.0	-	-	
	경남권		3	1.7	356,711.9	-	-	-	-	-	
매출액	1억 원~5억 원 미만		2	1.7	360,026.3	-	-	-	-	-	
	5억 원 이상		6	1.1	206,809.0	-	1.1	1,404,516.1	-	-	

- 로봇 원산지를 살펴보면, 서빙 로봇은 국산 비중이 77.5%, 외국산은 20.5%이며, 조리 로봇은 국산 비중이 8.7%, 외국산은 91.3%로 조사됨(<표 2-40-1> 참조). 로봇 이용 사유로는 인건비 절감이 50.0%, 구인난 대응이 50.0%로 나타남(<표 2-41-1> 참조).

〈표 2-40-1〉 사업장 특성별 로봇 이용 원산지(전체)

(Base: 로봇 도입 업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서빙로봇			조리로봇	
					국산	외국산	모름	국산	외국산
전체				8	77.5	20.5	1.9	8.7	91.3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7	97.5	0.0	2.5	100.0	0.0
		한식		3	100.0	0.0	0.0	0.0	0.0
		서양식		3	50.0	0.0	50.0	100.0	0.0
		기타 외국식		1	100.0	0.0	0.0	0.0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	0.0	100.0	0.0	0.0	100.0
		기타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1	0.0	100.0	0.0	0.0	100.0
지역	서울권			6	2.4	97.6	0.0	0.0	100.0
	수도권			2	50.0	0.0	50.0	0.0	0.0
	호남권			2	0.0	0.0	0.0	100.0	0.0
	경남권			2	100.0	0.0	0.0	0.0	0.0
매출액	1억 원~5억 원 미만			1	100.0	0.0	0.0	0.0	0.0
	5억 원 이상			3	17.4	75.5	7.2	8.7	91.3

〈표 2-41-1〉 사업장 특성별 로봇 이용 사유(전체)

(Base: 로봇 도입 업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인건비 절감	구인난 대응
전체				8	50.0	50.0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7	37.4	62.6
		한식		3	30.5	69.5
		서양식		3	100.0	0.0
		기타 외국식		1	100.0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	100.0	0.0
		기타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1	100.0	0.0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6	100.0	0.0
	비프랜차이즈			2	30.0	70.0
지역	서울권			2	100.0	0.0
	수도권			2	100.0	0.0
	호남권			1	100.0	0.0
	경남권			3	32.1	67.9
매출액	1억 원~5억 원 미만			2	30.0	70.0
	5억 원 이상			6	100.0	0.0

- 로봇 도입 이후 변화는 직원 수 감축 등으로 인건비 절감이 26.7%, 고객 수 증가가 20.1%, 영향 없음이 73.3%로 파악됨(〈표 2-42-1〉 참조). 로봇 이용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렌탈/구매 비용이 76.6%, 고장 및 유지보수 관리가 21.4%로 나타남(〈표 2-43-1〉 참조).

〈표 2-42-1〉 사업장 특성별 로봇 도입 이후 변화(전체)

(Base: 로봇 도입 업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직원 수 감축 등으로 인건비 절감	고객 수 증가	영향 없음
전체			8	26.7	20.1	73.3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7	8.2	0.0	91.8
		한식	3	0.7	0.0	99.3
		서양식	3	66.7	0.0	33.3
		기타 외국식	1	100.0	0.0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	100.0	100.0	0.0
		기타 음식점 외 치킨 전문점	1	100.0	100.0	0.0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6	93.3	70.4	6.7
	비프랜차이즈		2	0.0	0.0	100.0
지역	서울권		2	100.0	97.6	0.0
	수도권		2	50.0	0.0	50.0
	호남권		1	100.0	0.0	0.0
	경남권		3	3.0	0.0	97.0
매출 액	1억 원~5억 원 미만		2	0.0	0.0	100.0
	5억 원 이상		6	93.3	70.4	6.7

〈표 2-43-1〉 사업장 특성별 로봇 이용 애로사항(전체)

(Base: 로봇 도입 업체,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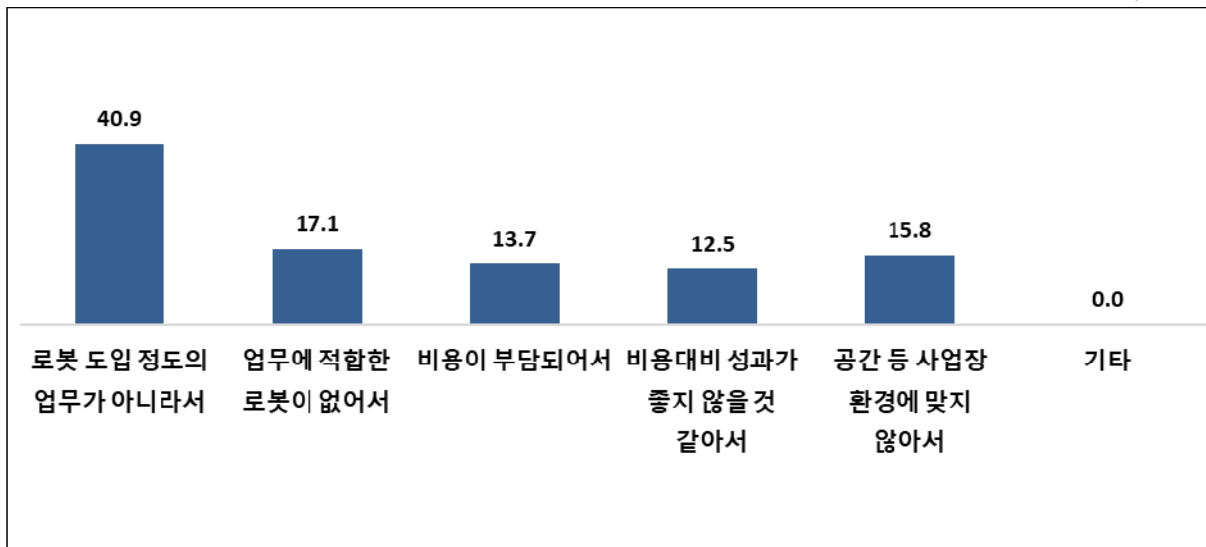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높은 렌탈/구매 비용	고장 및 유지보수 관리	기타
전체			8	76.6	21.4	1.9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7	70.8	26.8	2.4
		한식	3	70.2	29.8	0.0
		서양식	3	66.7	0.0	33.3
		기타 외국식	1	100.0	0.0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	100.0	0.0	0.0
		기타 음식점 외 치킨 전문점	1	100.0	0.0	0.0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6	93.3	0.0	6.7
	비프랜차이즈		2	70.0	30.0	0.0
지역	서울권		2	100.0	0.0	0.0
	수도권		2	100.0	0.0	0.0
	호남권		1	0.0	0.0	100.0
	경남권		3	70.9	29.1	0.0
매출 액	1억 원~5억 원 미만		2	70.0	30.0	0.0
	5억 원 이상		6	93.3	0.0	6.7

(2) 로봇 미도입 사유

- 외식업체에서 로봇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로봇 도입 정도의 업무가 아니라서’가 40.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업무에 적합한 로봇이 없어서(17.1%)’, ‘공간 등 사업장 환경에 맞지 않아서(15.8%)’, ‘비용이 부담되어서(13.7%)’, ‘비용 대비 성과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12.5%)’ 등임.

〈그림 2-39〉 로봇 미도입 사유

(단위: %)



- 일반음식점의 경우 ‘로봇 도입 정도의 업무가 아니라서’가 로봇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이 41.0%로 가장 높음.
 - 세부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이 로봇 도입 정도의 업무가 아니라서 로봇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나타남.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경우 로봇 도입 정도의 업무가 아니라서 로봇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40.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이 로봇 도입 정도의 업무가 아니라서 로봇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로봇 도입 정도의 업무가 아니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는 모든 규모에서 로봇 도입 정도의 업무가 아니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44-1〉 사업장 특성별 로봇 미도입 사유(전체)

(Base: 로봇 미도입 업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로봇 도입 정도의 업무가 아니라서	업무에 적합한 로봇이 없어서	비용이 부담되어서	비용 대비 성과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공간 등 사업장 환경에 맞지 않아서	기타
전체			3,130	40.9	17.1	13.7	12.5	15.8	0.0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49	41.0	18.3	14.5	11.6	14.4	0.0
		한식	1,088	42.9	18.5	14.8	10.6	13.3	0.0
		중식	158	29.5	18.6	13.6	16.2	21.6	0.5
		일식	117	32.1	17.3	14.1	15.4	21.1	0.0
		서양식	115	42.2	16.4	13.1	13.1	15.2	0.0
		기타 외국식	71	29.8	17.0	9.8	28.6	14.7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1	40.7	15.8	12.8	13.3	17.3	0.0
		기관 구내식당업	78	41.5	12.2	11.6	11.0	23.7	0.0
		출장·이동음식점업	78	52.0	7.8	7.2	15.3	17.7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48.5	11.3	11.9	12.5	0.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29.2	12.3	23.1	12.8	0.0
			치킨 전문점	171	34.6	17.8	13.5	16.4	0.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44.1	11.2	9.7	25.3	0.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34.2	25.2	12.2	18.7	0.0
		주점업	318	42.7	17.3	7.6	18.2	14.2	0.0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41.0	17.0	16.2	9.7	16.1	0.0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18	35.4	14.8	16.3	14.9	18.5	0.1
	비프랜차이즈		2,112	42.9	17.9	12.7	11.6	14.9	0.0
지역	서울권		489	34.6	21.4	10.2	12.1	21.7	0.0
	수도권		593	29.4	22.9	20.7	16.0	11.1	0.0
	충청권		581	27.4	20.5	16.4	15.6	20.2	0.0
	호남권		466	39.4	9.5	22.8	13.9	14.3	0.1
	경남권		608	65.9	13.6	0.7	8.9	10.9	0.0
	경북권		393	48.5	14.2	11.4	6.9	19.1	0.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55.8	5.3	11.2	8.4	19.2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49.5	18.3	12.8	5.8	13.5	0.0
	1억 원~5억 원 미만		2,186	39.0	17.1	13.8	14.0	16.1	0.0
	5억 원 이상		440	32.9	20.1	15.7	14.7	16.7	0.0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서 로봇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로봇 도입 정도의 의무가 아니라서’가 3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간 등 사업장 환경에 맞지 않아서(18.5%)’, ‘비용이 부담되어서(16.3%)’, ‘비용 대비 성과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14.9%)’, ‘업무에 적합한 로봇이 없어서(14.8%)’의 순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에서는 33.3%,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에서는 36.5%가 로봇 도입 정도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경남권에서는 54.7%, 매출액별로는 5천만 원~1억 원 미만 업체가 42.7%가 로봇 도입 정도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2-44-2〉 사업장 특성별 로봇 미도입 사유(프랜차이즈)

(Base: 로봇 미도입 업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로봇 도입 정도의 업무가 아니라서	업무에 적합한 로봇이 없어서	비용이 부담되어서	비용 대비 성과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공간 등 사업장 환경에 맞지 않아서	기타	
전체			1,018	35.4	14.8	16.3	14.9	18.5	0.1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26	33.3	18.4	15.4	19.2	13.4	0.2	
		한식	196	35.3	19.7	16.7	17.3	11.0	0.0	
		중식	23	20.6	7.6	7.7	35.9	24.4	3.8	
		일식	29	15.3	18.8	14.1	16.0	35.7	0.0	
		서양식	43	39.8	18.5	11.7	21.6	8.4	0.0	
		기타 외국식	35	26.5	7.5	12.0	31.9	22.0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2	36.5	13.0	16.7	12.7	21.1	0.0	
		기관 구내식당업	21	54.4	6.3	23.7	0.4	15.2	0.0	
		출장·이동음식점업	5	14.9	0.0	38.8	38.8	7.5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36.7	12.6	12.6	11.9	26.2	0.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25.4	10.9	27.0	13.6	23.2	0.0
			치킨 전문점	126	33.9	13.2	16.2	17.2	19.5	0.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38.5	11.6	15.6	7.0	27.2	0.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19.1	24.2	21.7	23.5	11.5	0.0
		주점업	69	34.5	19.4	6.8	19.1	20.3	0.0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45.7	11.3	15.5	8.8	18.7	0.0		
지역	서울권		164	26.5	18.1	19.3	8.8	27.3	0.0	
	수도권		231	23.6	16.3	27.5	18.7	13.9	0.0	
	충청권		165	23.2	20.0	18.2	19.2	19.4	0.0	
	호남권		117	40.0	3.6	21.9	20.6	13.5	0.6	
	경남권		257	54.7	15.4	1.7	11.2	17.0	0.0	
	경북권		84	38.2	8.9	15.8	10.1	26.9	0.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28.7	0.0	42.6	0.0	28.7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42.7	14.4	19.6	6.7	16.7	0.0	
	1억 원~5억 원 미만		721	35.6	14.6	15.6	14.9	19.1	0.1	
	5억 원 이상		224	30.2	16.7	17.3	20.0	15.7	0.0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서 로봇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로봇 도입 정도의 의무가 아니라서’가 42.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업무에 적합한 로봇이 없어서(17.9%)’, ‘공간 등 사업장 환경에 맞지 않아서(14.9%)’, ‘비용이 부담되어서(12.7%)’, ‘비용 대비 성과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11.6%)’의 순임.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에서는 42.7%,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에서는 43.1%가 로봇 도입 정도의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경남권에서 72.4%, 매출액별로는 5천만 원 미만 업체(56.7%)가 로봇 도입 정도의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44-3〉 사업장 특성별 로봇 미도입 사유(비프랜차이즈)

(Base: 로봇 미도입 업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로봇 도입 정도의 업무가 아니라서	업무에 적합한 로봇이 없어서	비용이 부담되어서	비용대비 성과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공간 등 사업장 환경에 맞지 않아서
전체			2,112	42.9	17.9	12.7	11.6	14.9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3	42.7	18.3	14.3	10.0	14.6
		한식	892	44.4	18.2	14.5	9.2	13.7
		중식	135	30.7	20.1	14.4	13.5	21.2
		일식	88	36.3	16.9	14.1	15.2	17.5
		서양식	72	43.5	15.3	13.8	8.6	18.8
		기타 외국식	36	32.7	25.1	8.0	25.8	8.5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43.1	17.4	10.6	13.7	15.2
		기관 구내식당업	57	37.3	14.1	7.6	14.5	26.5
		출장·이동음식점업	73	55.9	8.6	3.9	12.8	18.7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56.7	10.5	11.4	8.6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48.2	19.6	4.2	19.3
			치킨 전문점	45	36.2	28.5	7.1	13.7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47.7	10.9	5.8	24.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47.6	26.2	3.8	8.0
		주점업	249	44.2	17.0	7.7	18.0	13.1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38.9	19.5	16.5	10.1	14.9
지역	서울권		325	37.3	22.5	7.1	13.3	19.8
	수도권		362	32.1	25.9	17.5	14.7	9.8
	충청권		416	28.7	20.6	15.8	14.4	20.4
	호남권		349	39.2	10.9	23.1	12.2	14.5
	경남권		351	72.4	12.5	0.2	7.5	7.4
	경북권		309	50.5	15.2	10.5	6.2	17.6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56.7	5.5	10.1	8.7	18.9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50.5	18.9	11.9	5.7	13.0
	1억 원~5억 원 미만		1,465	40.4	18.1	13.1	13.6	14.9
	5억 원 이상		216	35.1	23.0	14.3	10.2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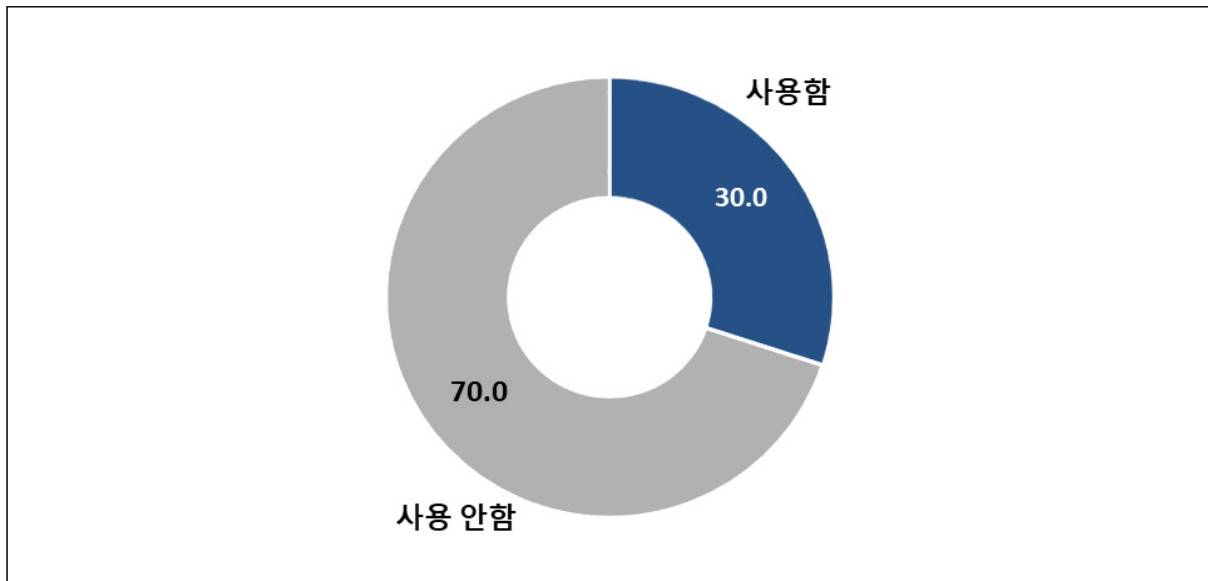
29) 배달앱 및 배달 대행 이용 현황

(1) 배달앱 이용 현황

- 전체 외식업체 중에서 30.0%가 배달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40〉 배달앱 이용 현황

(단위: %)



- 일반음식점 외식업체 중 24.6%가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는 중식(45.0%)의 배달앱 이용 비중이 높고, 한식(20.8%)은 비교적 낮음.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배달앱 이용 비중은 35.5%로 파악됨.
 - 세부 업종별로는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86.2%)과 치킨 전문점(74.5%)의 배달앱 이용 비중이 매우 높음.
- 지역별로는 경남권(38.9%)과 경북권(38.1%)의 배달앱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 업체의 배달앱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45-1〉 사업장 특성별 배달앱 이용 현황(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사용함	사용 안함	
전체			3,138	30.0	70.0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24.6	75.4	
		한식	1,091	20.8	79.2	
		중식	158	45.0	55.0	
		일식	117	36.0	64.0	
		서양식	118	38.3	61.7	
		기타 외국식	72	46.3	53.7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35.5	64.5	
		기관 구내식당업	78	1.5	98.5	
		출장·이동음식점업	78	6.2	93.8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43.8	56.2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86.2	13.8
			치킨 전문점	172	74.5	25.5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48.5	51.5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48.7	51.3
		주점업	318	7.2	92.8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31.2	68.8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61.9	38.1		
	비프랜차이즈	2,114	18.3	81.7		
지역	서울권	491	24.9	75.1		
	수도권	595	23.2	76.8		
	충청권	581	28.5	71.5		
	호남권	467	27.3	72.7		
	경남권	611	38.9	61.1		
	경북권	393	38.1	61.9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8.8	91.2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14.1	85.9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33.9	66.1		
	5억 원 이상	446	36.7	63.3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61.9%가 배달앱을 이용하며, 전체 외식업체(30.0%)에 비해 배달앱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경우 배달앱 이용 비중이 50.7%이며, 세부 업종별로는 중식(70.9%)의 배달앱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배달앱 이용 비중은 67.7%이며, 세부 업종별로는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89.1%)과 치킨 전문점(86.1%)의 배달앱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경북권(84.8%),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 원~5억 원 미만(65.1%) 업체의 배달앱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2-45-2〉 사업장 특성별 배달앱 이용 현황(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사용함	사용 안함	
전체			1,024	61.9	38.1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50.7	49.3	
		한식	197	46.7	53.3	
		중식	23	70.9	29.1	
		일식	29	55.2	44.8	
		서양식	46	65.9	34.1	
		기타 외국식	36	62.7	37.3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67.7	32.3
	기관 구내식당업		21	6.0	94.0	
	출장·이동음식점업		5	0.0	100.0	
			제과점	82	66.0	34.0
	기타 음식점업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89.1	10.9
			치킨 전문점	127	86.1	13.9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76.8	23.2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76.7	23.3
	주점업		69	16.1	83.9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62.2	37.8	
	지역		서울권		166	52.9
		수도권		233	48.8	51.2
충청권		165	67.4	32.6		
호남권		118	70.1	29.9		
경남권		258	64.1	35.9		
경북권		84	84.8	15.2		
매 출 액	5천만 원 미만		4	71.3	28.7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49.9	50.1	
	1억 원~5억 원 미만		721	65.1	34.9	
	5억 원 이상		230	50.3	49.7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18.3%만이 배달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경우 배달앱 이용 비중이 19.0%이며, 세부 업종별로는 중식(41.4%)의 배달앱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음.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배달앱 이용 비중은 17.4%이며, 세부 업종별로는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72.0%)의 배달앱 이용 비중이 높은 편임.
- 지역별로는 경북권(29.2%),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25.2%) 업체의 배달앱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45-3〉 사업장 특성별 배달앱 이용 현황(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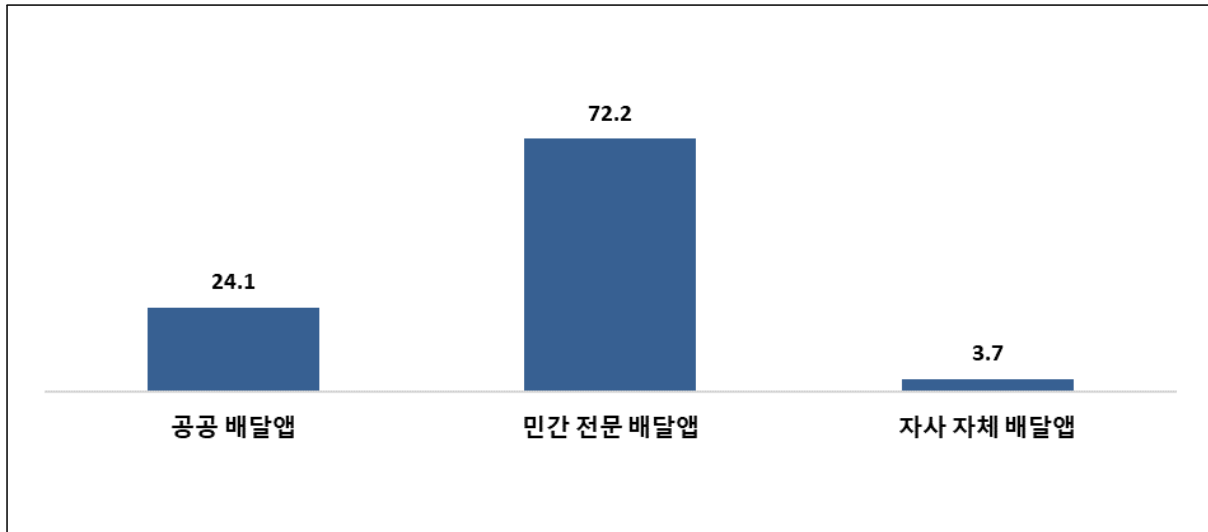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사용함	사용 안함
전체			2,114	18.3	81.7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19.0	81.0
		한식	894	15.5	84.5
		중식	135	41.4	58.6
		일식	88	31.2	68.8
		서양식	72	23.8	76.2
		기타 외국식	36	32.1	67.9
		소계	889	17.4	82.6
	일반 음식점 외	기관 구내식당업	57	0.0	100.0
		출장·이동음식점업	73	6.9	93.1
		제과점	84	28.5	71.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72.0	28.0
		치킨 전문점	45	47.7	52.3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30.0	70.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23.6	76.4
		주점업	249	5.6	94.4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17.8	82.2
	지역	서울권	325	15.3	84.7
수도권		362	11.2	88.8	
충청권		416	15.5	84.5	
호남권		349	16.7	83.3	
경남권		353	24.1	75.9	
경북권		309	29.2	70.8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6.6	93.4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9.0	91.0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21.2	78.8	
	5억 원 이상	216	25.2	74.8	

(2) 사용 중인 배달앱

- 전체 외식업체 중에서 72.2%가 민간 전문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으며, 공공 배달앱 24.1%, 자사 자체 배달앱 3.7%로 나타남.

〈그림 2-41〉 사용 중인 배달앱

(단위: %)



- 일반음식점 외식업체 중 75.2%가 민간 전문 배달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는 중식(84.7%)의 민간 전문 배달앱 이용 비중이 높고, 한식(72.5%)은 비교적 낮음.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민간 전문 배달앱 이용 비중은 70.1%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는 기관 구내식당업(50.0%)의 민간 전문 배달앱 이용 비중이 비교적 낮음.
- 지역별로는 충청권(90.9%)의 민간 전문 배달앱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100.0%) 업체의 민간 전문 배달앱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2-46-1〉 사업장 특성별 사용 중인 배달앱(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공공 배달앱	민간 전문 배달앱	자사 자체 배달앱	
전체			1,053	24.1	72.2	3.7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407	22.3	75.2	2.5	
		한식	213	24.6	72.5	2.9	
		중식	74	12.7	84.7	2.6	
		일식	44	18.3	79.8	1.8	
		서양식	44	19.5	80.4	0.2	
		기타 외국식	32	30.4	69.6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46	25.4	70.1	4.5	
		기관 구내식당업	1	50.0	50.0	0.0	
		출장·이동음식점업	7	37.0	63.0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31.3	64.9	3.8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5	28.9	63.8	7.3
			치킨 전문점	130	25.0	65.6	9.4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08	27.9	69.8	2.4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34.5	65.5	0.0
		주점업	30	28.1	71.9	0.0	
	비알코올 음료점업	128	17.3	81.8	0.9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625	26.1	69.5	4.4	
	비프랜차이즈		428	21.3	75.9	2.7	
지역	서울권		149	10.6	84.9	4.5	
	수도권		164	27.6	65.4	7.0	
	충청권		179	8.5	90.9	0.6	
	호남권		144	22.9	66.7	10.5	
	경남권		257	27.1	72.1	0.8	
	경북권		160	46.1	53.8	0.0	
매출 액	5천만 원 미만		10	0.0	100.0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75	23.3	72.9	3.7	
	1억 원~5억 원 미만		809	23.9	72.6	3.5	
	5억 원 이상		159	29.0	65.5	5.5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69.5%가 민간 전문 배달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중 69.6%가 민간 전문 배달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는 서양식(85.3%)의 민간 전문 배달앱 이용 비중이 높고, 기타 외국식(67.5%)은 비교적 낮음.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민간 전문 배달앱 이용 비중은 69.5%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는 비알코올 음료점업(80.8%), 주점업(77.3%)의 민간 전문 배달앱 이용 비중이 비교적 높음.
- 지역별로는 충청권(88.1%),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100.0%) 업체의 민간 전문 배달앱 이용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2-46-2〉 사업장 특성별 사용 중인 배달앱(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공공 배달앱	민간 전문 배달앱	자사 자체 배달앱
전체			625	26.1	69.5	4.4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3	28.2	69.6	2.2
		한식	75	29.3	67.8	3.0
		중식	16	29.0	71.0	0.0
		일식	15	32.1	67.9	0.0
		서양식	26	14.4	85.3	0.3
		기타 외국식	21	32.5	67.5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472	25.3	69.5	5.3
		기관 구내식당업	1	50.0	50.0	0.0
		제과점	55	25.6	69.3	5.2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11	30.3	62.4	7.4
		치킨 전문점	108	25.4	66.0	8.6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73	23.8	72.4	3.7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25	37.1	62.9	0.0
		주점업	11	22.7	77.3	0.0
		비알코올 음료점업	88	17.8	80.8	1.4
지역	서울권		89	13.1	84.1	2.7
	수도권		115	26.5	68.5	5.0
	충청권		111	11.9	88.1	0.0
	호남권		83	25.1	58.1	16.8
	경남권		161	31.0	67.7	1.2
	경북권		66	57.1	42.8	0.1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3	0.0	100.0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35	21.1	78.9	0.0
	1억 원~5억 원 미만		475	26.3	69.3	4.4
	5억 원 이상		112	28.5	64.9	6.6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75.9%가 민간 전문 배달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중 79.1%가 민간 전문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함.
 - 세부 업종별로는 중식(88.6%)의 민간 전문 배달앱 이용 비중이 높고, 서양식(74.0%)은 비교적 낮음.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민간 전문 배달앱 이용 비중은 71.6%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는 비알코올 음료점업(83.3%)의 민간 전문 배달앱 이용 비중이 비교적 높음.
- 지역별로는 충청권(95.2%),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100.0%) 업체의 민간 전문 배달앱 이용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2-46-3〉 사업장 특성별 사용 중인 배달앱(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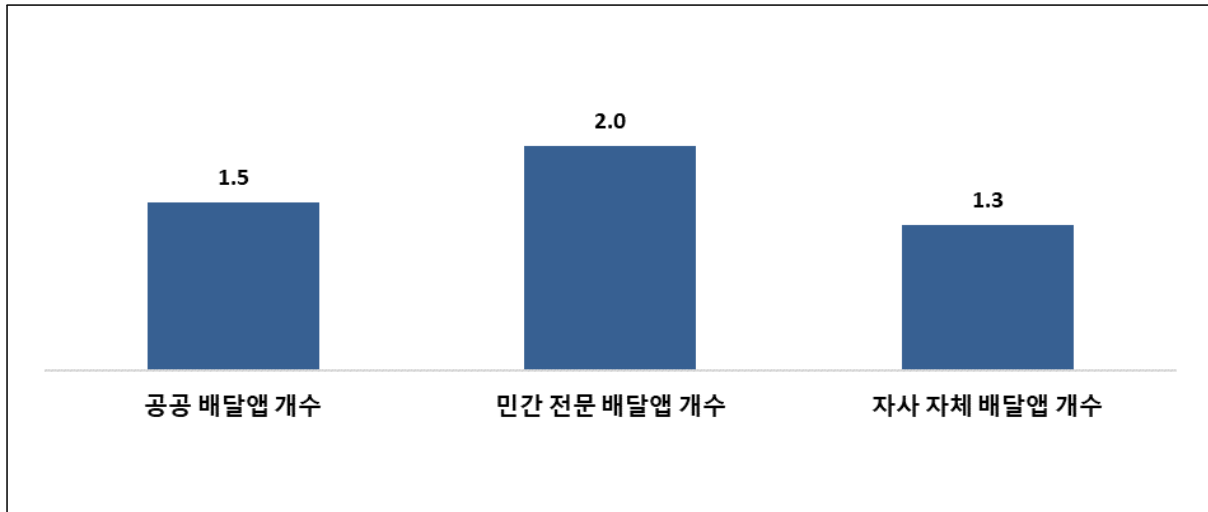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공공 배달앱	민간 전문 배달앱	자사 자체 배달앱	
전체			428	21.3	75.9	2.7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254	18.2	79.1	2.7	
		한식	138	21.2	76.0	2.8	
		중식	58	8.0	88.6	3.4	
		일식	29	10.6	86.6	2.9	
		서양식	18	26.0	74.0	0.0	
		기타 외국식	11	25.6	74.4	0.0	
		소계	174	25.7	71.6	2.8	
	일반 음식점 외	출장·이동음식점업	7	37.0	63.0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27	41.6	56.9	1.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	19.1	73.7	7.2
			치킨 전문점	22	23.3	64.0	12.7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35	34.9	65.1	0.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10	26.5	73.5	0.0
		주점업	19	30.6	69.4	0.0	
		비알코올 음료점업	40	16.7	83.3	0.0	
지역	서울권		60	7.5	85.8	6.7	
	수도권		49	29.8	59.3	10.9	
	충청권		68	3.2	95.2	1.6	
	호남권		61	19.6	79.0	1.4	
	경남권		96	20.2	79.8	0.0	
	경북권		94	40.2	59.8	0.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7	0.0	100.0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40	25.1	68.2	6.7	
	1억 원~5억 원 미만		334	20.4	77.4	2.2	
	5억 원 이상		47	29.9	66.4	3.7	

(3) 사용 중인 배달앱 개수

- 배달앱을 사용 중인 전체 외식업체의 배달앱 개수는 민간 전문 배달앱의 경우 평균 2.0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42〉 사용 중인 배달앱 개수

(단위: %)



- 일반음식점 외식업체는 평균 2.1개의 민간 전문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음.
 - 세부 업종별로는 중식과 일식이 각 1.9개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는 평균 1.9개의 민간 전문 배달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는 출장·이동음식점업(2.7개), 제과점과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각 2.2개) 등의 순으로 민간 전문 배달앱 이용 개수가 많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호남권과 경남권(2.3개),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과 1억 원~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각 2.0개) 업체의 배달앱 민간 전문 배달앱 이용개수가 많음.

〈표 2-47-1〉 사업장 특성별 사용 중인 배달앱 개수(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공공 배달앱	민간 전문 배달앱	자사 자체 배달앱
전체			1,053	1.5	2.0	1.3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407	1.5	2.1	1.5
		한식	213	1.5	2.1	1.7
		중식	74	1.7	1.9	1.0
		일식	44	1.7	1.9	1.0
		서양식	44	1.7	2.0	1.0
		기타 외국식	32	1.9	2.0	-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46	1.6	1.9	1.2
		기관 구내식당업	1	1.0	2.0	-
		출장·이동음식점업	7	2.0	2.7	-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1.3	1.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5	2.1	1.0
			치킨 전문점	130	1.8	1.3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08	2.2	1.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1.7	-
		주점업	30	2.0	1.7	-
		비알코올 음료점업	128	1.5	1.8	1.0
경영 형태	프랜차이즈		625	1.6	2.0	1.2
	비프랜차이즈		428	1.4	1.9	1.4
지역	서울권		149	2.2	2.0	1.3
	수도권		164	1.9	1.8	1.7
	충청권		179	1.5	1.5	1.0
	호남권		144	1.7	2.3	1.0
	경남권		257	1.6	2.3	1.0
	경북권		160	1.0	1.9	1.0
매출 액	5천만 원 미만		10	-	2.0	-
	5천만 원~1억 원 미만		75	1.6	1.9	1.2
	1억 원~5억 원 미만		809	1.5	2.0	1.3
	5억 원 이상		159	1.5	2.0	1.0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평균 2.0개의 민간 전문 배달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은 평균 2.2개의 민간 전문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음.
 - 세부 업종별로는 중식(2.4개)의 민간 전문 배달앱 이용개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민간 전문 배달앱 이용개수는 평균 2.0개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는 제과점(2.4개)의 민간 전문 배달앱 이용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음.
- 지역별로는 호남권(2.4개),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3.0개) 업체에서 민간 전문 배달앱 이용개수가 가장 많게 나타남.

〈표 2-47-2〉 사업장 특성별 사용 중인 배달앱 개수(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공공 배달앱	민간 전문 배달앱	자사 자체 배달앱
전체			625	1.6	2.0	1.2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3	1.6	2.2	1.5
		한식	75	1.6	2.3	1.5
		중식	16	1.4	2.4	-
		일식	15	1.9	1.5	-
		서양식	26	1.5	2.1	1.0
		기타 외국식	21	2.2	1.7	-
	일반 음식점 외	소계	472	1.6	2.0	1.1
		기관 구내식당업	1	1.0	2.0	-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55	2.4	1.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11	2.0	1.0
			치킨 전문점	108	1.8	1.3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73	2.3	1.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25	1.7	-
		주점업	11	1.0	1.7	-
		비알코올 음료점업	88	1.8	1.9	1.0
지역	서울권		89	2.5	2.0	1.0
	수도권		115	2.0	1.9	1.9
	충청권		111	1.5	1.5	-
	호남권		83	1.6	2.4	1.0
	경남권		161	1.7	2.3	1.0
	경북권		66	1.0	2.2	1.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3	-	3.0	-
	5천만 원~1억 원 미만		35	1.7	2.1	-
	1억 원~5억 원 미만		475	1.6	2.0	1.2
	5억 원 이상		112	1.6	2.2	1.0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평균 1.9개의 민간 전문 배달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은 평균 2.0개의 민간 전문 배달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는 기타 외국식(2.6개)의 민간 전문 배달앱 이용개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는 평균 1.8개의 민간 전문 배달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는 주점업(2.4개)의 공공 배달앱 이용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출장·이동음식점업(2.7개)의 민간 전문 배달앱 이용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음.
- 지역별로는 경남권(2.3개),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 원~5억 원 미만(1.9개) 업체의 배달앱 민간 전문 배달앱 이용 개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표 2-47-3〉 사업장 특성별 사용 중인 배달앱 개수(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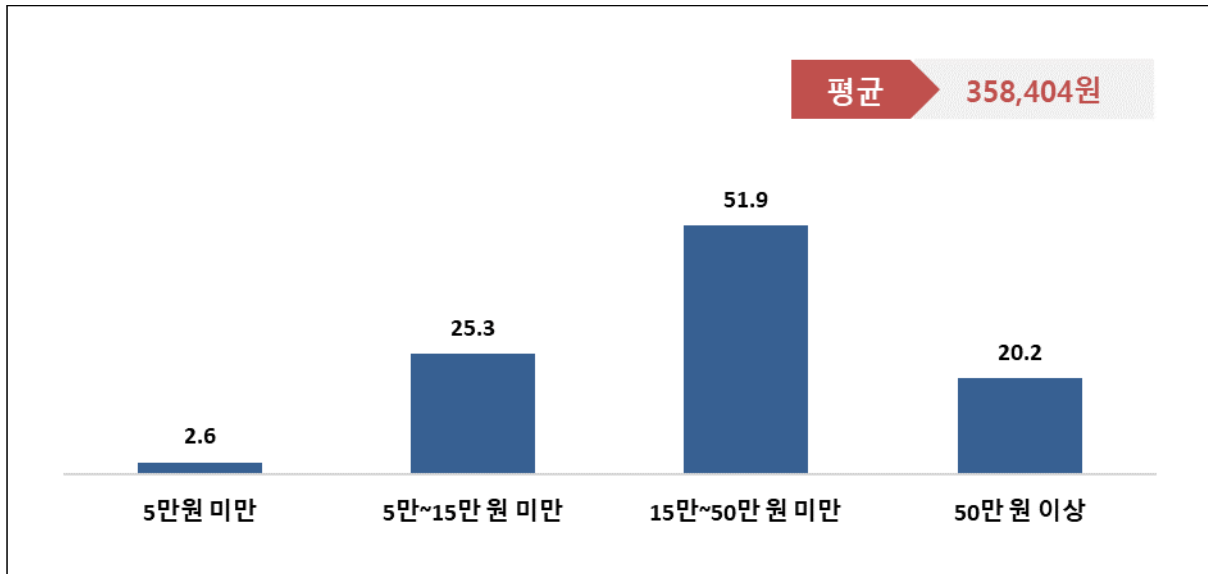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공공 배달앱	민간 전문 배달앱	자사 자체 배달앱
전체			428	1.4	1.9	1.4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254	1.4	2.0	1.5
		한식	138	1.3	2.0	1.7
		중식	58	1.9	1.8	1.0
		일식	29	1.5	2.0	1.0
		서양식	18	1.9	1.8	-
		기타 외국식	11	1.0	2.6	-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74	1.4	1.8	1.3
		출장·이동음식점업	7	2.0	2.7	-
		제과점	27	1.1	1.9	1.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	1.9	2.2	1.0
		치킨 전문점	22	1.3	1.5	1.5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35	1.3	2.0	-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10	1.5	2.0	-
		주점업	19	2.4	1.7	-
		비알코올 음료점업	40	1.0	1.6	-
지역	서울권		60	1.6	2.0	1.5
	수도권		49	1.8	1.6	1.6
	충청권		68	1.5	1.5	1.0
	호남권		61	1.8	2.1	1.0
	경남권		96	1.4	2.3	-
	경북권		94	1.0	1.8	-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7	-	1.7	-
	5천만 원~1억 원 미만		40	1.6	1.7	1.2
	1억 원~5억 원 미만		334	1.4	1.9	1.6
	5억 원 이상		47	1.3	1.8	1.0

(4) 월평균 배달앱 비용

- 배달앱을 사용하는 외식업체의 월평균 배달앱 비용은 약 358,404원 수준임. 월평균 배달앱 비용 분포별로는 15만 원~50만 원 미만(51.9%), 5만 원~15만 원 미만(25.3%), 50만 원 이상(20.2%), 5만 원 미만(2.6%) 등의 순임.

〈그림 2-43〉 월평균 배달앱 비용 분포

(Base: 배달앱 이용 업체, 단위: %)



- 일반음식점 외식업체의 월평균 배달앱 비용은 약 333,817원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는 중식(약 472,811원)의 월평균 배달앱 비용이 비교적 많음.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월평균 배달앱 비용은 약 376,129원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충청권(약 531,461원)의 월평균 배달앱 비용이 비교적 많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 업체의 월평균 배달앱 비용이 약 677,481원 수준으로 나타남.

〈표 2-48-1〉 사업장 특성별 월평균 배달앱 비용 분포(전체)

(Base: 배달앱 이용 업체, 단위: 개소, %, 원)

구분			사례수	5만 원 미만	5만 원~ 15만 원 미만	15만 원~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평균	
전체			1,053	2.6	25.3	51.9	20.2	358,403.8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407	1.4	29.2	49.4	19.9	333,817.1	
		한식	213	0.8	31.8	50.1	17.3	316,903.2	
		중식	74	0.0	15.7	48.7	35.5	472,811.0	
		일식	44	4.9	34.3	47.4	13.4	272,178.5	
		서양식	44	7.1	31.0	47.1	14.9	255,803.1	
		기타 외국식	32	0.0	17.9	48.6	33.5	379,572.7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46	3.4	22.4	53.8	20.5	376,129.4	
		기관 구내식당업	1	0.0	0.0	100.0	0.0	160,000.0	
		출장·이동음식점업	7	0.0	0.0	100.0	0.0	276,963.3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6.2	25.2	54.0	14.7	250,468.2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5	1.3	14.4	52.5	31.9	540,630.4
			치킨 전문점	130	1.0	13.9	46.7	38.4	555,376.2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08	5.4	18.8	65.9	9.9	259,535.9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3.1	18.8	54.7	23.4	349,297.8	
		주점업	30	0.0	8.3	64.7	27.0	553,461.2	
	비알코올 음료점업	128	5.2	38.1	50.5	6.1	214,963.3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625	1.2	19.5	54.6	24.7	427,870.5	
	비프랜차이즈		428	4.2	32.3	48.7	14.8	272,889.6	
지역	서울권		149	2.1	27.9	52.6	17.5	373,567.0	
	수도권		164	0.0	15.6	59.9	24.6	390,457.5	
	충청권		179	1.3	27.9	27.8	42.9	531,460.8	
	호남권		144	4.4	25.3	52.5	17.7	307,389.3	
	경남권		257	5.0	20.2	61.9	12.9	314,679.5	
	경북권		160	0.8	37.2	54.1	8.0	246,122.8	
매출 액	5천만 원 미만		10	50.6	49.4	0.0	0.0	61,359.6	
	5천만 원~1억 원 미만		75	10.2	33.5	51.6	4.7	194,201.9	
	1억 원~5억 원 미만		809	1.4	25.7	52.5	20.4	338,573.6	
	5억 원 이상		159	0.7	12.9	53.2	33.2	677,480.8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월평균 배달앱 비용은 평균 약 427,871원 수준으로 나타남. 비용 분포별로는 15만 원~50만 원 미만(54.6%), 50만 원 이상(24.7%), 5만 원~15만 원 미만(19.5%), 5만 원 미만(1.2%) 등의 순임.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월평균 배달앱 비용은 약 393,572원 수준으로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월평균 배달앱 비용(약 441,080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 지역별로는 충청권(약 656,385원)의 월평균 배달앱 비용이 비교적 많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 업체의 월평균 배달앱 비용이 약 854,760원 수준으로 나타남.

〈표 2-48-2〉 사업장 특성별 월평균 배달앱 비용 분포(프랜차이즈)

(Base: 배달앱 이용 업체, 단위: 개소, %, 원)

구분			사례수	5만 원 미만	5만 원~ 15만 원 미만	15만 원~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평균
전체			625	1.2	19.5	54.6	24.7	427,870.5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3	0.0	22.8	52.5	24.6	393,572.0
		한식	75	0.0	23.1	52.9	24.0	404,051.9
		중식	16	0.0	0.0	57.7	42.3	512,638.3
		일식	15	0.0	42.6	50.9	6.5	278,654.6
		서양식	26	0.0	33.8	49.7	16.5	284,333.5
		기타 외국식	21	0.0	4.8	47.7	47.6	447,771.7
		소계	472	1.6	18.3	55.4	24.7	441,080.0
	일반 음식점 외	기관 구내식당업	1	0.0	0.0	100.0	0.0	160,000.0
		제과점	55	4.0	22.4	55.8	17.8	275,629.1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11	0.0	15.6	52.7	31.7	561,797.1
		치킨 전문점	108	0.0	11.4	45.6	42.9	613,346.5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73	4.3	14.6	68.8	12.2	278,016.6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25	4.1	21.4	46.9	27.6	355,587.8
		주점업	11	0.0	0.0	69.8	30.2	1,005,986.5
		비알코올 음료점업	88	2.2	30.1	59.1	8.6	263,537.2
지역	서울권		89	0.9	27.5	48.7	22.8	473,952.2
	수도권		115	0.0	15.1	59.0	25.9	419,737.0
	충청권		111	0.0	21.2	22.9	55.9	656,384.6
	호남권		83	4.1	20.4	56.6	18.8	326,626.7
	경남권		161	1.8	18.8	66.8	12.6	345,315.9
	경북권		66	0.0	15.0	76.0	8.9	334,862.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3	59.8	40.2	0.0	0.0	40,721.5
	5천만 원~1억 원 미만		35	1.8	28.4	66.4	3.5	221,422.7
	1억 원~5억 원 미만		475	0.8	20.3	54.5	24.5	386,360.1
	5억 원 이상		112	1.1	8.4	51.6	38.9	854,760.4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월평균 배달앱 비용은 평균 약 272,890원 수준으로 나타남. 비용 분포별로는 15만 원~50만 원 미만(48.7%), 5만 원~15만 원 미만(32.3%), 50만 원 이상(14.8%), 5만 원 미만(4.2%) 등의 순임.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월평균 배달앱 비용은 약 299,288원 수준으로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월평균 배달앱 비용(약 234,531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 지역별로는 충청권(약 350,564원)의 월평균 배달앱 비용이 비교적 많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 업체의 월평균 배달앱 비용이 약 377,209원 수준으로 나타남.

〈표 2-48-3〉 사업장 특성별 월평균 배달앱 비용 분포(비프랜차이즈)

(Base: 배달앱 이용 업체, 단위: 개소,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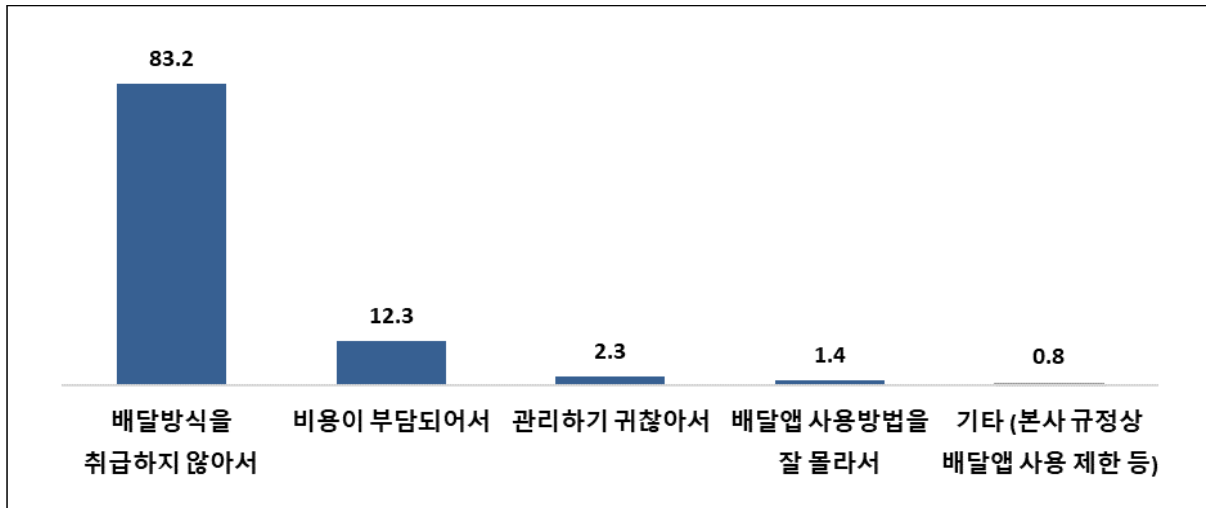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5만 원 미만	5만 원~ 15만 원 미만	15만 원~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평균	
전체			428	4.2	32.3	48.7	14.8	272,889.6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254	2.2	32.9	47.6	17.2	299,288.2	
		한식	138	1.3	37.1	48.3	13.2	264,157.7	
		중식	58	0.0	19.4	46.6	34.0	463,460.2	
		일식	29	7.0	30.7	45.9	16.4	269,317.3	
		서양식	18	17.3	26.8	43.3	12.6	214,475.7	
		기타 외국식	11	0.0	40.2	50.2	9.6	264,156.4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74	7.2	31.3	50.2	11.2	234,531.2	
		출장·이동음식점업		7	0.0	0.0	100.0	0.0	276,963.3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27	9.6	29.7	51.1	9.6	210,309.8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	8.9	7.2	50.9	33.0	411,368.7
			치킨 전문점	22	5.0	24.4	51.1	19.5	312,579.6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35	7.3	25.7	60.9	6.1	228,633.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10	0.0	11.2	77.5	11.2	330,995.3
		주점업	19	0.0	12.4	62.2	25.4	324,697.9	
	비알코올 음료점업		40	9.9	50.4	37.5	2.2	140,998.9	
지역	서울권		60	3.4	28.3	57.3	11.1	253,493.3	
	수도권		49	0.0	16.5	61.6	21.8	331,001.3	
	충청권		68	3.2	37.7	35.0	24.0	350,564.0	
	호남권		61	4.8	30.4	48.3	16.5	287,433.4	
	경남권		96	10.1	22.3	54.3	13.3	267,124.5	
	경북권		94	1.2	49.4	41.9	7.5	197,148.2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7	47.1	52.9	0.0	0.0	69,236.7	
	5천만 원~1억 원 미만		40	16.8	37.6	39.9	5.7	172,493.9	
	1억 원~5억 원 미만		334	2.2	32.4	50.1	15.3	278,652.4	
	5억 원 이상		47	0.0	20.6	55.8	23.6	377,209.0	

(5) 배달앱 미사용 이유

- 외식업체에서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가 83.2%로 대부분을 차지함. 다음으로 ‘비용이 부담되어서(12.3%)’, ‘관리하기 귀찮아서(2.3%)’, ‘배달앱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4〉 배달앱 미사용 이유

(단위: %)



- 일반음식점의 경우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라는 비중이 82.3%로 가장 높음.
 - 세부 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에서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중식은 비용이 부담되어서(27.0%)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경우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라는 비중이 84.3%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에서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의 비중이 가장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88.7%) 업체의 경우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의 비중이 가장 높음.

〈표 2-49-1〉 사업장 특성별 배달앱 미사용 이유(전체)

(Base: 배달앱 미사용 업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	비용이 부담되어서	관리하기 귀찮아서	배달앱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기타(본사 규정상 배달앱 사용 제한 등)
전체			2,085	83.2	12.3	2.3	1.4	0.8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149	82.3	12.6	2.8	1.7	0.7
		한식	878	83.2	11.5	2.8	1.8	0.7
		중식	84	66.0	27.0	5.8	1.2	0.0
		일식	73	89.4	8.9	0.0	1.1	0.5
		서양식	74	75.0	23.5	1.6	0.0	0.0
		기타 외국식	40	92.0	0.4	2.6	4.1	0.9
	일반 음식점 외	소계	936	84.3	12.0	1.7	1.2	0.9
		기관 구내식당업	77	74.2	19.4	1.5	1.1	3.8
		출장·이동음식점업	71	80.6	6.3	3.4	0.0	9.7
		제과점	84	86.3	9.6	0.0	0.0	4.1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8	60.1	32.1	0.0	0.0	7.8
		기타 음식점업	42	66.7	27.7	2.8	2.8	0.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5	73.9	23.6	1.3	1.3	0.0
		간이 음식 포장판매 전문점	37	89.9	7.4	2.7	0.0	0.0
		주점업	288	94.7	4.2	0.0	1.0	0.0
		비알코올 음료점업	224	79.1	14.7	3.8	1.4	0.9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399	85.8	9.4	1.2	0.6	3.0
	비프랜차이즈		1,686	82.7	12.8	2.5	1.6	0.4
지역	서울권		342	90.0	7.4	1.8	0.6	0.2
	수도권		431	89.2	4.9	2.2	3.4	0.3
	충청권		402	73.1	20.4	3.7	1.6	1.2
	호남권		323	76.1	18.0	4.2	1.4	0.3
	경남권		354	90.7	7.1	0.0	0.3	1.9
	경북권		233	78.7	18.9	1.4	0.5	0.5
매 출 액	5천만 원 미만		82	79.1	12.1	4.1	4.6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337	79.6	16.7	1.3	1.6	0.8
	1억 원~5억 원 미만		1,379	83.9	11.7	2.5	1.3	0.6
	5억 원 이상		287	88.7	6.4	1.6	0.4	2.9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배달앱 미사용 이유를 살펴보면,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가 85.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용이 부담되어서(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89.0%)과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83.3%) 모두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의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89.7%) 업체에서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의 비중이 가장 높음.

〈표 2-49-2〉 사업장 특성별 배달앱 미사용 이유(프랜차이즈)

(Base: 배달앱 미사용 업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	비용이 부담되어서	관리하기 귀찮아서	배달앱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기타(본사 규정상 배달앱 사용 제한 등)
전체			399	85.8	9.4	1.2	0.6	3.0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78	89.0	5.8	0.8	0.9	3.4
		한식	122	88.8	5.1	1.0	1.1	4.1
		중식	7	80.9	19.1	0.0	0.0	0.0
		일식	14	96.1	3.9	0.0	0.0	0.0
		서양식	20	85.8	14.2	0.0	0.0	0.0
		기타 외국식	15	98.7	1.3	0.0	0.0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221	83.3	12.1	1.5	0.4	2.7
		기관 구내식당업	20	69.2	21.4	0.0	0.0	9.4
		출장·이동음식점업	5	100.0	0.0	0.0	0.0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27	87.1	0.0	0.0	12.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1	52.3	35.8	0.0	11.9
			치킨 전문점	19	70.4	29.6	0.0	0.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9	85.6	14.4	0.0	0.0
			간이 음식 포장판매 전문점	10	100.0	0.0	0.0	0.0
		주점업	58	86.5	12.1	0.0	1.4	0.0
		비알코올 음료점업	52	88.7	5.2	4.8	0.0	1.3
지역	서울권		77	90.7	8.0	0.0	0.0	1.3
	수도권		118	91.1	3.1	4.0	0.8	1.0
	충청권		54	69.3	26.7	0.0	0.0	4.0
	호남권		35	70.4	23.1	0.2	4.1	2.2
	경남권		97	91.4	2.0	0.0	0.0	6.6
	경북권		18	86.5	13.5	0.0	0.0	0.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1	0.0	100.0	0.0	0.0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	82.9	13.3	0.0	0.0	3.8
	1억 원~5억 원 미만		246	85.7	9.5	1.7	0.9	2.3
	5억 원 이상		118	89.7	4.9	0.1	0.0	5.3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배달앱 미사용 이유를 살펴보면,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가 82.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용이 부담되어서(12.8%) 등의 순임.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81.4%)과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84.5%) 모두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의 비중이 가장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도 모든 규모에서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49-3〉 사업장 특성별 배달앱 미사용 이유(비프랜차이즈)

(Base: 배달앱 미사용 업체,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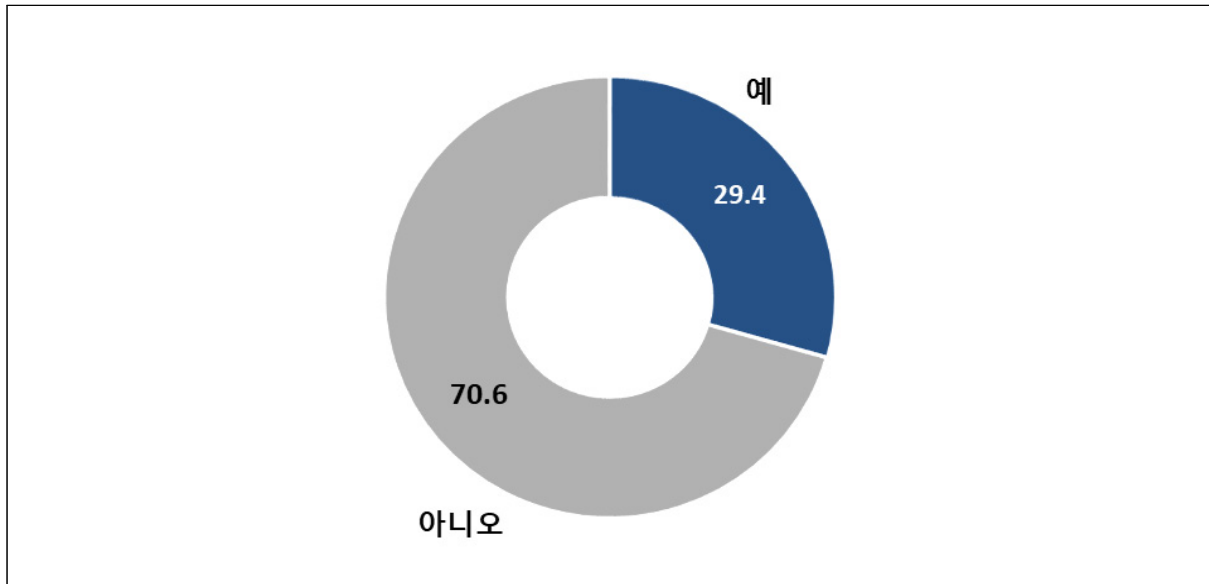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	비용이 부담되어서	관리하기 귀찮아서	배달앱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기타(본사 규정상 배달앱 사용 제한 등)
전체			1,686	82.7	12.8	2.5	1.6	0.4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971	81.4	13.5	3.1	1.8	0.3
		한식	756	82.4	12.4	3.0	1.8	0.3
		중식	77	65.0	27.6	6.1	1.2	0.0
		일식	59	88.4	9.7	0.0	1.3	0.6
		서양식	54	72.4	25.6	1.9	0.0	0.0
		기타 외국식	25	88.9	0.0	3.8	6.1	1.3
	일반 음식점 외 기타 음식점	소계	715	84.5	12.0	1.7	1.3	0.5
		기관 구내식당업	57	75.7	18.9	2.0	1.5	2.1
		출장·이동음식점업	66	78.4	7.0	3.7	0.0	10.8
		제과점	57	86.1	12.7	0.0	0.0	1.3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7	75.1	24.9	0.0	0.0	0.0
		치킨 전문점	23	64.4	26.5	4.5	4.5	0.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76	71.3	25.6	1.6	1.6	0.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27	87.1	9.4	3.5	0.0	0.0
		주점업	230	96.0	3.0	0.1	1.0	0.0
		비알코올 음료점업	172	77.2	16.6	3.7	1.7	0.8
지역	서울권		265	89.8	7.3	2.1	0.7	0.0
	수도권		313	88.6	5.4	1.7	4.2	0.1
	충청권		348	73.5	19.6	4.2	1.8	0.9
	호남권		288	76.6	17.5	4.6	1.1	0.2
	경남권		257	90.5	8.5	0.0	0.3	0.6
	경북권		215	78.4	19.1	1.5	0.6	0.5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1	79.9	11.2	4.2	4.7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303	79.3	17.0	1.5	1.7	0.6
	1억 원~5억 원 미만		1,133	83.6	12.1	2.7	1.3	0.2
	5억 원 이상		169	88.2	7.2	2.4	0.6	1.6

(6) 배달 대행 이용 현황

- 배달 대행을 이용하는 외식업체 비중은 29.4%로 나타남.

〈그림 2-45〉 배달 대행 이용 현황

(단위: %)



- 일반음식점 외식업체의 24.4%는 배달 대행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는 중식(43.7%)의 배달 대행 사용 업체 비중이 비교적 높음.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배달 대행 이용 비중은 34.7%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는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84.0%)과 치킨 전문점(69.8%)의 배달 대행 사용 업체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임.
- 지역별로는 경남권(39.4%)의 배달 대행 사용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 업체의 8.8%만이 배달 대행을 사용하고 있으나, 5억 원 이상 업체는 38.0%가 배달 대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2-50-1〉 사업장 특성별 배달 대행 이용 현황(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138	29.4	70.6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24.4	75.6	
		한식	1,091	21.0	79.0	
		중식	158	43.7	56.3	
		일식	117	33.4	66.6	
		서양식	118	34.8	65.2	
		기타 외국식	72	42.1	57.9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34.7	65.3	
		기관 구내식당업	78	1.5	98.5	
		출장·이동음식점업	78	6.2	93.8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41.9	58.1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84.0	16.0
			치킨 전문점	172	69.8	30.2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48.5	51.5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47.4	52.6
		주점업	318	7.1	92.9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31.2	68.8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60.4	39.6		
	비프랜차이즈	2,114	18.1	81.9		
지역	서울권	491	24.4	75.6		
	수도권	595	23.1	76.9		
	충청권	581	26.9	73.1		
	호남권	467	25.6	74.4		
	경남권	611	39.4	60.6		
	경북권	393	38.3	61.7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8.8	91.2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13.8	86.2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33.1	66.9		
	5억 원 이상	446	38.0	62.0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60.4%가 배달 대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식업체의 50.4%는 배달 대행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는 중식(67.0%)의 배달 대행 이용 비중이 비교적 높음.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배달 대행 이용 비중은 65.6%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는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85.5%)과 치킨 전문점(80.2%)의 배달 대행 이용 비중이 비교적 높음.
- 지역별로는 경북권(84.8%)의 배달 대행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 원~5억 원 미만(63.3%) 업체의 배달 대행 사용 비중이 높은 편임.

〈표 2-50-2〉 사업장 특성별 배달대행 이용 현황(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1,024	60.4	39.6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50.4	49.6	
		한식	197	47.5	52.5	
		중식	23	67.0	33.0	
		일식	29	55.2	44.8	
		서양식	46	57.9	42.1	
		기타 외국식	36	59.7	40.3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65.6	34.4
	기관 구내식당업		21	6.0	94.0	
	출장·이동음식점업		5	0.0	10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61.4	38.6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85.5	14.5
			치킨 전문점	127	80.2	19.8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76.8	23.2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76.7	23.3
	주점업		69	16.5	83.5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62.2	37.8		
지역	서울권		166	52.3	47.7	
	수도권		233	48.4	51.6	
	충청권		165	62.2	37.8	
	호남권		118	68.3	31.7	
	경남권		258	63.3	36.7	
	경북권		84	84.8	15.2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71.3	28.7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46.4	53.6	
	1억 원~5억 원 미만		721	63.3	36.7	
	5억 원 이상		230	51.7	48.3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18.1%가 배달 대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식업체의 18.7%는 배달 대행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는 중식(40.5%)의 배달 대행 이용 비중이 비교적 높음.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배달 대행 이용 비중은 17.3%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76.6%)의 배달 대행 이용 비중이 비교적 높음.
- 지역별로는 경북권(29.4%)의 배달 대행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 (26.4%) 업체의 배달 대행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2-50-3〉 사업장 특성별 배달대행 이용 현황(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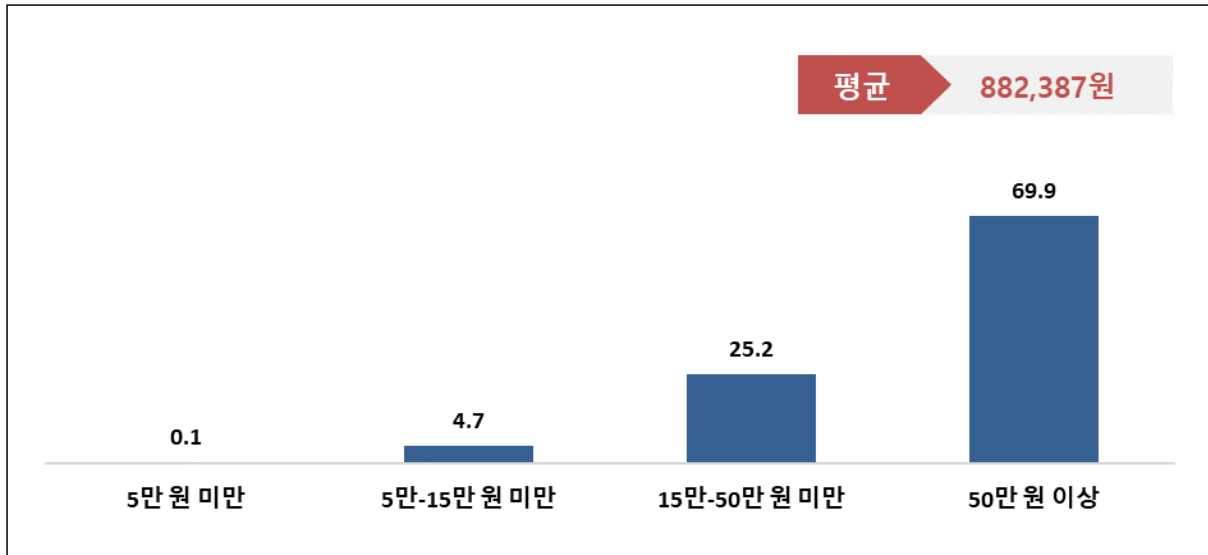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2,114	18.1	81.9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18.7	81.3
		한식	894	15.6	84.4
		중식	135	40.5	59.5
		일식	88	28.0	72.0
		서양식	72	22.7	77.3
		기타 외국식	36	26.9	73.1
		소계	889	17.3	82.7
	일반 음식점 외	기관 구내식당업	57	0.0	100.0
		출장·이동음식점업	73	6.9	93.1
		제과점	84	28.5	71.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76.6	23.4
		치킨 전문점	45	45.5	54.5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30.0	70.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21.2	78.8
		주점업	249	5.4	94.6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17.8	82.2
지역	서울권	325	14.8	85.2	
	수도권	362	11.2	88.8	
	충청권	416	15.1	84.9	
	호남권	349	15.1	84.9	
	경남권	353	25.4	74.6	
	경북권	309	29.4	70.6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6.6	93.4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9.1	90.9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20.8	79.2	
	5억 원 이상	216	26.4	73.6	

(7) 월평균 배달 대행 비용

- 월평균 배달 대행 비용은 약 882,387원 수준으로 나타남. 월평균 배달 대행 비용은 50만 원 이상의 비중이 69.9%로 가장 높고, 15만 원~50만 원 이하(25.2%), 5만 원~15만 원 이하(4.7%)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2-46〉 월평균 배달 대행 비용 분포

(Base: 배달 대행 이용 업체, 단위: %)



- 일반음식점 외식업체의 월평균 배달 대행 비용은 약 823,579원 수준으로 평균보다 비교적 낮음. 월평균 배달 대행 비용은 50만 원 이상이 67.6%로 비중이 가장 높고, 15만 원~50만 원 미만(25.6%), 5만 원~15만 원 미만(6.4%) 등의 순임.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월평균 배달 대행 비용은 약 925,338원 수준으로 일반음식점보다 비교적 높음. 월평균 배달 대행 비용은 50만 원 이상의 비중이 71.5%로 가장 높고, 15만 원~50만 원 미만(25.0%), 5만 원~15만 원 미만(3.5%)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는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약 1,063,578원),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약 1,005,212원),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약 986,515원)의 월평균 배달 대행 비용이 상대적으로 큼.
- 지역별로는 경북권(약 993,363원)의 월평균 배달 대행 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 외식업체의 월평균 배달 대행 비용이 약 983,426원으로 비교적 큼.

〈표 2-51-1〉 사업장 특성별 월평균 배달 대행 비용 분포(전체)

(Base: 배달 대행 이용 업체, 단위: 개소, %, 원)

구분			사례수	5만 원 미만	5만 원~ 15만 원 미만	15만 원~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평균	
전체			1,024	0.1	4.7	25.2	69.9	882,386.8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93	0.4	6.4	25.6	67.6	823,578.5	
		한식	212	0.5	5.9	25.4	68.2	784,913.6	
		중식	72	0.0	4.6	20.7	74.7	1,155,703.2	
		일식	41	0.0	16.0	32.5	51.5	580,646.0	
		서양식	39	0.0	7.5	31.3	61.3	783,446.8	
		기타 외국식	29	0.0	0.0	25.8	74.2	805,315.9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31	0.0	3.5	25.0	71.5	925,338.3	
		기관 구내식당업	1	0.0	0.0	100.0	0.0	442,390.0	
		출장·이동음식점업	7	0.0	0.0	88.6	11.4	467,041.5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79	0.0	3.9	26.1	70.0	823,268.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0.0	0.9	13.1	86.0	1,005,212.2
			치킨 전문점	123	0.0	2.0	39.7	58.3	860,806.1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08	0.0	2.8	14.6	82.6	986,515.2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4	0.0	0.0	22.5	77.5	1,063,577.7	
		주점업	29	0.0	8.6	43.3	48.1	658,662.9	
	비알코올 음료점업	128	0.0	5.9	23.3	70.7	957,302.2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608	0.0	2.6	22.8	74.6	968,346.5	
	비프랜차이즈		416	0.3	7.3	28.2	64.2	777,940.8	
지역	서울권		145	0.0	3.5	19.5	77.0	865,367.3	
	수도권		163	0.0	3.3	24.5	72.2	903,374.2	
	충청권		167	0.9	4.6	29.4	65.1	971,496.7	
	호남권		134	0.0	11.0	38.4	50.6	775,684.0	
	경남권		254	0.0	3.4	27.0	69.7	814,832.6	
	경북권		161	0.0	3.6	11.2	85.2	993,362.9	
매 출 액	5천만 원 미만		10	0.0	23.0	37.0	40.0	732,704.5	
	5천만 원~1억 원 미만		72	0.0	0.0	39.3	60.7	721,014.1	
	1억 원~5억 원 미만		783	0.2	5.2	24.9	69.7	886,602.2	
	5억 원 이상		159	0.0	2.4	16.6	81.0	983,426.1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월평균 배달 대행 비용은 약 968,347원 수준으로 나타남. 월평균 비용 분포별로는 50만 원 이상이 74.6%, 15만 원~50만 원 미만(22.8%), 5만 원~15만 원 미만(2.6%) 순임.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월평균 배달 대행 비용은 약 967,344원으로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월평균 배달 대행 비용(약 968,742원) 대비 상대적으로 적음.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 중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약 1,135,664원)과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약 1,035,616원)의 월평균 배달 대행 비용이 상대적으로 큼.
- 지역별로는 충청권(약 1,156,969원)의 월평균 배달 대행 비용이 비교적 많고,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 업체의 월평균 배달 대행 비용이 약 1,099,306원으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됨.

〈표 2-51-2〉 사업장 특성별 월평균 배달 대행 비용 분포(프랜차이즈)

(Base: 배달 대행 이용 업체, 단위: 개소, %, 원)

구분			사례수	5만 원~ 15만 원 미만	15만 원~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평균	
전체			608	2.6	22.8	74.6	968,346.5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48	2.7	20.0	77.4	967,343.6	
		한식	76	2.5	19.6	77.9	946,005.7	
		중식	15	0.0	5.7	94.3	1,488,151.9	
		일식	15	7.3	45.4	47.3	670,732.4	
		서양식	22	4.3	19.3	76.3	930,861.1	
		기타 외국식	20	0.0	13.5	86.5	978,309.4	
	일반 음식점 외	소계	460	2.5	24.0	73.5	968,742.2	
		기관 구내식당업		1	0.0	100.0	0.0	442,39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52	2.2	30.9	67.0	842,223.1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07	1.1	13.4	85.5	985,729.9
			치킨 전문점	102	1.2	36.3	62.5	914,710.6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73	1.6	15.5	82.9	1,035,615.7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25	0.0	28.4	71.6	1,135,663.6
		주점업		12	4.5	49.0	46.5	563,225.2
	비알코올 음료점업		88	5.9	20.0	74.1	1,027,436.5	
지역	서울권		88	1.8	14.7	83.5	956,494.5	
	수도권		114	1.4	24.1	74.5	934,105.8	
	충청권		103	2.7	22.7	74.6	1,156,969.0	
	호남권		79	3.9	38.9	57.3	923,522.7	
	경남권		158	2.0	24.6	73.4	853,424.8	
	경북권		66	5.0	4.4	90.6	1,097,507.6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3	0.0	59.8	40.2	564,970.1	
	5천만 원~1억 원 미만		33	.0	24.1	75.9	900,273.6	
	1억 원~5억 원 미만		460	3.2	24.0	72.8	956,752.8	
	5억 원 이상		112	0.0	12.7	87.3	1,099,305.7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월평균 배달 대행 비용은 약 777,941원 수준으로 나타남. 월평균 비용 분포별로는 50만 원 이상이 64.2%, 15만 원~50만 원 미만(28.2%), 5만 원~15만 원 미만(7.3%) 순으로 조사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월평균 배달 대행 비용은 약 739,978원으로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월평균 배달 대행 비용(약 832,836원) 대비 상대적으로 적음.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 중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약 1,112,711원),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약 904,412원)의 월평균 배달 대행 비용이 상대적으로 큼.
- 지역별로는 경북권(약 936,332원)의 월평균 배달 대행 비용이 비교적 많고,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 업체의 월평균 배달 대행 비용이 약 796,725원으로 상대적으로 큰 편임.

〈표 2-51-3〉 사업장 특성별 월평균 배달 대행 비용 분포(비프랜차이즈)

(Base: 배달 대행 이용 업체, 단위: 개소,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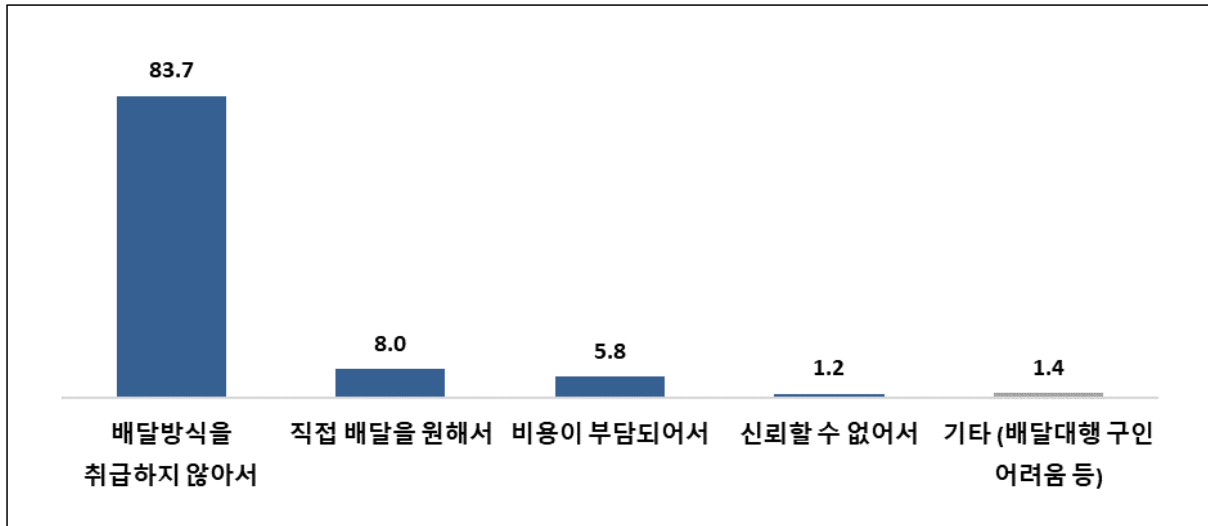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5만 원 미만	5만 원~ 15만 원 미만	15만 원~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평균
전체			416	0.3	7.3	28.2	64.2	777,940.8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245	0.6	8.5	28.9	62.0	739,978.0
		한식	136	0.8	8.0	29.0	62.2	686,293.6
		중식	57	0.0	5.7	24.0	70.3	1,080,231.6
		일식	26	0.0	20.4	26.1	53.5	536,262.5
		서양식	17	0.0	11.6	47.3	41.1	586,493.9
		기타 외국식	9	0.0	0.0	49.6	50.4	472,114.2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71	0.0	5.6	27.1	67.3	832,836.3
		출장·이동음식점업	7	0.0	0.0	88.6	11.4	467,041.5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27	0.0	6.4	19.0	795,147.7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5	0.0	11.4	88.6	1,112,710.7
			치킨 전문점	21	0.0	53.7	41.1	640,141.4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35	0.0	13.1	82.0	904,412.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9	0.0	3.6	96.4	830,603.5
		주점업	17	0.0	10.7	40.2	49.1	709,934.3
		비알코올 음료점업	40	0.0	6.0	28.5	65.6	850,507.1
지역	서울권		57	0.0	5.5	25.4	69.1	753,763.7
	수도권		49	0.0	7.0	25.4	67.6	841,456.1
	충청권		64	2.2	7.2	38.7	51.9	716,112.4
	호남권		55	0.0	18.9	37.9	43.1	610,663.0
	경남권		96	0.0	5.3	30.4	64.3	758,704.0
	경북권		95	0.0	2.8	14.9	82.2	936,332.4
	5천만 원 미만		7	0.0	31.8	28.3	39.9	796,725.4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39	0.0	0.0	50.4	49.6	590,360.8
	1억 원~5억 원 미만		323	0.4	7.8	26.0	65.8	799,255.0
	5억 원 이상		47	0.0	6.4	23.1	70.5	791,086.3

(8) 배달 대행 미사용 이유

- 외식업체에서 배달 대행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가 83.7%로 대부분을 차지함. 다음으로 ‘직접 배달을 원해서(8.0%)’, ‘비용이 부담되어서(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7〉 배달 대행 미사용 이유

(단위: %)



- 일반음식점의 경우 배달 대행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라는 비중이 84.8%로 가장 높음.
 - 세부 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에서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중식은 ‘직접 배달을 원해서(40.3%)’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경우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라는 비중이 82.3%임.
 - 세부 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이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의 비중이 가장 높고, 매출액 규모별도 모든 규모에서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52-1〉 사업장 특성별 배달 대행 미사용 이유(전체)

(Base: 배달 대행 미사용 업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	직접 배달을 원해서	비용이 부담되어서	신뢰할 수 없어서	기타
전체			2,114	83.7	8.0	5.8	1.2	1.4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163	84.8	8.1	5.3	0.7	1.0
		한식	879	86.8	6.2	5.7	0.6	0.7
		중식	86	55.7	40.3	1.4	0.0	2.6
		일식	76	85.4	3.9	4.6	2.2	4.0
		서양식	79	83.8	8.0	4.1	2.6	1.4
		기타 외국식	43	87.8	.4	4.8	2.5	4.6
	일반 음식점 외	소계	951	82.3	7.8	6.4	1.7	1.8
		기관 구내식당업	77	83.4	14.3	0.0	0.0	2.3
		출장·이동음식점업	71	63.3	25.9	6.7	0.0	4.1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7	86.9	7.9	3.9	0.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47.8	11.0	16.1	13.5
			치킨 전문점	49	58.6	25.6	11.5	4.4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5	73.8	15.5	9.7	0.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8	86.0	0.0	7.2	6.7
		주점업	289	94.2	2.5	2.1	1.1	0.0
		비알코올 음료점업	224	75.2	8.4	10.3	2.2	3.9
경영 형태	프랜차이즈		416	83.3	6.5	5.4	2.2	2.6
	비프랜차이즈		1,698	83.7	8.2	5.9	1.0	1.2
지역	서울권		346	90.7	5.1	3.7	0.2	.4
	수도권		432	87.3	3.8	3.9	2.1	2.8
	충청권		414	75.8	14.9	5.3	3.0	1.0
	호남권		333	77.4	5.5	13.9	0.8	2.4
	경남권		357	91.0	5.0	3.7	0.2	0.2
	경북권		232	78.9	16.4	3.4	0.0	1.3
매 출 액	5천만 원 미만		82	84.7	6.7	6.4	0.0	2.1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0	76.7	9.7	9.3	2.0	2.3
	1억 원~5억 원 미만		1,405	85.1	7.9	5.1	1.0	1.0
	5억 원 이상		287	88.9	4.6	2.8	1.2	2.5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배달 대행 미사용 이유로는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가 8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직접 배달을 원해서(6.5%)’ 등의 순으로 조사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91.1%)과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77.5%) 모두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의 비중이 가장 높고, 매출액 규모별도 모든 규모에서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2-52-2〉 사업장 특성별 배달 대행 미사용 이유(프랜차이즈)

(Base: 배달 대행 미사용 업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	직접 배달을 원해서	비용이 부담되어서	신뢰할 수 없어서	기타
전체			416	83.3	6.5	5.4	2.2	2.6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83	91.1	2.6	2.6	1.2	2.5
		한식	121	93.5	2.7	2.0	0.0	1.8
		중식	8	83.1	0.0	0.0	0.0	16.9
		일식	14	88.1	0.0	3.9	8.0	0.0
		서양식	24	69.8	5.5	6.7	11.5	6.5
		기타 외국식	16	91.4	1.2	7.4	0.0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233	77.5	9.4	7.5	2.9	2.7
		기관 구내식당업	20	75.5	15.0	0.0	0.0	9.4
		출장·이동음식점업	5	100.0	0.0	0.0	0.0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30	90.9	0.0	4.0	5.1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5	34.1	14.6	17.9	15.4
			치킨 전문점	25	44.4	31.1	14.8	9.6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9	83.2	4.3	12.5	0.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10	100.0	0.0	0.0	0.0
		주점업	57	86.4	10.6	0.9	2.0	0.1
		비알코올 음료점업	52	85.0	2.9	9.8	0.0	2.4
지역	서울권		78	91.9	3.8	2.0	0.0	2.3
	수도권		119	87.8	4.0	5.7	0.0	2.6
	충청권		62	64.0	13.9	8.2	12.3	1.6
	호남권		39	65.6	9.7	15.8	0.0	8.8
	경남권		100	92.1	4.4	2.1	0.7	0.7
	경북권		18	80.2	13.5	0.0	0.0	6.4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1	100.0	0.0	0.0	0.0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36	74.1	9.4	13.2	3.3	0.0
	1억 원~5억 원 미만		261	83.8	6.6	4.7	2.3	2.6
	5억 원 이상		118	86.7	4.6	3.3	1.0	4.3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배달 대행 미사용 이유를 살펴보면,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가 83.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직접 배달을 원해서(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83.9%)과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83.4%) 모두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의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의 비중이 가장 높고, 매출액 규모별도 모든 규모에서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2-52-3〉 사업장 특성별 배달 대행 미사용 이유(비프랜차이즈)

(Base: 배달 대행 미사용 업체,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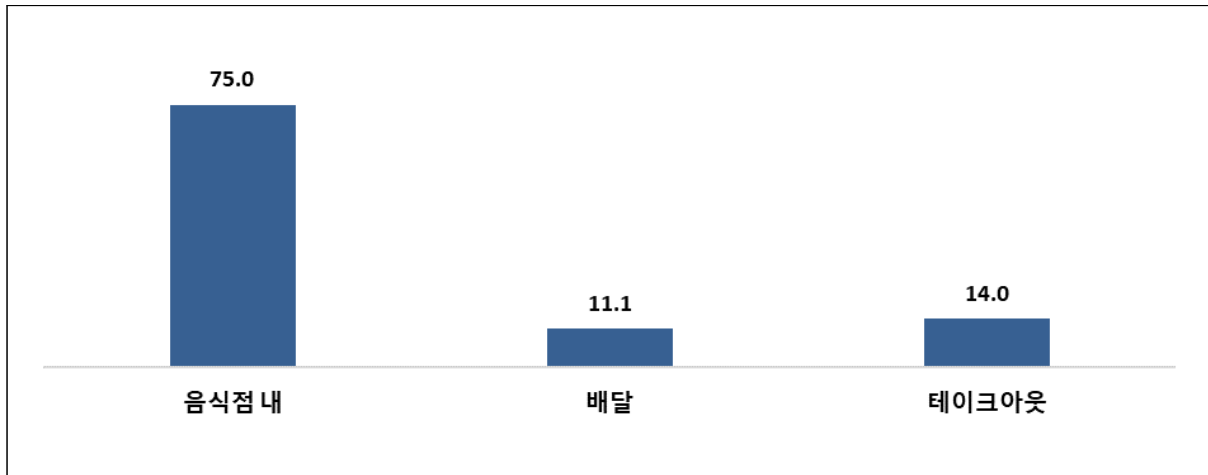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배달방식을 취급하지 않아서	직접 배달을 원해서	비용이 부담되어서	신뢰할 수 없어서	기타
전체			1,698	83.7	8.2	5.9	1.0	1.2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980	83.9	8.8	5.7	0.7	0.9
		한식	758	85.9	6.6	6.2	0.7	0.6
		중식	78	53.6	43.4	1.5	0.0	1.5
		일식	62	85.0	4.5	4.7	1.2	4.6
		서양식	55	87.8	8.7	3.4	0.0	0.0
		기타 외국식	27	86.1	0.0	3.5	3.6	6.8
	일반 음식점 외	소계	718	83.4	7.4	6.1	1.5	1.6
		기관 구내식당업	57	85.9	14.0	0.0	0.0	0.1
		출장·이동음식점업	66	59.2	28.8	7.5	0.0	4.6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57	85.4	10.8	3.8	0.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6	89.6	0.0	10.4	0.0
			치킨 전문점	24	70.5	20.9	8.7	0.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76	71.8	18.0	9.1	0.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28	82.3	0.0	9.2	8.5
		주점업	232	95.4	1.3	2.3	1.0	0.0
		비알코올 음료점업	172	73.2	9.5	10.4	2.6	4.2
	지역	서울권	268	90.4	5.3	4.0	0.2	0.0
		수도권	313	87.2	3.8	3.5	2.7	2.9
		충청권	352	77.5	15.1	4.9	1.7	0.9
		호남권	294	78.5	5.2	13.7	0.9	1.8
		경남권	257	90.6	5.2	4.2	0.0	0.0
		경북권	214	78.8	16.5	3.6	0.0	1.1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1	84.6	6.8	6.5	0.0	2.2
	5천만 원~1억 원 미만		304	76.9	9.8	9.0	1.9	2.5
	1억 원~5억 원 미만		1,144	85.3	8.1	5.1	0.8	0.7
	5억 원 이상		169	90.2	4.6	2.5	1.2	1.5

30) 총매출액 대비 판매유형별 매출액 비중

- 총매출액 대비 판매유형별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음식점 내 비중은 75.0%, 테이크아웃은 14.0%, 배달은 11.1%로 나타남.

〈그림 2-48〉 총매출액 대비 판매유형별 매출액 비중 분포

(단위: %)



- 일반음식점의 경우 음식점 내 매출액 비중은 83.6%, 배달은 8.6%, 테이크아웃은 7.8%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 음식점 내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한식(85.5%)이며, 배달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중식(28.7%), 테이크아웃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서양식(10.3%)으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경우 음식점 내 매출액 비중은 66.0%, 테이크아웃은 20.4%, 배달은 13.6%로 일반음식점 대비 테이크아웃 매출액 비중이 비교적 높음.
 - 세부 업종별로 음식점 내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기관 구내식당업(98.4%)과 주점업(95.0%)이며, 배달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41.5%)과 치킨 전문점(40.4%), 테이크아웃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제과점(59.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35.2%)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음식점 내 매출액이 가장 높고, 매출액 규모별 역시 모든 규모에서 음식점 내 매출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2-53-1〉 사업장 특성별 총매출액 대비 판매유형별 매출액 비중 분포(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음식점 내	배달	테이크아웃
				평균	평균	평균
전체			3,138	75.0	11.1	14.0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83.6	8.6	7.8
		한식	1,091	85.5	6.5	8.0
		중식	158	67.1	28.7	4.1
		일식	117	83.8	8.0	8.2
		서양식	118	79.9	9.8	10.3
		기타 외국식	72	81.0	10.4	8.7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66.0	13.6	20.4
		기관 구내식당업	78	98.4	1.3	0.3
		출장·이동음식점업	78	44.9	34.1	21.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30.4	10.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41.5	22.3
			치킨 전문점	172	39.9	40.4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16.8	25.8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44.2	20.6
		주점업	318	95.0	2.3	2.7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66.5	8.4	25.0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58.2	22.4	19.4
	비프랜차이즈		2,114	81.1	6.9	12.0
지역	서울권		491	80.1	7.4	12.5
	수도권		595	80.3	7.4	12.3
	충청권		581	66.2	15.6	18.3
	호남권		467	79.7	8.5	11.9
	경남권		611	72.2	14.0	13.8
	경북권		393	71.6	13.2	15.2
매 출 액	5천만 원 미만		92	83.9	2.5	13.6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76.7	7.3	16.0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73.7	12.5	13.9
	5억 원 이상		446	78.9	10.1	11.0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음식점 내 매출액 비중이 58.2%, 배달은 22.4%, 테이크아웃은 19.4%로 배달과 테이크아웃의 매출액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중에서 음식점 내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일식(79.1%)이며, 배달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중식(29.4%), 테이크아웃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서양식(12.4%)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 중에서 배달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치킨 전문점(47.3%)이고, 테이크아웃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제과점(51.5%)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음식점 내 매출액이 가장 높고, 매출액 규모별 역시 모든 규모에서 음식점 내 매출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2-53-2〉 사업자 특성별 총매출액 대비 판매유형별 매출액 비중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음식점 내	배달	테이크아웃		
				평균	평균	평균		
전체			1,024	58.2	22.4	19.4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75.1	15.2	9.6	
		한식		197	76.0	14.4	9.6	
		중식		23	63.8	29.4	6.8	
		일식		29	79.1	12.5	8.4	
		서양식		46	71.9	15.7	12.4	
		기타 외국식		36	75.4	15.1	9.5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49.4	26.1	24.5	
		기관 구내식당업		21	94.0	5.4	0.6	
		출장·이동음식점업		5	63.6	22.4	14.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32.5	16.0	51.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35.4	42.3	22.3
			치킨 전문점		127	35.5	47.3	17.2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50.2	25.7	24.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27.9	32.0	40.1
		주점업		69	92.0	5.4	2.6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54.6	13.4	32.0	
지역	서울권		166	63.6	15.5	21.0		
	수도권		233	67.8	14.5	17.7		
	충청권		165	49.3	30.3	20.4		
	호남권		118	53.4	26.7	19.9		
	경남권		258	59.5	23.8	16.6		
	경북권		84	41.8	29.5	28.7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65.4	12.0	22.7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49.4	22.2	28.4		
	1억 원~5억 원 미만		721	56.5	24.1	19.4		
	5억 원 이상		230	71.7	13.9	14.4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음식점 내 매출액 비중은 81.1%, 배달은 6.9%, 테이크아웃은 12.0%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중에서 음식점 내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한식(87.4%)이며, 배달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중식(28.6%), 테이크아웃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서양식(9.1%) 등인 것으로 조사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 중에서 배달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37.5%)이고, 테이크아웃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제과점(64.3%)으로 파악됨.

〈표 2-53-3〉 사업장 특성별 총매출액 대비 판매유형별 매출액 비중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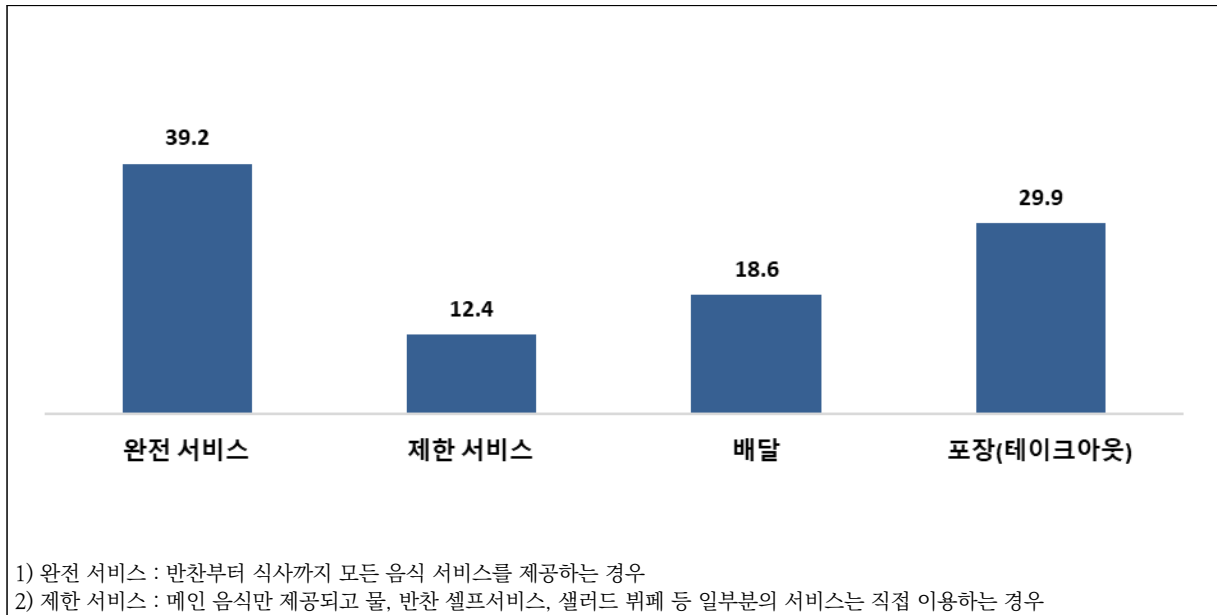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음식점 내	배달	테이크아웃	
				평균	평균	평균	
전체			2,114	81.1	6.9	12.0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85.5	7.1	7.4	
		한식	894	87.4	5.0	7.7	
		중식	135	67.6	28.6	3.8	
		일식	88	85.0	6.8	8.1	
		서양식	72	84.1	6.8	9.1	
		기타 외국식	36	85.8	6.3	7.9	
		소계	889	75.3	6.6	18.1	
	일반 음식점 외	기관 구내식당업	57	99.9	0.0	0.1	
		출장·이동음식점업	73	42.9	35.3	21.7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29.0	6.7	64.3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40.0	37.5	22.4
			치킨 전문점	45	50.0	24.5	25.5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62.2	11.0	26.8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58.7	10.4	30.9
		주점업	249	95.5	1.7	2.7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71.7	6.3	22.0	
지역	서울권	325	85.8	4.6	9.6		
	수도권	362	86.2	4.1	9.7		
	충청권	416	71.8	10.7	17.5		
	호남권	349	86.1	4.0	9.9		
	경남권	353	79.6	8.3	12.1		
	경북권	309	77.2	10.1	12.7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84.6	2.1	13.3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80.6	5.2	14.2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80.6	7.8	11.6		
	5억 원 이상	216	84.9	6.9	8.2		

31) 서비스 유형

- 외식업체의 서비스 유형을 살펴본 결과, 완전 서비스 39.2%, 포장(테이크아웃) 29.9%, 배달 18.6%, 제한 서비스 12.4% 순임.

〈그림 2-49〉 서비스 유형 분포

(단위: %)



주: 중복응답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적용한 비율임.

- 일반음식점 외식업체의 서비스 유형은 완전 서비스(42.2%), 포장(테이크아웃)(26.8%), 배달(17.0%), 제한 서비스(14.1%)의 순으로 일반음식점은 전체 외식업체(39.2%) 대비 완전 서비스 비중이 높음.
 - 세부 업종별로는 한식의 경우 완전 서비스 비중이 43.5%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고, 배달은 중식(33.8%), 포장(테이크아웃)은 서양식(31.5%)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서비스 유형은 완전 서비스가 36.4%, 포장(테이크아웃)(32.7%), 배달(20.1%), 제한 서비스(10.8%)의 순임.
 - 세부 업종별로는 완전 서비스의 경우 기관 구내식당업(73.1%), 포장(테이크아웃)은 제과점(45.5%), 배달은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33.6%)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완전 서비스는 서울권(42.8%), 배달은 경남권(23.1%) 포장(테이크아웃)은 충청권(32.1%) 업체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매출액 규모별로 완전 서비스는 5천만 원 미만(51.4%) 업체가 높고, 포장(테이크아웃)은 1억 원~5억 원 미만(30.2%) 업체의 비중이 비교적 높음.

〈표 2-54-1〉 사업장 특성별 서비스 유형 분포(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완전 서비스	제한 서비스	배달	포장 (테이크아웃)	
전체			3,138	39.2	12.4	18.6	29.9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42.2	14.1	17.0	26.8	
		한식	1,091	43.5	14.5	14.5	27.5	
		중식	158	36.2	12.5	33.8	17.5	
		일식	117	40.0	12.8	19.2	28.1	
		서양식	118	37.7	11.2	19.6	31.5	
		기타 외국식	72	34.1	15.5	24.1	26.3	
		소계	1,582	36.4	10.8	20.1	32.7	
	일반 음식점 외	기관 구내식당업	78	73.1	22.4	1.4	3.0	
		출장·이동음식점업	78	36.7	4.6	29.2	29.5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24.6	7.6	22.3	45.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24.6	7.7	33.6	34.1
			치킨 전문점	172	25.9	8.1	31.9	34.1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27.8	12.2	23.6	36.4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25.2	11.2	25.8	37.9
		주점업	318	61.4	19.6	7.9	11.1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37.0	8.1	16.2	38.7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30.2	9.8	27.6	32.5		
	비프랜차이즈	2,114	43.7	13.7	14.0	28.6		
지역	서울권	491	42.8	11.1	14.7	31.3		
	수도권	595	42.6	14.4	14.6	28.5		
	충청권	581	34.5	12.9	20.5	32.1		
	호남권	467	42.6	12.4	16.2	28.8		
	경남권	611	36.3	12.6	23.1	28.0		
	경북권	393	37.8	9.9	21.4	30.9		
매 출 액	5천만 원 미만	92	51.4	17.0	6.9	24.7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46.7	11.0	12.6	29.7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37.4	12.5	20.0	30.2		
	5억 원 이상	446	38.0	12.4	20.2	29.4		

주: 중복응답한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적용한 비율임.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서비스 유형은 포장(테이크아웃) 비중이 32.5%로 가장 높으며, 완전 서비스(30.2%), 배달(27.6%), 제한적 서비스(9.8%) 순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경우 완전 서비스 비중이 33.8%로 가장 높고, 포장(테이크아웃)(29.3%), 배달(24.6%), 제한 서비스(12.3%) 순임.
 - 세부 업종별로는 일식의 경우 완전 서비스 비중이 35.6%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고, 배달은 중식(30.4%), 포장(테이크아웃)은 서양식(30.9%)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는 포장(테이크아웃)(33.9%), 배달(28.9%), 완전 서비스(28.5%), 제한 서비스(8.6%) 순으로 파악됨.

〈표 2-54-2〉 사업장 특성별 서비스 유형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완전 서비스	제한 서비스	배달	포장 (테이크아웃)	
전체			1,024	30.2	9.8	27.6	32.5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33.8	12.3	24.6	29.3	
		한식	197	34.3	12.5	23.4	29.9	
		중식	23	28.7	14.1	30.4	26.7	
		일식	29	35.6	12.4	26.5	25.4	
		서양식	46	32.2	9.4	27.5	30.9	
		기타 외국식	36	33.1	11.6	30.2	25.1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28.5	8.6	28.9	33.9
	기관 구내식당업		21	65.7	22.6	5.7	6.0	
	출장·이동음식점업		5	43.7	0.0	12.6	43.7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23.2	9.0	28.9	38.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23.4	8.4	34.4	33.8
			치킨 전문점	127	25.3	7.2	34.7	32.9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24.2	11.4	29.2	35.2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19.2	5.4	35.5	39.8
	주점업		69	55.3	18.0	13.4	13.3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31.8	6.3	24.5	37.3	
	지역		서울권	166	31.1	10.5	23.2	35.1
			수도권	233	34.3	10.6	23.0	32.1
		충청권	165	29.9	8.7	30.2	31.3	
호남권		118	29.9	8.3	28.6	33.2		
경남권		258	28.7	10.6	29.9	30.7		
경북권		84	23.7	8.4	32.5	35.5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26.3	10.6	26.3	36.9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29.7	9.0	24.6	36.8		
	1억 원~5억 원 미만	721	29.4	9.8	28.5	32.3		
	5억 원 이상	230	34.8	10.0	24.1	31.0		

주: 중복응답한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적용한 비율임.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서비스 유형은 완전 서비스 비중이 43.7%로 가장 높으며, 포장(테이크아웃)(28.6%), 배달(14.0%), 제한적 서비스(13.7%) 순으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경우 완전 서비스 비중이 44.5%로 가장 높고, 포장(테이크아웃)(26.1%), 배달(14.9%), 제한 서비스(14.6%) 순임.
 - 세부 업종별로는 한식의 경우 완전 서비스 비중이 45.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고, 배달은 중식(34.4%), 포장(테이크아웃)은 서양식(32.0%)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는 완전 서비스(42.8%), 포장(테이크아웃)(31.8%), 배달(13.0%), 제한 서비스(12.5%) 순으로 조사됨.

〈표 2-54-3〉 사업장 특성별 서비스 유형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완전 서비스	제한 서비스	배달	포장 (테이크아웃)	
전체			2,114	43.7	13.7	14.0	28.6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44.5	14.6	14.9	26.1	
		한식	894	45.9	15.0	12.2	26.9	
		중식	135	37.4	12.2	34.4	16.0	
		일식	88	41.2	12.9	17.1	28.8	
		서양식	72	41.4	12.4	14.2	32.0	
		기타 외국식	36	35.1	19.7	17.6	27.6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42.8	12.5	13.0	31.8
	기관 구내식당업		57	75.6	22.4	0.0	2.0	
	출장·이동음식점업		73	35.8	5.2	31.6	27.5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25.8	6.3	16.0	51.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30.5	3.9	29.6	36.1
			치킨 전문점	45	27.7	10.5	24.5	37.3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30.8	12.9	19.0	37.4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31.8	17.6	14.8	35.8
	주점업		249	62.6	20.0	6.8	10.6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39.8	9.1	11.7	39.4	
	지역		서울권	325	48.5	11.4	10.6	29.5
		수도권	362	48.1	16.9	9.0	26.0	
충청권		416	36.5	14.8	16.2	32.5		
호남권		349	47.5	14.0	11.5	27.1		
경남권		353	42.1	14.2	17.8	25.9		
경북권		309	41.7	10.3	18.4	29.6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53.2	17.5	5.5	23.8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50.3	11.4	10.0	28.2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41.8	13.9	15.3	29.0		
	5억 원 이상	216	41.4	14.8	16.1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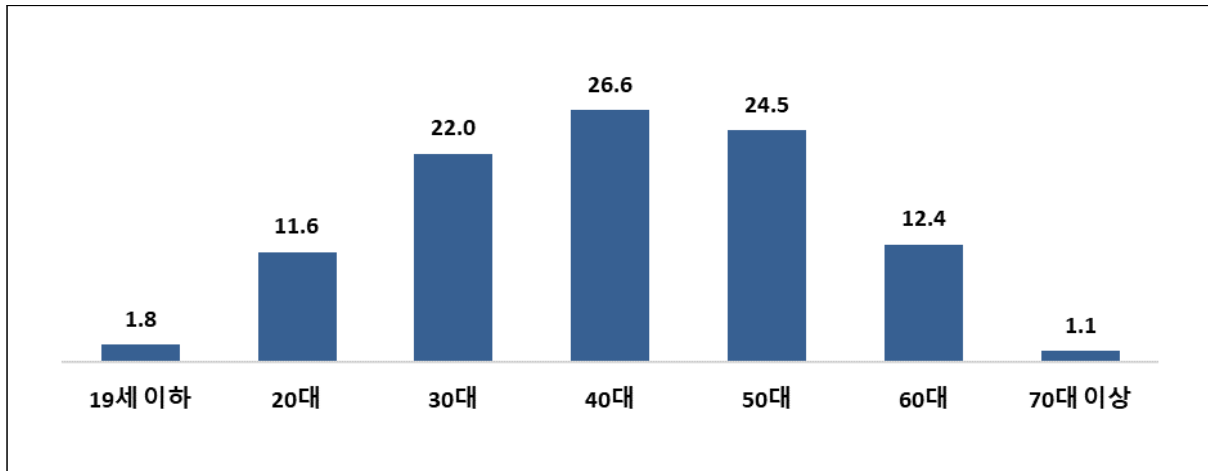
주: 중복응답한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적용한 비율임.

32) 주요 고객 연령

- 외식업체의 주요 고객 연령은 40대(26.6%)이며, 다음으로는 50대(24.5%), 30대(22.0%), 60대(12.4%), 20대(11.6%) 등의 순임.

〈그림 2-50〉 주요 고객 연령 분포

(단위: %)



주: 중복응답한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적용한 비율임.

- 일반음식점 외식업체의 고객 연령 분포는 50대(32.3%), 40대(30.2%), 30대(16.4%), 60대(15.2%), 20대(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는 한식은 50대(35.2%), 중식과 일식은 40대(각 33.0%, 35.0%), 서양식과 기타 외국식(각 41.0%, 43.4%)은 30대 고객 비중이 높음.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고객 연령 분포는 30대(27.8%), 40대(22.8%), 20대(19.3%), 50대(16.3%)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는 기관 구내식당업은 40대(42.4%),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30대(34.4%)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권(24.9%), 수도권(25.9%)은 30대 고객, 호남권(28.3%)과 충청권(36.1%)은 40대 고객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외 지역은 50대 고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매출액 1억 원~5억 원 미만인 업체는 40대(27.7%)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2-55-1〉 사업장 특성별 주요 고객 연령대 분포(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3,138	1.8	11.6	22.0	26.6	24.5	12.4	1.1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0.5	4.3	16.4	30.2	32.3	15.2	1.1
		한식	1,091	0.4	2.6	13.6	29.8	35.2	17.2	1.2
		중식	158	0.5	6.2	20.7	33.0	28.4	10.5	0.7
		일식	117	0.5	9.1	25.8	35.0	21.7	7.0	0.9
		서양식	118	1.4	22.8	41.0	25.7	7.0	2.0	0.0
		기타 외국식	72	1.1	17.3	43.4	33.4	4.8	0.0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3.2	19.3	27.8	22.8	16.3	9.5	1.1
		기관 구내식당업	78	0.0	3.7	28.0	42.4	21.4	4.4	0.0
		출장·이동음식점업	78	1.1	7.2	23.9	38.1	23.5	6.3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4.1	19.6	27.7	29.0	13.7	0.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12.3	32.3	37.5	16.0	1.8	0.0
			치킨 전문점	172	1.0	15.6	36.1	29.2	12.2	0.3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10.1	23.7	26.7	22.7	11.5	0.7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7.8	23.1	21.0	24.8	16.2	0.0
		주점업	318	0.1	6.3	15.5	22.9	31.5	21.9	1.8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1.8	27.9	34.4	18.8	9.7	5.7	1.6
경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4.5	20.8	30.6	24.9	13.8	4.9	0.4
	비프랜차이즈		2,114	0.8	8.3	18.9	27.1	28.3	15.2	1.4
지역	서울권		491	2.3	18.2	24.9	22.4	20.5	10.2	1.4
	수도권		595	1.2	14.0	25.9	24.4	22.4	11.0	1.2
	충청권		581	2.3	9.6	26.9	36.1	19.4	5.6	0.2
	호남권		467	1.2	9.7	19.4	28.3	27.7	12.8	0.8
	경남권		611	0.1	6.7	18.7	23.8	29.1	19.6	2.0
	경북권		393	5.0	13.5	14.0	22.9	28.1	15.6	1.1
매출 액	5천만 원 미만		92	3.8	4.6	12.4	24.6	25.1	24.8	4.7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2.3	12.1	16.0	21.6	26.9	18.3	2.8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1.5	11.9	23.9	27.7	23.7	10.7	0.6
	5억 원 이상		446	2.5	11.9	21.3	27.5	25.7	10.4	0.6

주: 중복응답한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적용한 비율임.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고객 연령 분포는 30대(30.6%), 40대(24.9%), 20대(20.8%), 50대(13.8%) 등의 순으로 조사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고객 연령 분포는 40대(31.2%), 30대와 50대(각 2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세부 업종별로는 한식(31.2%)은 40대, 그 외 대부분의 세부 업종에서 30대 고객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고객 연령은 30대(34.1%), 20대(27.0%), 40대(21.7%) 등의 순으로 파악됨.

〈표 2-55-2〉 사업장 특성별 주요 고객 연령대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1,024	4.5	20.8	30.6	24.9	13.8	4.9	0.4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1.6	8.9	23.6	31.2	23.6	10.0	1.1
		한식	197	1.6	5.8	18.5	31.2	29.0	12.6	1.3
		중식	23	1.9	15.0	36.3	33.9	9.0	3.8	0.0
		일식	29	2.6	10.6	37.9	34.4	9.4	3.2	1.8
		서양식	46	1.4	28.1	43.0	26.0	1.5	0.0	0.0
		기타 외국식	36	0.0	17.0	44.0	33.0	6.0	0.0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5.9	27.0	34.1	21.7	8.8	2.3	0.1
		기관 구내식당업	21	0.0	11.8	27.5	42.6	18.0	0.0	0.0
		출장·이동음식점업	5	11.2	11.2	38.8	38.8	0.0	0.0	0.0
		기타 음식점	제과점	82	5.6	18.6	28.5	29.7	3.4	1.3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14.2	33.8	35.7	14.8	1.5	0.0
			치킨 전문점	127	1.4	17.8	36.8	29.5	10.8	3.7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13.2	34.9	29.9	15.0	6.0	1.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12.7	29.4	25.5	22.6	8.5	1.3
		주점업	69	0.0	13.1	28.0	27.8	22.1	9.0	0.0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3.0	35.0	38.9	16.7	5.7	0.6	0.0
지역	서울권		166	6.1	28.0	31.0	18.1	11.0	5.3	0.5
	수도권		233	3.2	19.6	32.7	24.0	13.8	5.5	1.3
	충청권		165	6.8	25.2	33.7	25.5	8.1	0.7	0.0
	호남권		118	3.8	23.4	33.5	26.9	11.2	1.3	0.0
	경남권		258	0.3	10.8	28.7	30.3	20.5	9.2	0.3
	경북권		84	16.2	32.8	17.8	17.2	13.2	2.7	0.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39.3	35.7	10.7	14.3	0.0	0.0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10.8	28.2	24.1	17.7	14.5	4.6	0.1
	1억 원~5억 원 미만		721	3.5	20.3	32.2	25.8	13.1	4.7	0.4
	5억 원 이상		230	5.2	19.2	25.6	24.2	18.2	6.9	0.8

주: 중복응답한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적용한 비율임.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고객 연령 분포는 50대(28.3%), 40대(27.1%), 30대(18.9%), 60대(1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고객 연령 분포는 50대(34.2%), 40대(29.9%), 60대(16.4%) 등의 순이며, 세부 업종별로 한식(36.5%)은 50대, 중식(32.9%)과 일식(35.2%)은 40대, 서양식(39.9%)과 기타 외국식(42.8%)은 30대 고객의 비중이 높음.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고객 연령은 30대(24.3%), 40대(23.4%), 50대(20.5%) 등의 순으로 조사됨.

〈표 2-55-3〉 사업장 특성별 주요 고객 연령대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2,114	0.8	8.3	18.9	27.1	28.3	15.2	1.4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0.2	3.3	14.8	29.9	34.2	16.4
		한식	894	0.2	2.0	12.6	29.5	36.5	18.2
		중식	135	0.3	5.0	18.5	32.9	31.1	11.5
		일식	88	0.0	8.7	22.8	35.2	24.7	8.0
		서양식	72	1.5	20.0	39.9	25.6	9.9	3.0
		기타 외국식	36	2.1	17.6	42.8	33.6	3.8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1.7	14.9	24.3	23.4	20.5	13.5
		기관 구내식당업	57	0.0	1.0	28.2	42.4	22.5	5.9
		출장·이동음식점업	73	0.0	6.7	22.3	38.0	25.9	7.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3.0	20.3	27.2	28.6	14.3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3.2	25.1	46.4	22.0	3.3
			치킨 전문점	45	0.0	10.4	34.4	28.4	15.6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8.0	16.4	24.6	27.7	15.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3.3	17.4	17.0	26.8	23.1
		주점업	249	0.1	5.1	13.2	22.0	33.2	24.2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1.3	24.9	32.4	19.8	11.5	7.9
지역	서울권		325	1.0	14.8	22.8	23.9	23.8	11.9
	수도권		362	0.2	11.4	22.7	24.6	26.5	13.5
	충청권		416	0.8	4.4	24.6	39.6	23.2	7.2
	호남권		349	0.6	6.4	15.9	28.7	31.8	15.6
	경남권		353	0.0	4.3	12.9	20.0	34.1	25.7
	경북권		309	2.8	9.8	13.2	23.9	30.9	18.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2.5	3.6	12.4	24.9	26.0	25.7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1.1	9.7	14.8	22.2	28.7	20.2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0.7	8.5	20.5	28.4	28.1	13.1
	5억 원 이상		216	0.2	5.8	17.8	30.3	32.0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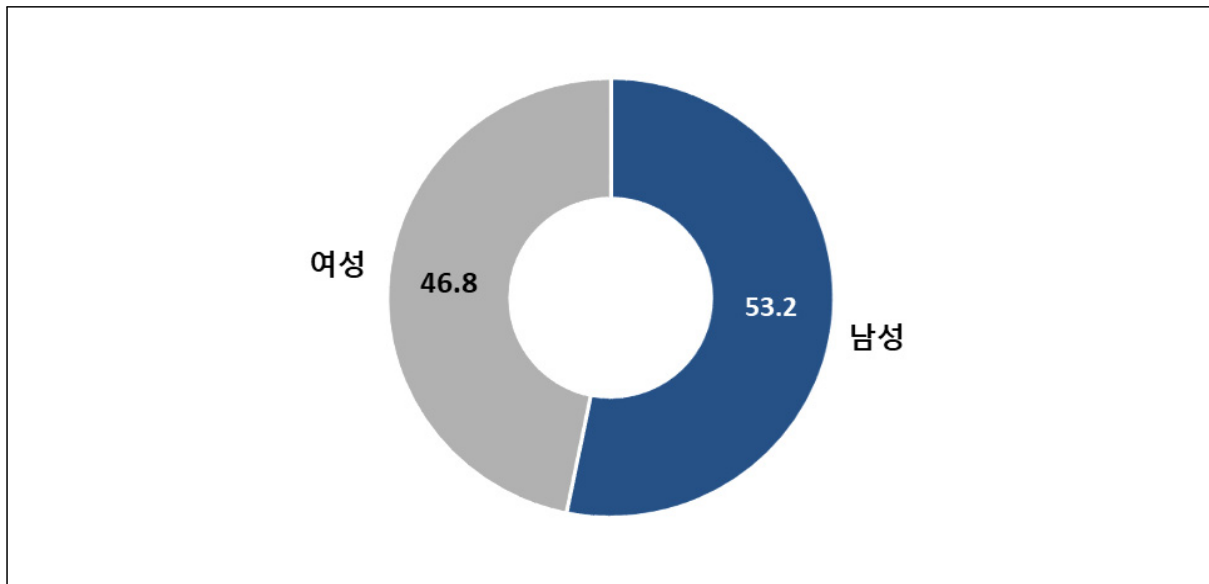
주: 중복응답한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적용한 비율임.

33) 주요 고객 성별

- 외식업체의 주요 고객 성별은 남성(53.2%)이 여성(46.8%)보다 많게 나타남.

〈그림 2-51〉 주요 고객 성별 분포

(단위: %)



- 일반음식점 외식업체의 주요 고객 성별은 남성 55.7%, 여성 44.3%로 파악됨.
- 세부 업종별로는 일식(56.7%), 한식과 중식(각 56.4%)은 남성 비중이 더 높고, 서양식(58.7%)과 기타 외국식(51.8%)은 여성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주요 고객 성별은 남성 50.7%, 여성 49.3%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는 주점업(69.1%), 기관 구내식당업(66.3%), 치킨 전문점(55.6%)은 남성 고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제과점(62.7%), 비알코올 음료점업(60.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58.5%),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56.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55.9%), 출장·이동음식점업(50.2%)은 여성 고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56-1〉 사업장 특성별 주요 고객 성별 분포(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남성	여성		
				평균	평균		
전체			3,138	53.2	46.8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55.7	44.3	
		한식		1,091	56.4	43.6	
		중식		158	56.4	43.6	
		일식		117	56.7	43.3	
		서양식		118	41.3	58.7	
		기타 외국식		72	48.2	51.8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50.7	49.3	
		기관 구내식당업		78	66.3	33.7	
		출장·이동음식점업		78	49.8	50.2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37.3	62.7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44.1	55.9
			치킨 전문점		172	55.6	44.4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44.0	56.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41.5	58.5
		주점업		318	69.1	30.9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39.9	60.1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49.5	50.5		
	비프랜차이즈		2,114	54.6	45.4		
지역	서울권		491	50.0	50.0		
	수도권		595	53.8	46.2		
	충청권		581	52.4	47.6		
	호남권		467	53.1	46.9		
	경남권		611	53.8	46.2		
	경북권		393	56.8	43.2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56.8	43.2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53.6	46.4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53.0	47.0		
	5억 원 이상		446	52.6	47.4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여성 고객 비중(50.5%)이 남성 고객 비중(49.5%)에 비해 높음.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은 남성 고객 비중(53.7%)이 여성 고객 비중(46.3%)에 비해 높고, 세부 업종별로는 한식(55.6%)과 중식(53.2%)에서 남성 고객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서양식(56.2%), 기타 외국식(54.9%), 일식(50.9%)은 여성 고객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에서는 고객 비중이 남성 47.3%, 여성 52.7%로 나타남. 세부 업종별로는 기관 구내식당업(65.4%), 주점업(64.0%), 치킨 전문점(55.6%)에서 남성 고객 비중이 높고, 제과점(62.3%), 비알코올 음료점업(58.9%) 등에서는 여성 고객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2-56-2〉 사업장 특성별 주요 고객 성별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남성	여성	
전체			1,024	49.5	50.5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53.7	46.3	
		한식	197	55.6	44.4	
		중식	23	53.2	46.8	
		일식	29	49.1	50.9	
		서양식	46	43.8	56.2	
		기타 외국식	36	45.1	54.9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47.3	52.7
	기관 구내식당업		21	65.4	34.6	
	출장·이동음식점업		5	45.5	54.5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37.7	62.3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43.7	56.3
			치킨 전문점	127	55.6	44.4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41.7	58.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42.6	57.4
	주점업		69	64.0	36.0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41.1	58.9		
지역	서울권		166	44.5	55.5	
	수도권		233	49.3	50.7	
	충청권		165	50.5	49.5	
	호남권		118	51.0	49.0	
	경남권		258	50.3	49.7	
	경북권		84	52.0	48.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32.1	67.9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46.5	53.5	
	1억 원~5억 원 미만		721	49.7	50.3	
	5억 원 이상		230	50.5	49.5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고객 성별 분포는 남성 54.6%, 여성 45.4%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은 남성 56.1%, 여성 43.9%인데, 세부 업종별로는 일식(58.6%)과 중식(56.8%), 한식(56.6%), 기타 외국식(50.9%)의 경우 남성 고객이 더 많고, 서양식(60.1%)은 여성 고객이 더 많음.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는 남성 52.6%, 여성 47.4%로 나타남. 세부 업종별로는 주점업(69.9%), 기관 구내식당업(66.6%) 등의 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과점(62.9%), 비알코올 음료점업(60.6%) 등의 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56-3〉 사업장 특성별 주요 고객 성별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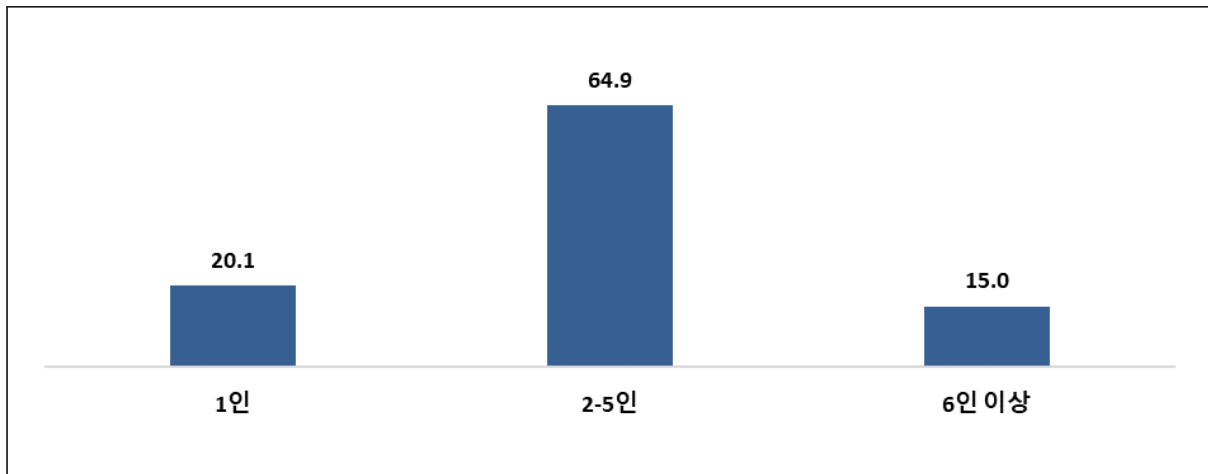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남성	여성	
전체			2,114	54.6	45.4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56.1	43.9	
		한식	894	56.6	43.4	
		중식	135	56.8	43.2	
		일식	88	58.6	41.4	
		서양식	72	39.9	60.1	
		기타 외국식	36	50.9	49.1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52.6	47.4
	기관 구내식당업		57	66.6	33.4	
	출장·이동음식점업		73	50.3	49.7	
			제과점	84	37.1	62.9
	기타 음식점업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45.9	54.1
			치킨 전문점	45	55.6	44.4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45.5	54.5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40.5	59.5
	주점업		249	69.9	30.1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39.4	60.6	
	지역		서울권		325	52.0
		수도권		362	55.9	44.1
충청권		416	53.1	46.9		
호남권		349	53.7	46.3		
경남권		353	55.9	44.1		
경북권		309	57.8	42.2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57.7	42.3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54.6	45.4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54.4	45.6	
	5억 원 이상		216	54.5	45.5	

34) 주요 유입 고객

○ 외식업체의 주요 유입 고객은 1인 20.1%, 2~5인 64.9%, 6인 이상 15.0%로 나타남.

〈그림 2-52〉 주요 유입 고객 분포

(단위: %)



- 일반음식점 외식업체의 주요 유입 고객은 1인 14.9%, 2~5인 68.5%, 6인 이상 16.6%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는 전반적으로 2~5인 고객 비중이 높은 가운데, 중식은 1인 고객 비중(18.8%)이 비교적 높고, 일식 음식점은 6인 이상 단체 고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주요 유입 고객은 1인 25.6%, 2~5인 61.1%, 6인 이상 13.3%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는 제과점과 기관 구내식당은 1인 고객 비중이 비교적 높지만, 출장·이동음식점업은 6인 이상 단체고객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22.4%)과 경남권(21.2%)의 1인 고객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 업체의 1인 고객 비중은 36.3%인데 반해 5억 원 이상 업체의 1인 고객 비중은 14.4%임.

〈표 2-57-1〉 사업장 특성별 주요 유입 고객 분포(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1인	2~5인	6인 이상	
전체			3,138	20.1	64.9	15.0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14.9	68.5	16.6	
		한식	1,091	14.7	68.5	16.8	
		중식	158	18.8	65.6	15.6	
		일식	117	13.1	68.4	18.5	
		서양식	118	13.7	73.0	13.3	
		기타 외국식	72	16.1	67.1	16.8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25.6	61.1	13.3	
		기관 구내식당업	78	42.0	35.4	22.6	
		출장·이동음식점업	78	16.8	34.7	48.5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46.6	44.4	8.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26.9	59.8	13.3
			치킨 전문점	172	19.2	66.5	14.3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31.8	56.9	11.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43.2	45.6	11.3
		주점업	318	13.6	71.1	15.2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27.5	60.1	12.4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22.6	62.1	15.2		
	비프랜차이즈	2,114	19.2	65.8	14.9		
지역	서울권	491	18.9	65.8	15.3		
	수도권	595	22.4	63.3	14.3		
	충청권	581	20.7	63.5	15.8		
	호남권	467	19.5	68.9	11.7		
	경남권	611	21.2	63.0	15.8		
	경북권	393	16.7	65.4	17.9		
매출 액	5천만 원 미만	92	36.3	57.4	6.4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26.2	63.1	10.7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18.5	65.8	15.7		
	5억 원 이상	446	14.4	63.9	21.7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주요 유입 고객 분포는 1인 22.6%, 2~5인 62.1%, 6인 이상 15.2%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주요 유입 고객 분포는 1인 12.9%, 2~5인 68.7%, 6인 이상 18.4%임.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주요 유입 고객은 1인 27.7%, 2~5인 58.8%, 6인 이상 13.6%로 나타남. 세부 업종별로는 기관 구내식당업(50.3%)과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46.9%)의 1인 고객 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호남권(27.7%)은 1인 고객 비중이 비교적 높음.

〈표 2-57-2〉 사업장 특성별 주요 유입 고객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1인	2~5인	6인 이상
전체			1,024	22.6	62.1	15.2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12.9	68.7	18.4
		한식	197	12.2	68.4	19.4
		중식	23	15.6	68.2	16.2
		일식	29	17.0	62.9	20.2
		서양식	46	12.4	75.8	11.8
		기타 외국식	36	17.0	68.5	14.6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27.7	58.8	13.6
		기관 구내식당업	21	50.3	26.4	23.3
		출장·이동음식점업	5	13.6	60.1	26.3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44.9	9.4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60.2	14.2
			치킨 전문점	127	67.3	15.5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56.5	10.9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46.9	11.0
			주점업	69	9.8	16.4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32.3	54.8	12.8
지역	서울권		166	25.7	60.2	14.1
	수도권		233	24.1	61.6	14.3
	충청권		165	19.8	62.8	17.4
	호남권		118	27.7	62.5	9.7
	경남권		258	20.5	62.8	16.6
	경북권		84	17.5	62.8	19.7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52.1	42.1	5.7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35.7	52.7	11.6
	1억 원~5억 원 미만		721	22.0	63.2	14.8
	5억 원 이상		230	18.0	61.9	20.1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주요 유입 고객 분포는 1인 19.2%, 2~5인 65.8%, 6인 이상 14.9%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주요 유입 고객 분포는 1인 15.4%, 2~5인 68.4%, 6인 이상 16.2%인 것으로 파악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주요 유입 고객은 1인 24.4%, 2~5인 62.4%, 6인 이상 13.2%이며, 세부 업종별로는 제과점(47.2%)의 1인 고객 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편임.
- 지역별로 경남권(21.7%)과 수도권(21.5%)은 1인 고객 비중이 비교적 높음.

〈표 2-57-3〉 사업장 특성별 주요 유입 고객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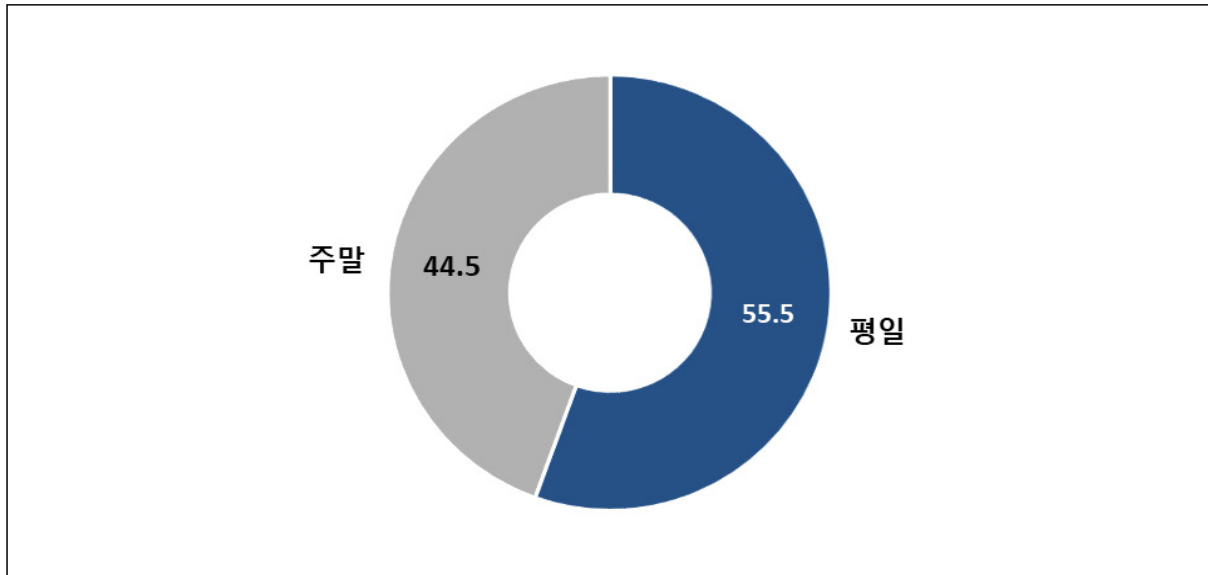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인	2~5인	6인 이상
전체			2,114	19.2	65.8	14.9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15.4	68.4	16.2
		한식	894	15.2	68.5	16.2
		중식	135	19.2	65.3	15.5
		일식	88	12.2	69.8	18.1
		서양식	72	14.4	71.6	14.0
		기타 외국식	36	15.4	65.9	18.7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24.4	62.4	13.2
		기관 구내식당업	57	39.3	38.4	22.3
		출장·이동음식점업	73	17.2	32.0	50.8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47.2	8.7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57.3	9.2
			치킨 전문점	45	23.8	11.5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31.3	11.5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39.9	11.5
		주점업	249	14.3	70.7	15.0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25.5	62.4	12.1
	지역	서울권	325	16.6	67.7	15.7
		수도권	362	21.5	64.1	14.3
		충청권	416	20.9	63.7	15.3
		호남권	349	17.4	70.4	12.1
		경남권	353	21.7	63.0	15.3
		경북권	309	16.5	65.9	17.5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35.7	57.9	6.4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24.8	64.6	10.6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17.1	66.8	16.1
	5억 원 이상		216	11.4	65.5	23.1

35) 요일별 매출액 비중

- 외식업체의 요일별 매출액 비중은 주말(44.5%)보다 평일(55.5%)이 더 높음.

〈그림 2-53〉 요일별 매출액 비중

(단위: %)



- 일반음식점 외식업체의 요일별 매출액 비중은 평일 55.7%, 주말 44.3%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에서 평일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요일별 매출액 비중은 평일 55.2%, 주말 44.8%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는 기관 구내식당업(82.4%),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58.1%),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57.3%), 출장·이동음식점업(57.0%) 등의 순으로 평일 비중이 더 높음.

〈표 2-58-1〉 사업장 특성별 요일별 매출액 비중(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평일	주말
전체			3,138	55.5	44.5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55.7	44.3
		한식	1,091	56.0	44.0
		중식	158	53.8	46.2
		일식	117	57.4	42.6
		서양식	118	52.5	47.5
		기타 외국식	72	55.9	44.1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55.2	44.8
		기관 구내식당업	78	82.4	17.6
		출장·이동음식점업	78	57.0	43.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43.8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49.3
			치킨 전문점	172	52.6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42.7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41.9
		주점업	318	54.7	45.3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55.5	44.5
경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53.8	46.2
	비프랜차이즈		2,114	56.1	43.9
지역	서울권		491	56.7	43.3
	수도권		595	58.9	41.1
	충청권		581	55.5	44.5
	호남권		467	51.9	48.1
	경남권		611	53.6	46.4
	경북권		393	56.6	43.4
매출 액	5천만 원 미만		92	57.3	42.7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57.5	42.5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55.1	44.9
	5억 원 이상		446	53.6	46.4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평일 매출액 비중(53.8%)이 주말 비중(46.2%)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은 평일 비중(53.4%)이 주말 비중(46.6%)에 비해 높음.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에서는 요일별 매출액 비중이 평일 54.1%, 주말 45.9%로 조사됨. 세부 업종별로는 기관 구내식당업(82.3%), 출장·이동음식점업(61.5%),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60.8%) 등의 순으로 평일 매출액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2-58-2〉 사업장 특성별 요일별 매출액 비중(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평일	주말
전체			1,024	53.8	46.2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53.4	46.6
		한식	197	53.0	47.0
		중식	23	54.2	45.8
		일식	29	56.4	43.6
		서양식	46	52.1	47.9
		기타 외국식	36	58.6	41.4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54.1	45.9
		기관 구내식당업	21	82.3	17.7
		출장·이동음식점업	5	61.5	38.5
		제과점	82	56.4	43.6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50.1	49.9
		기타 음식점업	127	47.3	52.7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58.7	41.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60.8	39.2
		주점업	69	53.7	46.3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56.0	44.0
지역	서울권		166	56.7	43.3
	수도권		233	57.9	42.1
	충청권		165	58.8	41.2
	호남권		118	45.6	54.4
	경남권		258	49.3	50.7
	경북권		84	55.6	44.4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54.3	45.7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59.5	40.5
	1억 원~5억 원 미만		721	53.4	46.6
	5억 원 이상		230	53.0	47.0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요일별 매출액 분포는 평일 56.1%, 주말 43.9%로 나타나, 프랜차이즈 업체보다는 평일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은 평일 56.2%, 주말 43.8%이며, 세부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에서 평일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업체는 평일 55.8%, 주말 44.2%로 나타남. 세부 업종별로는 기관 구내식당업(82.4%), 출장·이동음식점업(56.6%),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56.4%) 등의 순으로 평일 비중이 높음.

〈표 2-58-3〉 사업장 특성별 요일별 매출액 비중(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평일	주말
전체			2,114	56.1	43.9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56.2	43.8
		한식	894	56.6	43.4
		중식	135	53.7	46.3
		일식	88	57.7	42.3
		서양식	72	52.8	47.2
		기타 외국식	36	53.6	46.4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55.8	44.2
		기관 구내식당업	57	82.4	17.6
		출장·이동음식점업	73	56.6	43.4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43.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46.4
			치킨 전문점	45	52.4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43.6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44.3
		주점업	249	54.9	45.1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55.3	44.7
지역	서울권		325	56.8	43.2
	수도권		362	59.4	40.6
	충청권		416	54.5	45.5
	호남권		349	53.4	46.6
	경남권		353	56.1	43.9
	경북권		309	56.8	43.2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57.4	42.6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57.2	42.8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55.8	44.2
	5억 원 이상		216	54.1	45.9

36) 대표메뉴 및 가격⁵⁾

- 18개 업종의 대표메뉴와 가격은 다음의 표와 같음.
- 18개 업종의 대표메뉴와 가격을 살펴본 결과, 한식의 경우 대표메뉴로 구이(돼지고기)가 가장 많고, 평균 금액은 15,264원으로 조사됨. 중식의 대표메뉴는 짜장면과 짬뽕, 일식은 초밥과 회로 나타남.

〈표 2-59-1〉 대표메뉴별 평균 금액 - 한식/중식/일식 음식점

(단위: 원)

1. 한식 음식점업			2. 중식 음식점업			3. 일식 음식점업		
메뉴	업체 수	평균 금액	메뉴	업체 수	평균 금액	메뉴	업체 수	평균 금액
한식	3,273	15,683	중식 음식점업	474	10,397	일식 음식점업	351	22,891
구이(돼지고기)	351	15,264	짜장면	143	7,276	초밥	87	22,577
회	205	28,691	짬뽕	140	8,801	회	45	38,586
국밥	156	9,557	탕수육	69	14,352	돈까스	34	10,931
국수	141	7,894	밥/밥류	18	7,943	정식	24	28,720
찌개	139	9,895	중국음식/중식	18	17,789	일본식 요리(타코야끼/ 오꼬노미야끼 등)	19	22,797
칼국수	138	8,264	마라탕/마라샹궈	18	14,594	회덮밥	17	12,839
갈비/갈비살	125	19,867	우동	8	7,629	덮밥류	12	15,124
탕류(고기류)	102	15,464	양고기	7	14,985	구이(돼지고기)	8	13,962
구이(생선)	93	21,263	꼬치구이	5	12,450	우동	7	10,560
구이(소고기)	87	28,043	볶음요리	3	27,487	면류	7	10,028
면류	77	8,045	만두	3	7,156	세트	5	24,637
탕(생선)	74	14,187	잡채밥	3	11,667	코스	5	55,952
생선/해물 요리	72	19,233	면류	3	7,899	밥/밥류	4	17,321
밥/밥류	63	8,561	갈비/갈비살	2	22,500	부페	4	28,642
삼계탕/닭백숙	59	24,244	간pong기	2	27,626	스페셜/특선	4	44,206
탕(해물)	56	16,959	짜장밥	2	7,461	꼬치구이	3	8,333
정식	56	13,986	짬뽕탕	2	8,922	탕(생선)	3	16,575
만두	48	6,079	수육	2	13,877	생선까스	3	10,594
볶음요리	45	12,954	세트	2	18,739	스테이크	3	20,333
찜(생선류)	41	24,475	감자요리	1	16,000	카레/카레라이스	3	12,151
오리고기 요리	40	26,812	닭발구이/볶음	1	14,000	튀김	3	14,715
전골	38	22,820	찜(생선류)	1	33,000	생선/해물 요리	3	31,674
족발	37	22,369	부침개/전	1	90,000	만두	2	9,250
부침개/전	36	15,678	불고기	1	10,000	규가츠	2	13,625
찜(기타)	33	16,991	삼계탕/닭백숙	1	12,000	치킨	2	16,757
백반	33	8,984	양장피	1	42,000	구이(소고기)	2	71,729
국류	32	9,743	칼국수	1	8,000	장어덮밥	2	39,000
불고기	31	14,160	피자	1	15,500	갈비/갈비살	1	11,000
한식/한정식	27	13,491	오징어/오징어요리	1	9,000	국밥	1	9,000
순대	26	9,166	닭고기요리	1	15,000	김밥	1	10,000

5) 업체 수가 적은 메뉴를 제외하고, 업종별로 대표적인 메뉴만을 제시함.

- 서양식의 평균 금액은 약 15,183원으로 분석됨. 대표메뉴는 돈까스이며, 평균 금액이 약 11,148원으로 전체 평균 금액보다 작게 조사됨. 기타 외국식의 경우 평균 금액은 약 12,276원이며, 가장 많은 메뉴는 동남아 음식/외국 음식임.

〈표 2-59-2〉 대표메뉴별 평균 금액 - 서양식/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단위: 원)

4. 서양식 음식점업			5.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메뉴	업체 수	평균 금액	메뉴	업체 수	평균 금액
서양식 음식점업	354	15,183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216	12,276
돈까스	87	11,148	동남아 음식/외국 음식	66	13,067
스파게티	85	13,990	국수	45	10,178
양식	25	18,238	쌀국수	17	9,613
스테이크	18	25,298	월남쌈	13	25,996

- 기관 구내식당업의 평균 금액은 약 6,946원이며, 가장 많은 메뉴는 백반으로 나타남. 출장·이동음식점업의 평균 금액은 약 20,552원이며, 가장 많은 메뉴는 뷔페로 평균 금액은 약 28,240원임.

〈표 2-59-3〉 대표메뉴별 평균 금액 - 기관 구내식당업/출장 및 이동 음식 서비스업

(단위: 원)

6. 기관 구내식당업			7. 출장 및 이동 음식 서비스업		
메뉴	업체 수	평균 금액	메뉴	업체 수	평균 금액
기관 구내식당업	234	6,946	출장·이동음식점업	234	20,552
백반	32	7,270	뷔페	44	28,240
정식	21	6,944	정식	21	33,509
찌개	11	7,941	한식/한정식	18	70,324
볶음요리	9	6,206	잡채	7	15,000

- 제과점의 평균 금액은 약 5,760원으로 나타남. 대표메뉴는 빵이며, 평균 가격이 약 3,959원임.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의 평균 금액은 약 12,193원이며, 가장 많은 메뉴는 피자로 평균 가격은 약 16,449원으로 조사됨. 치킨 전문점 평균 금액은 약 15,479원으로 파악됨.

〈표 2-59-4〉 대표메뉴별 평균 금액 - 제과점업/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치킨 전문점

(단위: 원)

8. 제과점			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0. 치킨 전문점		
메뉴	업체 수	평균 금액	메뉴	업체 수	평균 금액	메뉴	업체 수	평균 금액
제과	498	5,76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429	12,193	치킨 전문점	516	15,479
빵	309	3,959	피자	164	16,449	치킨	425	15,649
케익	37	24,093	햄버거	104	8,610	닭강정	13	16,582
커피	35	3,670	토스트	22	3,432	구이(닭)	8	15,542
파배기	20	1,935	치킨	20	14,297	햄버거	6	7,217
디저트	14	5,956	커피	15	4,184	떡볶이	3	14,667

-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의 평균 금액은 약 6,117원으로 나타남. 가장 많은 메뉴는 김밥이며, 평균 가격은 약 4,139원으로 집계됨.
-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의 평균 금액은 약 29,398원이며, 가장 많은 메뉴는 만두로 조사됨.

〈표 2-59-5〉 대표메뉴별 평균 금액 -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단위: 원)

11.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2.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메뉴	업체 수	평균 금액	메뉴	업체 수	평균 금액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609	6,117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216	29,398
김밥	174	4,139	만두	30	5,926
떡볶이	68	6,523	핫도그	30	5,639
아이스크림	46	14,730	떡볶이	12	7,687
면류	38	5,889	찌개	10	13,048
만두	34	5,387	김밥	6	3,807
돈까스	30	9,345	돈까스	6	10,332
밥/밥류	25	6,625	빵	6	2,338
어묵/핫바	16	3,850	디저트	6	2,613
국수	12	6,643	과배기	6	3,286
순대	12	4,186	부침개/전	5	9,800
우동	11	5,331	튀김	5	829
빙수	10	10,588	스낵류/쿠키/과자	4	7,145

- 일반 유흥주점업의 평균 금액은 약 24,444원으로 나타남. 가장 많은 메뉴는 마른안주/안주이며, 평균 가격이 약 21,619원으로 조사됨.
- 무도 유흥주점업의 평균 금액은 약 14,002원으로 나타남. 가장 많은 메뉴는 과일이며, 평균 가격이 약 18,268원으로 파악됨.

〈표 2-59-6〉 대표메뉴별 평균 금액 - 일반 유흥주점업/무도 유흥주점업

(단위: 원)

13. 일반 유흥주점업			14. 무도 유흥주점업		
메뉴	업체 수	평균 금액	메뉴	업체 수	평균 금액
일반 유흥주점업	123	24,444	무도 유흥주점업	105	14,002
마른안주/안주	36	21,619	과일	22	18,268
과일	25	22,072	마른안주/안주	21	14,915

- 생맥주 전문점의 평균 금액은 약 14,925원이며, 평균 술 가격은 약 8,870원으로 나타남. 기타 주점업의 평균 금액은 약 16,511원이며, 평균 술 가격은 약 14,084원으로 조사됨.

〈표 2-59-7〉 대표메뉴별 평균 금액 - 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업

(단위: 원)

15. 생맥주 전문점			16. 기타 주점업		
메뉴	업체 수	평균 금액	메뉴	업체 수	평균 금액
생맥주 전문점	228	14,925	기타 주점업	498	16,511
치킨	32	16,690	마른안주/안주	45	15,768
술	31	8,870	술	39	14,084
마른안주/안주	27	14,405	부침개/전	30	15,971
과일	14	18,227	치킨	24	16,204
피자	11	16,286	과일	23	23,259
닭고기요리	7	14,576	볶음요리	17	13,605
소시지/햄	7	16,982	구이(돼지고기)	16	13,314
골뱅이	7	23,914	회	16	34,007
탕(해물)	6	20,352	닭발 구이/볶음	15	15,477
부침개/전	5	13,237	생선/해물 요리	15	18,050
찌개	5	10,071	골뱅이	14	13,483
감자요리	4	14,732	닭도리탕/닭볶음탕	11	19,454
꼬치구이	4	8,372	어묵탕	10	10,597

○ 커피 전문점의 평균 금액은 약 4,650원이며, 대표메뉴인 커피의 평균 금액은 약 4,118원임.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의 대표메뉴인 커피의 평균 금액은 약 3,886원으로 조사됨.

〈표 2-59-8〉 대표메뉴별 평균 금액 -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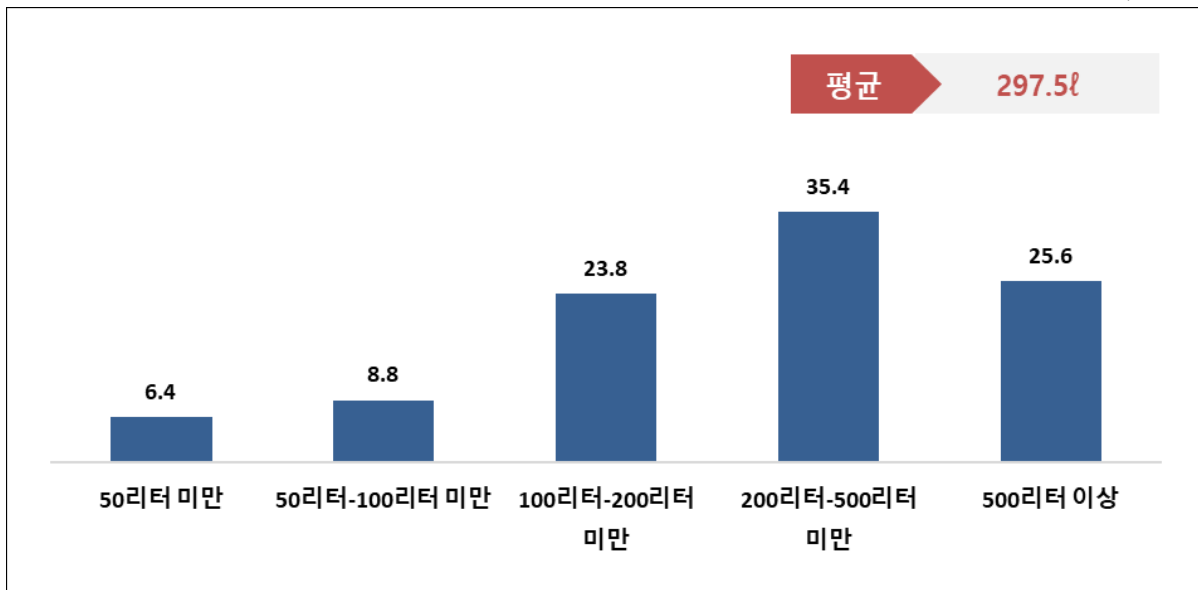
17. 커피 전문점			18.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메뉴	업체 수	평균 금액	메뉴	업체 수	평균 금액
커피 전문점	783	4,650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273	5,791
커피	530	4,118	커피	85	3,886
음료	73	5,017	차류(녹차/대추차/허브티 등)	62	5,619
차류(녹차/대추차/허브티 등)	52	4,868	음료	49	5,235
타스무디/스무디/슬러시	20	5,664	빵	11	4,973
빵	16	6,532	빙수	10	13,560

37) 월평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 월평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살펴보면, 200~500 ℓ 미만(35.4%)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500 ℓ 이상(25.6%), 100~200 ℓ 미만(23.8%), 50 ℓ ~100 ℓ 미만(8.8%), 50 ℓ 미만(6.4%) 순으로 나타남.
- 월평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390.8 ℓ로 집계됨.

〈그림 2-54〉 월평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음식점 중 서양식이 653.6 ℓ,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에서 기관 구내식당업 1,168.2 ℓ로 비교적 큼.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94.5 ℓ로 가장 크며, 서울권(498.8 ℓ), 충청권(384.6 ℓ), 경북권(358.9 ℓ), 경남권(277.0 ℓ), 호남권(231.5 ℓ) 순으로 조사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에서 월평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774.5 ℓ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1억 원~5억 원 미만(403.5 ℓ), 5천만 원~1억 원 미만(200.6 ℓ), 5천만 원 미만(144.4 ℓ)의 순서로 파악됨.
- 매출액 규모별로 규모가 커질수록 월평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나타남.

〈표 2-60-1〉 월평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전체)

(단위: 개소, %, ℓ)

			사례수	50 ℓ 미만	50~100 ℓ 미만	100~200 ℓ 미만	200~500 ℓ 미만	500 ℓ 이상	평균	
전체			3,138	6.4	8.8	23.8	35.4	25.6	390.8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2.2	5.5	18.1	41.0	33.1	467.3	
		한식	1,091	2.6	5.8	18.3	41.4	31.9	450.3	
		중식	158	0.0	1.1	20.9	42.0	35.9	468.3	
		일식	117	1.1	6.8	22.0	34.4	35.8	546.6	
		서양식	118	2.0	6.6	8.2	39.3	43.9	653.6	
		기타 외국식	72	1.4	3.3	6.8	45.5	43.0	572.2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10.8	12.1	29.8	29.5	17.8	311.2	
		기관 구내식당업		78	1.1	0.1	20.6	23.8	54.4	1,168.2
		출장·이동음식점업		78	7.4	2.2	20.6	34.9	34.9	610.4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6.8	17.5	29.2	33.0	13.5	304.1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1.6	6.3	25.9	40.1	26.2	369.0
			치킨 전문점	172	3.2	8.5	34.4	31.1	22.8	335.3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3.8	8.1	28.6	38.4	21.1	303.5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9.9	8.7	23.6	36.1	21.6	334.1
		주점업		318	13.6	11.2	23.6	27.2	24.4	381.0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17.2	17.0	36.3	24.4	5.1	157.7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4.8	8.9	26.4	32.1	27.8	404.7	
	비프랜차이즈		2,114	7.0	8.7	22.9	36.5	24.8	385.7	
지역	서울권		491	2.4	2.9	18.9	38.7	37.1	498.8	
	수도권		595	10.0	8.9	24.0	22.0	35.1	594.5	
	충청권		581	4.1	5.6	16.0	46.9	27.4	384.6	
	호남권		467	13.5	22.6	21.0	31.0	11.8	231.5	
	경남권		611	0.7	6.2	41.6	33.6	18.0	277.0	
	경북권		393	8.9	5.7	17.0	42.9	25.5	358.9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19.5	22.8	28.5	27.3	1.8	144.4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16.3	17.0	30.4	25.5	10.8	200.6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4.0	6.8	22.7	39.1	27.3	403.5	
	5억 원 이상		446	1.5	2.5	18.2	26.3	51.6	774.5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평균 404.7ℓ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495.6ℓ, 일반음식점 외 업체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358.0ℓ 정도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665.2ℓ),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606.3ℓ) 업체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많음.

〈표 2-60-2〉 월평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ℓ)

			사례수	50 ℓ 미만	50~100 ℓ 미만	100~200 ℓ 미만	200~500 ℓ 미만	500 ℓ 이상	평균
전체			1,024	4.8	8.9	26.4	32.1	27.8	404.7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1.5	6.3	20.0	38.1	34.1	495.6
		한식	197	1.8	6.8	18.9	39.7	32.8	480.8
		중식	23	0.0	3.8	21.4	32.1	42.7	429.8
		일식	29	0.0	3.6	48.1	30.5	17.8	318.4
		서양식	46	0.0	5.6	15.9	37.2	41.3	671.0
		기타 외국식	36	3.1	4.0	8.1	29.3	55.5	758.8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6.5	10.3	29.6	29.1	24.6	358.0
		기관 구내식당업	21	0.0	0.4	10.9	22.9	65.9	1,218.7
		출장·이동음식점업	5	0.0	0.0	77.6	0.0	22.4	380.6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10.0	17.3	19.2	34.1	388.3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1.8	7.5	26.8	36.7	379.7
			치킨 전문점	127	1.5	10.2	35.5	26.5	358.3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4.6	7.2	16.3	38.8	376.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4.0	12.9	30.4	25.6	367.3
		주점업	69	1.7	8.2	20.4	28.7	41.0	558.3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15.6	12.6	41.5	21.2	9.1	181.4
지역	서울권		166	1.9	4.7	23.3	37.0	33.0	451.8
	수도권		233	5.1	6.3	19.1	30.4	39.2	665.2
	충청권		165	3.9	3.9	18.0	33.8	40.4	456.6
	호남권		118	19.1	36.0	16.0	21.7	7.3	157.1
	경남권		258	1.3	5.1	45.4	30.0	18.1	263.3
	경북권		84	0.0	4.6	21.7	49.2	24.5	350.9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21.3	50.0	0.0	28.7	0.0	129.0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15.9	20.4	24.2	26.6	13.0	285.2
	1억 원~5억 원 미만		721	4.0	8.6	27.7	33.1	26.5	381.7
	5억 원 이상		230	2.3	2.8	21.1	30.0	43.8	606.3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평균 385.7ℓ로 집계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461.2ℓ,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업체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285.0ℓ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수도권(561.4ℓ),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916.9ℓ) 업체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2-60-3〉 월평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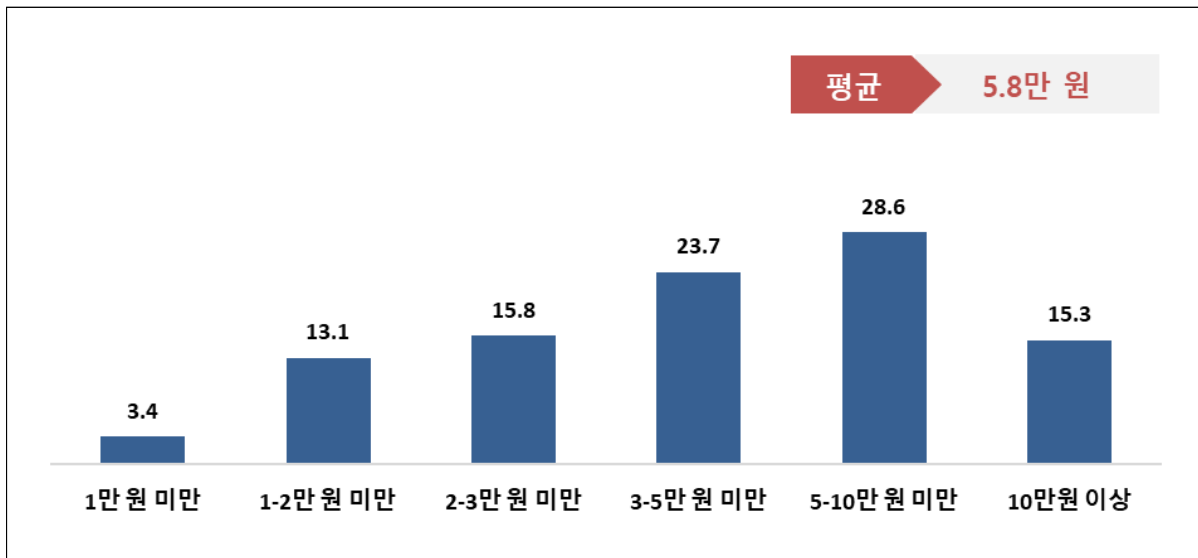
			사례수	50 ℓ 미만	50~100 ℓ 미만	100~200 ℓ 미만	200~500 ℓ 미만	500 ℓ 이상	평균
전체			2,114	7.0	8.7	22.9	36.5	24.8	385.7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2.4	5.3	17.7	41.7	32.9	461.2
		한식	894	2.7	5.6	18.2	41.7	31.7	444.2
		중식	135	0.0	0.8	20.8	43.4	35.0	473.6
		일식	88	1.3	7.6	15.5	35.4	40.3	603.6
		서양식	72	3.1	7.1	4.2	40.4	45.3	644.5
		기타 외국식	36	0.0	2.7	5.7	59.5	32.1	410.6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13.2	13.2	29.9	29.7	14.1	285.0
		기관 구내식당업	57	1.5	0.0	23.8	24.1	50.7	1,151.8
		출장·이동음식점업	73	8.2	2.4	14.6	38.6	36.2	634.6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4.6	17.6	36.2	32.3	246.1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0.7	0.0	21.1	56.4	316.1
			치킨 전문점	45	7.1	4.7	31.7	41.9	282.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3.3	8.7	36.7	38.2	256.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15.2	5.0	17.6	45.5	304.4
		주점업	249	15.7	11.8	24.1	26.9	21.5	349.7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17.9	18.9	34.1	25.7	3.3	147.4
지역	서울권		325	2.6	2.2	17.4	39.2	38.5	515.1
	수도권		362	12.3	10.1	26.3	18.1	33.2	561.4
	충청권		416	4.1	6.2	15.3	51.3	23.1	360.7
	호남권		349	12.1	19.3	22.3	33.3	12.9	249.9
	경남권		353	0.4	6.8	39.3	35.6	17.9	285.0
	경북권		309	10.6	5.9	16.2	41.7	25.7	360.5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19.5	21.8	29.5	27.3	1.9	144.9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16.4	16.5	31.3	25.3	10.5	188.5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4.0	6.1	20.7	41.5	27.6	412.4
	5억 원 이상		216	0.8	2.2	15.6	23.2	58.2	916.9

38) 월평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 월평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평균 5.8만 원이며, 5만 원~10만 원 미만(28.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3만 원~5만 원 미만(23.7%), 2만 원~3만 원 미만(15.8%), 10만 원 이상(15.3%), 1만 원~2만 원 미만(13.1%), 1만 원 미만(3.4%) 순임.

〈그림 2-55〉 월평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음식점 중 중식과 일식, 서양식이 7.2만 원,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에서 기관 구내식당업이 21.1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권이 8.5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수도권(6.8만 원), 서울권, 경북권(각 5.1만 원), 경남권(4.6만 원), 호남권(4.3만 원) 순으로 파악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에서 월평균 쓰레기 처리비용이 12.1만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억 원~5억 원 미만(5.8만 원), 5천만 원~1억 원 미만(3.4만 원), 5천만 미만(2.3만 원) 등임.
 - 매출액 규모별로 규모가 커질수록 월평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높아짐.

〈표 2-61-1〉 월평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전체)

(단위: 개소, %, 만 원)

			사례수	1만 원 미만	1~2만 원 미만	2~3만 원 미만	3~5만 원 미만	5~10만 원 미만	10만 원 이상	평균
전체			3,138	3.4	13.1	15.8	23.7	28.6	15.3	5.8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1.2	9.3	12.2	24.3	34.3	18.7	6.6
		한식	1,091	1.4	9.6	12.3	24.6	33.3	18.8	6.5
		중식	158	0.0	8.9	12.4	22.3	41.6	14.9	7.2
		일식	117	0.0	8.0	10.7	19.9	41.6	19.8	7.2
		서양식	118	1.0	8.2	12.5	23.7	32.7	21.9	7.2
		기타 외국식	72	0.0	4.5	9.4	32.9	29.2	23.9	7.1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5.8	17.2	19.6	23.1	22.6	11.7	4.9
		기관 구내식당업	78	1.1	7.3	8.4	17.0	24.1	42.1	21.1
		출장·이동음식점업	78	0.0	18.3	13.9	22.1	23.8	21.8	6.3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7.1	26.9	16.0	18.2	20.9	3.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0.0	14.8	25.3	16.2	28.9	5.8
			치킨 전문점	172	3.9	8.8	15.9	17.1	32.7	6.7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1.6	17.4	16.3	29.2	19.7	4.9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5.5	17.4	12.3	25.0	24.5	4.7
		주점업	318	6.9	11.5	22.1	23.9	26.8	8.8	4.4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8.4	23.7	21.0	25.2	15.7	6.0	3.4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2.3	13.8	13.3	21.4	26.8	22.4	6.8
	비프랜차이즈		2,114	3.9	12.9	16.7	24.5	29.3	12.7	5.4
지역	서울권		491	0.6	8.6	19.0	27.1	32.9	11.8	5.1
	수도권		595	2.2	5.5	12.5	28.3	36.5	15.0	6.8
	충청권		581	3.2	4.4	11.1	23.8	33.0	24.6	8.5
	호남권		467	9.7	18.3	21.7	17.5	19.9	12.8	4.3
	경남권		611	0.8	27.2	12.6	21.7	22.7	14.9	4.6
	경북권		393	4.9	13.8	20.8	24.3	26.1	10.2	5.1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13.6	32.0	22.1	17.5	14.4	0.4	2.3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8.8	20.9	24.5	20.8	17.8	7.1	3.4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2.0	11.3	14.6	25.8	31.0	15.3	5.8
	5억 원 이상		446	0.7	5.2	5.6	14.5	35.7	38.2	12.1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평균 6.8만 원임.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8.0만 원,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6.2만 원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충청권(11.8만 원),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11.1만 원) 업체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높음.

〈표 2-61-2〉 월평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만 원)

			사례수	1만 원 미만	1~2만 원 미만	2~3만 원 미만	3~5만 원 미만	5~10만 원 미만	10만 원 이상	평균
전체			1,024	2.3	13.8	13.3	21.4	26.8	22.4	6.8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1.0	11.0	9.5	21.0	29.4	28.2	8.0
		한식	197	1.3	11.5	9.0	21.5	27.7	29.0	8.0
		중식	23	0.0	5.6	10.3	17.0	50.0	17.1	7.9
		일식	29	0.0	13.1	15.4	10.5	36.6	24.5	5.9
		서양식	46	0.0	10.2	10.5	24.1	27.5	27.8	8.6
		기타 외국식	36	0.0	6.6	6.0	24.6	28.3	34.5	9.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3.0	15.2	15.2	21.7	25.4	19.5	6.2
		기관 구내식당업	21	0.0	4.5	10.5	18.4	16.7	49.9	20.9
		출장·이동음식점업	5	0.0	77.6	0.0	0.0	14.9	7.5	3.8
		제과점	82	2.7	22.7	9.9	22.5	29.2	13.0	4.7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0.0	16.5	21.1	15.9	29.5	17.0	6.1
		치킨 전문점	127	2.5	12.6	16.3	13.0	30.0	25.7	7.2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2.5	11.1	13.8	31.2	21.2	20.2	6.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5.4	15.1	12.9	13.7	25.6	27.4	5.9
		주점업	69	5.4	4.5	9.4	27.8	28.0	24.8	7.4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4.4	21.1	16.3	25.5	20.0	12.7	4.7
지역	서울권		166	0.0	9.0	18.0	29.0	31.3	12.8	5.1
	수도권		233	0.7	1.5	12.8	25.9	39.1	20.0	8.3
	충청권		165	1.1	6.7	13.5	17.8	19.7	41.2	11.8
	호남권		118	12.1	18.0	22.5	7.6	17.0	22.7	4.5
	경남권		258	1.7	29.9	7.2	20.3	20.5	20.4	4.8
	경북권		84	0.0	9.7	11.3	29.3	36.8	12.9	5.5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0.0	28.7	21.3	28.7	21.3	0.0	2.6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7.6	20.2	28.0	17.0	9.9	17.3	4.6
	1억 원~5억 원 미만		721	2.0	14.2	12.6	23.1	27.6	20.6	6.3
	5억 원 이상		230	1.4	7.3	8.9	14.4	31.7	36.3	11.1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평균 5.4만 원으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6.3만 원,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4.2만 원으로 집계됨.
- 지역별로는 충청권(7.4만 원),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12.9만 원) 업체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높은 편임.

〈표 2-61-3〉 월평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만 원)

			사례수	1만 원 미만	1~2만 원 미만	2~3만 원 미만	3~5만 원 미만	5~10만 원 미만	10만 원 이상	평균	
전체			2,114	3.9	12.9	16.7	24.5	29.3	12.7	5.4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1.3	8.9	12.8	25.0	35.4	16.7	6.3	
		한식	894	1.5	9.2	12.9	25.2	34.5	16.7	6.2	
		중식	135	0.0	9.3	12.7	23.0	40.4	14.6	7.1	
		일식	88	0.0	6.7	9.6	22.3	42.8	18.6	7.6	
		서양식	72	1.5	7.1	13.6	23.6	35.4	18.8	6.5	
		기타 외국식	36	0.0	2.7	12.3	40.2	30.1	14.7	5.5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7.3	18.3	22.0	24.0	21.1	7.3	4.2	
		기관 구내식당업	57	1.5	8.2	7.7	16.6	26.6	39.5	21.1	
		출장·이동음식점업	73	0.0	12.1	15.3	24.4	24.8	23.4	6.6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10.1	29.8	20.3	15.2	15.2	9.4	3.4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0.0	6.4	46.0	17.3	26.1	4.2	4.4
			치킨 전문점	45	7.1	0.0	15.1	26.6	38.9	12.3	5.6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1.1	21.5	17.9	27.9	18.8	12.8	4.2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5.6	19.4	11.8	35.0	23.4	4.8	3.6
		주점업	249	7.1	12.7	24.3	23.3	26.6	5.9	3.9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10.2	24.8	23.0	25.1	13.9	3.1	2.9	
지역	서울권		325	0.8	8.5	19.3	26.4	33.4	11.5	5.2	
	수도권		362	2.9	7.3	12.4	29.4	35.3	12.6	6.1	
	충청권		416	3.9	3.6	10.3	25.8	37.4	19.1	7.4	
	호남권		349	9.2	18.4	21.5	19.9	20.6	10.4	4.3	
	경남권		353	0.2	25.7	15.8	22.5	24.0	11.7	4.4	
	경북권		309	5.8	14.5	22.6	23.4	24.1	9.7	5.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14.1	32.1	22.2	17.1	14.1	0.4	2.3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9.0	21.0	24.0	21.4	19.0	5.6	3.3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2.0	10.1	15.5	26.8	32.4	13.2	5.6	
	5억 원 이상		216	0.1	3.4	2.8	14.6	39.2	39.9	12.9	



3편: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1. 전체 외식업체
2. 일반음식점
3. 한식

3편: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요약

1) 조사 개요

- 본 편에서는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제시함. 주요 문항은 매출액, 객단가,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 근로자 수, 근로일 수, 인건비, 경영상 애로사항, 업종 전환 의향 여부 등의 영업 사항과 영업비용, 영업이익 등 사업실적으로 구성됨. 조사 결과에 대해서 업종별·지역별·매출액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를 설명함.

2) 전체 외식업체

- 2024년 기준 전체 외식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약 2억 5천 5백만 원 수준으로 조사됨. 연간 매출액이 1억 원~5억 원 이하인 업체 비중이 71.6%이며, 5천만 원~1억 원 이하인 업체 비중은 16.3%, 5억 원 이상인 업체 비중은 8.2%, 5천만 원 미만인 업체 비중은 3.9%로 나타남.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의 평균 매출액이 약 2억 8천 9백만 원으로 일반음식점 외 업종(약 2억 2천만 원)보다 높음.
-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일식의 평균 매출액이 약 3억 3천 9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기타 외국식은 약 2억 4천만 원 수준임. 일반음식점 외 업종에서는 기관 구내식당업이 약 4억 6백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출장·이동음식점업은 약 3억 7천 3백만 원,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은 약 3억 3백만 원 등의 순서임.
- 운영 형태별로는 프랜차이즈 업종의 평균 매출액이 약 3억 3천 2백만 원으로 비프랜차이즈(약 2억 2천 7백만 원)보다 높음.
- 전체 외식업체의 객단가는 평균 약 1만 4천 3백 원으로 나타남. 객단가 분포별로 1만 원~2만 원 미만인 업체 비중이 39.8%로 가장 높고, 5천 원~1만 원 미만은 27.2%, 2만 원~3만 원 미만이 16.1%로 조사됨.
- 전체 외식업체의 월평균 근로자 수는 3.18명임. 근로 형태별로는 내국인 근로자 수가 월평균 2.59명이고, 상용근로자가 1.59명, 임시직 근로자는 0.54명, 일용직 근로자는 0.46명으로 나타남. 외국인 근로자 수는 월평균 0.14명이고, 상용근로자 0.04명, 임시직 근로자는 0.08명, 일용직 근로자는 0.03명임. 무급가족 수는 0.46명으로 조사됨.
- 외식업체의 근로 형태별 인건비를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인건비는 204.4만 원으로 나타남. 내국인 중 상용근로자는 278.4만 원, 임시직 근로자는 180.2만 원, 일용직 근로자는 146.7만 원이고, 외국인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256.9만 원, 임시직 근로자는 169.5만 원, 일용직 근로자는 145.6만 원으로 조사됨.
- 경영상 애로사항을 점수화(7점 만점 기준)한 결과, 식재료비 상승이 6.12점으로 가장 높고, 경쟁 심화는 5.72점, 임차료 상승은 5.40점, 제도적 규제는 5.29점, 인건비 상승은 5.21점, 서빙 구인난은 4.49점, 조리 구인난은 4.28점으로 분석됨.
- 외식업 종사 이후 업종 전환 경험이 있는 업체 비율은 13.9%이고, 경험이 없는 비율은 86.1%로 나타남.

업종을 전환한 경우 주요 이유는 영업이익 감소(48.0%), 경쟁 심화(31.1%), 구인의 어려움(11.5%) 등의 순임.

- 외식업체의 향후 로봇 도입 의향을 살펴보면, 도입 의향 없음이 93.9%로 가장 높고, 도입 의향은 있으나, 시기는 아직 잘 모르겠음은 4.6%, 3~5년 이내 도입 의향 있음은 0.8%, 1~2년 이내 도입 의향 있음은 0.6%로 조사됨.
- 외식업체 업종 중분류별로 사업실적을 분석함. 2025년에 조사한 2024년 외식업체의 평균 연 매출액은 약 2억 5천 2백만 원이며, 일반음식점의 경우 약 2억 8천 9백만 원, 기관 구내식당업은 약 4억 6백만 원, 출장 및 이동음식점업은 약 3억 7천 3백만 원, 기타 음식점업은 약 2억 4천 2백만 원, 주점업은 약 2억 2백만 원,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약 1억 9천만 원 등으로 나타남.

3) 일반음식점

- 일반음식점 외식업체의 평균 매출액(2024년 기준)은 약 2억 8천 9백만 원으로 조사됨.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인 일반음식점 외식업체의 비중은 3.1%,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5%, 1억 원~5억 원 미만 74.9%, 5억 원 이상은 10.5%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 외식업체의 평균 객단가는 약 1만 5천 4백 원으로 나타남. 객단가 분포를 살펴보면, 5천 원 미만인 일반음식점은 0.5%, 5천 원~1만 원 미만 19.6%, 1만 원~2만 원 미만 55.1%, 2만 원~3만 원 미만 16.1%, 3만 원 이상은 8.6%임.
- 전체 일반음식점 외식업체의 월평균 근로자 수는 3.50명이며, 그 중에서 내국인은 평균 2.69명, 외국인은 0.19명으로 나타남. 무급가족 근로자 수는 평균 0.61명으로 조사됨. 내국인의 경우 상용근로자는 1.70명, 임시직 근로자는 0.53명, 일용직 근로자는 0.46명임. 외국인의 경우 상용근로자는 0.05명, 임시직 근로자는 0.11명, 일용직 근로자는 0.03명임.
- 일반음식점의 인건비를 조사한 결과,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인건비는 208.3만 원이고, 내국인은 204.6만 원, 외국인은 185.5만 원으로 나타남. 내국인 중 상용근로자는 282.8만 원, 임시직 근로자는 185.7만 원, 일용직 근로자는 145.3만 원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중 상용근로자는 250.1만 원, 임시직 근로자는 160.5만 원, 일용직 근로자는 146.0만 원으로 조사됨.
- 구인 부문에서는 조리 구인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이 55.4%이고, 어렵지 않다는 비중은 23.2%로 나타남. 서빙 구인이 어렵다는 응답 비중은 59.2%, 어렵지 않다는 비중은 22.0%임. 영업이익 부문에서는 식재료비 상승(95.0%), 경쟁심화(86.0%), 인건비 상승(77.4%), 임차료 상승(77.3%), 제도적 규제(75.6%)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됨.
- 일반음식점들의 외식업 종사 이후 업종 전환 경험 및 이유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 업종을 전환한 경험이 있는 일반음식점의 비중은 13.7%로 파악됨.
- 일반음식점의 사업실적에 대해서 분석함. 전체 일반음식점의 평균 연 매출액은 약 2억 8천 9백만 원이며, 영업이익률은 8.8%, 식재료비는 40.9%, 고용인 인건비는 14.2%, 기타비용은 36.0%로 나타남.

4) 한식

- 한식의 평균 매출액은 약 2억 9천 1백만 원으로 나타남. 매출액 분포 별로는 5천만 원 미만인 한식 외식업체 비중이 3.5%, 5천만 원~1억 원 미만 12.5%, 1억 원~5억 원 미만 73.3%, 5억 원 이상은 10.7%로 나타남.
- 한식 외식업체의 객단가를 살펴본 결과, 평균 객단가는 약 1만 5천 4백 원 수준으로 나타남. 객단가 분포 별로는 1만 원~2만 원 미만인 한식 업체가 55.7%로 가장 많고, 5천 원~1만 원 미만 업체의 비중은 18.5% 등임. 한식 해산물의 객단가가 약 2만 4천 2백 원 수준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식 육류(약 1만 8천 9백 원), 한식 일반(약 1만 3천 7백 원) 등의 순서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한식 외식업체의 월평균 근로자 수는 3.46명이며, 내국인 근로자는 2.65명, 외국인 근로자는 0.19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내국인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66명, 임시직은 0.53명, 일용직은 0.46명이며, 외국인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0.05명, 임시직은 0.11명, 일용직은 0.03명으로 조사됨. 무급가족은 월평균 0.6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식 외식업체의 전체 근로자 월평균 인건비는 207.3만 원으로 조사됨. 내국인은 203.8만 원이고, 외국인은 182.7만 원으로 나타남. 내국인 중 상용근로자는 282.5만 원, 임시직은 185.5만 원, 일용직은 143.4만 원이고, 외국인 중 상용근로자는 249.3만 원, 임시직은 157.1만 원, 일용직은 141.7만 원으로 파악됨.
- 구인 부문에서 조리 구인이 어렵다는 응답 비중이 55.1%, 서빙 구인은 59.0%가 어렵다고 응답함. 영업 이익 부문에서는 식재료비 상승은 95.1%, 경쟁 심화는 85.3.2%, 임차료 상승은 76.7%, 인건비 상승은 76.5%, 제도적 규제는 75.0%가 어렵다고 응답함.
- 한식 업종에서 외식업 종사 이후 업종 전환 경험이 있는 업체 비율은 13.7%이고, 경험이 없는 비율은 86.3%로 나타남. 업종을 전환한 경우 주요 이유는 영업이익 감소(51.4%), 경쟁 심화(28.8%), 구인의 어려움(10.3%), 제도적 규제(7.3%) 등의 순서로 조사됨.
- 한식 외식업체 전체의 평균 연 매출액은 약 2억 9천 1백만 원 수준이며, 영업이익률은 8.8%, 식재료비 비율은 41.2%, 고용인 인건비는 14.0%인 것으로 나타남.

1. 전체 외식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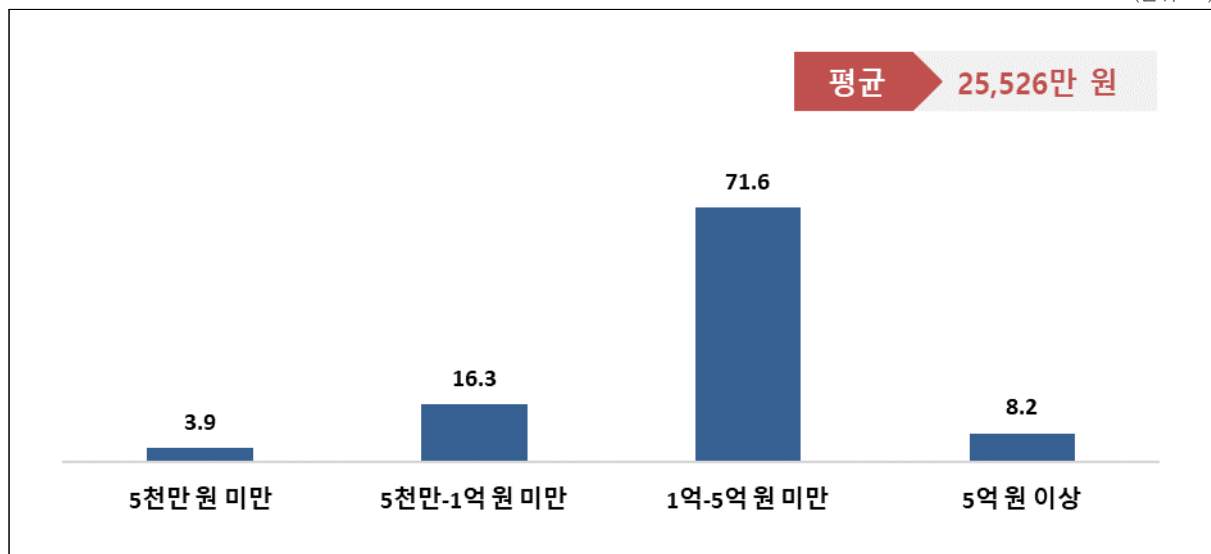
1) 영업 사항(업종별)

(1) 매출액

- 2024년 기준 전체 외식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약 2억 5천 5백만 원 수준으로 조사됨. 연간 매출액이 1억 원~5억 원 이하인 업체 비중이 71.6%이며, 5천만 원~1억 원 이하인 업체 비중은 16.3%, 5억 원 이상인 업체 비중은 8.2%, 5천만 원 미만인 업체 비중은 3.9%로 나타남.

〈그림 3-1〉 매출액 분포

(단위: %)



-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의 평균 매출액이 약 2억 8천 9백만 원으로 일반음식점 외 업종(약 2억 2천만 원)보다 높음.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일식의 평균 매출액이 약 3억 3천 9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기타 외국식은 약 2억 4천만 원 수준임. 일반음식점 외 업종에서는 기관 구내식당업이 약 4억 6백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출장·이동음식점업은 약 3억 7천 3백만 원,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은 약 3억 3백만 원 등의 순서임.
- 운영 형태별로는 프랜차이즈 업종의 평균 매출액이 약 3억 3천 3백만 원으로 비프랜차이즈(약 2억 2천 7백만 원)에 비해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권에 위치한 외식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약 3억 1천만 원으로 가장 높고, 호남권의 평균 매출액은 약 2억 1천 7백만 원으로 나타남.

〈표 3-1-1〉 업종별·지역별·운영 형태별 매출액 분포(전체)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1억 원 미만	1억 원~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평균	
전체			3,138	3.9	16.3	71.6	8.2	25,526.0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3.1	11.5	74.9	10.5	28,931.0
		한식		1,091	3.5	12.5	73.3	10.7	29,105.6
		중식		158	0.7	6.2	85.5	7.7	25,824.2
		일식		117	2.7	6.8	74.1	16.3	33,924.7
		서양식		118	1.7	11.1	80.2	7.0	27,110.4
		기타 외국식		72	0.0	3.0	91.7	5.3	23,999.6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4.7	21.4	68.2	5.8	21,985.3
		기관 구내식당업		78	1.1	8.0	73.9	17.0	40,590.5
		출장·이동음식점업		78	5.3	23.7	38.4	32.7	37,332.5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3.8	22.3	63.3	10.6	25,843.4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0.0	10.7	76.3	13.0	30,267.0
			치킨 전문점	172	0.0	10.2	81.7	8.0	25,473.4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6.9	18.9	70.8	3.4	19,017.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2.5	25.8	64.4	7.2	22,183.2
		주점업		318	6.2	21.3	68.7	3.8	20,198.5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5.7	28.9	61.7	3.7	19,033.3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0.5	7.7	77.7	14.1	33,281.6	
	비프랜차이즈		2,114	5.1	19.5	69.4	6.1	22,700.9	
지역	서울권		491	1.8	10.5	76.6	11.0	31,062.8	
	수도권		595	1.3	16.3	74.9	7.5	24,419.9	
	충청권		581	6.2	14.8	73.4	5.5	23,307.0	
	호남권		467	5.8	24.7	63.1	6.4	21,710.4	
	경남권		611	5.8	13.9	70.9	9.4	26,989.9	
	경북권		393	1.0	18.4	70.3	10.3	26,444.2	

- 2024년 기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약 3억 3천 3백만 원으로 조사됨. 업종별로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업종의 평균 매출액은 약 4억 4백만 원이고, 일반음식점 외 업종의 평균 매출액은 약 2억 9천 6백만 원 수준임.
- 일반음식점 중에서 한식의 평균 매출액은 약 4억 2천 1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일식(약 4억 3백만 원), 중식(약 3억 9천 1백만 원)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일반음식점 외에서는 기관 구내식당업이 약 7억 3천 2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출장·이동음식점업은 약 6억 9천 2백만 원 등의 순임.
- 지역별로 서울권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약 4억 1천 8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수도권과 충청권 평균 매출액은 약 2억 9천만 원 수준으로 조사됨.

〈표 3-1-2〉 업종별·지역별·운영 형태별 매출액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평균
전체			1,024	0.5	7.7	77.7	14.1	33,281.6
업종	일반음식점	소계	331	0.0	3.7	75.9	20.4	40,368.0
		한식	197	0.0	3.6	75.2	21.2	42,142.3
		중식	23	0.0	0.0	80.8	19.2	39,116.8
		일식	29	0.0	4.0	65.2	30.8	40,307.1
		서양식	46	0.0	5.4	82.6	12.0	32,159.2
		기타 외국식	36	0.0	6.5	84.0	9.4	25,223.0
	일반음식점 외	소계	693	0.7	9.7	78.7	10.9	29,638.2
		기관 구내식당업	21	0.0	8.8	60.1	31.1	73,214.6
		출장·이동음식점업	5	0.0	0.0	0.0	100.0	69,200.2
		기타음식점업	제과점	82	0.0	20.7	19.3	31,732.6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0.0	10.2	14.4	31,187.6
			치킨 전문점	127	0.0	3.9	88.1	27,585.2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5.8	9.5	5.2	22,075.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0.0	28.5	9.1	21,556.9
		주점업	69	0.0	9.6	79.0	11.4	29,324.4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0.0	8.4	82.1	9.4	31,159.7
지역	서울권		166	1.0	7.7	72.5	18.8	41,829.0
	수도권		233	0.6	9.3	79.3	10.7	28,826.3
	충청권		165	0.0	12.1	75.1	12.8	28,978.8
	호남권		118	1.7	7.2	82.0	9.0	29,587.1
	경남권		258	0.0	3.7	82.0	14.3	35,221.5
	경북권		84	0.0	8.1	66.3	25.6	38,515.5

- 2024년 기준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약 2억 2천 7백만 원으로 조사됨. 업종별로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업종의 평균 매출액은 약 2억 6천 5백만 원이고, 일반음식점 외 업종은 약 1억 7천 7백만 원 수준임.
- 일반음식점 중에서 일식의 평균 매출액이 약 3억 2천 3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한식(약 2억 6천 5백만 원), 서양식(약 2억 4천 5백만 원), 중식(약 2억 4천만 원)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일반음식점 외에서는 출장·이동음식점업이 약 3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관 구내식당업(약 3억 원),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약 2억 5천 7백만 원) 등의 순서로 높은 반면에 비알코올 음료점업의 평균 매출액은 약 1억 3천 8백만 원으로 가장 낮음.
- 지역별로 서울권 외식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약 2억 7천 3백만 원, 경북권은 약 2억 4천 1백만 원, 수도권은 약 2억 2천 4백만 원 수준으로 파악됨.

〈표 3-1-3〉 업종별·지역별·운영 형태별 매출액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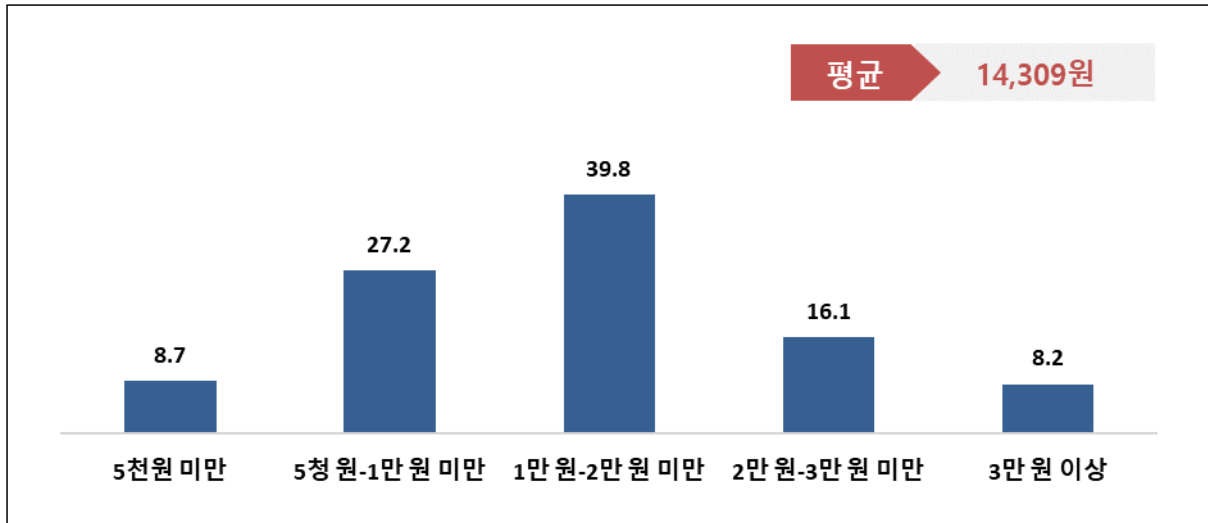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평균	
전체			2,114	5.1	19.5	69.4	6.1	22,700.9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3.7	13.2	74.7	8.4	26,456.9	
		한식	894	4.2	14.3	72.9	8.6	26,476.2	
		중식	135	0.8	7.0	86.1	6.1	23,999.7	
		일식	88	3.4	7.5	76.4	12.7	32,330.6	
		서양식	72	2.6	14.0	78.9	4.4	24,465.0	
		기타 외국식	36	0.0	0.0	98.3	1.7	22,940.2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6.9	27.9	62.3	2.9	17,685.9	
		기관 구내식당업	57	1.5	7.7	78.4	12.4	29,990.2	
		출장·이동음식점업	73	5.8	26.2	42.4	25.6	33,976.5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6.4	23.3	65.5	4.7	21,784.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0.0	13.5	80.1	6.4	25,719.8
			치킨 전문점	45	0.0	25.0	67.0	8.0	20,571.1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7.6	25.1	65.1	2.2	17,020.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4.8	23.5	66.1	5.6	22,743.4
		주점업	249	7.3	23.4	66.8	2.5	18,587.9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8.2	37.8	52.9	1.2	13,760.4	
지역	서울권	325	2.1	11.5	78.0	8.3	27,340.4		
	수도권	362	1.6	19.6	72.8	6.0	22,356.9		
	충청권	416	8.3	15.8	72.9	3.1	21,417.2		
	호남권	349	6.8	29.0	58.5	5.7	19,767.4		
	경남권	353	9.1	19.9	64.4	6.6	22,176.5		
	경북권	309	1.2	20.3	71.0	7.4	24,149.0		

(2) 객단가

- 전체 외식업체의 객단가는 평균 약 1만 4천 3백 원으로 나타남. 객단가 분포별로 1만 원~2만 원 미만인 업체 비중이 39.8%로 가장 높고, 5천 원~1만 원 미만 27.2%, 2만 원~3만 원 미만 16.1% 등으로 조사됨.

〈그림 3-2〉 객단가 분포

(단위: %)



- 일반음식점 업종의 평균 객단가는 약 1만 5천 4백 원이고, 일반음식점 외 업종은 약 1만 3천 2백 원 수준임. 세부 업종별로는 일식 외식업체의 평균 객단가가 약 2만 1천 7백 원으로 가장 높고, 서양식은 약 1만 6천 6백 원, 한식은 약 1만 5천 4백 원으로 나타난 반면에 중식 평균 객단가는 약 1만 5백 원 수준으로 비교적 낮음.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 업종별로는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의 평균 객단가가 약 3만 6천 4백 원 수준으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주점업(약 2만 3천 3백 원), 치킨 전문점(약 1만 6천 5백 원), 출장·이동음식점업(약 1만 3천 8백 원)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객단가가 낮은 업종은 비알코올 음료점업(약 5천 9백 원),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약 6천 7백 원), 기관 구내식당업(약 7천 6백 원), 제과점(약 8천 2백 원) 등으로 조사됨.
- 운영 형태별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평균 객단가는 약 1만 2천 8백 원이고,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약 1만 4천 9백 원 수준임.
- 지역별로 외식업체의 평균 객단가를 살펴보면, 수도권(약 1만 6천 원), 호남권(약 1만 5천 5백 원), 서울권(약 1만 5천 2백 원)이 비교적 높은 데 비해, 충청권(약 1만 2천 6백 원), 경남권(약 1만 3천 2백 원), 경북권(약 1만 3천 3백 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인 업체의 평균 객단가가 1만 8천 4백 원으로 비교적 높은 반면, 5천만 원 미만인 업체는 9천 8백 원으로 낮음.

〈표 3-2-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객단가 분포(전체)

(단위: 개소, %, 원)

구분			사례수	5천 원 미만	5천 원~1만 원 미만	1만 원~2만 원 미만	2만 원~3만 원 미만	3만 원 이상	평균
전체			3,138	8.7	27.2	39.8	16.1	8.2	14,308.6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0.5	19.6	55.1	16.1	8.6	15,400.3
		한식	1,091	0.5	18.5	55.7	16.8	8.4	15,438.7
		중식	158	0.0	45.2	48.3	4.9	1.6	10,514.8
		일식	117	0.0	9.0	44.9	21.2	24.8	21,669.0
		서양식	118	1.0	6.5	67.3	15.2	10.0	16,645.1
		기타 외국식	72	0.0	16.6	61.5	21.7	0.2	13,986.9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17.2	35.0	23.9	16.0	7.7	13,173.3
		기관 구내식당업	78	3.6	85.4	11.0	0.0	0.0	7,555.0
		출장·이동음식점업	78	4.8	26.2	43.1	21.4	4.5	13,848.1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16.5	46.7	34.9	0.0	8,184.6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10.0	25.5	46.6	15.6	12,539.7
			치킨 전문점	172	0.7	7.1	52.3	36.8	16,487.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22.1	64.7	11.9	1.2	6,700.5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20.0	33.7	35.7	2.9	36,420.2
		주점업	318	1.0	5.1	28.8	40.0	25.1	23,306.9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37.2	53.6	7.8	0.6	0.7	5,856.0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11.4	26.9	40.3	16.4	5.1	12,802.8
	비프랜차이즈		2,114	7.7	27.3	39.7	16.0	9.3	14,857.1
지역	서울권		491	9.4	26.5	29.9	23.1	11.0	15,220.3
	수도권		595	9.6	23.7	28.9	22.9	14.9	15,974.3
	충청권		581	6.9	32.7	45.5	10.8	4.1	12,587.9
	호남권		467	11.2	21.2	44.7	13.9	9.0	15,543.1
	경남권		611	5.0	29.1	46.0	14.1	5.8	13,203.0
	경북권		393	11.4	30.1	44.0	11.0	3.5	13,277.7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24.3	30.5	34.4	8.2	2.6	9,793.7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17.0	38.8	27.7	8.8	7.6	11,861.5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6.7	25.6	42.7	17.2	7.7	14,644.5
	5억 원 이상		446	2.6	15.7	41.4	24.3	15.9	18,373.1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평균 객단가는 약 1만 2천 8백 원으로 분석됨.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의 평균 객단가가 약 1만 5천 9백 원이고, 일반음식점 외 업종에서는 약 1만 1천 2백 원으로 조사됨.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한식의 평균 객단가가 약 1만 6천 4백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양식(약 1만 5천 9백 원), 일식(약 1만 4천 6백 원), 기타 외국식(약 1만 3천 3백 원) 등의 순서로 높은 반면, 중식의 평균 객단가는 약 1만 2천 1백 원으로 가장 낮음. 일반음식점 외 업종 중에서는 주점업의 평균 객단가가 약 2만 1백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치킨 전문점(약 1만 6천 9백 원) 등의 순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평균 객단가가 약 1만 4천 7백 원으로 가장 높고, 경남권(약 1만 3천 1백 원), 호남권(약 1만 2천 5백 원) 순서로 높음.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인 업체의 평균 객단가는 약 1만 5천 7백 원인데 비해, 5천만 원 미만인 업체는 약 6천 5백 원에 그침.

〈표 3-2-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객단가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원)

구분			사례수	5천 원 미만	5천 원~ 1만 원 미만	1만 원~ 2만 원 미만	2만 원~ 3만 원 미만	3만 원 이상	평균
전체			1,024	11.4	26.9	40.3	16.4	5.1	12,802.8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0.0	13.7	58.7	18.0	9.6	15,869.6
		한식	197	0.0	11.9	57.2	20.1	10.8	16,359.4
		중식	23	0.0	38.6	49.9	3.8	7.7	12,097.6
		일식	29	0.0	22.1	53.6	18.7	5.5	14,639.8
		서양식	46	0.0	5.8	79.1	8.4	6.7	15,879.4
		기타 외국식	36	0.0	20.1	64.3	15.6	0.0	13,337.5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17.2	33.6	30.8	15.6	2.7	11,226.0
		기관 구내식당업	21	14.8	85.2	0.0	0.0	0.0	7,092.6
		출장·이동음식점업	5	0.0	0.0	77.6	22.4	0.0	13,358.2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13.7	43.0	40.0	3.3	8,955.2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11.0	22.7	47.4	2.8	12,664.2
			치킨 전문점	127	0.0	6.5	51.4	3.3	16,932.8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14.2	64.6	19.8	1.4	7,417.4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26.0	36.7	31.9	5.4	8,923.5
		주점업	69	0.0	4.6	42.3	42.9	10.2	20,141.9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42.6	50.9	5.2	0.5	0.8	5,495.7
지역	서울권		166	14.8	33.0	28.8	19.3	4.1	12,040.9
	수도권		233	15.4	22.1	30.9	20.7	10.9	14,661.8
	충청권		165	9.5	36.1	42.9	7.5	4.0	11,530.4
	호남권		118	14.5	24.6	41.7	15.3	3.9	12,531.0
	경남권		258	7.1	21.7	47.5	20.9	2.8	13,100.3
	경북권		84	7.3	30.7	56.2	3.7	2.0	11,090.7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28.7	50.0	21.3	0.0	0.0	6,523.7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37.9	35.0	21.9	3.3	1.9	7,746.1
	1억 원~5억 원 미만		721	9.9	27.2	42.1	16.5	4.3	12,812.8
	5억 원 이상		230	4.6	20.1	40.5	23.8	10.9	15,723.1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평균 객단가는 약 1만 4천 9백 원이며,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약 1만 5천 3백 원, 일반음식점 외 업종은 약 1만 4천 3백 원으로 조사됨.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일식의 평균 객단가가 약 2만 3천 4백 원으로 가장 높고, 서양식(약 1만 7천 원), 한식(약 1만 5천 3백 원) 등의 순서로 높은 반면, 중식은 약 1만 3백 원으로 가장 낮음. 일반음식점 외 업종 중에서는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의 평균 객단가가 약 6만 1천 원으로 가장 높고, 주점업(약 2만 3천 9백 원), 치킨 전문점(약 1만 5천 5백 원) 등의 순서로 높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평균 객단가가 약 1만 6천 6백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서울권(약 1만 6천 3백 원)임.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인 업체의 평균 객단가는 약 2만 6백 원인 반면, 5천만 원 미만인 업체는 약 9천 9백 원 수준임.

〈표 3-2-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객단가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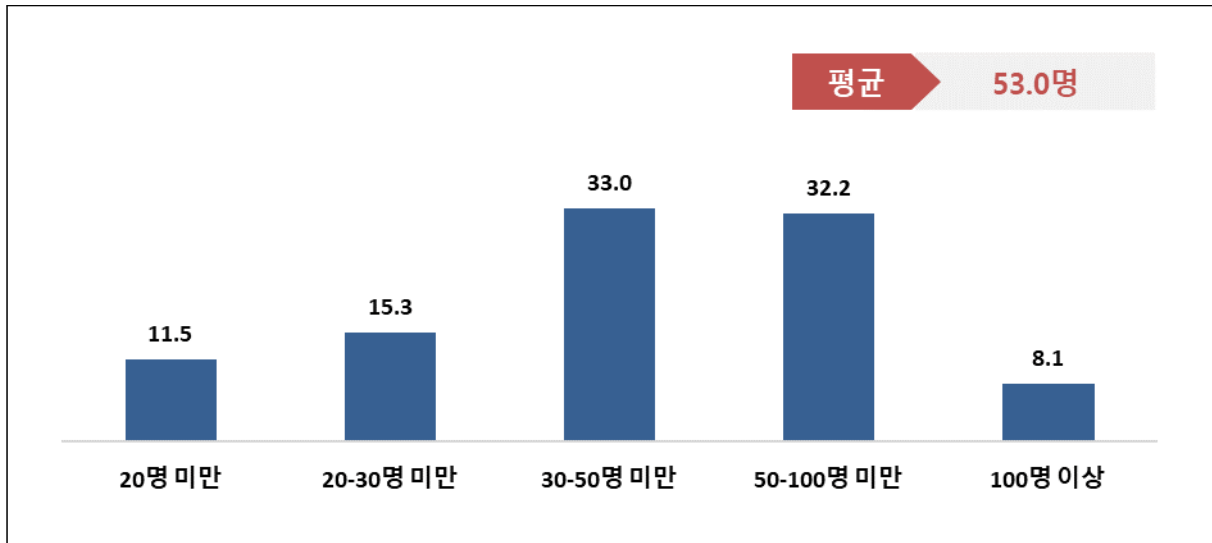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5천 원 미만	5천 원~ 1만 원 미만	1만 원~ 2만 원 미만	2만 원~ 3만 원 미만	3만 원 이상	평균
전체			2,114	7.7	27.3	39.7	16.0	9.3	14,857.1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0.6	20.9	54.4	15.7	8.4	15,298.8
		한식	894	0.7	19.9	55.4	16.2	7.9	15,253.0
		중식	135	0.0	46.1	48.1	5.1	0.8	10,297.5
		일식	88	0.0	5.7	42.8	21.9	29.7	23,424.6
		서양식	72	1.5	6.8	61.1	18.7	11.8	17,046.4
		기타 외국식	36	0.0	13.5	59.1	26.9	0.4	14,549.3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17.2	35.8	20.1	16.3	10.6	14,267.3
		기관 구내식당업	57	0.0	85.5	14.5	0.0	0.0	7,705.2
		출장·이동음식점업	73	5.3	29.0	39.5	21.3	4.9	13,899.7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18.4	49.3	31.4	0.0	7,653.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4.9	39.2	42.7	13.3	11,925.1
			치킨 전문점	45	2.4	8.6	54.5	32.1	15,452.1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27.3	64.8	6.8	1.1	6,232.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14.7	31.0	39.1	0.8	61,014.4
		주점업	249	1.2	5.1	26.4	39.5	27.7	23,865.4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34.9	54.8	8.9	0.7	0.7	6,012.7
지역	서울권		325	7.6	24.3	30.3	24.4	13.4	16,319.5
	수도권		362	6.9	24.5	27.9	23.9	16.8	16,588.9
	충청권		416	6.1	31.5	46.4	11.9	4.1	12,940.3
	호남권		349	10.4	20.4	45.4	13.6	10.2	16,286.1
	경남권		353	3.8	33.4	45.1	10.1	7.5	13,263.0
	경북권		309	12.2	30.0	41.6	12.4	3.7	13,693.6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24.1	29.8	34.9	8.5	2.6	9,908.8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14.0	39.4	28.6	9.6	8.4	12,452.4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5.3	25.0	43.0	17.5	9.1	15,392.1
	5억 원 이상		216	1.0	12.0	42.2	24.6	20.2	20,618.5

(3)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

-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는 53.0명으로 나타남. 1일 평균 30명~50명 미만이 방문하는 업체의 비중이 33.0%로 가장 높고, 다음이 50~100명 미만(32.2%), 20~30명 미만(15.3%), 20명 미만(11.5%), 100명 이상(8.1%)의 순임.

〈그림 3-3〉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 분포

(단위: %)



- 일반음식점 업종의 평균 고객 수는 56.6명이고, 일반음식점 외 업종은 49.3명으로 조사됨.
 - 일반음식점 중에서 한식이 57.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식(56.8명)과 기타 외국식(52.2명), 일식(50.3명), 서양식(50.0명)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 외에서는 기관 구내식당업이 190.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비알코올 음료점업(62.6명),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49.6명),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39.4명), 출장·이동음식점업(35.8명), 주점업(35.3명),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34.7명), 제과점(34.4명) 등의 순으로 많음.
- 운영 형태별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1일 평균 고객 수는 61.8명이고,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49.8명으로 파악됨.
- 지역별로는 경북권 외식업체의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가 58.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권(58.2명), 서울권(57.2명), 충청권(50.1명), 수도권(49.9명), 호남권(45.6명)의 순서임.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인 업체의 1일 평균 고객 수가 136.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1억 원~5억 원 미만(50.1명), 5천만 원~1억 원 미만(31.1명), 5천만 원 미만(21.5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3-3-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방문 고객 수 분포(전체)

(단위: 개소, %, 명)

구분			사례수	20명 미만	20~30명 미만	30~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명 이상	평균	
전체			3,138	11.5	15.3	33.0	32.2	8.1	53.0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5.7	13.8	35.1	36.4	9.0	56.6	
		한식	1,091	5.9	13.7	33.7	37.4	9.3	57.4	
		중식	158	2.1	14.0	41.9	32.2	9.8	56.8	
		일식	117	10.0	15.6	35.5	30.9	8.0	50.3	
		서양식	118	6.1	15.5	40.6	33.0	4.9	50.0	
		기타 외국식	72	0.2	6.7	55.8	31.1	6.3	52.2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17.4	16.9	30.7	27.8	7.1	49.3	
		기관 구내식당업	78	1.5	0.0	8.4	26.3	63.8	190.8	
		출장·이동음식점업	78	53.7	4.2	11.5	20.3	10.3	35.8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43.5	14.2	20.0	15.5	6.8	34.4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39.0	16.9	19.8	13.1	11.3	39.4
			치킨 전문점	172	34.6	28.4	27.7	9.1	0.2	26.8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11.7	9.0	31.3	44.3	3.7	49.6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39.8	21.8	15.5	18.7	4.3	34.7	
		주점업	318	15.4	28.0	41.8	13.8	1.0	35.3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4.7	8.4	30.3	46.4	10.2	62.6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15.3	14.2	25.1	31.7	13.7	61.8	
	비프랜차이즈		2,114	10.1	15.7	35.8	32.4	6.0	49.8	
지역	서울권		491	5.0	12.5	34.9	40.1	7.5	57.2	
	수도권		595	7.4	19.2	32.1	34.8	6.5	49.9	
	충청권		581	13.7	15.1	38.0	27.9	5.3	50.1	
	호남권		467	13.0	18.7	38.0	25.2	5.0	45.6	
	경남권		611	17.5	12.3	27.6	30.5	12.1	58.2	
	경북권		393	10.7	13.4	25.9	36.7	13.2	58.7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46.1	32.5	20.3	1.1	0.0	21.5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20.3	26.9	41.9	10.9	0.0	31.1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8.6	13.2	34.2	38.3	5.7	50.1	
	5억 원 이상		446	2.1	2.6	10.2	36.0	49.1	136.8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는 61.8명으로 나타남. 프랜차이즈 업종별로 일반음식점은 평균 71.0명이고, 일반음식점 외는 57.0명으로 조사됨.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일식이 77.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한식(73.9명), 중식(63.5명), 서양식(53.6명), 기타 외국식(52.5명)의 순임. 일반음식점 외 업종에서는 기관 구내식당업이 332.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출장·이동음식점업(125.7명), 비알코올 음료점업(86.7명) 등임.
- 지역별로는 경남권 업체의 경우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가 69.9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권(68.4명), 경북권(61.3명), 충청권(59.5명), 수도권(56.7명), 호남권(48.9명)의 순서로 많음.
-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인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가 156.2명으로 나타난 반면, 5천만 원 미만은 26.0명으로 파악됨.

〈표 3-3-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방문 고객 수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명)

구분			사례수	20명 미만	20~30명 미만	30~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명 이상	평균
전체			1,024	15.3	14.2	25.1	31.7	13.7	61.8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4.1	12.0	27.6	39.0	17.3	71.0
		한식	197	4.8	12.3	24.7	39.3	18.9	73.9
		중식	23	0.0	12.0	38.8	37.7	11.5	63.5
		일식	29	0.0	3.6	20.4	56.6	19.4	77.2
		서양식	46	5.5	16.7	39.4	29.6	8.8	53.6
		기타 외국식	36	0.5	8.3	53.3	29.5	8.4	52.5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21.0	15.3	23.8	27.9	11.9	57.0
		기관 구내식당업	21	6.0	0.0	4.3	22.5	67.2	332.5
		출장·이동음식점업	5	22.4	0.0	0.0	0.0	77.6	125.7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26.7	20.7	20.8	4.7	43.2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39.7	18.1	18.0	12.7	40.4
			치킨 전문점	127	36.5	32.0	24.5	0.3	25.8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13.3	8.5	27.5	2.9	49.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49.4	22.0	20.9	1.3	23.9
		주점업	69	5.3	13.2	48.9	29.9	2.7	47.2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4.5	4.2	17.2	47.1	27.0	86.7
지역	서울권		166	9.2	15.6	20.7	38.2	16.3	68.4
	수도권		233	9.0	14.9	28.5	35.2	12.4	56.7
	충청권		165	17.6	18.7	30.2	21.6	11.9	59.5
	호남권		118	20.4	12.6	28.2	33.3	5.4	48.9
	경남권		258	19.5	9.1	23.6	31.8	15.9	69.9
	경북권		84	16.8	20.3	11.6	28.2	23.0	61.3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21.3	50.0	28.7	0.0	0.0	26.0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25.5	26.5	32.3	15.7	0.0	29.0
	1억 원~5억 원 미만		721	16.5	15.0	27.4	33.5	7.7	48.1
	5억 원 이상		230	2.7	2.1	8.3	31.7	55.1	156.2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는 49.8명인 가운데, 비프랜차이즈 업종별로 일반음식점은 평균 53.5명이고, 일반음식점 외는 45.0명으로 나타남. 일반음식점업 중에서는 중식이 55.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한식(54.0명), 기타 외국식(52.0명), 서양식(48.1명), 일식(43.6명) 순서로 많음. 일반음식점 외 업종에서는 기관 구내식당업이 144.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비알코올 음료점업(52.1명),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50.1명) 등의 순임.
- 지역별로는 경북권 외식업체의 경우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가 58.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서울권(53.4명), 경남권(51.4명), 충청권(46.9명), 수도권(46.7명), 호남권(44.8명)의 순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의 업체에서 120.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1억 원~5억 원 미만(50.9명), 5천만 원~1억 원 미만(31.4명), 5천만 원 미만(21.4명)의 순서로 많은 편임.

〈표 3-3-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방문 고객 수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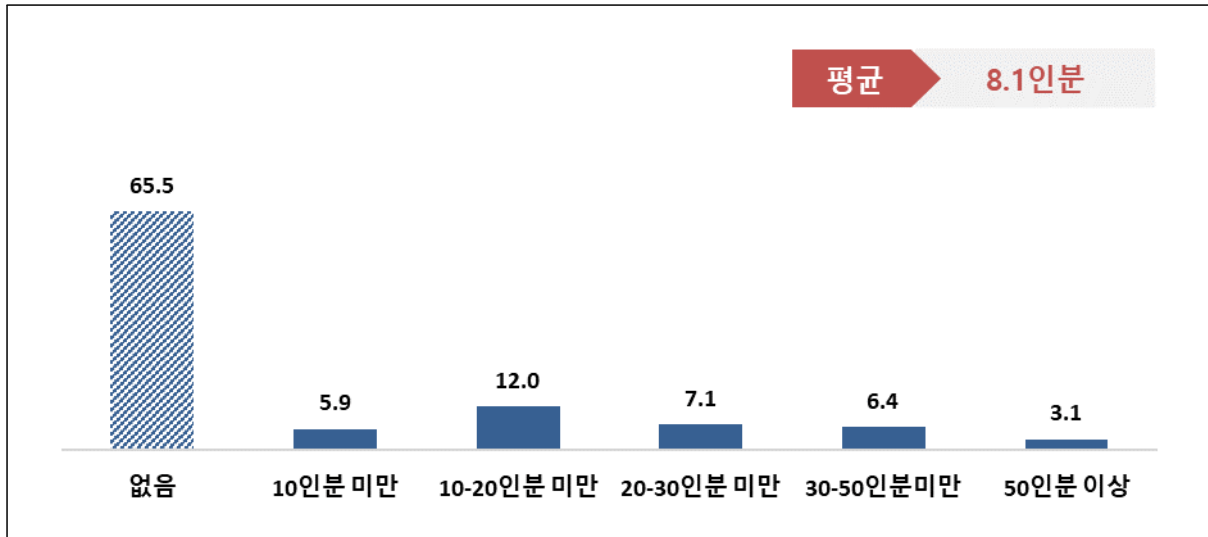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20명 미만	20~30명 미만	30~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명 이상	평균	
전체			2,114	10.1	15.7	35.8	32.4	6.0	49.8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6.0	14.2	36.7	35.8	7.2	53.5	
		한식	894	6.1	14.0	35.6	37.0	7.3	54.0	
		중식	135	2.3	14.3	42.3	31.5	9.6	55.9	
		일식	88	12.5	18.6	39.2	24.5	5.2	43.6	
		서양식	72	6.4	14.8	41.2	34.7	2.8	48.1	
		기타 외국식	36	0.0	5.2	58.0	32.4	4.4	52.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15.4	17.7	34.6	27.8	4.5	45.0	
		기관 구내식당업	57	0.0	0.0	9.8	27.5	62.7	144.7	
		출장·이동음식점업	73	57.0	4.7	12.7	22.4	3.2	26.4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55.1	9.7	19.4	7.4	8.3	28.2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35.4	11.1	28.5	20.8	4.2	34.5
			치킨 전문점	45	30.1	20.0	35.1	14.8	0.0	29.3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10.7	9.2	33.8	42.0	4.2	50.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31.2	21.6	10.6	34.1	2.4	44.3
		주점업	249	17.1	30.7	40.5	11.0	0.7	33.3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4.7	10.2	36.0	46.2	2.9	52.1		
지역	서울권		325	3.5	11.4	39.8	40.8	4.5	53.4	
	수도권		362	6.6	21.2	33.8	34.7	3.7	46.7	
	충청권		416	12.4	13.9	40.6	30.0	3.1	46.9	
	호남권		349	11.1	20.2	40.5	23.3	4.9	44.8	
	경남권		353	16.3	14.1	29.9	29.8	9.8	51.4	
	경북권		309	9.6	12.1	28.7	38.4	11.3	58.3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47.0	31.9	20.0	1.2	0.0	21.4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19.6	27.0	43.3	10.2	0.0	31.4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5.4	12.5	37.0	40.2	4.9	50.9	
	5억 원 이상		216	1.5	2.9	11.8	39.7	44.0	120.3	

(4) 1일 평균 배달 수

- 하루에 한 건 이상 배달을 하는 업체 비중은 34.5%이며, 전체 외식업체의 1일 평균 배달 수는 8.1인분임. 1일 평균 10~20인분 미만을 배달하는 업체 비중이 12.0%로 가장 높음.

〈그림 3-4〉 1일 평균 배달 수 분포

(단위: %)



- 업종별로 일반음식점의 배달 수는 1일 평균 5.8인분, 일반음식점 외는 10.5인분임.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중식의 배달 수가 22.5인분으로 가장 많은 반면, 한식의 배달 수는 4.1인분으로 비교적 적은 편임.
- 일반음식점 외에서는 출장·이동음식점업의 배달 수가 36.2인분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26.8인분), 치킨 전문점(21.7인분),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16.4인분),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15.5인분) 등의 순서로 배달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운영 형태별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배달 수는 1일 평균 17.6인분이고,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4.7인분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1일 평균 배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충청권(11.7인분), 경북권(11.0인분)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인 외식업체는 1일 평균 15.8인분을 배달하는 반면에 5천만 원 미만인 외식업체는 0.7인분으로 파악됨.

〈표 3-4-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배달 분포(전체)

(단위: 개소, %, 인분)

구분			사례수	없음	10인분 미만	10~20인분 미만	20~30인분 미만	30~50인분 미만	50인분 이상	평균
전체			3,138	65.5	5.9	12.0	7.1	6.4	3.1	8.1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70.3	6.7	11.9	5.7	3.3	2.0	5.8
		한식	1,091	75.5	5.5	11.5	4.6	2.2	0.7	4.1
		중식	158	30.9	9.8	12.3	15.0	14.6	17.4	22.5
		일식	117	64.0	11.8	14.5	6.0	3.0	0.7	5.4
		서양식	118	60.2	14.2	13.3	8.7	2.6	1.0	6.2
		기타 외국식	72	51.5	15.6	20.2	7.0	5.5	0.2	7.7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60.4	5.1	12.0	8.6	9.7	4.2	10.5
		기관 구내식당업	78	98.5	0.0	0.0	0.0	0.0	1.5	1.2
		출장·이동음식점업	78	59.7	2.9	2.0	1.4	6.8	27.1	36.2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52.8	8.8	19.9	5.0	11.2	10.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11.3	7.7	21.1	22.8	23.6	26.8
			치킨 전문점	172	18.6	8.2	30.2	16.3	18.5	21.7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45.2	4.5	13.1	14.5	15.0	15.5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50.3	4.4	10.9	8.7	17.6	16.4
		주점업	318	90.3	3.5	3.8	1.4	0.6	0.5	1.4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64.3	4.7	10.1	8.5	9.3	3.1	9.3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35.8	6.8	19.4	15.1	15.3	7.6	17.6
	비프랜차이즈		2,114	76.3	5.6	9.3	4.2	3.2	1.5	4.7
지역	서울권		491	73.2	5.5	9.3	5.7	3.5	2.8	5.9
	수도권		595	74.8	5.0	10.2	5.8	2.7	1.5	4.9
	충청권		581	58.8	5.5	12.9	7.7	9.8	5.2	11.7
	호남권		467	71.1	8.3	8.2	5.5	4.8	2.1	5.8
	경남권		611	57.1	6.4	17.8	9.8	5.5	3.4	9.5
	경북권		393	57.3	4.2	12.5	8.1	14.3	3.7	11.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90.5	6.9	2.5	0.0	0.0	0.0	0.7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79.1	6.1	8.6	4.0	2.2	0.1	3.3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61.6	6.3	13.6	8.0	7.5	3.1	8.7
	5억 원 이상		446	60.4	1.9	9.4	8.9	8.7	10.7	15.8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1일 평균 배달 수는 17.6인분이며, 업종별로 일반음식점은 11.1인분, 일반음식점 외는 20.9인분임. 일반음식점 중에서 중식의 1일 평균 배달 수는 25.8인분으로 가장 많고, 일반음식점 외에서는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28.3인분),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26.7인분), 치킨 전문점(25.7인분),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23.5인분) 등의 순서로 많음.
- 지역별로는 경북권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1일 평균 배달 수가 28.3인분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충청권 (25.1인분), 호남권(18.9인분) 등의 순임.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인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1일 평균 24.8인분을 배달하는 데 비해, 5천만 원 미만인 업체의 경우 1일 평균 3.9인분으로 비교적 적은 수준임.

〈표 3-4-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배달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인분)

구분			사례수	없음	10인분 미만	10~20인분 미만	20~30인분 미만	30~50인분 미만	50인분 이상	평균
전체			1,024	35.8	6.8	19.4	15.1	15.3	7.6	17.6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48.1	7.6	19.7	13.7	7.8	3.1	11.1
		한식	197	52.0	6.1	18.8	12.3	8.4	2.3	10.3
		중식	23	29.1	3.8	13.2	17.9	11.5	24.4	25.8
		일식	29	44.8	5.3	26.2	17.3	6.5	0.0	10.3
		서양식	46	33.9	19.2	21.8	22.6	2.5	0.0	10.3
		기타 외국식	36	32.5	20.5	30.9	12.0	4.0	0.0	1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29.5	6.4	19.3	15.8	19.2	9.9	20.9
		기관 구내식당업	21	94.0	0.0	0.0	0.0	0.0	6.0	5.0
		출장·이동음식점업	5	77.6	0.0	0.0	0.0	0.0	22.4	22.2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27.1	12.6	27.3	8.4	20.6	15.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8.8	7.0	21.1	25.4	22.3	28.3
			치킨 전문점	127	8.0	8.7	32.6	17.0	22.7	25.7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22.2	8.1	13.1	20.0	24.5	23.5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23.3	9.4	14.3	10.2	28.9	26.7
		주점업	69	81.7	2.8	10.0	1.7	0.7	3.1	3.6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36.5	3.1	14.7	16.9	19.6	9.2	20.7
지역	서울권		166	46.5	6.7	13.8	15.3	10.5	7.2	14.1
	수도권		233	50.2	8.0	19.4	13.8	5.2	3.4	10.1
	충청권		165	25.8	5.3	19.5	15.8	21.7	11.9	25.1
	호남권		118	28.6	13.8	11.5	17.1	21.2	7.9	18.9
	경남권		258	34.1	4.0	27.5	15.7	11.6	7.1	17.2
	경북권		84	13.0	5.1	14.0	10.8	44.4	12.6	28.3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28.7	71.3	0.0	0.0	0.0	0.0	3.9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42.7	9.3	28.7	12.1	6.6	0.6	10.0
	1억 원~5억 원 미만		721	33.1	7.1	20.6	16.7	16.1	6.5	17.1
	5억 원 이상		230	47.2	1.6	8.6	8.1	16.4	18.0	24.8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1일 평균 배달 수는 4.7인분이며, 업종별로 일반음식점은 4.6인분, 일반음식점 외는 4.7인분임.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중식의 1일 평균 배달 수가 22.1인분으로 가장 많고, 일반음식점 외에서는 출장·이동음식점업(37.7인분),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19.8인분), 치킨 전문점(12.3인분) 등의 순서로 많음.
- 지역별로는 경북권 외식업체의 1일 평균 배달 수가 7.8인분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충청권(7.2인분), 경남권(5.1인분) 등의 순서로 많음.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인 외식업체는 1일 평균 8.2인분을 배달하는 반면에 5천만 원 미만인 업체는 0.6인분으로 나타남.

〈표 3-4-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배달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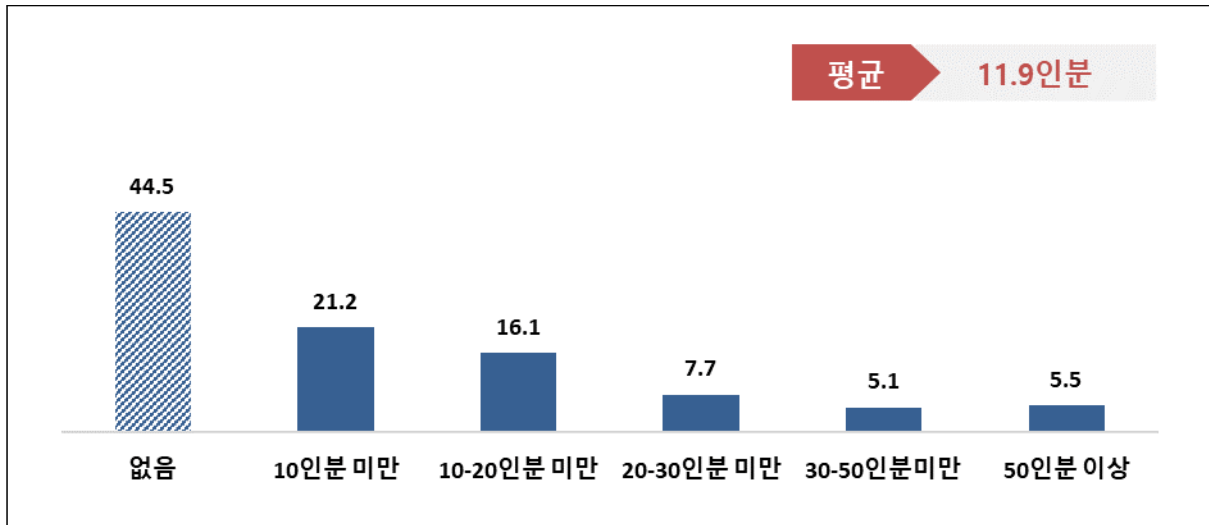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없음	10인분 미만	10~20인분 미만	20~30인분 미만	30~50인분 미만	50인분 이상	평균
전체		2,114	76.3	5.6	9.3	4.2	3.2	1.5	4.7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75.2	6.5	10.3	4.0	2.3	4.6
		한식	894	80.2	5.4	10.0	3.1	0.9	2.9
		중식	135	31.2	10.6	12.2	14.5	15.1	22.1
		일식	88	68.8	13.5	11.6	3.2	2.1	4.2
		서양식	72	74.0	11.6	8.8	1.5	2.6	4.1
		기타 외국식	36	67.9	11.4	10.9	2.7	6.8	5.7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77.8	4.3	7.9	4.6	4.3	4.7
		기관 구내식당업	57	100.0	0.0	0.0	0.0	0.0	0.0
		출장·이동음식점업	73	57.9	3.2	2.2	1.6	7.6	37.7
		제과점	84	70.6	6.2	14.9	2.7	4.7	6.8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23.4	10.9	21.2	9.7	30.2	19.8
		치킨 전문점	45	43.1	6.9	24.6	14.4	8.7	12.3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60.3	2.2	13.1	10.9	8.8	10.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74.5	0.0	7.9	7.5	7.5	7.2
		주점업	249	91.8	3.6	2.7	1.3	0.6	1.0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76.3	5.4	8.1	4.8	4.9	4.4
지역	서울권		325	82.4	5.0	7.7	2.4	1.1	3.1
	수도권		362	86.3	3.6	5.9	2.0	1.6	2.5
	충청권		416	69.8	5.6	10.8	5.0	5.9	7.2
	호남권		349	81.6	7.0	7.4	2.6	0.7	2.6
	경남권		353	70.5	7.9	12.1	6.4	1.9	5.1
	경북권		309	65.7	4.0	12.2	7.6	8.6	7.8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92.7	4.7	2.6	0.0	0.0	0.6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84.3	5.6	5.7	2.8	1.6	2.3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73.2	5.9	10.7	4.5	3.9	5.3
	5억 원 이상		216	71.6	2.2	10.0	9.6	2.1	8.2

(5)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

- 하루에 한 건 이상 테이크아웃 판매를 하는 업체 비중은 55.5%이며, 전체 외식업체의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는 11.9인분임. 1일 평균 10인분 미만 테이크아웃 판매하는 업체 비중이 21.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20인분 미만 16.1% 등임.

〈그림 3-5〉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 분포

(단위: %)



- 업종별로 일반음식점의 테이크아웃 수는 1일 평균 5.5인분, 일반음식점 외는 18.5인분임.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서양식의 테이크아웃 수가 6.4인분으로 가장 많은 반면, 중식의 테이크아웃 수는 3.9인분으로 비교적 적은 편임.
- 일반음식점 외에서는 제과점의 테이크아웃 수가 51.2인분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29.0인분), 비알코올 음료점업(26.5인분)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운영 형태별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테이크아웃 수는 1일 평균 21.1인분이고,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8.5인분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권(15.6인분)이며, 다음으로는 충청권(14.4인분), 경남권(13.2인분) 등의 순서로 파악됨.
-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인 외식업체는 1일 평균 21.0인분을 테이크아웃 하는 반면, 5천만 원 미만인 외식업체는 3.9인분으로 분석됨.

〈표 3-5-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 분포(전체)

(단위: 개소, %, 인분)

구분			사례수	없음	10인분 미만	10~20인분 미만	20~30인분 미만	30~50인분 미만	50인분 이상	평균
전체			3,138	44.5	21.2	16.1	7.7	5.1	5.5	11.9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53.1	25.9	14.3	4.4	1.7	0.6	5.5
		한식	1,091	53.4	25.5	14.3	4.2	1.9	0.7	5.6
		중식	158	64.3	20.2	8.8	6.1	0.0	0.5	3.9
		일식	117	47.2	31.0	16.4	2.7	2.3	0.4	5.2
		서양식	118	36.0	37.9	17.8	7.5	0.7	0.0	6.4
		기타 외국식	72	46.9	22.3	28.9	1.9	0.0	0.0	5.8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35.4	16.3	17.9	11.1	8.6	10.7	18.5
		기관 구내식당업	78	96.9	0.0	3.1	0.0	0.0	0.0	0.4
		출장·이동음식점업	78	59.4	10.6	1.6	11.1	7.4	9.9	14.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3.5	9.3	14.0	14.8	16.9	51.2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9.9	33.8	22.7	9.9	11.3	19.8
			치킨 전문점	172	13.0	41.8	31.2	11.2	2.8	10.2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15.6	15.4	27.6	14.2	12.0	24.7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26.9	12.4	9.5	9.5	15.4	29.0
		주점업	318	86.5	10.4	1.3	1.1	0.2	0.5	1.4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14.9	12.9	25.8	18.8	14.1	13.5	26.5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24.5	23.7	20.5	9.4	10.1	12.0	21.1
	비프랜차이즈		2,114	51.7	20.3	14.5	7.0	3.3	3.2	8.5
지역	서울권		491	43.1	22.9	15.9	7.4	5.5	5.1	12.2
	수도권		595	50.9	18.2	15.7	5.6	7.3	2.3	8.6
	충청권		581	35.5	17.4	23.1	12.8	5.0	6.1	14.4
	호남권		467	48.8	25.0	12.8	6.5	4.5	2.4	8.3
	경남권		611	47.9	23.3	11.5	6.0	3.4	7.9	13.2
	경북권		393	38.4	20.5	18.1	7.8	4.7	10.5	15.6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66.0	16.7	13.2	2.3	1.0	0.8	3.9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50.7	21.1	14.5	6.7	4.6	2.4	7.6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42.1	22.5	16.5	8.0	5.1	5.7	12.2
	5억 원 이상		446	42.3	12.3	16.5	8.7	8.0	12.2	21.0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는 21.1인분이며, 업종별로 일반음식점은 7.9인분, 일반음식점 외는 27.8인분임.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중식의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가 8.4인분으로 가장 많고, 일반음식점 외에서는 제과점(57.7인분), 비알코올 음료점업(49.8인분),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32.5인분) 등임.
- 지역별로는 경북권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가 37.0인분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서울권(24.4인분), 충청권(22.9인분), 경남권(19.9인분) 등의 순서로 나타남.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인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1일 평균 31.3인분을 테이크아웃 판매하는 데 비해, 5천만 원 미만인 업체는 7.6인분으로 파악됨.

〈표 3-5-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인분)

구분			사례수	없음	10인분 미만	10~20인분 미만	20~30인분 미만	30~50인분 미만	50인분 이상	평균
전체			1,024	24.5	23.7	20.5	9.4	10.1	12.0	21.1
업종	일반음식점	소계	331	38.3	29.3	22.1	5.4	3.4	1.5	7.9
		한식	197	38.7	30.3	20.8	4.5	4.2	1.5	7.9
		중식	23	37.7	32.9	11.5	14.1	0.0	3.8	8.4
		일식	29	47.1	9.3	34.2	3.6	4.0	1.8	7.8
		서양식	46	25.6	36.8	26.2	11.4	0.0	0.0	8.2
		기타 외국식	36	43.9	20.1	35.0	1.0	0.0	0.0	6.4
	일반음식점 외	소계	693	17.4	20.7	19.6	11.4	13.5	17.4	27.8
		기관 구내식당업	21	93.6	0.0	6.4	0.0	0.0	0.0	0.8
		출장·이동음식점업	5	22.4	0.0	0.0	0.0	77.6	0.0	28.3
		기타음식점업	제과점	82	2.0	12.2	15.0	6.0	15.3	57.7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10.6	32.8	21.5	11.2	12.1	20.1
			치킨 전문점	127	12.7	43.0	30.2	11.2	3.0	10.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6.2	19.1	31.3	17.2	12.1	26.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13.9	18.2	11.0	4.0	19.0	32.5
		주점업	69	81.8	14.0	1.0	3.1	0.0	0.0	1.5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3.1	5.0	16.2	15.8	27.9	32.0	49.8
지역	서울권		166	19.0	20.8	25.0	8.7	13.0	13.4	24.4
	수도권		233	30.4	20.7	24.2	5.1	13.6	6.0	14.6
	충청권		165	23.1	19.4	18.9	15.9	9.5	13.3	22.9
	호남권		118	17.0	35.2	20.4	8.0	12.3	7.1	19.2
	경남권		258	32.3	25.3	16.5	8.2	5.3	12.3	19.9
	경북권		84	5.1	22.6	18.2	14.9	8.3	30.9	37.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0.0	71.3	28.7	0.0	0.0	0.0	7.6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14.1	29.3	28.5	8.2	14.6	5.2	15.8
	1억 원~5억 원 미만		721	24.3	25.6	20.0	9.7	9.5	11.0	19.8
	5억 원 이상		230	32.2	8.2	18.6	8.2	11.2	21.6	31.3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는 8.5인분임. 업종별로 일반음식점은 5.0인분이고, 일반음식점 외는 13.3인분임.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서양식의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가 5.5인분으로 가장 많고, 일반음식점 외에서는 제과점(46.6인분),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25.9인분) 등의 순서로 많은 편임.
- 지역별로는 경북권과 충청권 외식업체의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가 11.5인분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권이 9.3인분, 서울권이 8.0인분 등의 순서로 많음.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인 외식업체는 1일 평균 12.3인분을 테이크아웃 판매하는 반면에 5천만 원 미만인 업체의 경우 3.7인분으로 비교적 적음.

〈표 3-5-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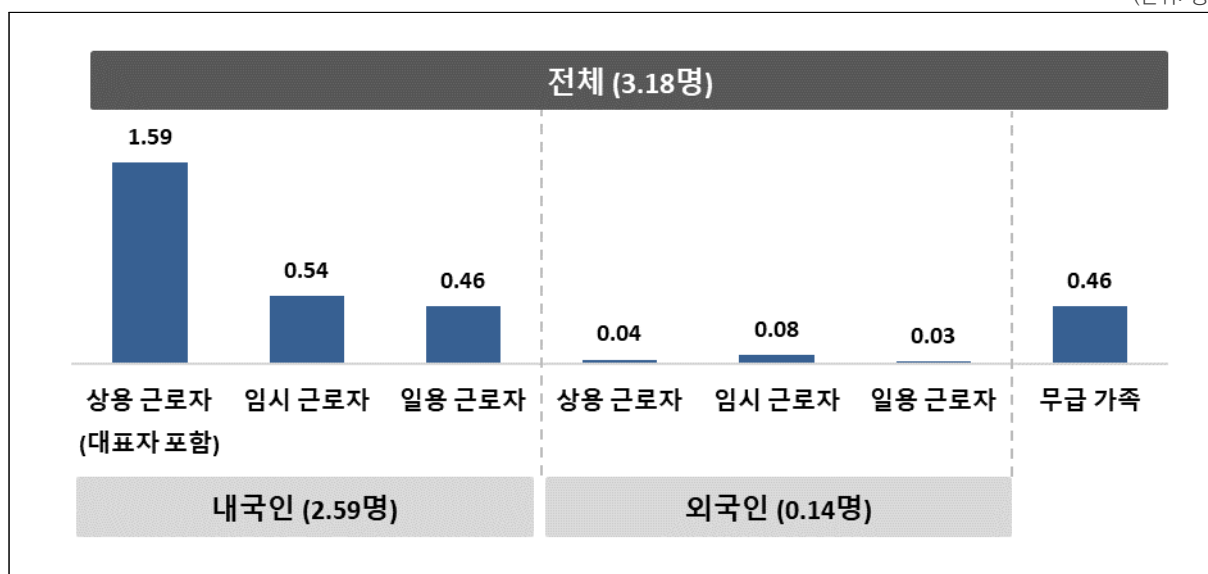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없음	10인분 미만	10~20인분 미만	20~30인분 미만	30~50인분 미만	50인분 이상	평균
전체		2,114	51.7	20.3	14.5	7.0	3.3	3.2	8.5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56.3	25.1	12.7	4.2	1.3	5.0
		한식	894	56.4	24.6	13.0	4.1	1.4	5.2
		중식	135	68.0	18.5	8.5	5.0	0.0	3.2
		일식	88	47.2	36.4	11.9	2.5	1.9	4.6
		서양식	72	41.5	38.5	13.4	5.4	1.1	5.5
		기타 외국식	36	49.6	24.2	23.6	2.7	0.0	5.3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45.6	13.8	16.9	10.9	5.9	13.3
		기관 구내식당업	57	97.9	0.0	2.1	0.0	0.0	0.3
		출장·이동음식점업	73	63.3	11.7	1.7	12.3	0.0	12.4
		제과점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기타 음식점업	84	4.6	7.4	13.2	20.8	18.0	46.6
			21	6.6	38.9	28.5	3.8	7.1	18.0
			45	13.7	38.9	33.7	11.3	2.4	10.6
			111	21.8	13.0	25.2	12.3	11.9	23.9
			37	38.5	7.2	8.2	14.4	12.3	25.9
		주점업	249	87.3	9.7	1.3	0.8	0.3	1.4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20.0	16.4	30.0	20.1	8.1	16.4
지역	서울권		325	51.4	23.7	12.8	7.0	2.9	8.0
	수도권		362	60.4	17.0	11.7	5.9	4.4	5.7
	충청권		416	39.6	16.8	24.5	11.7	3.6	11.5
	호남권		349	56.7	22.5	10.9	6.1	2.6	5.6
	경남권		353	57.1	22.1	8.6	4.6	2.2	9.3
	경북권		309	44.7	20.1	18.1	6.4	4.1	11.5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68.4	14.8	12.6	2.4	1.0	3.7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56.0	19.9	12.5	6.5	3.1	6.5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49.4	21.2	15.1	7.4	3.3	9.1
	5억 원 이상		216	50.8	15.8	14.8	9.0	5.3	12.3

(6) 월평균 근로 형태별 근로자 수

- 전체 외식업체의 월평균 근로자 수는 3.18명임. 근로 형태별로는 내국인 근로자 수가 월평균 2.59명이
고, 상용근로자가 1.59명, 임시직 근로자는 0.54명, 일용직 근로자는 0.46명으로 나타남. 외국인 근로자
수는 월평균 0.14명이고, 상용근로자 0.04명, 임시직 근로자는 0.08명, 일용직 근로자는 0.03명임.
무급가족 수는 0.46명으로 조사됨.
- 내국인 상용근로자는 1.59명이며, 이 중 대표자는 1.00명, 대표자를 제외한 상용근로자는 0.60명임.⁶⁾

〈그림 3-6〉 월평균 근로 형태별 근로자 수 분포

(단위: 명)



-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3.50명으로 일반음식점 외(2.84명) 대비 많음. 일반음식점
에서는 서양식이 4.21명, 기타 외국식이 3.76명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중식은
3.42명으로 비교적 적은 편임.
- 일반음식점 외 업종에서는 기관 구내식당의 근로자 수가 4.24명으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출장·이동음식
점업(3.85명), 제과점(3.76명),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3.73명) 등의 순서로 많은 반면,
주점업(2.39명)은 근로자 수가 적음.
- 운영 형태별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월평균 근로자 수는 4.04명으로 비프랜차이즈(2.86명)보다 많음.
- 지역별로는 경남권 외식업체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3.5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권(3.24명), 충
청권(3.21명), 호남권(3.15명) 등의 순서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의 경우 월평균 근로자 수가 7.34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5천만 원 미만인
업체는 1.58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임.

6) 2019년 이전 조사에서는 상용근로자에 대표자를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며, 2020년 조사부터 대표자와 상용근로자를 분리함.

〈표 3-6-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자 수 분포(전체)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무급가족	전체		
				상용(대표자 포함)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소계	대표자	상용								
전체			3,138	1.59	1.00	0.60	0.54	0.46	0.04	0.08	0.03	0.46	3.18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1.70	1.00	0.70	0.53	0.46	0.05	0.11	0.03	0.61	3.50	
		한식	1,091	1.66	1.00	0.66	0.53	0.46	0.05	0.11	0.03	0.62	3.46	
		중식	158	1.71	0.99	0.71	0.41	0.38	0.07	0.14	0.03	0.69	3.42	
		일식	117	1.90	1.00	0.90	0.49	0.53	0.07	0.07	0.01	0.47	3.53	
		서양식	118	2.30	1.00	1.30	0.79	0.45	0.07	0.13	0.04	0.47	4.21	
		기타 외국식	72	1.65	0.98	0.67	0.53	0.48	0.18	0.30	0.15	0.48	3.76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1.48	1.00	0.48	0.55	0.45	0.02	0.04	0.02	0.30	2.84	
		기관 구내식당업		78	3.55	0.90	2.65	0.40	0.18	0.08	0.02	0.01	0.25	4.24
		출장·이동음식점업		78	2.28	1.00	1.28	0.27	0.69	0.03	0.03	0.02	0.54	3.85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2.04	0.98	1.06	0.72	0.46	0.02	0.04	0.01	0.47	3.76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1.71	1.00	0.71	0.81	0.82	0.02	0.04	0.01	0.33	3.73
			치킨 전문점	172	1.35	1.00	0.35	0.38	0.27	0.00	0.05	0.00	0.51	2.56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1.25	1.00	0.25	0.38	0.41	0.03	0.04	0.01	0.53	2.64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1.29	1.00	0.29	0.37	0.26	0.05	0.07	0.04	0.41	2.48
		주점업		318	1.30	1.00	0.30	0.38	0.38	0.05	0.05	0.05	0.18	2.39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1.41	1.00	0.42	0.75	0.53	0.00	0.02	0.01	0.19	2.90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1.87	0.99	0.87	0.83	0.81	0.04	0.09	0.02	0.42	4.04	
	비프랜차이즈		2,114	1.49	1.00	0.50	0.44	0.33	0.04	0.07	0.03	0.47	2.86	
지역	서울권		491	1.62	1.00	0.62	0.74	0.33	0.06	0.08	0.04	0.37	3.24	
	수도권		595	1.67	1.00	0.68	0.52	0.10	0.09	0.11	0.03	0.30	2.81	
	충청권		581	1.40	0.99	0.40	0.41	0.63	0.01	0.19	0.05	0.54	3.21	
	호남권		467	1.55	0.99	0.56	0.79	0.37	0.04	0.05	0.01	0.34	3.15	
	경남권		611	1.58	1.00	0.58	0.40	0.93	0.01	0.01	0.01	0.60	3.54	
	경북권		393	1.80	1.00	0.81	0.40	0.25	0.02	0.00	0.00	0.60	3.07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1.02	0.98	0.04	0.18	0.03	0.00	0.00	0.01	0.33	1.58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1.09	1.00	0.09	0.18	0.13	0.02	0.01	0.00	0.29	1.73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1.50	1.00	0.51	0.57	0.41	0.03	0.08	0.03	0.50	3.12	
	5억 원 이상		446	3.64	0.99	2.65	1.21	1.66	0.15	0.19	0.07	0.46	7.34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월평균 근로자 수는 4.04명이며, 내국인 상용근로자는 1.87명, 외국인 상용근로자는 0.04명임.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4.49명으로 일반음식점 외(3.81명)보다 많음. 일반음식점에서는 중식이 5.03명으로 가장 많고, 서양식(4.69명), 일식(4.53명) 등의 순서임. 일반음식점 외 업종별로 월평균 근로자 수는 출장·이동음식점업이 8.12명으로 가장 많고, 기관 구내식당업(6.19명), 비알코올 음료점업(4.68명), 제과점(4.65명) 등의 순서로 많은 반면,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2.69명)은 비교적 적음.
- 지역별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월평균 근로자 수는 경남권이 4.55명으로 가장 많고, 호남권(4.32명), 서울권(4.30명) 순서로 많음.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인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월평균 근로자 수는 8.06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5천만 원 미만은 1.43명으로 가장 적음.

〈표 3-6-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자 수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무급가족	전체		
				상용(대표자 포함)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소계	대표자	상용								
전체			1,024	1.87	0.99	0.87	0.83	0.81	0.04	0.09	0.02	4.02	4.04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2.13	0.99	1.14	0.80	0.77	0.06	0.14	0.03	0.58	4.49	
		한식	197	2.03	0.99	1.04	0.79	0.80	0.05	0.14	0.03	0.63	4.45	
		중식	23	2.83	1.00	1.83	1.09	0.53	0.12	0.20	0.00	0.32	5.03	
		일식	29	2.03	1.00	1.03	0.68	1.04	0.09	0.15	0.00	0.59	4.53	
		서양식	46	2.82	1.00	1.83	0.86	0.52	0.04	0.09	0.08	0.34	4.69	
		기타 외국식	36	1.81	0.96	0.85	0.59	0.67	0.31	0.18	0.13	0.48	4.17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1.73	0.99	0.74	0.85	0.83	0.02	0.06	0.01	0.33	3.81	
		기관 구내식당업	21	5.98	0.94	5.04	0.42	0.21	0.00	0.00	0.06	0.06	6.19	
		출장·이동음식점업	5	7.67	1.00	6.67	0.00	0.45	0.00	0.00	0.00	0.00	8.12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2.16	0.96	1.20	1.17	0.78	0.02	0.10	0.02	0.40	4.6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1.80	1.00	0.80	0.88	0.93	0.03	0.04	0.01	0.30	3.97
			치킨 전문점	127	1.41	1.00	0.41	0.37	0.37	0.00	0.05	0.00	0.50	2.7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1.37	1.01	0.36	0.73	0.75	0.03	0.05	0.01	0.43	3.36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1.22	1.00	0.22	0.44	0.33	0.10	0.14	0.02	0.44	2.69
		주점업	69	1.42	1.00	0.42	0.44	0.86	0.06	0.12	0.05	0.31	3.28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1.84	0.99	0.85	1.38	1.24	0.01	0.05	0.00	0.18	4.68	
지역	서울권	166	2.01	1.00	1.01	1.14	0.63	0.08	0.12	0.01	0.32	4.30		
	수도권	233	1.93	1.00	0.93	0.79	0.15	0.08	0.21	0.07	0.34	3.54		
	충청권	165	1.45	0.99	0.45	0.28	1.27	0.00	0.07	0.01	0.31	3.36		
	호남권	118	1.89	0.96	0.93	1.53	0.63	0.03	0.05	0.00	0.22	4.32		
	경남권	258	1.90	1.00	0.90	0.63	1.41	0.01	0.02	0.01	0.58	4.55		
	경북권	84	2.18	1.00	1.18	1.12	0.15	0.00	0.00	0.00	0.82	4.27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1.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43	1.43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1.14	1.00	0.14	0.19	0.13	0.00	0.03	0.00	0.36	1.85		
	1억 원~5억 원 미만	721	1.61	0.99	0.62	0.79	0.61	0.03	0.07	0.02	0.43	3.55		
	5억 원 이상	230	3.68	0.99	2.68	1.40	2.30	0.09	0.21	0.06	0.37	8.06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월평균 근로자 수는 2.86명이며, 내국인 상용근로자는 1.49명, 외국인 상용근로자는 0.04명으로 나타남.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3.28명으로 일반음식점 외 (2.30명)보다 많음. 일반음식점에서는 서양식이 3.9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 외국식(3.40명), 일식(3.28명), 한식(3.26명) 등의 순임. 일반음식점 외 업종별로 월평균 근로자 수는 기관 구내식당업(3.61명), 출장·이동음식점업(3.40명), 제과점(3.14명) 등의 순서로 많은 반면, 주점업(2.23명)은 상대적으로 적음.
- 지역별로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월평균 근로자 수는 충청권이 3.16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권(2.94명), 서울권(2.88명) 등의 순서로 많음.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인 외식업체의 월평균 근로자 수는 6.73명으로 가장 많은 데 비해, 5천만 원 미만은 1.59명으로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3-6-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자 수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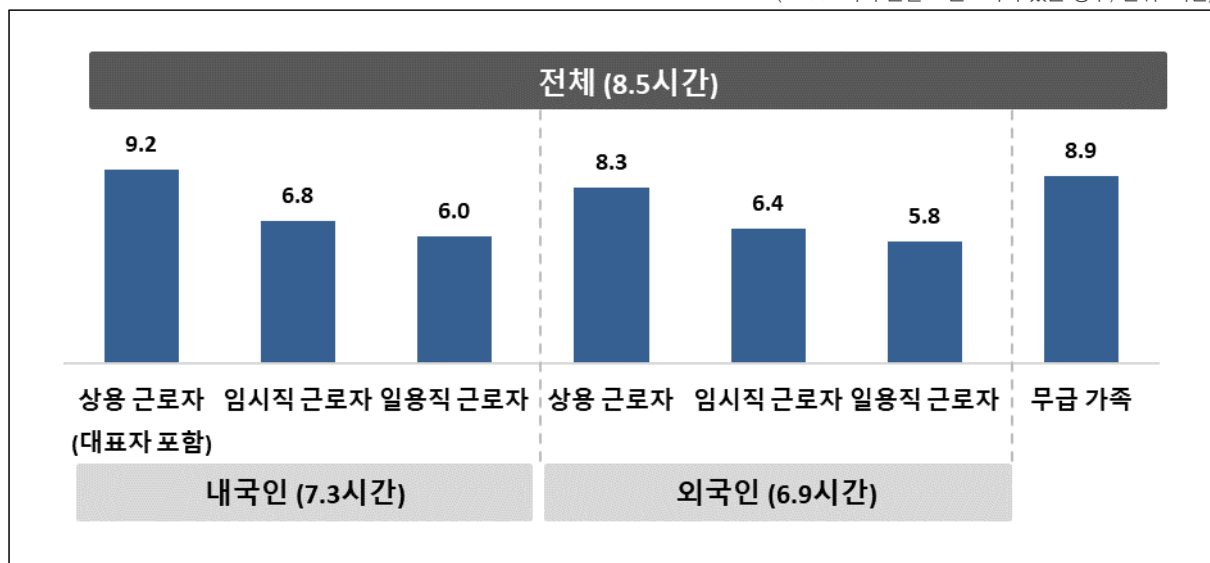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무급 가족	전체	
				상용(대표자 포함)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소계	대표자	상용							
전체			2,114	1.49	1.00	0.50	0.44	0.33	0.04	0.07	0.03	0.47	2.86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1.61	1.00	0.61	0.48	0.39	0.05	0.11	0.03	0.62	3.28
		한식	894	1.58	1.00	0.58	0.48	0.40	0.04	0.10	0.03	0.62	3.26
		중식	135	1.55	0.99	0.56	0.32	0.36	0.06	0.14	0.03	0.74	3.20
		일식	88	1.87	1.00	0.87	0.44	0.40	0.06	0.04	0.02	0.44	3.28
		서양식	72	2.02	1.00	1.02	0.76	0.41	0.09	0.16	0.03	0.53	3.95
		기타 외국식	36	1.51	1.00	0.51	0.48	0.31	0.06	0.40	0.16	0.49	3.4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1.34	1.00	0.34	0.38	0.24	0.03	0.02	0.02	0.27	2.30
		기관 구내식당업	57	2.76	0.88	1.88	0.39	0.17	0.11	0.03	0.00	0.31	3.61
		출장·이동음식점업	73	1.71	1.00	0.71	0.30	0.71	0.03	0.03	0.02	0.60	3.40
		제과점	84	1.96	1.00	0.96	0.41	0.24	0.02	0.00	0.00	0.52	3.14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1.29	1.00	0.29	0.45	0.32	0.00	0.04	0.00	0.46	2.56
		치킨 전문점	45	1.19	1.00	0.19	0.40	0.03	0.00	0.07	0.00	0.52	2.22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1.17	1.00	0.17	0.15	0.18	0.03	0.03	0.01	0.60	2.17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1.36	1.00	0.36	0.31	0.19	0.00	0.01	0.05	0.38	2.29
		주점업	249	1.28	1.00	0.28	0.36	0.30	0.05	0.04	0.05	0.15	2.23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1.23	1.00	0.23	0.47	0.23	0.00	0.00	0.01	0.19	2.12
지역	서울권	325	1.49	1.00	0.49	0.60	0.23	0.06	0.06	0.06	0.38	2.88	
	수도권	362	1.55	1.00	0.56	0.39	0.08	0.09	0.06	0.02	0.28	2.47	
	충청권	416	1.38	0.99	0.39	0.45	0.42	0.01	0.23	0.07	0.62	3.16	
	호남권	349	1.47	1.00	0.47	0.61	0.30	0.05	0.05	0.01	0.37	2.86	
	경남권	353	1.39	1.00	0.39	0.27	0.65	0.01	0.01	0.01	0.61	2.94	
	경북권	309	1.73	0.99	0.74	0.26	0.27	0.02	0.00	0.00	0.56	2.84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1.02	0.98	0.04	0.19	0.03	0.00	0.00	0.01	0.33	1.59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1.09	1.00	0.09	0.17	0.13	0.02	0.01	0.00	0.28	1.71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1.46	1.00	0.46	0.47	0.34	0.03	0.09	0.03	0.53	2.94	
	5억 원 이상	216	3.62	1.00	2.62	1.05	1.11	0.20	0.18	0.08	0.53	6.73	

(7) 1일 평균 근로 형태별 근로시간

- 외식업체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8.5시간임. 그 중 내국인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7.3시간, 외국인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6.9시간임. 내국인 중 상용근로자는 1일 평균 9.2시간, 임시직 근로자는 6.8시간, 일용직 근로자는 6.0시간으로 나타남. 외국인 상용근로자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8.3시간, 임시직 근로자는 6.4시간, 일용직 근로자는 5.8시간으로 조사됨.
- 내국인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9.2시간이나, 이 중 대표자 근로시간은 9.3시간이며, 대표자를 제외한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8.5시간임.⁷⁾

〈그림 3-7〉 1일 평균 근로 형태별 근로시간 분포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시간)



- 일반음식점 업종별로는 중식의 1일 평균 근로시간(8.6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기타 외국식은 8.2시간으로 비교적 적은 수준임. 일반음식점에서 내국인 상용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중식과 서양식(9.3시간)이 많고, 외국인 상용근로자 근무시간은 한식(8.9시간) 업종이 많음. 무급가족 근무시간이 많은 업종은 일식(9.4시간)인 것으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 외 업종별로는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9.4시간)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주점업(7.5시간)은 적은 수준임. 일반음식점 외 업종에서 내국인 상용근로자 근무시간이 많은 업종은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10.4시간)이고, 외국인 상용근로자의 경우 출장·이동음식점업(10.9시간)으로 조사됨.
- 운영 형태별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8.6시간으로 비프랜차이즈(8.5시간)보다 많음.
- 지역별로 외식업체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경북권(9.2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임.

7) 2019년 이전 조사에서는 상용근로자에 대표자를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며, 2020년 조사부터 대표자와 상용근로자를 분리함.

-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인 외식업체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8.1시간으로 가장 적은 반면, 5천만 원~1억 원 미만인 업체는 8.8시간으로 비교적 많음.

〈표 3-7-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시간 분포(전체)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개소, 시간)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무급가족	전체		
				상용(대표자 포함)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소계	대표자	상용								
Base			3,138	3,131	3,068	1,284	1,032	826	113	200	70	1,403	3,138	
전체			3,138	9.2	9.3	8.5	6.8	6.0	8.3	6.4	5.8	8.9	8.5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9.2	9.4	8.6	6.9	6.0	8.6	6.3	6.0	9.1	8.5	
		한식	1,091	9.2	9.4	8.6	6.9	6.0	8.9	6.2	5.9	9.1	8.5	
		중식	158	9.3	9.5	8.8	6.9	6.4	7.1	7.2	7.0	8.9	8.6	
		일식	117	8.8	8.9	7.9	7.4	6.1	8.0	8.0	8.0	9.4	8.4	
		서양식	118	9.3	9.5	8.2	6.8	6.1	8.7	5.5	5.3	9.1	8.4	
		기타 외국식	72	9.2	9.3	8.2	7.0	6.3	8.4	5.8	5.4	8.8	8.2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9.2	9.3	8.4	6.6	6.1	7.8	6.6	5.5	8.6	8.5	
		기관 구내식당업	78	8.8	9.2	8.3	7.7	5.3	9.8	8.0	7.0	9.1	8.4	
		출장·이동음식점업	78	9.0	9.1	8.8	8.2	7.3	10.9	8.0	8.0	9.8	8.7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9.6	9.8	8.4	6.0	6.0	8.0	6.6	8.1	9.3	8.7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10.0	10.1	8.5	6.9	5.6	8.0	5.2	4.0	9.3	9.1
			치킨 전문점	172	9.6	9.7	8.5	6.7	7.0	-	7.3	4.0	8.7	9.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10.4	10.6	8.4	6.4	6.4	7.6	7.6	7.5	9.1	9.4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9.3	9.4	8.4	7.0	6.1	8.0	5.4	6.7	8.5	8.7
		주점업	318	8.0	8.0	8.3	6.7	6.2	7.6	6.3	5.4	7.5	7.5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9.4	9.4	8.4	6.6	5.7	7.8	6.8	1.0	8.0	8.7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9.5	9.6	8.5	6.7	6.0	8.0	6.7	5.9	9.2	8.6		
	비프랜차이즈	2,114	9.1	9.2	8.5	6.8	6.1	8.5	6.3	5.8	8.8	8.5		
지역	서울권	491	9.0	9.2	8.2	7.0	6.3	8.2	7.4	5.7	8.9	8.4		
	수도권	595	9.0	9.1	8.6	7.6	7.0	8.2	7.0	5.9	8.8	8.7		
	충청권	581	9.3	9.4	8.4	5.9	6.3	6.7	5.8	5.5	8.0	8.2		
	호남권	467	9.4	9.5	9.1	6.3	6.1	9.5	6.3	5.6	9.2	8.7		
	경남권	611	9.0	9.1	8.3	7.4	5.4	8.2	4.8	7.4	8.7	8.2		
	경북권	393	9.5	10.0	8.3	6.3	6.5	8.2	6.0	7.6	10.2	9.2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9.2	9.2	8.7	5.6	3.6	-	-	6.0	8.0	8.7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9.2	9.2	8.4	6.3	6.2	6.9	6.8	7.8	8.4	8.8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9.2	9.4	8.5	6.8	6.0	8.4	6.4	5.7	9.0	8.5		
	5억 원 이상	446	8.9	9.3	8.4	7.1	6.0	8.7	6.2	6.0	9.3	8.1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8.6시간으로 나타남. 일반음식점 업종별로 1일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업종은 한식(8.6시간, 일식(8.5시간)이고, 다음으로는 기타 외국식(8.3시간), 서양식(8.2시간), 중식(7.9시간) 순서임. 일반음식점 외의 업종별로 1일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업종은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9.2시간)이고, 다음으로 치킨 전문점(9.1시간),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9.0시간) 등임.
- 지역별로 1일 평균 근로시간은 경북권(9.6시간)의 외식업체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호남권(9.1시간), 수도권(8.7시간), 서울권과 충청권(각 8.4시간) 등의 순서로 많음. 매출액 규모별 1일 평균 근로시간은 5천만 원 미만이 10.4시간으로 가장 많고, 5억 원 이상이 7.9시간으로 가장 적음.

〈표 3-7-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시간 분포(프랜차이즈)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개소, 시간)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무급가족	전체		
				상용(대표자 포함)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소계	대표자	상용								
Base			1,024	1,021	986	533	423	345	43	67	26	381	1,024	
전체			1,024	9.5	9.6	8.5	6.7	6.0	8.0	6.7	5.9	9.2	8.6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9.4	9.5	8.6	6.7	5.8	8.0	6.7	5.7	9.5	8.5	
		한식	197	9.5	9.6	8.6	6.8	5.8	7.8	6.2	5.9	9.5	8.6	
		중식	23	9.4	9.6	9.2	5.0	5.8	8.0	8.0	-	8.7	7.9	
		일식	29	8.9	9.0	7.9	7.5	5.6	8.0	8.0	-	9.4	8.5	
		서양식	46	9.2	9.4	8.3	6.3	5.7	8.3	6.6	5.5	9.7	8.2	
		기타 외국식	36	9.1	9.3	8.2	7.0	6.1	8.5	6.7	5.2	8.9	8.3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9.5	9.6	8.4	6.6	6.1	8.0	6.7	6.1	9.0	8.6	
		기관 구내식당업	21	8.6	9.2	8.3	7.9	5.4	8.0	-	7.0	11.0	8.2	
		출장·이동음식점업	5	7.2	5.8	8.3	-	11.0	-	-	-	-	7.2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9.3	9.6	8.6	5.5	5.8	8.0	6.6	8.1	9.4	8.1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10.0	10.1	8.5	6.7	5.6	8.0	4.3	4.0	9.5	9.2
			치킨 전문점	127	9.7	9.8	8.4	7.0	6.8	-	7.2	4.0	9.0	9.1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10.2	10.5	8.5	6.4	6.2	8.0	7.7	6.7	9.7	9.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9.4	9.5	8.5	6.9	6.1	8.0	5.0	5.5	9.2	8.8
		주점업	69	8.4	8.4	8.4	6.3	6.8	8.0	7.1	6.1	8.6	7.8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9.3	9.3	8.3	6.9	5.5	7.8	7.0	-	7.8	8.3	
지역	서울권	166	9.4	9.5	8.3	6.6	6.0	8.0	5.9	7.6	8.4	8.4		
	수도권	233	9.3	9.3	8.7	7.3	6.7	8.1	7.3	5.4	9.0	8.7		
	충청권	165	9.5	9.7	8.2	5.8	6.7	3.0	5.2	8.0	8.8	8.4		
	호남권	118	10.2	10.2	9.3	6.3	6.4	10.5	6.3	8.0	10.0	9.1		
	경남권	258	9.1	9.2	8.3	6.9	5.3	7.1	7.1	7.3	9.1	8.2		
	경북권	84	10.4	11.1	8.4	5.9	5.1	-	-	-	10.6	9.6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10.4	10.4	-	-	-	-	-	-	11.5	10.4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10.4	10.4	8.4	7.2	5.8	8.0	8.0	4.0	8.9	9.8		
	1억 원~5억 원 미만	721	9.5	9.5	8.5	6.6	6.0	8.0	6.8	5.8	9.3	8.6		
	5억 원 이상	230	9.0	9.4	8.3	6.7	6.0	8.0	6.3	6.2	9.2	7.9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8.5시간으로 나타남. 일반음식점의 업종별로 1일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업종은 중식(8.7시간)이고, 다음으로는 한식과 서양식(각 8.5시간), 일식(8.4시간), 기타 외국식(8.2시간) 순서임. 일반음식점 외의 업종별로 1일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업종은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9.6시간)이고, 다음으로 제과점(9.1시간), 출장·이동음식점업(8.9시간) 등임.
- 지역별로 1일 평균 근로시간은 경북권(9.1시간)의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가 가장 많으며,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과 5천만 원~1억 원 미만인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가 8.6시간으로 상대적으로 많음.

〈표 3-7-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시간 분포(비프랜차이즈)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개소,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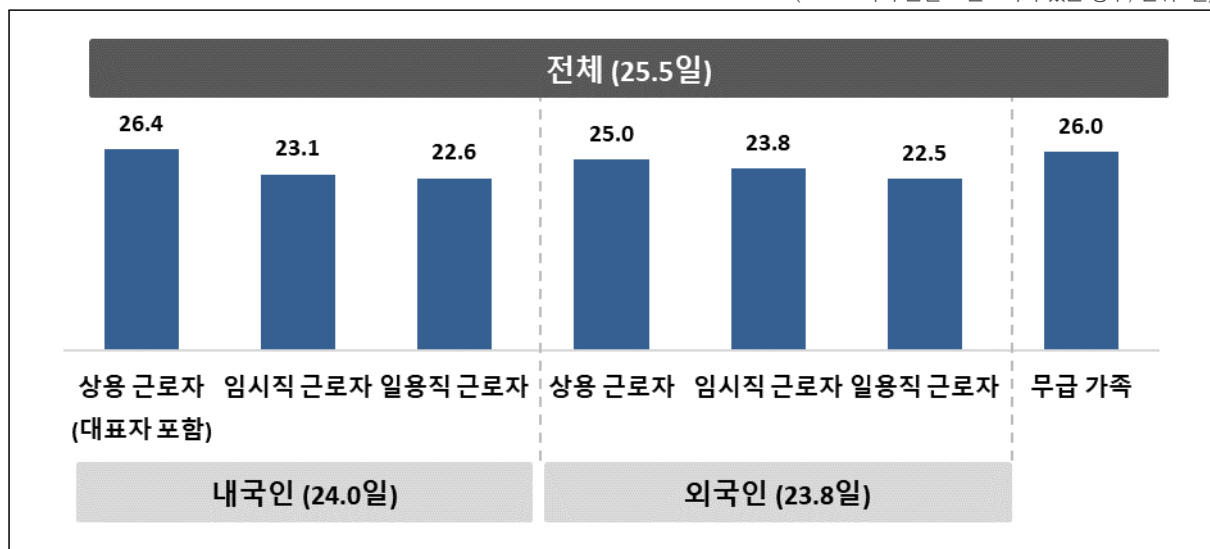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무급가족	전체		
				상용(대표자 포함)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소계	대표자	상용								
Base			2,114	2,110	2,082	751	609	481	70	133	44	1,022	2,114	
전체			2,114	9.1	9.2	8.5	6.8	6.1	8.5	6.3	5.8	8.8	8.5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9.2	9.4	8.6	7.0	6.1	8.9	6.3	6.0	9.0	8.5	
		한식	894	9.2	9.4	8.6	6.9	6.0	9.2	6.2	5.8	9.0	8.5	
		중식	135	9.3	9.5	8.8	7.3	6.5	6.9	7.1	7.0	8.9	8.7	
		일식	88	8.7	8.9	8.0	7.3	6.3	8.0	8.0	8.0	9.4	8.4	
		서양식	72	9.4	9.6	8.2	6.9	6.3	8.8	5.0	5.0	8.8	8.5	
		기타 외국식	36	9.2	9.3	8.2	7.0	6.7	8.0	5.5	5.6	8.8	8.2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9.0	9.1	8.3	6.6	6.1	7.8	6.5	5.2	8.3	8.4	
		기관 구내식당업	57	8.9	9.2	8.4	7.7	5.2	9.8	8.0	-	9.0	8.5	
		출장·이동음식점업	73	9.2	9.4	8.9	8.2	7.1	10.9	8.0	8.0	9.8	8.9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9.8	10.0	8.0	6.6	6.2	8.0	-	-	9.2	9.1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9.6	9.8	8.0	8.0	5.4	-	8.0	-	9.0	8.8
			치킨 전문점	45	9.4	9.4	8.5	6.4	10.7	-	7.4	-	8.1	8.8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10.5	10.6	8.2	6.5	6.6	7.3	7.5	8.0	8.8	9.6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9.2	9.3	8.3	7.0	6.2	-	8.0	7.0	7.8	8.7
		주점업	249	7.9	7.9	8.3	6.8	5.9	7.5	5.9	5.3	7.1	7.5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9.4	9.5	8.5	6.4	6.0	-	6.0	1.0	8.1	8.8	
지역	서울권	325	8.9	9.0	8.2	7.2	6.5	8.3	8.2	5.6	9.1	8.4		
	수도권	362	8.9	9.0	8.6	7.8	7.2	8.2	6.6	6.5	8.6	8.7		
	충청권	416	9.2	9.4	8.5	6.0	6.0	6.8	5.8	5.3	7.9	8.1		
	호남권	349	9.3	9.3	9.0	6.3	6.1	9.5	6.3	5.5	9.1	8.6		
	경남권	353	8.9	9.0	8.4	7.9	5.5	9.3	3.7	7.5	8.5	8.3		
	경북권	309	9.4	9.8	8.3	6.4	6.6	8.2	6.0	7.6	10.0	9.1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9.2	9.2	8.7	5.6	3.6	-	-	6.0	7.9	8.6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9.0	9.0	8.4	6.1	6.3	6.9	6.3	8.0	8.3	8.6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9.2	9.3	8.5	6.9	6.1	8.6	6.3	5.7	8.9	8.5		
	5억 원 이상	216	8.8	9.2	8.4	7.4	6.0	9.0	6.2	6.0	9.3	8.3		

(8) 월평균 근로 형태별 근로일수

- 외식업체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5.5일이며, 그 중 내국인 월평균 근로일수는 24.0일, 외국인은 23.8일임. 내국인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근로일수는 26.4일, 임시직 근로자는 23.1일, 일용직 근로자는 22.6일로 나타났고, 외국인 중 상용근로자는 25.0일, 임시직 근로자는 23.8일, 일용직 근로자는 22.5일로 조사됨. 무급가족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6.0일로 파악됨.
- 내국인 상용근로자의 근로일수는 26.4일이며, 이 중 대표자는 26.6일, 대표자를 제외한 상용근로자는 25.1일임.

〈그림 3-8〉 월평균 근로 형태별 근로일수 분포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일)



- 일반음식점의 업종별로는 한식과 중식(각 25.5일)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기타 외국 식(24.5일)은 적은 수준임. 일반음식점 업종에서 내국인 상용근로자 근로일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한식(26.3일)이고, 외국인 상용근로자 근로일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서양식(26.0일)으로 나타남. 무급가족 근무일수는 한식(26.2일)이 가장 많음.
- 일반음식점 외 업종별로는 치킨 전문점(27.0일), 주점업(25.8일),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25.7일)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많은 반면, 기관 구내식당업과 출장·이동음식점업(각 24.2일)은 적은 수준임. 일반음식 점 외 업종에서 내국인 상용근로자 근로일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치킨 전문점(27.4일)이고, 외국인 상용 근로자 근로일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26.9일)임. 무급가족 근무일수는 제과 점(26.8일)이 가장 많음.
- 운영 형태별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5.3일로 비프랜차이즈(25.6일)보다 적음.
- 지역별로 외식업체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경북권(26.5일)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임. 내국인 상용근로자의 경우 경북권과 호남권(각 27.0일), 외국인 상용근로자는 경북권(25.9일), 무급가족 근무일수의 경우도 경북 권(27.2일)이 가장 많음.

-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인 외식업체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4.8일로 비교적 적은 반면, 5천만 원 미만인 업체는 26.2일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3-8-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일수 분포(전체)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개소, 일)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무급 가족	전체		
				상용(대표자 포함)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소계	대표자	상용								
Base			3,138	3,131	3,068	1,284	1,032	826	113	200	70	1,403	3,138	
전체			3,138	26.4	26.6	25.1	23.1	22.6	25.0	23.8	22.5	26.0	25.5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26.3	26.6	25.2	23.3	22.4	24.7	24.2	23.2	26.0	25.4	
		한식	1,091	26.3	26.6	25.2	23.4	22.2	24.6	24.2	23.2	26.2	25.5	
		중식	158	26.1	26.3	25.3	23.8	24.9	25.1	24.4	26.6	25.2	25.5	
		일식	117	25.9	26.2	25.2	22.5	21.8	24.2	24.6	24.0	25.5	25.0	
		서양식	118	26.0	26.3	24.9	22.7	21.9	26.0	24.0	21.6	26.1	25.0	
		기타 외국식	72	25.8	26.4	24.4	21.6	23.1	25.1	22.9	20.4	24.9	24.5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26.5	26.7	24.9	22.8	22.8	25.4	22.9	21.2	25.8	25.6	
		기관 구내식당업	78	24.4	25.6	23.9	22.7	23.4	25.2	26.0	26.0	24.5	24.2	
		출장·이동음식점업	78	24.6	25.0	23.4	22.5	20.2	26.0	26.0	20.0	23.6	24.2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25.8	26.5	24.3	22.8	20.7	21.0	23.5	18.5	26.3	24.8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26.6	26.9	25.4	21.9	21.5	25.9	23.2	24.0	26.0	25.3
			치킨 전문점	172	27.4	27.5	25.9	24.1	25.5	-	23.4	20.0	26.8	27.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26.5	26.6	25.1	22.4	23.4	26.9	23.6	24.1	25.9	25.7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25.9	25.9	25.7	22.5	24.4	26.0	21.8	19.3	23.1	24.9
		주점업	318	26.7	26.7	25.0	24.5	22.8	25.3	22.4	20.4	25.6	25.8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26.4	26.6	24.7	21.6	22.1	25.0	23.0	25.0	25.5	25.3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26.4	26.9	24.5	22.5	22.2	24.9	23.5	20.1	26.3	25.3		
	비프랜차이즈	2,114	26.4	26.5	25.4	23.3	22.8	25.0	24.0	23.2	25.8	25.6		
지역	서울권	491	26.4	26.7	25.3	23.1	21.8	25.4	23.2	20.7	25.4	25.2		
	수도권	595	25.7	25.8	25.0	24.3	22.7	25.4	23.2	21.3	25.4	25.4		
	충청권	581	26.5	26.7	25.5	23.7	25.0	25.1	24.9	24.6	25.5	25.7		
	호남권	467	27.0	27.3	25.0	21.0	21.2	24.3	24.8	20.5	26.6	25.6		
	경남권	611	26.0	26.3	23.6	22.7	21.5	21.3	15.5	24.5	25.9	25.0		
	경북권	393	27.0	27.2	26.1	23.8	23.5	25.9	30.0	25.4	27.2	26.5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26.8	26.8	24.8	21.8	24.4	-	-	24.0	25.8	26.2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26.5	26.6	25.4	22.8	22.1	26.5	24.1	25.6	25.0	26.0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26.4	26.6	25.1	23.2	22.7	24.8	24.0	22.6	26.1	25.4		
	5억 원 이상	446	26.0	27.1	24.8	22.7	22.2	24.8	22.5	21.7	26.5	24.8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5.3일임.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업종별로 월평균 근로일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한식(25.4일)이고, 다음으로 중식(25.0일) 등의 순서임.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의 업종별로 월평균 근로일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치킨 전문점(27.2일),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25.4일),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과 주점업(각 25.2일) 등의 순임.
- 지역별로 월평균 근로일수는 경북권(27.0일)의 프랜차이즈 외식업체가 가장 많고, 충청권(25.8일), 호남권(25.4일) 등의 순으로 나타남.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인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4.5일인 데 비해, 5천만 원 미만 업체는 26.6일로 더 많음.

〈표 3-8-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일수 분포(프랜차이즈)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개소, 일)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무급가족	전체		
				상용(대표자 포함)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소계	대표자	상용								
Base			1,024	1,021	986	533	423	345	43	67	26	381	1,024	
전체			1,024	26.4	26.9	24.5	22.5	22.2	24.9	23.5	20.1	26.3	25.3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26.3	26.9	24.5	22.8	21.3	24.4	23.5	19.4	27.0	25.2
		한식		197	26.4	27.1	24.5	23.4	21.0	24.2	22.9	18.0	27.2	25.4
		중식		23	26.3	27.0	25.6	19.0	24.8	25.0	25.6	-	25.6	25.0
		일식		29	25.5	25.8	24.1	22.0	21.2	23.2	24.0	-	25.8	24.5
		서양식		46	25.5	25.9	24.5	21.0	20.9	25.9	25.0	23.0	26.5	24.3
		기타 외국식		36	26.2	27.0	25.0	19.9	23.7	25.0	22.5	20.5	24.8	24.5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26.5	27.0	24.5	22.4	22.7	25.7	23.5	20.9	25.8	25.3
		기관 구내식당업		21	23.4	23.9	23.1	24.1	23.5	26.0	-	26.0	26.0	23.5
		출장·이동음식점업		5	23.6	25.8	20.4	-	26.7	-	-	-	-	23.6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26.0	27.6	23.3	22.0	20.5	25.0	23.5	18.5	26.0	24.4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26.7	27.0	25.4	21.5	21.2	25.9	22.9	24.0	25.8	25.2
			치킨 전문점	127	27.6	27.8	25.8	24.9	25.5	-	22.0	20.0	26.9	27.2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26.6	26.9	24.6	21.4	23.4	25.7	23.8	21.3	26.1	25.4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26.0	26.0	25.2	22.3	25.2	26.0	21.1	16.3	21.9	24.5
		주점업		69	26.5	26.9	24.3	23.9	22.3	26.0	24.6	19.7	24.7	25.2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26.0	26.5	24.3	21.9	21.8	25.0	23.8	-	25.0	24.5
지역	서울권		166	26.3	26.7	24.7	22.7	22.2	25.4	23.7	24.0	24.1	25.0	
	수도권		233	25.7	26.1	24.9	24.0	22.4	25.5	23.8	20.5	25.6	25.3	
	충청권		165	26.9	27.3	24.9	22.2	25.2	20.0	21.9	16.0	25.9	25.8	
	호남권		118	27.6	28.4	25.3	20.2	20.5	26.0	24.5	10.0	27.5	25.4	
	경남권		258	26.0	26.5	22.9	21.7	20.5	21.4	18.5	21.7	26.5	24.6	
	경북권		84	27.6	28.5	26.1	23.7	23.4	-	-	-	28.5	27.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26.6	26.6	-	-	-	-	-	-	30.0	26.6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26.5	26.6	24.9	24.7	23.6	25.0	25.2	20.0	26.1	26.2	
	1억 원~5억 원 미만		721	26.5	26.9	24.6	22.4	22.6	24.8	23.7	20.1	26.1	25.3	
	5억 원 이상		230	26.0	27.2	24.4	22.6	20.8	25.3	22.3	20.1	27.6	24.5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5.6일로 나타남.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업종별로 월평균 근로일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중식(25.6일)이고, 다음으로는 한식(25.5일), 서양식(25.4일), 일식(25.1일), 기타 외국식(24.5일)임.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의 업종별로 월평균 근로일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치킨 전문점(26.4일),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과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각 25.9일) 등의 순임.
- 지역별로 월평균 근로일수는 경북권(26.4일)의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서 가장 많음.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인 업체의 근로일수가 25.1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임.

〈표 3-8-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일수 분포(비프랜차이즈)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개소,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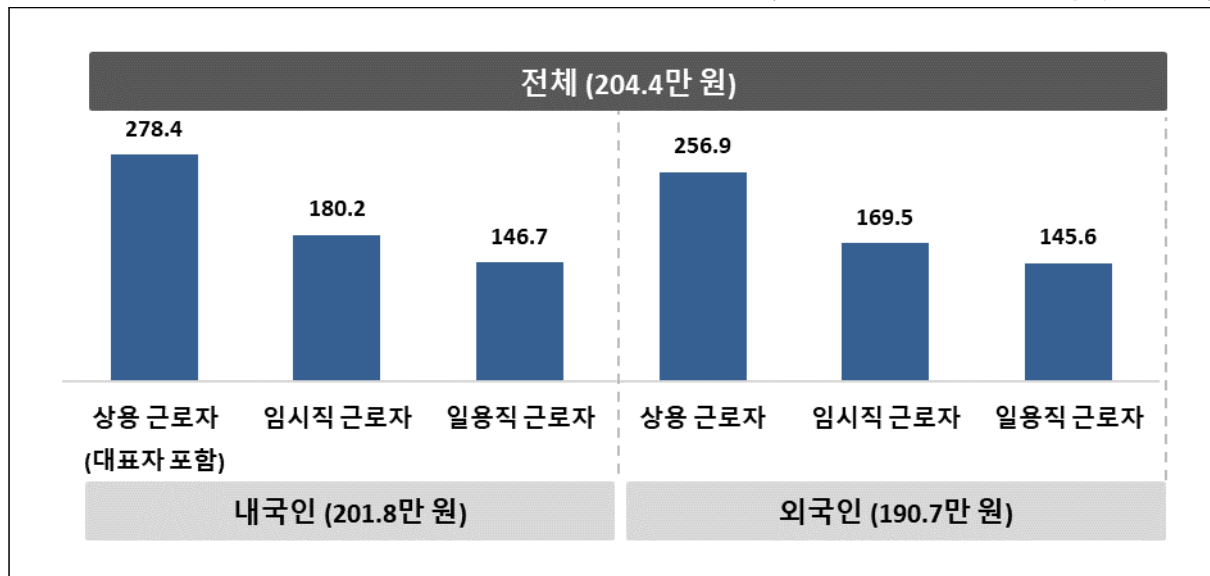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무급가족	전체		
				상용(대표자 포함)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소계	대표자	상용								
Base			2,114	2,110	2,082	751	609	481	70	133	44	1,022	2,114	
전체			2,114	26.4	26.5	25.4	23.3	22.8	25.0	24.0	23.2	25.8	25.6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26.3	26.5	25.4	23.5	22.8	24.8	24.3	24.0	25.8	25.5	
		한식	894	26.3	26.6	25.4	23.4	22.6	24.7	24.5	24.1	26.0	25.5	
		중식	135	26.1	26.2	25.3	24.9	24.9	25.1	24.2	26.6	25.2	25.6	
		일식	88	26.1	26.3	25.5	22.6	22.0	24.7	25.2	24.0	25.4	25.1	
		서양식	72	26.3	26.5	25.3	23.4	22.6	26.0	23.6	20.0	25.9	25.4	
		기타 외국식	36	25.6	26.0	23.3	23.3	22.1	25.3	23.0	20.3	25.0	24.5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26.4	26.6	25.3	23.1	22.8	25.2	22.4	21.3	25.8	25.7	
		기관 구내식당업	57	24.7	25.9	24.3	22.1	23.4	25.2	26.0	-	24.5	24.4	
		출장·이동음식점업	73	24.7	24.9	24.1	22.5	19.8	26.0	26.0	20.0	23.6	24.2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25.7	25.9	25.8	23.8	20.9	20.0	-	-	26.4	25.1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26.3	26.4	26.2	25.5	22.5	-	24.0	-	26.5	25.9
			치킨 전문점	45	26.9	27.0	26.1	22.5	24.7	-	25.0	-	26.6	26.4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26.4	26.4	25.9	24.2	23.5	27.6	23.4	26.0	25.7	25.9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25.9	25.9	26.0	22.7	23.4	-	26.0	20.0	24.4	25.3
		주점업	249	26.7	26.7	25.2	24.6	23.1	25.2	21.3	20.5	25.9	25.9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26.5	26.6	25.2	21.2	22.6	-	19.9	25.0	25.8	25.6	
		지역	서울권	325	26.5	26.7	25.6	23.2	21.6	25.4	23.0	20.6	25.8	25.3
			수도권	362	25.7	25.7	25.1	24.6	23.0	25.3	22.6	22.5	25.2	25.5
충청권	416		26.4	26.6	25.7	24.1	24.9	25.2	25.1	25.3	25.4	25.6		
호남권	349		26.8	27.0	24.8	21.3	21.4	24.3	24.9	20.7	26.4	25.6		
경남권	353		26.0	26.2	24.4	23.5	22.3	21.3	14.1	25.6	25.5	25.2		
경북권	309		26.8	27.0	26.1	23.9	23.5	25.9	30.0	25.4	26.8	26.4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26.8	26.8	24.8	21.8	24.4	-	-	24.0	25.6	26.2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26.5	26.6	25.5	22.4	21.9	26.5	23.6	26.0	24.8	25.9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26.3	26.5	25.4	23.5	22.7	24.8	24.1	23.2	26.0	25.5		
	5억 원 이상	216	26.1	27.0	25.2	22.8	23.6	24.6	22.8	22.6	25.7	25.1		

(9) 월평균 근로 형태별 인건비

- 외식업체의 근로 형태별 인건비를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인건비는 204.4만 원으로 나타남. 내국인 중 상용근로자는 278.4만 원, 임시직 근로자는 180.2만 원, 일용직 근로자는 146.7만 원이고, 외국인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256.9만 원, 임시직 근로자는 169.5만 원, 일용직 근로자는 145.6만 원으로 조사됨.

〈그림 3-9〉 월평균 근로 형태별 인건비 분포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만 원)



- 일반음식점의 월평균 인건비는 208.3만 원이고, 세부 업종별로는 일식(226.0만 원)과 중식(216.9만 원)의 월평균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기타 외국식(201.2만 원)은 낮은 수준임.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월평균 인건비는 199.6만 원이고, 업종별로는 출장·이동음식점업(237.5만 원)과 기관 구내식당업(235.9만 원)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 비해, 비알코올 음료점업(178.3만 원)은 낮음.
- 운영 형태별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월평균 인건비는 200.0만 원으로 나타나 비프랜차이즈(206.4만 원)보다 낮음. 내국인 상용근로자의 프랜차이즈 인건비는 273.7만 원으로 비프랜차이즈(280.9만 원)보다 낮고, 외국인 상용근로자 경우도 프랜차이즈(252.5만 원)가 비프랜차이즈(258.4만 원)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지역별로 외식업체의 월평균 인건비는 수도권(249.4만 원)과 경북권(223.7만 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충청권(179.1만 원)은 낮은 수준임. 내국인 상용근로자 인건비는 수도권이 296.0만 원으로 가장 높고, 외국인 상용근로자도 수도권(265.5만 원)이 가장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인 외식업체의 월평균 인건비는 224.6만 원으로 비교적 높은 반면, 5천만 원 미만인 업체는 139.6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내국인 상용근로자는 5억 원 이상인 업체의 월평균 인건비가 281.4만 원으로 가장 높고, 외국인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5천만 원~1억 원 미만인 업체가 298.0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9-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인건비 분포(전체)

(Base: 각 구분별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개소, 만 원)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전체
				상용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Base			3,138	1,248	1,032	826	113	200	70	2,241
전체			3,138	278.4	180.2	146.7	256.9	169.5	145.6	204.4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282.8	185.7	145.3	250.1	160.5	146.0	208.3
		한식	1,091	282.5	185.5	143.4	249.3	157.1	141.7	207.3
		중식	158	291.5	182.2	164.4	224.8	173.6	184.5	216.9
		일식	117	282.1	207.4	148.8	246.4	227.9	155.0	226.0
		서양식	118	276.0	174.6	137.5	263.1	129.2	145.5	193.7
		기타 외국식	72	277.5	182.0	168.0	297.3	154.9	134.1	201.2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272.0	173.8	148.4	268.2	192.8	144.7	199.6
		기관 구내식당업	78	252.4	192.4	147.2	271.4	250.0	150.0	235.9
		출장·이동음식점업	78	289.6	220.8	167.0	292.0	200.0	240.0	237.5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259.1	154.8	203.5	186.1	182.4	191.2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279.3	177.8	254.3	149.0	100.0	203.0
			치킨 전문점	172	283.2	182.2	186.4	-	172.6	214.3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264.2	173.7	248.7	218.7	174.1	191.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271.6	185.6	200.0	124.4	161.4	208.3
		주점업	318	299.8	195.2	157.9	277.7	209.5	151.3	214.8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255.2	158.7	130.1	271.3	171.8	50.0	178.3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273.7	177.1	143.3	252.5	172.0	133.0	200.0
	비프랜차이즈		2,114	280.9	181.6	148.6	258.4	168.6	149.1	206.4
지역	서울권		491	288.6	198.7	157.6	259.4	182.2	159.3	220.2
	수도권		595	296.0	218.2	169.7	265.5	201.0	131.7	249.4
	충청권		581	262.5	146.0	161.6	206.7	147.1	142.1	179.1
	호남권		467	286.1	139.4	138.6	262.8	162.0	136.4	183.4
	경남권		611	261.9	203.1	127.9	208.8	112.8	188.0	179.3
	경북권		393	264.5	171.0	161.7	243.1	210.0	183.1	223.7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281.0	127.9	113.9	-	-	130.0	139.6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259.4	160.3	138.3	298.0	168.5	193.3	180.2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278.7	180.0	148.2	250.3	169.7	148.2	204.4
	5억 원 이상		446	281.4	197.7	145.0	257.4	168.4	130.9	224.6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월평균 인건비는 200.0만 원이고,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은 207.4만 원, 일반음식점 외 업체의 경우 195.6만 원으로 나타남.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업종별로 월평균 인건비가 가장 높은 업종은 기타 외국식(223.2만 원)이고, 일식(217.5만 원), 서양식(210.4만 원) 등의 순서임.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의 업종별로 월평균 인건비는 출장·이동음식점업(230.5만 원), 기관 구내식당업(230.0만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월평균 인건비는 수도권(236.8만 원), 서울권(219.5만 원) 등의 순서로 높음.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미만인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213.8만 원으로 비교적 높은 반면, 5천만 원~1억 원 미만 업체는 193.9만 원으로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음.

〈표 3-9-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인건비 분포(프랜차이즈)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개소, 만 원)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전체	
				상용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Base			1,024	514	423	345	43	67	26	839	
전체			1,024	273.7	177.1	143.3	252.5	172.0	133.0	200.0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281.6	182.4	137.9	249.3	167.3	130.1	207.4	
		한식	197	278.3	184.2	135.5	229.2	149.3	119.8	205.5	
		중식	23	318.6	127.8	158.7	295.2	199.6	-	209.3	
		일식	29	285.4	209.1	136.1	196.3	225.9	-	217.5	
		서양식	46	281.9	179.3	128.5	309.7	172.3	167.5	210.4	
		기타 외국식	36	287.4	191.9	182.1	302.4	187.4	121.5	223.2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267.6	174.1	146.3	257.2	176.3	136.0	195.6	
		기관 구내식당업	21	239.1	196.3	154.6	249.6	-	150.0	230.0	
		출장·이동음식점업	5	220.5	-	301.7	-	-	-	230.5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265.4	141.0	137.9	250.0	186.1	182.4	183.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281.9	175.0	127.6	254.3	114.2	100.0	205.7
			치킨 전문점	127	285.2	195.2	179.5	-	139.9	100.0	214.8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267.8	171.9	149.0	248.5	233.2	136.7	185.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276.5	186.0	151.0	200.0	112.9	87.3	197.8
		주점업	69	285.1	204.9	162.7	258.1	199.7	139.0	213.9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251.1	169.4	125.8	271.3	182.4	-	178.9	
지역	서울권		166	294.9	193.7	137.5	270.7	141.8	164.4	219.5	
	수도권		233	288.9	202.5	154.2	260.6	190.4	125.6	236.8	
	충청권		165	257.7	155.8	171.2	72.0	119.0	160.0	187.8	
	호남권		118	282.8	131.5	142.4	317.3	177.5	100.0	181.7	
	경남권		258	250.0	177.5	125.3	177.0	171.5	161.3	169.6	
	경북권		84	260.2	164.1	149.8	-	-	-	218.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	-	-	-	-	-	-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254.1	206.2	133.0	300.0	204.6	90.0	193.9	
	1억 원~5억 원 미만		721	274.1	172.6	145.4	246.3	175.2	135.0	197.1	
	5억 원 이상		230	273.8	190.0	137.7	270.9	155.7	128.9	213.8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월평균 인건비는 206.4만 원이고,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은 208.5만 원, 일반음식점 외 업체의 경우 202.7만 원으로 나타남.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업종별로 월평균 인건비는 일식(228.0만 원), 중식(218.3만 원), 한식(207.8만 원) 등의 순서임.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의 업종별로 월평균 인건비가 가장 높은 업종은 출장·이동음식점업(238.8만 원)이고, 다음으로는 기관 구내식당업(238.1만 원),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218.2만 원) 등임.
- 지역별로 월평균 인건비는 수도권(257.9만 원), 경북권(225.0만 원), 서울권(220.4만 원) 등의 순서로 높음.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인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가 233.9만 원으로 비교적 높은 반면, 5천만 원 미만인 업체는 139.6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됨.

〈표 3-9-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인건비 분포(비프랜차이즈)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개소,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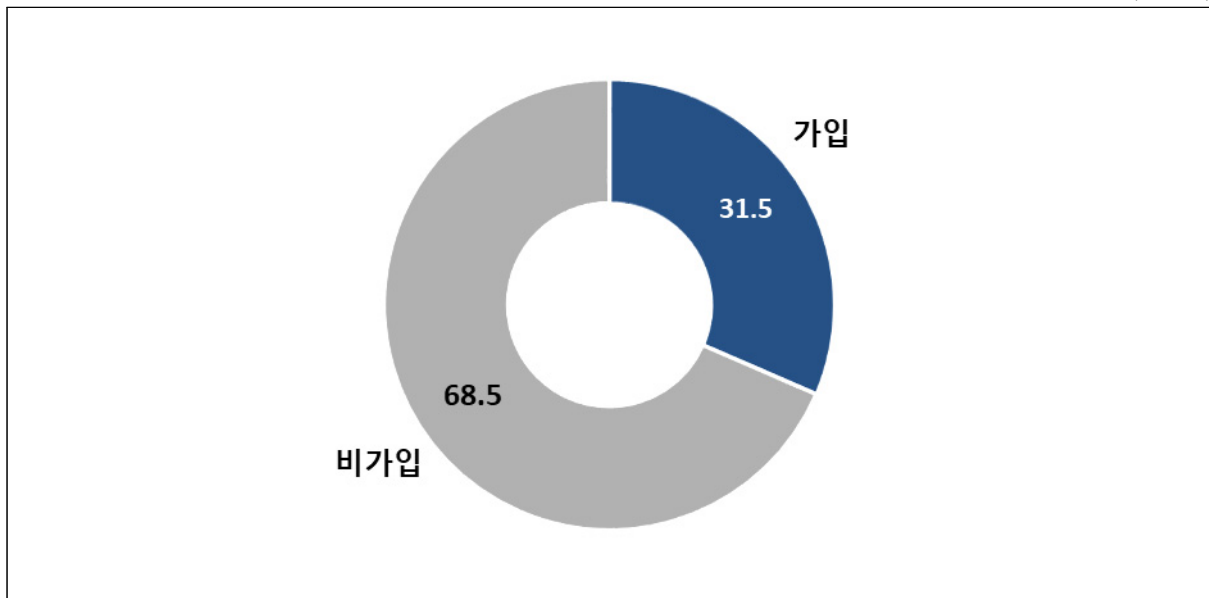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전체	
				상용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Base			2,114	734	609	481	70	133	44	1,402	
전체			2,114	280.9	181.6	148.6	258.4	168.6	149.1	206.4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283.2	186.6	147.5	250.4	159.0	149.3	208.5
		한식		894	283.8	185.9	145.7	254.3	158.6	145.5	207.8
		중식		135	285.7	194.7	165.3	206.6	168.8	184.5	218.3
		일식		88	281.3	206.9	152.8	271.1	229.6	155.0	228.0
		서양식		72	269.1	172.8	143.3	249.4	112.1	120.6	182.3
		기타 외국식		36	261.2	172.7	143.4	276.5	146.0	141.1	183.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276.1	173.5	150.9	272.6	210.1	148.5	202.7
		기관 구내식당업		57	258.0	190.8	143.7	271.7	250.0	-	238.1
		출장·이동음식점업		73	305.6	220.8	157.9	292.0	200.0	240.0	238.8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251.1	174.2	153.2	192.0	-	-	198.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256.8	199.7	118.5	-	260.0	-	188.2
			치킨 전문점	45	276.8	159.2	309.6	-	207.9	-	213.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259.2	177.0	158.6	248.9	206.2	200.0	198.8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269.2	185.4	163.8	-	200.0	180.0	218.2
		주점업		249	303.7	193.5	156.1	282.2	214.3	153.7	215.0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259.4	149.6	135.5	-	129.5	50.0	177.8
지역	서울권		325	285.4	200.9	167.1	253.7	203.0	159.2	220.4	
	수도권		362	301.0	230.8	181.4	267.5	213.2	139.9	257.9	
	충청권		416	264.3	144.1	153.6	210.8	149.0	140.8	175.7	
	호남권		349	287.1	142.2	137.6	260.5	157.3	137.2	183.9	
	경남권		353	276.8	226.1	130.0	239.1	84.6	198.9	187.4	
	경북권		309	265.5	174.6	162.4	243.1	210.0	183.1	225.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281.0	127.9	113.9	-	-	130.0	139.6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260.2	151.9	139.2	298.0	152.9	200.0	178.0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280.9	183.4	149.8	252.0	168.0	151.3	207.7	
	5억 원 이상		216	288.0	205.3	152.6	252.2	179.5	132.0	233.9	

(10)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외식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은 31.5%로 나타남.

〈그림 3-10〉 고용보험 가입 여부

(단위: %)



- 일반음식점 외식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은 35.1%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는 일식(46.5%)과 기타 외국식(46.4%)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비교적 높음.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은 27.7%로 파악됨.
 - 세부 업종별로는 기관 구내식당업(65.8%)과 제과점(37.5%)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비교적 높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45.1%),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74.1%) 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가장 높음.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인 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은 3.4%에 불과함.

〈표 3-10-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고용보험 가입 여부(전체)

(단위: 개소, %, 명)

구분			사례수	가입여부		(Base=가입여부 “가입”)	
				가입	비가입	평균 가입자 수	
전체			3,138	31.5	68.5	2.5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35.1	64.9	2.5
		한식		1,091	34.2	65.8	2.3
		중식		158	29.1	70.9	2.6
		일식		117	46.5	53.5	2.5
		서양식		118	45.4	54.6	4.1
		기타 외국식		72	46.4	53.6	2.7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27.7	72.3
	기관 구내식당업		78	65.8	34.2	4.4	
	출장·이동음식점업		78	33.7	66.3	3.6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37.5	62.5	3.6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34.3	65.7	3.2
			치킨 전문점	172	20.7	79.3	2.2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16.5	83.5	1.9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37.1	62.9	1.5
	주점업		318	25.3	74.7	1.7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28.3	71.7	2.9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45.6	54.4	2.9	
	비프랜차이즈		2,114	26.3	73.7	2.3	
지역	서울권		491	39.2	60.8	2.8	
	수도권		595	45.1	54.9	2.6	
	충청권		581	18.6	81.4	2.7	
	호남권		467	23.6	76.4	2.8	
	경남권		611	39.5	60.5	2.2	
	경북권		393	18.6	81.4	2.3	
매 출 액	5천만 원 미만		92	3.4	96.6	1.3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10.0	90.0	1.4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33.0	67.0	2.1	
	5억 원 이상		446	74.1	25.9	4.7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은 45.6%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은 58.3%이나,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은 39.1%로 나타나 차이를 보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60.8%)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가장 높음.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 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은 78.8%인 반면, 5천만 원 미만 업체는 0.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표 3-10-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고용보험 가입 여부(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명)

구분			사례수	가입여부		(Base=가입여부 “가입”)	
				가입	비가입	평균 가입자 수	
전체			1,024	45.6	54.4	2.9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58.3	41.7	2.8	
		한식	197	59.3	40.7	2.6	
		중식	23	60.9	39.1	3.7	
		일식	29	44.2	55.8	2.8	
		서양식	46	55.3	44.7	4.0	
		기타 외국식	36	62.1	37.9	2.8	
		소계	693	39.1	60.9	2.9	
	일반 음식점 외	기관 구내식당업	21	84.8	15.2	6.0	
		출장·이동음식점업	5	100.0	0.0	6.4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48.7	51.3	2.8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38.2	61.8	3.2
			치킨 전문점	127	23.5	76.5	2.3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29.1	70.9	1.9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28.4	71.6	1.4
		주점업	69	32.1	67.9	2.3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53.9	46.1	3.3	
지역	서울권	166	53.9	46.1	3.5		
	수도권	233	60.8	39.2	2.8		
	충청권	165	22.8	77.2	2.8		
	호남권	118	33.6	66.4	4.2		
	경남권	258	52.2	47.8	2.3		
	경북권	84	32.7	67.3	2.4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0.0	100.0	-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10.9	89.1	2.3		
	1억 원~5억 원 미만	721	43.3	56.7	2.2		
	5억 원 이상	230	78.8	21.2	4.9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은 26.3%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은 30.1%이며, 세부 업종별로는 일식(47.1%)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비교적 높음.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외 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은 평균 21.3%인 가운데, 세부 업종별로는 기관 구내식당업(59.6%)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37.8%)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비교적 높음.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 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70.2%인 반면, 5천만 원 미만 업체는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0-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고용보험 가입 여부(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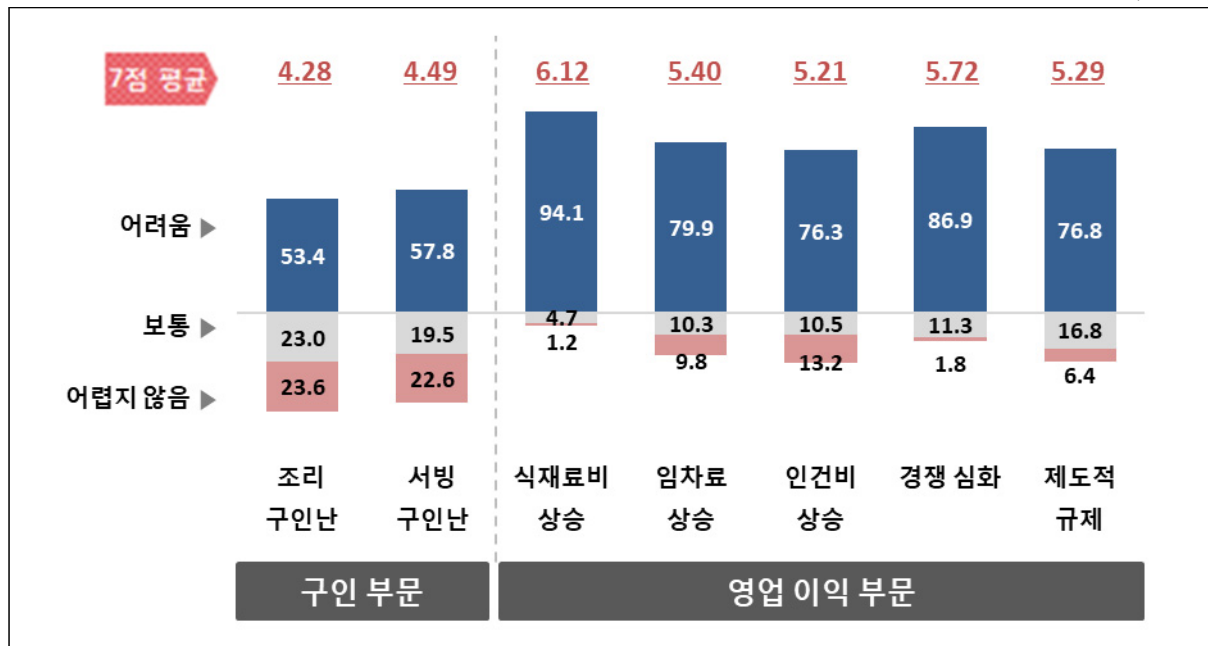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가입여부		(Base=가입여부 “가입”)		
				가입	비가입	평균 가입자 수		
전체			2,114	26.3	73.7	2.3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30.1	69.9	2.3	
		한식		894	29.2	70.8	2.2	
		중식		135	24.7	75.3	2.2	
		일식		88	47.1	52.9	2.4	
		서양식		72	40.2	59.8	4.3	
		기타 외국식		36	32.8	67.2	2.5	
		소계		889	21.3	78.7	2.3	
	일반 음식점 외	기관 구내식당업		57	59.6	40.4	3.6	
		출장·이동음식점업		73	26.7	73.3	2.4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29.8	70.2	4.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14.9	85.1	3.4
			치킨 전문점		45	14.2	85.8	2.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8.2	91.8	2.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44.8	55.2	1.5
		주점업		249	24.1	75.9	1.6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17.2	82.8	2.5	
지역	서울권		325	34.1	65.9	2.4		
	수도권		362	37.8	62.2	2.4		
	충청권		416	17.2	82.8	2.7		
	호남권		349	21.1	78.9	2.3		
	경남권		353	32.0	68.0	2.1		
	경북권		309	15.9	84.1	2.3		
매 출 액	5천만 원 미만		88	3.5	96.5	1.3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9.8	90.2	1.2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28.8	71.2	2.0		
	5억 원 이상		216	70.2	29.8	4.5		

(11) 경영상 애로사항

- 경영상 애로사항을 점수화(7점 만점 기준)한 결과, 식재료비 상승이 6.12점으로 가장 높고, 경쟁 심화는 5.72점, 임차료 상승은 5.40점, 제도적 규제는 5.29점, 인건비 상승은 5.21점, 서빙 구인난은 4.49점, 조리 구인난은 4.28점으로 분석됨.

〈그림 3-11〉 경영상 애로사항

(단위: %)



- 일반음식점 업종에서 경영상 애로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항목은 식재료비 상승(95.0%), 경쟁 심화(86.0%), 인건비 상승(77.4%) 등의 순서임.
- 일반음식점 세부 업종별로도 모든 업종에서 식재료비 상승이 경영상 애로 요인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음식점 외 업종에서도 식재료비 상승이 93.2%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경쟁 심화(87.9%), 임차료 상승(82.5%) 등임.
- 일반음식점 외 세부 업종별로는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은 경쟁 심화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외 업종은 식재료비 상승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운영 형태별로 프랜차이즈는 모두 식재료비 상승과 경쟁 심화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식재료비 상승(94.3%),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도 식재료비 상승(94.0%)이 가장 높음.
- 지역별로 모두 식재료비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 모든 규모에서 식재료비 상승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조사됨.

〈표 3-11-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어려움’ 비율(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구인 부문		영업이익 부문				
				조리(주방)	홀서빙 및 카운터	식재료비 상승	임차료 상승	인건비 상승	경쟁 심화	제도적 규제
전체			3,138	53.4	57.8	94.1	79.9	76.3	86.9	76.8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55.4	59.2	95.0	77.3	77.4	86.0	75.6
		한식	1,091	55.1	59.0	95.1	76.7	76.5	85.3	75.0
		중식	158	48.6	48.7	96.9	73.1	78.5	92.0	74.5
		일식	117	63.6	62.7	89.4	86.8	79.7	81.0	79.2
		서양식	118	58.9	70.9	94.9	80.0	85.5	90.5	79.6
		기타 외국식	72	65.4	78.6	94.5	92.7	90.6	95.6	87.3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51.3	56.4	93.2	82.5	75.2	87.9	78.1
		기관 구내식당업	78	62.9	59.1	94.4	62.4	86.6	70.0	71.1
		출장·이동음식점업	78	56.3	59.5	100.0	64.3	75.1	87.9	78.9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50.4	53.7	95.0	85.2	78.4	78.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66.4	63.9	89.3	84.3	76.3	84.8
			치킨 전문점	172	53.6	57.8	96.0	87.9	76.5	93.3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48.6	49.8	98.4	86.0	70.6	86.2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59.8	55.6	92.5	80.6	69.8	92.3
		주점업	318	43.0	52.0	91.0	83.2	79.7	87.3	75.3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53.8	60.8	92.8	79.9	71.0	88.2	77.8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59.2	61.5	94.3	87.4	82.1	89.1	79.9
	비프랜차이즈		2,114	51.3	56.5	94.0	77.1	74.2	86.1	75.7
지역	서울권		491	56.0	63.4	85.2	78.1	76.1	80.2	75.8
	수도권		595	75.1	80.1	95.7	91.2	87.0	86.2	80.4
	충청권		581	68.2	74.8	96.3	80.3	89.3	91.2	81.5
	호남권		467	48.7	48.0	97.0	77.6	82.4	87.4	77.6
	경남권		611	26.8	31.9	94.4	71.6	62.8	87.8	63.4
	경북권		393	44.4	47.0	95.4	80.8	54.4	87.7	86.0
매출 액	5천만 원 미만		92	19.5	25.2	89.0	61.1	43.2	70.3	41.3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41.2	46.9	94.9	74.2	62.6	84.2	73.7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55.8	60.2	94.2	82.3	79.5	88.2	79.1
	5억 원 이상		446	72.5	74.0	94.5	78.3	91.4	88.5	80.1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애로사항은 식재료비 상승의 응답 비중이 9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쟁 심화(89.1%), 임차료 상승(87.4%) 등의 순서로 높음.
- 프랜차이즈 업종별로 한식은 식재료비 상승(97.2%) 외에 경쟁 심화(89.0%)의 비중이 높고,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식재료비 상승(91.1%) 외에 경쟁 심화(85.4%)의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서울권은 식재료비 상승(80.2%)이 주요 애로 요인이며, 매출액 규모별로 5천만 원 미만인 업체도 식재료비 상승(100.0%)이 주요 애로 요인인 것으로 조사됨.

〈표 3-11-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어려움’ 비율(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구인 부문		영업이익 부문			
				조리(주방)	홀서빙 및 카운터	식재료비 상승	임차료 상승	인건비 상승	경쟁 심화
전체			1,024	59.2	61.5	94.3	87.4	82.1	89.1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60.5	61.2	96.5	87.2	84.4	89.9
		한식	197	57.7	57.7	97.2	85.7	81.7	89.0
		중식	23	74.8	73.9	96.2	89.7	93.5	89.7
		일식	29	58.3	60.6	93.0	98.2	90.7	93.5
		서양식	46	67.7	73.1	95.2	88.5	93.5	92.3
		기타 외국식	36	82.2	87.4	93.0	93.5	97.0	97.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58.6	61.6	93.2	87.5	80.9	88.7
		기관 구내식당업	21	63.7	65.3	95.7	62.1	95.7	44.4
		출장·이동음식점업	5	22.4	61.2	100.0	100.0	100.0	10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58.1	57.4	93.0	89.6	87.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66.2	64.6	87.1	83.3	78.2
			치킨 전문점	127	51.7	55.7	95.3	88.8	73.1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57.0	57.3	100.0	93.3	83.6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54.8	56.6	91.1	83.6	69.7
		주점업	69	59.7	69.0	95.9	96.8	93.8	94.6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59.8	64.8	91.1	84.2	80.3	85.4
지역	서울권		166	53.4	54.2	80.2	72.2	72.1	71.3
	수도권		233	84.5	86.8	95.8	94.9	91.5	86.9
	충청권		165	81.6	83.5	99.1	94.4	96.9	96.5
	호남권		118	43.4	46.5	94.0	85.7	88.4	90.9
	경남권		258	34.5	37.9	97.0	84.7	73.9	94.0
	경북권		84	61.3	61.3	98.7	92.6	59.4	92.9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0.0	42.6	100.0	100.0	71.3	71.3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54.6	59.3	95.8	87.1	67.6	95.1
	1억 원~5억 원 미만		721	57.3	60.1	94.4	88.5	81.9	89.1
	5억 원 이상		230	74.6	71.2	93.3	81.1	91.6	86.0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애로사항은 식재료비 상승이 9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경쟁 심화(86.1%), 임차료 상승(77.1%)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업종별로 한식은 식재료비 상승(94.7%) 외에 경쟁 심화(84.5%), 비알코올 음료점업도 식재료비 상승(93.5%) 외에 경쟁 심화(89.4%)가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서울권은 식재료비 상승(86.9%)이 주요 애로 요인이며, 매출액 규모별로 5천만 원 미만인 업체는 식재료비 상승(88.6%)이 주요 애로 요인인 것으로 조사됨.

〈표 3-11-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어려움’ 비율(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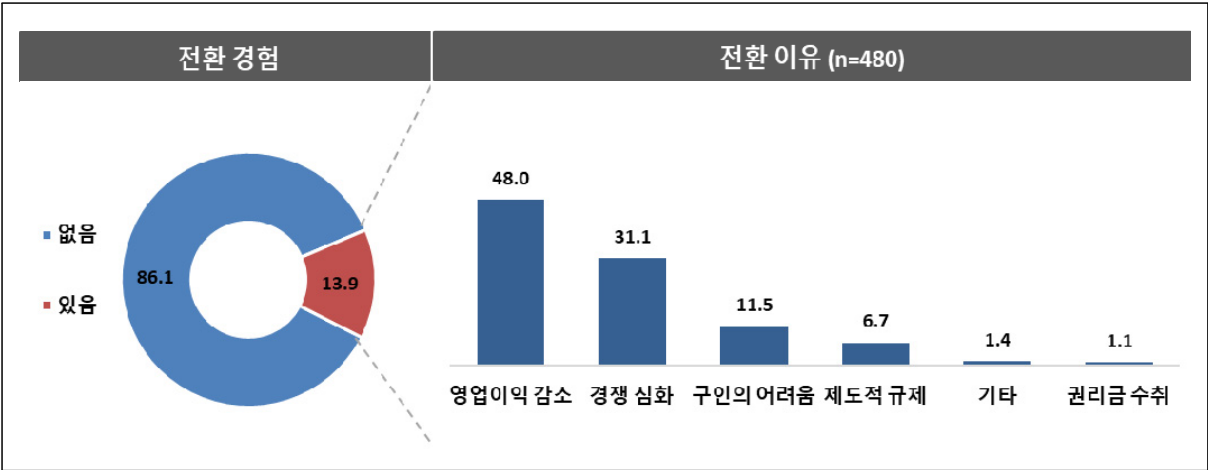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구인 부문		영업이익 부문			
				조리(주방)	홀서빙 및 카운터	식재료비 상승	임차료 상승	인건비 상승	경쟁 화
전체			2,114	51.3	56.5	94.0	77.1	74.2	86.1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54.3	58.8	94.6	75.2	75.9	85.1
		한식	894	54.6	59.3	94.7	74.9	75.4	84.5
		중식	135	45.0	45.3	97.0	70.8	76.4	92.3
		일식	88	65.0	63.2	88.5	83.9	77.0	77.8
		서양식	72	54.4	69.7	94.7	75.5	81.3	89.5
		기타 외국식	36	50.8	71.1	95.9	92.0	85.0	94.3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47.2	53.4	93.3	79.7	71.9	87.4
		기관 구내식당업	57	62.6	57.1	94.0	62.6	83.6	78.2
		출장·이동음식점업	73	59.9	59.3	100.0	60.6	72.5	86.6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45.1	51.1	96.4	82.2	72.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67.1	60.6	100.0	89.2	67.3
			치킨 전문점	45	58.0	62.6	97.6	86.0	84.4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43.1	44.8	97.3	81.2	62.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64.2	54.6	93.8	77.9	69.8
		주점업	249	40.0	49.0	90.1	80.7	77.2	86.1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51.2	59.0	93.5	78.1	67.0	89.4
지역	서울권		325	56.8	66.6	86.9	80.1	77.4	83.3
	수도권		362	70.7	76.9	95.6	89.4	84.9	85.8
	충청권		416	63.7	71.9	95.4	75.6	86.7	89.4
	호남권		349	50.1	48.4	97.7	75.6	80.9	86.6
	경남권		353	22.3	28.4	93.0	63.9	56.3	84.2
	경북권		309	41.1	44.3	94.8	78.5	53.5	86.8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20.1	24.6	88.6	59.7	42.2	70.3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39.3	45.1	94.8	72.3	61.9	82.6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55.2	60.3	94.1	79.8	78.5	87.8
	5억 원 이상		216	70.7	76.5	95.5	76.0	91.3	90.7

(12) 외식업 종사 이후 업종 전환 경험 및 이유

- 외식업 종사 이후 업종 전환 경험이 있는 업체 비율은 13.9%이고, 경험이 없는 비율은 86.1%로 나타남. 업종을 전환한 주요 이유는 영업이익 감소(48.0%), 경쟁 심화(31.1%), 구인의 어려움(11.5%) 등의 순임.

〈그림 3-12〉 외식업 종사 이후 업종 전환 경험 및 이유

(단위: %)



주: 업종 전환 이유는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 업종별로 일반음식점의 업종 전환 경험 비율은 13.7%로 일반음식점 외(14.0%)의 업체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 일반음식점에서 업종 전환 비율이 높은 업종은 기타 외국식(25.9%), 서양식(16.0%), 일식(14.9%)으로 나타남. 일반음식점 외의 업종에서는 기관 구내식당업(18.4%), 주점업(17.3%), 치킨 전문점(16.2%), 출장·이동음식점업(15.9%) 등의 순으로 업종 전환 경험 비율이 높음.
- 업종 전환의 이유 중 영업이익 감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업종은 일반음식점 업종에서 서양식(58.6%)과 중식(55.1%)이고, 일반음식점 외 업종에서는 치킨 전문점(50.1%), 출장·이동음식점업(48.6%), 기관 구내식당업(48.4%)으로 파악됨.
- 운영 형태별로는 프랜차이즈(13.5%)의 업종 전환 경험 비율이 비프랜차이즈(14.0%)보다 낮음.
- 지역별로 업종 전환 경험 비율은 충청권(32.7%), 경북권(19.3%), 서울권(12.8%) 등의 순서로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 1억 원~5억 원 미만인 업체의 업종 전환 경험 비율이 14.6%로 비교적 높고, 5천만 원 미만 업체의 비율은 5.9%로 상대적으로 낮음.

〈표 3-12-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업종 전환 경험 및 이유(전체)

(단위: 개소, %, 회)

구분			사례수	전환 경험		전환 이유 및 횟수(Base=전환 경험 “있음”)					
				있음	없음	구인의 어려움	영업이익 감소	제도적 규제	경쟁 심화	권리금 수취	기타
전체			3,138	13.9	86.1	11.5	48.0	6.7	31.1	1.1	1.4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13.7	86.3	10.0	51.5	7.8	28.8	0.9	1.0
		한식	1,091	13.7	86.3	10.3	51.4	7.3	28.8	0.9	1.2
		중식	158	9.5	90.5	13.5	55.1	11.4	20.1	0.0	0.0
		일식	117	14.9	85.1	6.4	52.4	10.0	31.2	0.0	0.0
		서양식	118	16.0	84.0	5.2	58.6	6.9	27.1	2.2	0.0
		기타 외국식	72	25.9	74.1	11.0	34.0	11.6	40.4	2.9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14.0	86.0	13.0	44.7	5.7	33.4	1.4	1.9
		기관 구내식당업	78	18.4	81.6	24.2	48.4	16.0	11.5	0.0	0.0
		출장·이동음식점업	78	15.9	84.1	14.1	48.6	16.5	20.8	0.0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13.1	86.9	15.3	44.4	3.0	37.4	0.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12.3	87.7	18.3	44.0	2.2	28.7	6.7
			치킨 전문점	172	16.2	83.8	4.8	50.1	1.8	41.8	1.5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12.7	87.3	22.7	40.0	1.8	34.3	1.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10.9	89.1	7.8	25.6	0.0	66.7	0.0
		주점업	318	17.3	82.7	10.0	44.1	9.4	33.4	1.3	1.9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11.6	88.4	13.4	46.2	4.7	30.1	0.8	4.7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13.5	86.5	11.3	44.2	7.0	36.0	1.6	0.0
	비프랜차이즈		2,114	14.0	86.0	11.6	49.5	6.6	29.3	1.0	2.0
지역	서울권		491	12.8	87.2	20.6	39.1	6.8	33.2	0.3	0.0
	수도권		595	7.2	92.8	4.4	47.5	14.0	30.2	3.8	0.0
	충청권		581	32.7	67.3	12.1	51.5	3.9	31.0	1.1	0.4
	호남권		467	11.6	88.4	1.4	64.3	2.0	24.4	0.6	7.3
	경남권		611	2.2	97.8	28.9	35.1	12.7	17.3	6.0	0.0
	경북권		393	19.3	80.7	11.4	35.8	12.6	39.0	0.0	1.2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5.9	94.1	22.1	38.4	0.0	24.8	0.5	14.2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13.5	86.5	1.5	53.2	3.7	34.4	1.5	5.7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14.6	85.4	13.7	47.1	7.1	30.6	1.2	0.4
	5억 원 이상		446	12.4	87.6	7.5	49.7	11.0	31.2	0.1	0.6

주: 업종 전환 이유는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경우 업종 전환 경험에 있는 업체 비율은 평균적으로 13.5%로 나타났으며, 일반 음식점 업체의 비율(14.0%)이 일반음식점 외 업체의 비율(13.3%)보다 높음. 일반음식점 중에서 업종 전환 경험 비율이 높은 업종은 기타 외국식(23.3%)과 서양식(20.5%)임.
- 일반음식점 외 업종에서는 기관 구내식당업(36.4%)의 전환 경험 비율이 상당히 높음.
- 지역별로는 충청권 지역의 업종 전환 경험 비율(37.2%)이 가장 높고,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인 업체가 15.6%로 높은 반면, 5천만 원 미만인 업체의 업종 전환 비율은 0.0%로 낮음.

〈표 3-12-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업종 전환 경험 및 이유(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회)

구분			사례수	전환 경험		전환 이유 및 횟수(Base=전환 경험 "있음")				
				있음	없음	구인의 어려움	영업이익 감소	제도적 규제	경쟁 심화	권리금 수취
전체			1,024	13.5	86.5	11.3	44.2	7.0	36.0	1.6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14.0	86.0	8.4	42.5	8.9	39.3	0.9
		한식	197	13.4	86.6	9.8	40.5	8.0	40.6	1.2
		중식	23	3.8	96.2	0.0	33.3	0.0	66.7	0.0
		일식	29	14.5	85.5	0.0	71.9	9.9	18.2	0.0
		서양식	46	20.5	79.5	7.2	42.0	9.6	41.2	0.0
		기타 외국식	36	23.3	76.7	3.0	45.6	20.2	30.4	0.8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13.3	86.7	12.9	45.1	5.9	34.2	1.9
		기관 구내식당업	21	36.4	63.6	0.0	74.9	12.7	12.4	0.0
		출장·이동음식점업	5	0.0	100.0	0.0	0.0	0.0	0.0	-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10.2	89.8	13.7	39.2	4.3	42.8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13.5	86.5	12.7	47.0	2.4	30.7
			치킨 전문점	127	13.0	87.0	8.3	46.4	3.1	42.2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13.0	87.0	20.6	39.1	0.0	37.7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4.2	95.8	0.0	33.3	0.0	66.7
		주점업	69	23.7	76.3	10.0	33.9	13.7	40.4	2.1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9.7	90.3	19.1	53.4	6.6	20.9	0.0
지역	서울권		166	16.6	83.4	22.1	40.2	10.7	27.0	0.0
	수도권		233	8.0	92.0	5.9	41.2	17.4	31.6	3.8
	충청권		165	37.2	62.8	6.7	45.9	1.8	44.7	0.8
	호남권		118	5.1	94.9	0.0	76.1	0.0	23.9	0.0
	경남권		258	5.0	95.0	29.9	32.6	14.6	16.3	6.6
	경북권		84	14.2	85.8	2.7	45.8	5.2	46.3	0.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0.0	100.0	0.0	0.0	0.0	0.0	-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12.8	87.2	0.0	47.5	3.4	42.3	6.8
	1억 원~5억 원 미만		721	13.3	86.7	12.8	44.3	6.6	34.9	1.4
	5억 원 이상		230	15.6	84.4	9.1	42.1	10.4	38.4	0.1

주: 업종 전환 이유는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경우 업종 전환 경험이 있는 업체 비율은 평균적으로 14.0%이며, 일반음식점의 비율(13.7%)이 일반음식점 외의 비율(14.5%)보다 낮게 나타남. 일반음식점 중에서 업종 전환 경험 비율이 높은 업종은 기타 외국식(28.1%)으로 조사됨.
- 일반음식점 외 업종에서는 치킨 전문점(23.8%)의 업종 전환 경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임.
- 지역별로는 충청권의 업종 전환 경험 비율(31.3%)이 가장 높고,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 원~5억 원 미만인 업체의 비율이 15.1%로 높음.

〈표 3-12-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업종 전환 경험 및 이유(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회)

구분			사례수	전환 경험		전환 이유 및 횟수(Base=전환 경험 “있음”)							
				있음	없음	구인의 어려움	영업이익 감소	제도적 규제	경쟁 심화	권리금 수취	기타	전환 횟수	
전체			2,114	14.0	86.0	11.6	49.5	6.6	29.3	1.0	2.0	1.2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13.7	86.3	10.4	53.8	7.5	26.1	0.9	1.2	1.1	
		한식	894	13.8	86.2	10.4	53.9	7.2	26.1	0.9	1.5	1.1	
		중식	135	10.3	89.7	14.3	56.4	12.1	17.2	0.0	0.0	1.2	
		일식	88	15.0	85.0	7.8	48.1	10.0	34.0	0.0	0.0	1.0	
		서양식	72	13.6	86.4	3.3	73.6	4.5	14.3	4.2	0.0	1.0	
		기타 외국식	36	28.1	71.9	17.0	25.4	5.3	47.8	4.5	0.0	1.2	
		소계	889	14.5	85.5	13.0	44.5	5.6	33.0	1.0	2.9	1.2	
	일반 음식점 외	기관 구내식당업	57	12.6	87.4	45.2	25.3	18.8	10.8	0.0	0.0	1.4	
		출장·이동음식점업	73	17.6	82.4	14.1	48.6	16.5	20.8	0.0	0.0	1.2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15.1	84.9	16.1	47.1	2.3	34.5	0.0	0.0	1.1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6.4	93.6	100.0	0.0	0.0	0.0	0.0	0.0	1.0
			치킨 전문점	45	23.8	76.2	0.0	55.2	0.0	41.2	3.7	0.0	1.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12.5	87.5	24.4	40.7	3.3	31.7	0.0	0.0	1.2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16.8	83.2	9.5	23.8	0.0	66.7	0.0	0.0	1.3
		주점업	249	16.1	83.9	10.0	47.0	8.2	31.4	1.1	2.4	1.2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12.4	87.6	11.4	43.8	4.0	33.3	1.1	6.3	1.4	
지역	서울권		325	11.5	88.5	19.9	38.6	4.8	36.4	0.4	0.0	1.2	
	수도권		362	6.7	93.3	3.6	51.0	12.1	29.4	3.8	0.0	1.3	
	충청권		416	31.3	68.7	14.5	54.1	4.8	24.9	1.2	0.6	1.1	
	호남권		349	13.2	86.8	1.5	63.2	2.2	24.4	0.7	8.0	1.3	
	경남권		353	0.5	99.5	22.2	51.6	0.0	24.4	1.8	0.0	1.0	
	경북권		309	20.3	79.7	12.8	34.2	13.7	37.9	0.0	1.4	1.1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6.1	93.9	22.1	38.4	0.0	24.8	0.5	14.2	1.4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13.6	86.4	1.7	54.1	3.8	33.2	0.7	6.6	1.2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15.1	84.9	14.1	48.1	7.2	28.9	1.1	0.5	1.2	
	5억 원 이상		216	9.8	90.2	5.0	61.1	11.9	20.5	0.0	1.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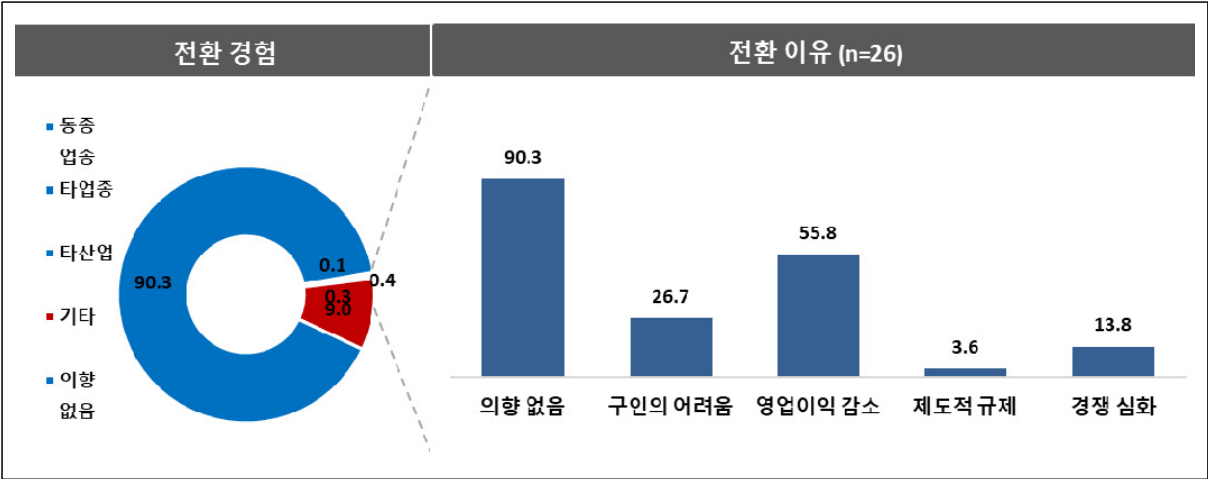
주: 업종 전환 이유는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13) 2년 이내 외식업 내 업종 전환 의향 및 이유

- 향후 2년 이내 업종 전환 의향과 이유를 조사함. 2년 이내 전환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0.8%(동종업종 0.1%, 타업종 0.4%, 타 산업 0.3%) 정도이며, 전환 의향 이유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감소(55.8%)’, ‘구인의 어려움(26.7%)’ 등의 순서로 나타남.

〈그림 3-13〉 외식업 내 업종 전환 의향 및 이유

(단위: %)



주: 전환 의향 이유는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의향 없음은 기타, 의향 없음의 합으로 계산한 수치임.

- 업종 전환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음식점 업종은 기타 외국식(6.3%)이며, 일반음식점 외 업종은 주점업(2.2%)임.
- 업종 전환 의향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업종에서 ‘영업이익 감소’를 업종 전환의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함. 일반음식점 업종별로 서양식(66.7%), 한식(57.5%) 등의 순서이고, 일반음식점 외 업종별로는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과 기관 구내식당업(각 66.7%), 주점업(55.7%),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52.5%) 등의 순서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충청권 외식업체(2.0%)의 업종 전환 의향이 가장 높으며, 주요한 업종 전환 의향 이유는 ‘영업이익 감소’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1억 원 미만(1.0%)인 업체의 업종 전환 의향이 가장 높은 반면, 5천만 원 미만인 업체의 업종 전환 의향 비율은 0.0%에 불과함.

〈표 3-13-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업종 전환 의향 및 이유(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전환 의향					전환 의향 이유 (Base=전환 의향 여부 “있음”)			
				동종 업종	타 업종	타 산업	기타*	의향 없음	구인의 어려움	영업 이익 감소	제도적 규제	경쟁 심화
전체			3,138	0.1	0.4	0.3	9.0	90.3	26.7	55.8	3.6	13.8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0.1	0.1	0.4	8.8	90.7	31.2	55.0	2.0	11.7
		한식	1,091	0.0	0.1	0.3	8.7	90.8	36.1	57.5	0.0	6.3
		중식	158	0.0	0.0	0.0	7.6	92.4	0.0	0.0	0.0	0.0
		일식	117	0.7	0.0	0.0	11.9	87.4	0.0	33.3	0.0	66.7
		서양식	118	0.0	0.7	1.0	5.7	92.5	33.3	66.7	0.0	0.0
		기타 외국식	72	0.0	0.0	6.3	16.1	77.7	23.4	45.0	11.7	19.9
	일반 음식점 외 기타 음식점업	소계	1,582	0.1	0.6	0.1	9.2	89.9	23.5	56.4	4.8	15.3
		기관 구내식당업	78	1.5	0.0	0.1	4.1	94.3	2.0	66.7	31.3	0.0
		출장·이동음식점업	78	0.0	0.0	0.0	7.7	92.3	0.0	0.0	0.0	0.0
		제과점	166	0.0	0.0	0.0	8.4	91.6	0.0	0.0	0.0	0.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0.0	0.7	0.0	12.8	86.5	0.0	66.7	0.0	33.3
		치킨 전문점	172	0.0	0.0	0.0	12.7	87.3	0.0	0.0	0.0	0.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0.0	0.5	0.7	8.5	90.4	0.0	52.5	19.1	28.4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0.0	0.0	0.0	8.0	92.0	0.0	0.0	0.0	0.0
		주점업	318	0.1	1.9	0.2	10.3	87.5	32.3	55.7	0.0	11.9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0.0	0.0	0.0	7.5	92.5	0.0	0.0	0.0	0.0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0.1	0.1	0.2	9.4	90.3	12.4	55.3	13.3	19.1
	비프랜차이즈		2,114	0.1	0.5	0.3	8.9	90.3	29.0	55.9	2.1	13.0
지역	서울권		491	0.0	0.7	0.0	4.3	95.0	0.4	66.7	0.0	32.9
	수도권		595	0.2	0.0	0.6	5.6	93.7	30.4	52.9	9.3	7.4
	충청권		581	0.2	1.0	0.8	11.8	86.2	33.6	50.8	3.5	12.0
	호남권		467	0.0	0.4	0.0	6.5	93.0	33.3	66.7	0.0	0.0
	경남권		611	0.0	0.0	0.0	17.3	82.7	0.0	0.0	0.0	0.0
	경북권		393	0.0	0.2	0.0	6.0	93.8	0.0	66.7	0.0	33.3
매 출 액	5천만 원 미만		92	0.0	0.0	0.0	28.2	71.8	0.0	0.0	0.0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0.1	0.4	0.5	10.1	88.9	25.3	66.7	8.0	0.0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0.1	0.4	0.2	7.9	91.4	28.1	53.3	2.4	16.2
	5억 원 이상		446	0.2	0.0	0.0	7.8	92.0	2.3	35.6	0.0	62.0

주 1) 전환 의향 이유는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2) 전환 의향 기타는 ‘일을 아예 그만 둘 예정임’, ‘잘 모르겠음’, ‘기타’를 포함한 값임.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업종별 업종 전환 의향은 기타 외국식(13.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0.8%) 등의 순서로 높으며, 주요 이유는 영업이익 감소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경북권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업종 전환 의향이 1.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도권(1.1%)이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 원~5억 원 미만인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업종 전환 의향이 0.4%로 가장 높고, 5천만 원 미만과 5천만 원~1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업체는 각 0.0%로 조사됨.

〈표 3-13-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업종 전환 의향 및 이유(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전환 의향					전환 의향 이유 (Base=전환 의향 여부 “있음”)			
				동종 업종	타 업종	타 산업	기타	의향 없음	구인의 어려움	영업 이익 감소	제도적 규제	경쟁 심화
전체			1,024	0.1	0.1	0.2	9.4	90.3	12.4	55.3	13.3	19.1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0.0	0.0	0.5	7.8	91.7	23.4	45.0	11.7	19.9
		한식	197	0.0	0.0	0.0	6.4	93.6	0.0	0.0	0.0	0.0
		중식	23	0.0	0.0	0.0	5.6	94.4	0.0	0.0	0.0	0.0
		일식	29	0.0	0.0	0.0	21.0	79.0	0.0	0.0	0.0	0.0
		서양식	46	0.0	0.0	0.0	5.3	94.7	0.0	0.0	0.0	0.0
		기타 외국식	36	0.0	0.0	13.5	23.6	62.9	23.4	45.0	11.7	19.9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0.1	0.1	0.0	10.2	89.6	0.0	66.7	15.1	18.3
		기관 구내식당업	21	5.9	0.0	0.0	0.4	93.7	0.0	66.7	33.3	0.0
		출장·이동음식점업	5	0.0	0.0	0.0	7.5	92.5	0.0	0.0	0.0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0.0	0.0	0.0	6.7	93.3	0.0	0.0	0.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0.0	0.8	0.0	12.3	86.9	0.0	66.7	33.3
			치킨 전문점	127	0.0	0.0	0.0	13.3	86.7	0.0	0.0	0.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0.0	0.0	0.0	6.9	93.1	0.0	0.0	0.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0.0	0.0	0.0	6.2	93.8	0.0	0.0	0.0
		주점업	69	0.0	0.0	0.0	14.3	85.7	0.0	0.0	0.0	0.0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0.0	0.0	0.0	8.7	91.3	0.0	0.0	0.0	0.0
지역	서울권		166	0.0	0.0	0.0	6.2	93.8	0.0	0.0	0.0	0.0
	수도권		233	0.3	0.0	0.8	5.7	93.1	16.7	51.3	17.9	14.1
	충청권		165	0.0	0.0	0.0	8.3	91.7	0.0	0.0	0.0	0.0
	호남권		118	0.0	0.0	0.0	3.1	96.9	0.0	0.0	0.0	0.0
	경남권		258	0.0	0.0	0.0	19.9	80.1	0.0	0.0	0.0	0.0
	경북권		84	0.0	1.2	0.0	1.6	97.2	0.0	66.7	0.0	33.3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0.0	0.0	0.0	14.6	85.4	0.0	0.0	0.0	0.0
	1억 원~5억 원 미만		721	0.1	0.1	0.2	8.9	90.7	12.4	55.3	13.3	19.1
	5억 원 이상		230	0.0	0.0	0.0	9.5	90.5	0.0	0.0	0.0	0.0

주: 전환 의향 이유는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업종별로 업종 전환 의향은 서양식이 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충청권(2.7%), 서울권(0.9%), 수도권과 호남권(각 0.5%) 등의 순서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1억 원 미만(1.1%), 1억 원~5억 원 미만(0.7%), 5억 원 이상(0.4%) 등의 순서로 조사됨.

〈표 3-13-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업종 전환 의향 및 이유(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전환 의향					전환 의향 이유 (Base=전환 의향 여부 “있음”)				
				동종 업종	타 업종	타 산업	기타	의향 없음	구인의 어려움	영업 이익 감소	제도적 규제	경쟁 심화	
전체			2,114	0.1	0.5	0.3	8.9	90.3	29.0	55.9	2.1	13.0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0.1	0.2	0.3	9.0	90.4	32.9	57.1	0.0	10.1	
		한식	894	0.1	0.2	0.3	9.2	90.3	36.1	57.5	0.0	6.3	
		중식	135	0.0	0.0	0.0	7.9	92.1	0.0	0.0	0.0	0.0	
		일식	88	0.9	0.0	0.0	9.6	89.5	0.0	33.3	0.0	66.7	
		서양식	72	0.0	1.1	1.5	5.9	91.4	33.3	66.7	0.0	0.0	
		기타 외국식	36	0.0	0.0	0.0	9.6	90.4	0.0	0.0	0.0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0.0	0.9	0.2	8.7	90.1	26.4	55.2	3.5	14.9	
		기관 구내식당업	57	0.0	0.0	0.1	5.3	94.5	33.3	66.7	0.0	0.0	
		출장·이동음식점업	73	0.0	0.0	0.0	7.7	92.3	0.0	0.0	0.0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0.0	0.0	0.0	9.6	90.4	0.0	0.0	0.0	0.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0.0	0.0	0.0	15.3	84.7	0.0	0.0	0.0	0.0
			치킨 전문점	45	0.0	0.0	0.0	11.4	88.6	0.0	0.0	0.0	0.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0.0	0.8	1.1	9.5	88.6	0.0	52.5	19.1	28.4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0.0	0.0	0.0	9.6	90.4	0.0	0.0	0.0	0.0
		주점업	249	0.1	2.2	0.3	9.6	87.8	32.3	55.7	0.0	11.9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0.0	0.0	0.0	7.0	93.0	0.0	0.0	0.0	0.0	
지역	서울권		325	0.0	0.9	0.0	3.7	95.4	0.4	66.7	0.0	32.9	
	수도권		362	0.1	0.0	0.4	5.5	94.0	45.3	54.7	0.0	0.0	
	충청권		416	0.3	1.3	1.1	13.0	84.4	33.6	50.8	3.5	12.0	
	호남권		349	0.0	0.5	0.0	7.4	92.1	33.3	66.7	0.0	0.0	
	경남권		353	0.0	0.0	0.0	15.8	84.2	0.0	0.0	0.0	0.0	
	경북권		309	0.0	0.0	0.0	6.9	93.1	0.0	0.0	0.0	0.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0.0	0.0	0.0	29.1	70.9	0.0	0.0	0.0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0.1	0.5	0.5	9.5	89.4	25.3	66.7	8.0	0.0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0.0	0.5	0.2	7.4	91.7	31.5	52.8	0.0	15.6	
	5억 원 이상		216	0.4	0.0	0.0	6.4	93.2	2.3	35.6	0.0	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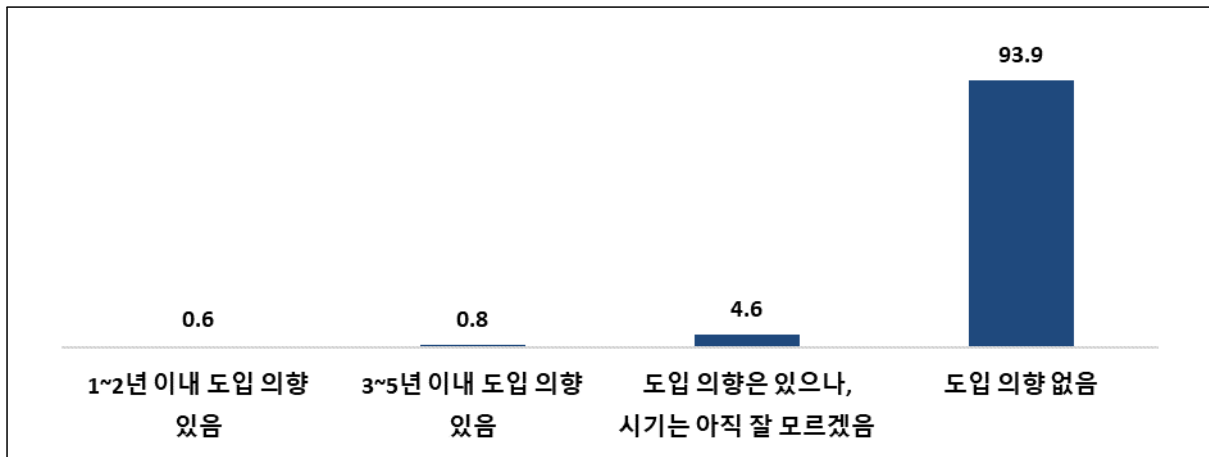
주: 전환 의향 이유는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14) 향후 로봇 도입 의향

- 향후 로봇 도입 의향을 조사함. 향후 로봇 도입 의향에 대해서 도입 의향 없음(93.9%), 도입 의향은 있으나, 시기는 아직 잘 모르겠음(4.6%), 3~5년 이내 도입 의향 있음(0.8%), 1~2년 이내 도입 의향 있음(0.6%)의 순서로 나타남.

〈그림 3-14〉 향후 로봇 도입 의향

(단위: %)



- 향후 로봇 도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음식점 업종은 기타 외국식(24.5%)이며, 일반음식점 외 업종은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7.6%)임.
- 지역별로는 충청권의 도입 의향 없음이 9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호남권(96.1%), 경북권(95.0%) 등의 순으로 파악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의 도입 의향 없음이 99.6%, 5천만 원~1억 원 미만(98.3%), 1억 원~5억 원 미만(93.4%), 5억 원 이상(87.6%) 순서로 조사됨.

〈표 3-14-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로봇 도입 의향(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1~2년 이내 도입 의향 있음	3~5년 이내 도입 의향 있음	도입 의향은 있으나, 시기는 아직 잘 모르겠음	도입 의향 없음
전체				3,138	0.6	0.8	4.6	93.9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0.7	0.8	6.3	92.2
		한식		1,091	0.6	0.7	6.1	92.5
		중식		158	0.0	0.0	7.1	92.9
		일식		117	0.8	0.0	4.9	94.3
		서양식		118	0.0	2.1	9.1	88.8
		기타 외국식		72	8.9	8.1	7.5	75.5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0.5	0.9	2.9	95.7
		기관 구내식당업		78	0.0	0.0	1.6	98.4
		출장·이동음식점업		78	0.0	2.2	1.3	96.5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0.6	0.0	3.0	96.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0.0	1.2	4.1	94.7
			치킨 전문점	172	1.8	0.3	5.3	92.6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0.0	0.8	2.7	96.6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1.0	0.0	6.6	92.4
		주점업		318	0.0	0.0	1.4	98.6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0.7	2.1	3.1	94.1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0.7	1.5	4.9	93.0
	비프랜차이즈			2,114	0.6	0.6	4.6	94.3
지역	서울권			491	0.5	0.8	10.6	88.0
	수도권			595	1.5	3.9	2.0	92.6
	충청권			581	0.1	0.0	1.0	98.9
	호남권			467	0.6	0.0	3.3	96.1
	경남권			611	0.0	0.0	7.3	92.7
	경북권			393	0.9	0.0	4.0	95.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0.4	0.0	0.0	99.6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0.0	0.9	0.8	98.3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0.7	0.9	5.1	93.4
	5억 원 이상			446	0.6	1.0	10.8	87.6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향후 로봇 도입 의향은 기타 외국식(33.3%), 치킨 전문점(8.4%), 기관 구내식당업(6.3%) 등의 순서로 높게 조사됨.
- 지역별로는 서울권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향후 로봇 도입 의향이 1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도권(9.9%)이 높게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인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향후 로봇 도입 의향이 11.7%로 가장 높게 조사됨.

〈표 3-14-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로봇 도입 의향(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1~2년 이내 도입 의향 있음	3~5년 이내 도입 의향 있음	도입 의향은 있으나, 시기는 아직 잘 모르겠음	도입 의향 없음	
전체			1,024	0.7	1.5	4.9	93.0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0.6	2.7	7.1	89.7
		한식		197	0.0	2.5	7.2	90.3
		중식		23	0.0	0.0	10.3	89.7
		일식		29	0.0	0.0	0.0	100.0
		서양식		46	0.0	3.1	8.8	88.1
		기타 외국식		36	14.0	12.8	6.5	66.7
	일반 음식점 외	소계		693	0.7	0.8	3.7	94.7
		기관 구내식당업		21	0.0	0.0	6.3	93.7
		출장·이동음식점업		5	0.0	0.0	0.0	10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0.0	0.0	4.6	95.4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0.0	1.0	4.9	94.1
			치킨 전문점	127	2.1	0.5	5.8	91.6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0.0	2.0	2.8	95.2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2.1	0.0	0.5	97.4
		주점업		69	0.0	0.0	0.0	100.0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0.9	1.3	3.5	94.3
지역	서울권		166	1.1	2.2	14.1	82.5	
	수도권		233	2.3	5.2	2.4	90.0	
	충청권		165	0.0	0.0	0.5	99.5	
	호남권		118	0.0	0.0	1.2	98.8	
	경남권		258	0.0	0.0	6.6	93.4	
	경북권		84	0.0	0.0	3.6	96.4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0.0	0.0	0.0	10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0.0	1.3	0.0	98.7	
	1억 원~5억 원 미만		721	0.9	1.5	4.5	93.2	
	5억 원 이상		230	0.0	1.7	10.0	88.3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업종별로 향후 로봇 도입 의향은 기타 외국식이 16.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권(10.0%), 경남권(7.8%), 수도권(6.1%) 등의 순서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12.9%), 1억 원~5억 원 미만(6.6%), 5천만 원~1억 원 미만(1.7%), 5천만 원 미만(0.5%)의 순서로 조사됨.

〈표 3-14-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로봇 도입 의향(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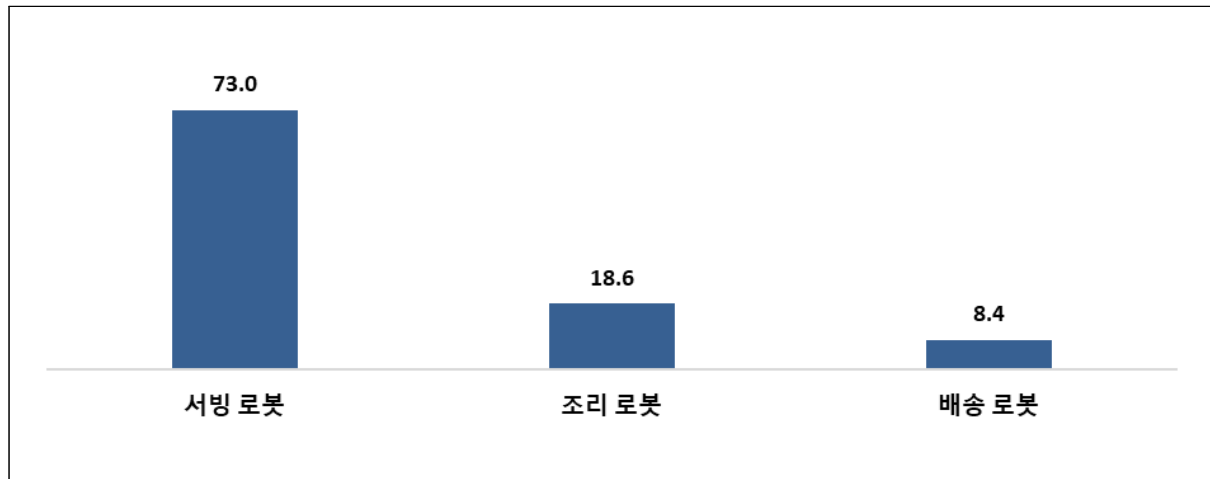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2년 이내 도입 의향 있음	3~5년 이내 도입 의향 있음	도입 의향은 있으나, 시기는 아직 잘 모르겠음	도입 의향 없음	
전체			2,114	0.6	0.6	4.6	94.3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0.7	0.4	6.1	92.7	
		한식	894	0.8	0.3	5.9	93.0	
		중식	135	0.0	0.0	6.7	93.3	
		일식	88	1.0	0.0	6.2	92.8	
		서양식	72	0.0	1.5	9.3	89.2	
		기타 외국식	36	4.5	4.1	8.3	83.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0.3	0.9	2.5	96.3	
		기관 구내식당업	57	0.0	0.0	0.1	99.9	
		출장·이동음식점업	73	0.0	2.4	1.5	96.1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1.0	0.0	1.8	97.2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0.0	2.4	0.0	97.6
			치킨 전문점	45	1.1	0.0	4.1	94.8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0.0	0.0	2.6	97.4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0.0	0.0	12.0	88.0
		주점업	249	0.0	0.0	1.6	98.4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0.5	2.5	2.9	94.0	
지역	서울권	325	0.3	0.3	9.4	89.9		
	수도권	362	1.1	3.2	1.8	93.9		
	충청권	416	0.2	0.0	1.1	98.7		
	호남권	349	0.8	0.0	3.8	95.4		
	경남권	353	0.0	0.0	7.8	92.2		
	경북권	309	1.1	0.0	4.1	94.8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0.5	0.0	0.0	99.5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0.0	0.8	0.9	98.2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0.7	0.6	5.3	93.4		
	5억 원 이상	216	1.1	0.4	11.4	87.0		

(15) 향후 도입 로봇 종류

- 향후 도입 로봇 종류를 조사함. 향후 도입 로봇 종류에 대해서 서빙 로봇(73.0%), 조리 로봇(18.6%), 배송 로봇(8.4%)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5〉 향후 도입 로봇 종류

(단위: %)



- 향후 로봇 도입 로봇 종류에 대해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음식점 업종은 서빙 로봇이 82.1%로 가장 많았고, 일반음식점 외 업종은 조리 로봇이 54.0%로 가장 많이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빙 로봇은 호남권(87.5%), 경남권(83.1%), 경북권(73.7%), 충청권(71.0%) 등의 순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100.0%), 5억 원 이상(77.1%)에서 타 매출액 규모에 비해 서빙 로봇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3-15-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도입 로봇 종류(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서빙 로봇	조리 로봇	배송 로봇	
전체			246	73.0	18.6	8.4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8	82.1	11.2	6.6	
		한식	103	83.8	10.2	5.9	
		중식	12	100.0	0.0	0.0	
		일식	7	86.1	13.9	0.0	
		서양식	19	51.7	23.0	25.3	
		기타 외국식	17	69.4	25.1	5.5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	54.0	34.0	12.1	
		기관 구내식당업	3	94.2	5.8	0.0	
		출장·이동음식점업	3	37.5	62.5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9	76.2	8.6	15.3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	7.0	52.1	40.9
			치킨 전문점	19	17.3	82.7	0.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	90.3	9.7	0.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5	63.4	36.6	0.0
		주점업	5	100.0	0.0	0.0	
	비알코올 음료점업	21	56.6	27.1	16.4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90	61.3	25.6	13.1	
	비프랜차이즈		156	77.8	15.7	6.5	
지역	서울권		82	64.5	18.8	16.7	
	수도권		61	66.8	31.3	1.9	
	충청권		11	71.0	17.8	11.1	
	호남권		23	87.5	12.5	0.0	
	경남권		48	83.1	12.6	4.3	
	경북권		21	73.7	14.1	12.2	
매 출 액	5천만 원 미만		1	100.0	0.0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8	63.5	36.5	0.0	
	1억 원~5억 원 미만		178	72.5	18.4	9.1	
	5억 원 이상		59	77.0	15.6	7.5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향후 도입 로봇 종류는 서빙 로봇(61.3%), 조리 로봇(25.6%), 배송 로봇(13.1%)으로 조사됨.
- 대부분 업종에서 서빙 로봇과 조리 로봇을 향후 도입할 것으로 파악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 규모에서 서빙 로봇이 67.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5-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도입 로봇 종류(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서빙 로봇	조리 로봇	배송 로봇	
전체			90	61.3	25.6	13.1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40	76.3	12.5	11.2	
		한식	20	81.3	9.1	9.7	
		중식	2	100.0	0.0	0.0	
		서양식	8	31.6	23.6	44.8	
		기타 외국식	10	70.0	30.0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50	46.7	38.3	15.0	
		기관 구내식당업		2	100.0	0.0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4	57.1	14.3	28.6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1	.6	55.7	43.7
			치킨 전문점	16	10.6	89.4	0.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7	100.0	0.0	0.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2	81.1	18.9	0.0
		비알코올 음료점업		8	83.5	0.0	16.5
지역	서울권		32	55.2	21.5	23.3	
	수도권		32	75.5	20.0	4.4	
	충청권		1	0.0	100.0	0.0	
	호남권		5	5.7	94.3	0.0	
	경남권		19	72.4	27.2	0.4	
	경북권		1	0.0	0.0	100.0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1	0.0	100.0	0.0	
	1억 원~5억 원 미만		59	60.3	24.9	14.8	
	5억 원 이상		30	67.7	23.7	8.6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향후 로봇 도입 로봇 종류는 서빙 로봇(77.8%), 조리 로봇(15.7%), 배송 로봇(6.5%)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호남권(95.8%), 경남권(89.8%)이 서빙 로봇을 향후 도입할 것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100.0%)과 5억 원 이상(83.4%) 규모에서 서빙 로봇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3-15-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도입 로봇 종류(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서빙 로봇	조리 로봇	배송 로봇
전체			156	77.8	15.7	6.5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18	83.7	10.9	5.4
		한식	83	84.5	10.5	5.0
		중식	10	100.0	0.0	0.0
		일식	7	86.1	13.9	0.0
		서양식	11	59.3	22.8	17.9
		기타 외국식	7	68.6	17.9	13.5
	일반 음식점 외	소계	38	60.0	30.4	9.6
		기관 구내식당업	1	0.0	100.0	0.0
		출장·이동음식점업	3	37.5	62.5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5	98.0	2.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	100.0	0.0
			치킨 전문점	3	42.7	57.3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4	74.7	25.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	60.0	40.0
		주점업	5	100.0	0.0	0.0
		비알코올 음료점업	13	46.4	37.2	16.3
지역	서울권		50	68.5	17.7	13.8
	수도권		29	60.1	39.9	0.0
	충청권		10	79.5	8.0	12.5
	호남권		18	95.8	4.2	0.0
	경남권		29	89.0	4.5	6.5
	경북권		20	82.3	15.8	1.9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1	100.0	0.0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7	70.1	29.9	0.0
	1억 원~5억 원 미만		119	77.2	15.9	6.9
	5억 원 이상		29	83.4	9.9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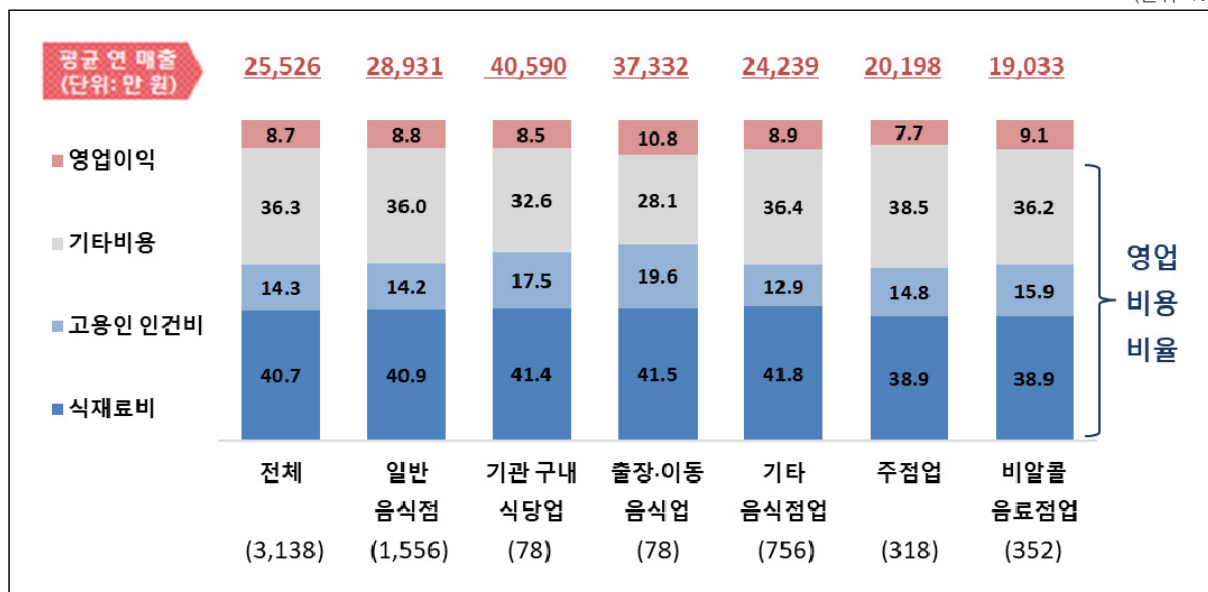
2) 사업실적

(1) 업종 분류별 사업실적

- 외식업체 업종 중분류별로 사업실적을 분석함. 2025년에 조사한 2024년 외식업체의 평균 연 매출액은 약 2억 5천 5백만 원이며, 일반음식점은 약 2억 8천 9백만 원,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는 2억 2천만 원으로 조사됨. 일반음식점 외 업체 중 기관 구내식당업은 약 4억 6백만 원, 출장 및 이동음식점업은 약 3억 7천 3백만 원, 기타 음식점업은 약 2억 4천 2백만 원, 주점업은 약 2억 2백만 원,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약 1억 9천만 원 등으로 나타남.
- 전체 외식업체의 평균 연 매출액은 약 2억 5천 5백만 원인데, 영업비용은 약 2억 3천 3백만 원으로 91.5%를 점유하며, 영업이익은 약 2천 2백만 원으로 8.7%를 차지함.
- 전체 외식업체의 매출액 중에서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7%, 고용인 인건비 비중은 14.3%, 기타비용(임차료·세금·대표자 인건비 등) 비중은 36.3%로 분석됨.
- 매출액 중 영업이익 비중은 출장·이동음식점업(10.8%)이 높으며, 식재료비 비중이 높은 업종은 기타 음식점업(41.8%)으로 나타남. 고용인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은 출장·이동 음식업(19.6%)임. 대표자 및 가족 종사자 인건비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업종은 기타 음식점업(17.0%)인 것으로 파악됨.

〈그림 3-16〉 업종 중분류별 사업실적

(단위: %)



〈표 3-16-1〉 업종 중분류별 사업실적(전체)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일반 음식점		기관 구내 식당업		출장 및 이동음식점업		기타 음식점업		주점업		비알코올 음료점업	
	(3,138)		(1,556)		(78)		(78)		(756)		(318)		(352)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1. 매출액	25,526	100.0	28,931	100.0	40,590	100.0	37,332	100.0	24,239	100.0	20,198	100.0	19,033	100.0
2. 영업비용	23,294	91.3	26,378	91.2	37,123	91.5	33,302	89.2	22,090	91.1	18,637	92.3	17,308	90.9
2-1. 식재료비	10,377	40.7	11,839	40.9	16,788	41.4	15,492	41.5	10,137	41.8	7,867	38.9	7,407	38.9
2-2. 고용인 인건비	3,657	14.3	4,116	14.2	7,105	17.5	7,306	19.6	3,136	12.9	2,990	14.8	3,018	15.9
2-3. 임차료	1,964	7.7	2,063	7.1	2,588	6.4	1,965	5.3	1,908	7.9	1,999	9.9	1,625	8.5
2-4. 세금	1,511	5.9	1,763	6.1	2,886	7.1	1,609	4.3	1,264	5.2	1,204	6.0	1,125	5.9
2-5. 가족 종사자 인건비	850	3.3	1,069	3.7	492	1.2	1,605	4.3	918	3.8	359	1.8	490	2.6
2-6. 대표자 인건비	3,391	13.3	3,827	13.2	4,536	11.2	3,346	9.0	3,196	13.2	2,872	14.2	2,539	13.3
2-7. 기타	1,544	6.0	1,701	5.9	2,728	6.7	1,980	5.3	1,531	6.3	1,345	6.7	1,104	5.8
3. 영업이익	2,232	8.7	2,553	8.8	3,467	8.5	4,030	10.8	2,149	8.9	1,562	7.7	1,725	9.1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평균 연 매출액은 약 3억 3천 3백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약 3억 5백만 원으로 91.5%, 영업이익은 8.5%인 약 2천 8백만 원으로 분석됨. 영업비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식재료비(41.9%)이며, 고용인 인건비는 15.5%, 대표자 및 가족 종사자 인건비는 15.2%를 차지함.

○ 세부 업종별로 영업비용 비중이 높은 업종은 일반음식점(92.2%)으로 조사됨. 프랜차이즈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업종은 출장 및 이동음식점업(11.9%), 기관 구내식당업(10.5%)이며, 식재료비 비중이 높은 업종은 기관 구내식당업(44.0%), 기타 음식점업(42.6%) 등임. 고용인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는 출장·이동음식점업(29.2%)이며, 대표자 및 가족 종사자 인건비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업종은 기타 음식점업(16.2%)인 것으로 파악됨.

〈표 3-16-2〉 업종 중분류별 사업실적(프랜차이즈)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일반 음식점		기관 구내 식당업		출장 및 이동음식점업		기타 음식점업		주점업		비알코올 음료점업	
	(1,024)		(331)		(21)		(5)		(458)		(69)		(140)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1. 매출액	33,282	100.0	40,368	100.0	73,215	100.0	69,200	100.0	27,601	100.0	29,324	100.0	31,160	100.0
2. 영업비용	30,462	91.5	37,227	92.2	65,556	89.5	60,968	88.1	25,139	91.1	26,365	89.9	28,569	91.7
2-1. 식재료비	13,930	41.9	17,074	42.3	32,187	44.0	21,135	30.5	11,770	42.6	11,667	39.8	12,372	39.7
2-2. 고용인 인건비	5,175	15.5	6,127	15.2	10,832	14.8	20,224	29.2	3,656	13.2	4,985	17.0	6,398	20.5
2-3. 임차료	2,615	7.9	3,115	7.7	3,913	5.3	6,720	9.7	2,220	8.0	2,550	8.7	2,464	7.9
2-4. 세금	1,763	5.3	2,277	5.6	4,201	5.7	2,927	4.2	1,302	4.7	1,340	4.6	1,808	5.8
2-5. 가족 종사자 인건비	991	3.0	1,309	3.2	411	0.6	465	0.7	963	3.5	507	1.7	688	2.2
2-6. 대표자 인건비	4,046	12.2	5,051	12.5	7,858	10.7	5,929	8.6	3,496	12.7	3,691	12.6	3,224	10.3
2-7. 기타	1,943	5.8	2,273	5.6	6,154	8.4	3,567	5.2	1,732	6.3	1,625	5.5	1,615	5.2
3. 영업이익	2,819	8.5	3,141	7.8	7,659	10.5	8,232	11.9	2,462	8.9	2,960	10.1	2,591	8.3

- 비프랜차이즈의 평균 매출액은 약 2억 2천 7백만 원이며, 이 중에서 영업비용은 약 2억 7백만 원(91.1%), 영업이익은 약 2천만 원(8.9%)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 영업비용 비중이 높은 업종은 기관 구내식당업(93.0%)으로 조사됨. 비프랜차이즈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업종은 출장 및 이동음식점업(10.6%)이며, 식재료비 비중이 높은 업종은 출장 및 이동음식점업(43.8%). 고용인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은 기관 구내식당업(19.7%)으로 나타났으며, 대표자 및 가족 종사자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은 비알코올 음료점업(19.2%)임.

〈표 3-16-3〉 업종 중분류별 사업실적(비프랜차이즈)

(단위: 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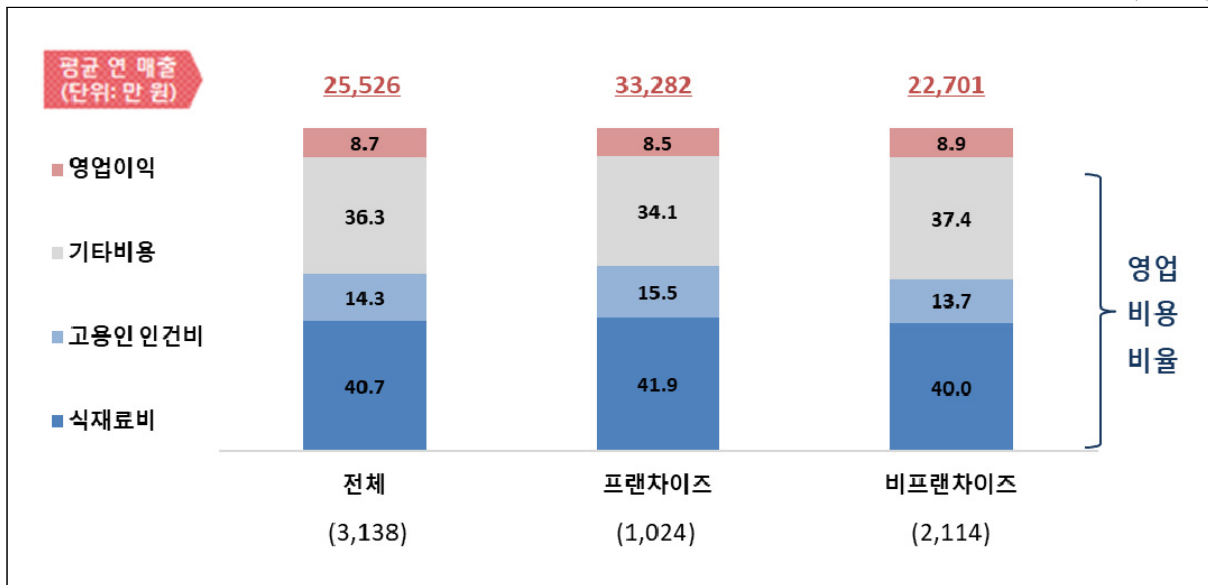
구분	전체		일반 음식점		기관 구내 식당업		출장 및 이동음식점업		기타 음식점업		주점업		비알코올 음료점업	
	(2,114)		(1,225)		(57)		(73)		(298)		(249)		(212)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1. 매출액	22,701	100.0	26,457	100.0	29,990	100.0	33,976	100.0	19,918	100.0	18,588	100.0	13,760	100.0
2. 영업비용	20,683	91.1	24,031	90.8	27,885	93.0	30,389	89.4	18,171	91.2	17,273	92.9	12,412	90.2
2-1. 식재료비	9,083	40.0	10,706	40.5	11,785	39.3	14,897	43.8	8,038	40.4	7,197	38.7	5,248	38.1
2-2. 고용인 인건비	3,104	13.7	3,681	13.9	5,894	19.7	5,946	17.5	2,467	12.4	2,638	14.2	1,548	11.3
2-3. 임차료	1,727	7.6	1,836	6.9	2,157	7.2	1,464	4.3	1,507	7.6	1,902	10.2	1,260	9.2
2-4. 세금	1,420	6.3	1,652	6.2	2,459	8.2	1,470	4.3	1,215	6.1	1,180	6.3	828	6.0
2-5. 가족 종사자 인건비	798	3.5	1,017	3.8	518	1.7	1,725	5.1	861	4.3	333	1.8	404	2.9
2-6. 대표자 인건비	3,153	13.9	3,562	13.5	3,457	11.5	3,074	9.0	2,810	14.1	2,728	14.7	2,241	16.3
2-7. 기타	1,398	6.2	1,577	6.0	1,615	5.4	1,813	5.3	1,273	6.4	1,296	7.0	881	6.4
3. 영업이익	2,017	8.9	2,425	9.2	2,105	7.0	3,588	10.6	1,746	8.8	1,315	7.1	1,348	9.8

(2) 운영 형태별 사업실적

- 외식업체 운영 형태별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프랜차이즈 업체의 평균 연 매출액은 약 3억 3천 3백만 원으로 비프랜차이즈 업체(약 2억 2천 7백만 원)보다 높음.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영업이익률은 8.5%로 비프랜차이즈 업체(8.9%)보다 낮음.

〈그림 3-17〉 운영 형태별 사업실적

(단위: %)



〈표 3-17〉 운영 형태별 사업실적(전체)

(단위: 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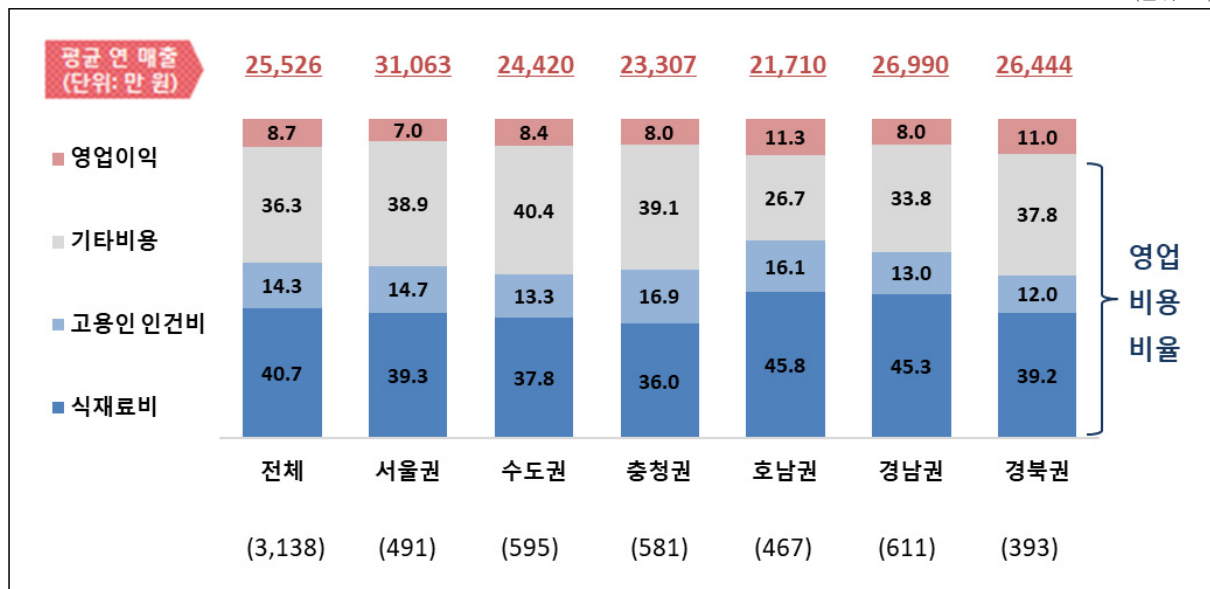
구분	전체 (3,138)		프랜차이즈 (1,024)		비프랜차이즈 (2,114)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1. 매출액	25,526	100.0	33,282	100.0	22,701	100.0
2. 영업비용	23,294	91.3	30,462	91.5	20,683	91.1
2-1. 식재료비	10,377	40.7	13,930	41.9	9,083	40.0
2-2. 고용인 인건비	3,657	14.3	5,175	15.5	3,104	13.7
2-3. 임차료	1,964	7.7	2,615	7.9	1,727	7.6
2-4. 세금	1,511	5.9	1,763	5.3	1,420	6.3
2-5. 가족 종사자 인건비	850	3.3	991	3.0	798	3.5
2-6. 대표자 인건비	3,391	13.3	4,046	12.2	3,153	13.9
2-7. 기타	1,544	6.0	1,943	5.8	1,398	6.2
3. 영업이익	2,232	8.7	2,819	8.5	2,017	8.9

(3) 지역별 사업실적

- 외식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인 인건비, 식재료비 등 사업실적에 대해서 지역별로 분석함. 영업이익률은 호남권(11.3%), 경북권(11.0%), 수도권(8.4%)에서 비교적 높고, 충청권, 경남권(각 8.0%), 서울권(7.0%)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음.
- 영업비용 중 식재료비 비중은 호남권(45.8%), 경남권(45.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수도권(37.8%)과 충청권(36.0%)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 영업비용 중 고용인 인건비 비중은 충청권(16.9%)과 호남권(16.1%)에서 비교적 높고, 경북권(12.0%)은 낮은 수준임.
- 영업비용 중 임차료 비중은 수도권(9.3%), 서울권(8.5%)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경북권(5.2%)은 비교적 낮게 나타남.
- 영업비용 중 대표자 및 가족 종사자 인건비 비중은 경북권(21.1%), 수도권(17.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데 비해, 경남권(15.7%), 호남권(11.5%)은 전체 평균(16.6%)보다 낮음.

〈그림 3-18〉 지역별 사업실적

(단위: %)



〈표 3-18-1〉 지역별 사업실적(전체)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서울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	
	(3,138)		(491)		(595)		(581)		(467)		(611)		(393)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1. 매출액	25,526	100.0	31,063	100.0	24,420	100.0	23,307	100.0	21,710	100.0	26,990	100.0	26,444	100.0
2. 영업비용	23,294	91.3	28,886	93.0	22,365	91.6	21,431	92.0	19,252	88.7	24,841	92.0	23,533	89.0
2-1. 식재료비	10,377	40.7	12,220	39.3	9,242	37.8	8,392	36.0	9,948	45.8	12,227	45.3	10,358	39.2
2-2. 고용인 인건비	3,657	14.3	4,571	14.7	3,253	13.3	3,933	16.9	3,504	16.1	3,497	13.0	3,169	12.0
2-3. 임차료	1,964	7.7	2,639	8.5	2,276	9.3	1,916	8.2	1,493	6.9	1,954	7.2	1,385	5.2
2-4. 세금	1,511	5.9	2,044	6.6	1,594	6.5	1,690	7.3	1,243	5.7	1,301	4.8	1,159	4.4
2-5. 가족 종사자 인건비	850	3.3	1,166	3.8	967	4.0	398	1.7	377	1.7	803	3.0	1,672	6.3
2-6. 대표자 인건비	3,391	13.3	4,241	13.7	3,292	13.5	3,549	15.2	2,122	9.8	3,433	12.7	3,919	14.8
2-7. 기타	1,544	6.0	2,004	6.5	1,741	7.1	1,553	6.7	565	2.6	1,626	6.0	1,871	7.1
3. 영업이익	2,232	8.7	2,177	7.0	2,055	8.4	1,876	8.0	2,458	11.3	2,149	8.0	2,911	11.0

○ 지역별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영업비용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울권(93.1%), 충청권(93.1%), 경남권(92.2%)이며, 영업이익률이 높은 지역은 호남권(11.7%)과 수도권(9.8%)임. 식재료비 비중이 높은 지역은 호남권(46.6%), 경남권(46.1%)이고, 고용인 인건비 비중이 높은 지역은 충청권(18.9%)과 호남권(17.6%)임. 임차료 비중이 높은 지역은 충청권(9.9%)과 수도권(8.2%)이고, 대표자 및 가족 종사자 인건비 비중이 높은 지역은 수도권(18.6%)과 경북권(16.9%)으로 나타남.

〈표 3-18-2〉 지역별 사업실적(프랜차이즈)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서울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	
	(1,024)		(166)		(233)		(165)		(118)		(258)		(84)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1. 매출액	33,282	100.0	41,829	100.0	28,826	100.0	28,979	100.0	29,587	100.0	35,221	100.0	38,516	100.0
2. 영업비용	30,462	91.5	38,943	93.1	25,988	90.2	26,967	93.1	26,130	88.3	32,487	92.2	34,790	90.3
2-1. 식재료비	13,930	41.9	17,072	40.8	10,816	37.5	10,738	37.1	13,776	46.6	16,250	46.1	16,047	41.7
2-2. 고용인 인건비	5,175	15.5	6,826	16.3	3,553	12.3	5,465	18.9	5,205	17.6	5,173	14.7	5,984	15.5
2-3. 임차료	2,615	7.9	3,159	7.6	2,371	8.2	2,862	9.9	2,188	7.4	2,668	7.6	2,200	5.7
2-4. 세금	1,763	5.3	2,681	6.4	1,745	6.1	1,472	5.1	1,547	5.2	1,707	4.8	1,207	3.1
2-5. 가족 종사자 인건비	991	3.0	1,667	4.0	1,140	4.0	352	1.2	412	1.4	775	2.2	2,445	6.3
2-6. 대표자 인건비	4,046	12.2	5,062	12.1	4,220	14.6	4,304	14.9	2,318	7.8	3,971	11.3	4,091	10.6
2-7. 기타	1,943	5.8	2,476	5.9	2,144	7.4	1,772	6.1	683	2.3	1,942	5.5	2,815	7.3
3. 영업이익	2,819	8.5	2,886	6.9	2,838	9.8	2,012	6.9	3,457	11.7	2,735	7.8	3,726	9.7

- 지역별로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영업비용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울권(92.9%)과 수도권(92.4%), 경남권(91.9%), 충청권(91.5%) 등의 순으로 조사됨. 반면, 영업이익률이 높은 지역은 경북권(11.4%)임.
- 식재료비 비중이 높은 지역은 호남권(45.5%)이고, 고용인 인건비 비중이 높은 지역은 충청권(16.0%)임.
- 임차료 비중이 높은 지역은 수도권(10.0%)과 서울권(9.0%)이고, 대표자 및 가족 종사자 인건비 비중이 높은 지역은 경북권(22.4%), 서울권(18.1%), 경남권(17.8%)으로 나타남.

〈표 3-18-3〉 지역별 사업실적(비프랜차이즈)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서울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	
	(2,114)		(325)		(362)		(416)		(349)		(353)		(309)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1. 매출액	22,701	100.0	27,340	100.0	22,357	100.0	21,417	100.0	19,767	100.0	22,176	100.0	24,149	100.0
2. 영업비용	20,683	91.1	25,408	92.9	20,668	92.4	19,587	91.5	17,556	88.8	20,370	91.9	21,392	88.6
2-1. 식재료비	9,083	40.0	10,543	38.6	8,505	38.0	7,610	35.5	9,003	45.5	9,874	44.5	9,276	38.4
2-2. 고용인 인건비	3,104	13.7	3,792	13.9	3,113	13.9	3,422	16.0	3,085	15.6	2,517	11.4	2,634	10.9
2-3. 임차료	1,727	7.6	2,460	9.0	2,231	10.0	1,601	7.5	1,322	6.7	1,537	6.9	1,230	5.1
2-4. 세금	1,420	6.3	1,824	6.7	1,523	6.8	1,762	8.2	1,168	5.9	1,064	4.8	1,150	4.8
2-5. 가족 종사자 인건비	798	3.5	993	3.6	886	4.0	413	1.9	369	1.9	819	3.7	1,525	6.3
2-6. 대표자 인건비	3,153	13.9	3,957	14.5	2,858	12.8	3,298	15.4	2,073	10.5	3,118	14.1	3,886	16.1
2-7. 기타	1,398	6.2	1,840	6.7	1,552	6.9	1,480	6.9	536	2.7	1,441	6.5	1,691	7.0
3. 영업이익	2,017	8.9	1,932	7.1	1,689	7.6	1,831	8.5	2,212	11.2	1,807	8.1	2,757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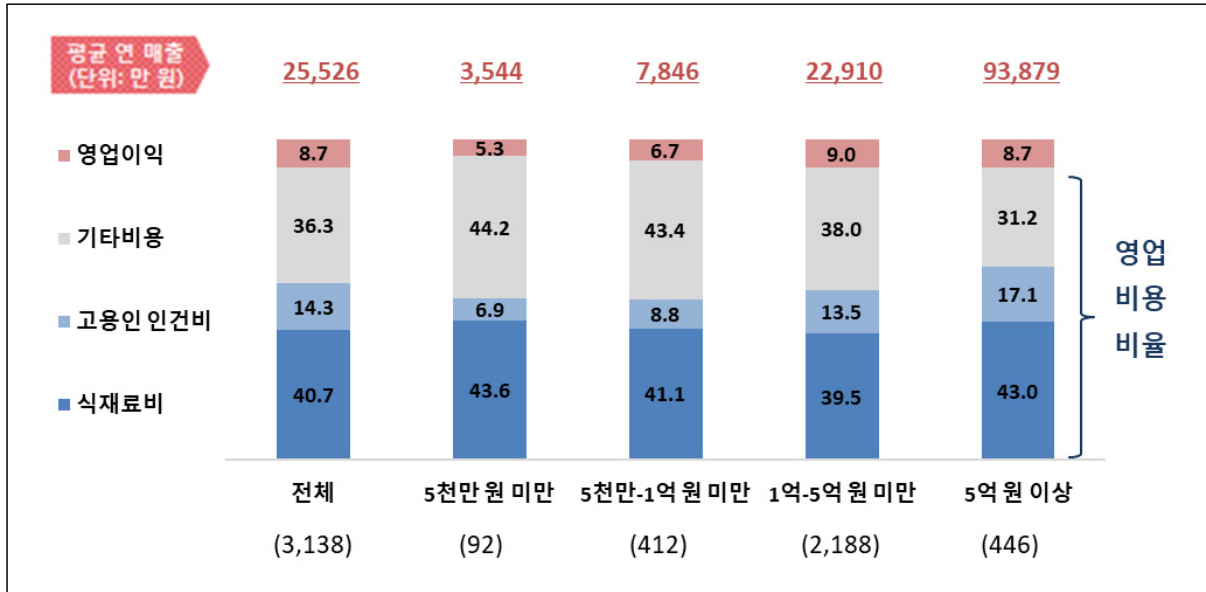
(4) 매출액 규모별 사업실적

- 외식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인 인건비, 식재료비 등을 매출액 규모별로 분석함. 영업이익률은 1억 원~5억 원 미만 외식업체가 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억 원 이상(8.7%), 5천만 원~1억 원 미만(6.7%)의 순서로 나타남.
- 영업비용 비율은 5천만 원 미만(94.7%), 5천만 원~1억 원 미만(93.3%), 5억 원 이상(91.3%), 1억 원~5억 원 미만(91.0%)의 순임.
- 매출액 중 식재료비 비중은 5천만 원 미만인 업체가 43.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억 원 이상(43.0%), 5천만 원~1억 원 미만(41.1%), 1억 원~5억 원 미만인 외식업체(39.5%)인 것으로 조사됨.
- 고용인 인건비의 경우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큰 비중을 차지함. 5억 원 이상인 외식업체 매출의 17.1%가 고용인 인건비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5천만 원 미만 외식업체는 6.9%에 불과함.

- 임차료의 경우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인 외식업체의 임차료 비중은 15.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5억 원 이상인 업체는 6.1%로 비교적 낮은 수준임.
- 매출액 중 대표자 및 가족 종사자 인건비 비중은 5천만 원~1억 원 미만 업체가 1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억 원 이상은 11.4%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3-19〉 매출액 규모별 사업실적

(단위: %)



〈표 3-19-1〉 매출액 규모별 사업실적(전체)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3,138)		(92)		(412)		(2,188)		(446)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1. 매출액	25,526	100.0	3,544	100.0	7,846	100.0	22,910	100.0	93,879	100.0
2. 영업비용	23,294	91.3	3,357	94.7	7,317	93.3	20,858	91.0	85,735	91.3
2-1. 식재료비	10,377	40.7	1,546	43.6	3,221	41.1	9,047	39.5	40,381	43.0
2-2. 고용인 인건비	3,657	14.3	246	6.9	691	8.8	3,100	13.5	16,019	17.1
2-3. 임차료	1,964	7.7	540	15.3	895	11.4	1,859	8.1	5,680	6.1
2-4. 세금	1,511	5.9	253	7.1	534	6.8	1,357	5.9	5,393	5.7
2-5. 가족 종사자 인건비	850	3.3	90	2.5	196	2.5	859	3.7	2,432	2.6
2-6. 대표자 인건비	3,391	13.3	446	12.6	1,206	15.4	3,213	14.0	10,684	11.4
2-7. 기타	1,544	6.0	236	6.7	573	7.3	1,422	6.2	5,147	5.5
3. 영업이익	2,232	8.7	187	5.3	530	6.7	2,053	9.0	8,143	8.7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인 인건비, 식재료비 등 사업실적에 대해서 매출액 규모 별로 분석함.
- 5천만 원 미만 프랜차이즈의 평균 매출액은 4천 4백만 원이고, 고용인 인건비 비중은 5.0%, 대표자 및 가족 종사자 인건비 비중은 13.9%, 임차료 비중은 27.5% 등으로 나타남. 5천만 원~1억 원 미만 프랜차이즈의 평균 매출액은 8천만 원이고, 영업이익률은 5.3%, 고용인 인건비 비중은 9.1%, 대표자 및 가족 종사자 인건비 비중은 19.6%, 임차료 비중은 15.1% 등으로 조사됨.
- 1억 원~5억 원 미만 프랜차이즈의 평균 매출액은 2억 4천 8백만 원이고, 영업이익률은 8.4%, 고용인 인건비 비중은 14.5%, 대표자 및 가족 종사자 인건비 비중은 16.4%, 임차료 비중은 8.7% 등임. 5억 원 이상 프랜차이즈의 평균 매출액은 9억 4천 6백만 원이고, 영업이익률은 8.8%, 고용인 인건비 비중은 17.3%, 대표자 및 가족 종사자 인건비 비중은 13.1%, 임차료 비중은 6.2% 등으로 나타남.
- 매출액 중 고용인 인건비 비중은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대체로 높게 나타남.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인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고용인 인건비 비중은 17.3%인 반면, 5천만 원 미만 외식업체는 5.0%에 그치고 있음. 대표자 및 가족 종사자 인건비 비중은 매출액이 5천만 원~1억 원 미만인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19.6%인 데 반해, 5억 원 이상인 외식업체는 13.1%로 파악됨.
- 매출액 중 임차료 비중은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대체로 높은 가운데,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인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임차료 비중은 6.2%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표 3-19-2〉 매출액 규모별 사업실적(프랜차이즈)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1,024)		(4)		(69)		(721)		(230)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1. 매출액	33,282	100.0	4,272	100.0	8,018	100.0	24,833	100.0	94,639	100.0
2. 영업비용	30,462	91.5	4,354	101.9	7,591	94.7	22,750	91.6	86,355	91.2
2-1. 식재료비	13,930	41.9	1,691	39.6	3,024	37.7	10,074	40.6	41,555	43.9
2-2. 고용인 인건비	5,175	15.5	215	5.0	732	9.1	3,609	14.5	16,404	17.3
2-3. 임차료	2,615	7.9	1,172	27.4	1,207	15.1	2,164	8.7	5,915	6.2
2-4. 세금	1,763	5.3	478	11.2	535	6.7	1,302	5.2	5,018	5.3
2-5. 가족 종사자 인건비	991	3.0	129	3.0	163	2.0	838	3.4	2,318	2.4
2-6. 대표자 인건비	4,046	12.2	467	10.9	1,409	17.6	3,228	13.0	10,115	10.7
2-7. 기타	1,943	5.8	202	4.7	522	6.5	1,535	6.2	5,030	5.3
3. 영업이익	2,819	8.5	-82	-1.9	427	5.3	2,083	8.4	8,284	8.8

- 5천만 원 미만 비프랜차이즈 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약 3천 5백만 원이고, 식재료비 비중은 43.8%, 고용인 인건비 비중은 7.0%, 대표자 및 가족 종사자 인건비 비중은 15.1%, 임차료 비중은 14.7% 등으로 나타남. 5천만 원~1억 원 미만 비프랜차이즈 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약 7천 8백만 원이고, 영업이익률은 7.0%, 식재료비 비중은 41.5%, 고용인 인건비 비중은 8.8%, 대표자 및 가족 종사자 인건비 비중은 17.6%, 임차료 비중은 10.9% 등으로 분석됨.
- 1억 원~5억 원 미만 비프랜차이즈 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약 2억 2천 1백만 원이고, 영업이익률은 9.2%, 식재료비 비중은 39.0%, 고용인 인건비 비중은 16.8%, 대표자 및 가족 종사자 인건비 비중은 18.4%, 임차료 비중은 7.8% 등으로 나타남. 5억 원 이상 비프랜차이즈 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약 9억 3천 2백만 원이고, 영업이익률은 8.6%, 식재료비 비중은 42.2%, 고용인 인건비 비중은 16.8%, 대표자 및 가족 종사자 인건비 비중은 14.7%, 임차료 비중은 5.9% 등으로 조사됨.
- 매출액 중 고용인 인건비 비중은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남.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인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16.8%인 반면, 5천만 원 미만은 7.0%에 불과함. 대표자 및 가족 종사자 인건비 비중은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인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17.6%인 반면에 5억 원 이상의 경우 외식업체는 14.7%로 나타남.
- 매출액 중 임차료 비중은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인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임차료 비중은 14.7%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3-19-3〉 매출액 규모별 사업실적(비프랜차이즈)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2,114)		(88)		(343)		(1,467)		(216)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1. 매출액	22,701	100.0	3,518	100.0	7,822	100.0	22,125	100.0	93,234	100.0
2. 영업비용	20,683	91.1	3,322	94.4	7,277	93.0	20,085	90.8	85,210	91.4
2-1. 식재료비	9,083	40.0	1,541	43.8	3,250	41.5	8,628	39.0	39,386	42.2
2-2. 고용인 인건비	3,104	13.7	247	7.0	685	8.8	2,893	13.1	15,692	16.8
2-3. 임차료	1,727	7.6	518	14.7	850	10.9	1,735	7.8	5,481	5.9
2-4. 세금	1,420	6.3	245	7.0	534	6.8	1,380	6.2	5,711	6.1
2-5. 가족 종사자 인건비	798	3.5	89	2.5	200	2.6	867	3.9	2,528	2.7
2-6. 대표자 인건비	3,153	13.9	445	12.6	1,177	15.0	3,206	14.5	11,167	12.0
2-7. 기타	1,398	6.2	237	6.7	581	7.4	1,376	6.2	5,246	5.6
3. 영업이익	2,017	8.9	196	5.6	544	7.0	2,040	9.2	8,024	8.6

(5) 수익성·생산성 분석

- 전체 외식업체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8.7%이나, 일반음식점이 8.8%로 일반음식점 외 업체(8.6%)보다 높음.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중식(10.5%), 일반음식점 외 업종에서는 출장·이동음식점업(10.8%)의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및 인건비의 비율은 71.6%이고, 종사원당 매출액은 약 8천 5백만 원임. 좌석당 매출액은 약 9백만 원, 테이블당 매출액은 약 3천 2백만 원, 평당 매출액은 약 1천 3백만 원임.

〈표 3-20-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수익성·생산성 분석(전체)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매출 대비 식재료 및 인건비 비율	종사원당 매출액	좌석당 매출액	테이블당 매출액	평당 매출액	
전체			3,138	8.7	71.6	8,546	878	3,195	1,290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8.8	72.1	8,543	739	2,758	1,173	
		한식	1,091	8.8	72.4	8,605	711	2,662	1,124	
		중식	158	10.5	71.0	7,727	749	2,723	1,486	
		일식	117	8.1	71.7	10,155	1,099	4,155	1,509	
		서양식	118	7.6	69.2	7,505	797	2,955	1,084	
		기타 외국식	72	6.1	69.8	6,960	759	2,783	1,263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8.6	70.9	8,549	1,030	3,670	1,412	
		기관 구내식당업	78	8.5	71.3	8,472	567	2,153	752	
		출장·이동음식점업	78	10.8	74.3	9,920	1,060	4,042	1,831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8.4	72.3	7,249	1,920	6,594	2,016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7.3	74.2	10,774	2,150	6,903	2,142
			치킨 전문점	172	9.2	70.8	11,188	1,348	5,096	2,056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9.3	71.0	7,614	1,260	4,311	1,748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12.8	67.5	9,227	2,320	8,091	2,058
		주점업	318	7.7	69.8	9,027	713	2,747	994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9.1	70.7	7,389	724	2,577	1,143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8.5	72.5	9,083	1,343	4,705	1,860	
	비프랜차이즈		2,114	8.9	71.1	8,350	714	2,662	1,082	
지역	서울권		491	7.0	71.5	9,886	1,207	4,282	1,616	
	수도권		595	8.4	68.6	10,015	913	3,228	1,290	
	충청권		581	8.0	69.8	7,253	663	2,569	891	
	호남권		467	11.3	73.5	7,797	709	2,627	1,110	
	경남권		611	8.0	74.0	7,542	930	3,206	1,694	
	경북권		393	11.0	72.3	9,205	886	3,468	1,078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5.3	65.7	2,737	228	802	316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6.7	67.7	5,501	432	1,569	588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9.0	70.8	8,652	865	3,178	1,320	
	5억 원 이상		446	8.7	74.0	16,417	2,150	7,610	2,887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8.5%로 나타나 비프랜차이즈 업체(8.9%)보다 낮으며, 지역별로는 호남권(11.6%)과 수도권(9.7%)이 높음.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8.8%로 상대적으로 높음.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및 인건비의 비율은 72.5%이고, 종사원당 매출액은 약 9천 1백만 원으로 나타남. 좌석당 매출액은 약 1천 3백만 원, 테이블당 매출액은 약 4천 7백만 원, 평당 매출액은 약 1천 9백만 원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업종별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일반음식점에서는 중식(10.6%), 일반음식점 외에서는 출장·이동음식점업이 11.9%로 높음.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및 인건비 비율은 한식(73.2%)과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74.4%)이 높고, 종사원당 매출액은 일식(약 1억 6백만 원)과 치킨 전문점(약 1억 1천 5백만 원)이 높음.
- 지역별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호남권이 11.7%로 가장 높고,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및 인건비 비율은 경남권이 74.3%로 높음. 매출액 규모별로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의 경우 5억 원 이상(8.8%), 식재료비 및 인건비 비율은 5억 원 이상(74.4%) 업체에서 가장 높음.

〈표 3-20-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수익성·생산성 분석(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매출 대비 식재료 및 인건비 비율	종사원당 매출액	좌석당 매출액	테이블당 매출액	평당 매출액	
전체			1,024	8.5	72.5	9,083	1,343	4,705	1,860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7.8	73.2	9,317	1,060	3,709	1,625	
		한식	197	7.7	73.6	9,720	1,114	3,857	1,613	
		중식	23	10.6	72.3	7,938	890	3,230	1,871	
		일식	29	9.8	71.5	10,598	1,068	4,228	2,185	
		서양식	46	6.7	71.3	6,907	792	2,739	1,279	
		기타 외국식	36	1.3	72.0	6,595	818	2,796	1,409	
		소계	693	9.0	72.1	8,963	1,495	5,244	1,982	
	일반 음식점 외	기관 구내식당업	21	10.5	70.1	9,289	1,266	5,151	1,205	
		출장·이동음식점업	5	11.9	69.0	11,056	884	3,536	1,951	
		제과점	82	9.1	72.5	7,438	2,047	7,262	2,268	
		기타 음식점업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7.8	74.4	10,120	2,267	7,107	2,112
			치킨 전문점	127	9.4	70.8	11,500	1,553	5,836	2,139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8.9	71.6	7,234	1,398	4,962	1,988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12.2	65.3	9,155	2,743	8,733	2,300
		주점업	69	10.1	71.1	9,240	853	3,285	1,405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8.3	72.8	7,505	1,134	4,023	1,954	
지역	서울권		166	6.9	73.2	10,294	1,971	6,593	2,100	
	수도권		233	9.8	68.4	9,098	1,162	3,850	1,651	
	충청권		165	6.9	72.0	8,820	1,024	3,975	1,272	
	호남권		118	11.7	73.4	9,631	1,267	4,424	1,786	
	경남권		258	7.8	74.3	8,045	1,237	4,318	2,335	
	경북권		84	9.7	74.2	10,093	1,890	7,183	1,752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1.9	58.6	3,399	355	1,183	962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5.3	66.4	5,299	621	1,964	896	
	1억 원~5억 원 미만		721	8.4	71.5	8,456	1,187	4,191	1,742	
	5억 원 이상		230	8.8	74.4	14,804	2,555	8,888	3,071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8.5%,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및 인건비의 비율은 71.1%, 종사원당 매출액은 약 8천 4백만 원으로 나타남. 좌석당 매출액은 약 7백만 원, 테이블당 매출액은 약 2천 7백만 원, 평당 매출액은 약 1천 1백만 원으로 분석됨.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업종별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일반음식점에서는 중식과 기타 외국식(각 10.6%), 일반음식점 외에서는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이 13.2%로 높음.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및 인건비 비율은 한식(72.0%)과 출장·이동음식점업(75.5%)이 높고, 종사원당 매출액은 일식(약 1억 원)과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약 1억 4천만 원)이 높음.
- 지역별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경북권이 11.0%로 가장 높고,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및 인건비 비율은 경남권이 73.6%로 높음. 매출액 규모별로는 영업이익률의 경우 1억 원~5억 원 미만인 업체가 9.2%, 식재료비 및 인건비 비율은 5억 원 이상(73.8%) 업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20-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수익성·생산성 분석(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매출 대비 식재료 및 인건비 비율	종사원당 매출액	좌석당 매출액	테이블당 매출액	평당 매출액
전체			2,114	8.9	71.1	8,350	714	2,662	1,082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9.2	71.7	8,376	670	2,556	1,075
		한식	894	9.2	72.0	8,380	631	2,424	1,025
		중식	135	10.5	70.8	7,698	730	2,653	1,434
		일식	88	7.6	71.7	10,044	1,107	4,137	1,340
		서양식	72	8.2	67.7	7,818	799	3,065	981
		기타 외국식	36	10.6	67.7	7,277	708	2,772	1,138
	일반 음식점 외	소계	889	8.3	69.9	8,316	775	2,810	1,092
		기관 구내식당업	57	7.0	72.2	8,206	354	1,238	604
		출장·이동음식점업	73	10.6	75.5	9,800	1,097	4,148	1,819
			제과점	84	7.7	72.2	7,120	1,807	6,003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4.3	72.7	14,008	1,629	5,994	2,293
			치킨 전문점	45	8.7	71.1	10,462	872	3,382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9.6	70.5	7,863	1,170	3,887	1,59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13.2	69.5	9,292	2,006	7,615
		주점업	249	7.1	69.4	8,989	688	2,651	922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9.8	68.6	7,338	546	1,950	790
지역	서울권		325	7.1	70.5	9,745	945	3,494	1,449
	수도권		362	7.6	68.7	10,445	798	2,940	1,121
	충청권		416	8.5	68.8	6,732	547	2,115	764
	호남권		349	11.2	73.5	7,345	570	2,182	943
	경남권		353	8.1	73.6	7,248	756	2,583	1,319
	경북권		309	11.4	71.7	9,036	714	2,835	95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5.6	66.0	2,714	225	792	294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7.0	67.9	5,530	407	1,517	544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9.2	70.5	8,732	739	2,778	1,147
	5억 원 이상		216	8.6	73.8	17,783	1,806	6,524	2,732

(6) 식재료비 사용 비중

- 전체 식재료비 중 쌀은 8.8%, 곡류 4.2%, 채소 10.7%, 과일 3.2%, 축산물 20.2%, 수산물 9.2%, 가공식품 25.5%, 기타 5.7%, 주류/음료는 12.6%로 나타남.
- 업종별로 쌀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은 일반음식점에서 한식(11.9%), 일반음식점 외에서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16.2%)임. 곡류는 중식(12.1%)과 제과점(25.2%), 채소는 한식 및 기타 외국식(각 14.8%)과 기관 구내식당업(17.4%), 과일은 서양식(2.5%)과 주점업(10.6%), 축산물은 한식(27.7%)과 치킨 전문점(52.4%), 가공식품은 기타 외국식(24.3%)과 비알코올 음료점업(61.7%)에서 높은 사용 비중을 차지함.
- 지역별로 쌀은 경남권(10.8%), 곡류는 충청권(6.5%), 채소는 경남권(12.9%), 과일은 수도권(4.5%), 축산물은 경남권(24.5%), 수산물은 호남권(11.1%), 가공식품은 경북권(31.5%), 기타는 수도권(8.5%), 주류/음료는 서울권과 수도권, 충청권(각 14.3%)에서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3-21-1〉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식재료비 사용 비중(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쌀	곡류 (쌀 제외)	채소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기타	주류/ 음료	
전체			3,138	8.8	4.2	10.7	3.2	20.2	9.2	25.5	5.7	12.6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11.3	3.8	14.5	0.6	26.7	13.9	14.7	5.0	9.5	
		한식	1,091	11.9	3.0	14.8	0.5	27.7	13.7	13.9	4.9	9.5	
		중식	158	7.8	12.1	14.5	0.5	23.3	11.6	16.8	5.1	8.2	
		일식	117	10.7	2.6	11.6	0.4	18.4	27.9	14.5	4.4	9.6	
		서양식	118	7.9	5.2	11.4	2.5	25.0	7.4	23.7	6.9	10.1	
		기타 외국식	72	9.0	5.5	14.8	1.6	19.8	8.0	24.3	6.9	10.2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6.2	4.6	6.8	5.8	13.4	4.3	36.6	6.4	15.9	
		기관 구내식당업	78	16.8	4.9	17.4	3.5	17.6	11.3	17.2	7.4	3.7	
		출장·이동음식점업	78	10.7	6.5	14.9	3.7	18.4	10.6	19.8	9.2	6.3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5.2	25.2	3.9	3.3	7.1	0.1	42.4	5.2	7.6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3.4	6.5	10.0	2.7	16.8	3.2	41.3	4.2	11.9
			치킨 전문점	172	3.5	3.5	7.0	0.6	52.4	0.8	16.9	3.3	12.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16.2	5.7	13.1	0.4	13.2	5.6	32.4	6.2	7.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7.1	12.8	10.2	4.5	13.4	6.9	31.7	5.3	8.0	
		주점업	318	4.9	1.6	8.9	10.6	13.5	9.4	16.1	5.2	29.8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4.2	1.5	1.4	7.0	1.2	0.8	61.7	9.1	13.1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7.6	4.4	8.7	2.1	22.7	4.5	32.7	5.1	12.4		
	비프랜차이즈	2,114	9.2	4.2	11.4	3.6	19.2	10.9	22.9	5.9	12.7		
지역	서울권	491	7.3	4.1	10.1	4.0	16.7	8.7	28.2	6.8	14.3		
	수도권	595	8.6	2.9	9.4	4.5	17.6	7.9	26.3	8.5	14.3		
	충청권	581	8.9	6.5	9.8	3.3	20.8	10.7	20.8	4.9	14.3		
	호남권	467	8.9	4.3	10.6	2.2	22.5	11.1	24.9	5.5	10.2		
	경남권	611	10.8	4.1	12.9	1.7	24.5	8.8	23.7	3.0	10.6		
	경북권	393	7.4	3.3	11.4	3.7	17.3	7.6	31.5	5.7	12.1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7.8	4.4	10.4	3.8	15.8	10.6	28.9	6.4	11.9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8.6	5.0	9.5	4.8	13.9	7.9	30.1	6.3	14.0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8.8	4.1	11.0	2.9	21.4	9.2	24.4	5.6	12.6		
	5억 원 이상	446	9.2	4.1	11.1	1.8	24.2	10.9	23.8	4.7	10.2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전체 식재료비 중에서 쌀은 7.6%, 곡류 4.4%, 채소 8.7%, 과일 2.1%, 축산물 22.7%, 수산물 4.5%, 가공식품 32.7%, 기타 5.1%, 주류/음료가 12.4%를 차지함.
- 업종별로 쌀은 일반음식점 중 한식(12.4%), 일반음식점 외 중 기관 구내식당업(17.6%)에서 사용 비중이 높고, 곡류는 중식(11.1%)과 제과점(20.9%), 채소는 중식(16.3%)과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11.2%), 과일은 기타 외국식(2.1%)과 주점업(5.7%), 축산물은 한식(35.5%)과 치킨 전문점(54.2%), 가공식품은 기타 외국식(26.4%)과 비알코올 음료점업(64.8%)에서 높은 사용 비중을 나타냄.
- 지역별로 쌀은 충청권(8.9%), 곡류는 호남권(5.7%), 채소는 경남권(11.5%), 과일은 서울권(3.4%), 축산물은 호남권(26.0%), 수산물은 수도권(6.4%), 가공식품은 경북권(53.6%), 기타는 수도권(8.2%), 주류/음료는 충청권(16.7%)에서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3-21-2〉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식재료비 사용 비중(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쌀	곡류 (쌀 제외)	채소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기타	주류/ 음료	
전체			1,024	7.6	4.4	8.7	2.1	22.7	4.5	32.7	5.1	12.4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331	11.4	3.2	13.6	0.6	32.5	7.8	16.7	4.2	10.0	
		한식	197	12.4	2.3	13.8	0.4	35.5	6.8	14.8	3.9	10.2	
		중식	23	7.2	11.1	16.3	0.3	22.4	13.9	17.8	2.9	8.2	
		일식	29	10.4	2.9	11.2	0.5	18.6	19.7	22.4	4.5	9.9	
		서양식	46	7.7	5.0	11.0	1.7	28.0	4.9	25.1	6.3	10.3	
		기타 외국식	36	7.8	7.5	15.1	2.1	17.0	8.3	26.4	6.8	9.0	
		소계	693	5.7	4.9	6.2	2.8	17.7	2.7	40.9	5.5	13.6	
	일반 음식점 외	기관 구내식당업	21	17.6	4.3	10.8	5.1	18.2	13.8	17.7	7.8	4.7	
		출장·이동음식점업	5	13.0	1.1	4.5	5.3	4.5	2.2	60.5	1.6	7.3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2	5.1	20.9	2.1	3.2	4.6	0.2	49.4	4.7	9.7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22	3.3	6.5	9.7	2.2	15.5	3.3	43.7	3.8	11.9
			치킨 전문점	127	2.7	3.4	6.5	0.4	54.2	0.5	17.4	2.7	12.1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92	15.3	4.0	11.2	0.4	11.3	3.6	38.8	7.5	8.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5	6.0	15.7	6.9	4.3	11.5	2.3	40.8	5.3	7.2
		주점업	69	5.3	1.3	9.8	5.7	16.2	8.9	21.4	4.6	26.7	
		비알코올 음료점업	140	4.0	1.0	0.7	4.4	0.3	1.1	64.8	8.1	15.6	
지역	서울권	166	7.1	5.1	7.6	3.4	15.5	4.6	34.5	7.3	14.9		
	수도권	233	8.4	3.3	8.7	3.2	21.5	6.4	28.4	8.2	12.0		
	충청권	165	8.9	5.5	6.7	2.5	25.4	3.1	29.5	1.7	16.7		
	호남권	118	4.8	5.7	7.8	1.7	26.0	2.5	34.8	5.7	10.9		
	경남권	258	8.5	3.7	11.5	0.8	25.8	5.0	30.5	3.1	11.1		
	경북권	84	4.9	3.1	6.9	0.1	17.3	3.0	53.6	5.3	5.8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4	3.6	7.2	9.3	1.1	6.5	0.0	21.6	36.9	13.7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8.5	6.8	7.8	3.9	15.4	2.5	35.1	4.7	15.1		
	1억 원~5억 원 미만	721	7.4	4.2	8.7	1.9	23.3	4.6	32.5	5.0	12.5		
	5억 원 이상	230	8.5	4.0	9.1	2.0	24.2	4.8	32.7	4.6	10.2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전체 식재료비 중에서 쌀은 9.2%, 곡류 4.2%, 채소 11.4%, 과일 3.6%, 축산물 19.2%, 수산물 10.9%, 가공식품 22.9%, 기타 5.9%, 주류/음료는 12.7%의 비중임.
- 업종별로 쌀은 일반음식점 중 한식(11.8%), 일반음식점 외 중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16.9%)에서 사용 비중이 높고, 곡류는 중식(12.3%)과 제과점(28.1%), 채소는 한식(15.0%)과 기관 구내식당업(19.6%), 과일은 서양식(2.9%)과 주점업(11.5%), 축산물은 한식(26.2%)과 치킨 전문점(48.1%), 가공식품은 서양식(22.9%)과 비알코올 음료점업(60.3%)에서 사용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쌀은 경남권(12.1%), 곡류는 충청권(6.8%), 채소는 경남권(13.7%), 과일은 수도권(5.1%), 축산물은 경남권(23.7%), 수산물은 충청권(13.3%), 가공식품은 경북권(27.3%), 기타는 수도권(8.7%), 주류/음료는 수도권(15.4%)에서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3-21-3〉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식재료비 사용 비중(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쌀	곡류 (쌀 제외)	채소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공산물)	기타	주류/ 음료	
전체			2,114	9.2	4.2	11.4	3.6	19.2	10.9	22.9	5.9	12.7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225	11.3	4.0	14.7	0.6	25.4	15.2	14.3	5.2	9.3	
		한식	894	11.8	3.2	15.0	0.5	26.2	15.1	13.7	5.1	9.4	
		중식	135	7.9	12.3	14.3	0.5	23.4	11.3	16.7	5.4	8.2	
		일식	88	10.7	2.5	11.7	0.4	18.4	29.9	12.5	4.3	9.5	
		서양식	72	8.0	5.3	11.6	2.9	23.3	8.7	22.9	7.2	10.0	
		기타 외국식	36	10.0	3.7	14.5	1.1	22.3	7.8	22.5	7.1	11.1	
		소계	889	6.5	4.5	7.2	7.5	11.0	5.1	34.2	6.9	17.2	
	일반 음식점 외	기관 구내식당업	57	16.5	5.1	19.6	3.0	17.4	10.5	17.1	7.3	3.4	
		출장·이동음식점업	73	10.4	7.0	15.9	3.6	19.8	11.5	15.5	10.0	6.2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84	5.2	28.1	5.1	3.3	8.9	0.1	37.5	5.6	6.1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1	3.6	6.1	11.0	5.2	23.2	3.1	29.6	5.8	12.3
			치킨 전문점	45	5.2	3.7	8.2	1.1	48.1	1.5	15.7	4.7	11.9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111	16.9	6.8	14.3	0.4	14.4	6.9	28.2	5.3	6.8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	8.0	10.3	13.1	4.6	15.2	11.1	23.6	5.3	8.8
		주점업	249	4.8	1.6	8.7	11.5	13.0	9.5	15.2	5.3	30.4	
		비알코올 음료점업	212	4.3	1.8	1.7	8.1	1.5	0.7	60.3	9.5	12.0	
지역	서울권	325	7.3	3.7	10.9	4.2	17.2	10.1	26.0	6.6	14.0		
	수도권	362	8.7	2.7	9.8	5.1	15.7	8.5	25.4	8.7	15.4		
	충청권	416	8.9	6.8	10.8	3.6	19.3	13.3	17.9	6.0	13.5		
	호남권	349	9.9	3.9	11.4	2.3	21.6	13.2	22.5	5.4	10.0		
	경남권	353	12.1	4.3	13.7	2.2	23.7	11.0	19.7	3.0	10.3		
	경북권	309	7.9	3.3	12.3	4.4	17.3	8.4	27.3	5.8	13.4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8	7.9	4.3	10.4	3.9	16.1	11.0	29.2	5.3	11.8		
	5천만 원~1억 원 미만	343	8.6	4.7	9.7	4.9	13.7	8.7	29.4	6.5	13.9		
	1억 원~5억 원 미만	1,467	9.4	4.0	11.9	3.3	20.6	11.1	21.1	5.9	12.7		
	5억 원 이상	216	9.7	4.3	12.7	1.7	24.3	16.1	16.2	4.8	10.2		

2. 일반음식점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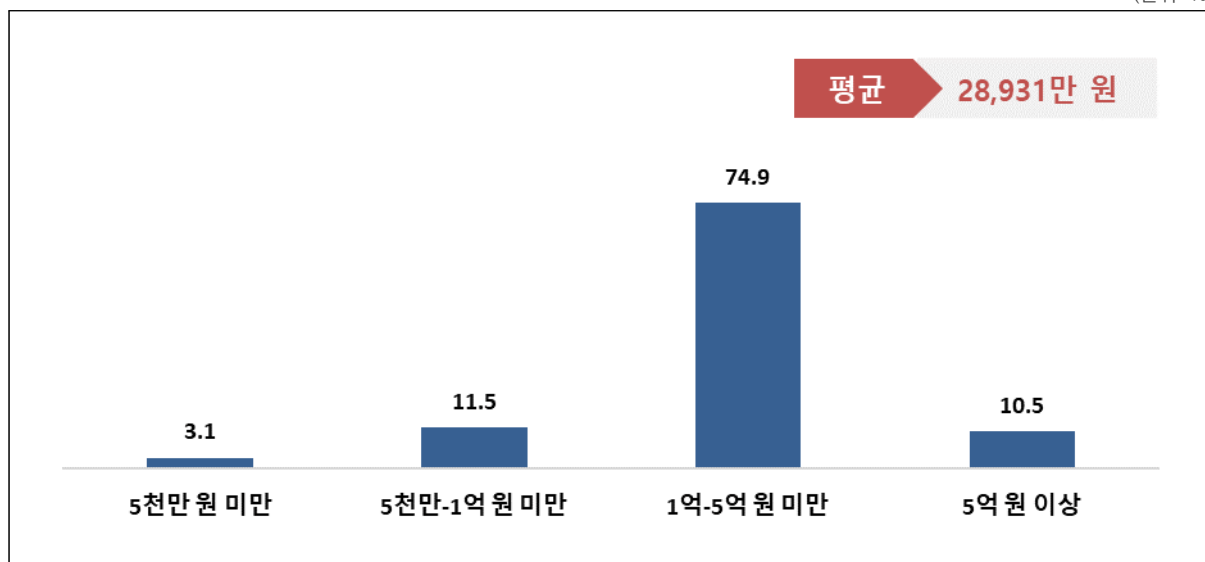
1) 영업 사항

(1) 매출액

- 일반음식점 외식업체의 평균 매출액(2024년 기준)은 약 2억 8천 9백만 원으로 조사됨. 연간 매출액 5천만 원 미만인 일반음식점 외식업체의 비중은 3.1%,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5%, 1억 원~5억 원 미만 74.9%, 5억 원 이상은 10.5%로 나타남.

〈그림 3-20〉 일반음식점: 매출액 분포

(단위: %)



- 일반음식점 외식업체의 업종별로는 일식의 평균 매출액이 약 3억 3천 9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한식 약 2억 9천 1백만 원, 서양식 약 2억 7천 1백만 원 등의 순서로 나타남. 운영 형태별로는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평균 매출액이 약 4억 4백만 원으로 비프랜차이즈 업체(약 2억 6천 5백만 원)보다 높은 수준임.
- 지역별로 서울권 매출액이 평균 약 3억 8천 6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경북권(약 3억 1천만 원), 경남권(약 3억 9백만 원) 등의 순임. 전 지역에서 매출액 1억 원~5억 원 미만인 업체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호남권(19.0%)은 5천만 원~1억 원 미만 규모의 업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8) 조사된 전체 외식업체 중 '일반음식점(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표 3-22-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운영 형태별 매출액 분포(전체)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1억 원 미만	1억 원~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평균
전체			1,556	3.1	11.5	74.9	10.5	28,931.0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1,091	3.5	12.5	73.3	10.7	29,105.6
		중식	158	0.7	6.2	85.5	7.7	25,824.2
		일식	117	2.7	6.8	74.1	16.3	33,924.7
		서양식	118	1.7	11.1	80.2	7.0	27,110.4
		기타 외국식	72	0.0	3.0	91.7	5.3	23,999.6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331	0.0	3.7	75.9	20.4	40,368.0
	비프랜차이즈		1,225	3.7	13.2	74.7	8.4	26,456.9
지역	서울권		212	0.3	7.4	75.5	16.7	38,583.6
	수도권		257	2.5	11.2	74.2	12.1	29,774.8
	충청권		308	6.3	11.0	78.0	4.7	23,918.3
	호남권		260	5.8	19.0	67.3	7.9	23,205.8
	경남권		328	1.7	11.0	75.1	12.3	30,917.1
	경북권		191	0.0	6.5	81.2	12.3	31,039.7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평균 매출액은 약 4억 4백만 원 수준이며, 매출액 규모별로 1억 원~5억 원 미만(75.9%), 5억 원 이상(20.4%), 5천만 원~1억 원 미만(3.7%) 등의 순서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에서 한식 매출액이 약 4억 2천 1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일식이 약 4억 3백만 원, 중식은 약 3억 9천 1백만 원 등임.
- 지역별로 서울권 일반음식점의 평균 매출액이 약 7억 1천 9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경남권은 약 4억 2천 4백만 원, 경북권은 약 4억 원 등의 순서로 조사됨.

〈표 3-22-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운영 형태별 매출액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5천만 원~ 1억 원 미만	1억 원~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평균
전체			331	3.7	75.9	20.4	40,368.0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197	3.6	75.2	21.2	42,142.3
		중식	23	0.0	80.8	19.2	39,116.8
		일식	29	4.0	65.2	30.8	40,307.1
		서양식	46	5.4	82.6	12.0	32,159.2
		기타 외국식	36	6.5	84.0	9.4	25,223.0
지역	서울권		39	0.0	54.4	45.6	71,913.6
	수도권		84	2.9	78.5	18.6	37,828.9
	충청권		47	6.6	81.3	12.0	29,062.1
	호남권		29	17.8	76.9	5.2	28,537.6
	경남권		106	0.7	77.0	22.2	42,397.3
	경북권		26	3.1	73.7	23.3	40,032.3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평균 매출액은 약 2억 6천 5백만 원 수준이며, 매출액 규모별로 1억 원~5억 원 미만 업체 비중이 74.7%, 5천만 원~1억 원 미만 비중은 13.2%, 5억 원 이상 비중은 8.4%, 5천만 원 미만 비중은 3.7%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에서 일식은 약 3억 2천 3백만 원, 한식은 약 2억 6천 5백만 원 등의 순서로 높음. 지역별로 서울권 일반음식점의 평균 매출액은 약 3억 4천 1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경북권(약 2억 9천 9백만 원), 수도권(약 2억 6천 6백만 원) 등의 순임.

〈표 3-22-3〉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운영 형태별 매출액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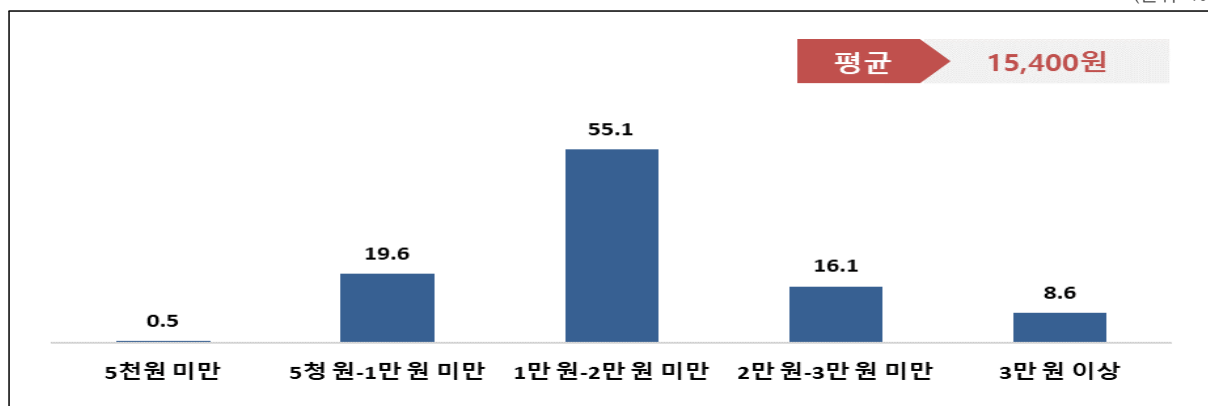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평균
전체			1,225	3.7	13.2	74.7	8.4	26,456.9
업종	일반음식점	한식	894	4.2	14.3	72.9	8.6	26,476.2
		중식	135	0.8	7.0	86.1	6.1	23,999.7
		일식	88	3.4	7.5	76.4	12.7	32,330.6
		서양식	72	2.6	14.0	78.9	4.4	24,465.0
		기타 외국식	36	0.0	0.0	98.3	1.7	22,940.2
지역	서울권		173	0.4	8.4	78.3	12.9	34,122.5
	수도권		173	3.5	14.5	72.5	9.4	26,571.3
	충청권		261	7.3	11.7	77.5	3.5	23,082.0
	호남권		231	6.4	19.1	66.4	8.1	22,730.5
	경남권		222	2.4	15.2	74.3	8.1	26,132.8
	경북권		165	0.0	6.9	82.1	11.0	29,944.4

(2) 객단가

- 일반음식점 외식업체의 평균 객단가는 약 1만 5천 4백 원으로 나타남. 객단가 분포를 살펴보면, 5천 원 미만인 일반음식점은 0.5%, 5천 원~1만 원 미만 19.6%, 1만 원~2만 원 미만 55.1%, 2만 원~3만 원 미만 16.1%, 3만 원 이상은 8.6%로 나타남.

〈그림 3-21〉 일반음식점: 객단가 분포

(단위: %)



- 세부 업종별로는 일식(약 2만 1천 7백 원), 서양식(약 1만 6천 6백 원), 한식(약 1만 5천 4백 원) 등의 순서로 객단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객단가가 3만 원 이상인 일반음식점 비중이 높은 업종은 일식(24.8%)이고, 5천 원 미만 비중이 높은 업종은 서양식(1.0%)임. 모든 업종에서 1만 원~2만 원 미만 객단가 비중이 가장 높음.
- 운영 형태별로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업종의 평균 객단가는 약 1만 5천 9백 원으로 비프랜차이즈 업체(약 1만 5천 3백 원)보다 높음.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 업체는 1만 원~2만 원 미만의 객단가 비중이 각각 58.7%, 54.4%로 가장 높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약 1만 8천 4백 원), 서울권(약 1만 7천 2백 원), 호남권(약 1만 6천 7백 원) 등의 순서로 일반음식점 객단가가 높음. 3만 원 이상 객단가 비중은 수도권(19.5%)과 서울권(12.3%)이 높고, 5천 원 미만 객단가 비중은 수도권(0.9%)이 높게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는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객단가가 높음. 5억 원 이상 매출액을 기록한 일반음식점의 평균 객단가는 약 2만 2백 원이며, 5천만 원 미만인 업체는 약 1만 8백 원으로 조사됨. 5천 ~1만 원 객단가는 매출액이 5천만~1억 원 미만(41.0%)인 업체에서 비중이 가장 높음.

〈표 3-23-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객단가 분포(전체)

(단위: 개소, %, 원)

구분			사례수	5천 원 미만	5천 원~1만 원 미만	1만 원~2만 원 미만	2만 원~3만 원 미만	3만 원 이상	평균
전체			1,556	0.5	19.6	55.1	16.1	8.6	15,400.3
업종	일반음식점	한식	1,091	0.5	18.5	55.7	16.8	8.4	15,438.7
		중식	158	0.0	45.2	48.3	4.9	1.6	10,514.8
		일식	117	0.0	9.0	44.9	21.2	24.8	21,669.0
		서양식	118	1.0	6.5	67.3	15.2	10.0	16,645.1
		기타 외국식	72	0.0	16.6	61.5	21.7	0.2	13,986.9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331	0.0	13.7	58.7	18.0	9.6	15,869.6
	비프랜차이즈		1,225	0.6	20.9	54.4	15.7	8.4	15,298.8
지역	서울권		212	0.7	13.2	48.4	25.4	12.3	17,248.2
	수도권		257	0.9	14.9	43.3	21.4	19.5	18,428.4
	충청권		308	0.4	27.9	57.1	10.1	4.4	13,617.9
	호남권		260	0.5	13.0	58.9	16.2	11.3	16,698.5
	경남권		328	0.4	19.9	58.7	15.9	5.2	14,197.7
	경북권		191	0.0	28.2	60.3	10.4	1.2	13,024.2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33	3.8	33.2	55.6	7.4	0.0	10,794.6
	5천만 원~1억 원 미만		152	1.2	41.0	49.8	4.8	3.2	11,108.2
	1억 원~5억 원 미만		1,128	0.3	17.7	56.7	16.7	8.6	15,580.2
	5억 원 이상		243	0.0	5.9	49.8	27.2	17.1	20,154.3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업종별 객단가는 한식(약 1만 6천 4백 원), 서양식(약 1만 5천 9백 원), 일식(약 1만 4천 6백 원), 기타 외국식(약 1만 3천 3백 원), 중식(약 1만 2천 1백 원)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객단가가 3만 원 이상인 일반음식점 비중이 높은 업종은 한식(10.8%)이고, 5천 원~1만 원 미만인 비중이 높은 업종은 중식(38.6%)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지역별로는 수도권(약 1만 9천 2백 원)과 서울권(약 1만 6천 9백 원), 경남권(약 1만 5천 1백 원)이 객단가가 높음. 3만 원 이상 객단가 비중은 수도권(24.2%)이 높고, 5천 원~1만 원 미만 객단가 비중은 충청권(30.2%)이 가장 높음. 경북권(79.9%)은 1만 원~2만 원 미만 객단가 비중이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 매출액을 기록한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객단가가 약 1만 8천 5백 원으로 5천만 원~1억 원 미만(약 8천 5백 원)인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23-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객단가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원)

구분			사례수	5천 원~ 1만 원 미만	1만 원~ 2만 원 미만	2만 원~ 3만 원 미만	3만 원 이상	평균
전체			331	13.7	58.7	18.0	9.6	15,869.6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197	11.9	57.2	20.1	10.8	16,359.4
		중식	23	38.6	49.9	3.8	7.7	12,097.6
		일식	29	22.1	53.6	18.7	5.5	14,639.8
		서양식	46	5.8	79.1	8.4	6.7	15,879.4
		기타 외국식	36	20.1	64.3	15.6	0.0	13,337.5
지역	서울권		39	15.2	54.9	17.8	12.1	16,926.7
	수도권		84	11.3	45.8	18.7	24.2	19,230.2
	충청권		47	30.2	54.5	9.1	6.2	13,939.1
	호남권		29	25.4	54.5	12.9	7.2	14,559.1
	경남권		106	5.4	65.7	25.1	3.8	15,121.7
	경북권		26	15.0	79.9	5.1	0.0	13,435.2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	75.4	24.1	0.5	0.0	8,510.1
	1억 원~5억 원 미만		219	13.1	62.0	16.0	9.0	15,534.7
	5억 원 이상		101	5.1	52.8	28.6	13.5	18,460.5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업종별 객단가는 일식(약 2만 3천 4백 원), 서양식(약 1만 7천 원), 한식(약 1만 5천 3백 원), 기타 외국식(약 1만 4천 5백 원), 중식(약 1만 3백 원) 순서로 높음. 객단가가 3만 원 이상인 일반음식점 비중이 높은 업종은 일식(29.7%)이고, 5천 원 미만인 비중이 높은 업종은 서양식(1.5%)으로 나타남. 모든 업종에서 1만 원~2만 원 미만의 객단가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약 1만 8천 1백 원)과 서울권(약 1만 7천 3백 원)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객단가가 높음. 3만 원 이상 객단가 비중은 수도권(17.7%)이 높고, 5천 원 미만 객단가 비중도 수도권(1.3%)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 매출액을 기록한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객단가는 약 2만 1천 원으로 1억 원~5억 원 미만(약 1만 5천 6백 원)인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보다 높음.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은 모든 매출액 규모에서 1만 원~2만 원 미만 객단가 비중이 높고, 3만 원 이상 객단가 비중은 5억 원 이상(19.0%)이 비교적 높음.

〈표 3-23-3〉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객단가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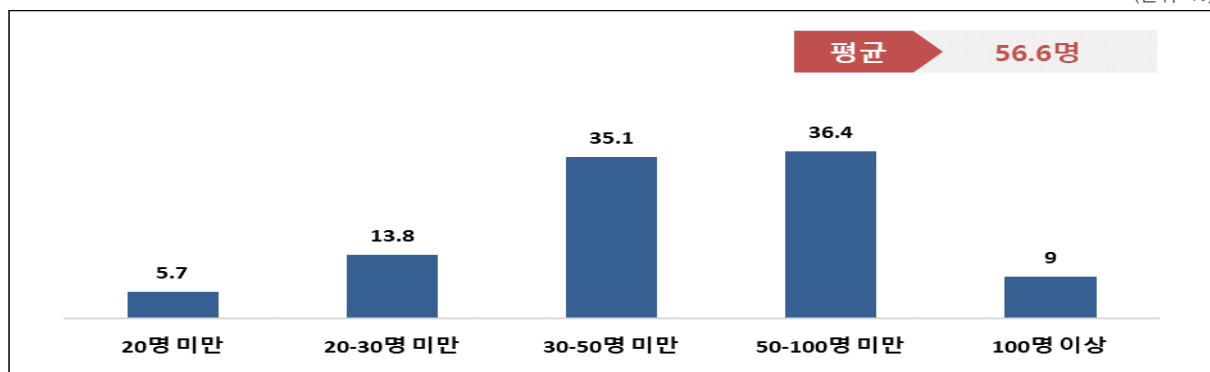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5천 원 미만	5천 원~1만 원 미만	1만 원~2만 원 미만	2만 원~3만 원 미만	3만 원 이상	평균
전체			1,225	0.6	20.9	54.4	15.7	8.4	15,298.8
업종	일반음식점	한식	894	0.7	19.9	55.4	16.2	7.9	15,253.0
		중식	135	0.0	46.1	48.1	5.1	0.8	10,297.5
		일식	88	0.0	5.7	42.8	21.9	29.7	23,424.6
		서양식	72	1.5	6.8	61.1	18.7	11.8	17,046.4
		기타 외국식	36	0.0	13.5	59.1	26.9	0.4	14,549.3
지역	서울권		173	0.8	12.9	47.5	26.4	12.4	17,291.3
	수도권		173	1.3	16.3	42.2	22.5	17.7	18,109.5
	충청권		261	0.5	27.5	57.6	10.3	4.1	13,565.7
	호남권		231	0.6	11.9	59.3	16.5	11.7	16,889.2
	경남권		222	0.6	25.9	55.7	12.0	5.7	13,812.7
	경북권		165	0.0	29.8	57.9	11.1	1.3	12,974.1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33	3.8	33.2	55.6	7.4	0.0	10,794.6
	5천만 원~1억 원 미만		141	1.3	39.0	51.4	5.0	3.4	11,267.0
	1억 원~5억 원 미만		909	0.4	18.7	55.5	16.8	8.6	15,590.3
	5억 원 이상		142	0.0	6.3	48.3	26.4	19.0	21,043.5

(3)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

- 일반음식점의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는 평균 56.6명으로 조사됨. 1일 평균 방문 고객이 50~100명 미만인 일반음식점 비중이 36.4%로 가장 높고, 30~50명 미만(35.1%), 20~30명 미만(13.8%), 100명 이상(9.0%), 20명 미만(5.7%) 순서로 나타남.

〈그림 3-22〉 일반음식점: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 분포

(단위: %)



- 일반음식점의 업종별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는 한식(57.4명), 중식(56.8명)이 많음. 1일 평균 100명 이상 방문하는 비중이 높은 일반음식점 업종은 중식(9.8%)이고, 20명 미만 방문하는 비중은 일식(10.0%)이 높음.
- 지역별로는 경북권(68.7명), 경남권(65.7명), 서울권(59.4명), 충청권(51.1명), 수도권(49.1명) 등의 순서로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충청권(10.6%)은 20명 미만 비중이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가 많음. 5억 원 이상 매출액을 기록한 일반음식점의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는 129.3명이며,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인 일반음식점의 경우 1일 평균 17.6명임. 5천만 원 미만은 20명 미만(55.1%), 5억 원 이상은 100명 이상(52.7%) 고객 수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24-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방문 고객 수 분포(전체)

(단위: 개소, %, 명)

구분			사례수	20명 미만	20~30명 미만	30~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명 이상	평균
전체			1556	5.7	13.8	35.1	36.4	9.0	56.6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1091	5.9	13.7	33.7	37.4	9.3	57.4
		중식	158	2.1	14.0	41.9	32.2	9.8	56.8
		일식	117	10.0	15.6	35.5	30.9	8.0	50.3
		서양식	118	6.1	15.5	40.6	33.0	4.9	50.0
		기타 외국식	72	0.2	6.7	55.8	31.1	6.3	52.2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331	4.1	12.0	27.6	39.0	17.3	71.0
	비프랜차이즈		1225	6.0	14.2	36.7	35.8	7.2	53.5
지역	서울권		212	1.2	10.1	39.5	40.8	8.5	59.4
	수도권		257	6.5	16.7	32.8	38.6	5.4	49.1
	충청권		308	10.6	14.9	36.2	33.8	4.5	51.1
	호남권		260	6.5	19.1	42.4	27.6	4.4	46.9
	경남권		328	4.3	12.2	32.5	35.8	15.2	65.7
	경북권		191	3.2	7.6	25.7	47.2	16.3	68.7
매출 액	5천만 원 미만		33	55.1	41.3	3.6	0.0	0.0	17.6
	5천만 원~1억 원 미만		152	8.9	37.8	48.7	4.7	0.0	31.4
	1억 원~5억 원 미만		1128	3.9	10.8	38.0	42.7	4.6	51.8
	5억 원 이상		243	0.4	1.1	8.8	37.0	52.7	129.3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업종별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는 중식이 77.2명으로 가장 많음. 100명 이상 방문하는 일반음식점 비중이 높은 업종은 중식(19.4%)이고, 20명 미만 방문 비중은 서양식(5.5%)이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권이 1일 평균 94.9명으로 가장 많은 고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남권(85.3명)과 경북권(70.1명)이 많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가 많음. 매출액 5억 원 이상인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는 150.0명이며, 5천만 원~1억 원 미만인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은 하루 평균 30명~50명 미만(49.8%)의 고객이 방문하는 비중이 높고, 5억 원 이상은 100명 이상(62.6%) 방문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24-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방문 고객 수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 %, 명)

구분			사례수	20명 미만	20~30명 미만	30~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명 이상	평균
전체			331	4.1	12.0	27.6	39.0	17.3	71.0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197	4.8	12.3	24.7	39.3	18.9	73.9
		중식	23	0.0	12.0	38.8	37.7	11.5	63.5
		일식	29	0.0	3.6	20.4	56.6	19.4	77.2
		서양식	46	5.5	16.7	39.4	29.6	8.8	53.6
		기타 외국식	36	0.5	8.3	53.3	29.5	8.4	52.5
지역	서울권		39	0.0	0.0	31.8	45.9	22.3	94.9
	수도권		84	2.8	15.8	31.3	38.9	11.2	56.1
	충청권		47	15.7	16.0	26.3	25.4	16.6	56.9
	호남권		29	0.0	13.1	36.2	50.3	0.4	53.1
	경남권		106	0.0	8.2	27.0	42.4	22.4	85.3
	경북권		26	14.8	22.6	7.9	29.3	25.4	70.1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	0.5	49.7	49.8	0.0	0.0	29.3
	1억 원~5억 원 미만		219	5.4	13.4	32.1	43.2	5.9	51.9
	5억 원 이상		101	0.0	0.1	6.9	30.5	62.6	150.0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업종별로는 중식이 55.9명으로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가 가장 많음. 100명 이상 방문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은 중식(9.6%)으로 나타났고, 20명 미만 방문 비중은 일식(12.5%)이 높음.
- 지역별로는 경북권의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이 하루 평균 68.5명으로, 가장 많은 고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남권(57.6명), 서울권(54.7명) 등의 순서임.
- 매출액 규모별로는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가 많음. 5억 원 이상 매출액을 기록한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는 118.5명인 반면, 5천만 원 미만 업체는 17.6명으로 조사됨.

〈표 3-24-3〉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방문 고객 수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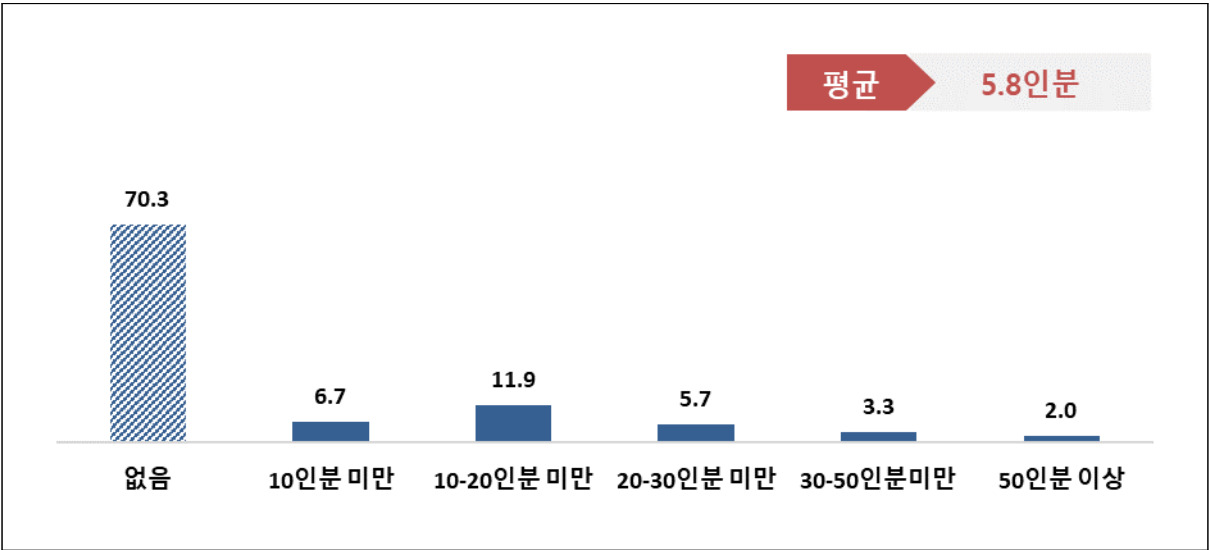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20명 미만	20~30명 미만	30~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명 이상	평균
전체			1,225	6.0	14.2	36.7	35.8	7.2	53.5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894	6.1	14.0	35.6	37.0	7.3	54.0
		중식	135	2.3	14.3	42.3	31.5	9.6	55.9
		일식	88	12.5	18.6	39.2	24.5	5.2	43.6
		서양식	72	6.4	14.8	41.2	34.7	2.8	48.1
		기타 외국식	36	0.0	5.2	58.0	32.4	4.4	52.0
지역	서울권		173	1.3	11.4	40.5	40.1	6.6	54.7
	수도권		173	8.0	17.0	33.4	38.5	3.1	46.3
	충청권		261	9.8	14.8	37.9	35.1	2.5	50.1
	호남권		231	7.1	19.6	42.9	25.6	4.7	46.3
	경남권		222	6.0	13.9	34.8	33.1	12.1	57.6
	경북권		165	1.8	5.8	27.9	49.3	15.2	68.5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33	55.1	41.3	3.6	0.0	0.0	17.6
	5천만 원~1억 원 미만		141	9.4	37.0	48.6	4.9	0.0	31.6
	1억 원~5억 원 미만		909	3.6	10.2	39.3	42.5	4.3	51.8
	5억 원 이상		142	0.6	1.6	9.8	40.4	47.6	118.5

(4) 1일 평균 배달 수

○ 일반음식점에서 하루에 한 건이라도 배달하는 업체 비중은 29.7%이며, 1일 평균 배달 수는 5.8인분임. 1일 평균 1인분~20인분 미만을 배달하는 비중은 18.6%이고, 20인분~50인분 미만의 비중은 9.0%, 50인분 이상은 2.0%임.

〈그림 3-23〉 일반음식점: 1일 평균 배달 수 분포

(단위: %)



- 일반음식점 중에서 중식의 경우 배달 수가 22.5인분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 외국식(7.7인분), 서양식(6.2인분), 일식(5.4인분), 한식(4.1인분)의 순서로 나타남.
- 운영 형태별로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배달 수는 1일 평균 11.1인분이고, 비프랜차이즈의 배달 수는 4.6인분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충청권이 8.7인분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북권(6.5인분), 경남권(6.2인분), 수도권(5.1인분), 서울권(4.7인분), 호남권(3.3인분)의 순서임.
- 매출액 규모가 5억 원 이상 업체는 1일 평균 6.8인분인 데 비해, 5천만 원 미만 업체는 1일 평균 0.3인분을 배달함.

〈표 3-25-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배달 수 분포(전체)

(단위: 개소, %, 인분)

구분			사례수	없음	10인분 미만	10~20인분 미만	20~30인분 미만	30~50인분 미만	50인분 이상	평균
전체			1,556	70.3	6.7	11.9	5.7	3.3	2.0	5.8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1,091	75.5	5.5	11.5	4.6	2.2	0.7	4.1
		중식	158	30.9	9.8	12.3	15.0	14.6	17.4	22.5
		일식	117	64.0	11.8	14.5	6.0	3.0	0.7	5.4
		서양식	118	60.2	14.2	13.3	8.7	2.6	1.0	6.2
		기타 외국식	72	51.5	15.6	20.2	7.0	5.5	0.2	7.7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331	48.1	7.6	19.7	13.7	7.8	3.1	11.1
	비프랜차이즈		1,225	75.2	6.5	10.3	4.0	2.3	1.8	4.6
지역	서울권		212	76.9	6.2	11.3	1.0	1.9	2.8	4.7
	수도권		257	74.2	6.4	9.6	5.3	2.4	2.0	5.1
	충청권		308	63.6	6.1	11.4	8.6	7.1	3.2	8.7
	호남권		260	79.5	6.9	6.7	4.8	1.0	1.1	3.3
	경남권		328	64.6	7.6	16.9	6.6	3.1	1.2	6.2
	경북권		191	66.2	6.6	15.1	6.3	3.7	2.2	6.5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33	94.4	4.1	1.4	0.0	0.0	0.0	0.3
	5천만 원~1억 원 미만		152	85.8	4.2	7.4	2.2	0.4	0.0	1.9
	1억 원~5억 원 미만		1,128	66.8	7.8	13.5	5.8	3.9	2.3	6.5
	5억 원 이상		243	71.8	2.5	8.9	10.9	3.3	2.6	6.8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1일 평균 배달 수는 11.1인분임. 1인분~20인분 미만의 비중이 27.3%로 가장 높고, 20인분~50인분 미만은 21.5%, 50인분 이상은 3.1%로 나타남. 배달이 없는 업체 비중은 48.1%로 조사됨.
- 업종별로는 중식이 1일 평균 25.8인분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한식과 일식, 서양식(각 10.3인분), 기타 외국식(10.0인분)의 순임.
- 지역별로는 경북권(20.1인분), 충청권(14.4인분), 호남권(12.7인분), 서울권(9.3인분) 등의 순서로 배달 수가 많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 원~5억 원 미만의 업체가 11.6인분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됨.

〈표 3-25-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배달 수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인분)

구분			사례수	없음	10인분 미만	10~20인분 미만	20~30인분 미만	30~50인분 미만	50인분 이상	평균
전체			331	48.1	7.6	19.7	13.7	7.8	3.1	11.1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197	52.0	6.1	18.8	12.3	8.4	2.3	10.3
		중식	23	29.1	3.8	13.2	17.9	11.5	24.4	25.8
		일식	29	44.8	5.3	26.2	17.3	6.5	0.0	10.3
		서양식	46	33.9	19.2	21.8	22.6	2.5	0.0	10.3
		기타 외국식	36	32.5	20.5	30.9	12.0	4.0	0.0	10.0
지역	서울권		39	66.3	12.2	6.6	3.1	7.3	4.6	9.3
	수도권		84	51.1	13.9	16.1	9.7	5.2	3.9	9.0
	충청권		47	35.6	6.6	20.6	26.0	9.8	1.4	14.4
	호남권		29	44.7	4.2	6.3	37.3	5.2	2.4	12.7
	경남권		106	53.2	3.7	27.4	7.5	6.5	1.7	9.2
	경북권		26	23.8	8.3	20.7	16.9	20.9	9.4	20.1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	37.5	8.8	32.9	20.8	0.0	0.0	10.2
	1억 원~5억 원 미만		219	43.0	9.1	22.7	14.0	7.9	3.3	11.6
	5억 원 이상		101	69.0	1.9	6.1	11.4	8.7	2.9	9.3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1일 평균 배달 수는 4.6인분임. 1인분~20인분 미만이 16.8%로 가장 높고, 20인분~50인분 미만은 6.3%, 50인분 이상은 1.8%인데, 배달이 없는 업체 비중이 75.2%로 매우 높음.
- 업종별로는 중식이 1일 평균 22.1인분으로 가장 많고, 다른 업종과 큰 차이를 보임.
- 지역별로는 충청권(7.7인분), 경남권(4.9인분), 경북권(4.8인분) 등의 순서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의 업체가 5.5인분으로 가장 많음.

〈표 3-25-3〉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배달 수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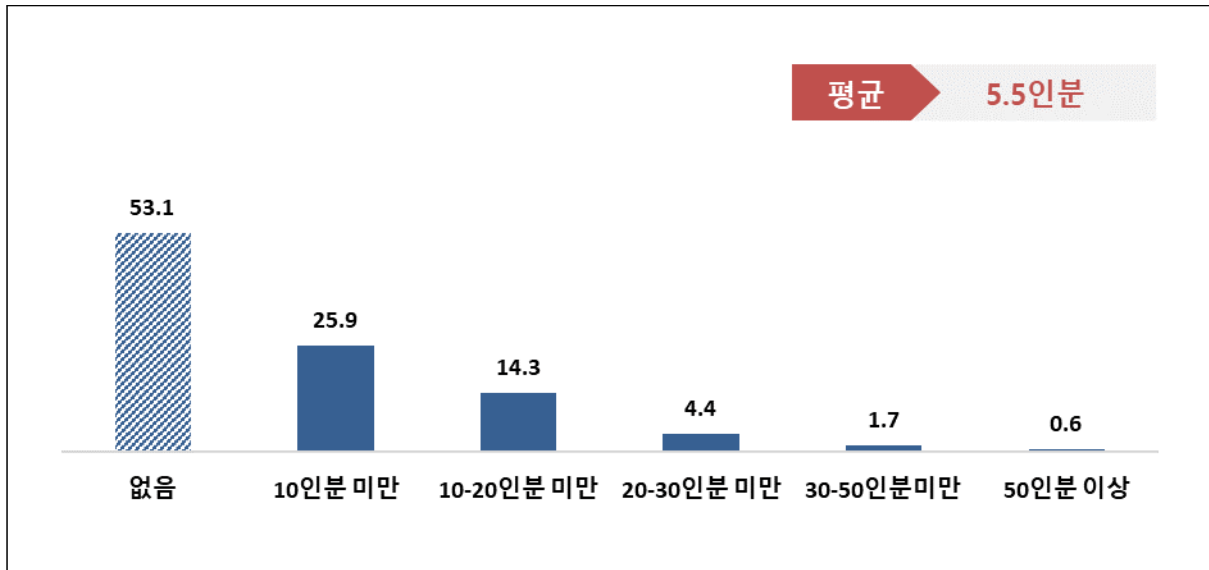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없음	10인분 미만	10~20인분 미만	20~30인분 미만	30~50인분 미만	50인분 이상	평균
전체			1,225	75.2	6.5	10.3	4.0	2.3	1.8	4.6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894	80.2	5.4	10.0	3.1	0.9	0.3	2.9
		중식	135	31.2	10.6	12.2	14.5	15.1	16.4	22.1
		일식	88	68.8	13.5	11.6	3.2	2.1	0.9	4.2
		서양식	72	74.0	11.6	8.8	1.5	2.6	1.5	4.1
		기타 외국식	36	67.9	11.4	10.9	2.7	6.8	0.4	5.7
지역	서울권		173	78.3	5.4	11.9	0.7	1.2	2.6	4.1
	수도권		173	83.4	3.4	7.1	3.6	1.2	1.3	3.6
	충청권		261	68.2	6.0	9.9	5.8	6.7	3.5	7.7
	호남권		231	82.6	7.1	6.7	1.9	0.7	0.9	2.4
	경남권		222	69.4	9.2	12.5	6.2	1.6	1.0	4.9
	경북권		165	71.3	6.4	14.4	5.0	1.6	1.3	4.8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33	94.4	4.1	1.4	0.0	0.0	0.0	0.3
	5천만 원~1억 원 미만		141	88.8	3.9	5.9	1.0	0.4	0.0	1.4
	1억 원~5억 원 미만		909	72.0	7.5	11.5	4.0	3.0	2.1	5.3
	5억 원 이상		142	73.3	2.8	10.3	10.7	0.5	2.4	5.5

(5)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

- 일반음식점에서 하루에 한 건이라도 테이크아웃 판매를 하는 업체 비중은 46.9%이며,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는 5.5인분임. 1일 평균 1인분~20인분 미만을 테이크아웃 판매하는 비중은 40.2%이고, 20인분~50인분 미만의 비중은 6.1%, 50인분 이상은 0.6%임.

〈그림 3-24〉 일반음식점: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 분포

(단위: %)



- 일반음식점 중에서 서양식의 테이크아웃 수가 6.4인분으로 가장 많은 반면, 중식은 3.9인분으로 적은 수준임.
- 지역별로 충청권이 9.3인분으로 가장 많고, 호남권은 3.0인분으로 낮게 나타남.
-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대체로 테이크아웃 수가 많으며,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인 업체는 1일 평균 10.1인분, 5천만 원~1억 원 미만 업체는 1일 평균 1.7인분을 테이크아웃으로 판매함.

〈표 3-26-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 분포(전체)

(단위: 개소, %, 인분)

구분			사례수	없음	10인분 미만	10~20인분 미만	20~30인분 미만	30~50인분 미만	50인분 이상	평균
전체			1,556	53.1	25.9	14.3	4.4	1.7	0.6	5.5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1,091	53.4	25.5	14.3	4.2	1.9	0.7	5.6
		중식	158	64.3	20.2	8.8	6.1	0.0	0.5	3.9
		일식	117	47.2	31.0	16.4	2.7	2.3	0.4	5.2
		서양식	118	36.0	37.9	17.8	7.5	0.7	0.0	6.4
		기타 외국식	72	46.9	22.3	28.9	1.9	0.0	0.0	5.8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331	38.3	29.3	22.1	5.4	3.4	1.5	7.9
	비프랜차이즈		1,225	56.3	25.1	12.7	4.2	1.3	0.4	5.0
지역	서울권		212	53.7	32.5	10.9	1.6	1.0	0.3	4.6
	수도권		257	58.4	22.1	14.6	3.4	0.5	1.0	4.5
	충청권		308	42.4	17.5	22.9	12.1	4.3	0.8	9.3
	호남권		260	65.2	25.0	7.2	1.6	1.0	0.0	3.0
	경남권		328	53.1	31.5	10.5	2.4	1.3	1.1	5.2
	경북권		191	44.7	27.7	21.9	4.3	1.3	0.1	6.3
매출 액	5천만 원 미만		33	82.8	8.3	4.5	4.5	0.0	0.0	1.9
	5천만 원~1억 원 미만		152	74.2	21.7	3.2	1.0	0.0	0.0	1.7
	1억 원~5억 원 미만		1,128	49.3	28.7	15.7	4.1	1.8	0.4	5.6
	5억 원 이상		243	48.8	15.5	19.5	10.0	3.5	2.8	10.1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는 7.9인분임. 테이크아웃 판매가 없는 업체의 비중이 38.3%이고, 1인분~20인분 미만은 51.4%, 20인분~50인분 미만 8.8%, 50인분 이상 1.5%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업종별로는 중식이 1일 평균 8.4인분으로 가장 많으며, 서양식은 8.2인분, 한식 7.9인분, 일식 7.8인분, 기타 외국식은 6.4인분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충청권(11.9인분), 경북권(11.0인분), 서울권(7.9인분), 수도권(7.3인분), 경남권(6.5인분), 호남권(5.9인분)의 순서로 파악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의 업체가 8.7인분으로 가장 많음.

〈표 3-26-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인분)

구분			사례수	없음	10인분 미만	10~20인분 미만	20~30인분 미만	30~50인분 미만	50인분 이상	평균
전체			331	38.3	29.3	22.1	5.4	3.4	1.5	7.9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197	38.7	30.3	20.8	4.5	4.2	1.5	7.9
		중식	23	37.7	32.9	11.5	14.1	0.0	3.8	8.4
		일식	29	47.1	9.3	34.2	3.6	4.0	1.8	7.8
		서양식	46	25.6	36.8	26.2	11.4	0.0	0.0	8.2
		기타 외국식	36	43.9	20.1	35.0	1.0	0.0	0.0	6.4
지역	서울권		39	37.5	17.2	34.8	8.1	2.4	0.0	7.9
	수도권		84	46.3	19.9	26.7	3.7	0.0	3.3	7.3
	충청권		47	37.4	19.3	12.4	16.7	12.8	1.4	11.9
	호남권		29	45.2	33.0	16.6	0.0	5.2	0.0	5.9
	경남권		106	37.4	40.5	16.5	2.8	1.8	1.0	6.5
	경북권		26	13.6	32.0	45.9	4.7	2.5	1.3	11.0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	39.9	22.5	20.8	16.8	0.0	0.0	7.2
	1억 원~5억 원 미만		219	35.9	34.4	21.0	4.1	3.4	1.3	7.7
	5억 원 이상		101	46.7	11.9	26.7	8.3	4.1	2.3	8.7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는 5.0인분임. 테이크아웃 판매가 없는 업체의 비중이 56.3%이고, 1인분~20인분 미만은 37.8%, 20인분~50인분 미만 5.5%, 50인분 이상 0.4%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업종별로는 서양식이 1일 평균 5.5인분으로 가장 많으며, 기타 외국식(5.3인분), 한식(5.2인분), 일식(4.6인분), 중식(3.2인분) 순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충청권(8.8인분), 경북권(5.7인분), 경남권(4.6인분), 서울권(4.2인분), 수도권(3.4인분), 호남권(2.7인분)의 순임.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의 업체가 10.7인분으로 가장 많음.

〈표 3-26-3〉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인분)

구분		사례수	없음	10인분 미만	10~20인분 미만	20~30인분 미만	30~50인분 미만	50인분 이상	평균
전체		1,225	56.3	25.1	12.7	4.2	1.3	0.4	5.0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894	56.4	24.6	13.0	4.1	1.4	5.2
		중식	135	68.0	18.5	8.5	5.0	0.0	3.2
		일식	88	47.2	36.4	11.9	2.5	1.9	4.6
		서양식	72	41.5	38.5	13.4	5.4	1.1	5.5
		기타 외국식	36	49.6	24.2	23.6	2.7	0.0	5.3
지역	서울권		173	55.9	34.5	7.7	0.7	0.8	4.2
	수도권		173	63.3	23.0	9.7	3.3	0.7	3.4
	충청권		261	43.2	17.2	24.6	11.3	3.0	8.8
	호남권		231	66.9	24.3	6.4	1.8	0.7	2.7
	경남권		222	59.7	27.7	8.1	2.3	1.1	4.6
	경북권		165	48.4	27.2	19.0	4.2	1.2	5.7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33	82.8	8.3	4.5	4.5	0.0	1.9
	5천만 원~1억 원 미만		141	76.3	21.6	2.1	0.0	0.0	1.4
	1억 원~5억 원 미만		909	52.2	27.5	14.6	4.1	1.4	5.1
	5억 원 이상		142	50.0	17.3	15.7	10.8	3.1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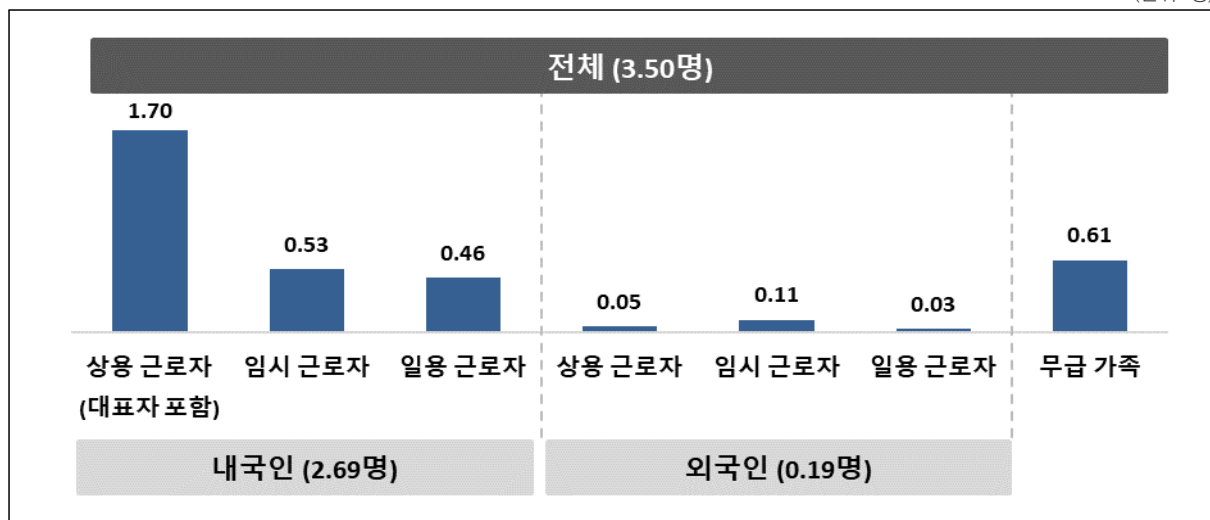
(6) 월평균 근로 형태별 근로자 수

○ 전체 일반음식점 외식업체의 월평균 근로자 수는 3.50명이며, 그 중에서 내국인은 평균 2.69명, 외국인은 0.19명으로 나타남. 무급가족 근로자 수는 평균 0.61명으로 조사됨.

- 내국인 상용근로자는 1.70명이며, 이 중 대표자는 1.00명, 대표자를 제외한 상용근로자는 0.70명임.⁹⁾

〈그림 3-25〉 일반음식점: 월평균 근로 형태별 근로자 수 분포

(단위: 명)



9) 2019년 이전 조사에서는 상용근로자에 대표자를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며, 2020년 조사부터 대표자와 상용근로자를 분리함.

- 내국인의 경우 상용근로자는 1.70명, 임시직 근로자는 0.53명, 일용직 근로자는 0.46명임. 외국인의 경우 상용근로자는 0.05명, 임시직 근로자는 0.11명, 일용직 근로자는 0.03명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서양식(4.21명)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중식은 3.42명으로 적은 수준임. 중식은 무급가족 근로자 수가 0.69명으로 가장 많음.
- 운영 형태별로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월평균 근로자 수는 4.49명으로 나타나 비프랜차이즈(3.28명) 보다 많음.
- 지역별로 일반음식점의 월평균 근로자 수는 경남권(3.83명), 충청권과 서울권(각 3.58명) 등의 순으로 많음.
- 매출액 규모별로 일반음식점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인 업체의 월평균 근로자 수는 7.42명으로 가장 많고, 5천만 원 미만인 업체는 1.76명으로 가장 적음.

〈표 3-27-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자 수 분포(전체)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무급가족	전체	
				대표자 및 상근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소계	대표자	상근							
전체			1,556	1.70	1.00	0.70	0.53	0.46	0.05	0.11	0.03	0.61	3.50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1,091	1.66	1.00	0.66	0.53	0.46	0.05	0.11	0.03	0.62	3.46
		중식	158	1.71	0.99	0.71	0.41	0.38	0.07	0.14	0.03	0.69	3.42
		일식	117	1.90	1.00	0.90	0.49	0.53	0.07	0.07	0.01	0.47	3.53
		서양식	118	2.30	1.00	1.30	0.79	0.45	0.07	0.13	0.04	0.47	4.21
		기타 외국식	72	1.65	0.98	0.67	0.53	0.48	0.18	0.30	0.15	0.48	3.76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331	2.13	0.99	1.14	0.80	0.77	0.06	0.14	0.03	0.58	4.49
	비프랜차이즈		1,225	1.61	1.00	0.61	0.48	0.39	0.05	0.11	0.03	0.62	3.28
지역	서울권		212	1.75	1.00	0.75	0.77	0.27	0.12	0.15	0.01	0.52	3.58
	수도권		257	1.86	1.00	0.86	0.48	0.11	0.11	0.10	0.05	0.40	3.12
	충청권		308	1.42	1.00	0.42	0.51	0.50	0.01	0.34	0.09	0.72	3.58
	호남권		260	1.66	0.99	0.68	0.74	0.34	0.06	0.06	0.02	0.44	3.32
	경남권		328	1.65	1.00	0.65	0.45	0.94	0.02	0.02	0.01	0.74	3.83
	경북권		191	2.03	0.99	1.04	0.24	0.31	0.03	0.00	0.00	0.80	3.42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33	1.10	1.00	0.10	0.14	0.08	0.00	0.00	0.01	0.42	1.76
	5천만 원~1억 원 미만		152	1.10	1.00	0.10	0.15	0.18	0.00	0.01	0.00	0.48	1.92
	1억 원~5억 원 미만		1,128	1.55	1.00	0.55	0.51	0.37	0.04	0.11	0.03	0.65	3.26
	5억 원 이상		243	3.62	1.00	2.62	1.20	1.50	0.21	0.28	0.09	0.53	7.42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업종별로 월평균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중식(5.03명)이고, 다음으로 서양식(4.69명), 일식(4.53명), 한식(4.45명), 기타 외국식(4.17명)의 순서로 나타남. 내국인 상용근로자는 중식(2.83명), 서양식(2.82명), 한식과 일식(각 2.03명) 등의 순서로 많음.
- 지역별로 월평균 근로자 수는 서울권(5.54명)의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권(4.98명), 호남권(4.48명) 등의 순임. 내국인 상용근로자는 서울권(2.91명), 호남권(2.36명), 수도권(2.32명) 등의 순서로 많음.
- 매출액 규모별로 월평균 근로자 수는 5억 원 이상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에서 8.09명, 5천만 원~1억 원 미만인 업체에서 2.26명으로 나타났고, 내국인 상용근로자는 5억 원 이상에서 3.67명, 5천만 원~1억 원 미만에서 1.12명으로 조사됨.

〈표 3-27-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자 수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무급가족	전체	
				대표자 및 상근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전체			331	2.13	0.99	1.14	0.80	0.77	0.06	0.14	0.03	0.58	4.49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197	2.03	0.99	1.04	0.79	0.80	0.05	0.14	0.03	0.63	4.45
		중식	23	2.83	1.00	1.83	1.09	0.53	0.12	0.20	0.00	0.32	5.03
		일식	29	2.03	1.00	1.03	0.68	1.04	0.09	0.15	0.00	0.59	4.53
		서양식	46	2.82	1.00	1.83	0.86	0.52	0.04	0.09	0.08	0.34	4.69
		기타 외국식	36	1.81	0.96	0.85	0.59	0.67	0.31	0.18	0.13	0.48	4.17
지역	서울권		39	2.91	1.00	1.91	1.19	0.50	0.21	0.49	0.01	0.25	5.54
	수도권		84	2.32	1.00	1.32	0.71	0.13	0.13	0.20	0.11	0.43	4.03
	충청권		47	1.57	1.01	0.56	0.50	0.90	0.00	0.24	0.03	0.42	3.63
	호남권		29	2.36	0.88	1.48	1.49	0.30	0.04	0.04	0.00	0.34	4.48
	경남권		106	2.00	1.00	1.00	0.76	1.40	0.03	0.03	0.01	0.76	4.98
	경북권		26	2.17	1.00	1.17	0.65	0.23	0.00	0.00	0.00	1.08	4.14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	1.12	1.00	0.12	0.07	0.21	0.02	0.07	0.01	0.76	2.26
	1억 원~5억 원 미만		219	1.77	0.99	0.78	0.70	0.45	0.05	0.07	0.02	0.60	3.64
	5억 원 이상		101	3.67	1.01	2.67	1.30	2.04	0.14	0.39	0.08	0.47	8.09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업종별로 월평균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서양식(3.95명), 기타 외국식(3.40명), 일식(3.28명) 등의 순임. 내국인 상용근로자는 서양식(2.02명), 일식(1.87명), 한식(1.58명) 등의 순서로 많음.
- 지역별로 월평균 근로자 수는 충청권(3.58명)의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내국인 상용근로자는 경남권(3.35명), 경북권(3.33명) 등의 순서로 많음.
- 매출액 규모별로 월평균 근로자 수는 5억 원 이상 업체가 7.07명, 5천만 원 미만 업체가 1.76명으로 조사됨.

〈표 3-27-3〉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자 수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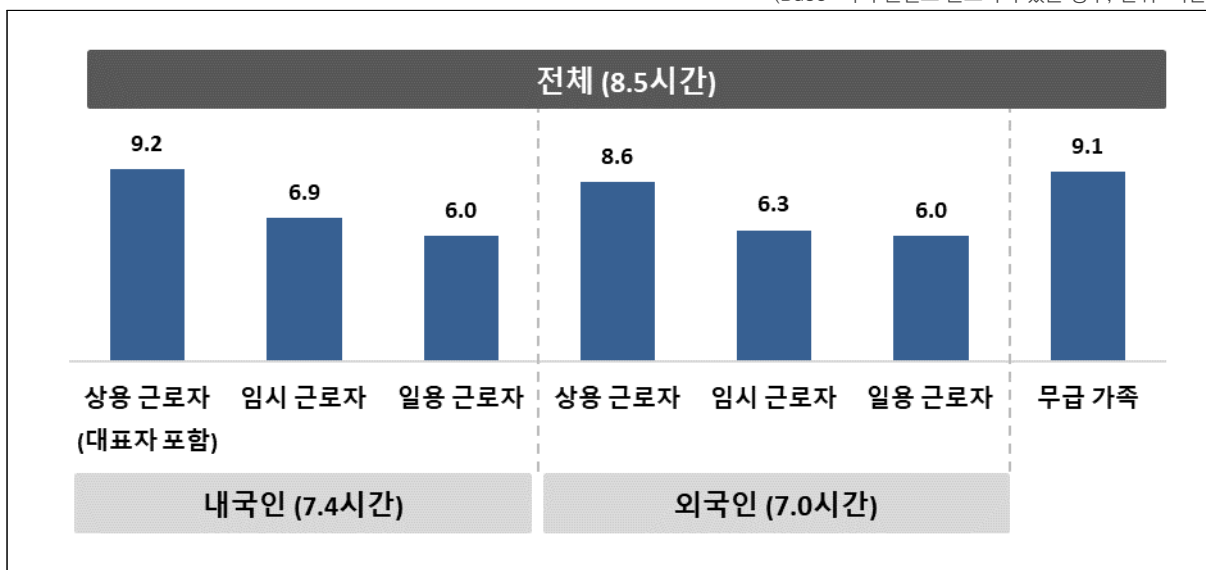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무급가족	전체
				대표자 및 상근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전체			1,225	1.61	1.00	0.61	0.48	0.39	0.05	0.11	0.03	0.62	3.28
업종	일반음식점	한식	894	1.58	1.00	0.58	0.48	0.40	0.04	0.10	0.03	0.62	3.26
		중식	135	1.55	0.99	0.56	0.32	0.36	0.06	0.14	0.03	0.74	3.20
		일식	88	1.87	1.00	0.87	0.44	0.40	0.06	0.04	0.02	0.44	3.28
		서양식	72	2.02	1.00	1.02	0.76	0.41	0.09	0.16	0.03	0.53	3.95
		기타 외국식	36	1.51	1.00	0.51	0.48	0.31	0.06	0.40	0.16	0.49	3.40
지역	서울권		173	1.59	1.00	0.59	0.71	0.24	0.10	0.11	0.01	0.56	3.32
	수도권		173	1.68	1.00	0.68	0.39	0.11	0.10	0.06	0.03	0.39	2.76
	충청권		261	1.39	1.00	0.39	0.51	0.44	0.01	0.35	0.10	0.77	3.58
	호남권		231	1.60	1.00	0.61	0.67	0.34	0.07	0.07	0.02	0.45	3.21
	경남권		222	1.51	1.00	0.51	0.32	0.75	0.01	0.02	0.02	0.73	3.35
	경북권		165	2.01	0.99	1.02	0.19	0.32	0.03	0.00	0.00	0.76	3.33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33	1.10	1.00	0.10	0.14	0.08	0.00	0.00	0.01	0.42	1.76
	5천만 원~1억 원 미만		141	1.10	1.00	0.10	0.16	0.17	0.00	0.01	0.00	0.47	1.90
	1억 원~5억 원 미만		909	1.50	1.00	0.50	0.47	0.36	0.04	0.12	0.03	0.66	3.18
	5억 원 이상		142	3.59	0.99	2.59	1.14	1.22	0.24	0.22	0.10	0.57	7.07

(7) 월평균 근로 형태별 근로시간

- 전체 일반음식점 외식업체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8.5시간이며, 내국인의 경우 평균 7.4시간, 외국인은 7.0시간으로 나타남. 내국인 중 상용근로자는 1일 평균 9.2시간, 임시직 근로자는 6.9시간, 일용직 근로자는 6.0시간으로 조사됨. 외국인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8.6시간, 임시직 근로자는 6.3시간, 일용직 근로자는 6.0시간으로 파악됨. 무급가족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1시간임.
- 내국인 상용근로자는 9.2시간이며, 이 중 대표자는 9.4시간, 대표자를 제외한 상용근로자는 8.6시간임.¹⁰⁾

〈그림 3-26〉 일반음식점: 월평균 근로 형태별 근로시간 분포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시간)



- 일반음식점 외식업체의 업종별로는 중식(8.6시간)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기타 외국식(8.2시간)은 적은 수준임. 내국인 상용근로자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중식과 서양식(각 9.3시간), 한식과 기타 외국식(각 9.2시간), 일식(8.8시간) 순서로 많음. 무급가족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일식(9.4시간), 한식과 서양식(각 9.1시간), 중식(8.9시간), 기타 외국식(8.8시간)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운영 형태별로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8.5시간임.
- 지역별로 일반음식점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경북권(9.3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임. 무급가족의 근로시간은 경북권(10.2시간), 서울권(9.4시간) 등의 순서로 많음.
- 매출액 규모별로 일반음식점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인 업체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8.2시간으로 가장 적은 반면, 5천만 원 미만인 업체는 8.7시간으로 상대적으로 많음. 무급가족 근로자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5억 원 이상 업체의 경우 9.3시간이고, 5천만 원 미만과 5천만 원~1억 원 미만 업체는 각각 8.5시간으로 파악됨.

10) 2019년 이전 조사에서는 상용근로자에 대표자를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며, 2020년 조사부터 대표자와 상용근로자를 분리함.

〈표 3-28-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시간 분포(전체)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개소, 시간)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무급가족	전체	
				대표자 및 상근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소계	대표자	상근							
Base			1,556	1,553	1,540	698	535	416	80	143	48	864	1,556
전체			1,556	9.2	9.4	8.6	6.9	6.0	8.6	6.3	6.0	9.1	8.5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1,091	9.2	9.4	8.6	6.9	6.0	8.9	6.2	5.9	9.1	8.5
		중식	158	9.3	9.5	8.8	6.9	6.4	7.1	7.2	7.0	8.9	8.6
		일식	117	8.8	8.9	7.9	7.4	6.1	8.0	8.0	8.0	9.4	8.4
		서양식	118	9.3	9.5	8.2	6.8	6.1	8.7	5.5	5.3	9.1	8.4
		기타 외국식	72	9.2	9.3	8.2	7.0	6.3	8.4	5.8	5.4	8.8	8.2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331	9.4	9.5	8.6	6.7	5.8	8.0	6.7	5.7	9.5	8.5
	비프랜차이즈		1,225	9.2	9.4	8.6	7.0	6.1	8.9	6.3	6.0	9.0	8.5
지역	서울권		212	9.0	9.2	8.3	7.6	6.6	8.4	7.9	6.8	9.4	8.5
	수도권		257	9.0	9.1	8.6	7.5	7.5	8.6	7.4	5.8	9.3	8.8
	충청권		308	9.3	9.5	8.7	6.0	6.0	6.8	5.7	5.9	8.2	8.1
	호남권		260	9.3	9.4	9.2	6.4	6.1	9.6	5.9	5.5	9.2	8.5
	경남권		328	9.1	9.2	8.4	7.6	5.5	8.3	4.8	7.2	8.8	8.3
	경북권		191	9.6	10.1	8.3	6.8	6.6	8.2	6.0	7.6	10.2	9.3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33	9.5	9.5	8.7	6.5	3.6	-	-	6.0	8.5	8.7
	5천만 원~1억 원 미만		152	8.8	8.8	8.9	6.2	6.1	8.0	5.8	4.0	8.5	8.4
	1억 원~5억 원 미만		1,128	9.3	9.5	8.6	6.9	6.0	8.6	6.4	6.1	9.1	8.6
	5억 원 이상		243	8.9	9.3	8.4	7.2	6.1	8.7	6.2	5.5	9.3	8.2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가운데 1일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업종은 한식(8.6시간)이고, 다음으로는 일식(8.5시간), 기타 외국식(8.3시간) 등의 순서로 나타남. 무급가족 근로시간은 서양식(9.7시간), 한식(9.5시간) 등의 순으로 많음.
- 지역별로 1일 평균 근로시간은 경북권(10.0시간)의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호남권(9.2시간) 등임. 무급가족 근로시간은 경북권(11.1시간), 호남권(10.2시간)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은 8.0시간으로 비교적 적은 반면, 5천만 원~1억 원 미만인 업체는 9.7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음. 무급가족 근로시간은 5천만 원~1억 원 미만이 10.3시간, 5억 원 이상이 9.2시간으로 조사됨.

〈표 3-28-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시간 분포(프랜차이즈)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개소, 시간)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무급가족	전체	
				대표자 및 상근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소계	대표자	상근							
Base			331	329	320	211	143	112	26	31	13	154	331
전체			331	9.4	9.5	8.6	6.7	5.8	8.0	6.7	5.7	9.5	8.5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197	9.5	9.6	8.6	6.8	5.8	7.8	6.2	5.9	9.5	8.6
		중식	23	9.4	9.6	9.2	5.0	5.8	8.0	8.0	-	8.7	7.9
		일식	29	8.9	9.0	7.9	7.5	5.6	8.0	8.0	-	9.4	8.5
		서양식	46	9.2	9.4	8.3	6.3	5.7	8.3	6.6	5.5	9.7	8.2
		기타 외국식	36	9.1	9.3	8.2	7.0	6.1	8.5	6.7	5.2	8.9	8.3
지역	서울권		39	9.1	9.5	8.6	6.2	6.1	8.1	6.4	6.0	8.6	8.1
	수도권		84	9.1	9.2	8.6	7.0	6.8	8.2	7.3	5.0	9.5	8.6
	충청권		47	9.7	9.9	9.1	5.9	6.6	-	5.2	8.0	9.0	8.4
	호남권		29	10.1	9.9	9.7	6.4	9.4	10.9	8.0	-	10.2	9.2
	경남권		106	9.1	9.3	8.2	7.1	5.4	7.1	7.1	6.0	9.1	8.2
	경북권		26	10.4	10.8	8.0	7.1	4.8	-	-	-	11.1	10.0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	10.2	10.2	10.0	8.0	6.0	8.0	8.0	4.0	10.3	9.7
	1억 원~5억 원 미만		219	9.5	9.6	8.7	6.7	5.6	8.0	6.9	6.4	9.5	8.6
	5억 원 이상		101	8.9	9.3	8.3	6.9	6.2	8.0	6.3	4.7	9.2	8.0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업종별로 1일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업종은 중식(8.7시간)이고, 다음으로는 한식과 서양식(각 8.5시간) 등의 순서로 나타남. 무급가족 근로시간은 일식(9.4시간), 한식(9.0시간), 중식(8.9시간) 등의 순으로 많음.
- 지역별로 1일 평균 근로시간은 경북권(9.3시간)의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수도권(8.9시간), 서울권(8.6시간) 등의 순서임. 무급가족 근로시간은 경북권(10.0시간), 서울권(9.4시간), 수도권(9.2시간) 등의 순서로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은 근로시간이 8.2시간으로 비교적 적은 반면, 5천만 원 미만인 업체(8.7시간)는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8-3〉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시간 분포(비프랜차이즈)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개소,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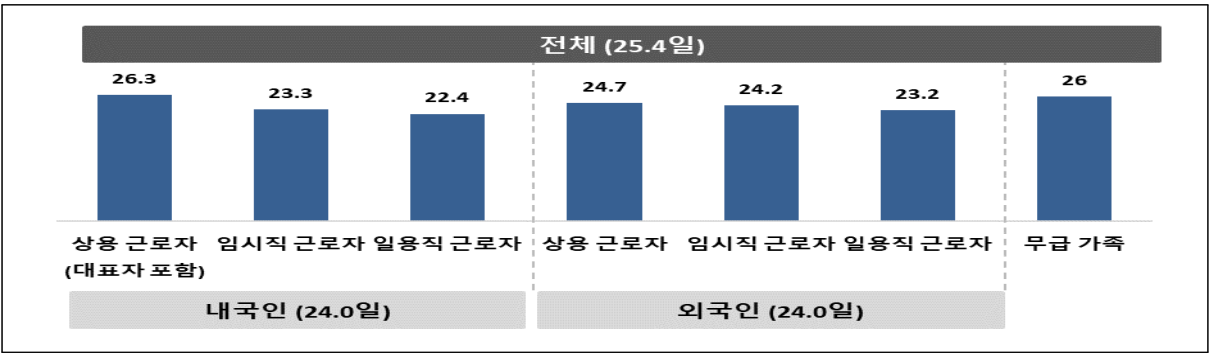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무급 가족	전체	
				대표자 및 상근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소계	대표자	상근							
Base			1,225	1,224	1,220	487	392	304	54	112	35	710	1,225
전체			1,225	9.2	9.4	8.6	7.0	6.1	8.9	6.3	6.0	9.0	8.5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894	9.2	9.4	8.6	6.9	6.0	9.2	6.2	5.8	9.0	8.5
		중식	135	9.3	9.5	8.8	7.3	6.5	6.9	7.1	7.0	8.9	8.7
		일식	88	8.7	8.9	8.0	7.3	6.3	8.0	8.0	8.0	9.4	8.4
		서양식	72	9.4	9.6	8.2	6.9	6.3	8.8	5.0	5.0	8.8	8.5
		기타 외국식	36	9.2	9.3	8.2	7.0	6.7	8.0	5.5	5.6	8.8	8.2
지역	서울권		173	9.0	9.2	8.2	7.8	6.7	8.4	8.4	6.8	9.4	8.6
	수도권		173	9.0	9.1	8.6	7.8	7.8	9.0	7.4	6.4	9.2	8.9
	충청권		261	9.3	9.5	8.6	6.1	5.8	6.8	5.7	5.7	8.1	8.0
	호남권		231	9.2	9.3	9.2	6.4	6.0	9.5	5.7	5.5	9.1	8.4
	경남권		222	9.0	9.1	8.5	7.9	5.6	9.9	3.7	7.5	8.7	8.4
	경북권		165	9.5	10.1	8.4	6.7	6.7	8.2	6.0	7.6	10.0	9.3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33	9.5	9.5	8.7	6.5	3.6	-	-	6.0	8.5	8.7
	5천만 원~1억 원 미만		141	8.7	8.8	8.8	6.1	6.2	-	4.7	-	8.3	8.3
	1억 원~5억 원 미만		909	9.3	9.5	8.6	7.0	6.1	8.8	6.3	6.1	9.1	8.6
	5억 원 이상		142	8.8	9.3	8.5	7.3	6.0	9.0	6.2	5.8	9.3	8.2

(8) 월평균 근로 형태별 근로일수

- 일반음식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5.4일로 나타남. 내국인 근로자는 24.0일, 외국인 근로자는 24.0일로 조사됨. 내국인 중 상용근로자는 26.3일, 임시직 근로자는 23.3일, 일용직 근로자는 22.4일로 나타났고, 외국인 중 상용근로자는 24.7일, 임시직 근로자는 24.2일, 일용직 근로자는 23.2일로 조사됨. 무급가족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6.0일로 파악됨.
- 내국인 상용근로자는 26.3일이며, 이 중 대표자는 26.6일, 대표자를 제외한 상용근로자는 25.2일임.¹¹⁾

〈그림 3-27〉 일반음식점: 월평균 근로 형태별 근로일수 분포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일)



11) 2019년 이전 조사에서는 상용근로자에 대표자를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며, 2020년 조사부터 대표자와 상용근로자를 분리함.

- 일반음식점 업종별로는 한식과 중식(각 25.5일)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기타 외국식(24.5일)은 적은 수준임. 전체 근로자 중 내국인 상용근로자는 한식(26.3일), 중식(26.1일), 서양식(26.0일) 등의 순서이며, 외국인 상용근로자는 서양식(26.0일), 중식과 기타 외국식(각 25.1일) 등임. 무급가족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한식(26.2일), 서양식(26.1일) 등의 순으로 많음.
- 운영 형태별로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5.2일로 비프랜차이즈(25.5일)보다 적음. 지역별로 일반음식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경북권(26.3일)과 수도권(25.7일)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임. 무급가족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경북권(26.9일), 호남권(26.7일), 수도권과 경남권 (각 25.9일) 등의 순서임.
- 매출액 규모별로는 일반음식점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인 업체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4.8일로 비교적 적은 반면, 5천만 원 미만인 업체는 25.9일로 상대적으로 많음. 무급가족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5천만 원~1억 원 미만에서 24.8일, 5천만 원 미만에서 25.2일로 나타남.

〈표 3-29-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일수 분포(전체)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개소, 일)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무급가족	전체	
				대표자 및 상근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소계	대표자	상근							
Base			1,556	1,553	1,540	698	535	416	80	143	48	864	1,556
전체			1,556	26.3	26.6	25.2	23.3	22.4	24.7	24.2	23.2	26.0	25.4
업종	일반음식점	한식	1,091	26.3	26.6	25.2	23.4	22.2	24.6	24.2	23.2	26.2	25.5
		중식	158	26.1	26.3	25.3	23.8	24.9	25.1	24.4	26.6	25.2	25.5
		일식	117	25.9	26.2	25.2	22.5	21.8	24.2	24.6	24.0	25.5	25.0
		서양식	118	26.0	26.3	24.9	22.7	21.9	26.0	24.0	21.6	26.1	25.0
		기타 외국식	72	25.8	26.4	24.4	21.6	23.1	25.1	22.9	20.4	24.9	24.5
운영형태	프랜차이즈		331	26.3	26.9	24.5	22.8	21.3	24.4	23.5	19.4	27.0	25.2
	비프랜차이즈		1,225	26.3	26.5	25.4	23.5	22.8	24.8	24.3	24.0	25.8	25.5
지역	서울권		212	26.3	26.5	25.6	24.5	21.4	25.0	23.2	20.6	25.7	25.4
	수도권		257	25.9	26.1	25.1	24.4	23.4	25.3	24.3	21.7	25.9	25.7
	충청권		308	26.4	26.6	25.7	24.0	25.2	25.2	24.9	24.6	25.3	25.6
	호남권		260	26.6	26.9	25.0	20.9	21.6	24.2	25.7	20.7	26.7	25.2
	경남권		328	25.9	26.4	23.8	23.1	21.4	21.6	15.5	23.7	25.9	24.9
	경북권		191	26.7	26.9	26.3	24.2	23.2	25.9	30.0	25.4	26.9	26.3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33	26.5	26.5	24.8	24.8	24.4	-	-	24.0	25.2	25.9
	5천만 원~1억 원 미만		152	26.3	26.4	25.4	22.8	20.4	25.0	25.3	20.0	24.8	25.6
	1억 원~5억 원 미만		1,128	26.3	26.5	25.2	23.4	22.5	24.6	24.5	23.8	26.2	25.5
	5억 원 이상		243	26.1	27.1	25.0	22.8	22.8	24.8	22.6	21.2	26.2	24.8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업종별 월평균 근로일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한식(25.4일)이고, 다음으로는 중식(25.0일) 등임. 내국인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한식(26.4일), 중식(26.3일), 기타 외국식(26.2일) 등의 순서로 많으며, 외국인 상용근로자는 서양식(25.9일), 중식과 기타 외국식(각 25.0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월평균 근로일수는 경북권(27.0일)의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도권(25.9일), 충청권(25.7일), 서울권(24.6일) 등의 순서로 조사됨.
-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은 24.6일로 비교적 적은 반면, 5천만 원~1억 원 미만인 업체는 26.7일로 근로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음.

〈표 3-29-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일수 분포(프랜차이즈)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개소, 일)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무급가족	전체	
				대표자 및 상근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소계	대표자	상근							
Base			331	329	320	211	143	112	26	31	13	154	331
전체			331	26.3	26.9	24.5	22.8	21.3	24.4	23.5	19.4	27.0	25.2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197	26.4	27.1	24.5	23.4	21.0	24.2	22.9	18.0	27.2	25.4
		중식	23	26.3	27.0	25.6	19.0	24.8	25.0	25.6	-	25.6	25.0
		일식	29	25.5	25.8	24.1	22.0	21.2	23.2	24.0	-	25.8	24.5
		서양식	46	25.5	25.9	24.5	21.0	20.9	25.9	25.0	23.0	26.5	24.3
		기타 외국식	36	26.2	27.0	25.0	19.9	23.7	25.0	22.5	20.5	24.8	24.5
지역	서울권		39	25.5	26.1	25.0	23.3	21.4	24.4	23.6	24.0	25.2	24.6
	수도권		84	26.3	26.8	25.3	24.3	21.8	25.5	24.2	21.0	26.8	25.9
	충청권		47	26.8	27.1	25.4	22.9	25.3	-	21.9	16.0	26.8	25.7
	호남권		29	26.7	27.7	25.1	18.9	18.0	26.0	30.0	-	27.7	24.3
	경남권		106	26.0	26.7	23.2	22.1	20.0	21.3	18.5	15.0	26.9	24.5
	경북권		26	27.1	27.4	26.3	25.1	26.0	-	-	-	27.7	27.0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	27.1	27.5	20.0	24.1	25.0	25.0	24.1	20.0	26.8	26.7
	1억 원~5억 원 미만		219	26.3	26.7	24.6	22.8	21.4	23.8	24.3	19.7	26.8	25.2
	5억 원 이상		101	26.2	27.4	24.5	22.8	20.7	25.3	22.3	19.0	27.9	24.6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업종별로 월평균 근로일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중식(25.6일)이고, 다음으로는 한식(25.5일), 서양식(25.4일), 일식(25.1일), 기타 외국식(24.5일)의 순서로 나타남.
- 지역별로 월평균 근로일수는 경북권(26.2일)의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수도권과 충청권(각 25.6일), 서울권(25.5일), 경남권(25.0일) 등의 순임. 내국인 상용근로자는 호남권과 경북권(각 26.6일), 서울권과 충청권(각 26.4일) 등의 순서로 많음.
-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4.9일로 5천만 원 미만 업체(25.9일)보다 적음.

〈표 3-29-3〉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일수 분포(비프랜차이즈)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개소,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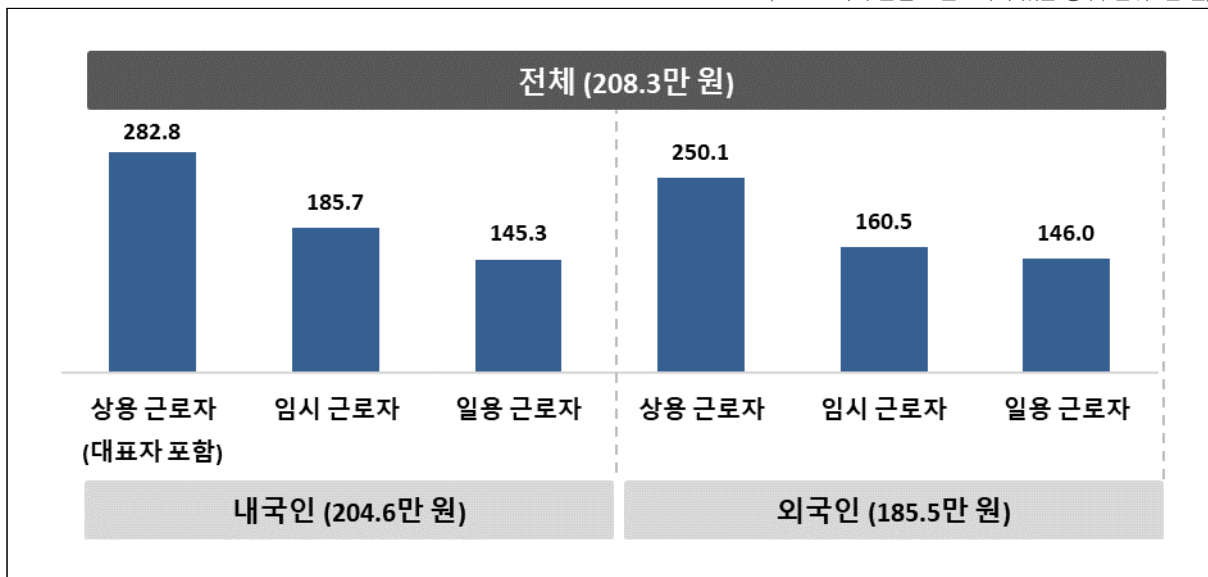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무급가족	전체	
				대표자 및 상근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소계	대표자	상근							
Base			1,225	1,224	1,220	487	392	304	54	112	35	710	1,225
전체			1,225	26.3	26.5	25.4	23.5	22.8	24.8	24.3	24.0	25.8	25.5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894	26.3	26.6	25.4	23.4	22.6	24.7	24.5	24.1	26.0	25.5
		중식	135	26.1	26.2	25.3	24.9	24.9	25.1	24.2	26.6	25.2	25.6
		일식	88	26.1	26.3	25.5	22.6	22.0	24.7	25.2	24.0	25.4	25.1
		서양식	72	26.3	26.5	25.3	23.4	22.6	26.0	23.6	20.0	25.9	25.4
		기타 외국식	36	25.6	26.0	23.3	23.3	22.1	25.3	23.0	20.3	25.0	24.5
지역	서울권		173	26.4	26.6	25.7	24.6	21.4	25.2	23.0	20.4	25.7	25.5
	수도권		173	25.8	25.8	25.0	24.4	24.0	25.2	24.3	22.3	25.5	25.6
	충청권		261	26.4	26.6	25.7	24.1	25.2	25.2	25.1	25.3	25.2	25.6
	호남권		231	26.6	26.8	25.0	21.2	21.7	24.1	25.3	20.7	26.6	25.3
	경남권		222	25.9	26.2	24.3	23.7	22.2	21.9	14.1	25.6	25.4	25.0
	경북권		165	26.6	26.8	26.3	23.9	23.0	25.9	30.0	25.4	26.8	26.2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33	26.5	26.5	24.8	24.8	24.4	-	-	24.0	25.2	25.9
	5천만 원~1억 원 미만		141	26.3	26.3	25.8	22.8	20.0	-	25.9	-	24.7	25.5
	1억 원~5억 원 미만		909	26.3	26.5	25.4	23.6	22.7	24.9	24.5	24.5	26.1	25.5
	5억 원 이상		142	26.1	26.9	25.2	22.8	24.1	24.6	22.8	22.1	25.5	24.9

(9) 월평균 근로 형태별 인건비

- 일반음식점의 인건비를 조사한 결과,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인건비는 208.3만 원이고, 내국인은 204.6만 원, 외국인은 185.5만 원으로 나타남. 내국인 중 상용근로자는 282.8만 원, 임시직 근로자는 185.7만 원, 일용직 근로자는 145.3만 원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중 상용근로자는 250.1만 원, 임시직 근로자는 160.5만 원, 일용직 근로자는 146.0만 원으로 조사됨.

〈그림 3-28〉 일반음식점: 월평균 근로 형태별 인건비 분포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만 원)



- 일반음식점의 업종별로는 일식(226.0만 원)의 월평균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서양식(193.7만 원)은 낮은 수준임. 내국인 상용근로자는 중식(291.5만 원), 한식(282.5만 원) 등의 순서로 높고, 외국인 상용근로자는 기타 외국식(297.3만 원), 서양식(263.1만 원) 등의 순으로 높음.
- 운영 형태별로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월평균 인건비는 207.4만 원으로 비프랜차이즈 업체(208.5만 원)보다 낮음.
- 지역별 일반음식점의 월평균 인건비는 수도권(255.1만 원)과 경북권(237.7만 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내국인 상용근로자는 호남권(296.2만 원), 서울권(295.8만 원) 등의 순서로 높고, 외국인 상용근로자는 서울권(270.4만 원), 호남권(260.6만 원) 등의 순임.
- 매출액 규모별로 일반음식점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인 업체의 월평균 인건비는 228.1만 원으로 비교적 높은 반면, 5천만 원 미만인 업체는 159.2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내국인 상용근로자는 5억 원 이상 업체에서 288.6만 원이고, 외국인 상용근로자는 5억 원 이상 업체에서 259.1만 원으로 나타남.

〈표 3-30-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인건비 분포(전체)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개소, 만 원)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전체
			상용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Base		1,556	674	535	416	80	143	48	1,171
전체		1,556	282.8	185.7	145.3	250.1	160.5	146.0	208.3
일반 음식점	한식	1,091	282.5	185.5	143.4	249.3	157.1	141.7	207.3
	중식	158	291.5	182.2	164.4	224.8	173.6	184.5	216.9
	일식	117	282.1	207.4	148.8	246.4	227.9	155.0	226.0
	서양식	118	276.0	174.6	137.5	263.1	129.2	145.5	193.7
	기타 외국식	72	277.5	182.0	168.0	297.3	154.9	134.1	201.2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331	281.6	182.4	137.9	249.3	167.3	130.1	207.4
	비프랜차이즈	1,225	283.2	186.6	147.5	250.4	159.0	149.3	208.5
지역	서울권	212	295.8	214.7	166.6	270.4	194.4	144.9	232.6
	수도권	257	294.6	229.6	197.5	247.9	196.8	131.4	255.1
	충청권	308	269.9	153.1	154.6	210.8	144.7	149.3	180.5
	호남권	260	296.2	139.1	138.2	260.6	146.1	137.2	191.3
	경남권	328	270.3	213.0	128.5	212.2	112.8	178.8	188.1
	경북권	191	272.3	190.2	158.0	243.1	210.0	183.1	237.7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33	281.0	151.1	114.2	-	-	130.0	159.2
	5천만 원~1억 원 미만	152	276.6	158.8	124.8	300.0	148.7	90.0	168.2
	1억 원~5억 원 미만	1,128	281.2	184.3	146.2	245.0	159.3	155.2	207.9
	5억 원 이상	243	288.6	201.5	150.6	259.1	167.6	117.5	228.1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업종별 월평균 인건비가 가장 높은 업종은 기타 외국식(223.2만 원), 일식(217.5만 원), 서양식(210.4만 원) 등의 순서로 나타남. 내국인 상용근로자는 중식(318.6만 원), 기타 외국식(287.4만 원), 일식(285.4만 원) 등의 순서로 높고, 외국인 상용근로자는 서양식(309.7만 원), 기타 외국식(302.4만 원), 중식(295.2만 원) 등의 순으로 높음.
- 지역별로 월평균 인건비는 수도권(254.1만 원)의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서울권(248.5만 원), 경북권(229.4만 원) 등의 순임.
-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은 월평균 인건비가 223.4만 원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반면, 1억 원~5억 원 미만인 업체는 202.2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표 3-30-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인건비 분포(프랜차이즈)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개소, 만 원)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전체
			상용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Base		331	203	143	112	26	31	13	292
전체		331	281.6	182.4	137.9	249.3	167.3	130.1	207.4
일반 음식점	한식	197	278.3	184.2	135.5	229.2	149.3	119.8	205.5
	중식	23	318.6	127.8	158.7	295.2	199.6	-	209.3
	일식	29	285.4	209.1	136.1	196.3	225.9	-	217.5
	서양식	46	281.9	179.3	128.5	309.7	172.3	167.5	210.4
	기타 외국식	36	287.4	191.9	182.1	302.4	187.4	121.5	223.2
지역	서울권	39	311.9	197.6	147.3	319.9	154.3	180.0	248.5
	수도권	84	300.0	207.8	164.0	252.6	189.8	125.6	254.1
	충청권	47	275.5	153.9	168.5	-	119.0	160.0	188.8
	호남권	29	294.5	119.8	166.5	339.7	240.0	-	195.9
	경남권	106	258.5	183.3	124.0	176.0	171.5	90.0	174.7
	경북권	26	262.8	207.1	163.3	-	-	-	229.4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	309.0	190.8	149.4	300.0	200.0	90.0	206.8
	1억 원~5억 원 미만	219	279.3	177.2	134.9	233.4	177.0	156.0	202.2
	5억 원 이상	101	285.2	195.3	143.4	273.7	153.1	93.1	223.4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업종별로 월평균 인건비가 가장 높은 업종은 일식(228.0만 원)이고, 다음으로는 중식(218.3만 원), 한식(207.8만 원)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지역별 월평균 인건비는 수도권(255.7만 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경북권(238.8만 원), 서울권(230.1만 원) 등의 순임.
- 매출액 규모별로 5천만 원 미만 일반음식점은 159.2만 원으로 월평균 인건비가 비교적 낮은 반면, 5억 원 이상인 업체(230.6만 원)는 상대적으로 높음.

〈표 3-30-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인건비 분포(비프랜차이즈)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개소, 만 원)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전체
			상용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Base		1,225	471	392	304	54	112	35	879
전체		1,225	283.2	186.6	147.5	250.4	159.0	149.3	208.5
일반 음식점	한식	894	283.8	185.9	145.7	254.3	158.6	145.5	207.8
	중식	135	285.7	194.7	165.3	206.6	168.8	184.5	218.3
	일식	88	281.3	206.9	152.8	271.1	229.6	155.0	228.0
	서양식	72	269.1	172.8	143.3	249.4	112.1	120.6	182.3
	기타 외국식	36	261.2	172.7	143.4	276.5	146.0	141.1	183.0
지역	서울권	173	291.2	217.2	169.6	258.2	209.4	143.3	230.1
	수도권	173	290.9	243.3	209.5	244.9	203.4	136.0	255.7
	충청권	261	268.8	152.9	150.6	210.8	146.6	148.4	178.9
	호남권	231	296.4	141.4	136.8	257.4	136.3	137.2	190.8
	경남권	222	281.3	232.7	131.1	263.9	84.6	198.9	195.9
	경북권	165	273.1	184.6	157.6	243.1	210.0	183.1	238.8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33	281.0	151.1	114.2	-	-	130.0	159.2
	5천만 원~1억 원 미만	141	274.1	157.6	122.6	-	124.2	-	165.2
	1억 원~5억 원 미만	909	281.8	186.1	149.2	248.5	156.9	155.0	209.3
	5억 원 이상	142	290.7	205.3	155.0	253.9	179.8	128.2	2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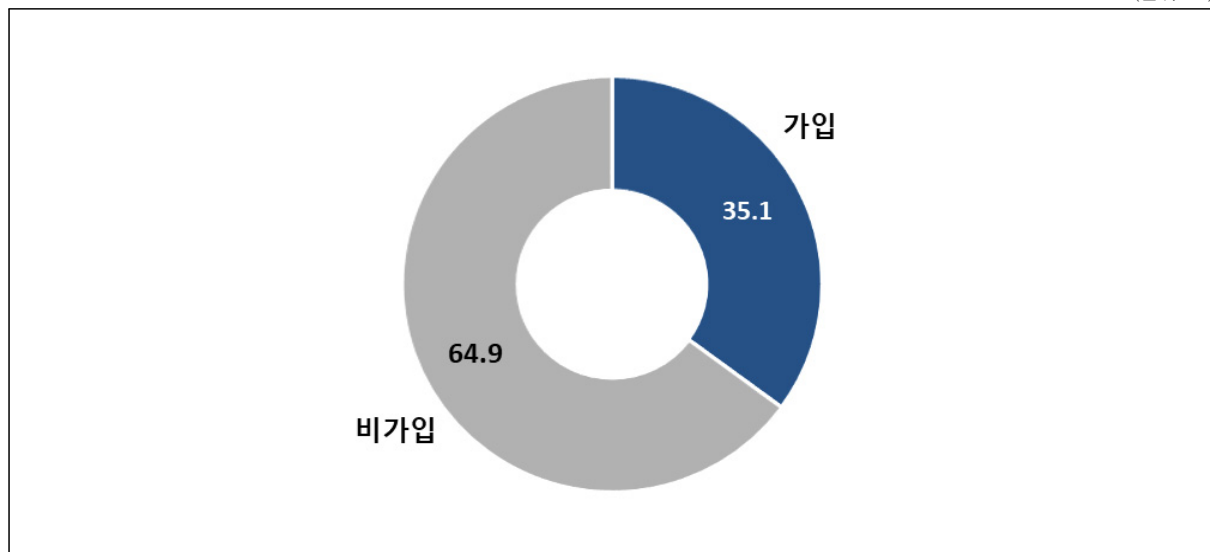
(10)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일반음식점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은 35.1%로 나타남.

- 평균 가입자 수는 2.5명임.

〈그림 3-29〉 일반음식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단위: %)



- 일반음식점 업종별로는 일식이 46.5%로 가입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타 외국식(46.4%), 서양식(45.4%)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중식은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29.1%로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낮음.
- 지역별로는 경남권(50.2%),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74.4%) 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가장 높음.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인 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은 6.0%에 불과함.

〈표 3-31-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고용보험 가입 여부(전체)

(단위: 개소, %, 명)

구분			사례수	가입여부		(Base=가입여부 "가입")
				가입	비가입	평균 가입자 수
전체			1,556	35.1	64.9	2.5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1,091	34.2	65.8	2.3
		중식	158	29.1	70.9	2.6
		일식	117	46.5	53.5	2.5
		서양식	118	45.4	54.6	4.1
		기타 외국식	72	46.4	53.6	2.7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331	58.3	41.7	2.8
	비프랜차이즈		1,225	30.1	69.9	2.3
지역	서울권		212	45.0	55.0	2.9
	수도권		257	42.4	57.6	3.1
	충청권		308	23.5	76.5	2.1
	호남권		260	27.2	72.8	2.5
	경남권		328	50.2	49.8	2.1
	경북권		191	19.9	80.1	2.3
매출 액	5천만 원 미만		33	6.0	94.0	1.2
	5천만 원~1억 원 미만		152	9.1	90.9	1.4
	1억 원~5억 원 미만		1,128	34.8	65.2	1.9
	5억 원 이상		243	74.4	25.6	4.6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은 58.3%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권(76.9%)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가장 높음.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 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은 85.4%인 반면, 5천만 원~1억 원 미만 업체는 12.6%인 것으로 조사됨.

〈표 3-31-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고용보험 가입 여부(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명)

구분			사례수	가입여부		(Base=가입여부 "가입")
				가입	비가입	평균 가입자 수
전체			331	58.3	41.7	2.8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197	59.3	40.7	2.6
		중식	23	60.9	39.1	3.7
		일식	29	44.2	55.8	2.8
		서양식	46	55.3	44.7	4.0
		기타 외국식	36	62.1	37.9	2.8
지역	서울권		39	76.9	23.1	3.7
	수도권		84	65.1	34.9	3.2
	충청권		47	29.6	70.4	3.2
	호남권		29	53.4	46.6	3.0
	경남권		106	72.7	27.3	2.2
	경북권		26	10.6	89.4	5.0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	12.6	87.4	4.3
	1억 원~5억 원 미만		219	53.2	46.8	1.9
	5억 원 이상		101	85.4	14.6	4.7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은 30.1%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경남권(40.8%)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비교적 높음.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 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68.6%인 반면, 5천만 원 미만 업체는 6.0%에 그치고 있음.

〈표 3-31-3〉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고용보험 가입 여부(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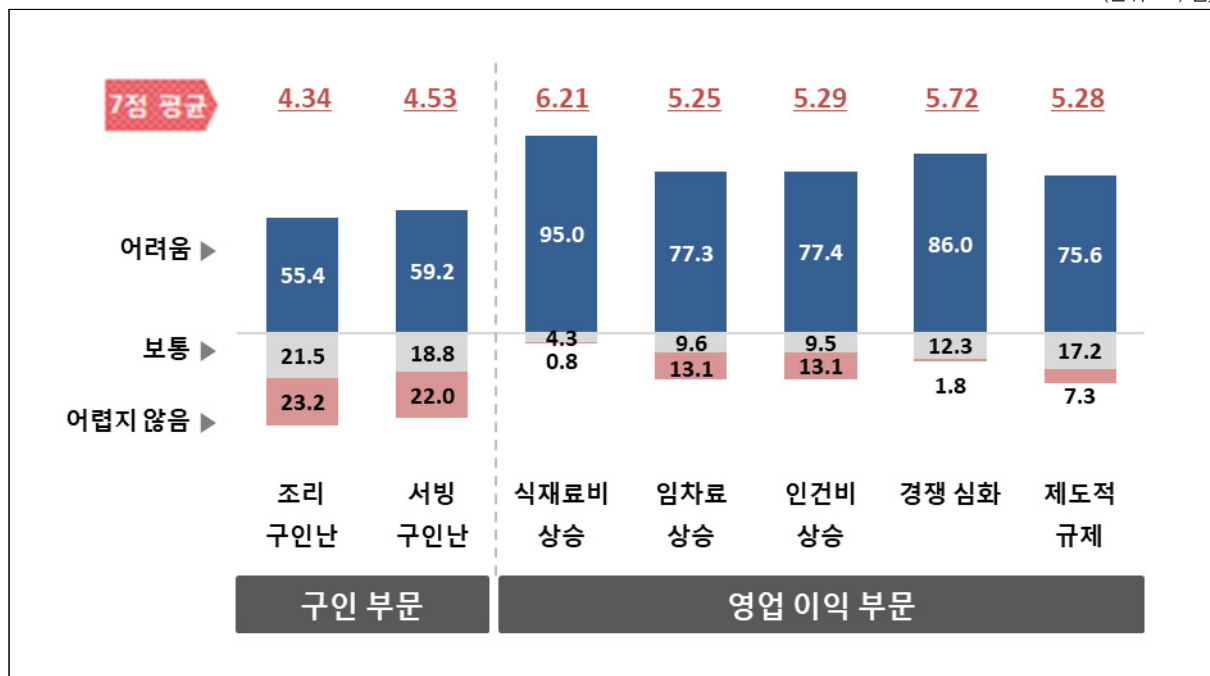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가입여부		(Base=가입여부 "가입")
				가입	비가입	평균 가입자 수
전체			1,225	30.1	69.9	2.3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894	29.2	70.8	2.2
		중식	135	24.7	75.3	2.2
		일식	88	47.1	52.9	2.4
		서양식	72	40.2	59.8	4.3
		기타 외국식	36	32.8	67.2	2.5
지역	서울권		173	40.7	59.3	2.6
	수도권		173	33.4	66.6	3.1
	충청권		261	22.5	77.5	1.8
	호남권		231	24.9	75.1	2.4
	경남권		222	40.8	59.2	2.1
	경북권		165	21.1	78.9	2.2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33	6.0	94.0	1.2
	5천만 원~1억 원 미만		141	8.9	91.1	1.2
	1억 원~5억 원 미만		909	30.8	69.2	1.9
	5억 원 이상		142	68.6	31.4	4.5

(11) 경영상 애로사항

- 일반음식점의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해서 조리 구인난과 서빙 구인난 등 구인 부문과 식재료비 상승, 임차료 상승, 인건비 상승, 경쟁 심화, 제도적 규제 등 영업이익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구인 부문에서는 조리 구인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이 55.4%이고, 어렵지 않다는 비중은 23.2%로 나타남. 서빙 구인이 어렵다는 응답 비중은 59.2%, 어렵지 않다는 비중은 22.0%임. 영업이익 부문에서는 식재료비 상승(95.0%), 경쟁 심화(86.0%), 임차료 상승(77.3%), 인건비 상승(77.4%), 제도적 규제(75.6%)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3-30〉 일반음식점: 경영상 애로사항

(단위: %, 점)



- 일반음식점은 대부분 업종에서 식재료비 상승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식재료비 상승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모든 규모에서 식재료비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표 3-32-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경영상 애로사항 '어려움' 비율(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구인난-조리	구인난-서빙	식재료비 상승	임차료 상승	인건비 상승	경쟁 심화	제도적 규제
전체			1,556	55.4	59.2	95.0	77.3	77.4	86.0	75.6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1,091	55.1	59.0	95.1	76.7	76.5	85.3	75.0
		중식	158	48.6	48.7	96.9	73.1	78.5	92.0	74.5
		일식	117	63.6	62.7	89.4	86.8	79.7	81.0	79.2
		서양식	118	58.9	70.9	94.9	80.0	85.5	90.5	79.6
		기타 외국식	72	65.4	78.6	94.5	92.7	90.6	95.6	87.3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331	60.5	61.2	96.5	87.2	84.4	89.9	81.0
	비프랜차이즈		1,225	54.3	58.8	94.6	75.2	75.9	85.1	74.4
지역	서울권		212	64.5	70.4	83.3	80.5	77.4	80.4	76.8
	수도권		257	79.2	82.5	93.4	87.5	81.5	79.7	71.5
	충청권		308	63.2	72.5	95.7	74.8	89.1	91.8	79.9
	호남권		260	54.8	52.5	97.9	77.6	83.6	84.4	76.0
	경남권		328	30.2	34.2	97.8	69.3	68.1	88.4	68.4
	경북권		191	52.8	56.2	97.6	80.0	62.6	87.6	84.5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33	25.1	29.4	98.3	70.7	49.3	70.4	44.3
	5천만 원~1억 원 미만		152	37.6	45.2	95.5	70.8	61.1	75.5	65.8
	1억 원~5억 원 미만		1,128	56.8	60.4	94.7	78.2	78.6	87.7	77.6
	5억 원 이상		243	73.3	74.8	95.5	80.0	94.6	89.2	80.8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은 주로 식재료비 상승(96.5%), 경쟁 심화(89.9%), 임차료 상승(87.2%), 인건비 상승(84.4%) 등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일식과 기타 외국식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식재료비 상승이 가장 큰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충청권(100.0%)은 경쟁 심화, 서울권(97.6%)은 인건비 상승, 그 외 모든 지역에서는 식재료비 상승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조사됨.
-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 원~5억 원 미만(97.4%)과 5억 원 이상(95.7%)은 식재료비 상승이 주요 애로사항이며, 5천만 원~1억 원 미만은 경쟁 심화(96.8%)가 주요 애로사항임.

〈표 3-32-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경영상 애로사항 '어려움' 비율(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구인난-조리	구인난-서빙	식재료비 상승	임차료 상승	인건비 상승	경쟁 심화	제도적 규제
전체			331	60.5	61.2	96.5	87.2	84.4	89.9	81.0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197	57.7	57.7	97.2	85.7	81.7	89.0	80.4
		중식	23	74.8	73.9	96.2	89.7	93.5	89.7	70.0
		일식	29	58.3	60.6	93.0	98.2	90.7	93.5	93.5
		서양식	46	67.7	73.1	95.2	88.5	93.5	92.3	82.0
		기타 외국식	36	82.2	87.4	93.0	93.5	97.0	97.0	86.9
지역	서울권		39	67.1	46.4	85.3	71.1	97.6	86.6	86.7
	수도권		84	86.6	89.5	93.9	92.4	87.6	78.6	71.1
	충청권		47	83.9	87.7	100.0	93.3	97.6	100.0	77.6
	호남권		29	57.2	64.5	99.8	86.2	85.7	90.5	76.4
	경남권		106	35.3	36.7	97.8	84.7	80.5	95.6	89.1
	경북권		26	54.1	54.1	100.0	89.9	54.1	80.6	78.0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	44.5	65.3	84.7	84.7	69.5	96.8	70.4
	1억 원~5억 원 미만		219	56.8	59.1	97.4	89.0	82.5	90.4	82.1
	5억 원 이상		101	77.0	68.2	95.7	81.2	94.4	86.8	78.8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은 식재료비 상승(94.6%), 경쟁 심화(85.1%), 인건비 상승(75.9%) 등에 대해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음.
- 모든 업종에서 식재료비 상승과 경쟁 심화가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식재료비 상승이 주요 애로사항인 것으로 조사됨.
- 매출액별로도 모든 규모에서 식재료비 상승이 가장 큰 경영상 애로사항임.

〈표 3-32-3〉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경영상 애로사항 ‘어려움’ 비율(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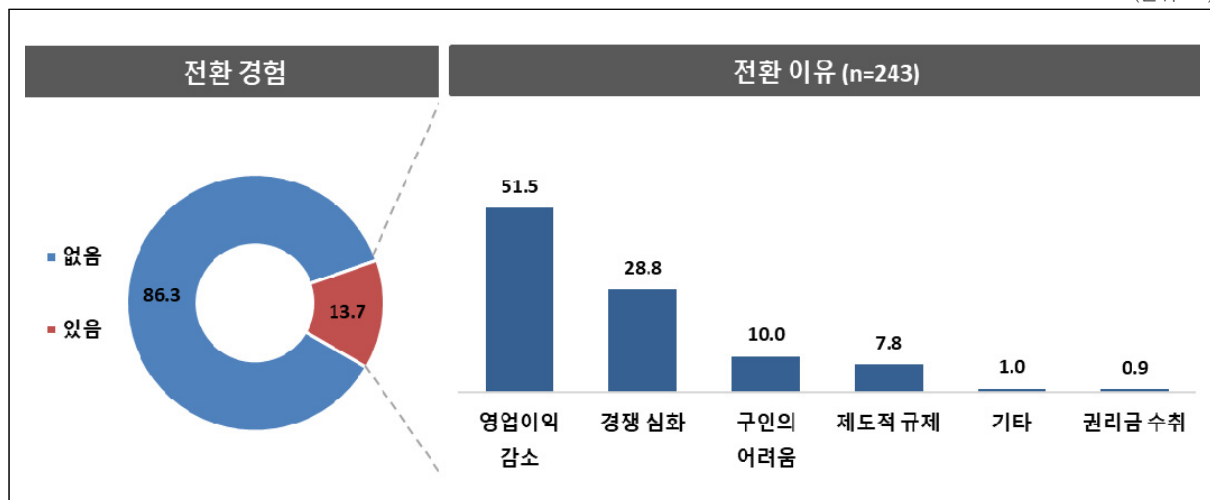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구인난-조리	구인난-서빙	식재료비 상승	임차료 상승	인건비 상승	경쟁 심화	제도적 규제
전체		1,225	54.3	58.8	94.6	75.2	75.9	85.1	74.4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894	54.6	59.3	94.7	74.9	75.4	73.9
		중식	135	45.0	45.3	97.0	70.8	76.4	75.1
		일식	88	65.0	63.2	88.5	83.9	77.0	75.7
		서양식	72	54.4	69.7	94.7	75.5	81.3	78.4
		기타 외국식	36	50.8	71.1	95.9	92.0	85.0	87.6
지역	서울권	173	64.1	73.6	83.0	81.7	74.7	79.6	75.4
	수도권	173	76.3	79.7	93.1	85.5	79.1	80.2	71.7
	충청권	261	59.9	70.0	95.0	71.7	87.8	90.4	80.3
	호남권	231	54.6	51.4	97.7	76.9	83.4	83.9	76.0
	경남권	222	28.1	33.1	97.8	62.9	63.0	85.5	59.7
	경북권	165	52.6	56.5	97.3	78.8	63.7	88.4	85.3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33	25.1	29.4	98.3	70.7	49.3	70.4	44.3
	5천만 원~1억 원 미만	141	37.2	44.0	96.2	70.0	60.6	74.2	65.5
	1억 원~5억 원 미만	909	56.8	60.7	94.1	75.8	77.8	87.2	76.6
	5억 원 이상	142	71.4	78.3	95.4	79.4	94.7	90.4	81.8

(12) 외식업 종사 이후 업종 전환 경험 및 이유

- 일반음식점들의 외식업 종사 이후 업종 전환 경험 및 이유를 조사함. 2024년 조사 기준으로 업종을 전환한 경험이 있는 일반음식점의 비중은 13.7%로 나타남.
- 업종 전환 이유는 영업이익 감소(51.5%), 경쟁 심화(28.8%), 구인의 어려움(10.0%), 제도적 규제(7.8%), 권리금 수취(0.9%) 등으로 조사됨.

〈그림 3-31〉 일반음식점: 외식업 종사 이후 업종전환 경험 및 이유

(단위: %)



주: 업종 전환 이유는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 일반음식점의 업종별로는 기타 외국식(25.9%), 서양식(16.0%), 일식(14.9%), 한식(13.7%), 중식(9.5%) 순서로 업종 전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남. 모든 업종에서 영업이익 감소가 주요 업종 전환 이유로 파악됨.
- 지역별로는 충청권(36.6%)의 업종 전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 원~5억 원 미만 일반음식점의 업종 전환 비율이 14.8%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5억 원 이상 업체는 11.4%가 업종 전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3-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외식업 종사 이후 업종 전환 경험 및 이유(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전환 경험		전환 이유(Base=전환 경험 "있음")						전환 횟수
		있음	없음	구인의 어려움	영업이익 감소	제도적 규제	경쟁 심화	권리금 수취	기타	평균
전체	1,556	13.7	86.3	10.0	51.5	7.8	28.8	0.9	1.0	1.2
일반 음식점	한식	1,091	13.7	86.3	10.3	51.4	7.3	28.8	0.9	1.2
	중식	158	9.5	90.5	13.5	55.1	11.4	20.1	0.0	1.2
	일식	117	14.9	85.1	6.4	52.4	10.0	31.2	0.0	1.1
	서양식	118	16.0	84.0	5.2	58.6	6.9	27.1	2.2	1.2
	기타 외국식	72	25.9	74.1	11.0	34.0	11.6	40.4	2.9	1.3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331	14.0	86.0	8.4	42.5	8.9	39.3	0.9	1.3
	비프랜차이즈	1,225	13.7	86.3	10.4	53.8	7.5	26.1	0.9	1.1
지역	서울권	212	7.2	92.8	16.4	32.1	3.3	47.2	1.1	1.2
	수도권	257	4.3	95.7	0.6	39.9	24.3	35.2	0.0	1.3
	충청권	308	36.6	63.4	11.1	56.1	4.8	26.4	1.4	1.1
	호남권	260	13.2	86.8	1.6	66.3	3.0	24.8	0.0	1.3
	경남권	328	2.3	97.7	22.9	28.2	17.3	27.1	4.4	1.3
	경북권	191	18.0	82.0	13.7	37.9	17.3	31.1	0.0	1.1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33	0.0	100.0	0.0	0.0	0.0	0.0	0.0	-
	5천만 원~1억 원 미만	152	12.7	87.3	1.4	63.7	1.9	30.0	0.0	1.2
	1억 원~5억 원 미만	1,128	14.8	85.2	11.8	50.0	8.3	28.0	1.2	1.1
	5억 원 이상	243	11.4	88.6	3.9	50.6	10.5	33.8	0.1	1.2

주: 업종 전환 이유는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업종 전환 비율은 14.0%로 나타남. 업종별로는 기타 외국식(23.3%)과 서양식(20.5%)의 업종 전환 비율이 높고, 중식(3.8%)은 상대적으로 낮음.
- 지역별로는 충청권(47.4%)의 업종 전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 5천만 원~1억 원 미만(29.6%)의 업체가 업종 전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33-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외식업 종사 이후 업종 전환 경험 및 이유(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전환 경험		전환 이유(Base=전환 경험 "있음")					전환 횟수	
		있음	없음	구인의 어려움	영업이익 감소	제도적 규제	경쟁 심화	권리금 수취	평균	
전체	331	14.0	86.0	8.4	42.5	8.9	39.3	0.9	1.3	
일반 음식점	한식	197	13.4	86.6	9.8	40.5	8.0	40.6	1.2	1.3
	중식	23	3.8	96.2	0.0	33.3	0.0	66.7	0.0	2.0
	일식	29	14.5	85.5	0.0	71.9	9.9	18.2	0.0	1.3
	서양식	46	20.5	79.5	7.2	42.0	9.6	41.2	0.0	1.5
	기타 외국식	36	23.3	76.7	3.0	45.6	20.2	30.4	0.8	1.4
지역	서울권	39	9.2	90.8	0.0	33.3	0.0	66.7	0.0	1.3
	수도권	84	5.5	94.5	0.0	27.2	28.5	44.3	0.0	1.7
	충청권	47	47.4	52.6	9.0	48.8	3.1	39.1	0.0	1.3
	호남권	29	6.3	93.7	0.0	66.7	0.0	33.3	0.0	1.0
	경남권	106	6.3	93.7	22.8	22.7	21.6	27.5	5.5	1.3
	경북권	26	25.4	74.6	0.0	50.3	8.0	41.7	0.0	1.3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	29.6	70.4	0.0	51.4	0.0	48.6	0.0	1.1
	1억 원~5억 원 미만	219	13.7	86.3	10.9	43.9	9.7	34.4	1.2	1.3
	5억 원 이상	101	12.1	87.9	1.1	32.8	9.6	56.3	0.3	1.6

주: 업종 전환 이유는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업종 전환 비율은 13.7%로 나타남. 기타 외국식(28.1%)과 일식(15.0%)의 업종 전환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임.
- 지역별로는 충청권(34.8%)과 경북권(17.1%), 호남권(13.8%) 등의 순서로 업종 전환 비율이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 1억 원~5억 원 미만인 일반음식점의 업종 전환 비율이 15.1%로 높게 나타남.

〈표 3-33-3〉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외식업 종사 이후 업종 전환 경험 및 이유(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전환 경험		전환 이유(Base=전환 경험 "있음")						전환 횟수	
		있음	없음	구인의 어려움	영업이익 감소	제도적 규제	경쟁 심화	권리금 수취	기타	평균	
전체	1,225	13.7	86.3	10.4	53.8	7.5	26.1	0.9	1.2	1.1	
일반 음식점	한식	894	13.8	86.2	10.4	53.9	7.2	26.1	0.9	1.5	1.1
	중식	135	10.3	89.7	14.3	56.4	12.1	17.2	0.0	0.0	1.2
	일식	88	15.0	85.0	7.8	48.1	10.0	34.0	0.0	0.0	1.0
	서양식	72	13.6	86.4	3.3	73.6	4.5	14.3	4.2	0.0	1.0
	기타 외국식	36	28.1	71.9	17.0	25.4	5.3	47.8	4.5	0.0	1.2
지역	서울권	173	6.9	93.1	19.4	31.9	3.9	43.6	1.3	0.0	1.2
	수도권	173	3.8	96.2	0.9	48.0	21.6	29.5	0.0	0.0	1.0
	충청권	261	34.8	65.2	11.7	58.0	5.2	23.0	1.8	0.3	1.1
	호남권	231	13.8	86.2	1.6	66.2	3.1	24.4	0.0	4.6	1.4
	경남권	222	0.7	99.3	23.5	50.8	0.0	25.8	0.0	0.0	1.0
	경북권	165	17.1	82.9	16.6	35.3	19.3	28.9	0.0	0.0	1.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33	0.0	100.0	0.0	0.0	0.0	0.0	0.0	0.0	-
	5천만 원~1억 원 미만	141	11.7	88.3	1.7	65.7	2.2	26.9	0.0	3.4	1.2
	1억 원~5억 원 미만	909	15.1	84.9	12.0	51.4	7.9	26.6	1.1	0.9	1.1
	5억 원 이상	142	11.0	89.0	5.7	62.4	11.0	19.0	0.0	1.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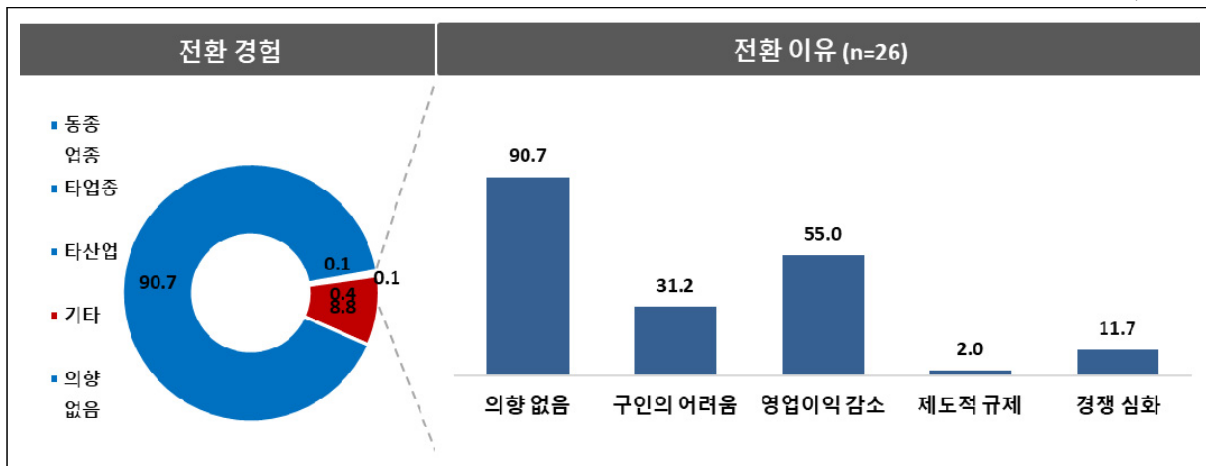
주: 업종 전환 이유는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13) 2년 이내 업종 전환 의향 및 이유

- 일반음식점의 향후 2년 이내 업종 전환 의향 및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전환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중이 0.6%로 나타남. 전환 의향 이유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감소(55.0%), 구인의 어려움(31.2%), 경쟁 심화(11.7%) 등으로 조사됨.

〈그림 3-32〉 일반음식점: 업종 전환 의향 및 이유

(단위: %)



주: 전환 의향 이유는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 일반음식점의 업종별로는 기타 외국식(6.3%), 서양식(1.7%), 일식(0.7%) 등의 순서로 업종 전환 의향이 높으며, 지역별로는 충청권(2.3%)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운영 형태별로는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업종 전환 의향이 0.5%로 나타나 비프랜차이즈 업체(0.6%)보다 낮은 수준임.
-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 원~5억 원 미만 일반음식점의 업종 전환 의향이 0.6%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5억 원 이상 업체는 0.3%가 업종 전환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 전환 의향 이유에 대해서 업종별로 살펴보면, 한식(57.5%), 서양식(66.7%), 기타 서양식(45.0%)은 영업이익 감소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고, 일식(66.7%)은 경쟁 심화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표 3-34-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업종 전환 의향 및 이유(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전환 의향					전환 의향 이유 (Base=전환 의향 여부 “있음”)			
			동일 업종	타 업종	타 산업	기타*	의향 없음	구인의 어려움	영업 이익 감소	제도적 규제	경쟁 심화
전체		1,556	0.1	0.1	0.4	8.8	90.7	31.2	55.0	2.0	11.7
일반 음식점	한식	1,091	0.0	0.1	0.3	8.7	90.8	36.1	57.5	0.0	6.3
	중식	158	0.0	0.0	0.0	7.6	92.4	0.0	0.0	0.0	0.0
	일식	117	0.7	0.0	0.0	11.9	87.4	0.0	33.3	0.0	66.7
	서양식	118	0.0	0.7	1.0	5.7	92.5	33.3	66.7	0.0	0.0
	기타 외국식	72	0.0	0.0	6.3	16.1	77.7	23.4	45.0	11.7	19.9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331	0.0	0.0	0.5	7.8	91.7	23.4	45.0	11.7	19.9
	비프랜차이즈	1,225	0.1	0.2	0.3	9.0	90.4	32.9	57.1	0.0	10.1
지역	서울권	212	0.0	0.0	0.0	4.2	95.8	0.0	0.0	0.0	0.0
	수도권	257	0.0	0.0	1.0	5.9	93.2	26.5	51.7	8.1	13.7
	충청권	308	0.4	0.8	1.1	12.5	85.2	32.8	56.1	0.0	11.1
	호남권	260	0.0	0.0	0.0	6.9	93.1	0.0	0.0	0.0	0.0
	경남권	328	0.0	0.0	0.0	12.9	87.1	0.0	0.0	0.0	0.0
	경북권	191	0.0	0.0	0.0	6.4	93.6	0.0	0.0	0.0	0.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33	0.0	0.0	0.0	26.6	73.4	0.0	0.0	0.0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152	0.0	0.0	0.5	11.9	87.6	33.3	66.7	0.0	0.0
	1억 원~5억 원 미만	1,128	0.0	0.2	0.4	7.8	91.6	33.2	55.2	2.4	9.2
	5억 원 이상	243	0.3	0.0	0.0	7.1	92.6	0.0	33.3	0.0	66.7

주 1) 전환 의향 이유는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2) 전환 의향 기타는 ‘일을 아예 그만 둘 예정임’, ‘잘 모르겠음’, ‘기타’를 포함한 값임.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업종 전환 의향은 0.5%로 나타났으며, 전환 의향 이유는 영업이익 감소(45.0%)인 것으로 조사됨. 업종별로는 기타 외국식의 업종 전환 의향이 13.5%로 가장 높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2.3%),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 원~5억 원 미만(0.7%)에서 업종 전환 의향이 높음.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업종 전환 의향은 기타 외국식에서 영업이익 감소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표 3-34-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업종 전환 의향 및 이유(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전환 의향					전환 의향 이유 (Base=전환 의향 여부 "있음")			
		동일 업종	타 업종	타 산업	기타	의향 없음	구인의 어려움	영업 이익 감소	제도적 규제	경쟁 심화
전체	331	0.5	-	-	7.8	91.7	23.4	45.0	11.7	19.9
일반 음식점	한식	197	0.0	-	-	6.4	93.6	0.0	0.0	0.0
	중식	23	0.0	-	-	5.6	94.4	0.0	0.0	0.0
	일식	29	0.0	-	-	21.0	79.0	0.0	0.0	0.0
	서양식	46	0.0	-	-	5.3	94.7	0.0	0.0	0.0
	기타 외국식	36	13.5	-	-	23.6	62.9	23.4	45.0	11.7
지역	서울권	39	0.0	-	-	12.4	87.6	0.0	0.0	0.0
	수도권	84	2.3	-	-	5.5	92.2	23.4	45.0	11.7
	충청권	47	0.0	-	-	4.6	95.4	0.0	0.0	0.0
	호남권	29	0.0	-	-	0.0	100.0	0.0	0.0	0.0
	경남권	106	0.0	-	-	13.0	87.0	0.0	0.0	0.0
	경북권	26	0.0	-	-	0.0	100.0	0.0	0.0	0.0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	0.0	-	-	12.0	88.0	0.0	0.0	0.0
	1억 원~5억 원 미만	219	0.7	-	-	7.2	92.0	23.4	45.0	11.7
	5억 원 이상	101	0.0	-	-	9.1	90.9	0.0	0.0	0.0

주: 전환 의향 이유는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업종 전환 의향은 0.6%로 나타남. 전환 의향 이유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감소(57.1%), 구인의 어려움(32.9%), 경쟁 심화(10.1%) 등으로 조사됨. 업종별로는 서양식(2.6%)의 업종 전환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충청권(2.6%)의 업종 전환 의향이 비교적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 원~5억 원 미만 업체(0.6%)의 업종 전환 의향이 높은 수준임.

〈표 3-34-3〉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업종 전환 의향 및 이유(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전환 의향					전환 의향 이유 (Base=전환 의향 여부 “있음”)			
			동일 업종	타 업종	타 산업	기타	의향 없음	구인의 어려움	영업 이익 감소	제도적 규제	경쟁 심화
전체		1,225	0.1	0.2	0.3	9.0	90.4	32.9	57.1	-	10.1
일반 음식점	한식	894	0.1	0.2	0.3	9.2	90.3	36.1	57.5	-	6.3
	중식	135	0.0	0.0	0.0	7.9	92.1	0.0	0.0	-	0.0
	일식	88	0.9	0.0	0.0	9.6	89.5	0.0	33.3	-	66.7
	서양식	72	0.0	1.1	1.5	5.9	91.4	33.3	66.7	-	0.0
	기타 외국식	36	0.0	0.0	0.0	9.6	90.4	0.0	0.0	-	0.0
지역	서울권	173	0.0	0.0	0.0	3.1	96.9	0.0	0.0	-	0.0
	수도권	173	0.0	0.0	0.4	6.1	93.5	33.3	66.7	-	0.0
	충청권	261	0.4	0.9	1.3	13.8	83.6	32.8	56.1	-	11.1
	호남권	231	0.0	0.0	0.0	7.5	92.5	0.0	0.0	-	0.0
	경남권	222	0.0	0.0	0.0	12.9	87.1	0.0	0.0	-	0.0
	경북권	165	0.0	0.0	0.0	7.2	92.8	0.0	0.0	-	0.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33	0.0	0.0	0.0	26.6	73.4	0.0	0.0	-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141	0.0	0.0	0.5	11.9	87.6	33.3	66.7	-	0.0
	1억 원~5억 원 미만	909	0.1	0.2	0.3	7.9	91.5	35.7	57.8	-	6.5
	5억 원 이상	142	0.5	0.0	0.0	6.0	93.5	0.0	33.3	-	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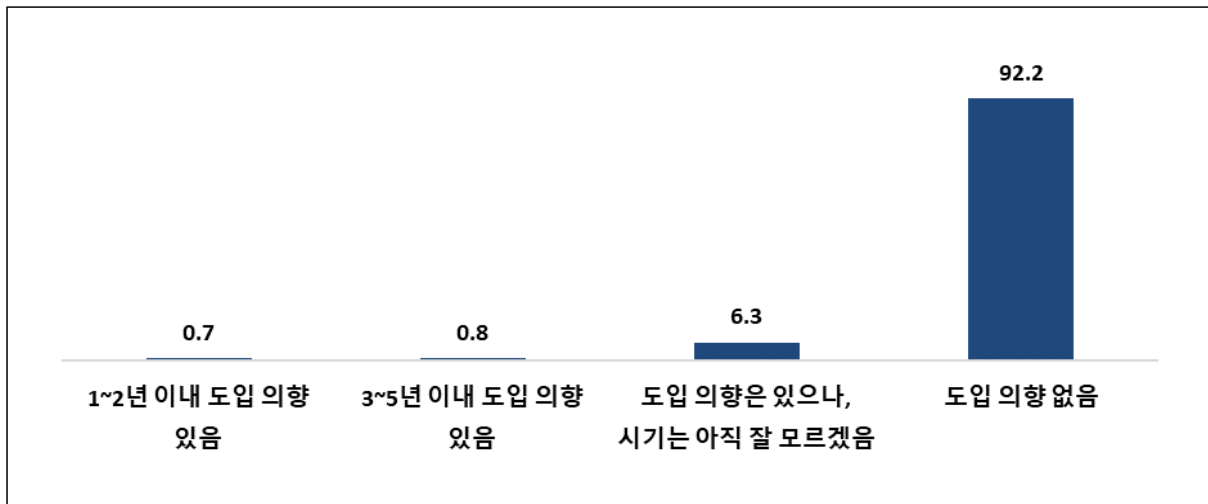
주: 전환 의향 이유는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14) 향후 로봇 도입 의향

- 일반음식점의 향후 로봇 도입 의향을 조사한 결과, ‘도입 의향 없음(92.2%)’, ‘도입 의향은 있으나, 시기는 아직 잘 모르겠음(6.3%)’, ‘3~5년 이내 도입 의향 있음(0.8%)’, ‘1~2년 이내 도입 의향 있음(0.7%)’의 순서로 나타남.

〈그림 3-33〉 일반음식점: 향후 로봇 도입 의향

(단위: %)



- 일반음식점의 향후 로봇 도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음식점 업종은 기타 외국식(24.5%)임.
- 지역별로는 충청권의 도입 의향 없음이 9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호남권(95.2%), 경북권(9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이상의 도입 의향 없음이 100.0%, 5천만 원~1억 원 미만(99.3%), 1억 원~5억 원 미만(91.7%), 5억 원 이상(85.4%) 순서로 조사됨.

〈표 3-35-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로봇 도입 의향(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1~2년 이내 도입 의향 있음	3~5년 이내 도입 의향 있음	도입 의향은 있으나, 시기는 아직 잘 모르겠음	도입 의향 없음
전체			1,556	0.7	0.8	6.3	92.2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1,091	0.6	0.7	6.1	92.5
		중식	158	0.0	0.0	7.1	92.9
		일식	117	0.8	0.0	4.9	94.3
		서양식	118	0.0	2.1	9.1	88.8
		기타 외국식	72	8.9	8.1	7.5	75.5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331	0.6	2.7	7.1	89.7
	비프랜차이즈		1,225	0.7	0.4	6.1	92.7
지역	서울권		212	0.3	1.3	13.6	84.8
	수도권		257	2.4	4.3	3.2	90.1
	충청권		308	0.2	0.0	1.7	98.0
	호남권		260	1.1	0.0	3.7	95.2
	경남권		328	0.0	0.0	10.2	89.8
	경북권		191	0.5	0.0	6.6	92.9
매출 액	5천만 원 미만		33	0.0	0.0	0.0	10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152	0.0	0.0	0.7	99.3
	1억 원~5억 원 미만		1,128	0.8	1.0	6.4	91.7
	5억 원 이상		243	0.6	0.4	13.6	85.4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향후 로봇 도입 의향은 기타 외국식이 33.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서울권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향후 로봇 도입 의향이 31.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도권 (14.5%)이 높게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인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향후 로봇 도입 의향이 13.4%로 파악됨.

〈표 3-35-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로봇 도입 의향(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1~2년 이내 도입 의향 있음	3~5년 이내 도입 의향 있음	도입 의향은 있으나, 시기는 아직 잘 모르겠음	도입 의향 없음
전체			331	0.6	2.7	7.1	89.7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197	0.0	2.5	7.2	90.3
		중식	23	0.0	0.0	10.3	89.7
		일식	29	0.0	0.0	0.0	100.0
		서양식	46	0.0	3.1	8.8	88.1
		기타 외국식	36	14.0	12.8	6.5	66.7
지역	서울권		39	0.0	5.7	25.6	68.7
	수도권		84	2.4	9.5	2.6	85.5
	충청권		47	0.0	0.0	1.6	98.4
	호남권		29	0.0	0.0	0.2	99.8
	경남권		106	0.0	0.0	9.1	90.9
	경북권		26	0.0	0.0	9.8	90.2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	0.0	0.0	0.0	100.0
	1억 원~5억 원 미만		219	0.7	3.5	5.8	90.0
	5억 원 이상		101	0.0	0.1	13.3	86.6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업종별로 향후 로봇 도입 의향은 기타 외국식이 16.9%로 다른 업종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권(13.0%), 경남권(10.7%), 수도권(8.1%) 등의 순서로 파악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15.2%), 1억 원~5억 원 미만(7.9%) 등의 순서로 조사됨.

〈표 3-35-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로봇 도입 의향(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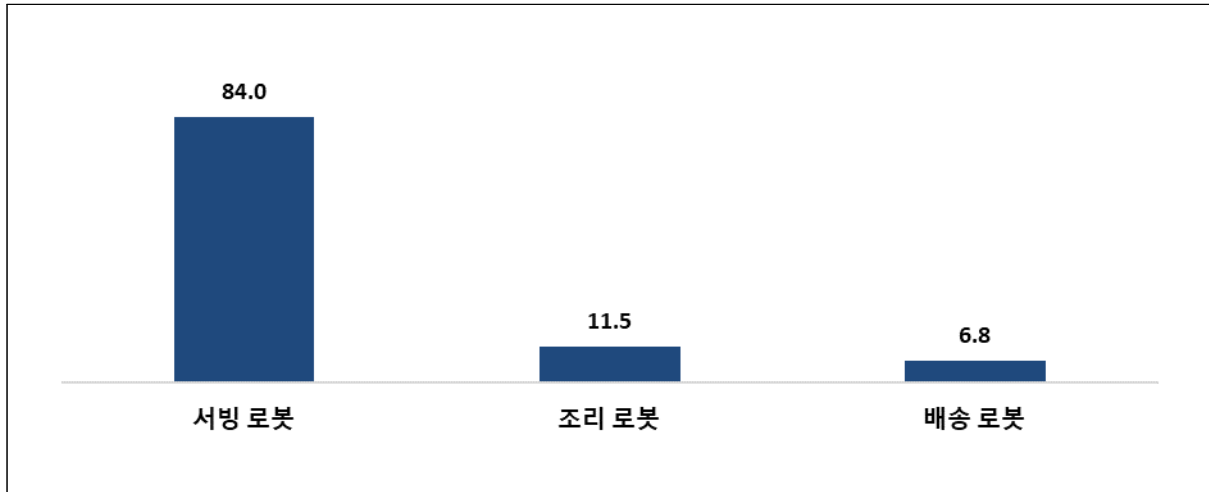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2년 이내 도입 의향 있음	3~5년 이내 도입 의향 있음	도입 의향은 있으나, 시기는 아직 잘 모르겠음	도입 의향 없음
전체			1,225	0.7	0.4	6.1	92.7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894	0.8	0.3	5.9	93.0
		중식	135	0.0	0.0	6.7	93.3
		일식	88	1.0	0.0	6.2	92.8
		서양식	72	0.0	1.5	9.3	89.2
		기타 외국식	36	4.5	4.1	8.3	83.0
지역	서울권		173	0.3	0.7	12.0	87.0
	수도권		173	2.5	2.2	3.4	91.9
	충청권		261	0.3	0.0	1.8	98.0
	호남권		231	1.2	0.0	4.0	94.8
	경남권		222	0.0	0.0	10.7	89.3
	경북권		165	0.6	0.0	6.2	93.2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33	0.0	0.0	0.0	10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141	0.0	0.0	0.7	99.3
	1억 원~5억 원 미만		909	0.9	0.4	6.6	92.1
	5억 원 이상		142	1.0	0.5	13.7	84.8

(15) 향후 도입 로봇 종류

- 일반음식점의 향후 도입 로봇 종류에 대해서는 서빙 로봇(84.0%), 조리 로봇(11.5%), 배송 로봇(6.8%)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4〉 일반음식점: 향후 도입 로봇 종류

(단위: %)



- 일반음식점의 향후 도입 로봇 종류에 대해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중식은 서빙 로봇(100.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기타 외국식은 조리 로봇(26.6%)이, 서양식은 배송 로봇(27.1%)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서빙 로봇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 구간(12.3%)에서 타 매출액 규모에 비해 조리 로봇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36-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도입 로봇 종류(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서빙 로봇	조리 로봇	배송 로봇
전체			158	84.0	11.5	6.8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103	85.6	10.4	6.1
		중식	12	100.0	0.0	0.0
		일식	7	86.1	13.9	0.0
		서양식	19	55.5	24.7	27.1
		기타 외국식	17	73.4	26.6	5.8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40	76.3	12.5	11.2
	비프랜차이즈		118	86.2	11.2	5.6
지역	서울권		50	74.2	19.6	11.1
	수도권		33	90.7	9.3	0.0
	충청권		10	69.6	18.7	11.7
	호남권		15	100.0	5.5	0.0
	경남권		34	89.6	5.2	5.2
	경북권		16	72.9	13.7	15.5
매출 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2	100.0	0.0	0.0
	1억 원~5억 원 미만		116	83.3	11.4	7.3
	5억 원 이상		40	86.2	12.3	5.0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향후 도입 로봇 종류는 서빙 로봇(76.3%), 조리 로봇(12.5%), 배송 로봇(11.2%)으로 나타남.
- 대부분 업종에서 서빙 로봇을 향후 도입할 것으로 조사되며, 서양식은 배송 로봇이 44.8%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의 규모에서 서빙 로봇이 79.3%로 가장 높음.

〈표 3-36-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도입 로봇 종류(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서빙 로봇	조리 로봇	배송 로봇
전체			40	76.3	12.5	11.2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20	81.3	9.1	9.7
		중식	2	100.0	0.0	0.0
		서양식	8	31.6	23.6	44.8
		기타 외국식	10	70.0	30.0	0.0
지역	서울권		12	77.0	7.0	16.0
	수도권		16	88.1	11.9	0.0
	충청권		1	0.0	100.0	0.0
	호남권		1	100.0	0.0	0.0
	경남권		9	85.7	14.3	0.0
	경북권		1	0.0	0.0	100.0
매출액	1억 원~5억 원 미만		25	75.1	8.9	16.0
	5억 원 이상		15	79.3	20.7	0.0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향후 도입 로봇 종류는 서빙 로봇(86.2%), 조리 로봇(11.2%), 배송 로봇(5.6%)의 순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서빙 로봇이 가장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 원~5억 원 미만(12.0%)에서 조리 로봇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36-3〉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도입 로봇 종류(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서빙 로봇	조리 로봇	배송 로봇
전체			118	86.2	11.2	5.6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83	86.6	10.8	5.2
		중식	10	100.0	0.0	0.0
		일식	7	86.1	13.9	0.0
		서양식	11	65.4	25.1	19.7
		기타 외국식	7	79.3	20.7	15.6
지역	서울권		38	73.5	22.6	10.0
	수도권		17	92.5	7.5	0.0
	충청권		9	78.4	8.4	13.2
	호남권		14	100.0	5.5	0.0
	경남권		25	91.1	1.8	7.1
	경북권		15	84.2	15.8	2.4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2	100.0	0.0	0.0
	1억 원~5억 원 미만		91	85.3	12.0	5.3
	5억 원 이상		25	89.4	8.3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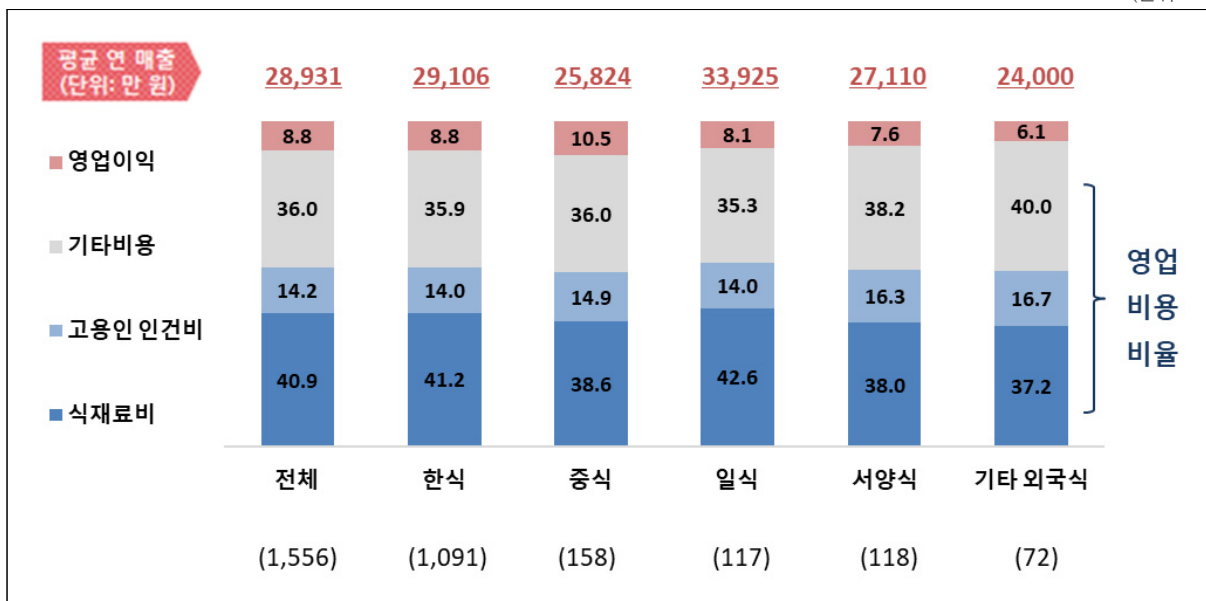
2) 사업실적

(1) 업종 분류별 사업실적

- 일반음식점의 사업실적에 대해서 분석함. 전체 일반음식점의 평균 연 매출액은 약 2억 8천 9백만 원이며, 영업이익률은 8.8%, 식재료비는 40.9%, 고용인 인건비는 14.2%, 기타비용은 36.0%로 나타남.

〈그림 3-35〉 일반음식점: 업종 분류별 사업실적

(단위: %)



- 업종별로 한식의 경우 매출액 규모는 약 2억 9천 1백만 원으로, 영업이익률 8.8%, 식재료비 41.2%, 고용인 인건비 14.0%, 기타비용 35.9%로 나타남.
- 중식 매출액은 약 2억 5천 8백만 원이며, 영업이익률 10.5%, 식재료비 38.6%, 고용인 인건비 14.9%, 기타비용 36.0%인 것으로 파악됨.
- 일식의 경우 매출액은 약 3억 3천 9백만 원이며, 영업이익률 8.1%, 식재료비 42.6%, 고용인 인건비 14.0%, 기타비용 35.3%로 조사됨.
- 서양식 매출액은 약 2억 7천 1백만 원이며, 영업이익률 7.6%, 식재료비 38.0%, 고용인 인건비 16.3%, 기타비용 38.2%임.
- 기타 외국식은 매출액이 약 2억 4천만 원이며, 영업이익률 6.1%, 식재료비 37.2%, 고용인 인건비 16.7%, 기타비용 40.0%로 나타남.

〈표 3-37-1〉 일반음식점: 업종별 사업실적(전체)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1,556)		(1,091)		(158)		(117)		(118)		(72)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1. 매출액	28,931	100.0	29,106	100.0	25,824	100.0	33,925	100.0	27,110	100.0	24,000	100.0
2. 영업비용	26,378	91.2	26,535	91.2	23,107	89.5	31,170	91.9	25,061	92.4	22,538	93.9
2-1. 식재료비	11,839	40.9	11,991	41.2	9,972	38.6	14,449	42.6	10,301	38.0	8,936	37.2
2-2. 고용인 인건비	4,116	14.2	4,088	14.0	3,844	14.9	4,760	14.0	4,415	16.3	4,009	16.7
2-3. 임차료	2,063	7.1	2,006	6.9	1,675	6.5	3,097	9.1	2,433	9.0	2,566	10.7
2-4. 세금	1,763	6.1	1,773	6.1	1,539	6.0	1,900	5.6	1,908	7.0	1,531	6.4
2-5. 가족 종사자 인건비	1,069	3.7	1,051	3.6	1,349	5.2	1,219	3.6	817	3.0	782	3.3
2-6. 대표자 인건비	3,827	13.2	3,933	13.5	3,182	12.3	3,886	11.5	3,223	11.9	3,027	12.6
2-7. 기타	1,701	5.9	1,693	5.8	1,545	6.0	1,860	5.5	1,963	7.2	1,687	7.0
3. 영업이익	2,553	8.8	2,571	8.8	2,718	10.5	2,755	8.1	2,050	7.6	1,462	6.1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매출액은 한식이 약 4억 2천 1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기타 외국식이 약 2억 5천 2백만 원으로 비교적 낮음. 영업이익률은 중식(10.6%)과 일식(9.8%)이 높게 나타난 반면, 서양식(6.7%)과 기타 외국식(1.3%)은 낮음.
- 매출액 대비 식재료 비중은 일식(45.2%)과 한식(42.8%)이 높은 반면, 기타 외국식(38.8%)과 중식(36.3%)은 상대적으로 낮음. 고용인 인건비 비중은 중식(20.9%), 서양식(20.3%)이 높고, 일식(13.4%)이 비교적 낮음.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은 기타 외국식이 13.3%로 높음.

〈표 3-37-2〉 일반음식점: 업종별 사업실적(프랜차이즈)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331)		(197)		(23)		(29)		(46)		(36)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1. 매출액	40,368	100.0	42,142	100.0	39,117	100.0	40,307	100.0	32,159	100.0	25,223	100.0
2. 영업비용	37,227	92.2	38,880	92.3	34,957	89.4	36,343	90.2	30,018	93.3	24,888	98.7
2-1. 식재료비	17,074	42.3	18,045	42.8	14,203	36.3	18,230	45.2	12,677	39.4	9,796	38.8
2-2. 고용인 인건비	6,127	15.2	6,066	14.4	8,174	20.9	5,397	13.4	6,533	20.3	4,781	19.0
2-3. 임차료	3,115	7.7	3,092	7.3	2,242	5.7	3,767	9.3	3,323	10.3	3,349	13.3
2-4. 세금	2,277	5.6	2,407	5.7	2,355	6.0	1,442	3.6	1,896	5.9	1,698	6.7
2-5. 가족 종사자 인건비	1,309	3.2	1,365	3.2	1,832	4.7	1,115	2.8	698	2.2	1,071	4.2
2-6. 대표자 인건비	5,051	12.5	5,545	13.2	4,062	10.4	4,084	10.1	3,034	9.4	2,511	10.0
2-7. 기타	2,273	5.6	2,360	5.6	2,088	5.3	2,308	5.7	1,856	5.8	1,682	6.7
3. 영업이익	3,141	7.8	3,262	7.7	4,160	10.6	3,964	9.8	2,141	6.7	335	1.3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매출액은 일식이 약 3억 2천 3백만 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기타 외국식은 약 2억 2천 9백만 원으로 비교적 낮음. 영업이익률은 기타 외국식이 10.6%로 가장 높은 반면, 일식(7.6%)은 상대적으로 낮음.
-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비중은 일식이 41.8%로 가장 높은 반면, 기타 외국식은 35.7%로 가장 낮음. 매출액 대비 고용인 인건비 비중은 중식과 서양식이 13.5%로 가장 낮은 데 비해, 기타 외국식(14.6%)은 높은 편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은 일식(9.1%)이 가장 높은 반면, 한식과 중식은 각각 6.2%로 업종 가운데 제일 낮은 것으로 파악됨.

〈표 3-37-3〉 일반음식점: 업종별 사업실적(비프랜차이즈)

(단위: 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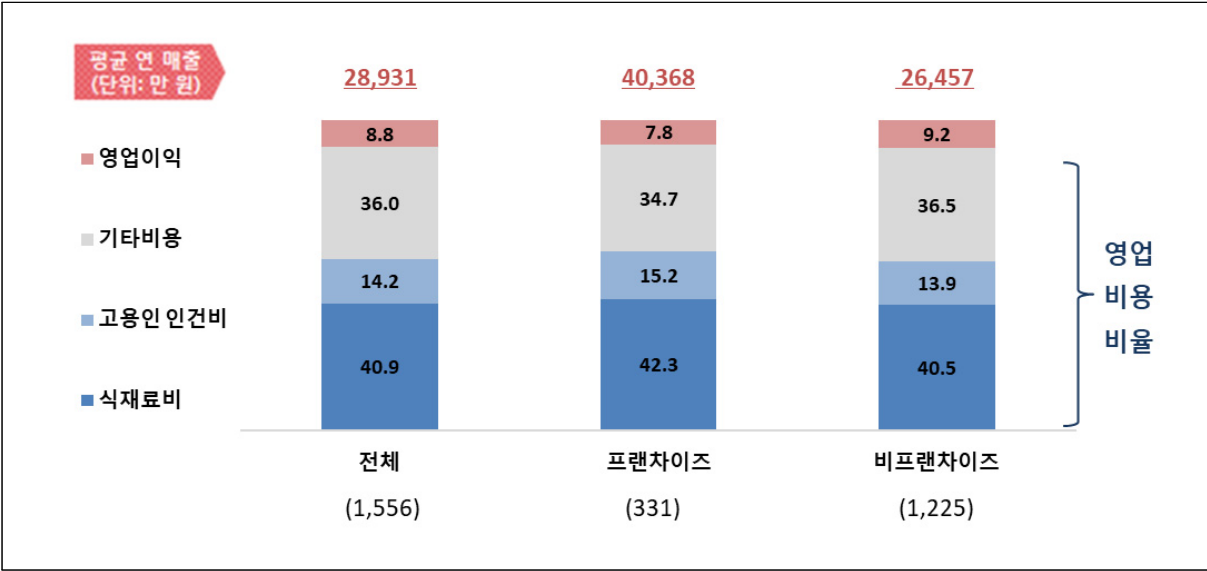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1,225)		(894)		(135)		(88)		(72)		(36)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1. 매출액	26,457	100.0	26,476	100.0	24,000	100.0	32,331	100.0	24,465	100.0	22,940	100.0
2. 영업비용	24,031	90.8	24,045	90.8	21,480	89.5	29,878	92.4	22,463	91.8	20,503	89.4
2-1. 식재료비	10,706	40.5	10,769	40.7	9,392	39.1	13,504	41.8	9,057	37.0	8,190	35.7
2-2. 고용인 인건비	3,681	13.9	3,689	13.9	3,249	13.5	4,601	14.2	3,306	13.5	3,340	14.6
2-3. 임차료	1,836	6.9	1,787	6.8	1,597	6.7	2,929	9.1	1,967	8.0	1,889	8.2
2-4. 세금	1,652	6.2	1,645	6.2	1,427	5.9	2,014	6.2	1,915	7.8	1,387	6.0
2-5. 가족 종사자 인건비	1,017	3.8	987	3.7	1,283	5.3	1,245	3.9	879	3.6	532	2.3
2-6. 대표자 인건비	3,562	13.5	3,608	13.6	3,061	12.8	3,836	11.9	3,321	13.6	3,474	15.1
2-7. 기타	1,577	6.0	1,558	5.9	1,471	6.1	1,748	5.4	2,018	8.2	1,691	7.4
3. 영업이익	2,425	9.2	2,432	9.2	2,520	10.5	2,452	7.6	2,002	8.2	2,437	10.6

(2) 운영 형태별 사업실적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매출액은 약 4억 3백만 원이고, 영업비용은 약 3억 7천 2백만 원(92.2%), 영업이익은 약 3천 1백만 원(7.8%)임. 매출액 중 식재료비 비중은 42.3%이고, 고용인 인건비 비중은 15.2%로 조사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매출액은 약 2억 6천 5백만 원이고, 영업비용은 약 2억 4천만 원(90.8%), 영업이익은 약 2천 4백만 원(9.2%)으로 나타남. 매출액 중 식재료비 비중은 40.5%이고, 고용인 인건비 비중은 13.9%로 파악됨.

〈그림 3-36〉 일반음식점: 운영 형태별 사업실적

(단위: %)



〈표 3-38〉 일반음식점: 운영 형태별 사업실적(전체)

(단위: 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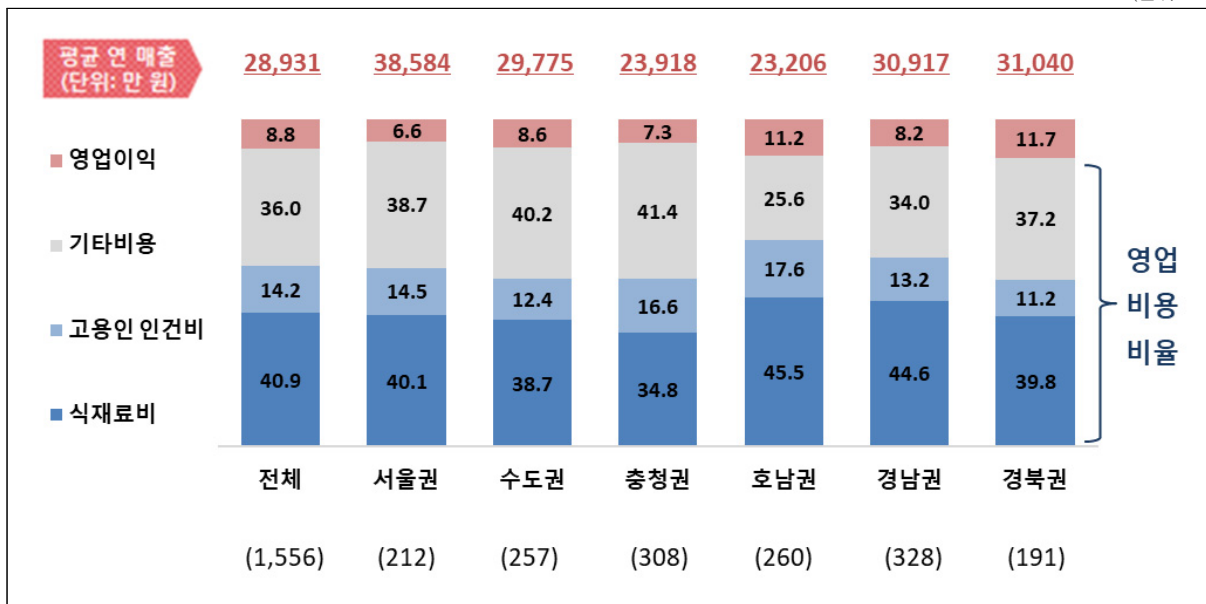
구분	전체 (1,556)		프랜차이즈 (331)		비프랜차이즈 (1,225)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1. 매출액	28,931	100.0	40,368	100.0	26,457	100.0
2. 영업비용	26,378	91.2	37,227	92.2	24,031	90.8
2-1. 식재료비	11,839	40.9	17,074	42.3	10,706	40.5
2-2. 고용인 인건비	4,116	14.2	6,127	15.2	3,681	13.9
2-3. 임차료	2,063	7.1	3,115	7.7	1,836	6.9
2-4. 세금	1,763	6.1	2,277	5.6	1,652	6.2
2-5. 가족 종사자 인건비	1,069	3.7	1,309	3.2	1,017	3.8
2-6. 대표자 인건비	3,827	13.2	5,051	12.5	3,562	13.5
2-7. 기타	1,701	5.9	2,273	5.6	1,577	6.0
3. 영업이익	2,553	8.8	3,141	7.8	2,425	9.2

(3) 지역별 사업실적

- 일반음식점의 지역별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서울권(약 3억 8천 6백만 원), 경북권(약 3억 1천 만 원), 경남권(약 3억 9백만 원) 등의 순이며, 영업이익률은 경북권(11.7%), 호남권(11.2%), 수도권(8.6%) 등의 순서로 높음. 식재료비 비중은 호남권(45.5%)과 경남권(44.6%)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고용인 인건비 비중은 호남권(17.6%)과 충청권(16.6%)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그림 3-37〉 일반음식점: 지역별 사업실적

(단위: %)



〈표 3-39-1〉 일반음식점: 지역별 사업실적(전체)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서울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	
	(1,556)		(212)		(257)		(308)		(260)		(328)		(191)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1. 매출액	28,931	100.0	38,584	100.0	29,775	100.0	23,918	100.0	23,206	100.0	30,917	100.0	31,040	100.0
2. 영업비용	26,378	91.2	36,029	93.4	27,200	91.4	22,177	92.7	20,601	88.8	28,373	91.8	27,393	88.3
2-1. 식재료비	11,839	40.9	15,485	40.1	11,527	38.7	8,316	34.8	10,565	45.5	13,777	44.6	12,364	39.8
2-2. 고용인 인건비	4,116	14.2	5,605	14.5	3,702	12.4	3,960	16.6	4,090	17.6	4,089	13.2	3,485	11.2
2-3. 임차료	2,063	7.1	3,229	8.4	2,534	8.5	1,869	7.8	1,396	6.0	2,157	7.0	1,522	4.9
2-4. 세금	1,763	6.1	2,496	6.5	1,944	6.5	2,029	8.5	1,395	6.0	1,509	4.9	1,455	4.7
2-5. 가족 종사자 인건비	1,069	3.7	1,541	4.0	1,506	5.1	411	1.7	408	1.8	1,004	3.2	2,162	7.0
2-6. 대표자 인건비	3,827	13.2	5,214	13.5	3,967	13.3	3,772	15.8	2,157	9.3	4,002	12.9	4,565	14.7
2-7. 기타	1,701	5.9	2,459	6.4	2,020	6.8	1,820	7.6	590	2.5	1,835	5.9	1,840	5.9
3. 영업이익	2,553	8.8	2,555	6.6	2,575	8.6	1,741	7.3	2,604	11.2	2,544	8.2	3,647	11.7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지역별 매출액은 서울권(약 7억 1천 9백만 원), 경남권(약 4억 2천 4백만 원) 등의 순이며, 영업이익률은 호남권(11.8%), 경북권(11.4%) 등의 순서로 높음. 식재료비 비중은 경남권(45.3%), 서울권(43.5%), 호남권(43.0%), 경북권(39.8%) 등의 순서로 높으며, 고용인 인건비 비중은 호남권(22.8%)과 충청권(17.6%)이 비교적 높음.

〈표 3-39-2〉 일반음식점: 지역별 사업실적(프랜차이즈)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서울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	
	(331)		(39)		(84)		(47)		(29)		(106)		(26)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1. 매출액	40,368	100.0	71,914	100.0	37,829	100.0	29,062	100.0	28,538	100.0	42,397	100.0	40,032	100.0
2. 영업비용	37,227	92.2	68,332	95.0	34,601	91.5	27,383	94.2	25,172	88.2	39,176	92.4	35,486	88.6
2-1. 식재료비	17,074	42.3	31,298	43.5	14,956	39.5	10,658	36.7	12,282	43.0	19,214	45.3	15,926	39.8
2-2. 고용인 인건비	6,127	15.2	10,903	15.2	4,393	11.6	5,104	17.6	6,509	22.8	6,610	15.6	5,556	13.9
2-3. 임차료	3,115	7.7	5,306	7.4	2,760	7.3	3,097	10.7	2,154	7.5	3,206	7.6	2,572	6.4
2-4. 세금	2,277	5.6	4,189	5.8	2,369	6.3	2,185	7.5	1,481	5.2	2,144	5.1	1,709	4.3
2-5. 가족 종사자 인건비	1,309	3.2	2,477	3.4	1,743	4.6	447	1.5	126	0.4	1,045	2.5	2,977	7.4
2-6. 대표자 인건비	5,051	12.5	9,698	13.5	5,802	15.3	4,186	14.4	1,786	6.3	4,790	11.3	4,476	11.2
2-7. 기타	2,273	5.6	4,461	6.2	2,577	6.8	1,706	5.9	834	2.9	2,166	5.1	2,270	5.7
3. 영업이익	3,141	7.8	3,582	5.0	3,228	8.5	1,679	5.8	3,366	11.8	3,222	7.6	4,546	11.4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지역별 매출액은 서울권(약 3억 4천 1백만 원), 경북권(약 2억 9천 9백만 원) 등의 순서로 높음. 영업이익률은 경북권(11.8%)과 호남권(11.2%), 식재료비 비중은 호남권(45.8%)과 경남권(44.0%), 고용인 인건비 비중은 호남권(17.0%)이 가장 높음.

〈표 3-39-3〉 일반음식점: 지역별 사업실적(비프랜차이즈)

(단위: 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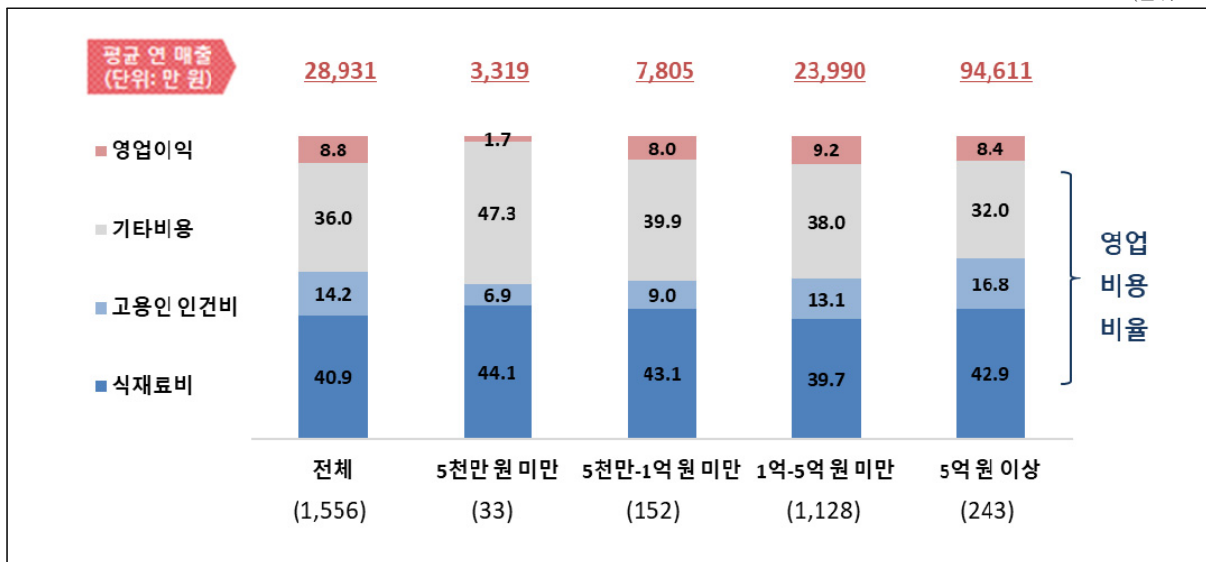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서울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	
	(1,225)		(173)		(173)		(261)		(231)		(222)		(165)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1. 매출액	26,457	100.0	34,122	100.0	26,571	100.0	23,082	100.0	22,731	100.0	26,133	100.0	29,944	100.0
2. 영업비용	24,031	90.8	31,705	92.9	24,257	91.3	21,331	92.4	20,194	88.8	23,871	91.3	26,407	88.2
2-1. 식재료비	10,706	40.5	13,368	39.2	10,163	38.2	7,935	34.4	10,412	45.8	11,511	44.0	11,930	39.8
2-2. 고용인 인건비	3,681	13.9	4,896	14.3	3,427	12.9	3,774	16.4	3,874	17.0	3,038	11.6	3,232	10.8
2-3. 임차료	1,836	6.9	2,951	8.6	2,445	9.2	1,670	7.2	1,329	5.8	1,719	6.6	1,394	4.7
2-4. 세금	1,652	6.2	2,269	6.6	1,775	6.7	2,004	8.7	1,387	6.1	1,245	4.8	1,424	4.8
2-5. 가족 종사자 인건비	1,017	3.8	1,416	4.1	1,411	5.3	405	1.8	433	1.9	987	3.8	2,062	6.9
2-6. 대표자 인건비	3,562	13.5	4,614	13.5	3,237	12.2	3,705	16.1	2,190	9.6	3,674	14.1	4,576	15.3
2-7. 기타	1,577	6.0	2,191	6.4	1,799	6.8	1,838	8.0	568	2.5	1,697	6.5	1,788	6.0
3. 영업이익	2,425	9.2	2,417	7.1	2,314	8.7	1,751	7.6	2,537	11.2	2,262	8.7	3,538	11.8

(4) 매출액 규모별 사업실적

- 일반음식점 가운데, 5천만 원 미만인 업체의 매출액은 약 3천 3백만 원이고, 5천만 원~1억 원 미만은 약 7천 8백만 원, 1억 원~5억 원 미만은 약 2억 4천만 원, 5억 원 이상은 약 9억 4천 6백만 원 수준을 기록함.
- 영업이익률은 1억 원~5억 원 미만 일반음식점이 9.2%로 가장 높고, 이어서 5억 원 이상(8.4%), 5천만 원~1억 원 미만(8.0%), 5천만 원 미만(1.7%)의 순임.
- 고용인 인건비 비중은 5억 원 이상이 16.8%인 반면, 5천만 원 미만은 6.9%로 조사됨. 식재료비 비중은 5천만 원 미만이 44.1%로 가장 높고, 1억 원~5억 원 미만(39.7%)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8〉 일반음식점: 매출액 규모별 사업실적

(단위: %)



〈표 3-40-1〉 일반음식점: 매출액 규모별 사업실적(전체)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1,556)		(33)		(152)		(1,128)		(243)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1. 매출액	28,931	100.0	3,319	100.0	7,805	100.0	23,990	100.0	94,611	100.0
2. 영업비용	26,378	91.2	3,262	98.3	7,181	92.0	21,794	90.8	86,688	91.6
2-1. 식재료비	11,839	40.9	1,465	44.1	3,364	43.1	9,522	39.7	40,591	42.9
2-2. 고용인 인건비	4,116	14.2	227	6.9	702	9.0	3,148	13.1	15,867	16.8
2-3. 임차료	2,063	7.1	453	13.7	794	10.2	1,822	7.6	5,636	6.0
2-4. 세금	1,763	6.1	278	8.4	560	7.2	1,481	6.2	5,518	5.8
2-5. 가족 종사자 인건비	1,069	3.7	150	4.5	347	4.4	1,024	4.3	2,446	2.6
2-6. 대표자 인건비	3,827	13.2	423	12.7	971	12.4	3,359	14.0	11,268	11.9
2-7. 기타	1,701	5.9	266	8.0	442	5.7	1,439	6.0	5,362	5.7
3. 영업이익	2,553	8.8	57	1.7	625	8.0	2,196	9.2	7,922	8.4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영업이익률은 1억 원~5억 원 미만인 8.1%로 가장 높고, 5천만 원~1억 원 미만이 6.7%로 가장 낮게 나타남. 매출액 중 식재료비 비중은 5억 원 이상 업체가 43.9%로 가장 높고, 고용인 인건비 비중은 5억 원 이상(16.6%) 업체, 임차료 비중은 5천만 원~1억 원 미만(21.3%) 업체가 높게 나타남.

〈표 3-40-2〉 일반음식점: 매출액 규모별 사업실적(프랜차이즈)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5천만 원~ 1억 원 미만		1억 원~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331)		(11)		(219)		(101)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1. 매출액	40,368	100.0	8,706	100.0	27,069	100.0	95,646	100.0
2. 영업비용	37,227	92.2	8,120	93.3	24,869	91.9	88,536	92.6
2-1. 식재료비	17,074	42.3	3,221	37.0	11,051	40.8	42,021	43.9
2-2. 고용인 인건비	6,127	15.2	877	10.1	3,760	13.9	15,897	16.6
2-3. 임차료	3,115	7.7	1,859	21.3	2,367	8.7	6,129	6.4
2-4. 세금	2,277	5.6	863	9.9	1,514	5.6	5,377	5.6
2-5. 가족 종사자 인건비	1,309	3.2	159	1.8	1,042	3.8	2,514	2.6
2-6. 대표자 인건비	5,051	12.5	813	9.3	3,567	13.2	11,347	11.9
2-7. 기타	2,273	5.6	329	3.8	1,569	5.8	5,251	5.5
3. 영업이익	3,141	7.8	586	6.7	2,200	8.1	7,110	7.4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영업이익률은 1억 원~5억 원 미만 업체가 9.4%로 가장 높고, 5천만 원 미만 업체는 1.7%로 가장 낮음. 매출액 중 식재료비 비중은 5천만 원 미만(44.1%), 고용인 인건비 비중은 5억 원 이상(16.9%) 업체, 임차료 비중은 5천만 원 미만(13.7%) 업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3-40-3〉 일반음식점: 매출액 규모별 사업실적(비프랜차이즈)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1억 원 미만		1억 원~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1,225)		(33)		(141)		(909)		(142)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1. 매출액	26,457	100.0	3,319	100.0	7,750	100.0	23,313	100.0	94,067	100.0
2. 영업비용	24,031	90.8	3,262	98.3	7,123	91.9	21,118	90.6	85,718	91.1
2-1. 식재료비	10,706	40.5	1,465	44.1	3,373	43.5	9,186	39.4	39,839	42.4
2-2. 고용인 인건비	3,681	13.9	227	6.9	691	8.9	3,013	12.9	15,852	16.9
2-3. 임차료	1,836	6.9	453	13.7	729	9.4	1,702	7.3	5,378	5.7
2-4. 세금	1,652	6.2	278	8.4	542	7.0	1,474	6.3	5,592	5.9
2-5. 가족 종사자 인건비	1,017	3.8	150	4.5	359	4.6	1,020	4.4	2,410	2.6
2-6. 대표자 인건비	3,562	13.5	423	12.7	981	12.7	3,313	14.2	11,227	11.9
2-7. 기타	1,577	6.0	266	8.0	449	5.8	1,410	6.0	5,421	5.8
3. 영업이익	2,425	9.2	57	1.7	627	8.1	2,195	9.4	8,348	8.9

(5) 수익성·생산성 분석

- 일반음식점의 수익성 및 생산성을 분석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8.8%로 나타남.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및 인건비 비율은 72.1%, 종사원당 매출액은 약 8천 5백만 원, 좌석당 매출액은 약 7백만 원, 테이블당 매출액은 약 2천 8백만 원, 평당 매출액은 약 1천 2백만 원으로 조사됨.
-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의 경우 업종별로는 중식(10.5%), 지역별로는 경북권(11.7%)과 호남권(11.2%),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 원~5억 원 미만(9.2%) 업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및 인건비 비율은 업종별로 한식(72.4%)과 일식(71.7%), 지역별로는 호남권(74.2%),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74.2%) 업체에서 가장 높음.
- 종사원당 매출액은 업종별로는 서양식(약 1억 2백만 원), 지역별로는 충청권(약 1억 1천만 원),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약 8천 4백만 원) 업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좌석당 매출액은 업종별로는 서양식(약 1천 1백만 원), 지역별로는 충청권(약 1천만 원),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약 7백만 원) 업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평당 매출액은 업종별로는 서양식(약 1천 5백만 원), 지역별로는 수도권(약 1천 6백만 원),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 업체(약 1천 1백만 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3-41-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수익성·생산성 분석(전체)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매출 대비 식재료 및 인건비 비율	종사원당 매출액	좌석당 매출액	테이블당 매출액	평당 매출액
전체			1,556	8.8	72.1	8,543	739	2,758	1,173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1,091	8.8	72.4	8,543	739	2,758	1,173
		중식	158	10.5	71.0	8,605	711	2,662	1,124
		일식	117	8.1	71.7	7,727	749	2,723	1,486
		서양식	118	7.6	69.2	10,155	1,099	4,155	1,509
		기타 외국식	72	6.1	69.8	7,505	797	2,955	1,084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331	7.8	73.2	6,960	759	2,783	1,263
	비프랜차이즈		1,225	9.2	71.7	9,317	1,060	3,709	1,625
지역	서울권		212	6.6	72.2	8,376	670	2,556	1,075
	수도권		257	8.6	69.5	10,485	977	3,732	1,551
	충청권		308	7.3	68.8	10,992	1,030	3,503	1,346
	호남권		260	11.2	74.2	6,315	498	1,981	739
	경남권		328	8.2	74.0	7,494	588	2,206	1,060
	경북권		191	11.7	72.7	7,872	738	2,707	1,359
매출 액	5천만 원 미만		33	1.7	68.2	9,880	754	3,015	1,094
	5천만 원~1억 원 미만		152	8.0	69.0	2,267	153	607	245
	1억 원~5억 원 미만		1,128	9.2	71.1	4,833	341	1,270	540
	5억 원 이상		243	8.4	74.2	8,413	722	2,693	1,139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7.8%로 나타난 가운데,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및 인건비 비율은 73.2%, 종사원당 매출액은 약 9천 3백만 원, 좌석당 매출액은 약 1천 1백만 원, 테이블당 매출액은 약 3천 7백만 원, 평당 매출액은 약 1천 6백만 원으로 조사됨.
-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의 경우 업종별로는 중식(10.6%), 지역별로는 호남권(11.8%),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 원~5억 원 미만(8.1%) 업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됨.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및 인건비 비율은 업종별로 한식(73.6%), 지역별로는 서울권(75.6%),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75.0%) 업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종사원당 매출액의 업종별로는 서양식(약 1억 6백만 원), 지역별로는 수도권(약 1억 3천 1백만 원),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1억 원 미만(약 1억 7백만 원) 업체에서 가장 높음. 좌석당 매출액은 업종별로는 중식(약 1천 1백만 원), 지역별로는 충청권(약 1천 4백만 원),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1억 원 미만(약 1천 2백만 원) 업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됨.
- 평당 매출액은 업종별로는 서양식(약 2천 2백만 원), 지역별로는 충청권(약 1천 9백만 원),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1억 원 미만 업체(약 1천 7백만 원)에서 가장 높음.

〈표 3-41-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수익성·생산성 분석(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매출 대비 식재료 및 인건비 비율	종사원당 매출액	좌석당 매출액	테이블당 매출액	평당 매출액
전체			331	7.8	73.2	9,317	1,060	3,709	1,625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197	7.7	73.6	9,317	1,060	3,709	1,625
		중식	23	10.6	72.3	9,720	1,114	3,857	1,613
		일식	29	9.8	71.5	7,938	890	3,230	1,871
		서양식	46	6.7	71.3	10,598	1,068	4,228	2,185
		기타 외국식	36	1.3	72.0	6,907	792	2,739	1,279
지역	서울권		39	5.0	75.6	6,595	818	2,796	1,409
	수도권		84	8.5	71.1	13,140	1,358	5,620	1,565
	충청권		47	5.8	70.2	10,361	1,422	4,325	1,860
	호남권		29	11.8	72.5	7,764	580	2,277	912
	경남권		106	7.6	74.7	7,611	1,137	3,382	1,946
	경북권		26	11.4	72.3	8,539	890	3,271	1,679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	6.7	58.2	10,736	1,248	4,954	1,718
	1억 원~5억 원 미만		219	8.1	71.7	4,153	490	1,630	884
	5억 원 이상		101	7.4	75.0	8,365	963	3,244	1,471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9.2%로 나타남.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및 인건비 비율은 71.7%, 종사원당 매출액은 약 8천 4백만 원, 좌석당 매출액은 약 7백만 원, 테이블당 매출액은 약 2천 6백만 원, 평당 매출액은 약 1천 1백만 원으로 조사됨.
-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의 경우 업종별로는 기타 외국식(10.6%), 지역별로는 경북권(11.8%),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 원~5억 원 미만(9.4%) 업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및 인건비 비율은 업종별로는 한식(72.0%), 지역별로는 호남권(74.4%),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73.7%) 업체에서 가장 높음.
- 종사원당 매출액은 업종별로는 일식(약 1억 원), 지역별로는 수도권(약 1억 1천 2백만 원),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약 1억 6천 2백만 원) 업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테이블당 매출액은 업종별로는 일식(약 4천 1백만 원), 지역별로는 서울권(약 3천 5백만 원)과 수도권(약 3천 2백만 원),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약 5천 3백만 원) 업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평당 매출액은 업종별로는 중식(약 1천 4백만 원), 지역별로는 서울권(약 1천 5백만 원),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 업체(약 2천 4백만 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3-41-3〉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수익성·생산성 분석(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매출 대비 식재료 및 인건비 비율	종사원당 매출액	좌석당 매출액	테이블당 매출액	평당 매출액
전체			1,225	9.2	71.7	8,376	670	2,556	1,075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894	9.2	72.0	8,380	631	2,424	1,025
		중식	135	10.5	70.8	7,698	730	2,653	1,434
		일식	88	7.6	71.7	10,044	1,107	4,137	1,340
		서양식	72	8.2	67.7	7,818	799	3,065	981
		기타 외국식	36	10.6	67.7	7,277	708	2,772	1,138
지역	서울권		173	7.1	71.2	10,130	925	3,478	1,549
	수도권		173	8.7	68.6	11,243	872	3,171	1,142
	충청권		261	7.6	68.5	6,079	486	1,937	711
	호남권		231	11.2	74.4	7,484	539	2,100	982
	경남권		222	8.7	73.5	7,594	672	2,466	1,225
	경북권		165	11.8	72.8	9,776	701	2,810	1,018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33	1.7	68.2	2,267	153	607	245
	5천만 원~1억 원 미만		141	8.1	69.7	4,875	333	1,250	519
	1억 원~5억 원 미만		909	9.4	70.9	8,424	669	2,575	1,066
	5억 원 이상		142	8.9	73.7	16,165	1,429	5,281	2,401

(6) 식재료비 사용 비중

- 일반음식점의 식재료비 사용 비중은 쌀(11.3%), 곡류(3.8%), 채소(14.5%), 과일(0.6%), 축산물(26.7%), 수산물(13.9%), 가공식품(14.7%), 기타(5.0%), 주류/음료(9.5%) 등으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의 업종별로 쌀은 한식(11.9%), 곡류는 중식(12.1%), 채소는 한식과 기타 외국식(각 14.8%), 과일은 서양식(2.5%), 축산물은 한식(27.7%), 수산물은 일식(27.9%), 가공식품은 기타 외국식(24.3%), 주류/음료는 서양식(10.2%)에서 사용 비중이 높음.
- 일반음식점의 지역별로는 쌀은 경남권(14.6%), 곡류는 충청권(6.2%), 채소는 경북권(16.7%), 축산물은 경남권(29.2%), 수산물은 호남권(17.5%), 가공식품은 수도권(17.8%), 주류/음료는 충청권(10.6%)에서 식재료비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 일반음식점의 매출액 규모별로 채소와 수산물은 5천만 원 미만(각 17.0%) 업체, 쌀, 곡류, 가공식품은 5천만 원~1억 원 미만(각 13.2%, 5.2%, 15.8%) 업체, 기타, 주류/음료는 1억 원~5억 원 미만(각 5.2%, 9.8%), 축산물은 5억 원 이상(28.8%) 업체에서 식재료비 사용 비중이 높은 편임.

〈표 3-42-1〉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식재료비 사용 비중(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쌀	곡류 (쌀 제외)	채소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공 식품 (공산품)	기타	주류/ 음료
전체			1,556	11.3	3.8	14.5	0.6	26.7	13.9	14.7	5.0	9.5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1,091	11.9	3.0	14.8	0.5	27.7	13.7	13.9	4.9	9.5
		중식	158	7.8	12.1	14.5	0.5	23.3	11.6	16.8	5.1	8.2
		일식	117	10.7	2.6	11.6	0.4	18.4	27.9	14.5	4.4	9.6
		서양식	118	7.9	5.2	11.4	2.5	25.0	7.4	23.7	6.9	10.1
		기타 외국식	72	9.0	5.5	14.8	1.6	19.8	8.0	24.3	6.9	10.2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331	11.4	3.2	13.6	0.6	32.5	7.8	16.7	4.2	10.0
	비프랜차이즈		1,225	11.3	4.0	14.7	0.6	25.4	15.2	14.3	5.2	9.3
지역	서울권		212	9.7	3.4	14.6	1.5	25.0	13.1	16.9	6.3	9.6
	수도권		257	10.1	2.8	13.7	0.5	25.4	12.3	17.8	7.8	9.4
	충청권		308	8.6	6.2	12.2	0.5	25.9	15.9	14.4	5.7	10.6
	호남권		260	13.3	3.7	14.3	0.5	27.8	17.5	12.9	2.1	8.0
	경남권		328	14.6	3.3	15.6	0.5	29.2	12.0	12.8	2.7	9.4
	경북권		191	9.5	3.3	16.7	0.3	24.6	11.7	15.8	7.9	10.1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33	8.8	4.5	17.0	0.7	26.8	17.0	14.2	4.4	6.6
	5천만 원~1억 원 미만		152	13.2	5.2	15.4	0.7	22.2	14.4	15.8	4.9	8.2
	1억 원~5억 원 미만		1,128	11.1	3.6	14.3	0.6	27.0	13.6	14.9	5.2	9.8
	5억 원 이상		243	11.2	3.8	13.9	0.8	28.8	15.0	12.6	4.5	9.4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식재료비 사용 비중은 쌀(11.4%), 곡류(3.2%), 채소(13.6%), 과일(0.6%), 축산물(32.5%), 수산물(7.8%), 가공식품(16.7%), 기타(4.2%), 주류/음료(10.0%) 등임.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업종별로 쌀은 한식(12.4%), 곡류는 중식(11.1%), 채소는 중식(16.3%), 과일은 기타 외국식(2.1%), 축산물은 한식(35.5%), 수산물은 일식(19.7%), 가공식품은 기타 외국식(26.4%), 주류/음료는 서양식(10.3%)에서 식재료비 사용 비중이 높음.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지역별로는 쌀은 경남권(14.1%), 곡류는 충청권(6.4%), 채소는 경남권(15.1%), 과일은 서울권(2.6%), 축산물은 호남권(42.2%), 수산물은 수도권(9.6%), 가공식품은 서울권(19.6%), 주류/음료는 충청권(11.7%)에서 식재료비 사용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매출액 규모별로는 곡류, 과일, 가공식품(공산품), 기타는 5천만 원~1억 미만(각 6.7%, 1.2%, 19.2%, 6.6%) 업체, 쌀, 채소, 축산물, 수산물, 주류/음료는 5억 원 이상(각 12.5%, 14.0%, 33.7%, 8.1%, 10.3%) 업체에서 식재료비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42-2〉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식재료비 사용 비중(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쌀	곡류 (쌀 제외)	채소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공 식품 (공산품)	기타	주류/ 음료
전체			331	11.4	3.2	13.6	0.6	32.5	7.8	16.7	4.2	10.0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197	12.4	2.3	13.8	0.4	35.5	6.8	14.8	3.9	10.2
		중식	23	7.2	11.1	16.3	0.3	22.4	13.9	17.8	2.9	8.2
		일식	29	10.4	2.9	11.2	0.5	18.6	19.7	22.4	4.5	9.9
		서양식	46	7.7	5.0	11.0	1.7	28.0	4.9	25.1	6.3	10.3
		기타 외국식	36	7.8	7.5	15.1	2.1	17.0	8.3	26.4	6.8	9.0
지역	서울권		39	10.8	3.1	14.7	2.6	27.8	8.3	19.6	4.7	8.5
	수도권		84	9.5	3.3	13.3	0.8	29.9	9.6	17.7	7.1	8.7
	충청권		47	9.0	6.4	11.0	0.3	34.7	6.0	18.8	2.2	11.7
	호남권		29	13.2	3.2	11.2	0.2	42.2	6.2	12.6	2.8	8.5
	경남권		106	14.1	2.2	15.1	0.2	31.9	8.1	14.9	2.5	10.9
	경북권		26	7.3	2.2	13.5	0.0	32.7	5.9	19.4	9.0	9.9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	10.8	6.7	11.5	1.2	30.3	7.0	19.2	6.6	6.8
	1억 원~5억 원 미만		219	11.1	3.2	13.6	0.5	32.2	7.8	17.3	4.1	10.1
	5억 원 이상		101	12.5	2.6	14.0	0.7	33.7	8.1	13.8	4.2	10.3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식재료비 사용 비중은 쌀(11.3%), 곡류(4.0%), 채소(14.7%), 과일(0.6%), 축산물(25.4%), 수산물(15.2%), 가공식품(14.3%), 기타(5.2%), 주류/음료(9.3%) 등으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업종별로는 쌀은 한식(11.8%), 곡류는 중식(12.3%), 채소는 한식(15.0%), 과일은 서양식(2.9%), 축산물은 한식(26.2%), 수산물은 일식(29.9%), 가공식품은 서양식(22.9%), 주류/음료는 기타 외국식(11.1%)에서 식재료비 사용 비중이 높음.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지역별로는 쌀은 경남권(14.8%), 곡류는 충청권(6.2%), 채소는 경북권(17.1%), 축산물은 경남권(28.0%), 수산물은 호남권(18.5%), 가공식품은 수도권(17.9%), 주류/음료는 충청권(10.4%)의 업체에서 식재료비 사용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매출액 규모별로 채소, 축산물, 수산물은 5천만 원 미만(각 17.0%, 26.8%, 17.0%), 쌀, 곡류, 가공식품(공산품)은 5천만 원~1억 원 미만(각 13.4%, 5.1%, 15.6%) 업체, 기타, 주류/음료는 1억 원~5억 원 미만(각 5.4%, 9.7%) 업체, 과일은 5억 원 이상(0.8%) 업체에서 식재료비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42-3〉 일반음식점: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식재료비 사용 비중(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쌀	곡류 (쌀 제외)	채소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공 식품 (공산품)	기타	주류/ 음료
전체			1,225	11.3	4.0	14.7	0.6	25.4	15.2	14.3	5.2	9.3
업종	일반 음식점	한식	894	11.8	3.2	15.0	0.5	26.2	15.1	13.7	5.1	9.4
		중식	135	7.9	12.3	14.3	0.5	23.4	11.3	16.7	5.4	8.2
		일식	88	10.7	2.5	11.7	0.4	18.4	29.9	12.5	4.3	9.5
		서양식	72	8.0	5.3	11.6	2.9	23.3	8.7	22.9	7.2	10.0
		기타 외국식	36	10.0	3.7	14.5	1.1	22.3	7.8	22.5	7.1	11.1
지역	서울권		173	9.5	3.4	14.5	1.4	24.6	13.7	16.5	6.5	9.7
	수도권		173	10.4	2.6	13.9	0.3	23.6	13.4	17.9	8.2	9.7
	충청권		261	8.5	6.2	12.4	0.5	24.5	17.5	13.7	6.3	10.4
	호남권		231	13.3	3.7	14.6	0.6	26.5	18.5	12.9	2.0	7.9
	경남권		222	14.8	3.7	15.8	0.6	28.0	13.6	11.9	2.8	8.7
	경북권		165	9.8	3.4	17.1	0.3	23.6	12.4	15.3	7.8	10.1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33	8.8	4.5	17.0	0.7	26.8	17.0	14.2	4.4	6.6
	5천만 원~1억 원 미만		141	13.4	5.1	15.7	0.6	21.7	14.8	15.6	4.8	8.3
	1억 원~5억 원 미만		909	11.1	3.7	14.4	0.6	25.9	14.9	14.4	5.4	9.7
	5억 원 이상		142	10.6	4.5	13.8	0.8	26.2	18.6	12.0	4.7	8.8

3. 한식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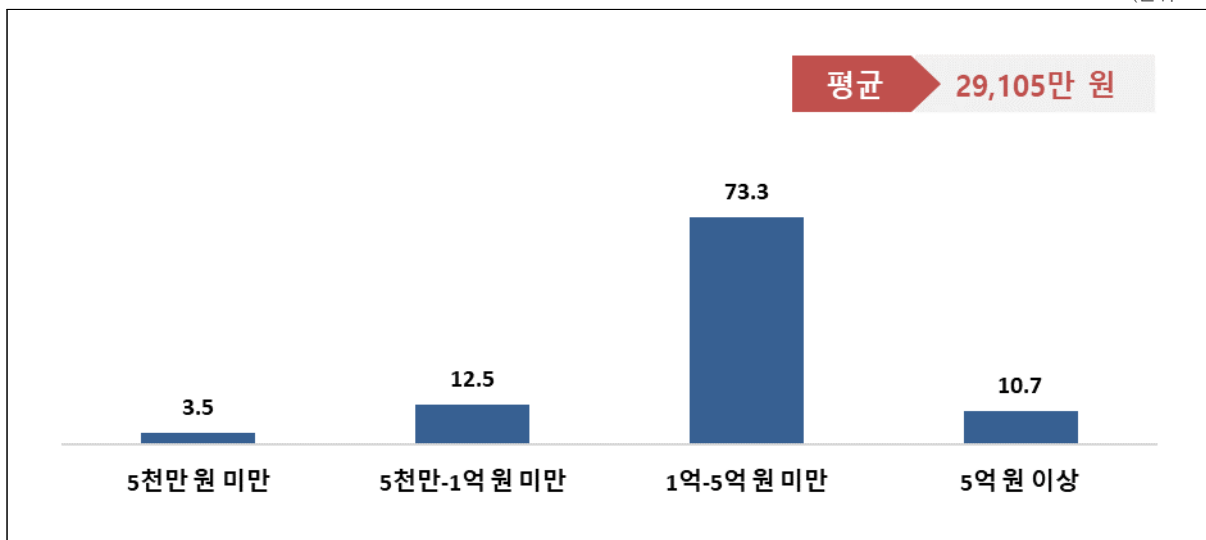
1) 영업 사항

(1) 매출액

- 한식의 평균 매출액은 약 2억 9천 1백만 원으로 나타남. 매출액 분포별로는 5천만 원 미만인 한식 외식업체 비중이 3.5%, 5천만 원~1억 원 미만 12.5%, 1억 원~5억 원 미만 73.3%, 5억 원 이상은 10.7%로 나타남.

〈그림 3-39〉 한식: 매출액 분포

(단위: %)



- 한식 세부 업종별로는 한식 육류(약 3억 4천 4백만 원)와 한식 해산물(약 3억 1천 5백만 원)의 매출액이 높은 반면, 한식 일반(약 2억 7천 7백만 원)과 한식 면류(약 2억 1천 8백만 원)는 비교적 낮음.
- 지역별로는 서울권(약 3억 9천 8백만 원)과 경남권(약 3억 1천 5백만 원)의 한식 매출액이 높은 데 반해, 호남권(약 2억 3천 4백만 원)은 다소 낮음.
-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인 한식 외식업체가 많이 분포한 지역은 서울권과 경남권(각 18.4%, 12.3%)이고, 5천만 원 미만인 한식 외식업체가 많이 분포한 지역은 충청권(7.8%)으로 조사됨.

12) 조사된 전체 외식업체 중 '한식'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표 3-43-1〉 한식: 업종별·지역별·운영 형태별 매출액 분포(전체)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1억 원 미만	1억 원~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평균
전체		1,091	3.5	12.5	73.3	10.7	29,105.6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450	4.5	14.8	72.1	8.5	27,695.3
	한식 면류	175	4.8	22.3	62.6	10.3	21,798.0
	한식 육류	275	0.4	5.5	78.1	16.1	34,414.2
	한식 해산물	191	3.1	5.9	78.4	12.6	31,532.9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97	0.0	3.6	75.2	21.2	42,142.3
	비프랜차이즈	894	4.2	14.3	72.9	8.6	26,476.2
지역	서울권	134	0.0	9.3	72.3	18.4	39,822.3
	수도권	151	3.5	10.6	74.8	11.1	29,893.9
	충청권	216	7.8	13.3	73.4	5.5	24,210.5
	호남권	198	5.8	21.0	65.0	8.2	23,353.2
	경남권	242	1.7	10.8	75.2	12.3	31,456.0
	경북권	150	0.0	6.8	81.2	12.0	30,242.6

- 프랜차이즈 한식 세부 업종별로는 한식 육류의 매출액이 약 4억 9천 4백만 원 수준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식 일반(약 3억 9천 7백만 원)이 높음. 반면 한식 면류(약 3억 1천 8백만 원)와 한식 해산물(약 3억 1천 6백만 원)은 상대적으로 낮음.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인 한식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비중이 높은 업종은 한식 육류와 한식 면류(각 33.4%, 22.8%)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권의 한식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매출액이 약 8억 3천 2백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경남권(약 4억 2천 9백만 원), 수도권(약 4억 1천 5백만 원), 경북권(약 3억 8천 2백만 원) 등의 순임. 5억 원 이상인 한식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서울권(59.1%), 5천만 원~1억 원 미만인 한식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호남권(23.2%)에 많이 분포한 것으로 조사됨.

〈표 3-43-2〉 한식: 업종별·지역별·운영 형태별 매출액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1억 원 미만	1억 원~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평균
전체		197	-	3.6	75.2	21.2	42,142.3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83	-	5.7	79.1	15.1	39,744.1
	한식 면류	26	-	4.5	72.8	22.8	31,774.3
	한식 육류	72	-	0.0	66.6	33.4	49,365.7
	한식 해산물	16	-	0.0	88.6	11.4	31,616.8
지역	서울권	17	-	0.0	40.9	59.1	83,205.7
	수도권	42	-	2.8	78.8	18.5	41,483.5
	충청권	25	-	5.9	79.3	14.8	31,349.2
	호남권	19	-	23.2	70.2	6.6	28,704.4
	경남권	77	-	0.5	78.1	21.4	42,859.6
	경북권	17	-	0.0	78.8	21.2	38,181.3

- 비프랜차이즈 한식 세부 업종별로는 한식 해산물 매출액이 약 3억 1천 5백만 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한식 면류는 약 2억 6백만 원 수준으로 비교적 낮음. 5억 원 이상인 비프랜차이즈 한식 업체는 한식 해산물(12.7%)와 한식 육류(10.7%)가 많음.
- 지역별로는 서울권 한식 업체 매출액(약 3억 5천만 원) 이 높게 나타난 반면, 호남권은 약 2억 2천 9백만 원 수준으로 낮음. 5억 원 이상의 업체는 서울권(13.9%)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5천만 원 미만인 업체는 충청권(8.9%)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3-3〉 한식: 업종별·지역별·운영 형태별 매출액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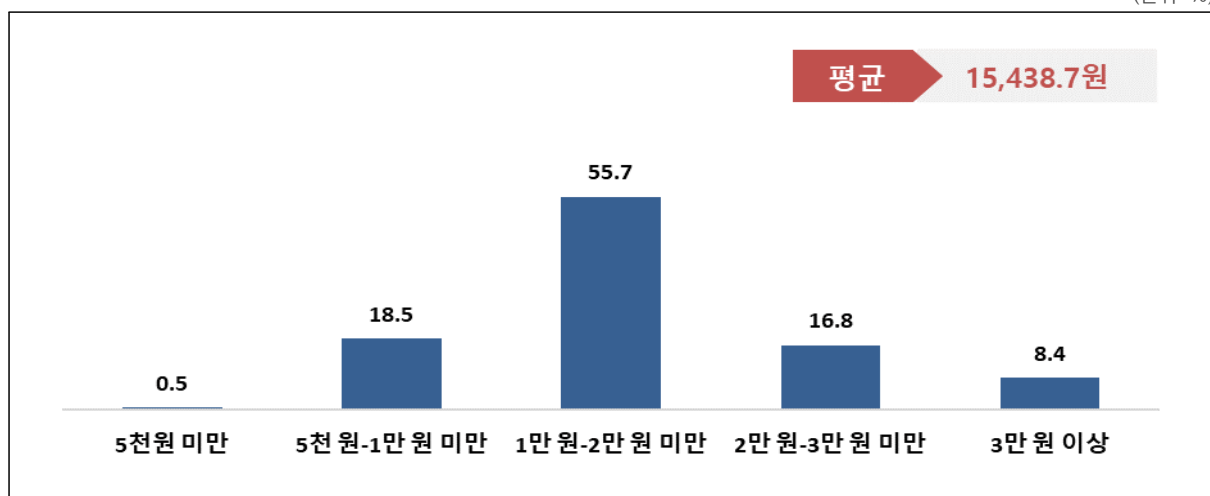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1억 원 미만	1억 원~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평균
전체		894	4.2	14.3	72.9	8.6	26,476.2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367	5.4	16.6	70.7	7.3	25,335.7
	한식 면류	149	5.3	24.4	61.5	8.8	20,645.7
	한식 육류	203	0.5	7.2	81.6	10.7	29,749.7
	한식 해산물	175	3.3	6.4	77.6	12.7	31,526.5
지역	서울권	117	0.0	10.3	75.8	13.9	35,018.4
	수도권	109	4.8	13.6	73.3	8.3	25,489.8
	충청권	191	8.9	14.3	72.6	4.1	23,201.4
	호남권	179	6.3	20.9	64.5	8.3	22,922.6
	경남권	165	2.5	15.2	73.9	8.4	26,587.0
	경북권	133	0.0	7.5	81.4	11.0	29,407.7

(2) 객단가

- 한식 외식업체의 평균 객단가는 약 1만 5천 4백 원 수준으로 나타남. 객단가 분포별로는 1만 원~2만 원 미만인 한식 업체가 55.7%로 가장 많고, 5천 원~1만 원 미만 업체의 비중은 18.5% 임.

〈그림 3-40〉 한식: 객단가 분포

(단위: %)



- 한식 외식업체의 세부 업종별로는 한식 해산물의 객단가가 약 2만 4천 2백 원 수준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식 육류(약 1만 8천 9백 원), 한식 일반(약 1만 3천 7백 원)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한식 업체의 객단가가 약 1만 9천 1백 원 수준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서울권(약 1만 7천 원), 호남권(약 1만 6천 4백 원) 등의 순으로 파악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인 한식 업체의 객단가가 약 2만 원이고, 5천만 원 미만인 한식 업체의 객단가는 약 1만 1천 원 수준으로 조사됨.

〈표 3-44-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객단가 분포(전체)

(단위: 개소, %, 원)

구분		사례수	5천 원 미만	5천 원~ 1만 원 미만	1만 원~ 2만 원 미만	2만 원~ 3만 원 미만	3만 원 이상	평균
전체		1,091	0.5	18.5	55.7	16.8	8.4	15,438.7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450	0.3	20.5	63.3	11.4	4.6	13,698.1
	한식 면류	175	4.0	65.8	25.7	4.5	0.0	9,030.7
	한식 육류	275	0.4	4.8	52.8	27.7	14.4	18,883.9
	한식 해산물	191	0.0	0.6	35.0	37.9	26.6	24,199.8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97	0.0	11.9	57.2	20.1	10.8	16,359.4
	비프랜차이즈	894	0.7	19.9	55.4	16.2	7.9	15,253.0
지역	서울권	134	0.5	13.4	47.5	27.7	11.0	17,011.2
	수도권	151	1.3	11.7	42.6	21.7	22.7	19,122.7
	충청권	216	0.5	26.1	58.4	11.3	3.8	13,692.0
	호남권	198	0.6	13.4	59.2	17.1	9.7	16,438.0
	경남권	242	0.5	16.8	60.0	16.6	6.1	14,617.9
	경북권	150	0.0	29.2	58.9	10.9	1.0	13,022.6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2.6	34.5	54.8	8.1	0.0	11,020.2
	5천만 원~1억 원 미만	121	1.4	41.0	50.0	4.0	3.6	11,106.3
	1억 원~5억 원 미만	770	0.4	15.9	57.4	17.9	8.4	15,717.1
	5억 원 이상	171	0.0	5.4	50.6	27.4	16.6	20,014.3

- 프랜차이즈 업체의 업종별 객단가는 한식 해산물이 약 2만 8천 원으로 가장 높고, 한식 육류(약 1만 9천 5백 원), 한식 일반(약 1만 4천 5백 원), 한식 면류(약 9천 2백 원) 순서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객단가가 약 2만 1천 8백 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서울권(약 1만 8천 2백 원), 경남권(약 1만 5천 3백 원), 경북권(약 1만 3천 8백 원) 등임.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인 프랜차이즈 한식 업체의 객단가가 약 1만 8천 5백 원인 데 비해, 5천만 원~1억 원 미만인 업체는 약 8천 원 수준으로 낮음.

〈표 3-44-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객단가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원)

구분		사례수	5천 원~ 1만 원 미만	1만 원~ 2만 원 미만	2만 원~ 3만 원 미만	3만 원 이상	평균
전체		197	11.9	57.2	20.1	10.8	16,359.4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83	14.3	65.4	14.1	6.1	14,509.8
	한식 면류	26	72.8	27.2	0.0	0.0	9,247.8
	한식 육류	72	0.0	50.8	32.4	16.8	19,493.6
	한식 해산물	16	0.0	15.5	36.2	48.4	28,027.1
지역	서울권	17	16.6	44.4	27.0	12.0	18,160.7
	수도권	42	5.3	39.2	21.0	34.5	21,815.0
	충청권	25	31.9	54.2	11.4	2.5	13,072.5
	호남권	19	33.0	49.6	11.3	6.1	14,167.5
	경남권	77	3.7	65.5	26.5	4.4	15,323.7
	경북권	17	10.5	86.3	3.2	0.0	13,754.6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5	83.9	16.1	0.0	0.0	7,965.2
	1억 원~5억 원 미만	131	10.3	60.8	18.6	10.3	16,163.5
	5억 원 이상	61	5.1	51.2	29.1	14.5	18,495.9

○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객단가를 살펴본 결과, 업종별로는 한식 해산물(약 2만 3천 9백 원), 한식 육류(약 1만 8천 7백 원), 한식 일반(약 1만 3천 원)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수도권(약 1만 8천 1백 원)과 서울권(약 1만 6천 9백 원)의 객단가가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인 비프랜차이즈 한식 업체의 객단가가 약 2만 8백 원 수준으로 높고, 5천만 원 미만인 업체의 객단가는 약 1만 1천 원 수준으로 낮음.

〈표 3-44-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객단가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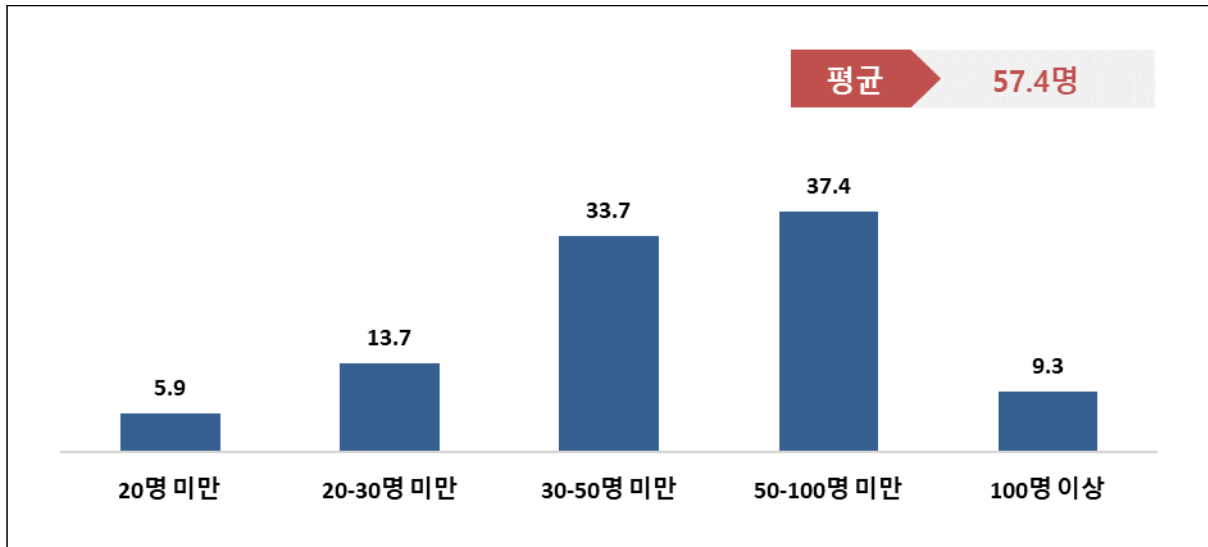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5천 원 미만	5천 원~ 1만 원 미만	1만 원~ 2만 원 미만	2만 원~ 3만 원 미만	3만 원 이상	평균
전체		894	0.7	19.9	55.4	16.2	7.9	15,253.0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367	0.3	21.7	62.9	10.8	4.3	13,539.2
	한식 면류	149	4.5	65.0	25.5	5.0	0.0	9,005.7
	한식 육류	203	0.5	6.2	53.5	26.2	13.6	18,693.7
	한식 해산물	175	0.0	0.6	36.5	38.0	24.9	23,906.3
지역	서울권	117	0.5	13.0	47.8	27.8	10.9	16,883.9
	수도권	109	1.8	14.1	43.8	22.0	18.2	18,099.6
	충청권	191	0.6	25.2	59.0	11.3	4.0	13,779.6
	호남권	179	0.7	11.8	59.9	17.5	10.0	16,620.7
	경남권	165	0.7	22.4	57.6	12.4	6.9	14,316.5
	경북권	133	0.0	31.2	56.0	11.7	1.1	12,945.6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2.6	34.5	54.8	8.1	0.0	11,020.2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6	1.4	38.8	51.8	4.2	3.8	11,267.1
	1억 원~5억 원 미만	639	0.5	17.0	56.7	17.8	8.0	15,624.3
	5억 원 이상	110	0.0	5.5	50.2	26.6	17.6	20,765.9

(3)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

- 한식 외식업체의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는 57.4명으로 나타남. 방문 고객 수 분포별로는 50~100명 미만 이 방문한 한식 외식업체가 37.4%, 30~50명 미만 33.7%, 20~30명 미만 13.7%, 100명 이상 9.3%, 20명 미만 5.9% 순으로 조사됨.

〈그림 3-41〉 한식: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 분포

(단위: %)



- 한식 외식업체의 세부 업종별로는 한식 면류(67.7명), 한식 육류(59.3명), 한식 일반(57.2명), 한식 해산물(44.8명) 순서로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경북권(67.6명), 경남권(66.6명), 서울권(61.1명) 등의 순임.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인 한식 외식업체가 하루 평균 132.9명이 방문하는 반면, 5천만 원 미만인 업체는 17.4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됨.

〈표 3-45-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 분포(전체)

(단위: 개소, %, 명)

구분		사례수	20명 미만	20~30명 미만	30~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명 이상	평균
전체		1,091	5.9	13.7	33.7	37.4	9.3	57.4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450	6.6	15.1	32.5	37.5	8.4	57.2
	한식 면류	175	3.8	6.5	36.2	35.0	18.6	67.7
	한식 육류	275	3.5	11.7	32.8	40.9	11.1	59.3
	한식 해산물	191	8.6	15.8	42.8	29.7	3.0	44.8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97	4.8	12.3	24.7	39.3	18.9	73.9
	비프랜차이즈	894	6.1	14.0	35.6	37.0	7.3	54.0
지역	서울권	134	0.5	10.7	36.5	42.9	9.4	61.1
	수도권	151	6.9	17.4	28.5	42.4	4.8	49.0
	충청권	216	11.9	14.6	35.0	33.4	5.2	52.0
	호남권	198	6.7	18.0	42.2	28.7	4.5	47.6
	경남권	242	4.0	12.1	32.7	36.5	14.8	66.6
	경북권	150	3.4	8.4	24.5	47.4	16.3	67.6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54.2	41.9	3.9	0.0	0.0	17.4
	5천만 원~1억 원 미만	121	9.2	35.7	49.9	5.3	0.0	31.8
	1억 원~5억 원 미만	770	3.9	10.5	36.1	44.4	5.0	52.6
	5억 원 이상	171	0.0	0.9	8.1	38.8	52.3	132.9

-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업종별로는 한식 면류(90.1명)의 방문 고객 수가 가장 많고, 한식 육류(79.2명), 한식 일반(71.9명), 한식 해산물(41.4명)의 순서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권(110.9명), 경남권(87.2명), 경북권(64.5명), 충청권(60.9명) 등의 순서로 방문 고객 수가 많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인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경우 하루 평균 158.2명이 방문한 반면, 5천만 원~1억 원 미만은 28.5명으로 가장 적게 방문함.

〈표 3-45-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명)

구분		사례수	20명 미만	20~30명 미만	30~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명 이상	평균
전체		197	4.8	12.3	24.7	39.3	18.9	73.9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83	8.0	15.6	22.9	37.3	16.2	71.9
	한식 면류	26	0.0	4.5	17.1	44.0	34.5	90.1
	한식 육류	72	0.0	3.7	27.6	45.0	23.7	79.2
	한식 해산물	16	0.0	43.3	38.1	17.0	1.5	41.4
지역	서울권	17	0.0	0.0	11.7	63.1	25.2	110.9
	수도권	42	3.9	17.3	30.6	35.5	12.7	55.1
	충청권	25	17.8	14.3	23.7	22.9	21.3	60.9
	호남권	19	0.0	17.1	23.8	58.7	0.5	56.8
	경남권	77	0.0	7.7	27.1	42.8	22.4	87.2
	경북권	17	19.3	25.6	10.4	16.9	27.8	64.5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5	0.0	50.4	49.6	0.0	0.0	28.5
	1억 원~5억 원 미만	131	6.4	14.0	28.2	44.1	7.4	52.4
	5억 원 이상	61	0.0	0.0	8.0	28.9	63.1	158.2

-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업종별 방문 고객 수는 한식 면류(65.1명), 한식 일반(54.4명), 한식 육류(53.1명), 한식 해산물(45.1명)의 순서로 많음.
- 지역별로는 경북권(67.9명), 경남권(57.9명), 서울권(55.6명), 충청권(50.7명) 등의 순서로 방문 고객 수가 많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인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는 하루 평균 120.3명이 방문하는 반면, 5천만 원 미만인 업체는 17.4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3-45-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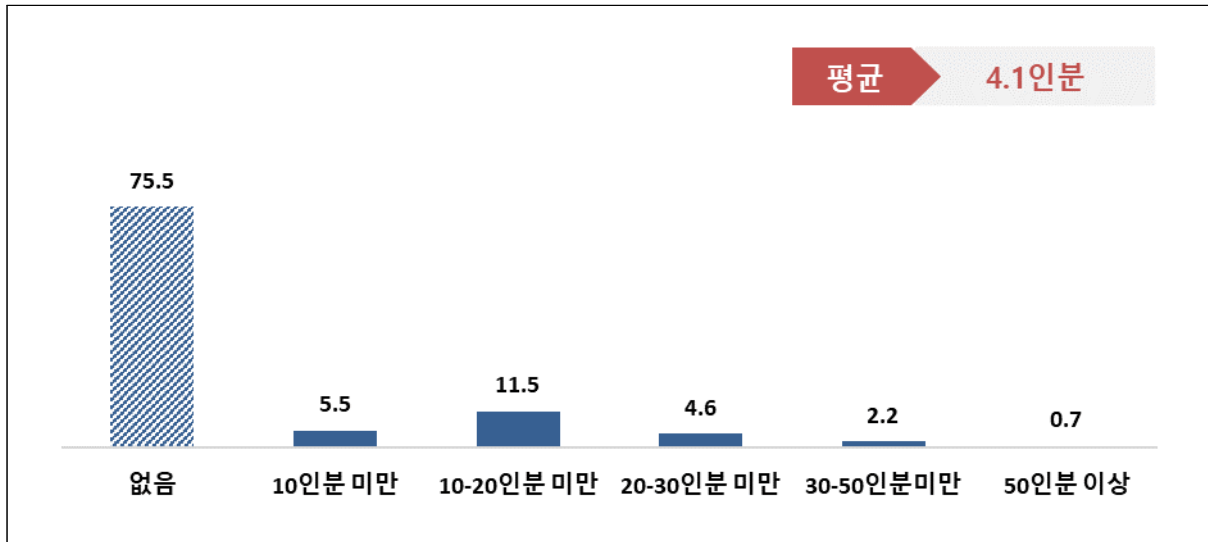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20명 미만	20~30명 미만	30~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명 이상	평균
전체		894	6.1	14.0	35.6	37.0	7.3	54.0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367	6.3	15.0	34.4	37.5	6.8	54.4
	한식 면류	149	4.3	6.7	38.4	33.9	16.8	65.1
	한식 육류	203	4.6	14.2	34.4	39.7	7.1	53.1
	한식 해산물	175	9.2	13.7	43.2	30.7	3.1	45.1
지역	서울권	117	0.5	11.9	39.2	40.7	7.6	55.6
	수도권	109	8.1	17.5	27.7	45.0	1.7	46.7
	충청권	191	11.0	14.7	36.6	34.9	2.9	50.7
	호남권	179	7.2	18.1	43.7	26.3	4.8	46.8
	경남권	165	5.7	14.0	35.1	33.8	11.6	57.9
	경북권	133	1.7	6.5	26.0	50.7	15.1	67.9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54.2	41.9	3.9	0.0	0.0	17.4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6	9.6	34.9	49.9	5.6	0.0	32.0
	1억 원~5억 원 미만	639	3.3	9.8	37.8	44.5	4.5	52.6
	5억 원 이상	110	0.0	1.3	8.1	43.7	46.9	120.3

(4) 1일 평균 배달 수

- 한식 외식업체의 1일 평균 배달 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4.1인분으로 나타났으며, 배달이 없는 업체 비율은 75.5%임. 1일 평균 10인분 미만을 배달하는 비율은 5.5%이고, 10인분~20인분 미만은 11.5% 등의 순임.
- 한식 외식업체의 세부 업종별 1일 평균 배달 수는 한식 일반(4.7인분), 한식 면류와 한식 해산물(각 3.5인분), 한식 육류(3.0인분) 순서로 많음.
- 지역별로는 충청권(6.2인분), 경북권(5.2인분), 경남권(4.8인분), 수도권(3.2인분) 등의 순서이며,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인 한식 외식업체는 하루 평균 5.3인분을 배달하는 반면, 5천만 원 미만인 업체는 0.2인분을 배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2〉 한식: 1일 평균 배달 수 분포

(단위: %)



〈표 3-46-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배달 수 분포(전체)

(단위: 개소, %, 인분)

구분		사례수	없음	10인분 미만	10~20인분 미만	20~30인분 미만	30~50인분 미만	50인분 이상	평균
전체		1,091	75.5	5.5	11.5	4.6	2.2	0.7	4.1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450	73.3	5.4	12.6	5.5	2.4	0.8	4.7
	한식 면류	175	79.9	4.1	9.9	3.2	2.5	0.5	3.5
	한식 육류	275	81.7	4.7	7.7	3.0	2.1	0.7	3.0
	한식 해산물	191	70.7	9.8	15.0	4.1	0.5	0.0	3.5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97	52.0	6.1	18.8	12.3	8.4	2.3	10.3
	비프랜차이즈	894	80.2	5.4	10.0	3.1	0.9	0.3	2.9
지역	서울권	134	83.7	3.1	11.3	0.8	0.3	0.7	2.6
	수도권	151	78.3	5.8	10.2	3.8	1.3	0.6	3.2
	충청권	216	70.5	5.1	9.8	8.4	4.7	1.5	6.2
	호남권	198	84.5	5.5	5.6	3.1	1.2	0.0	2.1
	경남권	242	70.1	6.3	16.2	4.7	2.1	0.6	4.8
	경북권	150	69.0	6.4	15.6	5.6	2.7	0.6	5.2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96.9	1.5	1.6	0.0	0.0	0.0	0.2
	5천만 원~1억 원 미만	121	91.7	1.6	4.9	1.4	0.4	0.0	1.2
	1억 원~5억 원 미만	770	71.8	6.7	13.4	4.7	2.5	0.8	4.6
	5억 원 이상	171	74.7	3.0	9.3	9.6	2.6	0.8	5.3

-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세부 업종별로는 한식 일반(14.2인분)의 1일 평균 배달 수가 가장 많고, 한식 면류(6.6인분), 한식 해산물(4.5인분), 한식 육류(4.1인분)의 순서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경북권(19.7인분), 충청권(13.7인분), 호남권(11.5인분), 경남권(9.3인분), 서울권(7.8인분), 수도권(6.8인분)의 순서로 배달 수가 많음.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 원~5억 원 미만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경우 1일 평균 10.9인분을 배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3-46-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배달 수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인분)

구분		사례수	없음	10인분 미만	10~20인분 미만	20~30인분 미만	30~50인분 미만	50인분 이상	평균
전체		197	52.0	6.1	18.8	12.3	8.4	2.3	10.3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83	37.3	6.8	21.9	18.8	12.1	3.1	14.2
	한식 면류	26	60.9	13.0	13.4	7.5	5.2	0.0	6.6
	한식 육류	72	75.6	3.6	15.0	2.1	2.1	1.5	4.1
	한식 해산물	16	76.2	8.5	8.1	0.8	6.4	0.0	4.5
지역	서울권	17	84.7	4.7	0.0	0.0	3.5	7.2	7.8
	수도권	42	56.6	13.9	15.3	7.1	4.8	2.2	6.8
	충청권	25	39.9	4.9	13.3	30.0	11.9	0.0	13.7
	호남권	19	49.9	0.0	8.2	35.2	6.7	0.0	11.5
	경남권	77	54.4	3.2	26.9	6.4	7.0	2.0	9.3
	경북권	17	22.3	10.9	23.2	11.5	25.6	6.5	19.7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5	49.6	0.0	22.5	27.9	0.0	0.0	10.5
	1억 원~5억 원 미만	131	46.3	7.5	21.9	12.9	9.0	2.4	10.9
	5억 원 이상	61	72.8	2.3	7.4	7.5	7.7	2.3	7.9

-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세부 업종별 1일 평균 배달 수는 한식 해산물(3.5인분), 한식 면류(3.1인분), 한식 일반(2.8인분), 한식 육류(2.7인분) 순서로 많음.
- 지역별로는 충청권(5.2인분), 경북권(3.6인분), 경남권(2.9인분) 등의 순서로 배달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인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는 하루 평균 4.0인분을 배달하는 반면, 5천만 원 미만 업체는 1일 평균 0.2인분을 배달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표 3-46-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배달 수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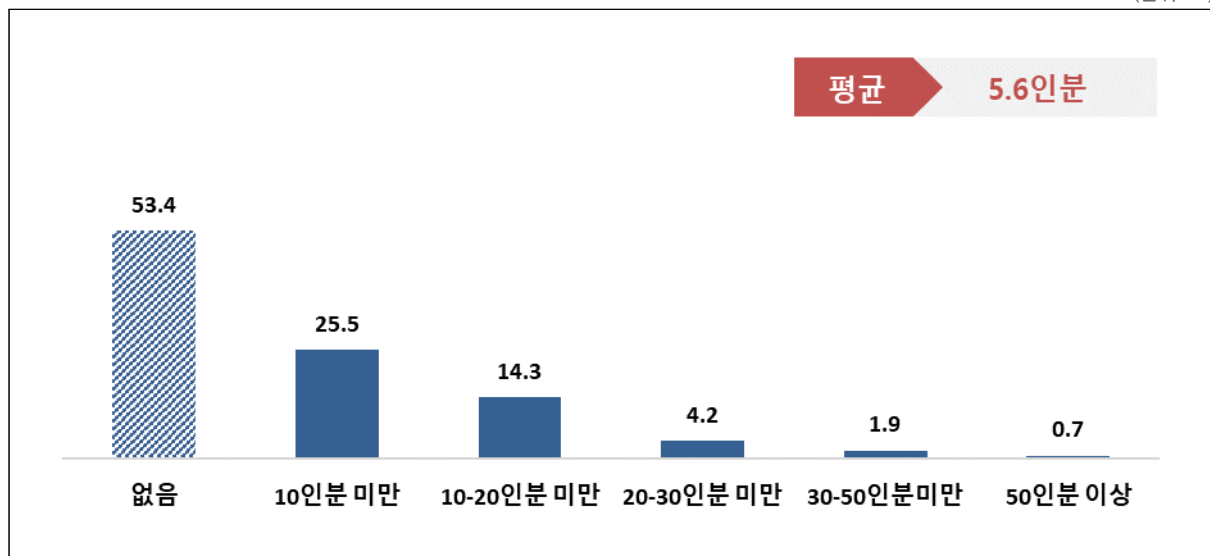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없음	10인분 미만	10~20인분 미만	20~30인분 미만	30~50인분 미만	50인분 이상	평균
전체	894	80.2	5.4	10.0	3.1	0.9	0.3	2.9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367	80.4	5.1	10.8	2.9	0.5	2.8
	한식 면류	149	82.1	3.1	9.5	2.7	2.1	3.1
	한식 육류	203	83.6	5.1	5.5	3.3	2.1	2.7
	한식 해산물	175	70.2	9.9	15.5	4.4	0.0	3.5
지역	서울권	117	83.6	3.0	12.6	0.9	0.0	2.0
	수도권	109	86.6	2.7	8.2	2.5	0.0	1.8
	충청권	191	74.8	5.1	9.3	5.3	3.7	5.2
	호남권	179	87.3	6.0	5.4	0.5	0.8	1.4
	경남권	165	76.8	7.6	11.6	3.9	0.0	2.9
	경북권	133	74.0	6.0	14.9	5.0	0.3	3.6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96.9	1.5	1.6	0.0	0.0	0.2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6	93.8	1.7	4.0	0.0	0.5	0.8
	1억 원~5억 원 미만	639	77.1	6.6	11.7	3.0	1.2	3.3
	5억 원 이상	110	75.7	3.3	10.3	10.7	0.0	4.0

(5)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

- 한식 외식업체의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는 5.6인분이며, 테이크아웃이 없는 업체 비율은 53.4%임. 1일 평균 10인분 미만을 테이크아웃 판매하는 비율은 25.5%이고, 10인분~20인분 미만은 14.3% 등의 순임.

〈그림 3-43〉 한식: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 분포

(단위: %)



- 한식 외식업체의 업종별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는 한식 면류(7.4인분), 한식 해산물(6.6인분), 한식 일반(6.2인분), 한식 육류(3.3인분)의 순서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충청권(9.4인분), 경북권(6.2인분), 경남권(5.6인분) 등의 순서로 많음.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인 한식 외식업체는 하루 평균 10.8인분을 테이크아웃 판매하는 데 비해, 5천만 원~1억 원 미만 업체는 1.7인분을 테이크아웃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됨.

〈표 3-47-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 분포(전체)

(단위: 개소, %, 인분)

구분		사례수	없음	10인분 미만	10~20인분 미만	20~30인분 미만	30~50인분 미만	50인분 이상	평균
전체		1,091	53.4	25.5	14.3	4.2	1.9	0.7	5.6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450	49.3	29.3	13.5	4.9	2.2	0.7	6.2
	한식 면류	175	55.7	14.2	20.2	4.3	3.9	1.8	7.4
	한식 육류	275	70.1	15.4	11.6	2.2	0.4	0.4	3.3
	한식 해산물	191	37.6	35.0	21.2	4.5	1.7	0.0	6.6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97	38.7	30.3	20.8	4.5	4.2	1.5	7.9
	비프랜차이즈	894	56.4	24.6	13.0	4.1	1.4	0.5	5.2
지역	서울권	134	57.9	29.3	10.4	0.7	1.3	0.4	4.6
	수도권	151	63.0	18.5	12.4	4.4	0.4	1.3	4.4
	충청권	216	44.9	14.4	22.7	12.0	5.2	0.8	9.4
	호남권	198	65.0	25.4	6.7	1.7	1.2	0.0	3.1
	경남권	242	48.7	34.6	12.1	2.2	1.2	1.3	5.6
	경북권	150	43.9	28.9	22.3	3.4	1.5	0.0	6.2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83.7	6.4	4.9	4.9	0.0	0.0	1.9
	5천만 원~1억 원 미만	121	75.9	19.7	3.3	1.1	0.0	0.0	1.7
	1억 원~5억 원 미만	770	48.8	29.1	15.8	3.9	2.0	0.4	5.7
	5억 원 이상	171	49.4	14.1	19.6	9.7	4.2	3.1	10.8

-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는 업종별로 한식 면류(13.2인분), 한식 일반(9.9인분), 한식 해산물(4.7인분), 한식 육류(3.8인분) 순으로 많음.
- 지역별로는 충청권(12.0인분), 경북권(11.0인분), 수도권(7.7인분), 경남권(6.7인분) 등의 순서로 나타남.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인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경우 1일 평균 8.5인분을 테이크아웃 판매하며, 1억 원~5억 원 미만의 경우는 1일 평균 7.8인분을 테이크아웃 판매함.

〈표 3-47-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인분)

구분		사례수	없음	10인분 미만	10~20인분 미만	20~30인분 미만	30~50인분 미만	50인분 이상	평균
전체		197	38.7	30.3	20.8	4.5	4.2	1.5	7.9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83	22.9	38.1	25.2	5.8	6.5	1.4	9.9
	한식 면류	26	20.5	23.4	37.9	8.0	5.7	4.5	13.2
	한식 육류	72	70.6	15.3	10.5	2.1	0.0	1.5	3.8
	한식 해산물	16	42.1	40.3	17.6	0.0	0.0	0.0	4.7
지역	서울권	17	53.5	8.6	30.4	3.9	3.7	0.0	6.5
	수도권	42	46.7	22.6	22.1	3.9	0.0	4.8	7.7
	충청권	25	46.8	12.2	6.2	16.9	18.0	0.0	12.0
	호남권	19	43.5	34.7	15.1	0.0	6.7	0.0	6.1
	경남권	77	34.2	42.8	17.9	2.6	1.4	1.1	6.7
	경북권	17	8.9	30.6	56.7	0.4	3.3	0.0	11.0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5	44.0	5.6	27.9	22.5	0.0	0.0	8.4
	1억 원~5억 원 미만	131	35.1	37.1	19.1	3.1	4.1	1.4	7.8
	5억 원 이상	61	50.5	10.1	25.6	6.4	5.2	2.2	8.5

-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업종별로는 한식 면류와 한식 해산물(각 6.7인분), 한식 일반(5.4인분), 한식 육류(3.2인분)의 순서로 1일 테이크아웃 판매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충청권(9.1인분), 경북권(5.7인분), 경남권(5.2인분) 등의 순서로 테이크아웃 수가 많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인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는 하루 평균 11.9인분을 테이크아웃 판매하지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인 업체의 하루 평균 테이크아웃 수는 1.3인분에 불과함.

〈표 3-47-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1일 평균 테이크아웃 수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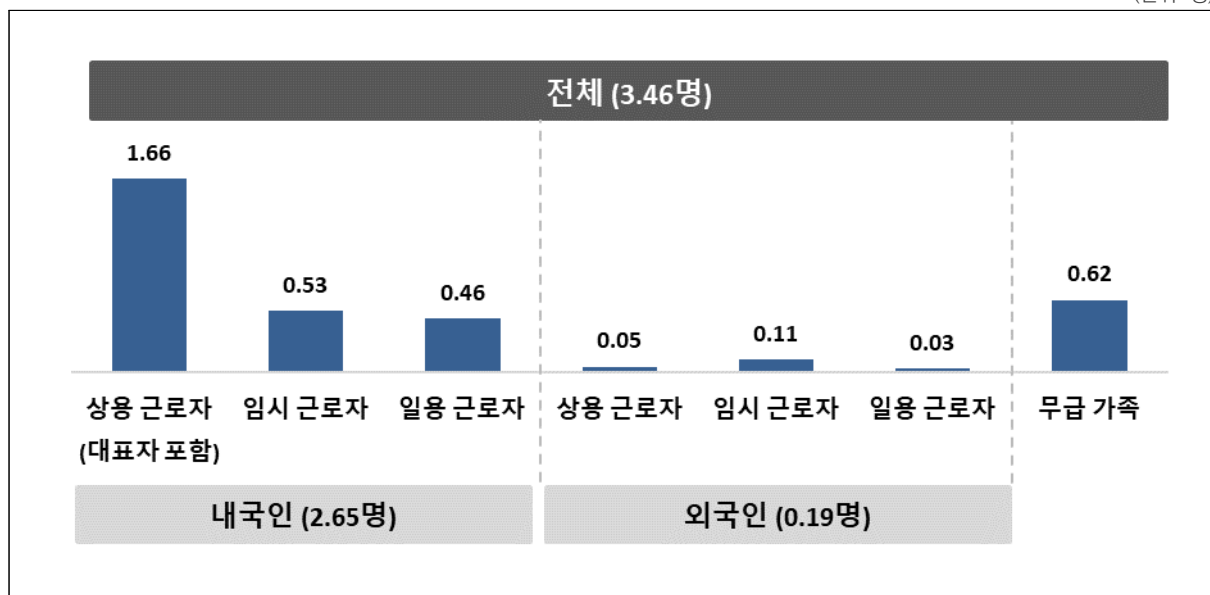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없음	10인분 미만	10~20인분 미만	20~30인분 미만	30~50인분 미만	50인분 이상	평균
전체		894	56.4	24.6	13.0	4.1	1.4	0.5	5.2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367	54.5	27.6	11.3	4.7	1.4	0.6	5.4
	한식 면류	149	59.8	13.1	18.1	3.9	3.7	1.5	6.7
	한식 육류	203	69.9	15.4	12.0	2.3	0.5	0.0	3.2
	한식 해산물	175	37.2	34.6	21.5	4.8	1.8	0.0	6.7
지역	서울권	117	58.4	31.6	8.1	0.3	1.0	0.4	4.3
	수도권	109	69.2	16.9	8.7	4.6	0.6	0.0	3.2
	충청권	191	44.7	14.8	25.1	11.3	3.4	0.9	9.1
	호남권	179	66.7	24.6	6.0	1.8	0.8	0.0	2.9
	경남권	165	54.9	31.1	9.6	2.0	1.0	1.4	5.2
	경북권	133	47.5	28.7	18.7	3.7	1.3	0.0	5.7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83.7	6.4	4.9	4.9	0.0	0.0	1.9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6	77.5	20.4	2.0	0.0	0.0	0.0	1.3
	1억 원~5억 원 미만	639	51.6	27.4	15.1	4.0	1.5	0.3	5.3
	5억 원 이상	110	48.8	16.0	16.6	11.3	3.7	3.6	11.9

(6) 월평균 근로 형태별 근로자 수

- 한식 외식업체의 월평균 근로자 수는 3.46명이며, 내국인 근로자는 2.65명, 외국인 근로자는 0.19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내국인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66명, 임시직은 0.53명, 일용직은 0.46명이며, 외국인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0.05명, 임시직은 0.11명, 일용직은 0.03명으로 조사됨. 무급가족은 월평균 0.6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내국인 상용근로자는 1.66명이며, 이 중 대표자는 1.00명, 대표자를 제외한 상용근로자는 0.66명임.¹³⁾

〈그림 3-44〉 한식: 월평균 근로 형태별 근로자 수 분포

(단위: 명)



- 한식 업종별로 전체 근로자 수는 한식 육류(4.14명), 한식 해산물(3.56명), 한식 면류(3.43명), 한식 일반(3.20명) 순서로 많음.
- 내국인 상용근로자 수는 한식 면류(1.92명), 한식 육류(1.78명), 한식 해산물(1.67명), 한식 일반(1.58명) 순서로 나타남. 외국인 상용근로자 수는 한식 해산물(0.08명), 한식 육류(0.06명), 한식 일반, 한식 면류(각 0.04명)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됨.

13) 2019년 이전 조사에서는 상용근로자에 대표자를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며, 2020년 조사부터 대표자와 상용근로자를 분리함.

- 지역별로 전체 근로자 수는 경남권(3.82명), 서울권과 충청권(각 3.54명), 호남권(3.35명) 등의 순서로 많음. 내국인 상용근로자는 경북권(1.99명), 수도권(1.81명), 서울권(1.71명) 등의 순서이며, 외국인 상용근로자는 서울권(0.14명), 수도권(0.09명), 호남권(0.0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 전체 근로자 수는 5억 원 이상인 한식 외식업체가 7.20명이고, 5천만 원 미만인 업체는 1.78명임. 내국인 상용근로자의 경우 5억 원 이상 업체는 3.28명, 5천만 원 미만과 5천만 원~1억 원 미만은 각 1.11명으로 조사됨.

〈표 3-48-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 운영 형태별 근로자 수 분포(전체)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무급가족	전체
			상용(대표자 포함)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소계	대표자	상용							
전체		1,091	1.66	1.00	0.66	0.53	0.46	0.05	0.11	0.03	0.62	3.46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450	1.58	1.00	0.58	0.5	0.39	0.04	0.07	0.02	0.6	3.20
	한식 면류	175	1.92	1.00	0.92	0.36	0.38	0.04	0.15	0.03	0.56	3.43
	한식 육류	275	1.78	1.00	0.78	0.69	0.71	0.06	0.19	0.06	0.65	4.14
	한식 해산물	191	1.67	1.00	0.67	0.47	0.42	0.08	0.12	0.04	0.75	3.56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97	2.03	0.99	1.04	0.79	0.8	0.05	0.14	0.03	0.63	4.45
	비프랜차이즈	894	1.58	1.00	0.58	0.48	0.4	0.04	0.1	0.03	0.62	3.26
지역	서울권	134	1.71	1.00	0.71	0.76	0.25	0.14	0.15	0.01	0.51	3.54
	수도권	151	1.81	1.00	0.81	0.47	0.1	0.09	0.07	0.03	0.38	2.95
	충청권	216	1.41	1.00	0.4	0.48	0.46	0.00	0.35	0.1	0.73	3.54
	호남권	198	1.64	0.99	0.65	0.76	0.35	0.06	0.06	0.02	0.47	3.35
	경남권	242	1.57	1.00	0.57	0.49	0.97	0.02	0.02	0.01	0.73	3.82
	경북권	150	1.99	0.99	0.99	0.22	0.29	0.02	0.00	0.00	0.81	3.32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1.11	1.00	0.11	0.14	0.09	0.00	0.00	0.02	0.43	1.78
	5천만 원~1억 원 미만	121	1.11	1.00	0.11	0.16	0.19	0.00	0.01	0.00	0.47	1.94
	1억 원~5억 원 미만	770	1.54	1.00	0.54	0.53	0.37	0.03	0.1	0.03	0.66	3.25
	5억 원 이상	171	3.28	1.00	2.28	1.16	1.56	0.22	0.31	0.09	0.58	7.20

-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세부 업종별 전체 근로자 수는 한식 육류(5.24명)가 비교적 많은 반면, 한식 해산물과 한식 면류(각 3.86명)는 상대적으로 적음. 내국인 상용근로자 수는 한식 육류(2.10명), 한식 해산물(2.04명), 한식 일반(2.01명), 한식 면류(1.83명) 순서로 많음.
- 지역별로 전체 근로자는 서울권(5.44명), 경남권(5.01명), 호남권(4.06명), 수도권(3.96명) 등의 순서로 많고, 내국인 상용근로자는 서울권(2.72명), 수도권(2.37명), 호남권(2.13명) 등의 순임.
- 매출액 규모별로 전체 근로자는 5억 원 이상인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가 7.66명이고, 5천만 원~1억 원 미만 업체가 2.16명으로 조사됨. 내국인 상용근로자는 5억 원 이상 업체가 3.22명이고, 5천만 원~1억 원 미만은 1.16명으로 나타남.

〈표 3-48-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 운영 형태별 근로자 수 분포(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명)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무급가족	전체
			상용(대표자 포함)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소계	대표자	상용							
전체		197	2.03	0.99	1.04	0.79	0.80	0.05	0.14	0.03	0.63	4.45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83	2.01	0.98	1.03	0.83	0.53	0.02	0.07	0.01	0.64	4.11
	한식 면류	26	1.83	1.00	0.83	0.41	0.84	0.12	0.13	0.00	0.53	3.86
	한식 육류	72	2.10	1.01	1.09	0.80	1.35	0.08	0.27	0.05	0.61	5.24
	한식 해산물	16	2.04	1.00	1.04	0.57	0.27	0.09	0.06	0.06	0.76	3.86
지역	서울권	17	2.72	1.00	1.72	1.00	0.60	0.26	0.67	0.00	0.19	5.44
	수도권	42	2.37	1.00	1.37	0.74	0.12	0.08	0.16	0.08	0.42	3.96
	충청권	25	1.54	1.02	0.52	0.47	0.80	0.00	0.30	0.04	0.49	3.64
	호남권	19	2.13	0.87	1.26	1.15	0.38	0.00	0.00	0.00	0.44	4.06
	경남권	77	1.91	1.00	0.91	0.83	1.40	0.03	0.04	0.01	0.80	5.01
	경북권	17	1.92	1.00	0.92	0.72	0.04	0.00	0.00	0.00	1.10	3.78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5	1.16	1.00	0.16	0.00	0.23	0.00	0.00	0.00	0.77	2.16
	1억 원~5억 원 미만	131	1.74	0.98	0.75	0.71	0.47	0.02	0.06	0.01	0.65	3.66
	5억 원 이상	61	3.22	1.01	2.21	1.20	2.06	0.15	0.43	0.08	0.52	7.66

-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세부 업종별로 전체 근로자는 한식 육류(3.79명), 한식 해산물(3.54명), 한식 면류(3.38명), 한식 일반(3.03명) 순서로 많음. 내국인 상용근로자는 한식 면류(1.93명), 한식 육류(1.68명), 한식 해산물(1.64명), 한식 일반(1.49명) 순임.
- 지역별로 전체 근로자 수는 충청권(3.53명), 서울권(3.33명), 경남권(3.32명) 등의 순으로 많으며, 내국인 상용근로자는 경북권(1.99명), 서울권과 호남권(각 1.60명), 수도권(1.5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 전체 근로자는 5억 원 이상인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경우 6.97명, 5천만 원 미만 업체는 1.78명으로 조사됨. 내국인 상용근로자는 5억 원 이상 업체가 3.31명, 5천만 원 미만과 5천만 원~1억 원 미만은 각 1.11명으로 파악됨.

〈표 3-48-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 운영 형태별 근로자 수 분포(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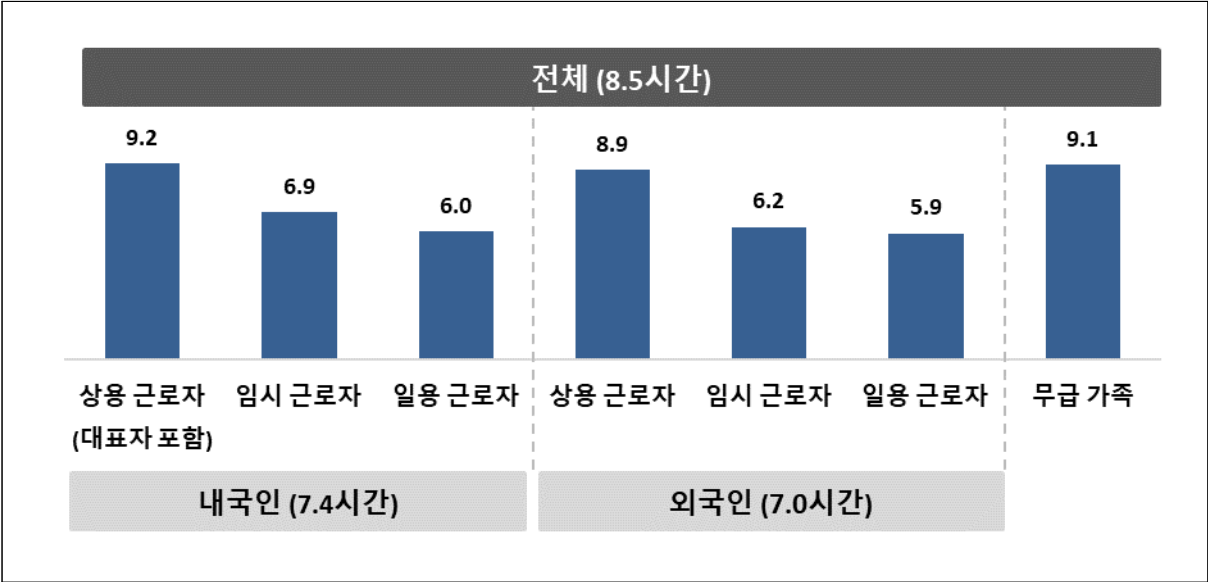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무급가족	전체
			상용(대표자 포함)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소계	대표자	상용							
전체		894	1.58	1.00	0.58	0.48	0.40	0.04	0.10	0.03	0.62	3.26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367	1.49	1.00	0.49	0.44	0.37	0.04	0.07	0.02	0.59	3.03
	한식 면류	149	1.93	1.00	0.93	0.36	0.33	0.03	0.15	0.03	0.56	3.38
	한식 육류	203	1.68	1.00	0.69	0.66	0.50	0.05	0.17	0.06	0.66	3.79
	한식 해산물	175	1.64	1.00	0.64	0.46	0.44	0.08	0.13	0.04	0.75	3.54
지역	서울권	117	1.60	1.00	0.60	0.74	0.22	0.12	0.10	0.01	0.55	3.33
	수도권	109	1.59	1.00	0.59	0.36	0.09	0.09	0.04	0.02	0.37	2.56
	충청권	191	1.39	1.00	0.39	0.49	0.41	0.00	0.35	0.11	0.77	3.53
	호남권	179	1.60	1.00	0.60	0.73	0.35	0.06	0.06	0.02	0.47	3.29
	경남권	165	1.43	1.00	0.43	0.35	0.79	0.01	0.02	0.02	0.71	3.32
	경북권	133	1.99	0.99	1.00	0.17	0.31	0.02	0.00	0.00	0.78	3.27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1.11	1.00	0.11	0.14	0.09	0.00	0.00	0.02	0.43	1.78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6	1.11	1.00	0.11	0.17	0.19	0.00	0.01	0.00	0.46	1.93
	1억 원~5억 원 미만	639	1.50	1.00	0.50	0.49	0.35	0.03	0.11	0.03	0.66	3.17
	5억 원 이상	110	3.31	0.99	2.32	1.14	1.31	0.25	0.25	0.10	0.61	6.97

(7) 1일 평균 근로 형태별 근로시간

- 한식 외식업체 근로자들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 근로자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8.5시간으로 분석됨.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7.4시간, 7.0시간으로 나타남. 내국인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9.2시간, 임시직은 6.9시간, 일용직은 6.0시간이고, 외국인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8.9시간, 임시직은 6.2시간, 일용직은 5.9시간으로 조사됨. 무급가족 근로자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1시간으로 나타남.
- 내국인 상용근로자는 9.2시간이며, 이 중 대표자는 9.4시간, 대표자를 제외한 상용근로자는 8.6시간임.¹⁴⁾

〈그림 3-45〉 한식: 1일 평균 근로 형태별 근로시간 분포

(단위: 시간)



- 한식 외식업체의 세부 업종별 1일 평균 근로시간은 한식 일반(8.7시간), 한식 해산물(8.5시간), 한식 면류(8.3시간), 한식 육류(8.1시간)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경북권(9.4시간), 수도권(8.8시간), 호남권(8.5시간), 서울권(8.4시간), 경남권(8.3시간), 충청권(8.1시간) 순서로 1일 평균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 5천만 원 미만인 업체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7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14) 2019년 이전 조사에서는 상용근로자에 대표자를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며, 2020년 조사부터 대표자와 상용근로자를 분리함.

〈표 3-49-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 운영 형태별 근로시간 분포(전체)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개소, 시간)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무급가족	전체
			상용(대표자 포함)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소계	대표자	상용							
Base		1,091	1,090	1,086	480	372	292	46	92	28	628	1,091
전체		1,091	9.2	9.4	8.6	6.9	6.0	8.9	6.2	5.9	9.1	8.5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450	9.4	9.6	8.8	7.0	6.0	9.0	6.6	6.2	9.3	8.7
	한식 면류	175	9.0	9.1	8.6	6.6	5.9	8.4	5.8	6.6	8.8	8.3
	한식 육류	275	8.8	9.0	8.2	6.9	5.7	8.7	5.7	5.8	8.7	8.1
	한식 해산물	191	9.1	9.4	8.6	6.8	6.4	9.6	6.6	4.9	8.9	8.5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97	9.5	9.6	8.6	6.8	5.8	7.8	6.2	5.9	9.5	8.6
	비프랜차이즈	894	9.2	9.4	8.6	6.9	6.0	9.2	6.2	5.8	9.0	8.5
지역	서울권	134	8.8	9.1	8.2	7.5	6.5	8.4	7.5	6.8	9.3	8.4
	수도권	151	9.0	9.0	8.7	7.4	7.3	9.1	7.6	5.9	9.2	8.8
	충청권	216	9.3	9.5	8.7	6.1	6.0	8.9	5.7	5.7	8.1	8.1
	호남권	198	9.4	9.4	9.4	6.4	6.1	10.0	6.0	5.0	9.2	8.5
	경남권	242	9.1	9.2	8.4	7.6	5.5	8.3	4.8	7.2	8.8	8.3
	경북권	150	9.6	10.1	8.4	6.9	6.8	8.0	6.0	-	10.2	9.4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9.4	9.5	8.7	6.6	3.6	-	-	6.0	8.6	8.7
	5천만 원~1억 원 미만	121	8.7	8.8	8.9	5.9	6.1	-	4.7	-	8.4	8.3
	1억 원~5억 원 미만	770	9.3	9.5	8.6	6.9	6.0	9.0	6.3	6.1	9.2	8.6
	5억 원 이상	171	8.9	9.4	8.5	7.1	6.1	8.8	5.9	5.0	9.3	8.2

-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업종별로는 한식 일반(9.2시간), 한식 면류(8.4시간), 한식 육류와 한식 해산물(각 7.7시간) 순서로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남.
-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지역별 근로시간은 경북권(10.3시간), 호남권(9.8시간), 충청권(8.6시간), 수도권(8.5시간), 경남권(8.2시간), 서울권(8.1시간)의 순임.
-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 업체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이 10.1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됨.

〈표 3-49-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 운영 형태별 근로시간 분포(프랜차이즈)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개소, 시간)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무급가족	전체	
			상용(대표자 포함)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소계	대표자	상용							
Base		197	196	194	124	11	16	89	66	6	106	197
전체		197	9.5	9.6	8.6	6.8	5.8	7.8	6.2	5.9	9.5	8.6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83	10.1	10.2	9.0	6.9	5.6	8.0	6.8	7.4	10.3	9.2
	한식 면류	26	9.7	10.0	8.9	5.7	6.2	8.0	5.4	-	9.3	8.4
	한식 육류	72	8.4	8.6	8.1	6.8	6.2	7.5	6.0	4.0	8.2	7.7
	한식 해산물	16	7.9	8.1	7.6	6.6	5.1	10.0	6.0	6.0	8.2	7.7
지역	서울권	17	9.1	9.4	8.7	6.4	5.9	8.0	6.2	-	9.7	8.1
	수도권	42	9.0	9.1	8.7	6.8	7.0	8.4	7.5	4.5	9.5	8.5
	충청권	25	9.8	9.9	9.2	5.9	7.1	-	4.0	8.0	9.2	8.6
	호남권	19	10.6	10.6	10.0	7.0	9.4	8.0	-	-	10.2	9.8
	경남권	77	9.2	9.3	8.2	7.1	5.4	6.9	7.1	6.0	9.1	8.2
	경북권	17	10.6	10.9	8.0	7.3	5.0	-	-	-	11.2	10.3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5	10.5	10.5	10.0	-	6.0	-	-	-	10.7	10.1
	1억 원~5억 원 미만	131	9.6	9.6	8.8	6.8	5.5	7.5	6.8	7.4	9.5	8.7
	5억 원 이상	61	8.9	9.4	8.3	6.8	6.5	8.0	5.8	4.6	9.2	8.1

-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업종별로는 한식 일반(8.7시간), 한식 해산물(8.5시간), 한식 면류(8.3시간), 한식 육류(8.2시간)의 순서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지역별로는 경북권(9.3시간), 수도권(8.9시간), 호남권(8.5시간) 등의 순서로 1일 평균 근로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 업체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7시간인 것으로 조사됨.

〈표 3-49-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 운영 형태별 근로시간 분포(비프랜차이즈)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개소, 시간)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무급가족	전체
			상용(대표자 포함)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소계	대표자	상용							
Base		894	894	892	356	283	226	35	76	22	522	894
전체		894	9.2	9.4	8.6	6.9	6.0	9.2	6.2	5.8	9.0	8.5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367	9.3	9.5	8.8	7.0	6.2	9.1	6.6	5.9	9.1	8.7
	한식 면류	149	8.9	9.0	8.5	6.7	5.8	8.5	5.9	6.6	8.8	8.3
	한식 육류	203	8.9	9.1	8.3	6.9	5.4	9.5	5.6	6.1	8.8	8.2
	한식 해산물	175	9.2	9.5	8.7	6.8	6.5	9.5	6.6	4.7	9.0	8.5
지역	서울권	117	8.8	9.0	8.1	7.6	6.6	8.5	8.1	6.8	9.3	8.4
	수도권	109	9.0	9.0	8.6	7.8	7.4	9.5	7.7	7.3	9.1	8.9
	충청권	191	9.2	9.5	8.6	6.1	5.7	8.9	5.8	5.4	8.0	8.0
	호남권	179	9.3	9.4	9.3	6.3	5.9	10.0	6.0	5.0	9.1	8.5
	경남권	165	9.1	9.2	8.6	7.9	5.6	10.0	3.7	7.5	8.8	8.4
	경북권	133	9.4	10.1	8.4	6.8	6.8	8.0	6.0	-	10.1	9.3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9.4	9.5	8.7	6.6	3.6	-	-	6.0	8.6	8.7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6	8.7	8.7	8.8	5.9	6.1	-	4.7	-	8.2	8.2
	1억 원~5억 원 미만	639	9.3	9.5	8.6	7.0	6.1	9.3	6.2	6.0	9.1	8.6
	5억 원 이상	110	8.9	9.4	8.6	7.3	5.9	9.2	6.0	5.3	9.3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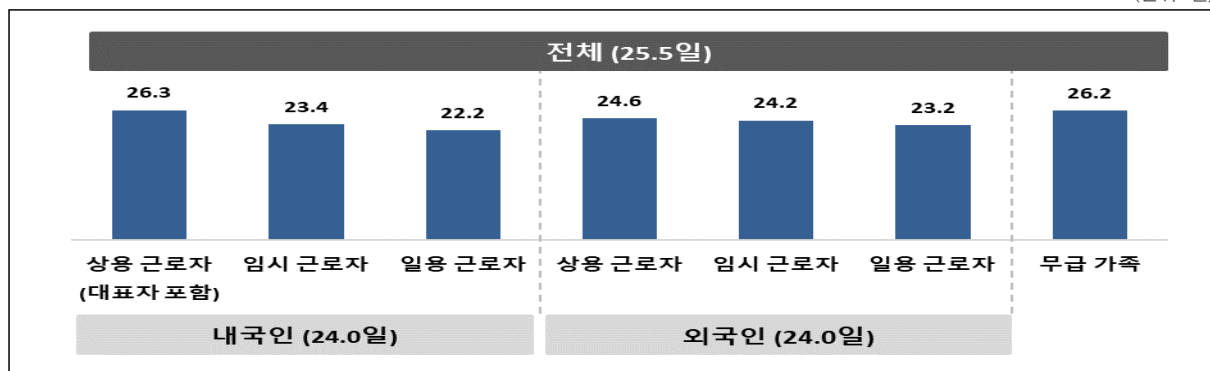
(8) 월평균 근로 형태별 근로일수

○ 한식 외식업체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5.5일로 나타남. 내국인 근로자는 월평균 24.0일, 외국인 근로자는 월평균 24.0일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됨. 내국인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6.3일, 임시직은 23.4일, 일용직은 22.2일이고, 외국인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4.6일, 임시직은 24.2일, 일용직은 23.2일로 파악됨. 무급가족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6.2일로 나타남.

- 내국인 상용근로자는 26.3일이며, 이 중 대표자는 26.6일, 대표자를 제외한 상용근로자는 25.2일임.¹⁵⁾

〈그림 3-46〉 한식: 월평균 근로 형태별 근로일수 분포

(단위: 일)



15) 2019년 이전 조사에서는 상용근로자에 대표자를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며, 2020년 조사부터 대표자와 상용근로자를 분리함.

- 한식 외식업체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업종별·지역별·매출액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는 한식 일반과 한식 면류, 한식 해산물(각 25.5일), 한식 육류(25.4일) 순서로 근로일수가 긴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경북권(26.4일), 수도권(25.9일), 충청권(25.6일), 서울권(25.4일), 호남권(25.2일), 경남권(24.9일) 순서로 월평균 근로일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 업체의 경우 25.1일로 월평균 근로일수가 작은 반면, 5천만 원 미만 업체는 25.9일로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50-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일수 분포(전체)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개소, 일)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무급가족	전체
			상용(대표자 포함)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소계	대표자	상용							
Base		1,091	1,090	1,086	480	372	292	46	92	28	628	1,091
전체		1,091	26.3	26.6	25.2	23.4	22.2	24.6	24.2	23.2	26.2	25.5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450	26.3	26.6	25.1	23.4	22.1	23.5	24.9	23.3	26.2	25.5
	한식 면류	175	26.1	26.3	25.5	23.6	23.2	25.5	24.8	25.6	25.9	25.5
	한식 육류	275	26.5	26.9	25.3	23.3	22.5	25.4	23.1	22.5	26.3	25.4
	한식 해산물	191	26.3	26.5	25.5	24.1	21.9	25.5	24.6	23.6	26.0	25.5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97	26.4	27.1	24.5	23.4	21.0	24.2	22.9	18.0	27.2	25.4
	비프랜차이즈	894	26.3	26.6	25.4	23.4	22.6	24.7	24.5	24.1	26.0	25.5
지역	서울권	134	26.2	26.4	25.4	24.5	21.2	24.9	24.1	20.4	25.9	25.4
	수도권	151	26.0	26.2	25.3	25.0	24.1	25.7	24.5	22.6	26.4	25.9
	충청권	216	26.4	26.6	25.7	23.9	25.2	25.8	25.0	24.4	25.2	25.6
	호남권	198	26.7	27.0	25.0	21.2	21.7	23.7	24.7	18.2	26.7	25.2
	경남권	242	26.0	26.5	23.8	23.0	21.3	21.8	15.5	23.7	26.1	24.9
	경북권	150	26.7	27.0	26.2	24.5	22.7	26.0	30.0	-	27.0	26.4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26.6	26.6	24.8	24.7	24.4	-	-	24.0	25.1	25.9
	5천만 원~1억 원 미만	121	26.3	26.4	25.4	22.6	20.3	-	25.9	-	24.9	25.6
	1억 원~5억 원 미만	770	26.3	26.6	25.2	23.5	22.2	24.3	24.6	24.0	26.3	25.5
	5억 원 이상	171	26.4	27.4	25.1	23.2	23.0	24.9	22.5	20.7	26.5	25.1

-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5.4일로 나타남.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세부 업종별 월평균 근로일수는 한식 면류(25.8일), 한식 일반(25.6일), 한식 해산물(25.2일), 한식 육류(24.9일) 순서로 파악됨.
-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지역별로는 경북권(27.3일), 수도권(26.3일), 충청권(26.1일) 등의 순서로 월평균 근로일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 업체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27.0일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50-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일수 분포(프랜차이즈)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개소, 일)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무급가족	전체	
			상용(대표자 포함)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소계	대표자	상용							
Base		197	196	194	124	89	66	11	16	6	106	197
전체		197	26.4	27.1	24.5	23.4	21.0	24.2	22.9	18.0	27.2	25.4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83	26.6	27.2	24.4	23.0	20.7	26.0	24.6	15.7	27.3	25.6
	한식 면류	26	26.3	26.7	25.9	22.6	25.5	20.0	20.0	-	27.0	25.8
	한식 육류	72	26.2	26.8	24.7	24.3	20.9	24.0	22.1	20.0	26.9	24.9
	한식 해산물	16	25.7	27.0	23.1	22.2	20.4	26.0	20.0	20.0	28.1	25.2
지역	서울권	17	25.0	25.8	24.5	23.2	21.0	23.9	24.0	-	24.8	23.9
	수도권	42	26.4	27.0	25.4	25.1	22.7	26.0	24.4	20.0	27.5	26.3
	충청권	25	27.1	27.3	25.9	23.7	25.2	-	21.0	16.0	27.1	26.1
	호남권	19	26.8	27.9	25.1	21.0	18.0	26.0	-	-	27.7	24.6
	경남권	77	26.2	27.1	23.2	22.1	20.2	21.7	18.5	15.0	27.1	24.7
	경북권	17	27.1	27.3	26.4	26.5	26.0	-	-	-	27.6	27.3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5	27.5	28.0	20.0	-	25.0	-	-	-	27.0	27.0
	1억 원~5억 원 미만	131	26.4	26.8	24.5	23.5	21.0	22.6	23.5	17.2	27.0	25.4
	5억 원 이상	61	26.4	27.7	24.6	23.1	20.8	25.2	22.3	18.7	28.0	24.9

-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5.5일임.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업종별 월평균 근로일수는 모든 업종에서 각 25.5일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지역별로는 경북권(26.3일), 수도권(25.7일), 서울권(25.6일), 충청권(25.5일) 등의 순서로 월평균 근로일수가 많고,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 업체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25.9일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3-50-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근로일수 분포(비프랜차이즈)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개소,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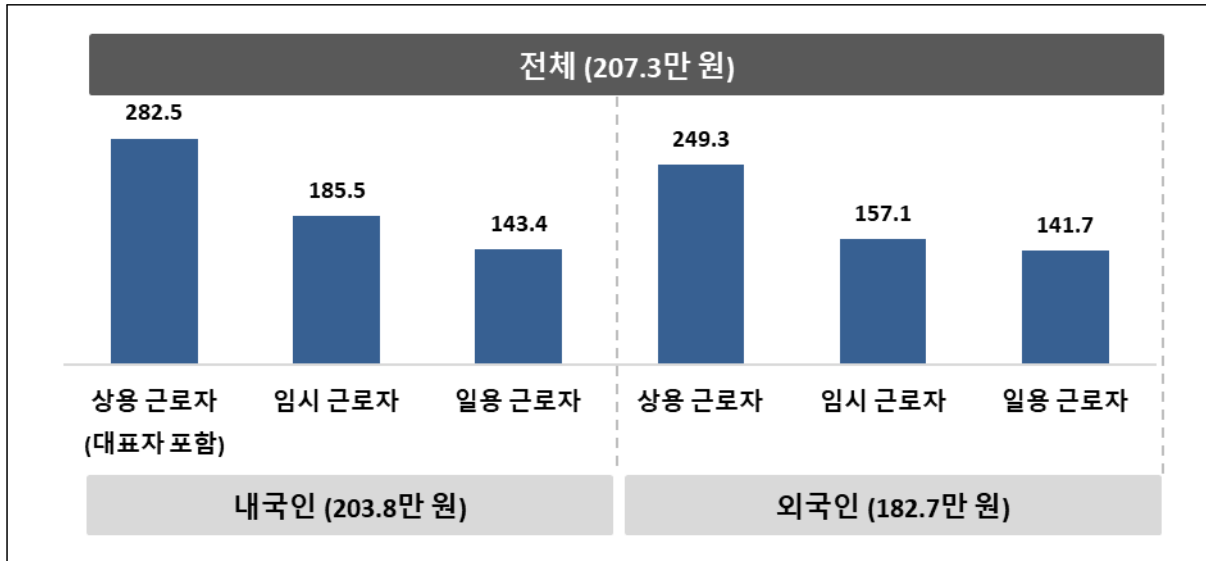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무급가족	전체
			상용(대표자 포함)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소계	대표자	상용							
Base		894	894	892	356	283	226	35	76	22	522	894
전체		894	26.3	26.6	25.4	23.4	22.6	24.7	24.5	24.1	26.0	25.5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367	26.3	26.5	25.3	23.4	22.5	23.4	25.0	24.6	25.9	25.5
	한식 면류	149	26.1	26.3	25.4	23.8	22.7	27.2	25.2	25.6	25.8	25.5
	한식 육류	203	26.6	26.9	25.6	22.9	23.3	26.2	23.4	23.0	26.1	25.5
	한식 해산물	175	26.3	26.5	25.7	24.4	21.9	25.5	24.9	24.1	25.9	25.5
지역	서울권	117	26.3	26.5	25.6	24.7	21.2	25.1	24.1	20.4	25.9	25.6
	수도권	109	25.8	25.9	25.1	25.0	24.6	25.5	24.5	25.3	25.9	25.7
	충청권	191	26.3	26.5	25.7	24.0	25.2	25.8	25.2	25.2	25.0	25.5
	호남권	179	26.7	26.9	25.0	21.2	21.9	23.7	24.7	18.2	26.6	25.3
	경남권	165	26.0	26.3	24.3	23.6	21.9	22.0	14.1	25.8	25.6	25.0
	경북권	133	26.7	27.0	26.2	23.9	22.6	26.0	30.0	-	27.0	26.3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26.6	26.6	24.8	24.7	24.4	-	-	24.0	25.1	25.9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6	26.3	26.4	25.8	22.6	19.9	-	25.9	-	24.7	25.5
	1억 원~5억 원 미만	639	26.3	26.5	25.5	23.5	22.5	24.6	24.7	24.7	26.2	25.5
	5억 원 이상	110	26.4	27.2	25.3	23.3	24.2	24.7	22.6	21.7	25.9	25.2

(9) 월평균 근로 형태별 인건비

- 한식 외식업체의 전체 근로자 월평균 인건비는 207.3만 원으로 조사됨. 내국인은 203.8만 원이고, 외국인인 199.4만 원으로 나타남. 내국인 중 상용근로자는 282.5만 원, 임시직은 185.5만 원, 일용직은 143.4만 원이고, 외국인 중 상용근로자는 249.3만 원, 임시직은 157.1만 원, 일용직은 141.7만 원으로 파악됨.
- 한식 외식업체의 업종별·지역별·매출액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세부 업종별로는 한식 일반(210.0만 원), 한식 해산물(209.1만 원), 한식 육류(203.4만 원), 한식 면류(196.9만 원)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수도권(260.7만 원), 경북권(239.2만 원), 서울권(231.9만 원) 등의 순서로 월평균 인건비가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인 한식 외식업체의 경우 월평균 인건비가 224.8만 원인 데 비해, 5천만 원 미만 업체는 157.6만 원 수준임.

〈그림 3-47〉 한식: 월평균 근로 형태별 인건비 분포

(단위: 만 원)



〈표 3-51-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인건비 분포(전체)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개소, 만 원)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전체
			상용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Base		1,091	462	372	292	46	92	28	804
전체		1,091	282.5	185.5	143.4	249.3	157.1	141.7	207.3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450	288.6	185.1	144.5	251.5	161.2	150.4	210.0
	한식 면류	175	264.6	178.5	149.2	284.9	155.6	174.2	196.9
	한식 육류	275	274.0	187.8	139.8	237.4	149.0	135.9	203.4
	한식 해산물	191	281.8	185.6	142.7	256.9	171.5	117.7	209.1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97	278.3	184.2	135.5	229.2	149.3	119.8	205.5
	비프랜차이즈	894	283.8	185.9	145.7	254.3	158.6	145.5	207.8
지역	서울권	134	291.8	212.9	165.3	265.0	199.0	143.3	231.9
	수도권	151	294.0	231.2	191.4	236.3	191.9	122.5	260.7
	충청권	216	267.0	154.6	155.8	300.2	145.7	144.0	180.3
	호남권	198	300.9	139.7	139.8	264.9	138.7	116.8	189.9
	경남권	242	270.3	215.0	127.5	214.5	112.8	180.0	185.6
	경북권	150	273.5	193.6	157.9	240.0	210.0	-	239.2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281.0	147.2	114.2	-	-	130.0	157.6
	5천만 원~1억 원 미만	121	276.6	151.3	123.1	-	124.2	-	166.6
	1억 원~5억 원 미만	770	281.7	185.0	143.4	246.5	158.0	152.9	207.8
	5억 원 이상	171	285.9	200.1	152.6	253.0	156.8	110.2	224.8

-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월평균 인건비는 205.5만 원으로 나타남.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업종별 월평균 인건비는 한식 일반 업체가 210.9만 원으로 높은 반면, 한식 육류는 197.4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지역별로는 수도권(257.4만 원), 서울권(237.6만 원), 경북권(232.8만 원), 호남권(211.3만 원) 등의 순서로 월평균 인건비가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인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월평균 인건비가 218.7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51-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인건비 분포(프랜차이즈)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개소, 만 원)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전체
			상용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Base		197	119	89	66	11	16	6	174
전체		197	278.3	184.2	135.5	229.2	149.3	119.8	205.5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83	287.9	188.7	134.7	250.0	176.6	139.0	210.9
	한식 면류	26	276.8	153.6	166.0	410.0	100.0	-	210.6
	한식 육류	72	267.9	182.2	133.0	207.1	134.9	86.3	197.4
	한식 해산물	16	249.3	170.4	117.2	220.0	150.0	150.0	197.6
지역	서울권	17	305.6	194.2	127.0	306.0	160.3	-	237.6
	수도권	42	295.3	198.1	151.2	233.7	174.6	102.5	257.4
	충청권	25	274.3	163.3	176.4	-	82.5	160.0	191.6
	호남권	19	312.2	139.1	166.5	330.0	-	-	211.3
	경남권	77	256.4	183.8	125.2	171.9	171.5	90.0	171.7
	경북권	17	257.9	213.4	198.0	-	-	-	232.8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5	309.0	-	150.0	-	-	-	216.4
	1억 원~5억 원 미만	131	278.9	182.4	128.8	182.0	161.4	157.1	200.7
	5억 원 이상	61	276.2	188.8	148.3	261.9	138.7	87.3	218.7

-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월평균 인건비는 207.8만 원 수준임.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월평균 인건비는 세부 업종별로 한식 해산물(210.2만 원)과 한식 일반(209.8만 원)이 비교적 높은 반면, 한식 면류(194.6만 원)는 상대적으로 낮음.
-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지역별로는 수도권(262.8만 원), 경북권(239.9만 원), 서울권(231.1만 원) 등의 순서로 월평균 인건비가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인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경우 월평균 인건비가 227.9만 원인 데 비해, 5천만 원 미만 업체는 157.9만 원 수준으로 나타남.

〈표 3-51-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인건비 분포(비프랜차이즈)

(Base: 각 구분별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위: 개소,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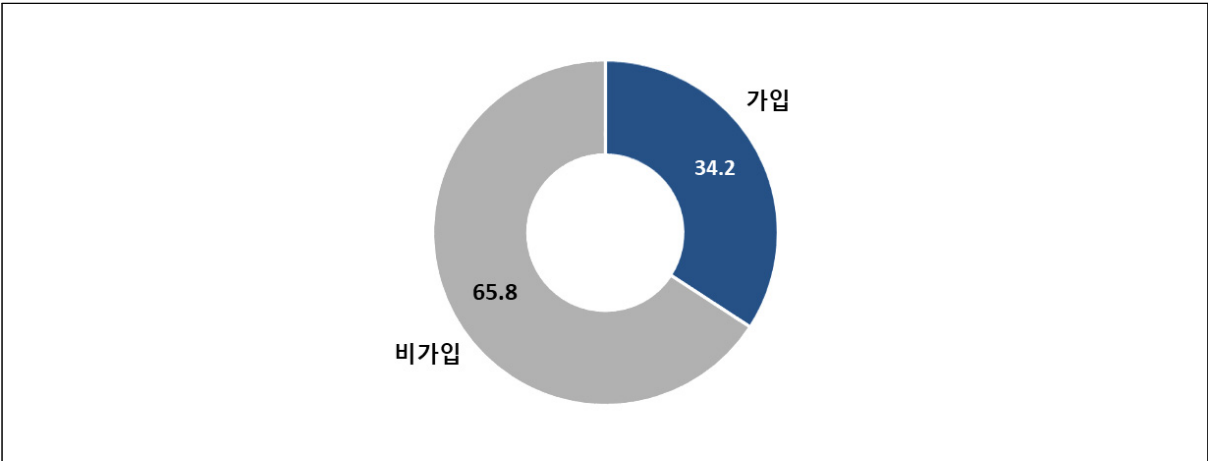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내국인			외국인			전체
			상용	임시직	일용직	상용	임시직	일용직	
Base		894	343	283	226	35	76	22	630
전체		894	283.8	185.9	145.7	254.3	158.6	145.5	207.8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367	288.9	184.2	147.3	251.6	158.8	152.5	209.8
	한식 면류	149	262.2	182.3	145.3	247.7	160.7	174.2	194.6
	한식 육류	203	276.9	190.0	143.1	256.8	153.3	146.5	205.6
	한식 해산물	175	285.8	187.9	143.4	262.7	172.9	112.8	210.2
지역	서울권	117	288.6	215.4	172.0	257.0	219.1	143.3	231.1
	수도권	109	293.1	252.7	204.6	237.6	207.7	142.7	262.8
	충청권	191	265.9	153.4	151.1	300.2	149.6	142.5	178.6
	호남권	179	299.7	139.8	138.3	264.8	138.7	116.8	188.3
	경남권	165	284.4	235.9	128.8	264.0	84.6	200.8	193.9
	경북권	133	274.4	186.7	157.1	240.0	210.0	-	239.9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281.0	147.2	114.2	-	-	130.0	157.6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6	274.1	151.3	121.1	-	124.2	-	163.6
	1억 원~5억 원 미만	639	282.4	185.7	147.3	257.3	157.6	152.4	209.5
	5억 원 이상	110	291.4	206.6	154.9	249.7	170.2	121.1	227.9

(10) 고용보험 가입 여부

○ 한식 외식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은 34.2%이며, 평균 가입자 수는 2.3명임.

〈그림 3-48〉 한식: 고용보험 가입 여부

(단위: %)



- 한식 외식업체의 세부 업종별로는 한식 해산물이 44.3%로 가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다음이 한식 육류(41.4%), 한식 일반(30.8%), 한식 면류(29.1%)의 순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경남권(51.1%),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72.6%) 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가장 높음.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인 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은 6.5%에 불과함.

〈표 3-52-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고용보험 가입 여부(전체)

(단위: 개소, %, 명)

구분		사례수	가입여부		(Base=가입여부 “가입”)
			가입	비가입	평균 가입자 수
전체		1,091	34.2	65.8	2.3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450	30.8	69.2	2.2
	한식 면류	175	29.1	70.9	2.8
	한식 육류	275	41.4	58.6	2.6
	한식 해산물	191	44.3	55.7	2.1
운영형태	프랜차이즈	197	59.3	40.7	2.6
	비프랜차이즈	894	29.2	70.8	2.2
지역	서울권	134	43.9	56.1	2.9
	수도권	151	41.1	58.9	2.8
	충청권	216	22.1	77.9	2.1
	호남권	198	26.4	73.6	2.4
	경남권	242	51.1	48.9	2.0
	경북권	150	18.9	81.1	2.1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6.5	93.5	1.2
	5천만 원~1억 원 미만	121	10.0	90.0	1.4
	1억 원~5억 원 미만	770	34.1	65.9	1.8
	5억 원 이상	171	72.6	27.4	4.2

-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은 59.3%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경남권(73.4%)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가장 높음.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 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은 84.5%인 반면, 5천만 원~1억 원 미만 업체는 16.1%인 것으로 파악됨.

〈표 3-52-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고용보험 가입 여부(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명)

구분		사례 수	가입 여부		(Base=가입 여부 "가입")
			가입	비가입	평균 가입자 수
전체		197	59.3	40.7	2.6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83	56.2	43.8	2.4
	한식 면류	26	35.4	64.6	2.5
	한식 육류	72	65.7	34.3	3.0
	한식 해산물	16	83.3	16.7	2.0
지역	서울권	17	83.4	16.6	3.6
	수도권	42	67.0	33.0	2.9
	충청권	25	26.0	74.0	3.6
	호남권	19	51.4	48.6	2.7
	경남권	77	73.4	26.6	2.1
	경북권	17	10.1	89.9	5.1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5	16.1	83.9	4.0
	1억 원~5억 원 미만	131	54.3	45.7	1.8
	5억 원 이상	61	84.5	15.5	4.4

-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은 29.2%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경남권(41.6%)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비교적 높음. 매출액 규모별로 5억 원 이상 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66.7%인 반면, 5천만 원 미만 업체는 6.5%에 불과함.

〈표 3-52-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고용보험 가입 여부(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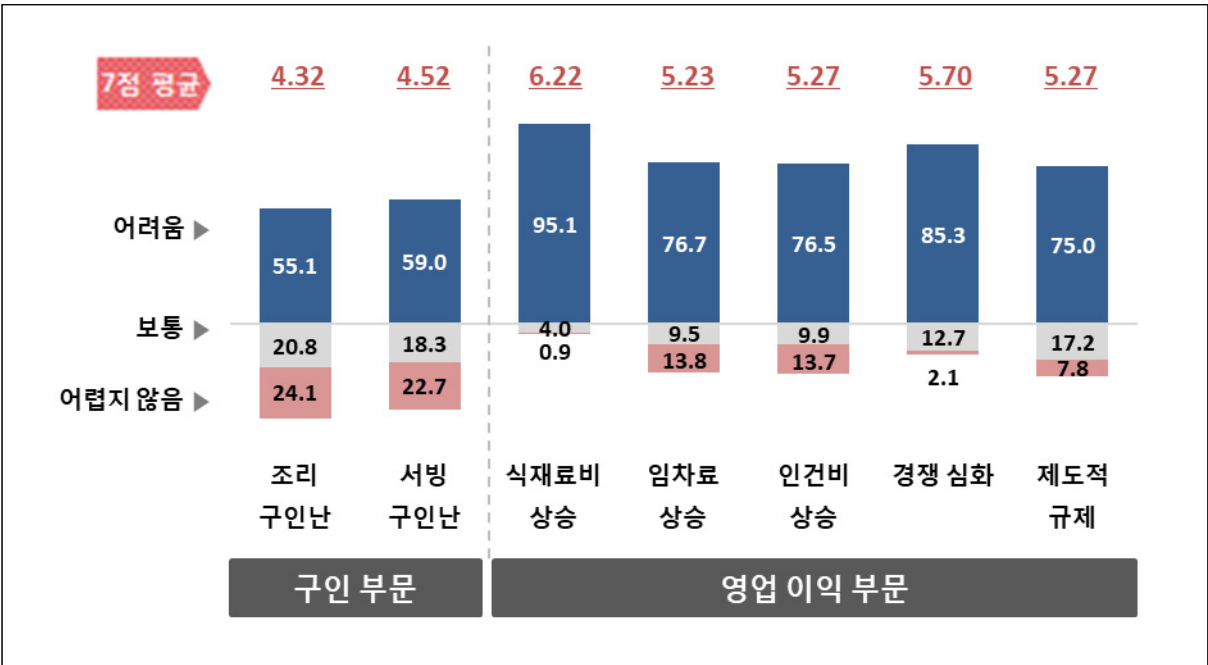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가입 여부		(Base=가입 여부 "가입")
			가입	비가입	평균 가입자 수
전체		894	29.2	70.8	2.2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367	25.8	74.2	2.2
	한식 면류	149	28.3	71.7	2.8
	한식 육류	203	33.8	66.2	2.3
	한식 해산물	175	41.3	58.7	2.1
지역	서울권	117	39.6	60.4	2.7
	수도권	109	31.3	68.7	2.7
	충청권	191	21.6	78.4	1.9
	호남권	179	24.4	75.6	2.4
	경남권	165	41.6	58.4	1.9
	경북권	133	19.8	80.2	1.9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6.5	93.5	1.2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6	9.7	90.3	1.2
	1억 원~5억 원 미만	639	29.9	70.1	1.8
	5억 원 이상	110	66.7	33.3	4.1

(11) 경영상 애로사항

- 한식 외식업체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조리 구인난, 서빙 구인난 등 구인 부문과 식재료비 상승, 임차료 상승, 인건비 상승, 산업 내 경쟁 강도, 동일 업종 내 경쟁 강도 등 영업이익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함.
- 구인 부문에서 조리 구인이 어렵다는 응답 비중이 55.1%, 서빙 구인은 59.0%가 어렵다고 응답함. 영업 이익 부문에서는 식재료비 상승은 95.1%, 임차료 상승은 76.7%, 인건비 상승은 76.5%, 외식산업 내 경쟁 심화는 85.3%, 제도적 규제는 75.0%가 어렵다고 응답함.
- 한식 외식업체의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해 모든 한식 업종에서 식재료비 상승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파악됨.

〈그림 3-49〉 한식: 경영상 애로사항

(단위: %)



-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식재료비 상승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 모든 규모에서 식재료비 상승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음.

〈표 3-53-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어려움’ 비율(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구인난-조리	구인난-서빙	식재료비 상승	임차료 상승	인건비 상승	경쟁 심화	제도적 규제
전체		1,091	55.1	59.0	95.1	76.7	76.5	85.3	75.0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450	54.1	56.1	95.7	75.7	74.6	83.5	72.5
	한식 면류	175	51.7	59.9	96.0	78.8	76.7	87.6	75.3
	한식 육류	275	58.3	64.5	93.4	75.7	78.0	88.7	80.2
	한식 해산물	191	57.1	65.0	94.9	84.1	85.3	86.7	79.0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97	57.7	57.7	97.2	85.7	81.7	89.0	80.4
	비프랜차이즈	894	54.6	59.3	94.7	74.9	75.4	84.5	73.9
지역	서울권	134	67.0	71.8	84.3	78.3	74.1	80.5	75.7
	수도권	151	80.9	84.5	93.3	88.2	81.3	77.0	69.7
	충청권	216	62.6	69.5	94.6	73.9	87.4	90.5	77.8
	호남권	198	55.6	54.2	97.9	77.6	82.9	84.0	75.3
	경남권	242	29.7	35.1	98.2	69.1	68.9	88.3	70.2
	경북권	150	53.2	57.7	97.6	79.7	62.9	86.6	83.3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26.4	31.1	100.0	74.8	46.4	72.6	45.9
	5천만 원~1억 원 미만	121	36.7	44.6	96.6	70.9	60.5	75.7	67.7
	1억 원~5억 원 미만	770	57.0	60.3	94.6	77.4	78.0	87.0	77.2
	5억 원 이상	171	73.2	76.0	95.7	79.4	94.1	88.5	77.9

-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주요 애로사항은 식재료비 상승(97.2%), 경쟁 심화(89.0%), 임차료 상승(85.7%), 인건비 상승(81.7%) 등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업종별로는 한식 일반(97.1%)과 한식 육류(98.5%)의 경우 식재료비 상승의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충청권과 호남권, 경북권은 식재료비 상승이 100.0%로 나타났고, 충청권의 경우 경쟁 심화(100.0%)도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1억 원 미만 업체의 경우 경쟁 심화(100.0%)가 주된 어려움인 것으로 파악됨.

〈표 3-53-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어려움' 비율(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구인난-조리	구인난-서빙	식재료비 상승	임차료 상승	인건비 상승	경쟁 심화	제도적 규제
전체		197	57.7	57.7	97.2	85.7	81.7	89.0	80.4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83	56.5	57.1	97.1	82.8	78.8	88.2	80.3
	한식 면류	26	70.6	62.4	93.5	92.0	87.6	99.2	86.0
	한식 육류	72	61.3	60.0	98.5	90.6	86.8	89.5	80.3
	한식 해산물	16	29.8	40.1	91.9	83.9	76.4	85.5	76.9
지역	서울권	17	71.1	39.2	96.2	65.7	96.2	92.8	89.0
	수도권	42	87.1	87.7	92.2	89.9	84.5	74.3	66.7
	충청권	25	84.2	86.7	100.0	90.6	96.6	100.0	77.7
	호남권	19	50.7	62.3	100.0	87.4	81.7	87.8	69.5
	경남권	77	34.9	36.5	97.8	84.7	79.2	95.2	90.3
	경북권	17	49.0	49.0	100.0	86.7	49.0	74.7	74.7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5	38.7	66.5	83.9	83.9	72.1	100.0	72.1
	1억 원~5억 원 미만	131	53.8	55.3	98.0	87.5	78.9	89.5	81.8
	5억 원 이상	61	74.9	64.7	96.5	79.8	93.3	85.4	76.8

○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주요 애로사항은 식재료비 상승(94.7%), 경쟁 심화(84.5%), 인건비 상승(75.4%) 등임.

○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모든 업종에서 식재료비 상승이 주된 어려움으로 조사됨. 지역별로는 식재료비 상승을 제외하고 충청권은 경쟁 심화(89.1%) 등이 주된 어려움으로 조사됨.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 업체의 경우 식재료비 상승(95.2%)과 인건비 상승(94.5%)이 주된 어려움으로 나타남.

〈표 3-53-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어려움' 비율(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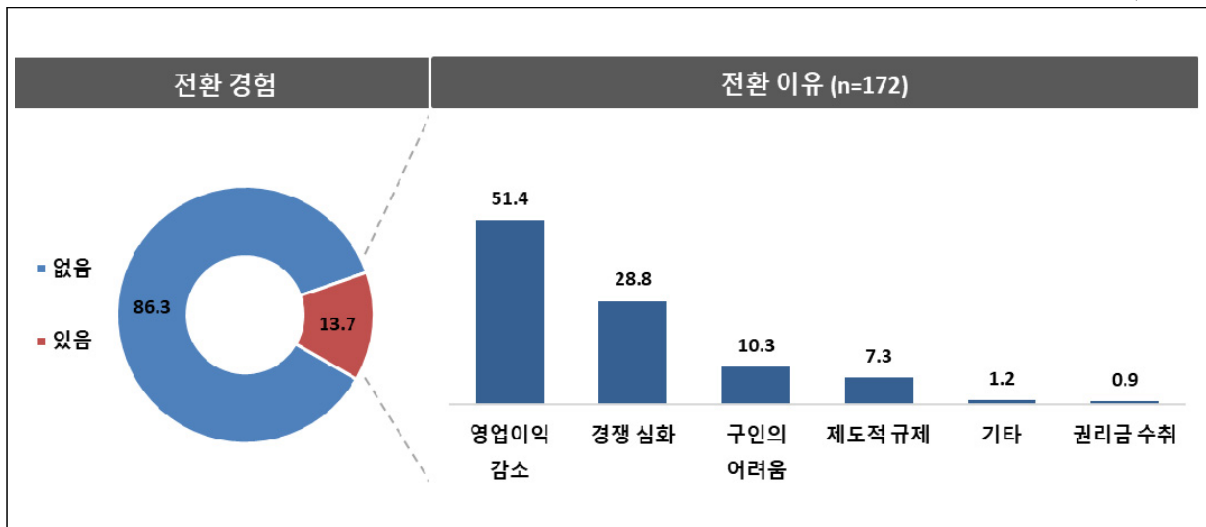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구인난-조리	구인난-서빙	식재료비 상승	임차료 상승	인건비 상승	경쟁 심화	제도적 규제
전체		894	54.6	59.3	94.7	74.9	75.4	84.5	73.9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367	53.6	55.9	95.5	74.4	73.8	82.6	71.0
	한식 면류	149	49.5	59.6	96.3	77.3	75.5	86.2	74.1
	한식 육류	203	57.4	65.9	91.8	71.0	75.2	88.5	80.2
	한식 해산물	175	59.2	66.9	95.1	84.1	85.9	86.8	79.2
지역	서울권	117	66.5	75.4	82.9	79.7	71.6	79.1	74.2
	수도권	109	78.6	83.3	93.7	87.6	80.1	78.1	70.8
	충청권	191	59.5	67.1	93.9	71.6	86.2	89.1	77.8
	호남권	179	56.0	53.5	97.7	76.8	83.0	83.6	75.7
	경남권	165	27.5	34.5	98.4	62.4	64.5	85.3	61.7
	경북권	133	53.7	58.6	97.3	79.0	64.3	87.8	84.3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26.4	31.1	100.0	74.8	46.4	72.6	45.9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6	36.6	43.5	97.2	70.2	59.9	74.4	67.4
	1억 원~5억 원 미만	639	57.6	61.4	93.9	75.3	77.8	86.5	76.3
	5억 원 이상	110	72.4	81.6	95.2	79.1	94.5	90.0	78.4

(12) 외식업 종사 이후 업종 전환 경험 및 이유

- 한식 업종에서 외식업 종사 이후 업종 전환 경험이 있는 업체 비율은 13.7%이고, 경험이 없는 비율은 86.3%로 나타남. 업종을 전환한 주요 이유는 영업이익 감소(51.4%), 경쟁 심화(28.8%), 구인의 어려움(10.3%), 제도적 규제(7.3%) 등의 순서로 조사됨.

〈그림 3-50〉 한식: 외식업 종사 이후 업종 전환 경험 및 이유

(단위: %)



주: 업종 전환 이유는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 한식 세부 업종별로 외식업 종사 이후 업종 전환 경험은 한식 면류(27.1%)와 한식 해산물(16.4%)의 업종 전환 경험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충청권(36.2%), 경북권(19.3%), 호남권(14.6%) 등의 순서로 업종 전환 경험이 높음. 충청권의 업종 전환 이유는 영업이익 감소(55.3%), 경쟁 심화(22.6%) 등으로 조사됨.
-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 원~5억 원 미만인 한식 외식업체에서 업종 전환 비율이 14.8%로 상대적으로 높고, 5천만 원 미만 업체의 전환 비율은 0.0%로 가장 낮음.

〈표 3-54-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외식업 종사 이후 업종 전환 경험 및 이유(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전환 경험		전환 이유(Base=전환 경험 “있음”)						전환 횟수
			있음	없음	구인의 어려움	영업이익 감소	제도적 규제	경쟁 심화	관리금 수취	기타	평균
전체		1,091	13.7	86.3	10.3	51.4	7.3	28.8	0.9	1.2	1.2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450	12.1	87.9	13.9	52.2	4.8	27.0	0.7	1.4	1.4
	한식 면류	175	27.1	72.9	6.1	53.7	9.7	29.6	0.0	0.9	0.9
	한식 육류	275	12.8	87.2	4.2	49.0	12.5	30.2	2.6	1.5	1.5
	한식 해산물	191	16.4	83.6	8.8	48.8	7.3	35.1	0.0	0.0	0.0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97	13.4	86.6	9.8	40.5	8.0	40.6	1.2	0.0	0.0
	비프랜차이즈	894	13.8	86.2	10.4	53.9	7.2	26.1	0.9	1.5	1.5
지역	서울권	134	6.5	93.5	21.9	33.8	0.0	44.3	0.0	0.0	0.0
	수도권	151	1.5	98.5	2.1	23.3	23.8	50.9	0.0	0.0	0.0
	충청권	216	36.2	63.8	11.1	55.3	5.2	26.6	1.5	0.3	0.3
	호남권	198	14.6	85.4	1.7	66.2	2.3	25.1	0.0	4.7	4.7
	경남권	242	2.1	97.9	30.6	18.0	20.1	25.5	5.7	0.0	0.0
	경북권	150	19.3	80.7	11.8	38.7	16.9	32.6	0.0	0.0	0.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121	13.1	86.9	1.6	61.6	2.1	31.6	0.0	3.2	3.2
	1억 원~5억 원 미만	770	14.8	85.2	12.4	49.7	8.4	27.4	1.2	0.9	0.9
	5억 원 이상	171	11.6	88.4	4.0	52.9	4.7	37.2	0.0	1.3	1.3

주: 업종 전환 이유는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경우 세부 업종별로 전환 비율은 한식 면류(18.6%)가 높고, 주요 전환 이유는 영업이익 감소(45.4%)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충청권(48.1%)에서 업종 전환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충청권의 주요 전환 이유는 영업이익 감소(47.1%), 경쟁 심화(39.1%) 등임.
-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1억 원 미만의 업종 전환 비율이 22.5%로 가장 높으며, 업종 전환 주요 이유는 경쟁 심화(66.7%)와 영업이익 감소(33.3%)로 파악됨.

〈표 3-54-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외식업 종사 이후 업종 전환 경험 및 이유(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전환 경험		전환 이유(Base=전환 경험 “있음”)					전환 횟수
			있음	없음	구인의 어려움	영업이익 감소	제도적 규제	경쟁 심화	권리금 수취	평균
전체		197	13.4	86.6	9.8	40.5	8.0	40.6	1.2	1.3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83	14.9	85.1	13.7	38.7	9.4	38.2	0.0	1.2
	한식 면류	26	18.6	81.4	10.6	45.4	0.0	44.0	0.0	1.0
	한식 육류	72	11.5	88.5	0.0	43.8	6.4	45.5	4.3	1.6
	한식 해산물	16	0.0	100.0	0.0	0.0	0.0	0.0	0.0	-
지역	서울권	17	10.3	89.7	0.0	33.3	0.0	66.7	0.0	1.0
	수도권	42	3.4	96.6	0.0	0.5	33.1	66.4	0.0	2.0
	충청권	25	48.1	51.9	9.6	47.1	4.2	39.1	0.0	1.3
	호남권	19	8.2	91.8	0.0	66.7	0.0	33.3	0.0	1.0
	경남권	77	5.6	94.4	28.9	14.1	23.9	26.5	6.7	1.2
	경북권	17	29.4	70.6	0.0	54.7	0.0	45.3	0.0	1.4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5	22.5	77.5	0.0	33.3	0.0	66.7	0.0	1.0
	1억 원~5억 원 미만	131	13.1	86.9	13.3	42.1	10.9	32.2	1.6	1.2
	5억 원 이상	61	12.8	87.2	0.0	36.8	0.0	63.2	0.0	1.6

주: 업종 전환 이유는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경우 세부 업종별로 전환 비율은 한식 면류(28.1%)와 한식 해산물(17.6%)가 높고, 주요 전환 이유는 영업이익 감소, 경쟁 심화 등으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지역별 업종 전환 비율은 충청권(34.6%), 경북권(18.3%) 등의 순서로 높음. 충청권, 경북권 모두 주요 전환 이유는 영업이익 감소(각 57.3%, 35.5%)인 것으로 조사됨.
-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 원~5억 원 미만 업체의 업종 전환 비율이 15.2%로 가장 높으며, 업종 전환 주요 이유는 영업이익 감소(51.3%), 경쟁 심화(26.4%) 등임.

〈표 3-54-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외식업 종사 이후 업종 전환 경험 및 이유(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전환 경험		전환 이유(Base=전환 경험 “있음”)						전환 횟수
			있음	없음	구인의 어려움	영업이익 감소	제도적 규제	경쟁 심화	관리금 수취	기타	평균
전체		894	13.8	86.2	10.4	53.9	7.2	26.1	0.9	1.5	1.1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367	11.6	88.4	13.9	56.1	3.5	23.8	0.9	1.8	1.1
	한식 면류	149	28.1	71.9	5.7	54.5	10.6	28.2	0.0	1.0	1.2
	한식 육류	203	13.2	86.8	5.6	50.7	14.5	25.2	2.0	2.0	1.2
	한식 해산물	175	17.6	82.4	8.8	48.8	7.3	35.1	0.0	0.0	1.0
지역	서울권	117	6.1	93.9	26.1	33.9	0.0	40.0	0.0	0.0	1.1
	수도권	109	0.8	99.2	5.5	61.1	8.3	25.0	0.0	0.0	1.0
	충청권	191	34.6	65.4	11.4	57.3	5.5	23.6	1.9	0.3	1.1
	호남권	179	15.1	84.9	1.8	66.2	2.4	24.7	0.0	4.9	1.4
	경남권	165	0.5	99.5	40.0	39.5	0.0	20.5	0.0	0.0	1.0
	경북권	133	18.3	81.7	14.2	35.5	20.3	30.0	0.0	0.0	1.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0.0	100.0	0.0	0.0	0.0	0.0	0.0	0.0	-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6	12.6	87.4	1.7	64.6	2.3	27.9	0.0	3.5	1.2
	1억 원~5억 원 미만	639	15.2	84.8	12.2	51.3	7.9	26.4	1.1	1.1	1.1
	5억 원 이상	110	11.0	89.0	6.6	63.6	7.8	19.8	0.0	2.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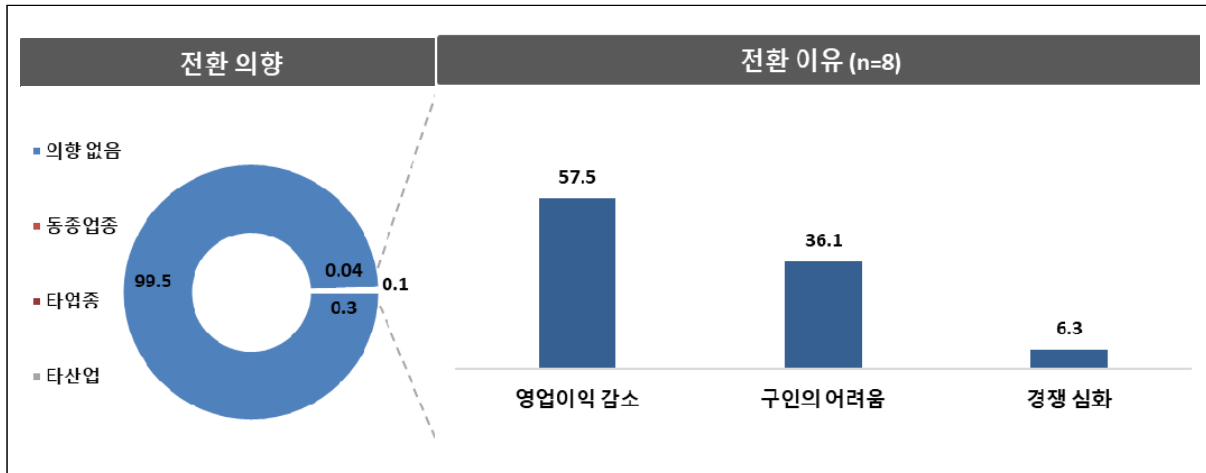
주: 업종 전환 이유는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13) 2년 이내 업종 전환 의향 및 이유

- 한식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2년 이내 업종 전환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0.4%로 나타남. 전환 의향 이유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감소(57.5%), 구인의 어려움(36.1%), 경쟁 심화(6.3%) 등으로 조사됨.
- 한식 외식업체의 세부 업종별로는 한식 면류(2.5%), 지역별로는 충청권(2.4%),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0.4%) 업체의 업종 전환 의향이 높게 나타남.
- 업종 전환 의향 이유는 한식 일반의 경우 영업이익 감소(59.0%), 구인의 어려움(25.6%), 경쟁 심화(15.4%) 등의 순서로 높음. 지역별로 충청권은 영업이익 감소(57.5%)가 주된 이유로 파악됨.

〈그림 3-51〉 한식: 업종 전환 의향 및 이유

(단위: %)



주: 전환 의향 이유는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표 3-55-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업종 전환 의향 및 이유(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전환 의향					전환 의향 이유 (Base=전환 의향 여부 "있음")		
			동일업종	타 업종	타 산업	기타*	의향 없음	구인의 어려움	영업이익 감소	경쟁 심화
전체		1,091	0.0	0.1	0.3	8.7	90.8	36.1	57.5	6.3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450	0.1	0.2	0.0	7.9	91.8	25.6	59.0	15.4
	한식 면류	175	0.0	0.0	2.5	7.9	89.7	47.9	52.1	0.0
	한식 육류	275	0.0	0.0	0.4	10.8	88.9	33.3	66.7	0.0
	한식 해산물	191	0.0	0.0	0.0	9.5	90.5	0.0	0.0	0.0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97	0.0	0.0	0.0	6.4	93.6	0.0	0.0	0.0
	비프랜차이즈	894	0.1	0.2	0.3	9.2	90.3	36.1	57.5	6.3
지역	서울권	134	0.0	0.0	0.0	4.6	95.4	0.0	0.0	0.0
	수도권	151	0.0	0.0	0.0	4.4	95.6	0.0	0.0	0.0
	충청권	216	0.2	0.8	1.4	12.9	84.7	36.1	57.5	6.3
	호남권	198	0.0	0.0	0.0	6.8	93.2	0.0	0.0	0.0
	경남권	242	0.0	0.0	0.0	12.1	87.9	0.0	0.0	0.0
	경북권	150	0.0	0.0	0.0	7.4	92.6	0.0	0.0	0.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0.0	0.0	0.0	22.5	77.5	0.0	0.0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121	0.0	0.0	0.5	13.1	86.3	33.3	66.7	0.0
	1억 원~5억 원 미만	770	0.0	0.2	0.3	7.5	92.0	41.3	58.7	0.0
	5억 원 이상	171	0.4	0.0	0.0	7.3	92.3	0.0	33.3	66.7

주 1) 전환 의향 이유는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2) 전환 의향 기타는 '일을 아예 그만 둘 예정임', '잘 모르겠음', '기타'를 포함한 값임.

○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업종 전환 의향은 전환 의향이 없는(93.6%)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55-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업종 전환 의향 및 이유(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전환 의향			전환 의향 이유 (Base=전환 의향 여부 "있음")		
			타 산업	기타	의향 없음	구인의 어려움	영업이익 감소	경쟁 심화
전체		197	-	6.4	93.6	-	-	-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83	-	4.4	95.6	-	-	-
	한식 면류	26	-	0.0	100.0	-	-	-
	한식 육류	72	-	8.8	91.2	-	-	-
	한식 해산물	16	-	25.7	74.3	-	-	-
지역	서울권	17	-	14.8	85.2	-	-	-
	수도권	42	-	2.8	97.2	-	-	-
	충청권	25	-	6.5	93.5	-	-	-
	호남권	19	-	0.0	100.0	-	-	-
	경남권	77	-	9.4	90.6	-	-	-
	경북권	17	-	0.0	100.0	-	-	-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5	-	16.1	83.9	-	-	-
	1억 원~5억 원 미만	131	-	5.6	94.4	-	-	-
	5억 원 이상	61	-	7.5	92.5	-	-	-

주: 전환 의향 이유는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업종별 업종 전환 의향은 한식 면류(2.7%)가 상대적으로 높음. 지역별로는 충청권(2.8%),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1억 원 미만과 5억 원 이상(각 0.6%) 업체의 전환 의향이 높게 나타남.

〈표 3-55-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업종 전환 의향 및 이유(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전환 의향					전환 의향 이유 (Base=전환 의향 여부 "있음")		
			동일 업종	타 업종	타 산업	기타	의향 없음	구인의 어려움	영업이익 감소	경쟁 심화
전체		894	0.1	0.2	0.3	12.7	90.3	36.1	57.5	6.3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367	0.1	0.3	0.0	12.2	91.0	25.6	59.0	15.4
	한식 면류	149	0.0	0.0	2.7	15.5	88.5	47.9	52.1	0.0
	한식 육류	203	0.0	0.0	0.5	14.5	88.1	33.3	66.7	0.0
	한식 해산물	175	0.0	0.0	0.0	9.9	91.7	0.0	0.0	0.0
지역	서울권	117	0.0	0.0	0.0	8.5	96.5	0.0	0.0	0.0
	수도권	109	0.0	0.0	0.0	10.5	95.0	0.0	0.0	0.0
	충청권	191	0.3	0.9	1.6	16.7	83.4	36.1	57.5	6.3
	호남권	179	0.0	0.0	0.0	12.5	92.6	0.0	0.0	0.0
	경남권	165	0.0	0.0	0.0	20.0	86.7	0.0	0.0	0.0
	경북권	133	0.0	0.0	0.0	7.0	91.8	0.0	0.0	0.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0.0	0.0	0.0	26.6	77.5	0.0	0.0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6	0.0	0.0	0.6	13.5	86.5	33.3	66.7	0.0
	1억 원~5억 원 미만	639	0.0	0.2	0.3	12.2	91.5	41.3	58.7	0.0
	5억 원 이상	110	0.6	0.0	0.0	7.4	92.2	0.0	33.3	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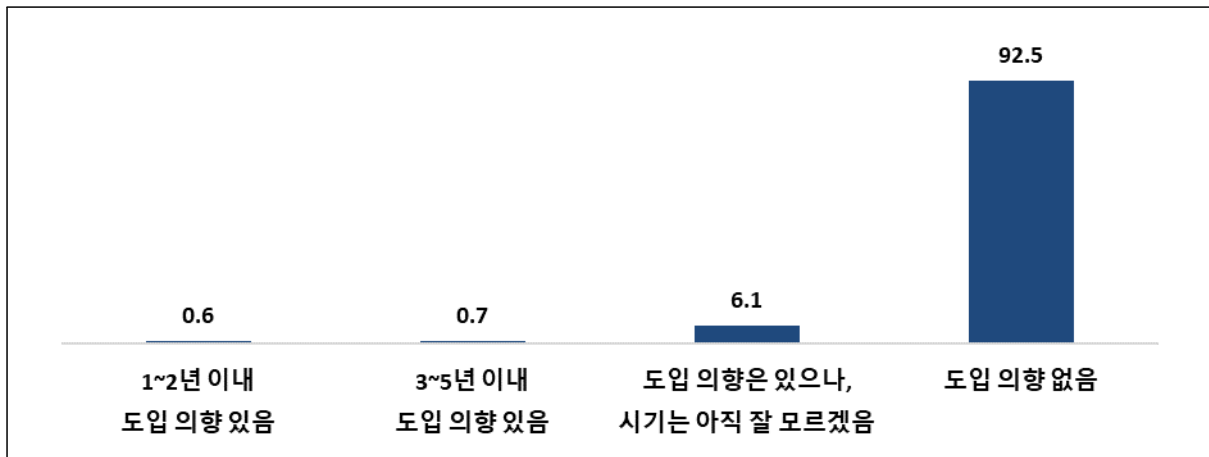
주: 전환 의향 이유는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14) 향후 로봇 도입 의향

- 한식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로봇 도입 의향을 조사한 결과, 향후 로봇 도입 의향에 대해서 ‘도입 의향 없음(92.5%)’, ‘도입 의향은 있으나, 시기는 아직 잘 모르겠음(6.1%)’, ‘3~5년 이내 도입 의향 있음(0.7%)’, ‘1~2년 이내 도입 의향 있음(0.6%)’의 순서로 나타남.

〈그림 3-52〉 한식: 향후 로봇 도입 의향

(단위: %)



- 한식 외식업체의 향후 로봇 도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은 한식 해산물(11.2%)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권의 도입 의향 없음이 83.9%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남권(89.1%), 경북권(9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의 도입 의향 없음이 83.7%, 1억 원~5억 원 미만 92.2%, 5천만 원~1억 원 미만 99.7%, 5천만 원 미만 100.0% 등으로 조사됨.

〈표 3-56-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로봇 도입 의향(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1~2년 이내 도입 의향 있음	3~5년 이내 도입 의향 있음	도입 의향은 있으나, 시기는 아직 잘 모르겠음	도입 의향 없음
전체		1,091	0.6	0.7	6.1	92.5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450	0.7	0.7	5.8	92.8
	한식 면류	175	0.0	0.1	4.6	95.4
	한식 육류	275	1.1	0.0	6.8	92.1
	한식 해산물	191	0.0	2.7	8.5	88.8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97	0.0	2.5	7.2	90.3
	비프랜차이즈	894	0.8	0.3	5.9	93.0
지역	서울권	134	0.0	1.7	14.5	83.9
	수도권	151	2.4	4.0	0.3	93.3
	충청권	216	0.0	0.0	1.6	98.4
	호남권	198	1.3	0.0	3.7	95.1
	경남권	242	0.0	0.0	10.9	89.1
	경북권	150	0.6	0.0	6.2	93.2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0.0	0.0	0.0	10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121	0.0	0.0	0.3	99.7
	1억 원~5억 원 미만	770	0.8	0.9	6.1	92.2
	5억 원 이상	171	0.7	0.4	15.2	83.7

-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향후 로봇 도입 의향은 한식 해산물(24.0%), 한식 일반(12.8%), 한식 면류(6.7%), 한식 육류(2.8%) 등의 순서로 높게 조사됨.
- 지역별로는 서울권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향후 로봇 도입 의향이 35.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북권(12.8%)이 높게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인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향후 로봇 도입 의향이 14.4%, 1억 원~5억 원 미만 업체 8.9% 등으로 파악됨.

〈표 3-56-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로봇 도입 의향(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1~2년 이내 도입 의향 있음	3~5년 이내 도입 의향 있음	도입 의향은 있으나, 시기는 아직 잘 모르겠음	도입 의향 없음
전체		197	-	2.5	7.2	90.3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83	-	3.7	9.0	87.2
	한식 면류	26	-	0.8	5.9	93.3
	한식 육류	72	-	0.0	2.8	97.2
	한식 해산물	16	-	6.4	17.6	76.0
지역	서울권	17	-	8.6	26.7	64.7
	수도권	42	-	9.0	0.0	91.0
	충청권	25	-	0.0	0.0	100.0
	호남권	19	-	0.0	0.0	100.0
	경남권	77	-	0.0	10.6	89.4
	경북권	17	-	0.0	12.8	87.2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5	-	0.0	0.0	100.0
	1억 원~5억 원 미만	131	-	3.3	5.6	91.1
	5억 원 이상	61	-	0.0	14.4	85.6

-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업종별로 향후 로봇 도입 의향은 한식 해산물이 1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권(14.0%), 경남권(11.1%), 경북권(6.1%) 등의 순서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17.3%), 1억 원~5억 원 미만(7.6%), 5천만 원~1억 원 미만(0.3%) 등의 순서로 조사됨.

〈표 3-56-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로봇 도입 의향(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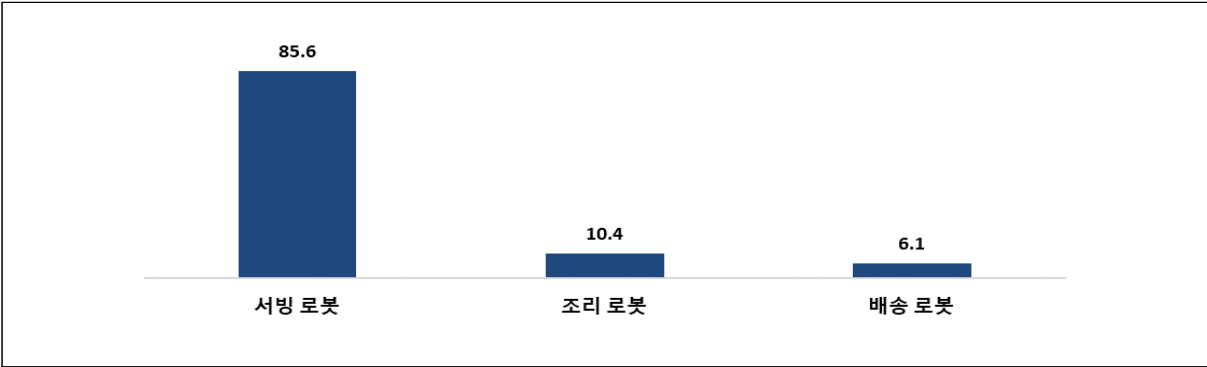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2년 이내 도입 의향 있음	3~5년 이내 도입 의향 있음	도입 의향은 있으나, 시기는 아직 잘 모르겠음	도입 의향 없음
전체		894	0.8	0.3	5.9	93.0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367	0.8	0.2	5.1	93.9
	한식 면류	149	0.0	0.0	4.4	95.6
	한식 육류	203	1.4	0.0	8.1	90.5
	한식 해산물	175	0.0	2.5	7.8	89.8
지역	서울권	117	0.0	0.9	13.1	86.0
	수도권	109	3.4	2.0	0.5	94.1
	충청권	191	0.0	0.0	1.9	98.1
	호남권	179	1.4	0.0	4.0	94.7
	경남권	165	0.0	0.0	11.1	88.9
	경북권	133	0.7	0.0	5.5	93.9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0.0	0.0	0.0	10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6	0.0	0.0	0.3	99.7
	1억 원~5억 원 미만	639	0.9	0.4	6.2	92.4
	5억 원 이상	110	1.1	0.6	15.6	82.7

(15) 향후 도입 로봇 종류

○ 한식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도입 로봇 종류를 조사한 결과, 서빙 로봇(85.6%), 조리 로봇(10.4%), 배송 로봇(6.1%)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53〉 한식: 향후 도입 로봇 종류

(단위: %)



- 한식 외식업체의 향후 도입 로봇 종류에 대해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한식 면류의 서빙 로봇이 92.1%로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서빙 로봇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 구간(11.7%)에서 타 매출액 규모에 비해 조리 로봇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57-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도입 로봇 종류(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서빙 로봇	조리 로봇	배송 로봇
전체		103	85.6	10.4	6.1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38	88.1	7.4	6.6
	한식 면류	13	92.1	7.9	0.0
	한식 육류	28	79.6	18.9	4.9
	한식 해산물	24	85.0	6.5	8.5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20	81.3	9.1	9.7
	비프랜차이즈	83	86.6	10.8	5.2
지역	서울권	33	75.6	22.4	6.0
	수도권	12	95.4	4.6	0.0
	충청권	7	71.1	11.3	17.6
	호남권	12	100.0	6.1	0.0
	경남권	28	89.8	4.4	5.8
	경북권	11	76.6	7.7	15.8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71	85.0	10.1	6.3
	1억 원~5억 원 미만	31	86.9	11.5	5.4
	5억 원 이상	20	88.3	11.7	0.0

-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향후 도입 로봇 종류는 서빙 로봇(81.3%), 조리 로봇(9.1%), 배송 로봇(9.7%)으로 나타남.
- 한식 육류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향후 서빙 로봇 도입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남권에서 조리 로봇 도입 의향이 14.3%로 상대적으로 높음.

〈표 3-57-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도입 로봇 종류(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서빙 로봇	조리 로봇	배송 로봇
전체	20	81.3	9.1	9.7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10	83.5	3.3
	한식 면류	3	100.0	0.0
	한식 육류	4	49.3	50.7
	한식 해산물	3	100.0	0.0
지역	서울권	6	90.6	9.4
	수도권	4	100.0	0.0
	경남권	9	85.7	14.3
	경북권	1	0.0	100.0
매출액	1억 원~5억 원 미만	11	81.6	3.2
	5억 원 이상	9	80.6	19.4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향후 도입 로봇 종류는 서빙 로봇(86.6%), 조리 로봇(10.8%), 배송 로봇(5.2%)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서빙 로봇을 도입할 계획이 있음.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 원~5억 원 미만(11.6%)에서 조리 로봇 도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57-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향후 도입 로봇 종류(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서빙 로봇	조리 로봇	배송 로봇
전체	83	86.6	10.8	5.2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28	89.8	9.0
	한식 면류	10	89.9	10.1
	한식 육류	24	82.9	15.5
	한식 해산물	21	82.9	7.4
지역	서울권	27	72.2	25.3
	수도권	8	92.7	7.3
	충청권	7	71.1	11.3
	호남권	12	100.0	6.1
	경남권	19	91.6	0.0
	경북권	10	90.9	9.1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1	100.0	0.0
	1억 원~5억 원 미만	60	85.7	11.6
	5억 원 이상	22	89.6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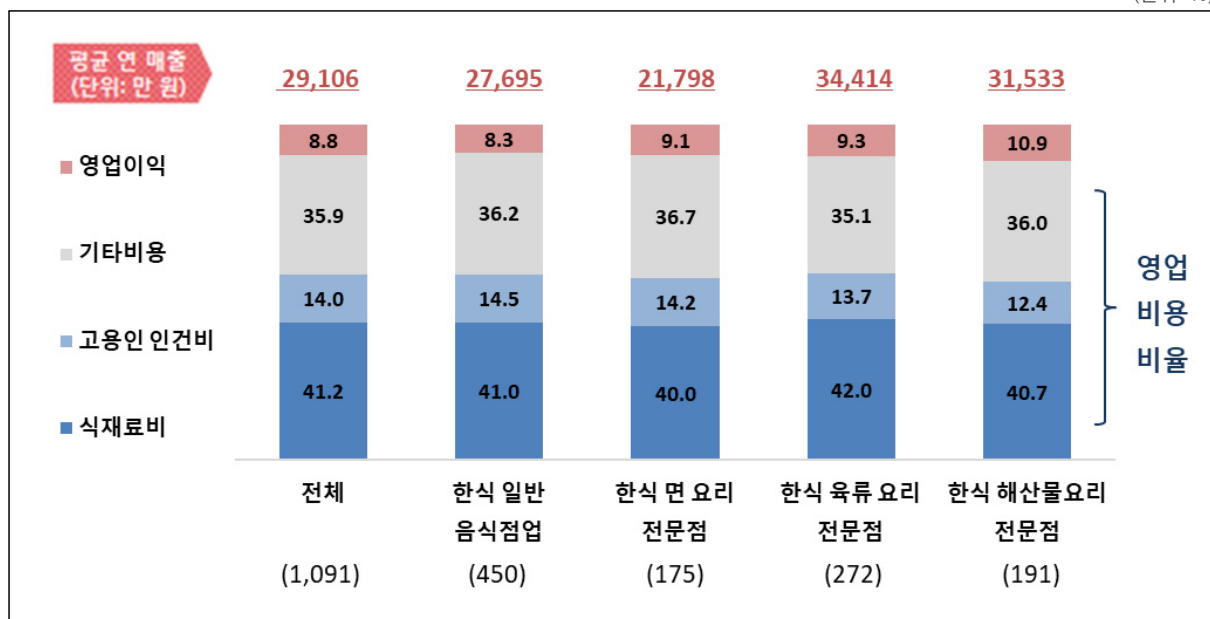
2) 사업실적

(1) 업종 분류별 사업실적

- 한식 외식업체 전체의 평균 연 매출액은 약 2억 9천 1백만 원 수준이며, 영업이익률 8.8%, 식재료비 비율 41.2%, 고용인 인건비 14.0%인 것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 매출액의 경우 한식 육류(약 3억 4천 4백만 원)와 한식 해산물(약 3억 1천 5백만 원)이 높고, 영업이익률은 한식 해산물(10.9%)과 한식 육류(9.3%) 등의 순으로 조사됨.
- 매출액 중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식 육류가 4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식 일반(41.0%), 한식 해산물(40.7%), 한식 면류(40.0%) 등으로 나타남. 매출액 중 고용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식 일반(14.5%), 한식 면류(14.2%), 한식 육류(13.7%), 한식 해산물(12.4%) 등의 순임.
- 대표자 및 가족 종사자 인건비 비율은 한식 면류(18.2%), 한식 일반(17.3%), 한식 육류(17.1%), 한식 해산물(15.6%) 순이며, 임차료 비율은 한식 해산물(7.8%), 한식 일반(7.0%), 한식 면류(6.8%), 한식 육류(6.4%)의 순임.

〈그림 3-54〉 한식: 업종 분류별 사업실적

(단위: %)



〈표 3-58-1〉 한식: 세분류별 사업실적(전체)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한식 일반		한식 면류		한식 육류		한식 해산물	
	(1,091)		(450)		(175)		(275)		(191)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1. 매출액	29,106	100.0	27,695	100.0	21,798	100.0	34,414	100.0	31,533	100.0
2. 영업비용	26,535	91.2	25,407	91.7	19,817	90.9	31,211	90.7	28,104	89.1
2-1. 식재료비	11,991	41.2	11,366	41.0	8,720	40.0	14,441	42.0	12,841	40.7
2-2. 고용인 인건비	4,088	14.0	4,009	14.5	3,095	14.2	4,703	13.7	3,905	12.4
2-3. 임차료	2,006	6.9	1,935	7.0	1,486	6.8	2,193	6.4	2,466	7.8
2-4. 세금	1,773	6.1	1,695	6.1	1,253	5.7	2,083	6.1	1,962	6.2
2-5. 가족 종사자 인건비	1,051	3.6	1,032	3.7	1,040	4.8	1,158	3.4	913	2.9
2-6. 대표자 인건비	3,933	13.5	3,757	13.6	2,913	13.4	4,717	13.7	4,019	12.7
2-7. 기타	1,693	5.8	1,614	5.8	1,310	6.0	1,916	5.6	1,998	6.3
3. 영업이익	2,571	8.8	2,288	8.3	1,981	9.1	3,203	9.3	3,429	10.9

-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사업실적에 대해 분석함.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평균 연매출액은 약 4억 2천 1백만 원 수준이고, 영업이익률은 7.7%, 식재료비 비중은 42.8%, 고용인 인건비는 14.4%, 대표자 및 가족 종사자 인건비는 16.4%, 임차료 비중은 7.3% 등으로 조사됨.
- 프랜차이즈 한식 업종 세분류별 매출액은 한식 육류(약 4억 9천 4백만 원), 한식 일반(약 3억 9천 7백만 원), 한식 면류(약 3억 1천 8백만 원), 한식 해산물(약 3억 1천 6백만 원) 순으로 나타남. 영업이익률은 한식 면반이 11.5%로 가장 높고, 이어서 한식 해산물(8.8%), 한식 일반(7.8%), 한식 육류(7.2%) 순으로 파악됨.
- 프랜차이즈 한식 업종 세분류별 매출액 중 식재료비 비중은 한식 육류(44.6%), 한식 일반(42.1%), 한식 해산물(40.5%), 한식 면류(37.6%) 순으로 조사됨. 매출액 중 고용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식 면류(16.1%), 한식 일반(15.7%), 한식 해산물(12.5%), 한식 육류(12.4%) 순임.

〈표 3-58-2〉 한식: 세분류별 사업실적(프랜차이즈)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한식 일반		한식 면류		한식 육류		한식 해산물	
	(197)		(83)		(26)		(72)		(16)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1. 매출액	42,142	100.0	39,744	100.0	31,774	100.0	49,366	100.0	31,617	100.0
2. 영업비용	38,880	92.3	36,624	92.2	28,127	88.5	45,833	92.8	28,846	91.2
2-1. 식재료비	18,045	42.8	16,716	42.1	11,961	37.6	22,025	44.6	12,817	40.5
2-2. 고용인 인건비	6,066	14.4	6,253	15.7	5,112	16.1	6,098	12.4	3,944	12.5
2-3. 임차료	3,092	7.3	3,041	7.7	3,070	9.7	3,241	6.6	2,682	8.5
2-4. 세금	2,407	5.7	2,286	5.8	1,445	4.5	2,881	5.8	1,471	4.7
2-5. 가족 종사자 인건비	1,365	3.2	1,289	3.2	1,216	3.8	1,520	3.1	1,454	4.6
2-6. 대표자 인건비	5,545	13.2	4,890	12.3	3,858	12.1	7,086	14.4	4,950	15.7
2-7. 기타	2,360	5.6	2,150	5.4	1,465	4.6	2,980	6.0	1,528	4.8
3. 영업이익	3,262	7.7	3,120	7.8	3,647	11.5	3,533	7.2	2,770	8.8

-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평균 연매출액은 약 2억 6천 5백만 원으로 나타났고, 영업이익률 9.2%, 식재료비 40.7%, 고용인 인건비 13.9%, 대표자 및 가족 종사자 인건비 17.3%, 임차료 6.8% 등으로 조사됨.
- 비프랜차이즈 한식 업종 세분류별 매출액은 한식 해산물(약 3억 1천 5백만 원), 한식 육류(약 2억 9천 8백만 원), 한식 일반(약 2억 5천 3백만 원), 한식 면류(약 2억 6백만 원) 순으로 나타남. 영업이익률은 한식 해산물 11.0%, 한식 육류 10.4%, 한식 면류 8.7%, 한식 일반 8.4%임.
- 비프랜차이즈 한식 업종 세분류별로 매출액 중 식재료비 비중은 한식 일반과 해산물(각 40.7%), 한식 육류(40.6%), 한식 면류(40.4%) 순으로 조사됨.
- 매출액 중 고용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식 육류(14.3%), 한식 일반(14.1%), 한식 면류(13.9%), 한식 해산물(12.4%) 순으로 나타남.

〈표 3-58-3〉 한식: 세분류별 사업실적(비프랜차이즈)

(단위: 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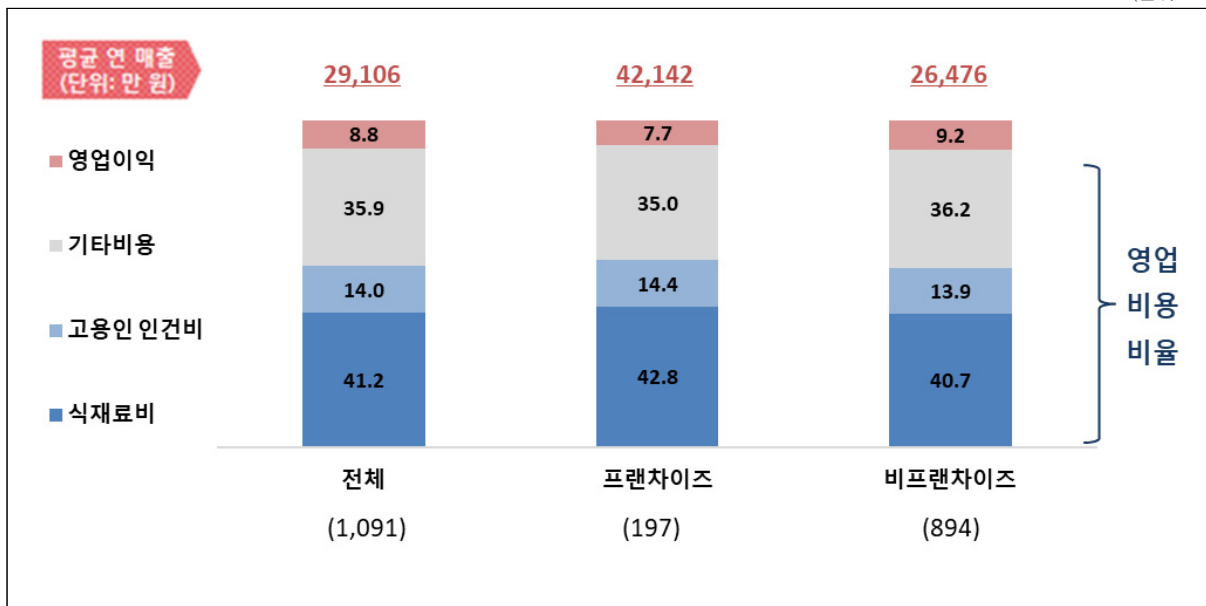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한식 일반		한식 면류		한식 육류		한식 해산물	
	(894)		(367)		(149)		(203)		(175)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1. 매출액	26,476	100.0	25,336	100.0	20,646	100.0	29,750	100.0	31,527	100.0
2. 영업비용	24,045	90.8	23,210	91.6	18,857	91.3	26,650	89.6	28,047	89.0
2-1. 식재료비	10,769	40.7	10,318	40.7	8,346	40.4	12,075	40.6	12,843	40.7
2-2. 고용인 인건비	3,689	13.9	3,569	14.1	2,862	13.9	4,268	14.3	3,902	12.4
2-3. 임차료	1,787	6.8	1,718	6.8	1,303	6.3	1,867	6.3	2,449	7.8
2-4. 세금	1,645	6.2	1,580	6.2	1,231	6.0	1,835	6.2	2,000	6.3
2-5. 가족 종사자 인건비	987	3.7	982	3.9	1,019	4.9	1,045	3.5	872	2.8
2-6. 대표자 인건비	3,608	13.6	3,535	14.0	2,804	13.6	3,977	13.4	3,947	12.5
2-7. 기타	1,558	5.9	1,509	6.0	1,292	6.3	1,584	5.3	2,034	6.5
3. 영업이익	2,432	9.2	2,125	8.4	1,789	8.7	3,100	10.4	3,479	11.0

(2) 운영 형태별 사업실적

-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평균 연 매출액은 약 4억 2천 1백만 원이며, 영업이익률 8.8%, 매출액 중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1.2%, 고용인 인건비 비중은 14.0% 등으로 나타남.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매출액은 약 2억 6천 5백만 원 수준이며, 영업이익률 9.2%, 매출액 중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7%, 고용인 인건비 비중은 13.9% 등으로 조사됨.

〈그림 3-55〉 한식: 운영 형태별 사업실적

(단위: %)



〈표 3-59〉 한식: 운영 형태별 사업실적(전체)

(단위: 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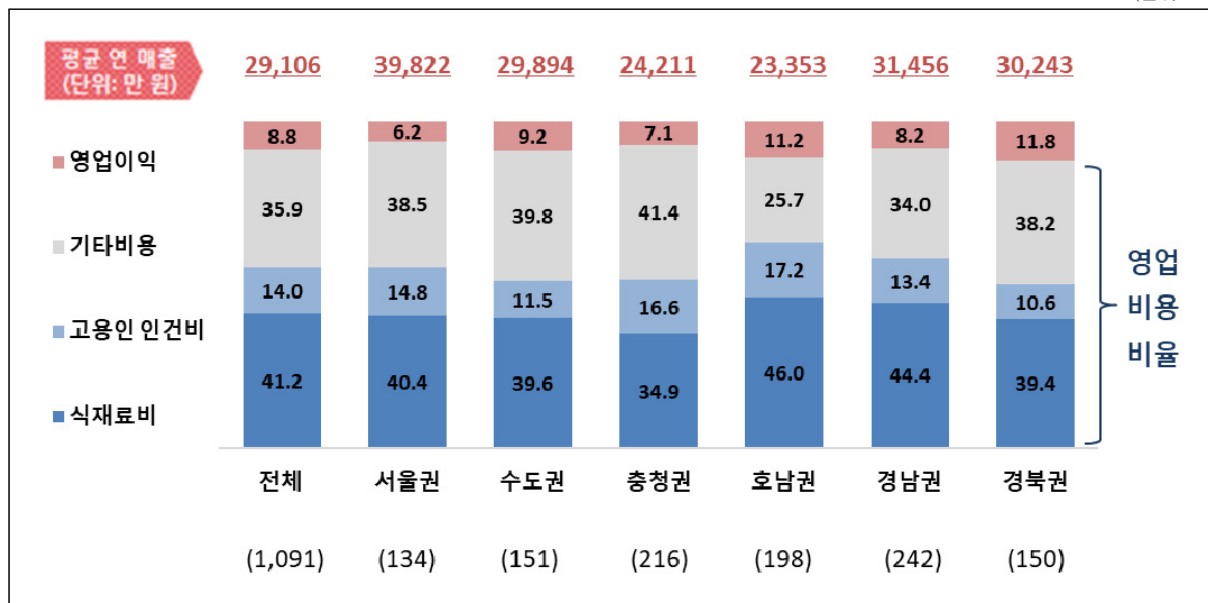
구분	전체		프랜차이즈		비프랜차이즈	
	(1,091)		(197)		(894)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1. 매출액	29,106	100.0	42,142	100.0	26,476	100.0
2. 영업비용	26,535	91.2	38,880	92.3	24,045	90.8
2-1. 식재료비	11,991	41.2	18,045	42.8	10,769	40.7
2-2. 고용인 인건비	4,088	14.0	6,066	14.4	3,689	13.9
2-3. 임차료	2,006	6.9	3,092	7.3	1,787	6.8
2-4. 세금	1,773	6.1	2,407	5.7	1,645	6.2
2-5. 가족 종사자 인건비	1,051	3.6	1,365	3.2	987	3.7
2-6. 대표자 인건비	3,933	13.5	5,545	13.2	3,608	13.6
2-7. 기타	1,693	5.8	2,360	5.6	1,558	5.9
3. 영업이익	2,571	8.8	3,262	7.7	2,432	9.2

(3) 지역별 사업실적

- 한식 외식업체의 사업실적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서울권(약 3억 9천 8백만 원), 경남권(약 3억 1천 5백만 원), 경북권(약 3억 2백만 원), 수도권(약 2억 9천 9백만 원), 충청권(약 2억 4천 2백만 원), 호남권(약 2억 3천 4백만 원) 순으로 파악됨. 영업이익률은 경북권(11.8%), 호남권(11.2%), 수도권(9.2%), 경남권(8.2%), 충청권(7.1%), 서울권(6.2%)의 순으로 나타남.
- 매출액 중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호남권이 46.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남권(44.4%), 서울권(40.4%), 수도권(39.6%), 경북권(34.9%), 충청권(34.9%)의 순임.
- 매출액 중 대표자 및 가족 종사자 인건비 비중은 경북권(22.5%), 수도권(19.0%), 충청권(17.6%), 서울권(17.3%), 경남권(16.2%), 호남권(11.3%) 순으로 나타났고, 임차료 비중은 서울권(8.5%), 수도권(7.8%), 충청권(7.7%), 경남권(6.9%), 호남권(5.6%), 경북권(4.9%)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56〉 한식: 지역별 사업실적

(단위: %)



〈표 3-60-1〉 한식: 지역별 사업실적(전체)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서울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	
	(1,091)		(134)		(151)		(216)		(198)		(242)		(150)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1. 매출액	29,106	100.0	39,822	100.0	29,894	100.0	24,211	100.0	23,353	100.0	31,456	100.0	30,243	100.0
2. 영업비용	26,535	91.2	37,348	93.8	27,140	90.8	22,495	92.9	20,744	88.8	28,879	91.8	26,678	88.2
2-1. 식재료비	11,991	41.2	16,107	40.4	11,831	39.6	8,458	34.9	10,733	46.0	13,974	44.4	11,917	39.4
2-2. 고용인 인건비	4,088	14.0	5,905	14.8	3,426	11.5	4,012	16.6	4,017	17.2	4,211	13.4	3,194	10.6
2-3. 임차료	2,006	6.9	3,400	8.5	2,330	7.8	1,861	7.7	1,302	5.6	2,159	6.9	1,485	4.9
2-4. 세금	1,773	6.1	2,559	6.4	1,859	6.2	2,062	8.5	1,438	6.2	1,558	5.0	1,489	4.9
2-5. 가족 종사자 인건비	1,051	3.6	1,481	3.7	1,537	5.1	392	1.6	442	1.9	935	3.0	2,179	7.2
2-6. 대표자 인건비	3,933	13.5	5,424	13.6	4,167	13.9	3,870	16.0	2,200	9.4	4,166	13.2	4,623	15.3
2-7. 기타	1,693	5.8	2,474	6.2	1,990	6.7	1,840	7.6	611	2.6	1,877	6.0	1,791	5.9
3. 영업이익	2,571	8.8	2,474	6.2	2,754	9.2	1,715	7.1	2,609	11.2	2,577	8.2	3,565	11.8

○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지역별 매출액은 서울권(약 8억 3천 2백만 원)이 가장 높고, 영업이익률은 호남권(12.9%)이 높음. 매출액 중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경남권이 45.3%로 가장 높고, 고용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호남권이 20.1%로 가장 높음.

○ 매출액 중 대표자 및 가족 종사자 인건비 비중은 수도권(21.5%), 경북권(21.0%), 서울권(17.5%), 충청권(15.7%) 등의 순이며, 임차료 비중은 충청권(10.6%)이 높게 나타남.

〈표 3-60-2〉 한식: 지역별 사업실적(프랜차이즈)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서울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	
	(197)		(17)		(42)		(25)		(19)		(77)		(17)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1. 매출액	42,142	100.0	83,206	100.0	41,483	100.0	31,349	100.0	28,704	100.0	42,860	100.0	38,181	100.0
2. 영업비용	38,880	92.3	79,446	95.5	37,703	90.9	29,461	94.0	25,003	87.1	39,838	93.0	33,558	87.9
2-1. 식재료비	18,045	42.8	37,602	45.2	16,932	40.8	11,491	36.7	12,608	43.9	19,399	45.3	14,377	37.7
2-2. 고용인 인건비	6,066	14.4	11,769	14.1	4,116	9.9	5,255	16.8	5,763	20.1	6,741	15.7	4,550	11.9
2-3. 임차료	3,092	7.3	6,274	7.5	2,568	6.2	3,308	10.6	2,149	7.5	3,079	7.2	2,480	6.5
2-4. 세금	2,407	5.7	4,367	5.2	2,464	5.9	2,596	8.3	1,586	5.5	2,275	5.3	1,821	4.8
2-5. 가족 종사자 인건비	1,365	3.2	2,470	3.0	2,104	5.1	284	0.9	164	0.6	1,075	2.5	3,169	8.3
2-6. 대표자 인건비	5,545	13.2	12,047	14.5	6,790	16.4	4,636	14.8	1,873	6.5	5,042	11.8	4,846	12.7
2-7. 기타	2,360	5.6	4,917	5.9	2,729	6.6	1,892	6.0	860	3.0	2,228	5.2	2,316	6.1
3. 영업이익	3,262	7.7	3,759	4.5	3,780	9.1	1,888	6.0	3,702	12.9	3,021	7.0	4,623	12.1

-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지역별 매출액은 서울권(약 3억 5천만 원)이 가장 높고, 영업이익률은 경북권(11.7%)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매출액 중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호남권(46.2%), 고용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호남권(16.9%)이 가장 높음.
- 매출액 중 대표자 및 가족 종사자 인건비 비중은 경북권(22.7%), 수도권과 경남권(17.6%), 서울권(17.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임차료 비중은 서울권과 수도권(각 8.8%)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60-3〉 한식: 지역별 사업실적(비프랜차이즈)

(단위: 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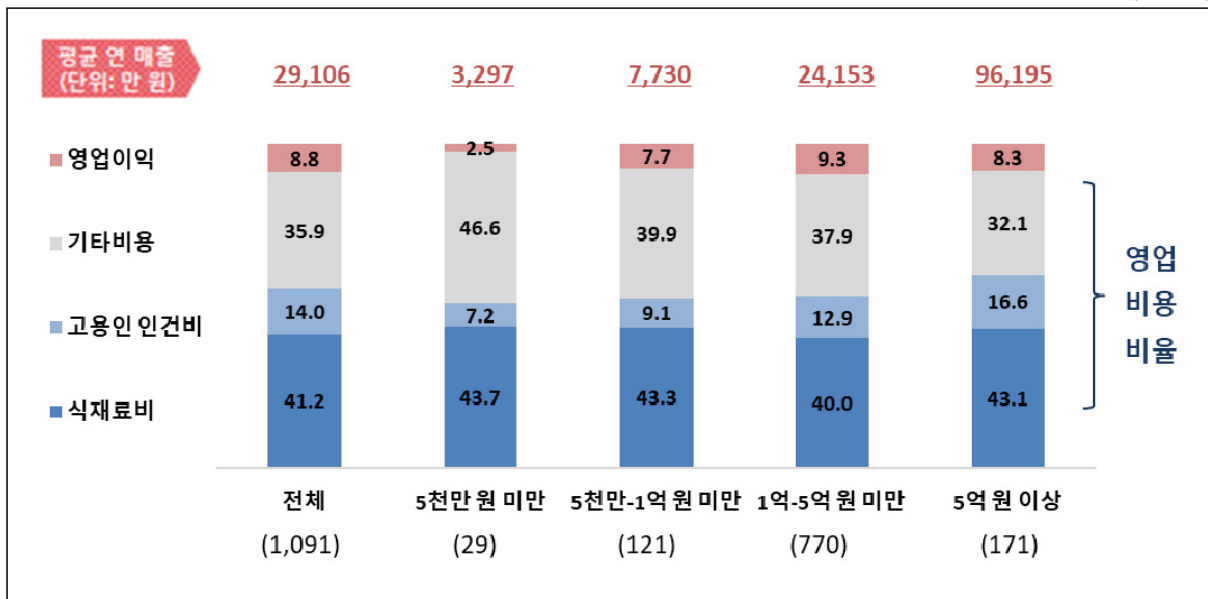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서울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	
	(894)		(117)		(109)		(191)		(179)		(165)		(133)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1. 매출액	26,476	100.0	35,018	100.0	25,490	100.0	23,201	100.0	22,923	100.0	26,587	100.0	29,408	100.0
2. 영업비용	24,045	90.8	32,687	93.3	23,126	90.7	21,510	92.7	20,402	89.0	24,200	91.0	25,954	88.3
2-1. 식재료비	10,769	40.7	13,726	39.2	9,892	38.8	8,030	34.6	10,582	46.2	11,657	43.8	11,658	39.6
2-2. 고용인 인건비	3,689	13.9	5,256	15.0	3,163	12.4	3,836	16.5	3,877	16.9	3,130	11.8	3,052	10.4
2-3. 임차료	1,787	6.8	3,081	8.8	2,239	8.8	1,656	7.1	1,234	5.4	1,766	6.6	1,381	4.7
2-4. 세금	1,645	6.2	2,358	6.7	1,630	6.4	1,987	8.6	1,426	6.2	1,252	4.7	1,454	4.9
2-5. 가족 종사자 인건비	987	3.7	1,371	3.9	1,322	5.2	407	1.8	464	2.0	875	3.3	2,075	7.1
2-6. 대표자 인건비	3,608	13.6	4,691	13.4	3,170	12.4	3,762	16.2	2,227	9.7	3,791	14.3	4,599	15.6
2-7. 기타	1,558	5.9	2,203	6.3	1,709	6.7	1,833	7.9	591	2.6	1,727	6.5	1,735	5.9
3. 영업이익	2,432	9.2	2,332	6.7	2,364	9.3	1,691	7.3	2,521	11.0	2,387	9.0	3,454	11.7

(4) 매출액 규모별 사업실적

- 매출액 5억 원 이상인 한식 외식업체의 연평균 매출액은 약 9억 6천 2백만 원으로 5천만 원 미만 업체(약 3천 3백만 원)보다 약 29배 높음. 영업이익률은 1억 원~5억 원 미만(9.3%), 5억 원 이상(8.3%), 5천만 원~1억 원 미만(7.7%), 5천만 원 미만(7.2%), 5천만 원 미만(2.5%) 순이고, 매출액 중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천만 원 미만 업체에서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고용인 인건비 비중은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높아 5억 원 이상인 업체는 16.6%이나, 5천만 원 미만은 7.2%에 불과함.

〈그림 3-57〉 한식: 매출액 규모별 사업실적

(단위: %)



〈표 3-61-1〉 한식: 매출액 규모별 사업실적(전체)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1,091)		(29)		(121)		(770)		(171)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1. 매출액	29,106	100.0	3,297	100.0	7,730	100.0	24,153	100.0	96,195	100.0
2. 영업비용	26,535	91.2	3,213	97.5	7,134	92.3	21,914	90.7	88,251	91.7
2-1. 식재료비	11,991	41.2	1,439	43.7	3,348	43.3	9,657	40.0	41,415	43.1
2-2. 고용인 인건비	4,088	14.0	237	7.2	704	9.1	3,112	12.9	15,947	16.6
2-3. 임차료	2,006	6.9	426	12.9	778	10.1	1,784	7.4	5,469	5.7
2-4. 세금	1,773	6.1	279	8.5	563	7.3	1,476	6.1	5,697	5.9
2-5. 가족 종사자 인건비	1,051	3.6	144	4.4	338	4.4	1,037	4.3	2,266	2.4
2-6. 대표자 인건비	3,933	13.5	421	12.8	977	12.6	3,433	14.2	11,933	12.4
2-7. 기타	1,693	5.8	266	8.1	426	5.5	1,416	5.9	5,523	5.7
3. 영업이익	2,571	8.8	84	2.5	596	7.7	2,239	9.3	7,944	8.3

-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사업실적을 매출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매출액 5억 원 이상 한식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약 9억 7천 4백만 원 수준이고, 5천만 원~1억 원 미만 업체는 약 8천 6백만 원으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영업이익률은 1억 원~5억 원 미만인 업체에서 8.7%로 높게 나타났고, 5억 원 이상 매출액을 기록한 업체에서는 6.8%로 조사됨.
- 매출액 중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억 원 이상 업체 44.5%, 1억 원~5억 원 미만 업체 41.2%, 5천만 원~1억 원 미만 업체 36.7%로 나타남.
-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고용인 인건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억 원 이상(16.0%), 1억 원~5억 원 미만(12.9%), 5천만 원~1억 원 미만(9.9%)의 순서로 나타남. 대표자 및 가족 종사자 인건비의 비중은 1억 원~5억 원 미만에서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천만 원~1억 원 미만은 8.4%로 상대적으로 낮음. 임차료 비중은 5천만 원~1억 원 미만 업체(23.8%)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3-61-2〉 한식: 매출액 규모별 사업실적(프랜차이즈)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5천만 원~ 1억 원 미만		1억 원~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197)		(5)		(131)		(61)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1. 매출액	42,142	100.0	8,561	100.0	28,206	100.0	97,422	100.0
2. 영업비용	38,880	92.3	7,890	92.2	25,757	91.3	90,824	93.2
2-1. 식재료비	18,045	42.8	3,145	36.7	11,633	41.2	43,386	44.5
2-2. 고용인 인건비	6,066	14.4	850	9.9	3,625	12.9	15,635	16.0
2-3. 임차료	3,092	7.3	2,037	23.8	2,353	8.3	5,901	6.1
2-4. 세금	2,407	5.7	953	11.1	1,583	5.6	5,581	5.7
2-5. 가족 종사자 인건비	1,365	3.2	0	0.0	1,086	3.9	2,592	2.7
2-6. 대표자 인건비	5,545	13.2	716	8.4	3,869	13.7	12,329	12.7
2-7. 기타	2,360	5.6	189	2.2	1,609	5.7	5,401	5.5
3. 영업이익	3,262	7.7	671	7.8	2,449	8.7	6,597	6.8

-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매출액은 5억 원 이상인 업체가 약 9억 5천 6백만 원 수준으로 5천만 원 미만 업체(약 3천 3백만 원)의 약 29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영업이익률은 1억 원~5억 원 미만(9.4%), 5억 원 이상(9.0%), 5천만 원~1억 원 미만(7.7%), 5천만 원 미만(2.5%) 순서로 나타남. 매출액 중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천만 원 미만과 5천만 원~1억 원 미만(각 43.7%), 5억 원 이상(42.3%) 등의 순으로 조사됨.
- 고용인 인건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 5억 원 이상인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가 16.8%로 가장 높고, 1억 원~5억 원 미만(12.9%), 5천만 원~1억 원 미만(9.1%) 등의 순임. 대표자 및 가족 종사자 인건비의 비중은 5천만 원 미만(17.2%), 5천만 원~1억 원 미만(17.5%), 1억 원~5억 원 미만(18.7%), 5억 원 이상(14.5%)의 순서로 나타남. 임차료 비중은 5천만 원 미만 업체가 12.9%로 가장 높고, 5천만 원~1억 원 미만(9.3%), 1억 원~5억 원 미만(7.1%), 5억 원 이상(5.5%) 순으로 파악됨.

〈표 3-61-3〉 한식: 매출액 규모별 사업실적(비프랜차이즈)

(단위: 만 원, %)

구분	전체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894)		(29)		(116)		(639)		(110)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1. 매출액	26,476	100.0	3,297	100.0	7,687	100.0	23,310	100.0	95,588	100.0
2. 영업비용	24,045	90.8	3,213	97.5	7,095	92.3	21,114	90.6	86,977	91.0
2-1. 식재료비	10,769	40.7	1,439	43.7	3,358	43.7	9,246	39.7	40,439	42.3
2-2. 고용인 인건비	3,689	13.9	237	7.2	696	9.1	3,005	12.9	16,101	16.8
2-3. 임차료	1,787	6.8	426	12.9	714	9.3	1,665	7.1	5,256	5.5
2-4. 세금	1,645	6.2	279	8.5	543	7.1	1,454	6.2	5,754	6.0
2-5. 가족 종사자 인건비	987	3.7	144	4.4	356	4.6	1,027	4.4	2,105	2.2
2-6. 대표자 인건비	3,608	13.6	421	12.8	991	12.9	3,342	14.3	11,737	12.3
2-7. 기타	1,558	5.9	266	8.1	438	5.7	1,376	5.9	5,584	5.8
3. 영업이익	2,432	9.2	84	2.5	592	7.7	2,195	9.4	8,610	9.0

(5) 수익성·생산성 분석

- 한식 외식업체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8.8%이고,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및 인건비 비율은 72.4%, 종사원당 매출액은 약 8천 6백만 원, 좌석당 매출액은 약 7백만 원, 테이블당 매출액은 약 2천 7백만 원, 평당 매출액은 약 1천 1백만 원으로 분석됨.
- 업종별로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의 경우 한식 해산물(10.9%),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및 인건비 비율은 한식 일반(72.8%), 종사원당 매출액은 한식 해산물(약 1억 4백만 원), 좌석당 매출액은 한식 해산물(약 8백만 원), 테이블당 매출액은 한식 해산물(약 2천 9백만 원), 평당 매출액은 한식 해산물(약 1천 3백만 원) 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경북권(11.8%),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및 인건비 비율은 호남권(74.5%), 종사원당 매출액은 수도권(약 1억 1천 7백만 원), 좌석당 매출액은 수도권(약 1천만 원), 테이블당 매출액은 서울권(3천 7백만 원), 평당 매출액은 서울권(약 1천 4백만 원)이 비교적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1억 원~5억 원 이상 업체가 9.3%로 가장 높고,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및 인건비 비율은 5억 원 이상(74.4%)이 가장 높게 나타남. 종사원당 매출액은 5억 원 이상(약 1억 5천 9백만 원), 좌석당 매출액, 테이블당 매출액, 평당 매출액도 5억 원 이상인 업체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62-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 운영 형태별 수익성·생산성 분석(전체)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매출 대비 식재료 및 인건비 비율	종사원당 매출액	좌석당 매출액	테이블당 매출액	평당 매출액
전체		1,091	8.8	72.4	8,605	711	2,662	1,124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450	8.3	72.8	8,519	727	2,675	1,103
	한식 면류	175	9.1	72.3	6,891	548	2,105	899
	한식 육류	275	9.3	72.7	8,714	705	2,727	1,186
	한식 해산물	191	10.9	68.7	10,375	752	2,874	1,298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97	7.7	73.6	9,720	1,114	3,857	1,613
	비프랜차이즈	894	9.2	72.0	8,380	631	2,424	1,025
지역	서울권	134	6.2	72.6	10,768	927	3,672	1,394
	수도권	151	9.2	70.1	11,712	1,034	3,412	1,328
	충청권	216	7.1	69.1	6,309	473	1,884	726
	호남권	198	11.2	74.5	7,431	579	2,166	1,062
	경남권	242	8.2	74.0	7,930	713	2,625	1,270
	경북권	150	11.8	72.5	9,794	732	2,924	1,087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2.5	68.0	2,206	145	572	220
	5천만 원~1억 원 미만	121	7.7	69.4	4,733	335	1,257	524
	1억 원~5억 원 미만	770	9.3	71.4	8,499	699	2,616	1,102
	5억 원 이상	171	8.3	74.4	15,907	1,404	5,256	2,263

-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7.7%이고,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및 인건비 비율은 73.6%, 종사원당 매출액은 약 9천 7백만 원, 좌석당 매출액은 약 1천 1백만 원, 테이블당 매출액은 약 3천 9백만 원, 평당 매출액은 약 1천 6백만 원으로 분석됨.
- 업종별로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의 경우 한식 면류(11.5%),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및 인건비 비율은 한식 육류(74.4%), 종사원당 매출액은 한식 육류(약 1억 2백만 원), 좌석당 매출액은 한식 일반(약 1천 3백만 원), 테이블당 매출액은 한식 일반(약 4천 3백만 원), 평당 매출액은 한식 일반(약 1천 7백만 원) 업체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호남권(12.9%),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및 인건비 비율은 서울권(76.8%), 종사원당 매출액은 서울권(약 1억 5천만 원), 좌석당 매출액은 수도권(약 1천 7백만 원), 테이블당 매출액은 서울권(약 6천 7백만 원), 평당 매출액은 수도권(약 2천만 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매출액 규모별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1억 원~5억 원 미만(8.7%)인 업체가 가장 높고,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및 인건비 비율은 5억 원 이상(75.9%) 업체에서 가장 높음.

〈표 3-62-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 운영 형태별 수익성·생산성 분석(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매출 대비 식재료 및 인건비 비율	종사원당 매출액	좌석당 매출액	테이블당 매출액	평당 매출액
전체		197	7.7	73.6	9,720	1,114	3,857	1,613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83	7.8	73.3	9,665	1,292	4,308	1,745
	한식 면류	26	11.5	69.7	7,983	619	2,266	1,037
	한식 육류	72	7.2	74.4	10,228	915	3,406	1,513
	한식 해산물	16	8.8	73.3	8,400	688	2,731	1,061
지역	서울권	17	4.5	76.8	15,130	1,576	6,690	1,493
	수도권	42	9.1	72.2	11,357	1,659	4,838	1,989
	충청권	25	6.0	69.1	8,219	635	2,529	949
	호남권	19	12.9	71.1	7,907	1,236	3,537	1,984
	경남권	77	7.0	75.3	8,567	853	3,168	1,542
	경북권	17	12.1	70.6	11,331	1,244	4,928	1,834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5	7.8	55.0	4,012	555	1,827	1,032
	1억 원~5억 원 미만	131	8.7	71.7	8,581	1,013	3,371	1,480
	5억 원 이상	61	6.8	75.9	14,747	1,556	5,872	2,186

-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9.2%이고,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및 인건비 비율은 72.0%, 종사원당 매출액은 약 8천 4백만 원, 좌석당 매출액은 약 6백만 원, 테이블당 매출액은 약 2천 4백만 원, 평당 매출액은 약 1천만 원으로 분석됨.
- 업종별로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의 경우 한식 해산물(11.0%),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및 인건비 비율은 한식 면류(72.8%), 종사원당 매출액은 한식 해산물(약 1억 5백만 원), 좌석당 매출액은 한식 해산물(약 8백만 원), 테이블당 매출액은 한식 해산물(약 2천 9백만 원), 평당 매출액은 한식 해산물(약 1천 3백만 원) 업체에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경북권(11.7%),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및 인건비 비율은 호남권(74.8%), 종사원당 매출액은 수도권(약 1억 1천 8백만 원), 좌석당 매출액과 테이블당 매출액은 서울권(각 약 9백만 원, 약 3천 3백만 원), 평당 매출액도 서울권(약 1천 4백만 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매출액 규모별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1억 원~5억 원 미만(9.4%),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및 인건비 비율은 5천만 원 미만(73.6%)인 업체가 가장 높음. 종사원당 매출액은 5억 원 이상(약 1억 6천 5백만 원), 좌석당 매출액, 테이블당 매출액, 평당 매출액도 5억 원 이상인 한식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가 높음.

〈표 3-62-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 운영 형태별 수익성·생산성 분석(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만 원)

구분		사례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매출 대비 식재료 및 인건비 비율	종사원당 매출액	좌석당 매출액	테이블당 매출액	평당 매출액
전체		894	9.2	72.0	8,380	631	2,424	1,025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367	8.4	72.6	8,295	620	2,365	978
	한식 면류	149	8.7	72.8	6,764	540	2,086	884
	한식 육류	203	10.4	71.8	8,242	639	2,515	1,084
	한식 해산물	175	11.0	68.4	10,526	757	2,885	1,316
지역	서울권	117	6.7	71.5	10,285	854	3,336	1,383
	수도권	109	9.3	68.8	11,846	792	2,860	1,077
	충청권	191	7.3	69.1	6,040	453	1,803	694
	호남권	179	11.0	74.8	7,392	526	2,054	988
	경남권	165	9.0	73.2	7,658	652	2,387	1,154
	경북권	133	11.7	72.7	9,632	685	2,740	1,008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2.5	68.0	2,206	145	572	220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6	7.7	70.3	4,770	323	1,227	498
	1억 원~5억 원 미만	639	9.4	71.3	8,482	636	2,464	1,024
	5억 원 이상	110	9.0	73.6	16,482	1,327	4,943	2,301

(6) 식재료비 사용 비중

- 한식 외식업체의 식재료비 사용 비중을 조사한 결과, 쌀(11.9%), 곡류(3.0%), 채소(14.8%), 과일(0.5%), 축산물(27.7%), 수산물(13.7%), 가공식품(13.9%), 기타(4.9%), 주류/음료(9.5%) 등으로 나타남.
- 한식 업종 세분류별로 쌀은 한식 일반(13.4%), 곡류는 한식 면류(12.6%), 채소는 한식 일반(15.4%), 과일은 한식 해산물(0.6%), 축산물은 한식 육류(44.1%), 수산물은 한식 해산물(42.7%), 가공식품은 한식 면류(24.7%), 주류/음료는 한식 육류(11.5%)의 사용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는 쌀은 경남권(15.5%), 곡류는 충청권(5.6%), 채소는 경북권(17.0%), 축산물은 경남권(29.6%), 수산물은 호남권(17.5%), 가공식품은 서울권(15.5%), 주류/음료는 충청권(10.7%)에서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매출액 규모별로 곡류는 5천만 원 미만과 5천만 원~1억 원 미만 업체(각 4.5%), 채소, 수산물은 5천만 원 미만(각 17.4%, 17.5%) 업체, 쌀과 가공식품은 5천만 원~1억 원 미만(각 13.6%, 15.2%), 주류/음료는 1억 원~5억 원 미만(9.9%), 과일은 5천만 원 미만과 5억 원 이상(각 0.7%), 업체, 축산물은 5억 원 이상(31.1%) 업체에서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3-63-1〉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식재료비 사용 비중(전체)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쌀	곡류 (쌀 제외)	채소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기타	주류/ 음료
전체		1,091	11.9	3.0	14.8	0.5	27.7	13.7	13.9	4.9	9.5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450	13.4	2.6	15.4	0.5	26.3	14.0	14.0	4.9	9.0
	한식 면류	175	7.8	12.6	14.4	0.5	14.6	12.6	24.7	5.6	7.4
	한식 육류	275	9.9	1.3	14.2	0.5	44.1	2.1	11.5	4.9	11.5
	한식 해산물	191	9.9	1.9	12.6	0.6	7.1	42.7	10.6	4.4	10.2
운영형태	프랜차이즈	197	12.4	2.3	13.8	0.4	35.5	6.8	14.8	3.9	10.2
	비프랜차이즈	894	11.8	3.2	15.0	0.5	26.2	15.1	13.7	5.1	9.4
지역	서울권	134	10.2	2.8	15.3	1.2	26.8	12.5	15.5	6.1	9.7
	수도권	151	11.0	1.6	14.1	0.3	29.2	11.2	15.3	7.8	9.4
	충청권	216	8.8	5.6	12.2	0.4	26.5	15.6	14.6	5.6	10.7
	호남권	198	13.8	2.7	14.6	0.5	28.5	17.5	12.6	2.0	7.9
	경남권	242	15.5	1.9	15.9	0.5	29.6	12.1	12.3	2.9	9.3
	경북권	150	9.6	3.2	17.0	0.2	24.6	12.0	14.9	8.0	10.5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9.0	4.5	17.4	0.7	25.6	17.5	13.8	4.7	6.7
	5천만 원~1억 원 미만	121	13.6	4.5	15.7	0.6	22.4	14.9	15.2	4.9	8.2
	1억 원~5억 원 미만	770	11.7	2.7	14.6	0.4	28.2	13.3	14.0	5.0	9.9
	5억 원 이상	171	11.9	3.1	14.1	0.7	31.1	13.7	11.8	4.3	9.3

-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식재료비 사용 비중은 쌀(12.4%), 곡류(2.3%), 채소(13.8%), 과일(0.4%), 축산물(35.5%), 수산물(6.8%), 가공식품(14.8%), 주류/음료(10.2%) 등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쌀과 채소는 한식 일반(각 13.8%, 13.9), 곡류와 가공식품은 한식 면류(각 13.7%, 23.3%), 과일은 한식 일반과 한식 면류(각 0.5%), 축산물과 주류/음료는 한식 육류(각 45.7%, 12.0%), 수산물은 한식 해산물(41.6%)에서 식재료비 사용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는 쌀의 경우 호남권(14.8%), 곡류는 충청권(5.4%), 채소는 경남권(15.8%), 축산물은 호남권(46.3%), 수산물은 수도권(8.6%), 가공식품은 충청권(18.0%), 주류/음료는 충청권(11.6%)에서 사용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 곡류, 과일, 수산물은 5천만 원~1억 원 미만(각 6.8%, 1.6%, 7.6%) 업체, 가공식품, 주류/음료는 1억 원~5억 원 미만(각 15.6%, 10.4%) 업체, 쌀, 채소, 축산물은 5억 원 이상(각 13.5%, 14.3%, 37.8%) 업체에서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3-63-2〉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식재료비 사용 비중(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쌀	곡류 (쌀 제외)	채소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기타	주류/ 음료
전체		197	12.4	2.3	13.8	0.4	35.5	6.8	14.8	3.9	10.2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83	13.8	2.3	13.9	0.5	33.0	7.4	15.8	4.0	9.3
	한식 면류	26	9.4	13.7	13.4	0.5	18.5	6.7	23.3	5.5	8.9
	한식 육류	72	10.3	0.6	13.8	0.2	45.7	1.7	12.2	3.5	12.0
	한식 해산물	16	9.8	2.6	12.4	0.3	10.2	41.6	9.2	4.0	9.9
지역	서울권	17	12.0	2.8	14.0	2.4	32.4	6.6	17.6	3.9	8.2
	수도권	42	10.5	1.6	13.3	0.4	35.8	8.6	14.5	6.5	8.7
	충청권	25	9.4	5.4	10.6	0.3	37.8	4.7	18.0	2.2	11.6
	호남권	19	14.8	1.4	10.5	0.0	46.3	4.2	11.7	2.4	8.7
	경남권	77	14.6	1.7	15.8	0.2	32.7	7.7	13.8	2.5	11.0
	경북권	17	8.0	2.4	13.6	0.0	36.5	3.9	15.8	9.4	10.6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미만	5	12.4	6.8	10.1	1.6	34.4	7.6	14.8	6.2	6.1
	1억 원~5억 원 미만	131	12.0	2.2	13.8	0.2	34.9	7.1	15.6	3.8	10.4
	5억 원 이상	61	13.5	2.0	14.3	0.7	37.8	5.6	11.9	4.0	10.2

- 비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식재료비 사용 비중은 쌀(11.8%), 곡류(3.2%), 채소(15.0%), 과일(0.5%), 축산물(26.2%), 수산물(15.1%), 가공식품(13.7%), 주류/음료(9.4%) 등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쌀과 채소는 한식 일반(각 13.3%, 15.7%), 곡류, 가공식품은 한식 면류(각 12.4%, 24.9%), 과일은 한식 육류와 한식 해산물(각 0.6%), 축산물과 주류/음료는 한식 육류(각 43.6%, 11.3%), 수산물류는 한식 해산물(42.8%)에서 사용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쌀은 경남권(15.9%), 곡류는 충청권(5.6%), 채소는 경북권(17.3%), 과일은 서울권(1.1%), 축산물은 경남권(28.3%), 수산물은 호남권(18.5%), 가공식품은 수도권(15.6%), 주류/음료는 충청권(10.6%)에서 사용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 곡류, 채소는 5천만 원 미만(각 4.5%, 17.4%) 업체, 쌀, 가공식품은 5천만 원~1억 원 미만(각 13.7%, 15.2%) 업체, 주류/음료는 1억 원~5억 원 미만 (9.8%) 업체, 과일, 축산물, 수산물은 5억 원 이상(각 0.8%, 27.8%, 17.8%) 업체에서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3-63-3〉 한식: 업종별·지역별·매출액·운영 형태별 식재료비 사용 비중(비프랜차이즈)

(단위: 개소, %)

구분		사례수	쌀	곡류 (쌀 제외)	채소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기타	주류/ 음료
전체		894	11.8	3.2	15.0	0.5	26.2	15.1	13.7	5.1	9.4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367	13.3	2.7	15.7	0.5	24.9	15.3	13.6	5.1	8.9
	한식 면류	149	7.6	12.4	14.5	0.5	14.1	13.2	24.9	5.6	7.2
	한식 육류	203	9.7	1.5	14.3	0.6	43.6	2.3	11.2	5.3	11.3
	한식 해산물	175	9.9	1.8	12.7	0.6	6.9	42.8	10.7	4.4	10.3
지역	서울권	117	10.0	2.7	15.4	1.1	26.2	13.2	15.3	6.3	9.9
	수도권	109	11.2	1.6	14.4	0.3	26.7	12.2	15.6	8.3	9.7
	충청권	191	8.7	5.6	12.4	0.4	24.9	17.1	14.2	6.1	10.6
	호남권	179	13.7	2.8	14.9	0.6	27.1	18.5	12.7	1.9	7.8
	경남권	165	15.9	2.0	16.0	0.6	28.3	13.9	11.6	3.1	8.6
	경북권	133	9.7	3.3	17.3	0.3	23.3	12.9	14.8	7.8	10.5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29	9.0	4.5	17.4	0.7	25.6	17.5	13.8	4.7	6.7
	5천만 원~1억 원 미만	116	13.7	4.3	16.0	0.6	21.8	15.2	15.2	4.9	8.3
	1억 원~5억 원 미만	639	11.7	2.8	14.8	0.5	26.8	14.6	13.7	5.3	9.8
	5억 원 이상	110	11.1	3.6	14.0	0.8	27.8	17.8	11.7	4.5	8.8



4편: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1. 식재료 구매 행태
2. 식재료 거래 특성

1) 식재료 구매 행태

(1)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2025년 월평균 식재료 구매량은 660.3kg으로 나타남.
 - 품목별 구매량은 축산물(303.0kg), 곡류(246.1kg), 채소류(183.1kg) 순서임.
- 2025년 월평균 식재료 구매금액은 403.5만 원으로 나타남.
 - 품목별 구매금액은 축산물(290.3만 원), 가공식품(92.1만 원), 곡류(61.7만 원) 등의 순서로 많음.
- 식재료 구매경로는 전체적으로 개인 도매상을 통해 구매하는 비중(23.7%)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식자재 마트(21.5%), 프랜차이즈 본사(19.3%), 농수산물도매시장(9.6%) 등임.
- 식재료 구매빈도는 일주일에 3~4회 구매하는 비중이 50.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일주일 1~2회(26.8%), 매일(14.5%) 등의 순서로 조사됨.
- 식재료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66.1%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전처리 상태(29.3%), 가공상태(4.6%) 순서로 파악됨.
 - 모든 품목에서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과일류(95.9%), 곡류(90.7%)은 다른 품목과 비교해 비중이 높음.
 - 전처리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은 수산물류(36.2%), 축산물(35.3%)이며, 가공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은 수산물류(26.4%)임.

(2)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가) 축산물

- 축산물의 월평균 구매량은 303.0kg이며, 월평균 구매금액은 290.3만 원으로 분석됨.
 - 품목별 월별 구매량은 닭고기(366.2kg), 돼지고기(208.4kg), 소고기(143.6kg), 계란(32.3kg)의 순서로 많음.
 - 품목별 월별 구매금액은 돼지고기(222.4만 원), 닭고기(220.6만 원), 소고기(208.2만 원), 계란(41.7만 원)의 순서로 많음.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57.8%로 가장 높고, 전처리 상태(35.3%), 가공상태(7.0%) 순으로 나타남.

나) 곡류

- 곡류의 월평균 구매량은 246.1kg이며, 월평균 구매금액은 61.7만 원으로 나타남.
 - 품목별 월별 구매량은 밀가루(198.3kg), 쌀(183.6kg)의 순서로 많음.
 - 품목별 월별 구매금액은 쌀(56.1만 원), 밀가루(29.8만 원)의 순서로 많음.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90.7%로 가장 높고, 가공상태(6.7%), 전처리 상태(2.6%)의 순서로 조사됨.

다) 수산물류

- 수산물류의 월평균 구매량은 34.5kg이며, 월평균 구매금액은 34.6만 원으로 분석됨.
 - 품목별 월별 구매량은 오징어(32.1kg), 멸치(21.4kg)의 순서로 많음.
 - 품목별 월별 구매금액은 오징어(33.3만 원), 멸치(20.4만 원)의 순서로 많음.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37.4%로 가장 높고, 전처리상태(36.2%), 가공 상태(26.4%)의 순서로 나타남.

라) 채소류

- 채소류의 월평균 구매량은 183.1g이며, 월평균 구매금액은 61.5만 원으로 파악됨.
 - 품목별 월별 구매량은 배추(62.1kg), 양파(58.4kg), 무(49.2kg), 감자(41.0kg), 파(대파)(37.8kg), 마늘(25.2kg), 당근(17.2kg), 고추(17.1kg)의 순서로 많음.
 - 품목별 월별 구매금액은 배추(26.9만 원), 마늘(14.7만 원), 양파(13.0만 원), 파(대파)(12.1만 원), 무(12.0만 원), 감자(10.2만 원), 고추(8.8만 원), 당근(5.7만 원)의 순서로 많음.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66.9%로 가장 높고, 전처리 상태(31.9%), 가공상태(1.1%) 순임.

마) 과일류

- 과일류의 월평균 구매량은 38.3kg이며, 월평균 구매금액은 30.7만 원으로 나타남.
 - 품목별 월별 구매량은 배(25.9kg), 사과(23.8kg)의 순서로 많음.
 - 품목별 월별 구매금액은 배(29.6만 원), 사과(12.0만 원)의 순서로 많음.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95.9%로 가장 높고, 다음이 전처리 상태(4.1%), 가공상태(0.0%) 등임.

바) 가공식품

- 가공식품의 월평균 구매량은 124.2kg이며, 월평균 구매금액은 92.1만 원 수준임.
- 품목별 월별 구매량은 볶은 원두(103.6kg), 생두(81.7kg), 김치(61.4kg), 식용유(55.0kg) 등의 순서로 많음.
- 품목별 월별 구매금액은 볶은 원두(170.5만 원), 생두(120.7만 원), 김치(33.2만 원), 치즈(25.8만 원) 등의 순서로 많음.

(3) 구매처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1+2순위 중복응답 기준)

- 외식업체가 주재료 식재료 구매처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 품질(신선도 등)이 우수(23.7%)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물량 확보가 용이해서(21.5%), 프랜차이즈 본사이므로(13.7%) 등의 순임.
- 일반음식점의 세부 업종별로는 서양식, 기타 외국식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품질(신선도 등)이 우수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음식점 외 업체의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피자·햄버거·샌드위치(53.7%), 치킨 전문점(42.7%)은 프랜차이즈 본사이므로의 비중이 높고, 제과점(26.4%),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25.0%)은 품질(신선도 등)이 우수해서, 출장·이동음식점업(47.3%), 기관 구내식당업(46.7%), 주점업(27.2%)은 가격이 저렴해서, 비알코올 음료점업(25.5%)은 물량 확보가 용이해서의 비중이 높음.
- 운영 형태별로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이므로(46.3%)의 비중이 높고, 비프랜차이즈는 품질(신선도 등)이 우수해서(27.7%)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지역별로는 서울권(25.3%), 호남권(30.0%)은 물량 확보가 용이해서의 비중이 높고, 수도권(20.8%), 충청권(22.9%), 경남권(24.8%), 경북권(30.4%)은 품질(신선도 등)이 우수해서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32.4%), 5천만 원~1억 원 미만(27.1%)은 물량 확보가 용이해서의 비중이 높고, 1억 원 ~5억 원 미만(24.4%), 5억 원 이상(25.9%)에서는 품질(신선도 등)이 우수해서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4) 사업장 면적별 식재료 구매 형태

- 사업장 면적별 식재료 구매 실태를 살펴보면, 30㎡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월평균 구매량 및 구매금액이 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높음.
- 구매경로는 30㎡ 미만, 30~50㎡ 미만, 300㎡ 이상 업체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 구매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50~100㎡ 미만, 100~300㎡ 미만은 개인 도매를 통해 구매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구매빈도는 면적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3~4회 구매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구매 형태는 면적에 관계없이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5) 상권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외식업체의 상권별 식재료 월평균 구매량은 오피스가(1,054.1kg), 역세권(856.9kg), 일반 상업지(690.3kg) 등의 순서로 많음.
- 상권별로 식재료 월평균 구매금액은 역세권(747.1만 원), 오피스가(597.3만 원), 일반 상업지(418.5만 원) 등의 순서임.
- 구매경로는 주거지, 일반 상업지는 개인 도매상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기타에서는 기타가, 오피스가, 교외/휴양지 등에서는 식자재 마트가, 유흥 상업지, 대학 및 학원가, 역세권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구매빈도는 주거지, 일반 상업지, 유흥 상업지, 대학 및 학원가, 역세권, 오피스가에서는 일주일에 3~4회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외/휴양지 등은 일주일에 1~2회, 기타에서는 매일의 빈도가 가장 높음.
- 구매 형태는 모든 상권에서 원물 상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6) 업종 중분류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외식업체의 업종 중분류별 식재료 월평균 구매량은 기관 구내식당업(1,314.4kg), 일반음식점업(865.5kg), 출장 및 이동음식점업(818.6kg) 등의 순서로 많음.
- 외식업체의 업종 중분류별 식재료 월평균 구매금액은 기관 구내식당업(795.8만 원), 출장 및 이동음식점업(618.6만 원), 일반음식점업(524.9만 원) 등의 순서로 많음.
- 식재료 구매경로는 일반음식점, 주점업은 개인 도매상 비중이 가장 높았고, 기관 구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음식점업은 식자재 마트, 기타 음식점업,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한 구매 비중이 높음.
- 구매빈도는 일반음식점업, 기타 음식점업,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일주일에 3~4회 비중이 가장 높고, 기관 구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음식점업, 주점업은 일주일에 1~2회가 가장 높음.
- 구매 형태는 업종에 관계없이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함.

(7) 일반음식점 업종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일반음식점의 전체 식재료 월평균 구매량은 865.5kg이고, 월평균 구매금액은 524.9만 원임.
- 월평균 식재료 구매량은 중식(1,350.7kg), 한식(852.4kg), 서양식(691.3kg), 일식(570.8kg), 기타 외국식(533.2kg) 순서임.
- 월평균 식재료 구매금액은 중식(591.7만 원), 한식(539.8만 원), 서양식(428.4만 원), 기타 외국식(327.9만 원), 일식(327.3만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일반음식점의 식재료 구매경로는 개인 도매상(24.7%), 식자재 마트(23.9%), 농수산물도매시장(14.0%) 등의 순서임.
- 세부 업종별로는 한식과 중식은 개인 도매상의 비중이 높고, 일식은 식자재 마트, 서양식과 기타 외국식은 프랜차이즈 본사 비중이 가장 높음.

- 일반음식점의 식재료 구매빈도는 일주일에 3~4회(53.4%), 일주일에 1~2회(21.3%), 매일(18.3%) 등의 순서임.
- 일반음식점의 식재료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67.7%)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전처리 상태(28.9%), 가공상태(3.5%)임.
 - 일반음식점 모든 업종이 원물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높음.

(8) 한식 세분류별 식재료 구매 행태

- 한식 외식업체의 월평균 식재료 구매량은 852.4kg이고, 월평균 식재료 구매금액은 539.8만 원임.
 - 월평균 식재료 구매량은 세분류별로 한식 육류(1,114.7kg), 한식 일반(823.2kg), 한식 면류(751.7kg), 한식 해산물(468.8kg)의 순서임.
 - 월평균 식재료 구매금액은 세분류별로 한식 육류(863.2만 원), 한식 일반(494.5만 원), 한식 면류(308.2만 원), 한식 해산물(223.4만 원)의 순으로 많음.
- 한식 외식업체의 식재료 구매경로는 개인 도매상(24.9%), 식자재 마트(24.5%), 농수산물도매시장(15.3%) 등의 순서임.
- 한식 외식업체의 식재료 구매빈도는 일주일에 3~4회(53.0%), 일주일에 1~2회(21.2%), 매일(18.7%) 등의 순으로 조사됨.
- 한식 외식업체의 식재료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68.7%)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전처리 상태(27.9%), 가공상태(3.4%)인 것으로 파악됨.

(9) 운영 형태별 식재료 구매 행태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월평균 식재료 구매량은 832.4kg이고, 월평균 식재료 구매금액은 523.1만 원임.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월평균 식재료 구매량은 597.6kg이고, 월평균 식재료 구매금액은 360.0만 원임.

(10) 연매출 규모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연매출 규모별로 5천만 원 미만 외식업체의 월평균 식재료 구매량은 185.5kg이고, 월평균 식재료 구매금액은 99.6만 원임.
- 연매출 규모별로 5천~1억 미만 외식업체의 월평균 식재료 구매량은 315.1kg이고, 월평균 식재료 구매금액은 195.5만 원임.

- 연매출 규모별로 1억~5억 미만 외식업체의 월평균 식재료 구매량은 673.2kg이고, 월평균 식재료 구매 금액은 403.0만 원 수준임.
- 연매출 규모별로 5억 이상 외식업체의 월평균 식재료 구매량은 1,458.8kg이고, 월평균 식재료 구매 금액은 965.2만 원으로 조사됨.

2) 식재료 거래 특성

(1) 국내산 비중

- 외식업체가 이용하는 식재료 중 국내산 비중은 전체 평균 83.2%이며, 국내산 이용 비중이 80% 이하인 품목은 소고기(34.6%), 돼지고기(69.2%), 오징어(43.4%), 마늘(79.6%), 고춧가루(건고추 포함)(49.2%), 김치(36.2%)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에서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업종은 기타 외국식(74.8%)으로 나타남. 일반 음식점 외 업종에서는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업종은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78.1%)임. 한식 세분류별로 국내산 비중이 가장 낮은 업종은 한식 육류(83.4%)임.
- 비프랜차이즈 업체(83.5%)는 프랜차이즈 업체(82.2%)보다 국내산 원료 사용 비중이 1.3%p 높음.
- 지역별로 국내산 원료 사용 비중은 호남권(90.6%)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울권(84.6%), 수도권(84.0%), 경남권(81.5%), 경북권(80.3%), 충청권(79.7%)의 순임.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87.7%)이 국내산 원료 사용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5천만~1억 원 미만(85.3%), 5억 원 이상(83.4%), 1억~5억 원 미만(82.7%)의 순인 것으로 조사됨.
- 업종별·품목별 국내산 식재료 사용 비중을 살펴보면, 한식의 경우 소고기(42.8%), 김치(37.4%), 고춧가루(51.7%), 오징어(43.7%)의 국내산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2) 국내산 원재료 사용 이유(1+2순위 중복응답 기준)

- 외식업체가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맛, 품질이 우수해서가 27.3%로 가장 높고, 이어서 안전해서(24.7%), 물량 확보가 용이해서(12.7%),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해줘서(12.3%), 가격변화가 비교적 적어서(7.1%) 등의 순임.

(3) 수입 원재료 사용 이유(1+2순위 중복응답 기준)

- 외식업체가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해서가 26.0%로 가장 높고, 이어서 물량 확보가 용이해서(17.4%), 가격변화가 비교적 적어서(17.2%),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해줘서(8.7%), 안전해서와 맛, 품질이 우수해서(각 5.0%) 등의 순서로 나타남.

(4) 식재료 원산지 확인 여부

- 외식업체가 식재료를 구매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는 비중은 67.4%이며, 확인하지 않는 비중은 5.0%로 조사됨.
 - 세부적으로는 하는 편이다(46.1%),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27.7%), 항상 한다(21.3%), 거의 하지 않는다(4.0%), 전혀 하지 않는다(1.0%)의 순서로 나타남.
- 식재료 원산지를 확인한다(하는 편이다+항상 한다)의 비중은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서양식(80.4%), 기타 외국식(78.9%)이, 일반음식점 외 업종의 경우 주점업(85.4%), 기관 구내식당업(83.3%)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한식 세분류별로는 한식 면류(75.4%), 한식 일반(66.2%), 한식 해산물(61.8%), 한식 육류(60.9%)의 순서로 식재료 원산지를 확인하는 비중이 높음.

(5) 식재료 가격 정보 획득 경로

- 식재료 가격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식재료 공급업체(30.4%)를 통한 방법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터넷 사이트 탐색(19.6%), 지인(동종업체)으로부터 참고(18.5%), 직접 현장 조사(17.0%), 정부기관(4.6%)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 업종 대부분이 식재료 공급업체를 통한 가격 정보 획득 비중이 높음.
- 일반음식점 외 업종별로 기관 구내식당업(41.3%), 출장·이동음식점업(54.8%), 제과점(37.2%),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22.8%),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33.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21.7%)은 주로 식재료 공급업체를 통해 가격 정보를 얻고 있음. 치킨 전문점의 경우 지인으로부터 참고(22.4%), 주점업(25.5%)과 비알코올 음료점업(28.6%)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 탐색의 비중이 높음.

1. 식재료 구매 행태¹⁶⁾

1)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2025년 월평균 식재료 구매량은 660.3kg으로 나타남.
 - 품목별 구매량은 축산물(303.0kg), 곡류(246.1kg), 채소류(183.1kg) 순서임.
- 2025년 월평균 식재료 구매금액은 403.5만 원 수준임.
 - 품목별 구매금액은 축산물(290.3만 원), 가공식품(92.1만 원), 곡류(61.7만 원) 순서임.
- 식재료 구매경로는 전체적으로 개인 도매상을 통해 구매하는 비중(23.4%)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식자재 마트(20.9%), 프랜차이즈 본사(20.7%), 농수산물도매시장(9.6%) 등임.
- 식재료 구매빈도는 일주일에 3~4회 구매하는 비중이 50.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일주일 1~2회(26.8%), 매일(14.5%) 등의 순서로 조사됨.
- 식재료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66.1%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전처리 상태(29.3%), 가공상태(4.6%) 순서로 파악됨.
 - 모든 품목에서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과일류(95.9%), 곡류(90.7%)은 다른 품목과 비교해 비중이 높음.
 - 전처리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은 수산물류(36.2%), 축산물(35.3%)이며, 가공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은 수산물류(26.4%)임.

16) 식재료 구매 행태 비율은 품목별 구매량을 고려하지 않고 응답 업체 수 기준으로 단순 평균한 값임.

〈표 4-1〉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대분류

구분	전체	축산물	곡류	수산물류	채소류	과일류	가공식품
월평균 구매량(kg)	660.3	303.0	246.1	34.5	183.1	38.3	124.2
월평균 구매금액(만 원)	403.5	290.3	61.7	34.6	61.5	30.7	92.1
구매경로(비율응답, %)							
1. 식재료 유통대기업	2.7						
2. 식재료 유통법인	8.2						
3. 개인 도매상	23.7						
4. 식자재 마트	21.5						
5. 일반대형마트	4.8						
6. 농수산물도매시장	9.6						
7. 소매상	2.6						
8. 산지직거래 및 로컬푸드 매장	3.0						
9. 직접 생산	0.3						
10. 프랜차이즈 본사	19.3						
11. 온라인마트	2.7						
12. 수입상	1.2						
13. 기타	0.5						
합계	100.0						
구매빈도(%)							
1. 매일	14.5						
2. 일주일에 3~4회	50.2						
3. 일주일에 1~2회	26.8						
4. 월 2~3회	4.8						
5. 월 1회	3.4						
6. 기타	0.3						
합계	100.0						
구매형태(복수응답, %)							
1. 원물상태	66.1	57.8	90.7	37.4	66.9	95.9	
2. 전처리상태	29.3	35.3	2.6	36.2	31.9	4.1	
3. 가공상태	4.6	7.0	6.7	26.4	1.1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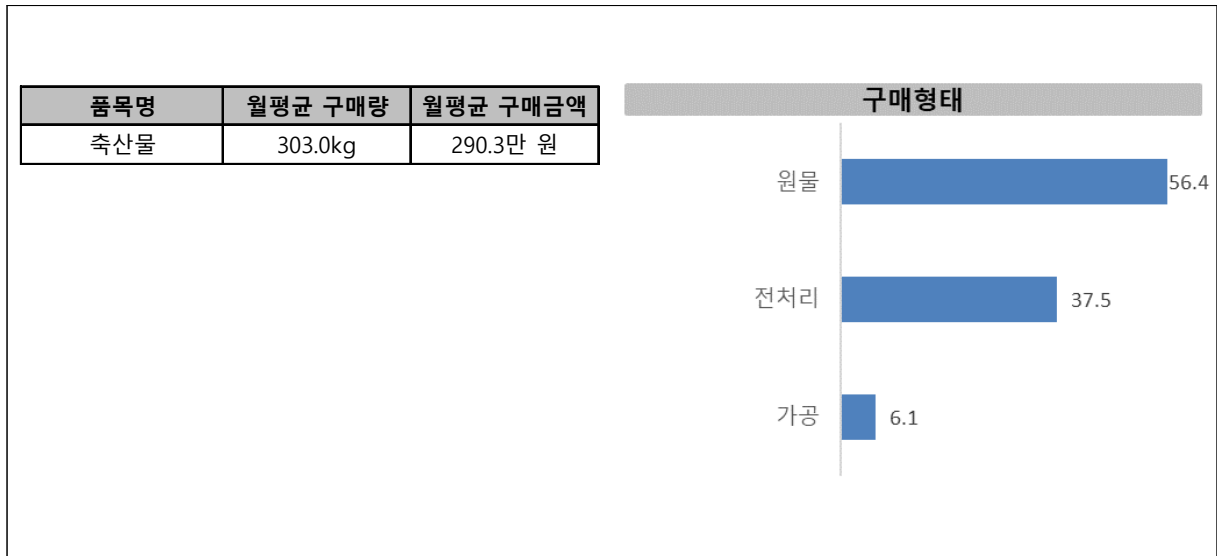
주 1) 품목별 구매량을 고려하지 않고 응답 업체 수 기준으로 단순 평균한 값임.

2) 0값을 결측치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세부 품목의 평균 합이 전체 평균과 다를 수 있음.

3) 곡류의 구매경로, 구매빈도, 구매형태는 곡류가공품을 제외한 곡류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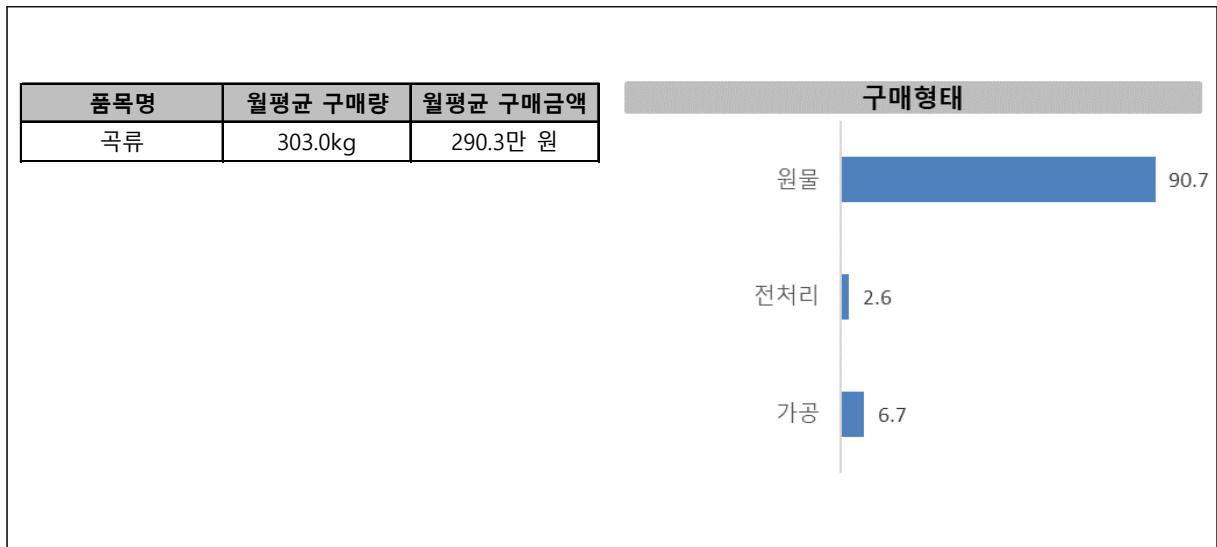
〈그림 4-1〉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축산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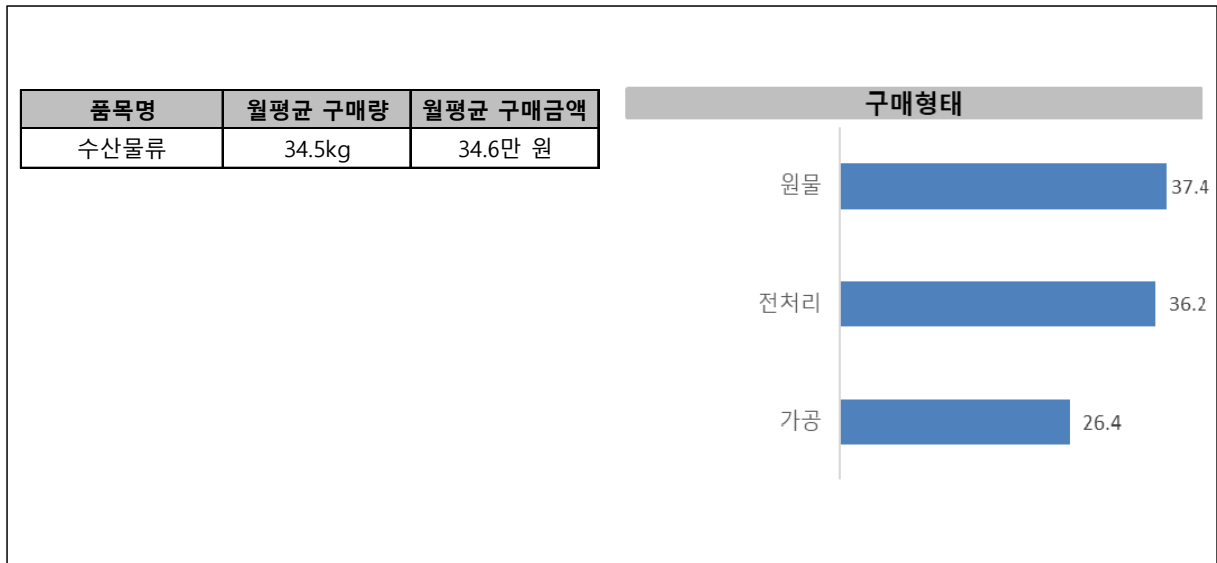
〈그림 4-2〉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곡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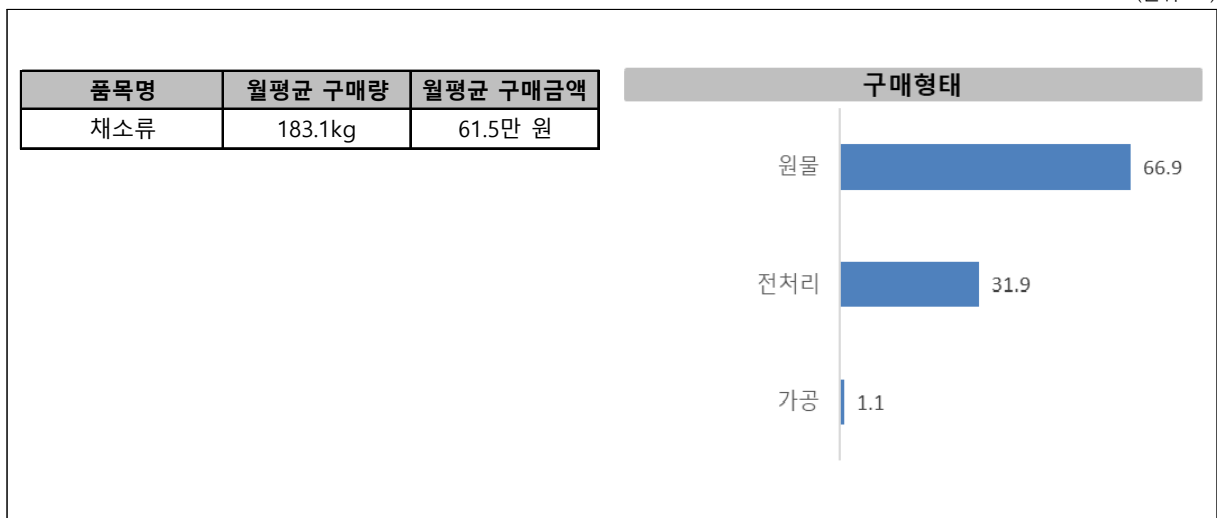
〈그림 4-3〉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수산물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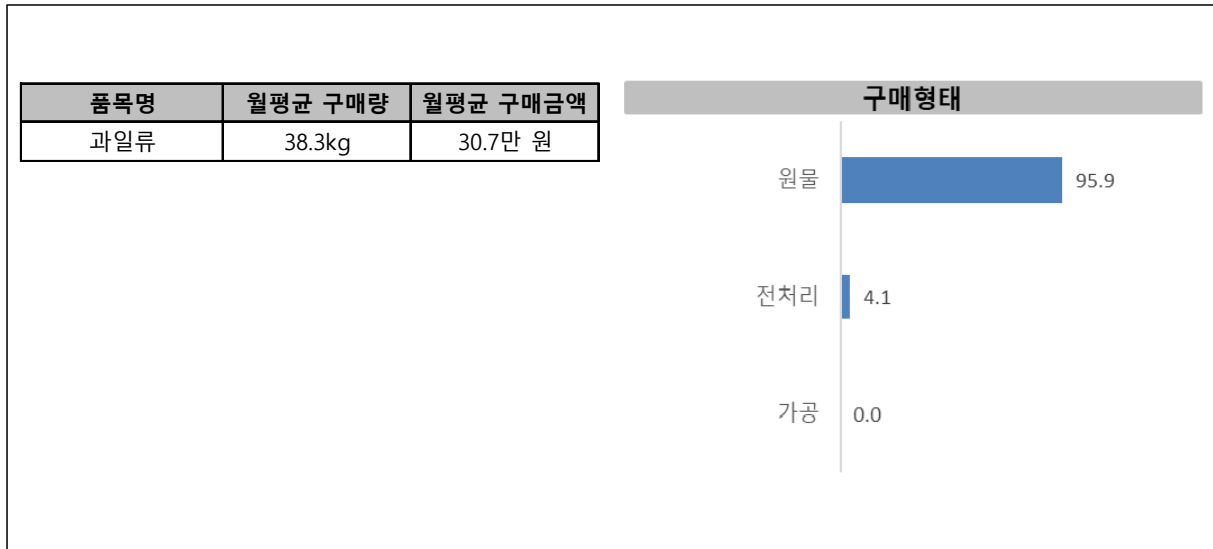
〈그림 4-4〉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채소류

(단위: %)



〈그림 4-5〉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과일류

(단위: %)



2)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1) 축산물

- 축산물의 월평균 구매량은 303.0kg이며, 월평균 구매금액은 290.3만 원으로 나타남.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57.8%로 가장 높고, 전처리 상태(35.3%), 가공상태(7.0%) 순으로 나타남.
- 축산물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고기의 월평균 구매량은 143.6kg, 월평균 구매금액은 208.2만 원임.
 - 구매 형태는 전처리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56.3%로 가장 높고, 원물 상태(36.3%), 가공상태(7.4%) 순으로 나타남.
- 돼지고기의 월평균 구매량은 208.4kg, 월평균 구매금액은 222.4만 원임.
 - 구매 형태는 전처리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55.9%로 가장 높고, 원물 상태(33.5%), 가공상태(10.6%) 순임.
- 닭고기의 월평균 구매량은 366.2kg, 월평균 구매금액은 220.6만 원 수준임.
 - 구매 형태는 전처리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55.2%로 가장 높고, 원물 상태(31.8%), 가공상태(13.0%) 순으로 파악됨.
- 계란의 월평균 구매량은 32.3kg, 월평균 구매금액은 41.7만 원임.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98.3%로 가장 높고, 가공상태(1.1%), 전처리 상태(0.6%) 순임.

(2) 곡류

- 곡류의 월평균 구매량은 246.1kg이며, 월평균 구매금액은 61.7만 원으로 나타남.
- 곡류(쌀)의 월평균 구매량은 183.6kg, 월평균 구매금액은 56.1만 원임.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90.7%로 가장 높고, 가공상태(6.7%), 전처리 상태(2.6%) 순임.
- 곡류가공품(밀가루)의 월평균 구매량은 198.3kg, 월평균 구매금액은 29.8만 원임.

(3) 수산물류

- 수산물류의 월평균 구매량은 34.5kg이며, 월평균 구매금액은 34.6만 원으로 나타남.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37.4%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전처리 상태(36.2%), 가공상태(26.4%) 순으로 나타남.
- 오징어의 월평균 구매량은 32.1kg, 월평균 구매금액은 33.3만 원 수준임.
 - 구매 형태는 전처리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46.6%로 가장 높고, 원물 상태(38.5%), 가공상태(14.9%) 순임.
- 멸치의 월평균 구매량은 21.4kg, 월평균 구매금액은 20.4만 원임.
 - 구매형태는 가공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37.0%로 가장 높고, 원물상태(36.4%), 전처리상태(26.6%) 순임.

(4) 채소류

- 채소류의 월평균 구매량은 183.1kg이며, 월평균 구매금액은 61.5만 원으로 나타남.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66.9%로 가장 높고, 전처리 상태(31.9%), 가공상태(1.1%) 순임.
- 세부 품목별로 마늘의 월평균 구매량은 25.2kg, 월평균 구매금액은 14.7만 원임.
 - 구매 형태는 전처리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64.0%로 가장 높고, 원물 상태(32.7%), 가공상태(3.3%) 등임.
- 양파의 월평균 구매량은 58.4kg, 월평균 구매금액은 13.0만 원임.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67.8%로 가장 높고, 전처리 상태(31.4%), 가공상태(0.8%) 순서임.
- 파(대파)의 월평균 구매량은 37.8kg, 월평균 구매금액은 12.1만 원 수준임.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79.4%로 가장 높고, 전처리 상태(20.4%), 가공상태(0.2%) 등임.
- 고추의 월평균 구매량은 17.1kg, 월평균 구매금액은 8.8만 원으로 파악됨.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81.7%로 가장 높고, 전처리 상태(18.1%), 가공상태(0.2%) 순임.
- 배추의 월평균 구매량은 62.1kg, 월평균 구매금액은 26.9만 원임.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84.9%로 가장 높고, 다음이 전처리 상태(14.4%), 가공상태(0.7%) 등인 것으로 파악됨.
- 무의 월평균 구매량은 49.2kg, 월평균 구매금액은 12.0만 원임.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75.1%로 가장 높고, 전처리 상태(23.4%), 가공상태(1.5%) 순서임.
- 당근의 월평균 구매량은 17.2kg, 월평균 구매금액은 5.7만 원 수준임.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5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처리 상태(43.3%), 가공상태(0.5%) 등인 것으로 나타남.
- 감자의 월평균 구매량은 41.0kg, 월평균 구매금액은 10.2만 원으로 조사됨.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78.8%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전처리 상태(19.5%), 가공상태(1.7%)의 순임.

(5) 과일류

- 과일류의 월평균 구매량은 38.3kg이며, 월평균 구매금액은 30.7만 원으로 나타남.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95.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처리 상태(4.1%) 등의 순임.
- 세부 품목별로 사과와 월평균 구매량은 23.8kg, 월평균 구매금액은 12.0만 원임.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96.4%로 대부분이며, 전처리 상태가 3.6% 정도를 차지함.
- 배의 월평균 구매량은 25.9kg, 월평균 구매금액은 29.6만 원 수준임.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95.1%로 대부분이며, 전처리 상태가 4.9% 정도를 차지함.

(6) 가공식품

- 가공식품의 월평균 구매량은 124.2kg이며, 월평균 구매금액은 92.1만 원으로 나타남.
- 세부 품목별로 고추장의 월평균 구매량은 19.5kg, 월평균 구매금액은 9.3만 원임.
- 된장의 월평균 구매량은 17.4kg, 월평균 구매금액은 8.3만 원임.
- 간장의 월평균 구매량은 16.7kg, 월평균 구매금액은 7.7만 원임.
- 김치의 월평균 구매량은 61.4kg, 월평균 구매금액은 33.2만 원임.
- 고춧가루의 월평균 구매량은 19.3kg, 월평균 구매금액은 25.3만 원임.
- 식용유의 월평균 구매량은 55.0kg, 월평균 구매금액은 20.0만 원임.

- 치즈의 월평균 구매량은 25.3kg, 월평균 구매금액은 25.8만 원임.
- 설탕의 월평균 구매량은 17.3kg, 월평균 구매금액은 4.4만 원임.
- 생두의 월평균 구매량은 81.7kg, 월평균 구매금액은 120.7만 원임.
- 볶은 원두의 월평균 구매량은 103.6kg, 월평균 구매금액은 170.5만 원임.

〈표 4-2〉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축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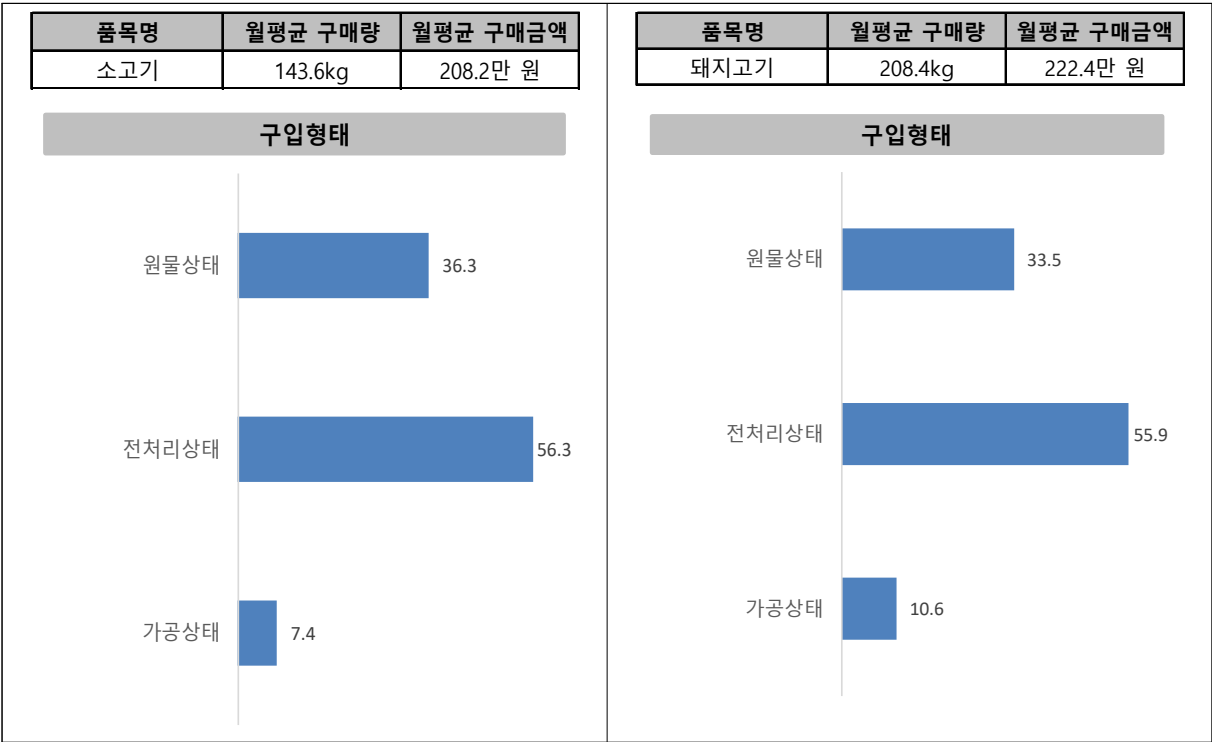
구분	전체	축산물	육류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월평균 구매량(kg)	660.3	303.0	143.6	208.4	366.2	32.3
월평균 구매금액(만 원)	403.5	290.3	208.2	222.4	220.6	41.7
구매형태(복수응답, %)						
1. 원물상태/일반계란	66.1	57.8	36.3	33.5	31.8	98.3
2. 전처리상태/액란	29.3	35.3	56.3	55.9	55.2	0.6
3. 가공상태	4.6	7.0	7.4	10.6	13.0	1.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품목별 구매량을 고려하지 않고 응답 업체 수 기준으로 단순 평균한 값임.

2) 0값을 결측치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세부 품목의 평균 합이 전체 평균과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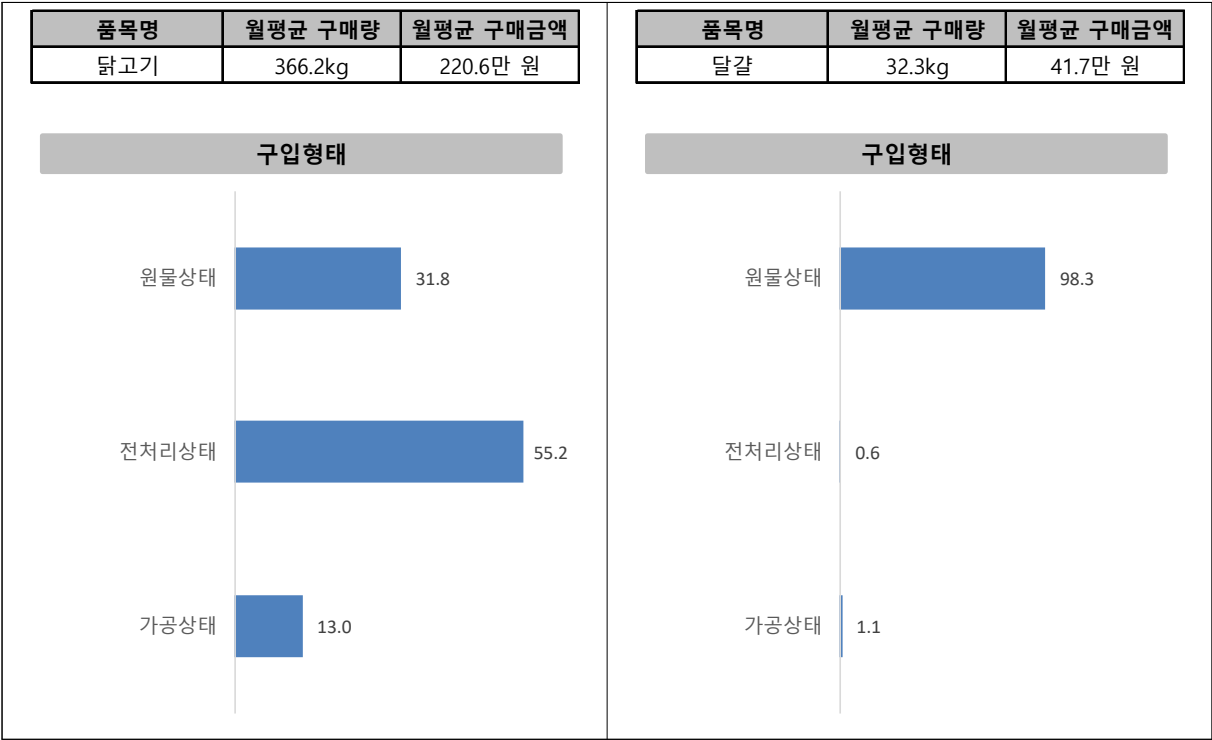
〈그림 4-6〉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소고기/돼지고기

(단위: %)



〈그림 4-7〉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닭고기/계란

(단위: %)



〈표 4-3〉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곡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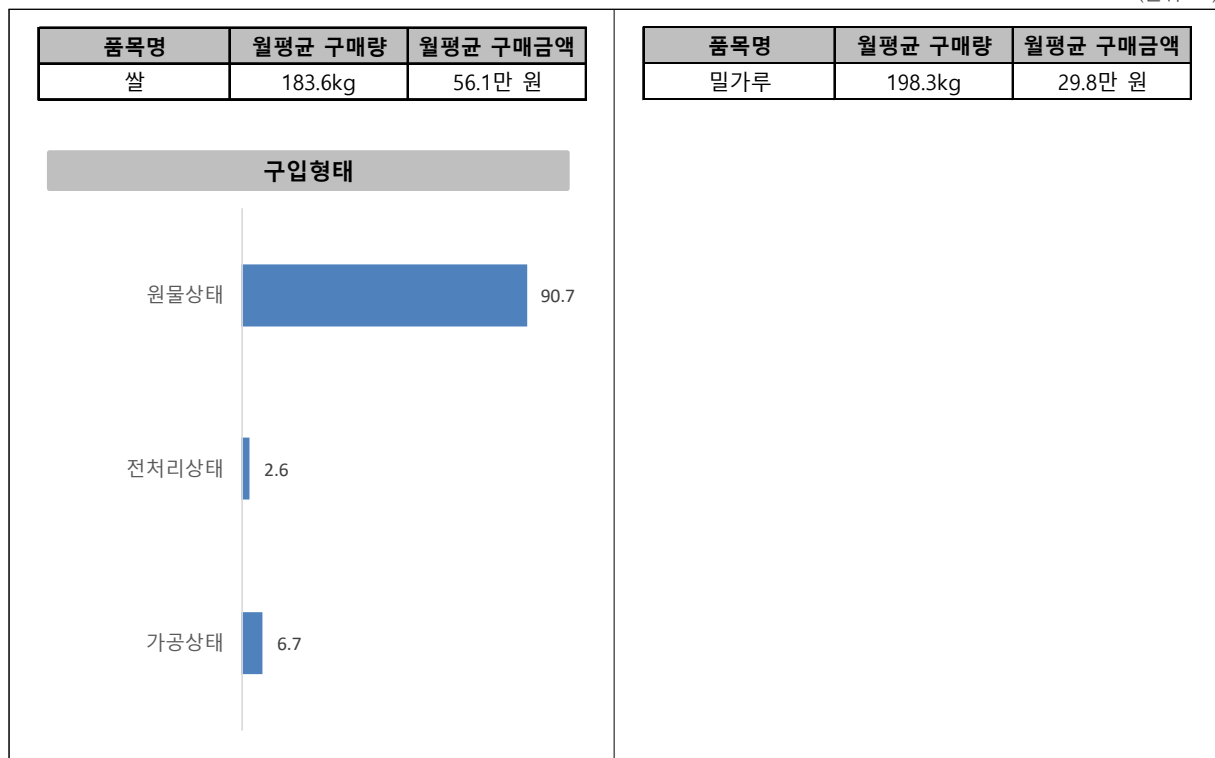
구분	전체	곡류	곡류	곡류가공품
			쌀	밀가루
월평균 구매량(kg)	660.3	246.1	183.6	198.3
월평균 구매금액(만 원)	403.5	61.7	56.1	29.8
구매형태(복수응답, %)				
1. 원물상태	66.1	90.7	90.7	
2. 조리된밥	29.3	2.6	2.6	
3. 가공상태	4.6	6.7	6.7	
합계	100.0	100.0	100.0	

주 1) 품목별 구매량을 고려하지 않고 응답 업체 수 기준으로 단순 평균한 값임.

2) 0값을 결측치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세부 품목의 평균 합이 전체 평균과 다를 수 있음.

〈그림 4-8〉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쌀/밀가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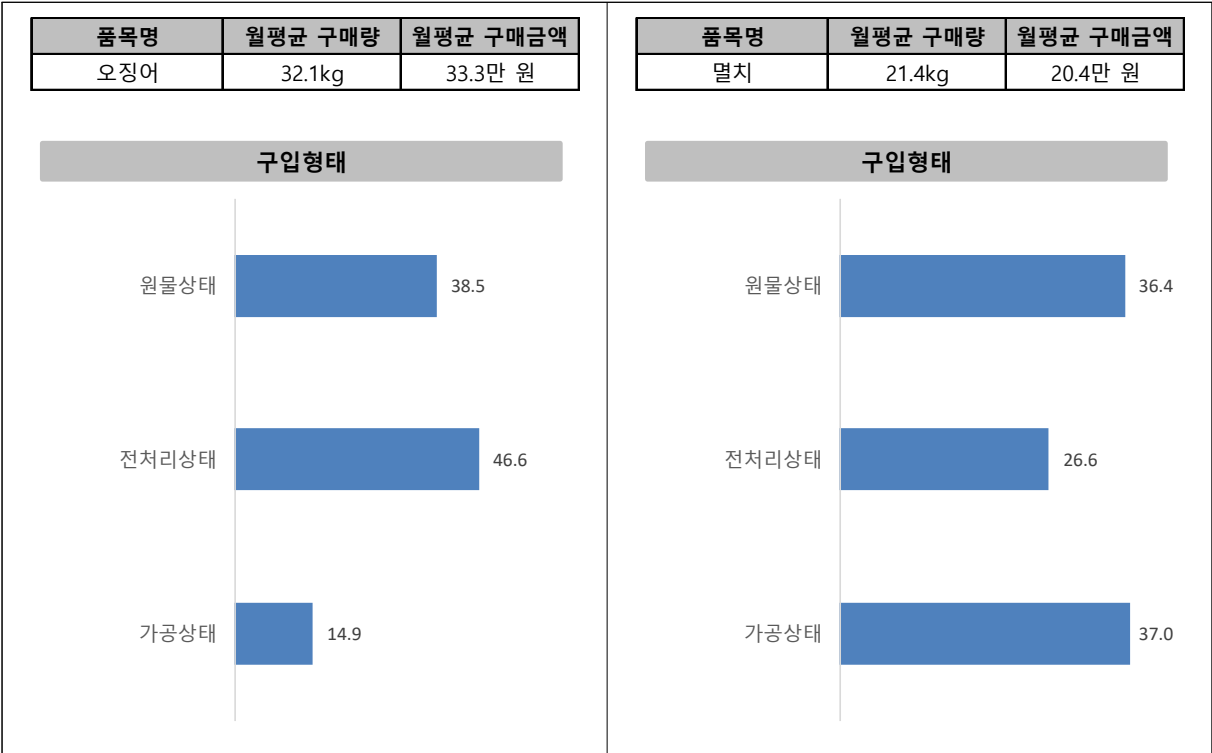
〈표 4-4〉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수산물류

구분	전체	수산물류	수산물류	
			오징어	멸치
월평균 구매량(kg)	660.3	34.5	32.1	21.4
월평균 구매금액(만 원)	403.5	34.6	33.3	20.4
구매형태(복수응답, %)				
1. 원물상태	66.1	37.4	38.5	36.4
2. 전처리상태	29.3	36.2	46.6	26.6
3. 가공상태	4.6	26.4	14.9	37.0
합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품목별 구매량을 고려하지 않고 응답 업체 수 기준으로 단순 평균한 값임.
2) 0값을 결측치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세부 품목의 평균 합이 전체 평균과 다를 수 있음.

〈그림 4-9〉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오징어/멸치

(단위: %)



〈표 4-5〉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채소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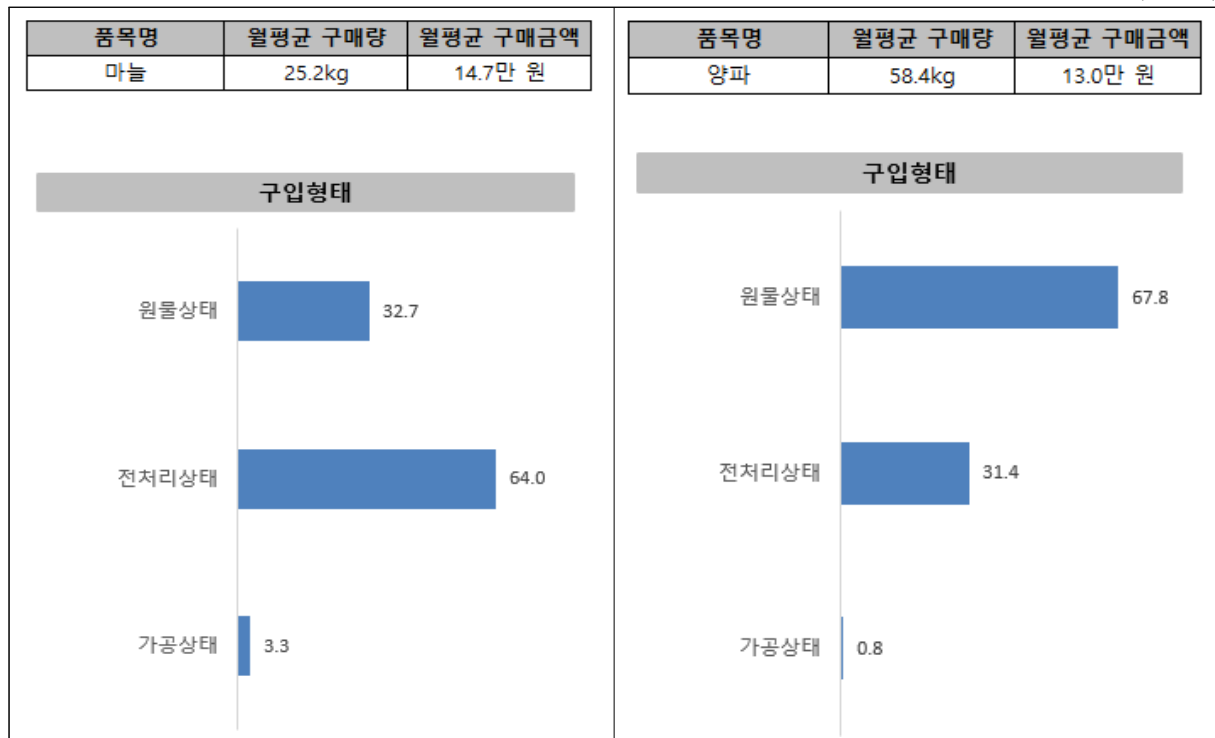
구분	전체	채소류	조미채소류				근채류		서류	
			마늘	양파	파 (대파)	고추	배추	무	당근	감자
월평균 구매량(kg)	660.3	183.1	25.2	58.4	37.8	17.1	62.1	49.2	17.2	41.0
월평균 구매금액(만 원)	403.5	61.5	14.7	13.0	12.1	8.8	26.9	12.0	5.7	10.2
구매형태(복수응답, %)										
1. 원물상태	66.1	66.9	32.7	67.8	79.4	81.7	84.9	75.1	56.2	78.8
2. 전처리상태	29.3	31.9	64.0	31.4	20.4	18.1	14.4	23.4	43.3	19.5
3. 가공상태	4.6	1.1	3.3	0.8	0.2	0.2	0.7	1.5	0.5	1.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품목별 구매량을 고려하지 않고 응답 업체 수 기준으로 단순 평균한 값임.

2) 0값을 결측치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세부 품목의 평균 합이 전체 평균과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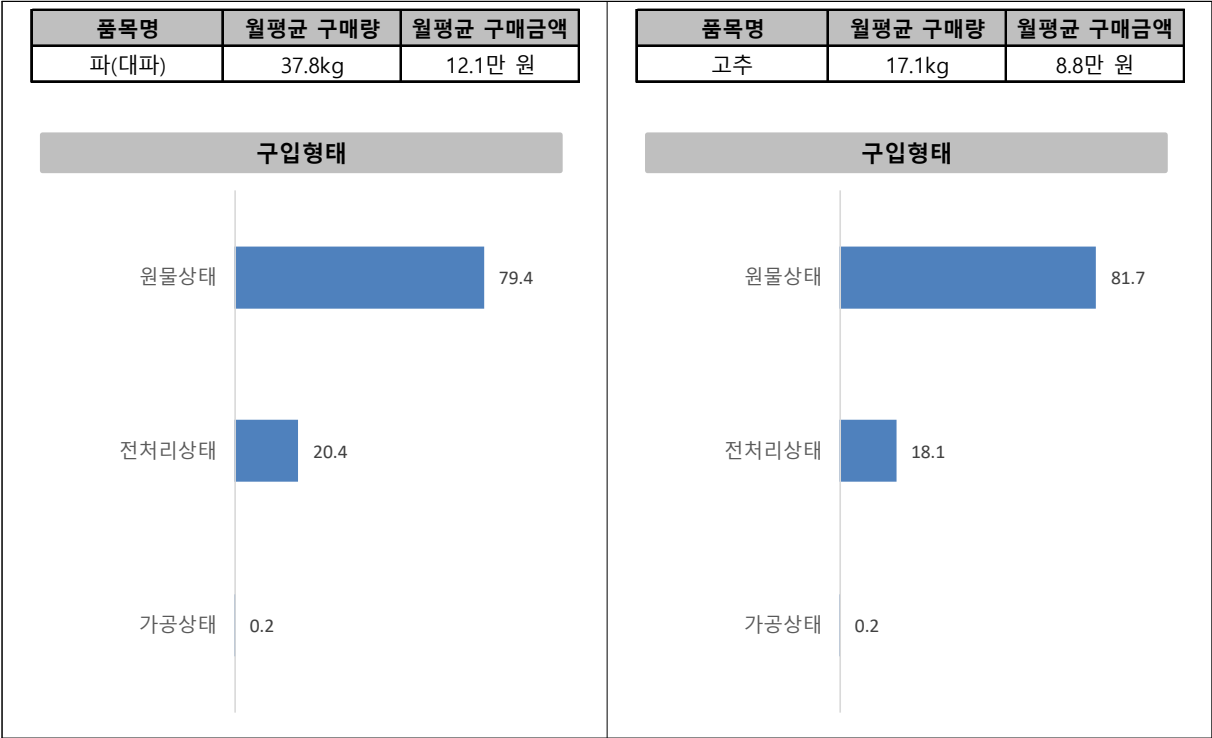
〈그림 4-10〉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마늘/양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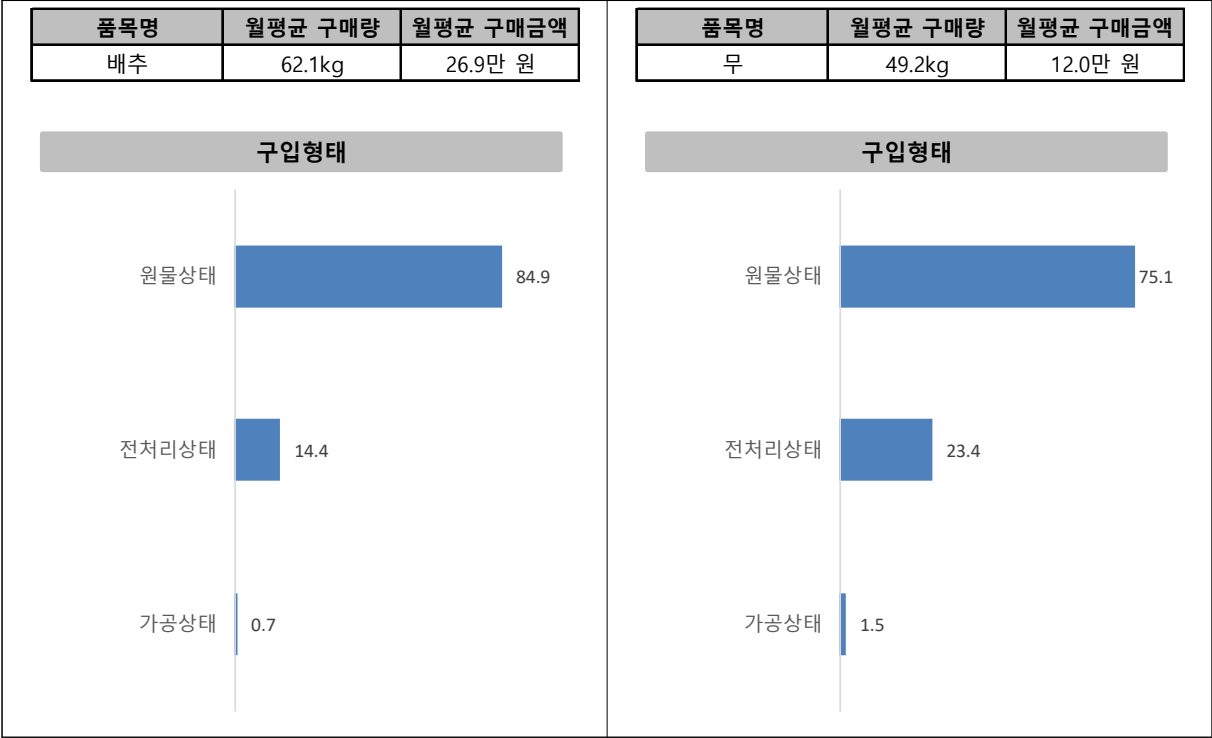
〈그림 4-11〉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파(대파)/고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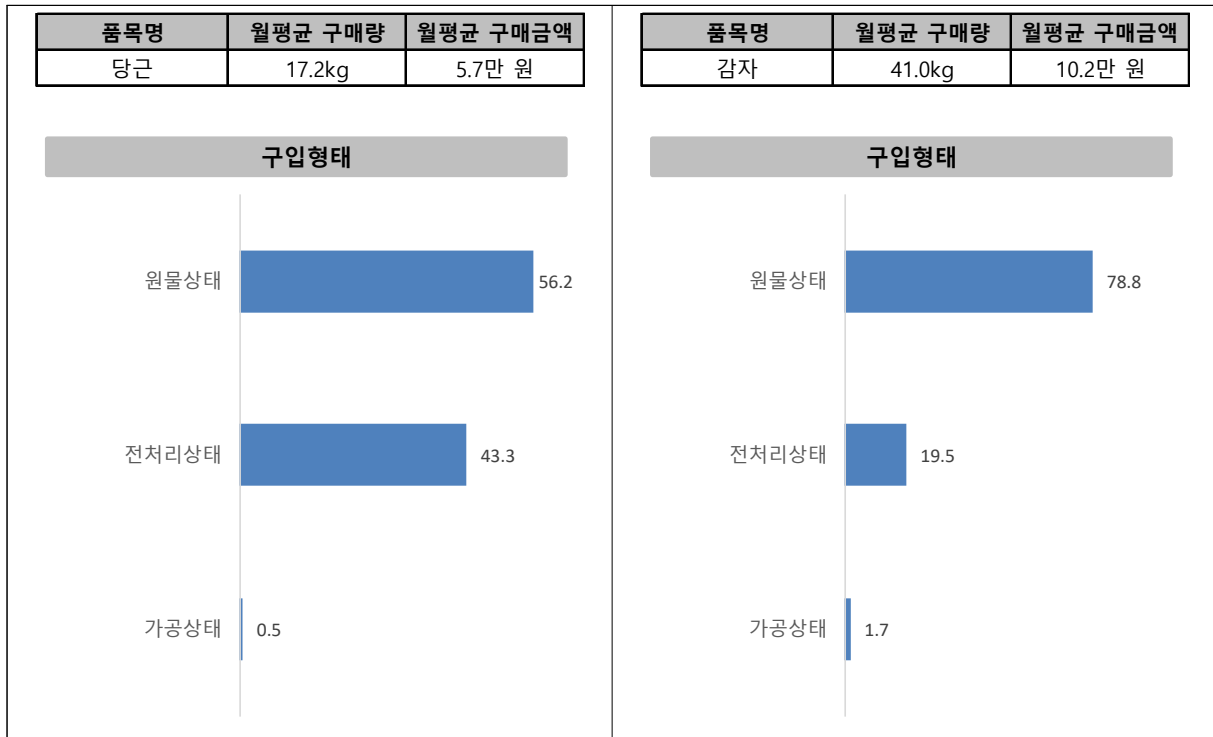
〈그림 4-12〉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배추/무

(단위: %)



〈그림 4-13〉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당근/감자

(단위: %)



〈표 4-6〉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과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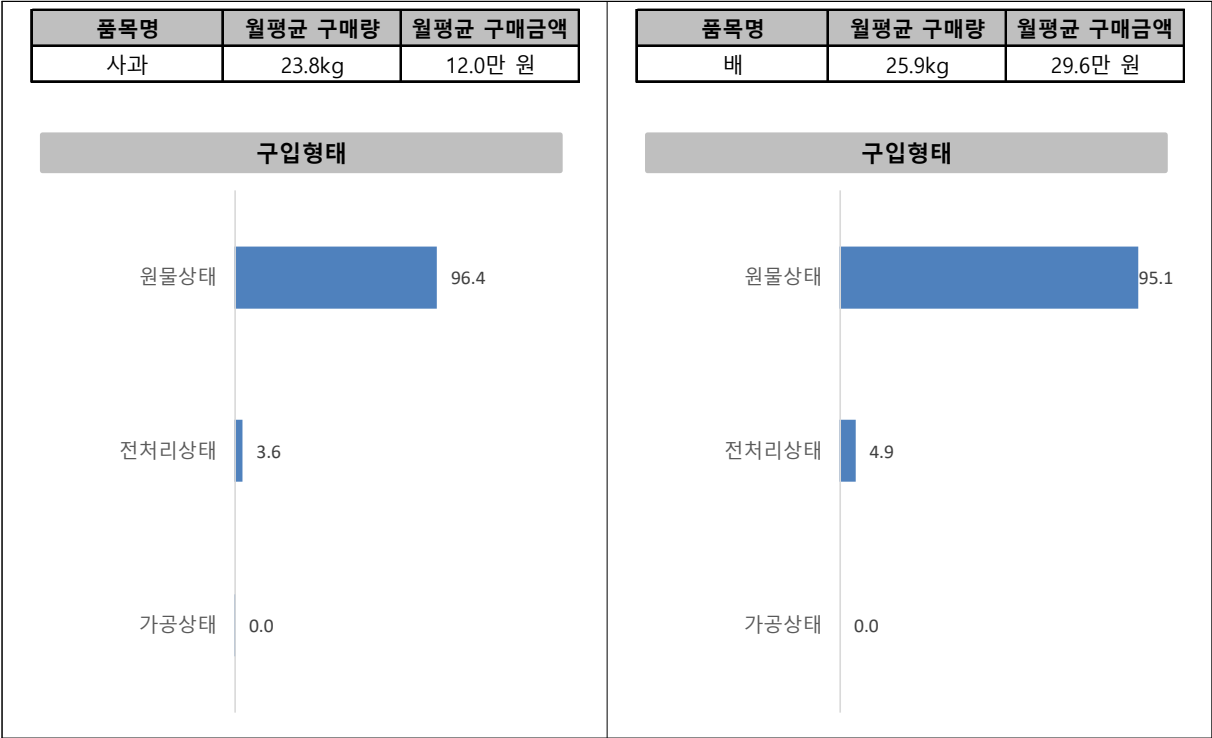
구분	전체	과일류	과일류	
			사과	배
월평균 구매량(kg)	660.3	38.3	23.8	25.9
월평균 구매금액(만 원)	403.5	30.7	12.0	29.6
구매형태(복수응답, %)				
1. 원물상태	66.1	95.9	96.4	95.1
2. 전처리상태	29.3	4.1	3.6	4.9
3. 가공상태	4.6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품목별 구매량을 고려하지 않고 응답 업체 수 기준으로 단순 평균한 값임.

2) 0값을 결측치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세부 품목의 평균 합이 전체 평균과 다를 수 있음.

〈그림 4-14〉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사과/배

(단위: %)



〈표 4-7〉 세부 품목별 식재료 구매 행태 - 가공식품

구분	전체	가공식품	장류			가공식품						
			고추장	된장	간장	고춧가루	김치	식용유	치즈	설탕	생두	볶은원두
월평균 구매량(kg)	660.3	124.2	19.5	17.4	16.7	19.3	61.4	55.0	25.3	17.3	81.7	103.6
월평균 구매금액(만 원)	403.5	92.1	9.3	8.3	7.7	25.3	33.2	20.0	25.8	4.4	120.7	170.5

구매형태(복수응답, %)

1. 원물상태	
2. 전처리상태	
3. 가공상태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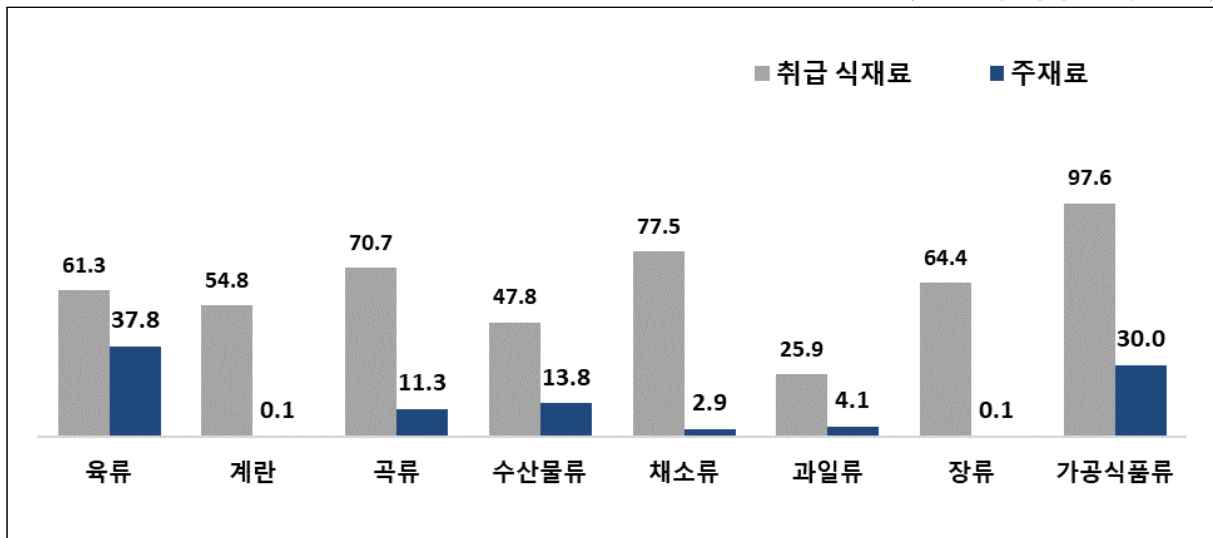
주 1) 품목별 구매량을 고려하지 않고 응답 업체 수 기준으로 단순 평균한 값임.
2) 0값을 결측치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세부 품목의 평균 합이 전체 평균과 다를 수 있음.

3) 취급 식재료 및 취급 식재료 중 주재료

- 외식업체 취급 식재료 및 주재료를 살펴보면, 취급 식재료는 가공식품류(97.6%)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채소류(77.5%), 곡류(70.7%) 등의 순임. 주재료의 경우 육류(37.8%), 가공식품류(30.0%), 수산물류(13.8%) 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됨.

〈그림 4-15〉 취급 식재료 및 취급 식재료 중 주재료

(Base: 해당문항 응답업체, 단위: %)



- 일반음식점의 취급 식재료는 가공식품류(99.6%), 채소류(99.4%), 곡류(95.9%) 등의 순이며, 주재료는 육류(53.4%), 수산물류(23.9%), 곡류(13.2%) 순으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 외 업체의 취급 식재료는 가공식품류(95.5%), 채소류(54.7%), 계란(45.2%)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주재료는 가공식품류(54.6%), 육류(21.5%), 곡류(9.5%) 등인 것으로 파악됨.
- 운영 형태별로는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 모두 주재료가 육류인 업체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8〉 취급 식재료(복수응답)

(Base: 해당문항 응답업체, 단위: 개소, %)

			사례수	육류	계란	곡류	수산물류	채소류	과일류	장류	가공식품류
전체			3,138	61.3	54.8	70.7	47.8	77.5	25.9	64.4	97.6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78.8	64.1	95.9	63.1	99.4	13.8	91.6	99.6
		한식	1,091	77.6	60.4	96.7	59.2	99.7	12.7	93.6	99.7
		중식	158	97.7	89.8	98.1	92.3	99.5	13.1	90.2	100.0
		일식	117	46.5	71.7	96.6	80.2	96.8	13.6	83.4	97.8
		서양식	118	96.3	72.1	77.7	64.6	97.9	32.8	69.5	100.0
		기타 외국식	72	100.0	81.3	91.8	62.1	100.0	24.2	83.1	97.2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43.1	45.2	44.4	31.8	54.7	38.6	36.2	95.5
		기관 구내식당업	78	98.5	98.9	95.6	87.6	92.7	41.0	89.5	98.5
		출장·이동음식점업	78	86.5	82.4	86.6	70.4	88.9	40.1	80.9	10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7.7	68.9	81.0	0.5	47.5	35.4	100.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70.6	53.0	50.4	26.8	80.1	28.3	98.5
			치킨 전문점	172	99.9	31.1	54.2	10.6	75.8	5.8	99.3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55.0	83.8	83.6	55.8	89.1	9.6	99.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54.9	62.9	79.5	43.1	61.6	18.8	93.7
		주점업	318	56.5	49.8	43.3	66.8	71.7	61.8	56.0	84.8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5.1	18.3	10.8	2.4	12.9	44.4	3.2	100.0
경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63.1	48.1	60.9	30.5	69.6	20.2	51.3	99.1
	비프랜차이즈		2,114	60.6	57.3	74.2	54.1	80.4	28.0	69.2	97.0
지역	서울권		491	61.2	61.4	67.7	53.2	77.0	42.3	62.6	99.9
	수도권		595	58.4	49.0	60.0	44.0	71.7	34.8	52.7	96.3
	충청권		581	68.9	59.7	75.1	56.5	82.2	24.5	73.8	96.8
	호남권		467	60.3	42.1	72.2	43.4	76.0	18.2	59.0	98.0
	경남권		611	61.1	69.6	77.2	47.8	85.4	17.8	73.4	99.9
	경북권		393	55.9	41.9	71.2	39.6	69.3	18.0	63.9	93.5
매출 액	5천만 원 미만		92	44.8	54.5	58.7	51.9	67.2	27.9	54.3	10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46.6	46.3	55.7	43.6	63.2	32.9	50.1	95.9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64.8	56.4	74.1	48.3	80.6	24.8	67.5	97.8
	5억 원 이상		446	67.6	58.0	75.9	49.6	83.2	20.9	71.2	98.3

〈표 4-9〉 취급 식재료 중 주재료

(Base: 해당문항 응답업체,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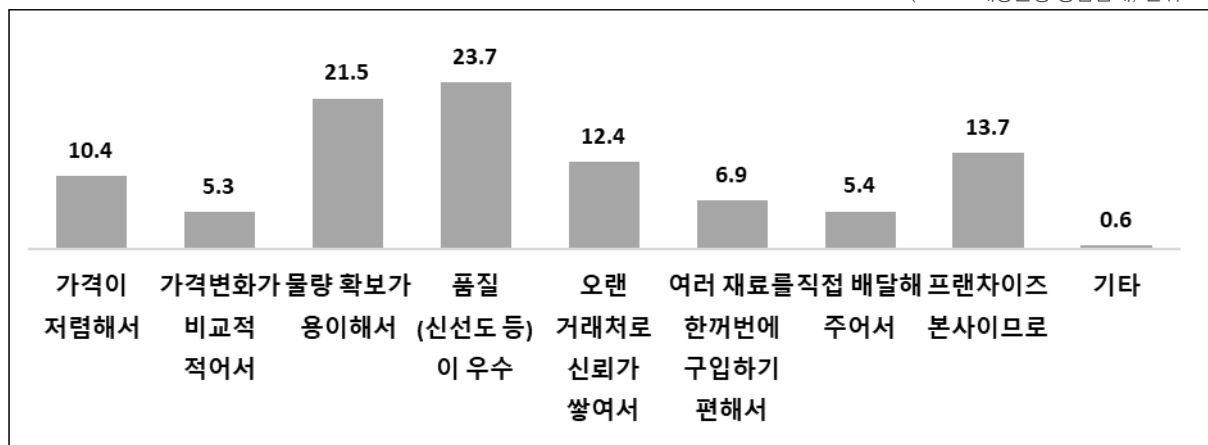
			사례수	육류	계란	곡류	수산물류	채소류	과일류	장류	가공식품류
전체			3,138	37.8	0.1	11.3	13.8	2.9	4.1	0.1	30.0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53.4	0.0	13.2	23.9	3.0	0.0	0.2	6.3
		한식	1,091	55.1	0.0	11.6	24.7	3.1	0.0	0.2	5.2
		중식	158	54.5	0.0	25.5	3.7	4.6	0.0	0.0	11.7
		일식	117	28.3	0.0	5.1	61.1	0.0	0.0	0.0	5.4
		서양식	118	51.8	0.0	23.1	9.1	1.1	0.7	0.0	14.3
		기타 외국식	72	48.3	0.0	29.8	1.6	2.6	0.0	0.0	17.7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21.5	0.2	9.5	3.3	2.8	8.3	0.0	54.6
		기관 구내식당업	78	59.1	0.0	17.9	4.5	15.3	0.0	0.0	3.2
		출장·이동음식점업	78	33.6	0.0	15.4	0.0	3.1	0.0	0.0	47.9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0.5	1.6	41.5	0.0	0.0	0.0	56.4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24.9	0.0	7.0	0.0	5.2	0.0	62.8
			치킨 전문점	172	98.0	0.0	0.6	0.0	0.0	0.0	1.4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14.5	0.7	36.5	0.7	6.1	0.3	41.2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28.3	0.0	24.0	0.0	7.6	6.2	33.9
		주점업	318	20.2	0.0	0.8	11.5	3.6	26.7	0.0	37.2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0.4	0.0	1.2	0.0	0.4	2.9	0.0	95.2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1,024	41.3	0.0	10.3	4.3	3.3	1.2	0.0	39.5
		비프랜차이즈	2,114	36.5	0.1	11.7	17.2	2.7	5.1	0.1	26.5
	지역	서울권	491	29.0	0.0	11.5	11.5	3.1	3.4	0.2	41.3
		수도권	595	33.7	0.3	7.2	10.7	4.4	8.5	0.0	35.2
		충청권	581	40.6	0.2	11.8	16.9	2.7	5.1	0.4	22.3
		호남권	467	38.0	0.0	14.8	16.8	2.7	0.4	0.0	27.3
		경남권	611	46.5	0.0	9.8	14.5	2.8	1.2	0.0	25.2
		경북권	393	36.4	0.0	14.4	11.4	1.0	6.3	0.0	30.5
	매출 액	5천만 원 미만	92	27.6	0.0	10.9	11.7	3.6	7.0	1.8	37.4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21.6	0.0	14.7	7.6	4.6	6.9	0.0	44.5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41.1	0.1	10.6	14.8	2.5	3.5	0.0	27.4
		5억 원 이상	446	45.8	0.0	11.0	18.2	2.6	2.1	0.0	20.3

4) 식재료 구매처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1+2순위 중복응답 기준)

- 외식업체가 주재료 식재료 구매처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 품질(신선도 등)이 우수해서(23.7%)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물량 확보가 용이해서(21.5%), 프랜차이즈 본사이므로(13.7%)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의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서양식, 기타 외국식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품질(신선도 등)이 우수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일반음식점 외 업체의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피자·햄버거·샌드위치(53.7%), 치킨 전문점(42.7%)은 프랜차이즈 본사이므로의 비중이 높고, 제과점(26.4%),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25.0%)은 품질(신선도 등)이 우수해서, 출장·이동음식점업(47.3%), 기관 구내식당업(46.7%), 주점업(27.2%)은 가격이 저렴해서, 비알코올 음료점업(25.5%)은 물량 확보가 용이해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운영 형태별로 프랜차이즈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이므로(46.3%)의 비중이 높고, 비프랜차이즈는 품질(신선도 등)이 우수해서(27.7%)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권(25.3%), 호남권(30.0%)은 물량 확보가 용이해서의 비중이 높고, 수도권(20.8%), 충청권(22.9%), 경남권(24.8%), 경북권(30.4%)은 품질(신선도 등)이 우수해서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32.4%), 5천만 원~1억 원 미만(27.1%)은 물량 확보가 용이해서의 비중이 높고, 1억 원 ~5억 원 미만(24.4%), 5억 원 이상(25.9%)에서는 품질(신선도 등)이 우수해서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그림 4-16〉 ‘주재료’ 구매처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_1+2순위(중복응답)

(Base: 해당문항 응답업체, 단위: %)



주: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표 4-10〉 ‘주재료’ 구매처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_1+2순위(중복응답)

(Base: 해당문항 응답업체, 단위: 개소, %)

			사례수	가격이 저렴해서	가격 변화가 비교적 적어서	물량 확보가 용이해서	품질 (신선도 등)이 우수	오랜 거래처로 신뢰가 쌓여서	여러 재료를 한꺼번에 구입하기 편해서	직접 배달해 주어서	프랜 차이즈 본사 이므로	기타	
전체			3,138	10.4	5.3	21.5	23.7	12.4	6.9	5.4	13.7	0.6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7.3	4.7	24.0	30.5	14.0	6.4	4.7	8.0	0.4	
		한식	1,091	7.7	5.0	27.0	30.9	12.5	5.7	3.8	7.1	0.3	
		중식	158	6.1	4.1	10.2	37.3	16.2	9.8	9.0	6.1	1.3	
		일식	117	7.2	3.4	15.6	32.4	20.0	4.9	4.0	12.2	0.5	
		서양식	118	4.1	2.3	7.8	11.7	29.7	16.3	9.3	17.5	1.4	
		기타 외국식	72	1.7	4.5	10.9	15.9	19.0	6.1	16.3	24.3	1.3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13.8	5.9	18.9	16.5	10.8	7.4	6.2	19.8	0.8	
		기관 구내식당업	78	46.7	1.8	12.4	5.5	12.8	11.3	4.3	5.1	0.0	
		출장·이동음식점업	78	47.3	1.5	4.4	5.8	18.1	1.0	14.9	7.0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6.7	4.7	18.1	26.4	8.3	10.7	2.3	21.9	0.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5.6	2.5	7.2	9.1	6.0	4.6	11.2	53.7	0.3
			치킨 전문점	172	3.7	5.6	10.2	10.9	5.3	15.2	5.5	42.7	0.9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9.9	5.1	9.3	25.0	11.9	12.3	6.1	19.4	1.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6.1	6.7	7.9	10.9	31.2	4.0	10.2	22.1	1.0
		주점업	318	27.2	5.8	23.4	17.3	9.2	5.6	6.1	5.3	0.2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8.1	7.7	25.5	15.3	13.0	4.5	6.2	18.3	1.3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5.3	3.6	10.4	12.4	8.6	4.9	6.5	46.3	2.1		
	비프랜차이즈	2,114	12.2	5.9	25.4	27.7	13.8	7.6	5.1	2.2	0.1		
지역	서울권	491	14.8	5.9	25.3	18.5	10.2	5.5	6.3	13.5	0.0		
	수도권	595	15.4	12.9	16.3	20.8	10.4	3.3	7.4	13.4	0.0		
	충청권	581	10.5	3.0	20.6	22.9	13.9	7.9	5.0	15.6	0.5		
	호남권	467	6.8	3.3	30.0	26.3	8.2	5.2	6.8	10.3	3.0		
	경남권	611	7.0	3.4	16.3	24.8	11.9	12.9	3.9	19.8	0.1		
	경북권	393	7.8	1.9	22.5	30.4	22.9	5.4	2.3	6.7	0.0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13.9	2.8	32.4	22.4	8.9	9.5	6.7	2.6	0.7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13.3	6.0	27.1	19.8	11.9	8.0	6.5	6.7	0.6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10.1	5.4	20.1	24.4	12.4	6.8	5.2	15.0	0.6		
	5억 원 이상	446	6.1	4.5	17.7	25.9	15.3	4.3	4.5	21.5	0.3		

주: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5) 사업장 면적별 식재료¹⁷⁾ 구매 및 구매처¹⁸⁾

- 사업장 면적별 식재료 구매 실태를 살펴보면, 30㎡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월평균 구매량 및 구매금액은 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높음.
 - 구매경로는 30㎡ 미만, 30~50㎡ 미만, 300㎡ 이상 업체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 구매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50~100㎡ 미만, 100~300㎡ 미만은 개인 도매상을 통해 구매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구매빈도는 면적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3~4회 구매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구매 형태는 면적에 관계없이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0㎡ 미만 업체의 월평균 구매량은 611.4kg이고, 월평균 구매금액은 338.3만 원임.
 - 구매경로는 프랜차이즈 본사(30.5%), 개인 도매상(20.3%), 식자재 마트(19.8%) 등의 순서임.
 - 구매빈도는 일주일에 3~4회(49.6%), 일주일에 1~2회(29.9%), 매일(14.3%) 순서로 나타남.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61.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전처리 상태(32.8%), 가공상태(5.6%) 순서인 것으로 파악됨.
- 30~50㎡ 미만 업체의 월평균 구매량은 571.8kg이고, 월평균 구매금액은 329.2만 원 수준임.
 - 구매경로는 식자재 마트(22.3%), 프랜차이즈 본사(21.9%), 개인 도매상(21.0%) 등의 순서임.
 - 구매빈도는 일주일에 3~4회(51.7%), 일주일에 1~2회(28.9%), 매일(10.9%) 순서로 나타남.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64.9%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전처리 상태(28.9%), 가공상태(6.1%) 순으로 나타남.
- 50~100㎡ 미만 업체의 월평균 구매량은 601.0kg이고, 월평균 구매금액은 361.5만 원임.
 - 구매경로는 개인 도매상(24.8%), 식자재 마트(22.0%), 프랜차이즈 본사(17.1%), 농수산물 도매시장(9.5%) 등의 순서임.
 - 구매빈도는 일주일에 3~4회(51.9%), 일주일에 1~2회(25.4%), 매일(14.9%) 순서로 나타남.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66.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전처리 상태(29.3%), 가공상태(3.9%) 순인 것으로 조사됨.
- 100~300㎡ 미만 업체의 월평균 구매량은 784.9kg이고, 월평균 구매금액은 527.4만 원임.
 - 구매경로는 개인 도매상(26.1%), 식자재 마트(20.7%), 프랜차이즈 본사(14.8%) 등의 순임.
 - 구매빈도는 일주일에 3~4회(47.1%), 일주일에 1~2회(25.9%), 매일(16.3%) 등의 순서로 나타남.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68.2%), 다음이 전처리 상태(27.7%), 가공상태(4.1%) 순임.
- 300㎡ 이상 업체의 월평균 구매량은 1954.7kg이고, 월평균 구매금액은 1219.9만 원 수준임.
 - 구매경로는 프랜차이즈 본사(25.9%), 개인 도매상(17.4%), 식자재 마트(17.0%) 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됨.

17) 구매량, 구매금액은 23개 식재료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였으며, 그 외 항목은 23개 품목을 중복응답으로 처리하여 분석함.

18) 규모별 식재료 구매 형태 그래프에서 구매형태는 전체 품목에 대한 구매 형태로, 품목별로 세분화된 표에서의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구매빈도는 일주일에 3~4회(32.4%), 일주일에 1~2회(26.1%), 매일(26.2%) 등의 순서로 나타남.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61.7%), 전처리 상태(32.6%), 가공상태(5.7%) 순인 것으로 파악됨.

〈표 4-11〉 면적별 식재료 구매 행태

구분	전체	30㎡ 미만	30㎡ ~ 50㎡ 미만	50㎡ ~ 100㎡ 미만	100㎡ ~ 300㎡ 미만	300㎡ 이상
월평균 구매량(kg)	660.3	611.4	571.8	601.0	784.9	1954.7
월평균 구매금액(만 원)	403.5	338.3	329.2	361.5	527.4	1219.9
구매경로(비율응답, %)						
1. 식재료 유통대기업	2.7	1.1	1.7	2.6	3.6	12.3
2. 식재료 유통법인	8.2	5.3	9.8	8.2	8.2	5.1
3. 개인 도매상	23.7	20.3	21.0	24.8	26.1	17.4
4. 식자재 마트	21.5	19.8	22.3	22.0	20.7	17.0
5. 일반대형마트	4.8	3.3	4.0	5.3	5.7	1.7
6. 농수산물도매시장	9.6	8.6	8.9	9.5	11.3	6.4
7. 소매상	2.6	5.0	2.7	2.3	1.9	0.2
8. 산지직거래	3.0	0.6	1.7	3.4	4.2	6.3
9. 직접생산	0.3	0.4	0.3	0.4	0.2	1.9
10. 프랜차이즈 본사	19.3	30.5	21.9	17.1	14.8	25.9
11. 온라인마트	2.7	1.9	3.0	3.0	2.1	1.9
12. 수입상	1.2	1.8	2.0	0.9	0.8	1.2
13. 기타	0.5	1.2	0.5	0.4	0.3	2.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매빈도(단수응답, %)						
1. 매일	14.5	14.3	10.9	14.9	16.3	26.2
2. 일주일에 3~4회	50.2	49.6	51.7	51.9	47.1	32.4
3. 일주일에 1~2회	26.8	29.9	28.9	25.4	25.9	26.1
4. 월 2~3회	4.8	3.5	4.5	3.7	7.7	11.3
5. 월 1회	3.4	2.3	3.8	4.0	2.3	4.1
6. 기타	0.3	0.3	0.3	0.0	0.7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매형태 - 축산물, 곡류, 수산물류(복수응답, %)						
1. 원물상태	66.1	61.6	64.9	66.8	68.2	61.7
2. 전처리상태	29.3	32.8	28.9	29.3	27.7	32.6
3. 가공상태	4.6	5.6	6.1	3.9	4.1	5.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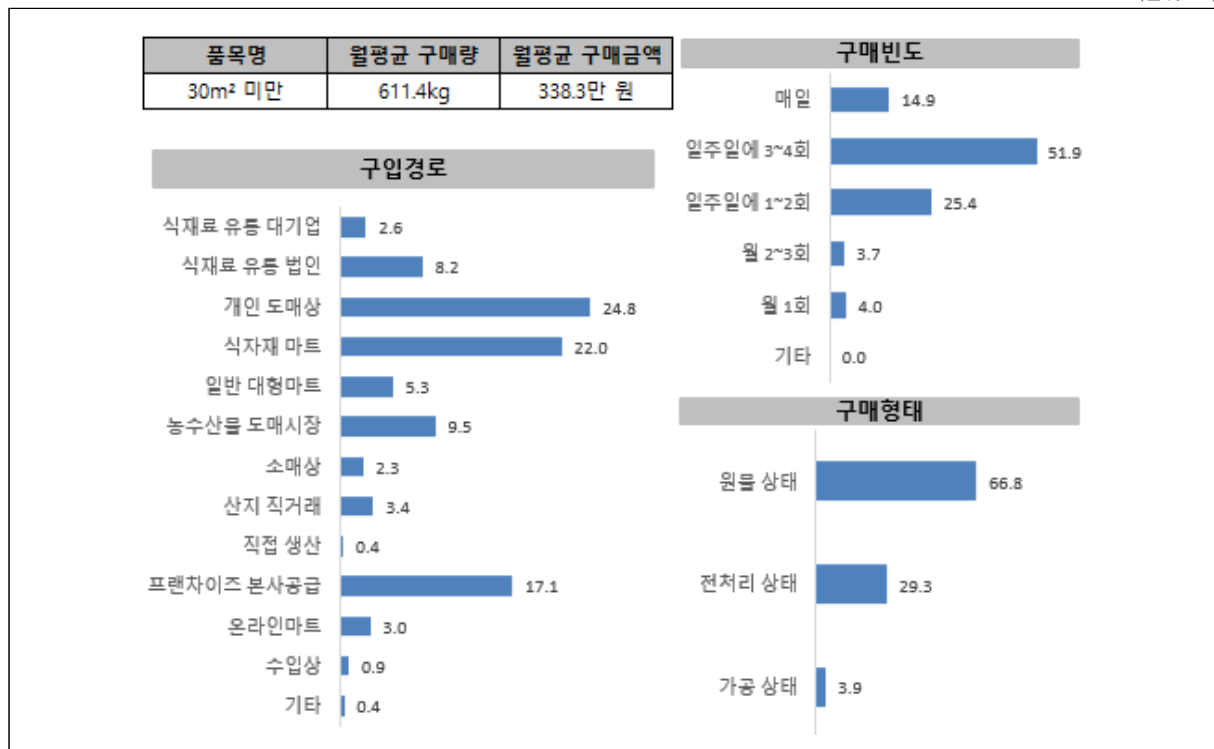
주 1) 품목별 구매량을 고려하지 않고 응답 업체 수 기준으로 단순 평균한 값임.

2) 0값을 결측치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세부 품목의 평균 합이 전체 평균과 다를 수 있음.

3) 구매형태에서 일반계란은 원물, 액란은 전처리로 분류하였으며, 쌀의 경우 조리된 밥은 전처리, 기타는 가공으로 집계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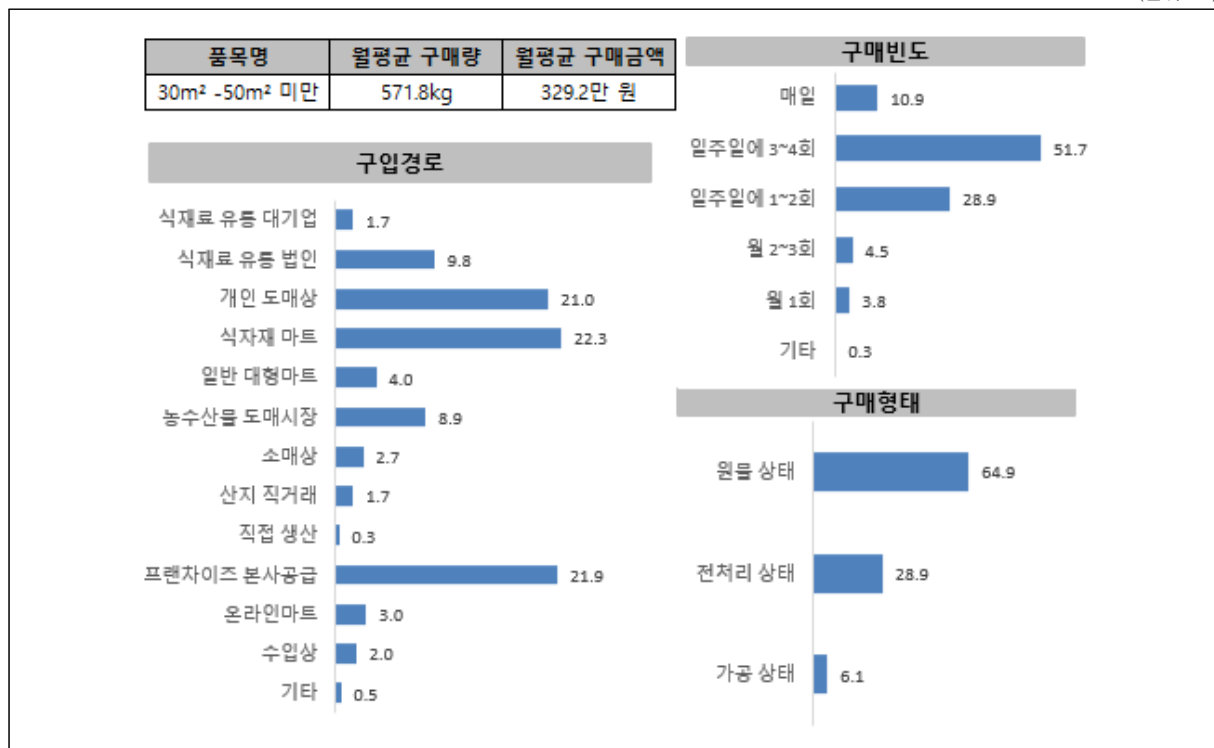
〈그림 4-17〉 면적별 식재료 구매 행태 - 30㎡ 미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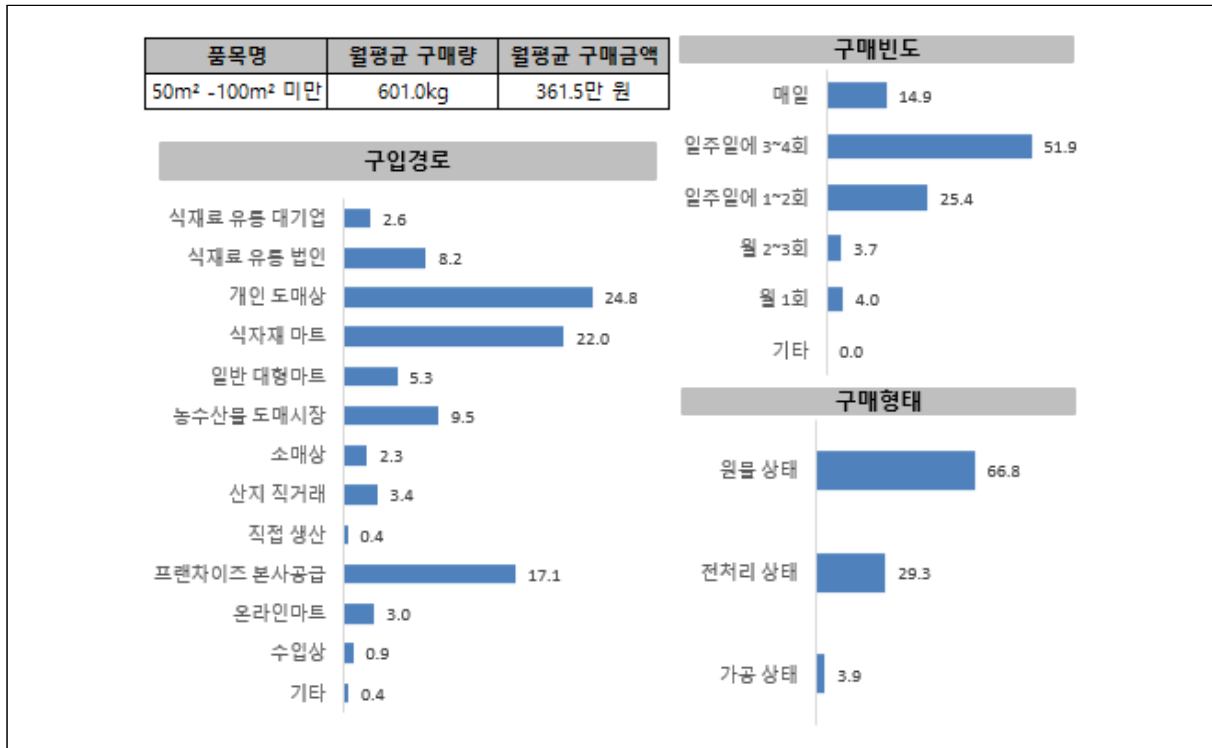
〈그림 4-18〉 면적별 식재료 구매 행태 - 30㎡~50㎡ 미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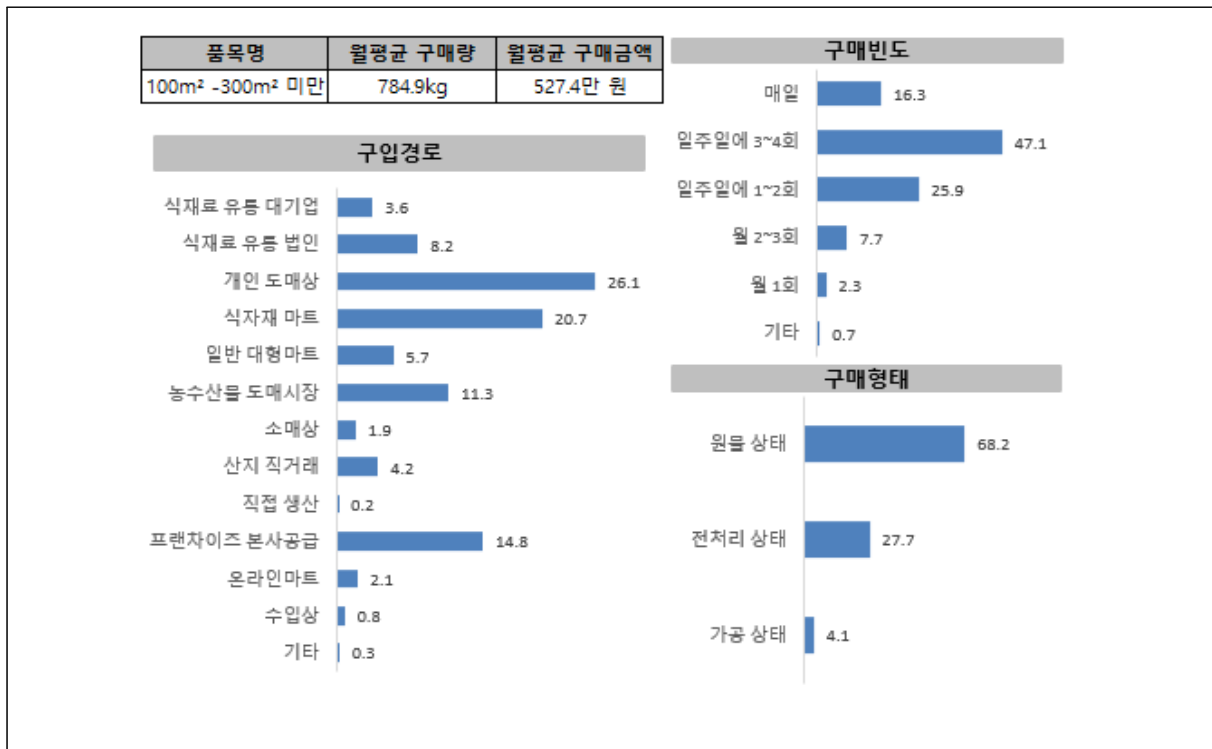
〈그림 4-19〉 면적별 식재료 구매 행태 - 50㎡~100㎡ 미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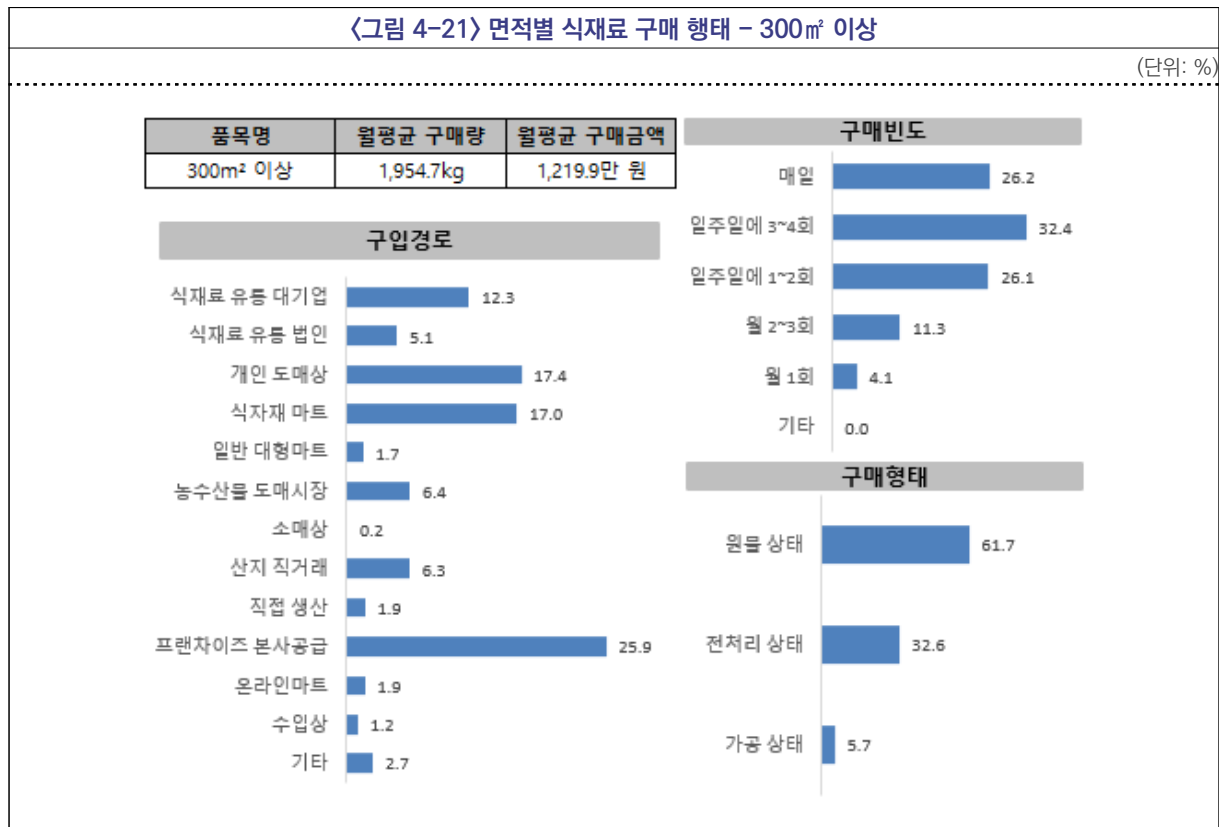
〈그림 4-20〉 면적별 식재료 구매 행태 - 100㎡~300㎡ 미만

(단위: %)



〈그림 4-21〉 면적별 식재료 구매 행태 - 300㎡ 이상

(단위: %)



6) 상권별 식재료 구매 행태¹⁹⁾

- 외식업체의 상권별 식재료 월평균 구매량은 오피스가(1,054.1kg), 역세권(856.9kg), 일반 상업지(690.3kg) 등의 순서로 많음.
 - 상권별로 식재료 월평균 구매금액은 역세권(747.1만 원), 오피스가(597.3만 원), 일반 상업지(418.5만 원) 등의 순서임.
 - 구매경로는 주거지, 일반 상업지는 개인 도매상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기타에서는 기타가, 오피스가, 교외/휴양지 등에서는 식자재 마트가, 유흥 상업지, 대학 및 학원가, 역세권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구매빈도는 주거지, 일반 상업지, 유흥 상업지, 대학 및 학원가, 역세권, 오피스가에서는 일주일에 3~4회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외/휴양지 등은 일주일에 1~2회, 기타에서는 매일의 빈도가 가장 높음.
 - 구매 형태는 모든 상권에서 원물 상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주거지에 위치한 외식업체의 식재료 월평균 구매량은 597.3kg이고, 식재료 월평균 구매금액은 341.9만 원임.
 - 구매경로는 개인 도매상(29.4%), 식자재 마트(18.9%), 프랜차이즈 본사(14.0%) 등의 순서임.
 - 구매빈도는 일주일에 3~4회(43.2%), 일주일에 1~2회(33.7%), 매일(14.6%) 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됨.

19) 상권별 식재료 구매 행태 그래프에서 구매형태는 전체 품목에 대한 구매 형태로, 품목별로 세분화된 표에서의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70.2%)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전처리 상태(25.0%), 가공상태(4.8%) 순임.
- 일반 상업지에 위치한 외식업체의 식재료 월평균 구매량은 690.3kg이고, 식재료 월평균 구매금액은 418.5만 원임.
 - 구매경로는 개인 도매상(23.2%), 식자재 마트(21.7%), 프랜차이즈 본사공급(19.8%) 등의 순으로 높음.
 - 구매빈도는 일주일에 3~4회(53.1%), 일주일에 1~2회(24.6%), 매일(14.4%) 등의 순서임.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65.3%)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전처리 상태(30.3%), 가공상태(4.4%)임.
- 유흥 상업지에 위치한 외식업체의 식재료 월평균 구매량은 336.2kg이고, 식재료 월평균 구매금액은 279.5만 원 수준임.
 - 구매경로는 개인 도매상(24.1%), 프랜차이즈 본사공급(22.8%), 식자재 마트(21.0%)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구매빈도는 일주일에 3~4회(35.6%), 일주일에 1~2회(35.4%), 매일(18.0%) 등의 순임.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70.7%)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어서 전처리 상태(23.4%), 가공상태(5.9%) 등임.
- 대학 및 학원가에 위치한 외식업체의 식재료 월평균 구매량은 520.9kg이고, 식재료 월평균 구매금액은 301.1만 원임.
 - 구매경로의 비중은 프랜차이즈 본사(29.0%), 개인 도매상(19.3%), 식자재 마트(16.5%) 등의 순으로 높음.
 - 구매빈도는 일주일에 3~4회(50.9%), 일주일에 1~2회(28.2%), 매일(13.8%) 등의 순서임.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61.9%)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이 전처리 상태(33.9%), 가공상태(4.5%)인 것으로 파악됨.
- 역세권에 위치한 외식업체의 식재료 월평균 구매량은 856.9kg이고, 식재료 월평균 구매금액은 747.1만 원 수준임.
 - 구매경로는 프랜차이즈 본사(44.5%), 식자재 마트(14.2%), 농수산물도매시장(6.8%) 등의 순서임.
 - 구매빈도는 일주일에 3~4회(52.4%), 일주일에 1~2회(25.1%), 매일(12.0%) 등의 순으로 높음.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55.8%)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전처리 상태(31.9%), 가공상태(12.3%)임.
- 오피스가에 위치한 외식업체의 식재료 월평균 구매량은 1,054.1kg이고, 식재료 월평균 구매금액은 597.3만 원임.
 - 구매경로는 식자재 마트(38.7%), 식재료 유통대기업(14.9%), 개인 도매상(13.7%)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구매빈도는 일주일에 3~4회(36.0%), 일주일에 1~2회(26.8%), 월 2~3회(16.0%) 등의 순임.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62.6%)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이 전처리 상태(29.5%), 가공상태(7.9%) 등임.
- 교외/휴양지 등에 위치한 외식업체의 식재료 월평균 구매량은 574.3kg이고, 식재료 월평균 구매금액은 346.6만 원임.

- 구매경로는 식자재 마트(42.5%), 개인 도매상(13.4%), 산지직거래(9.4%) 등의 순서임.
- 구매빈도는 일주일에 1~2회(46.3%), 일주일에 3~4회(26.1%), 월 1회(11.3%) 등의 순서임.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78.4%)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전처리 상태(20.1%), 가공상태(1.5%)임.

○ 기타상권에 위치한 외식업체의 식재료 월평균 구매량은 350.3kg이고, 식재료 월평균 구매금액은 288.9만 원임.

- 구매경로는 기타(33.5%), 식재료 유통법인(13.9%), 프랜차이즈 본사(12.8%) 등의 순으로 높음.
- 구매빈도는 매일(36.6%), 일주일에 3~4회(23.4%), 일주일에 1~2회와 월 2~3회(각 20.0%) 등의 순임.
- 구매 형태는 전처리 상태(43.8%)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어서 원물 상태(42.0%), 가공상태(14.1%) 등임.

〈표 4-12〉 상권별 식재료 구매 행태

구분	전체	주거지	일반 상업지	유흥 상업지	대학 및 학원가	역세권	오피스가	교외/휴양지 등	기타
월평균 구매량(kg)	660.3	597.3	690.3	336.2	520.9	856.9	1,054.1	574.3	350.3
월평균 구매금액(만 원)	403.5	341.9	418.5	279.5	301.1	747.1	597.3	346.6	288.9
구매경로(비율응답, %)									
1. 식재료 유통대기업	2.7	1.9	2.6	4.0	0.8	5.1	14.9	1.4	10.9
2. 식재료 유통법인	8.2	8.1	8.4	6.2	9.1	4.5	5.5	7.1	13.9
3. 개인 도매상	23.7	29.4	23.2	24.1	19.3	6.5	13.7	13.4	11.7
4. 식자재 마트	21.5	18.9	21.7	21.0	16.5	14.2	38.7	42.5	0.7
5. 일반대형마트	4.8	3.1	4.8	10.7	2.6	2.1	6.7	8.0	6.4
6. 농수산물도매시장	9.6	10.3	10.0	5.5	8.0	6.8	4.3	4.4	3.8
7. 소매상	2.6	4.7	2.2	2.8	1.7	2.7	0.9	2.0	0.3
8. 산지직거래	3.0	3.1	3.0	0.7	2.1	3.6	0.0	9.4	0.0
9. 직접 생산	0.3	0.6	0.3	0.1	0.0	0.0	0.0	1.7	0.0
10. 프랜차이즈 본사	19.3	14.0	19.8	22.8	29.0	44.5	11.2	2.7	12.8
11. 온라인마트	2.7	2.9	2.6	2.1	9.1	3.2	2.4	0.3	6.1
12. 수입상	1.2	2.3	1.2	0.1	0.7	0.7	0.0	0.0	0.0
13. 기타	0.5	0.6	0.3	0.0	1.2	6.2	1.6	7.3	33.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매빈도(단수응답, %)									
1. 매일	14.5	14.6	14.4	18.0	13.8	12.0	11.9	10.8	36.6
2. 일주일에 3~4회	50.2	43.2	53.1	35.6	50.9	52.4	36.0	26.1	23.4
3. 일주일에 1~2회	26.8	33.7	24.6	35.4	28.2	25.1	26.8	46.3	20.0
4. 월 2~3회	4.8	4.3	4.6	4.7	5.2	10.6	16.0	5.5	20.0
5. 월 1회	3.4	3.9	3.2	6.2	1.9	0.0	0.0	11.3	0.0
6. 기타	0.3	0.4	0.2	0.0	0.0	0.0	9.2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매형태(복수응답, %)									
1. 원물상태	66.1	70.2	65.3	70.7	61.9	55.8	62.6	78.4	43.8
2. 전처리상태	29.3	25.0	30.3	23.4	33.6	31.9	29.5	20.1	42.0
3. 가공상태	4.6	4.8	4.4	5.9	4.5	12.3	7.9	1.5	14.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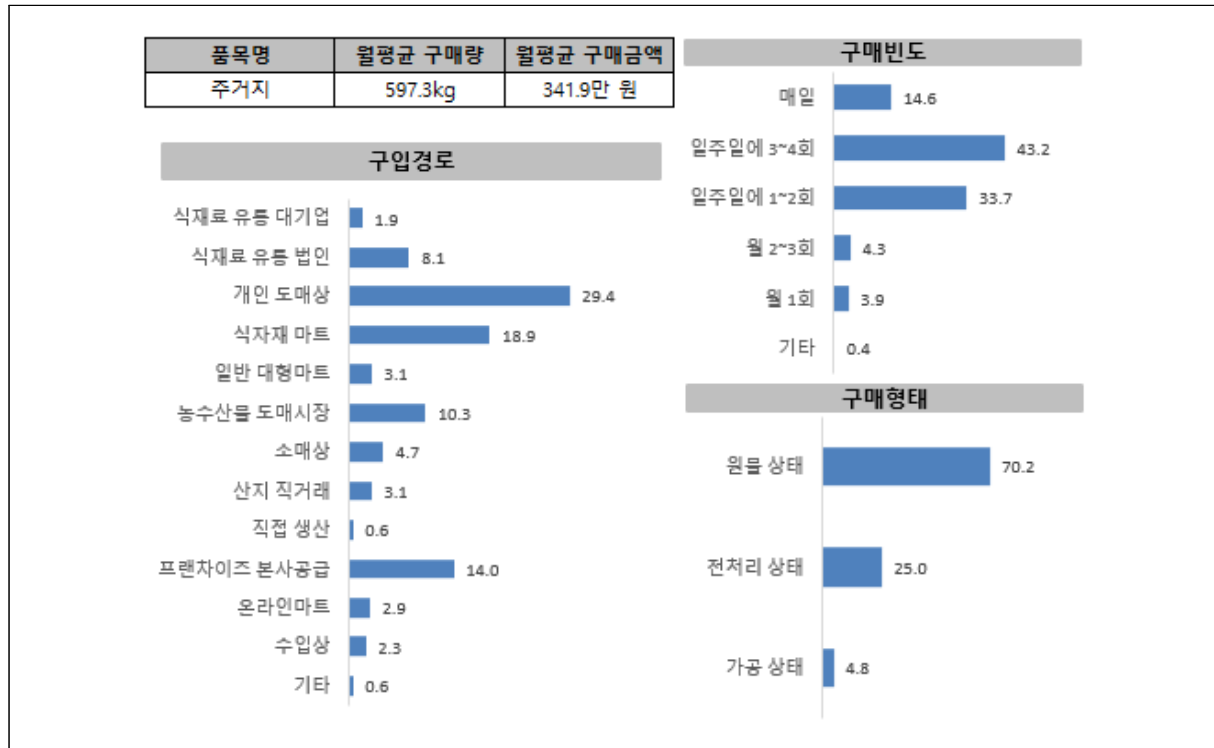
주 1) 품목별 구매량을 고려하지 않고 응답 업체 수 기준으로 단순 평균한 값임.

2) 0값을 결측치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세부 품목의 평균 합이 전체 평균과 다를 수 있음.

3) 구매형태에서 일반계란은 원물, 액란은 전처리로 분류하였으며, 쌀의 경우 조리된 밥은 전처리, 기타는 가공으로 집계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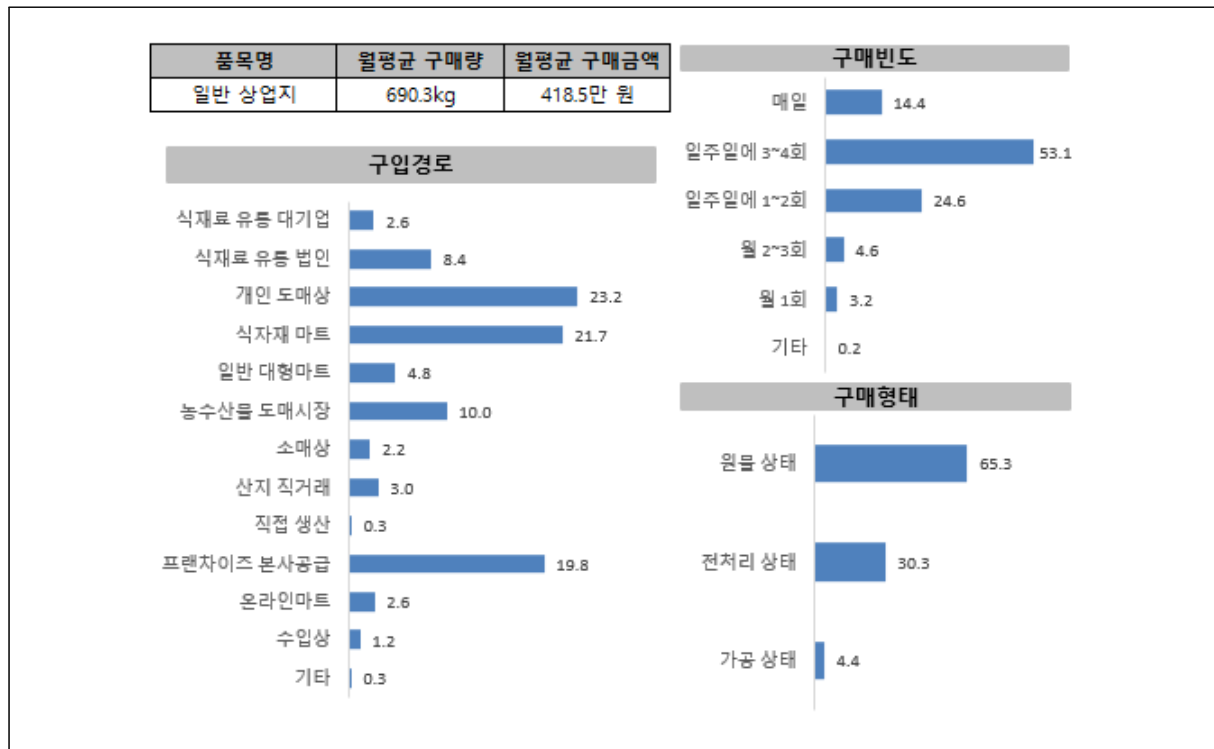
〈그림 4-22〉 상권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주거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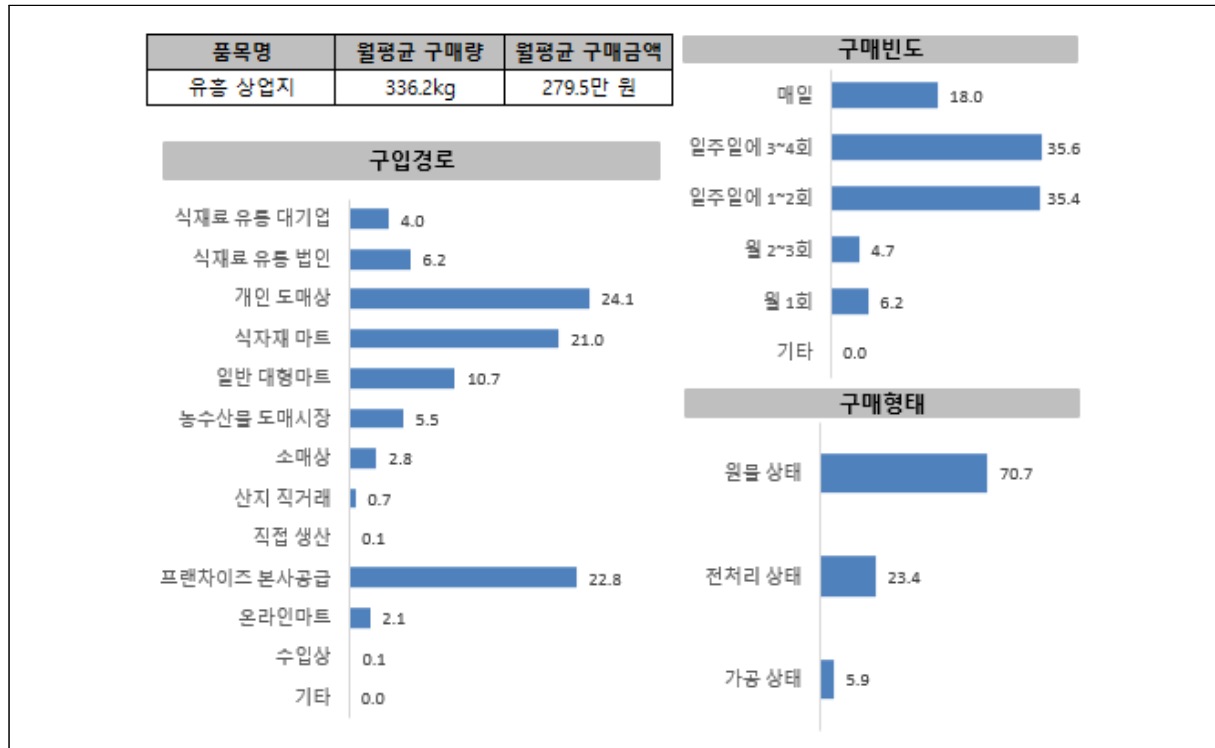
〈그림 4-23〉 상권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일반 상업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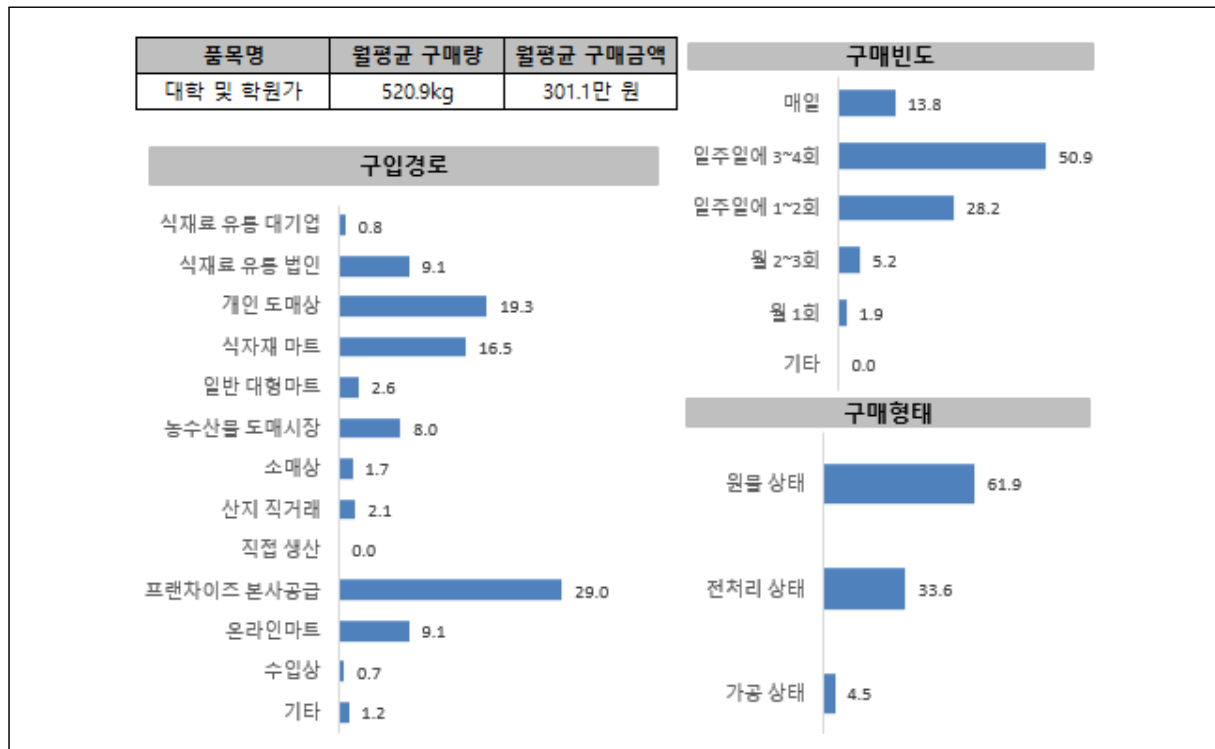
〈그림 4-24〉 상권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유흥 상업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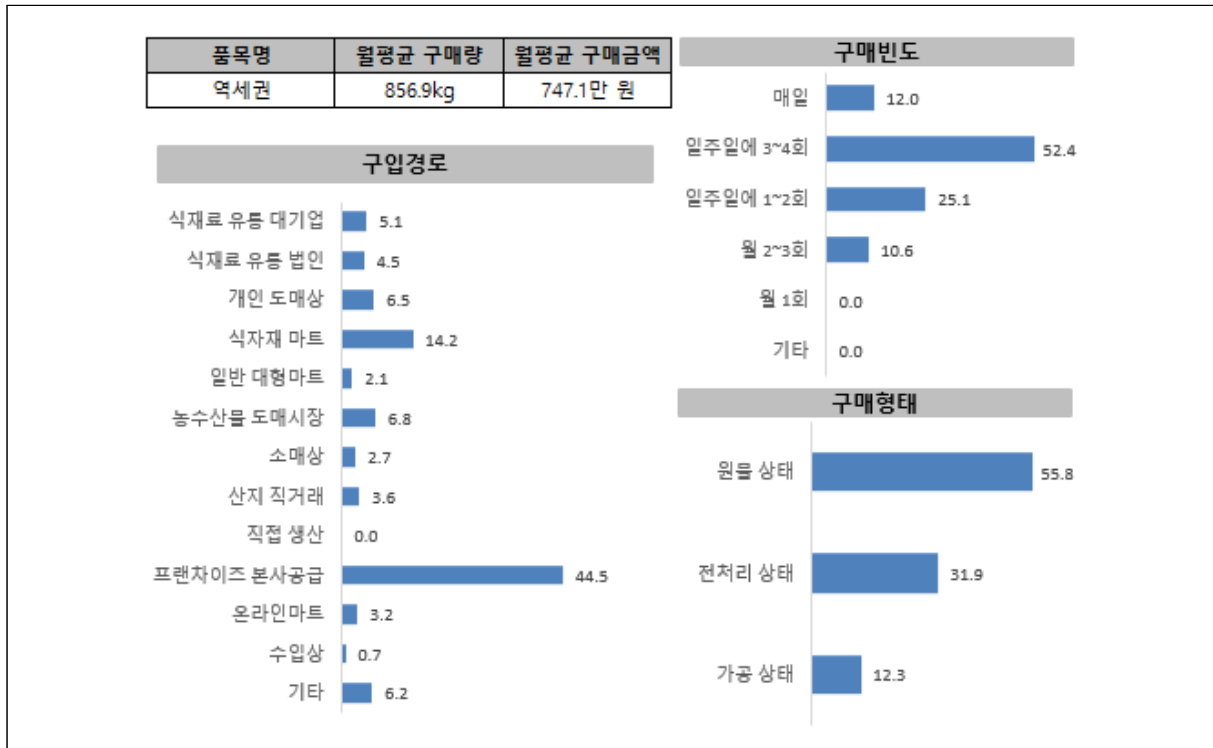
〈그림 4-25〉 상권별 식재료 구매 행태 - 대학 및 학원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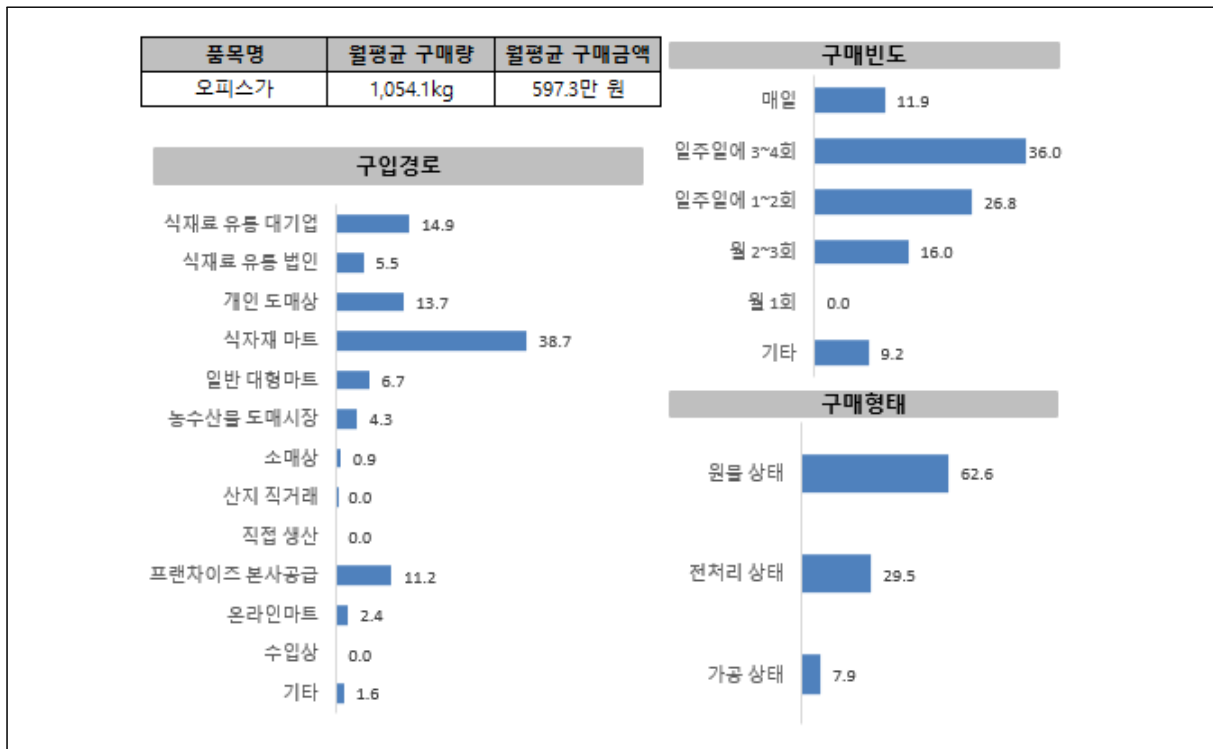
〈그림 4-26〉 상권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역세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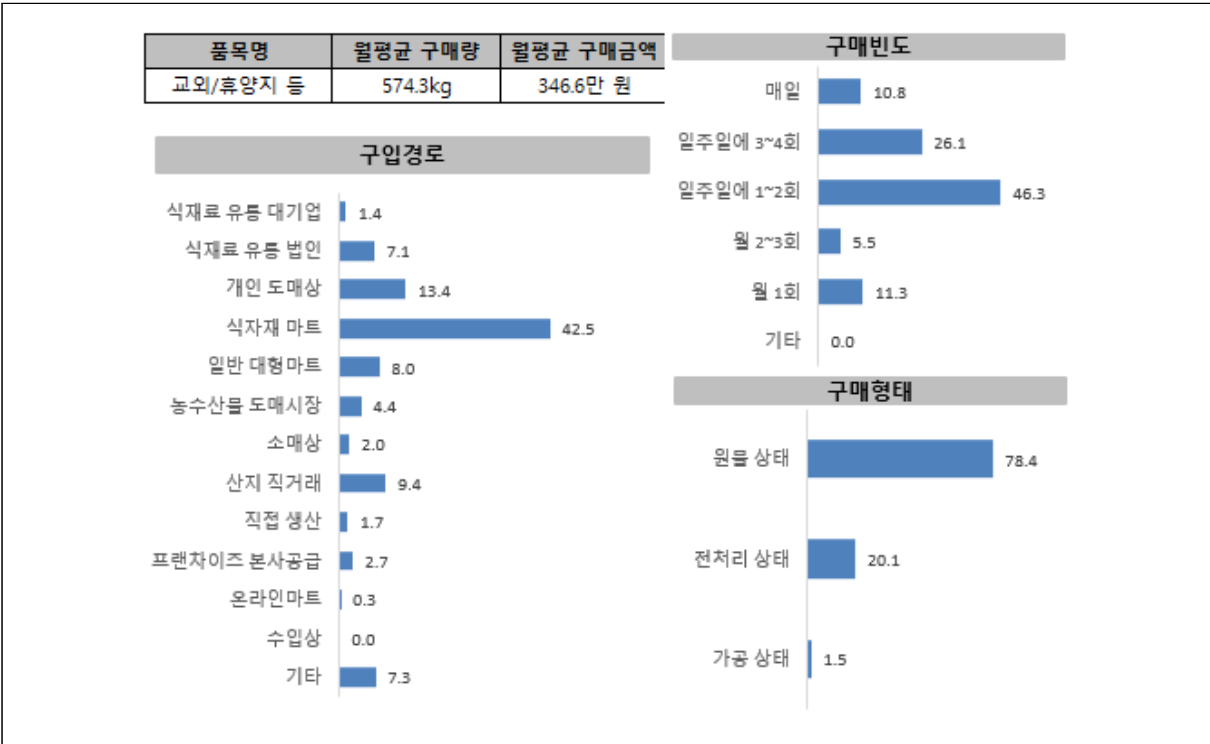
〈그림 4-27〉 상권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오피스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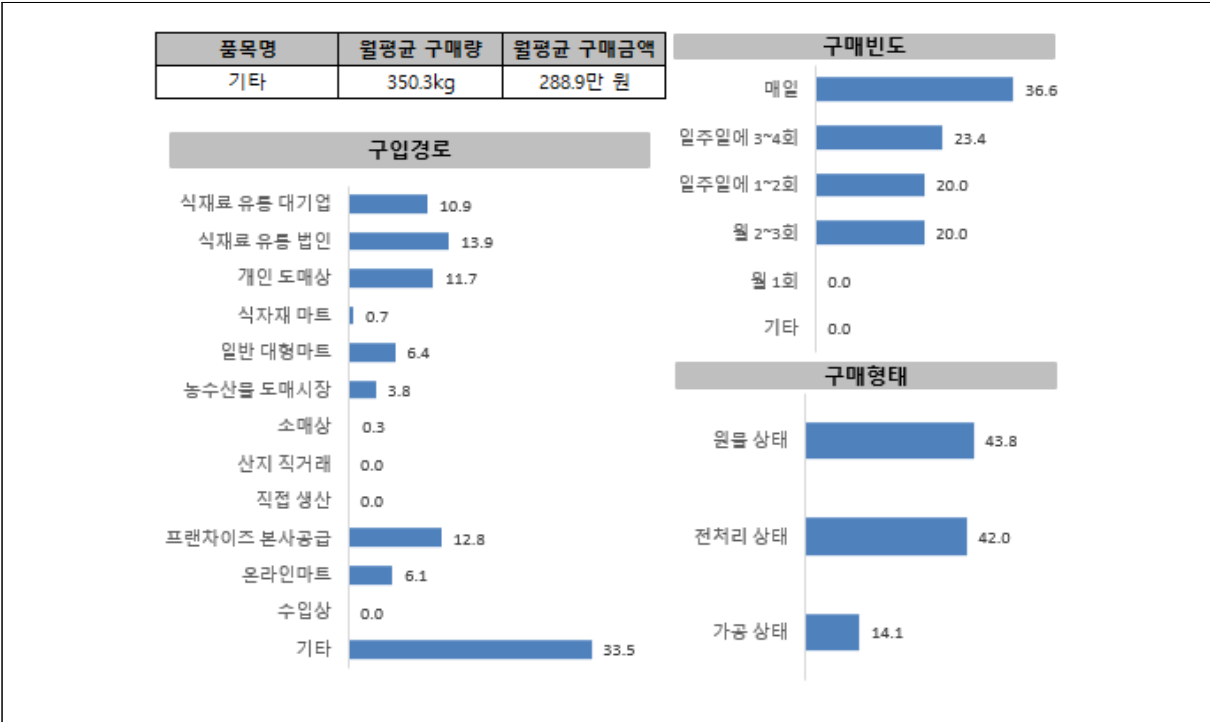
〈그림 4-28〉 상권별 식재료 구매 행태 - 교외/휴양지 등

(단위: %)



〈그림 4-29〉 상권별 식재료 구매 행태 - 기타

(단위: %)



주: 기타는 주거지, 일반상업지, 유흥 상업지, 대학 및 학원가, 역세권, 오피스, 교외/휴양지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상권을 말함.

7) 업종 중분류별 식재료 구매 행태²⁰⁾

- 외식업체의 업종 중분류별 식재료 월평균 구매량은 기관 구내식당업(1,314.4kg), 일반음식점업(865.5kg), 출장 및 이동음식점업(818.6kg) 등의 순서로 많음.
 - 외식업체의 업종 중분류별 식재료 월평균 구매금액은 기관 구내식당업(795.8만 원), 출장 및 이동음식점업(618.6만 원), 일반음식점업(524.9만 원) 등의 순서로 많음.
 - 식재료 구매경로는 일반음식점, 주점업,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개인 도매상 비중이 가장 높았고, 기관 구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음식점업은 식자재 마트, 기타 음식점업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한 구매 비중이 높음.
 - 구매빈도는 일반음식점업, 기타 음식점업,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일주일에 3~4회 비중이 가장 높고, 기관 구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음식점업, 주점업은 일주일에 1~2회가 가장 높음.
 - 구매 형태는 업종에 관계없이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함.
- 일반음식점업의 식재료 월평균 구매량은 865.5kg이고, 식재료 월평균 구매금액은 524.9만 원임.
 - 구매경로는 개인 도매상(26.3%), 식자재 마트(19.4%), 농수산물 도매시장(12.4%) 등의 순서임.
 - 구매빈도 비중은 일주일에 3~4회(53.4%), 일주일에 1~2회(21.3%), 매일(18.3%) 등의 순으로 높음.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67.7%)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전처리 상태(28.9%), 가공상태(3.5%) 등임.
- 기관 구내식당업의 식재료 월평균 구매량은 1,314.4kg이고, 식재료 월평균 구매금액은 795.8만 원 수준임.
 - 구매경로는 식자재 마트(26.3%), 식재료 유통 대기업(21.5%), 개인 도매상(19.4%) 등의 순서임.
 - 구매빈도는 일주일에 1~2회(29.8%), 월에 2~3회(24.7%), 일주일에 3~4회(22.7%) 등의 순임.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67.6%)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이 전처리 상태(26.8%), 가공상태(5.7%)임.
- 출장 및 이동음식점업의 식재료 월평균 구매량은 818.6kg이고, 식재료 월평균 구매금액은 618.6만 원임.
 - 구매경로는 식자재 마트(43.4%), 농수산물 도매시장(24.6%), 개인 도매상(1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구매빈도는 일주일에 1~2회(35.8%), 일주일에 3~4회(29.1%), 매일(17.7%) 등의 순서임.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64.1%)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어서 전처리 상태(31.8%), 가공상태(4.1%) 순임.
- 기타 음식점업의 식재료 월평균 구매량은 732.8kg이고, 식재료 월평균 구매금액은 356.4만 원임.
 - 구매경로는 프랜차이즈 본사(46.2%), 식자재 마트(17.7%), 개인 도매상(15.7%) 등의 순서로 높음.
 - 구매빈도 비중은 일주일에 3~4회(56.5%), 일주일에 1~2회(23.5%), 매일(15.0%) 등의 순임.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55.0%)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전처리 상태(36.5%), 가공상태(8.5%)임.
- 주점업의 식재료 월평균 구매량은 288.8kg이고, 식재료 월평균 구매금액은 181.8만 원임.
 - 구매경로 비중 순서는 개인 도매상(27.4%), 식자재 마트(22.5%), 식재료 유통법인(11.5%) 등임.

20) 업종 중분류별 식재료 구매 행태 그래프에서 구매형태는 전체 품목에 대한 구매 형태로, 품목별로 세분화된 표에서의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구매빈도는 일주일에 1~2회(38.1%), 일주일에 3~4회(37.5%), 매일(10.3%) 등의 순서임.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67.2%)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이 가공상태(26.0%), 전처리 상태(6.8%) 순임.

○ 비알코올 음료점업의 식재료 월평균 구매량은 156.4kg이고, 식재료 월평균 구매금액은 214.5만 원임.

- 구매경로는 개인 도매상(26.8%), 프랜차이즈 본사(24.2%), 식자재 마트(16.0%) 등의 순서임.
- 구매빈도는 일주일에 3~4회(45.6%), 일주일에 1~2회(38.6%), 월에 2~3회(5.9%)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음.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77.7%)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어서 가공상태(19.2%), 전처리 상태(3.1%) 등임.

〈표 4-13〉 업종(중분류)별 식재료 구매 행태

구분	전체	일반 음식점업	기관구내 식당업	출장 및 이동음식점업	기타 음식점업	주점업	비알코올 음료점업
월평균 구매량(kg)	660.3	865.5	1,314.4	818.6	732.8	288.8	156.4
월평균 구매금액(만 원)	403.5	524.9	795.8	618.6	356.4	181.8	214.5
구매경로(비율응답, %)							
1. 식재료 유통대기업	2.7	2.8	21.5	0.0	1.8	3.7	0.9
2. 식재료 유통법인	8.2	9.2	6.0	3.1	5.2	11.5	5.8
3. 개인 도매상	23.7	24.8	19.4	13.6	15.7	27.4	26.8
4. 식자재 마트	21.5	24.1	26.3	43.4	17.7	22.5	16.0
5. 일반대형마트	4.8	4.3	5.6	1.2	3.2	10.2	4.1
6. 농수산물도매시장	9.6	14.0	12.4	24.6	5.2	7.5	1.8
7. 소매상	2.6	2.6	1.2	1.8	2.3	3.3	2.3
8. 산지직거래	3.0	4.7	0.0	0.0	0.8	1.5	1.3
9. 직접 생산	0.3	0.5	0.0	0.0	0.4	0.0	0.0
10. 프랜차이즈 본사	19.3	11.3	5.1	7.4	46.2	7.0	24.2
11. 온라인마트	2.7	0.8	1.1	4.8	1.3	4.1	9.6
12. 수입상	1.2	0.3	0.0	0.0	0.0	0.1	6.8
13. 기타	0.5	0.6	1.5	0.0	0.2	1.0	0.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매빈도(단수응답, %)							
1. 매일	14.5	18.3	13.0	17.7	15.0	10.3	5.4
2. 일주일에 3~4회	50.2	53.4	22.7	29.1	56.5	37.5	45.6
3. 일주일에 1~2회	26.8	21.3	29.8	35.8	23.5	38.1	38.6
4. 월 2~3회	4.8	4.2	24.7	12.0	3.3	6.0	5.9
5. 월 1회	3.4	2.8	2.3	5.4	1.4	8.1	4.0
6. 기타	0.3	0.0	7.7	0.0	0.4	0.0	0.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매형태(복수응답, %)							
1. 원물상태	66.1	67.7	67.6	64.1	55.0	67.2	77.7
2. 전처리상태	29.3	28.9	26.8	31.8	36.5	26.0	19.2
3. 가공상태	4.6	3.5	5.7	4.1	8.5	6.8	3.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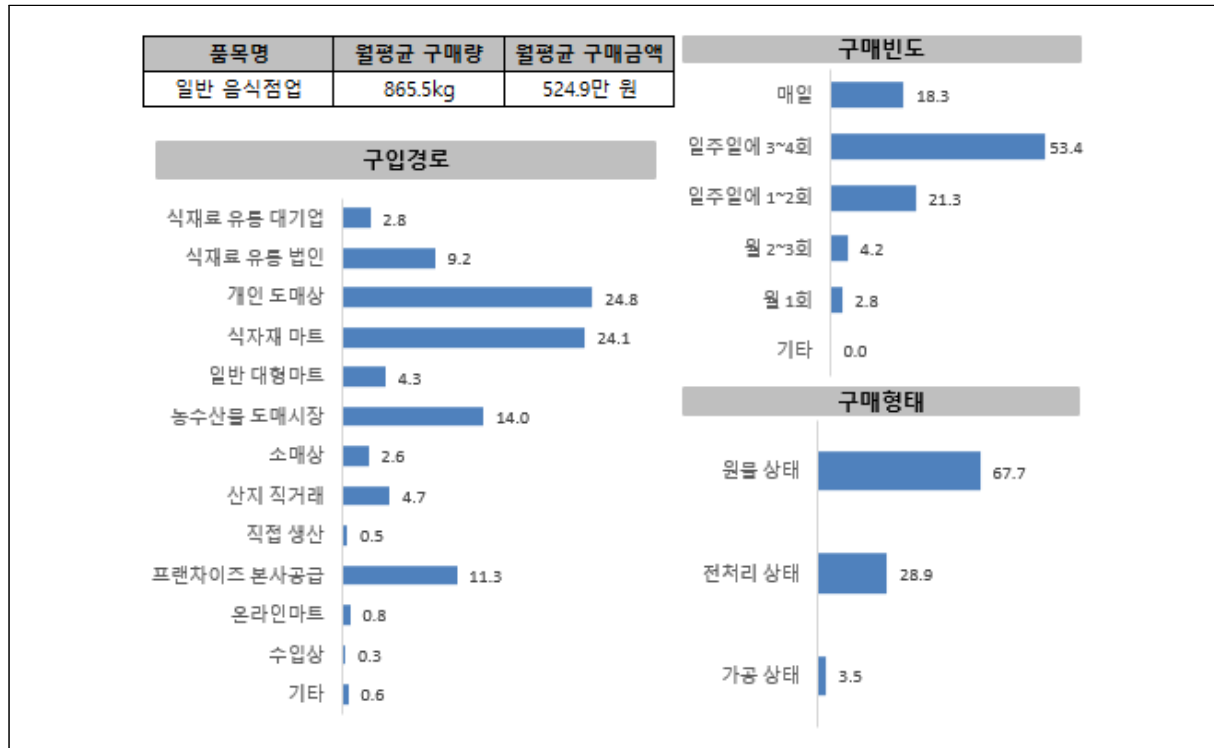
주 1) 품목별 구매량을 고려하지 않고 응답 업체 수 기준으로 단순 평균한 값임.

2) 0값을 결측치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세부 품목의 평균 합이 전체 평균과 다를 수 있음.

3) 구매형태에서 일반계란은 원물, 액란은 전처리로 분류하였으며, 쌀의 경우 조리된 밥은 전처리, 기타는 가공으로 집계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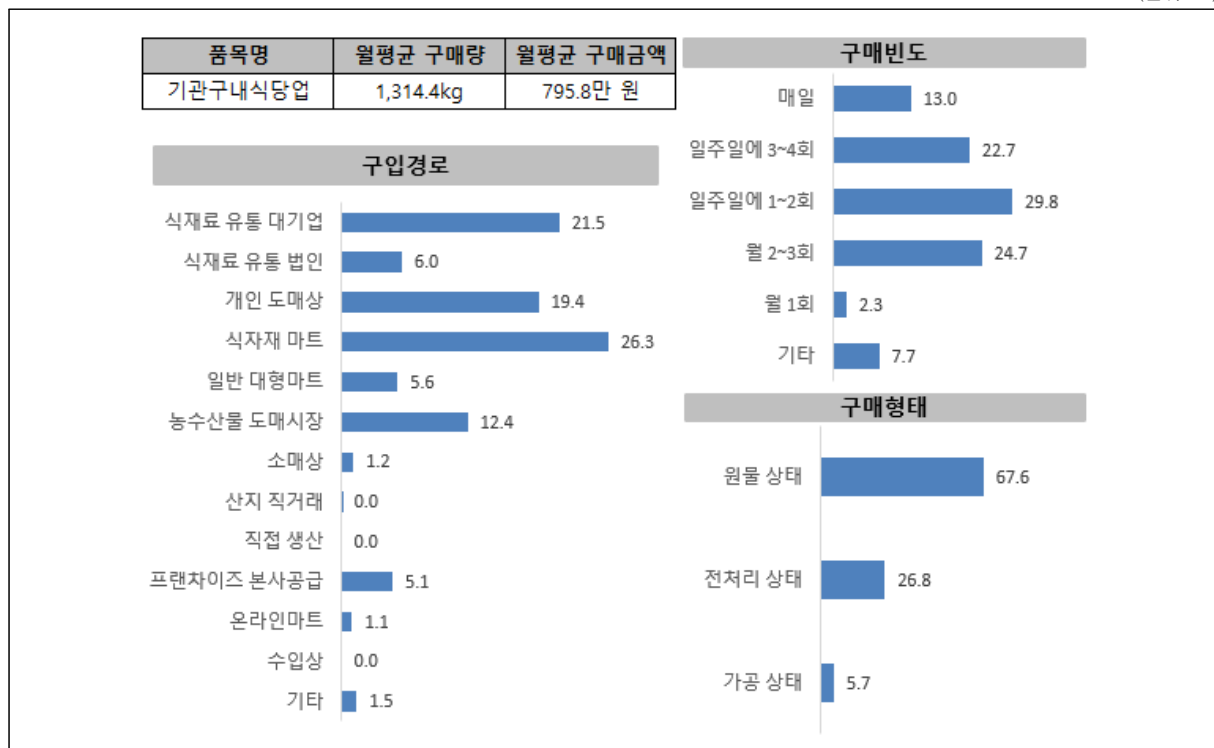
〈그림 4-30〉 업종 중분류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일반음식점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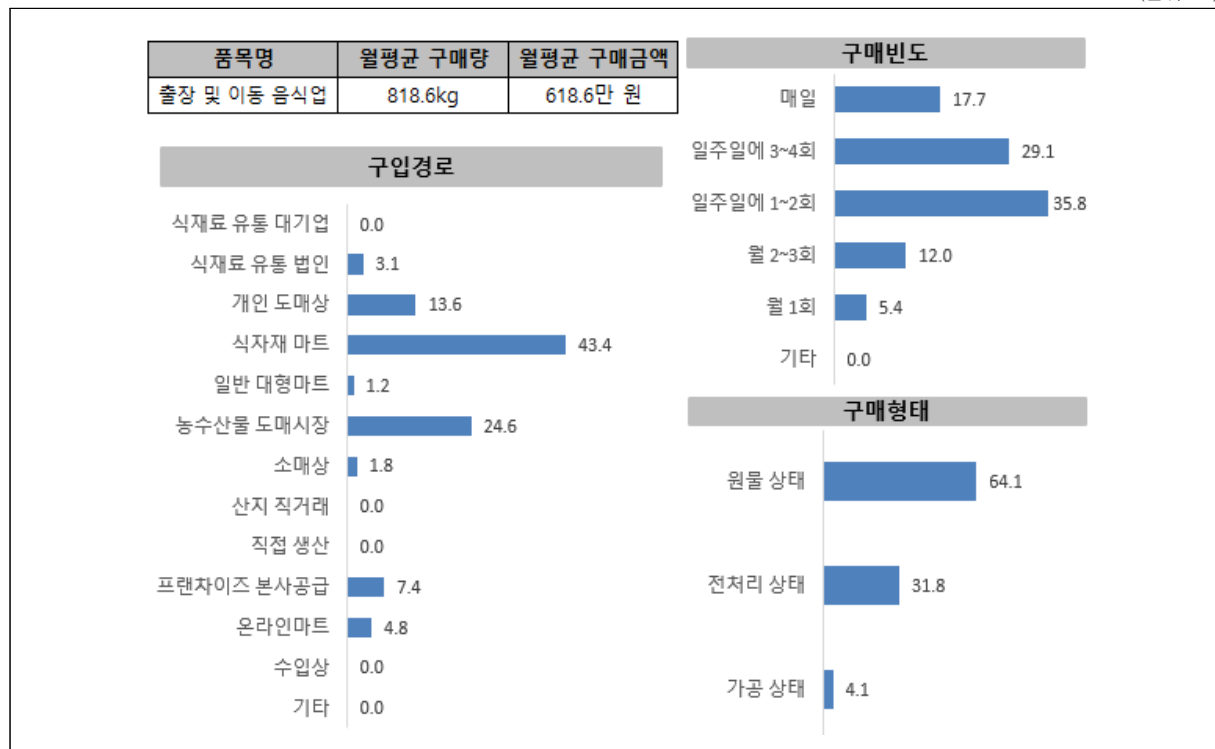
〈그림 4-31〉 업종 중분류별 식재료 구매 행태 - 기관 구내식당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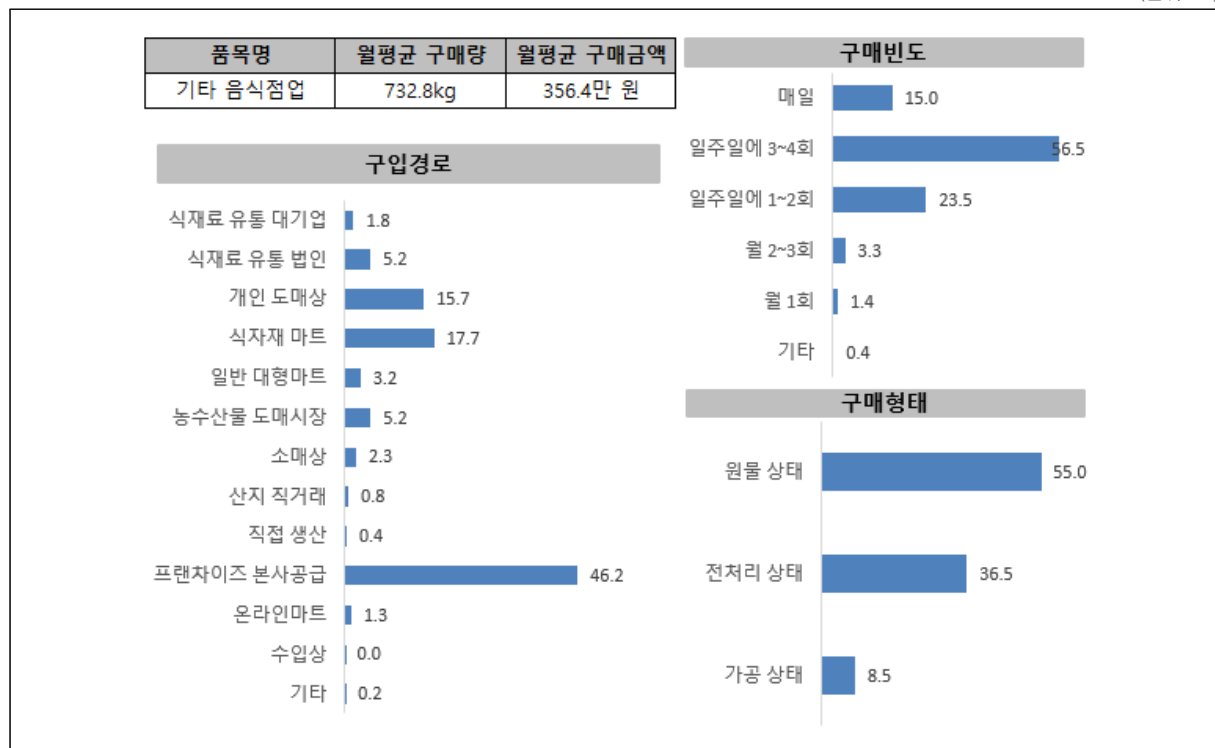
〈그림 4-32〉 업종 중분류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출장 및 이동음식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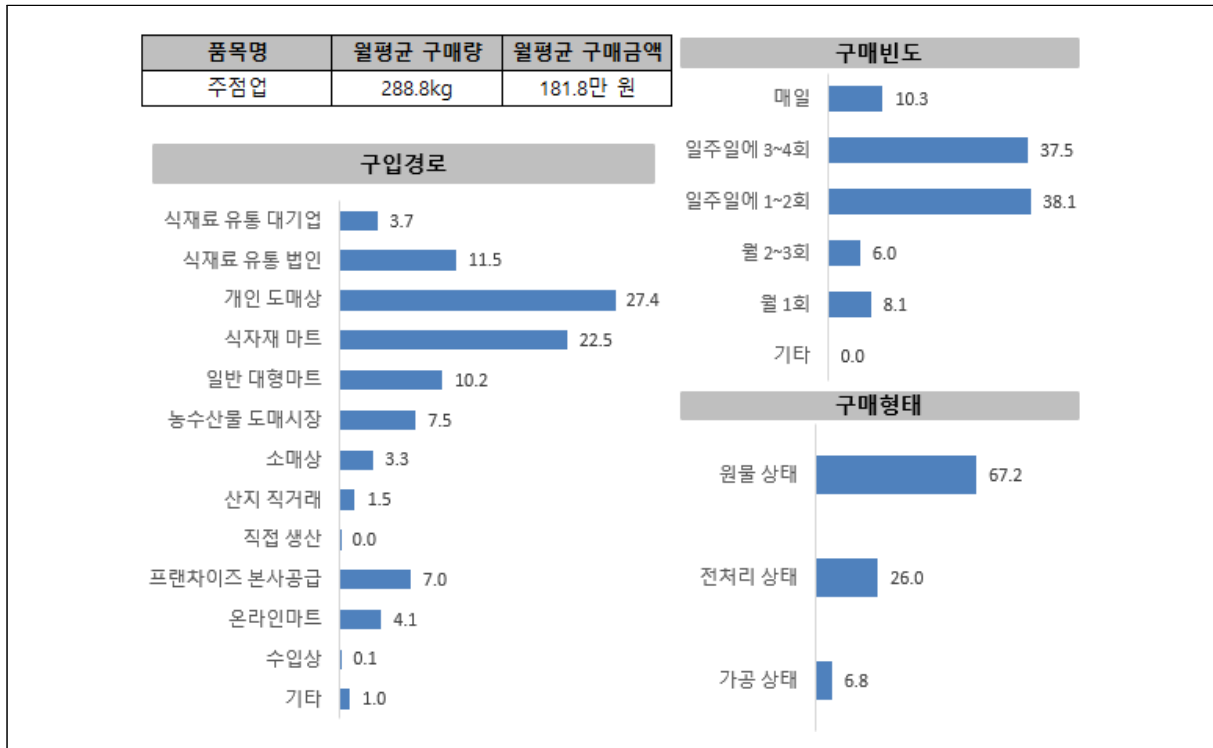
〈그림 4-33〉 업종 중분류별 식재료 구매 행태 - 기타 음식점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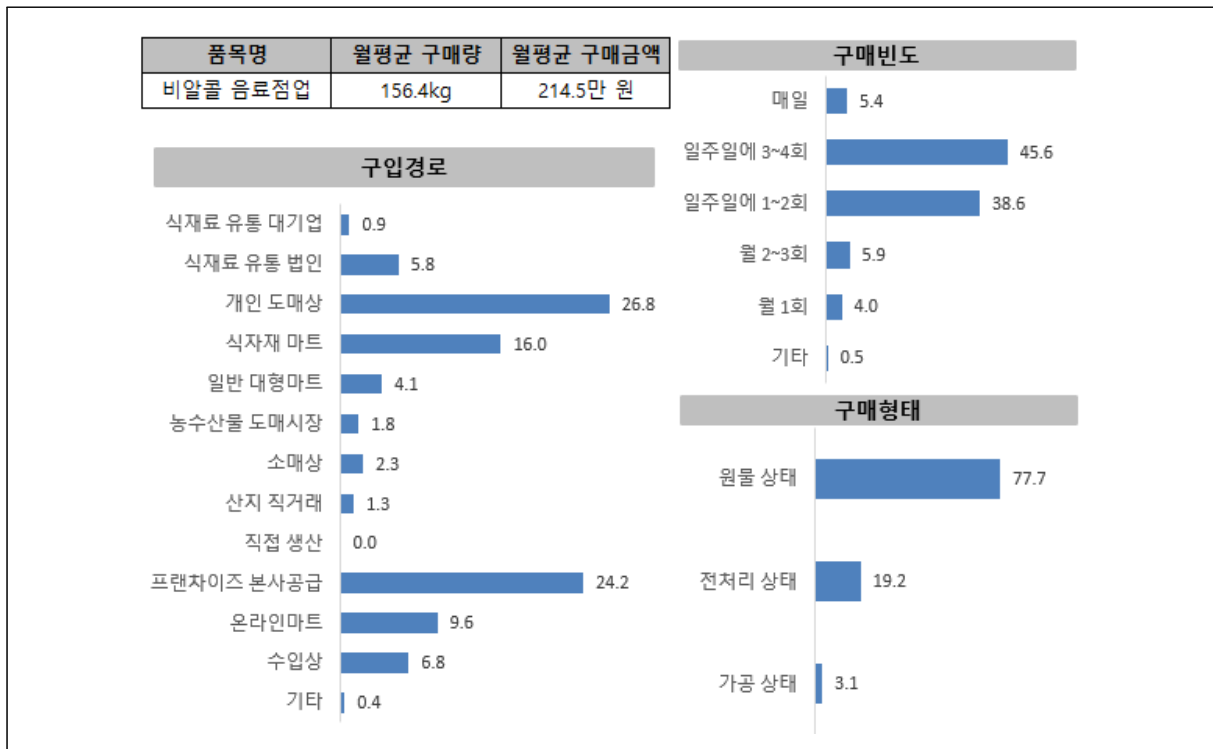
〈그림 4-34〉 업종 중분류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주점업

(단위: %)



〈그림 4-35〉 업종 중분류별 식재료 구매 행태 - 비알코올 음료점업

(단위: %)



8) 일반음식점 업종별 식재료 구매 행태²¹⁾

- 일반음식점의 전체 식재료 월평균 구매량은 865.5kg이고, 월평균 구매금액은 524.9만 원인 것으로 분석됨.
 - 식재료 월평균 구매량은 중식(1,350.7kg), 한식(852.4kg), 서양식(691.3kg), 일식(570.8kg), 기타 외국식(533.2kg) 순으로 많음.
 - 식재료 월평균 구매금액은 중식(591.7만 원), 한식(539.8만 원), 서양식(428.4만 원), 기타 외국식(327.9만 원), 일식(327.3만 원) 순서임.
- 일반음식점의 식재료 구매경로는 개인 도매상(24.8%), 식자재 마트(24.1%), 농수산물도매시장(14.0%)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세부 업종별로는 한식과 중식, 일식은 개인 도매상의 비중이 높고, 서양식과 기타 외국식은 프랜차이즈 본사 비중이 가장 높음.
- 일반음식점의 식재료 구매빈도는 일주일에 3~4회(53.4%), 일주일에 1~2회(21.3%), 매일(18.3%) 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됨.
- 일반음식점의 식재료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67.7%)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전처리 상태(28.9%), 가공상태(3.5%)인 것으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 모든 업종이 원물 상태로 구매하는 비중이 높음.

21) 일반음식점 업종별 식재료 구매 행태 그래프에서 구매형태는 전체 품목에 대한 구매 형태로, 품목별로 세분화된 표에서의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4-14〉 일반음식점 업종별 식재료 구매 행태

구분	일반음식점 전체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월평균 구매량(kg)	865.5	852.4	1,350.7	570.8	691.3	533.2
월평균 구매금액(만 원)	524.9	539.8	591.7	327.3	428.4	327.9
구매경로(비율응답, %)						
1. 식재료 유통대기업	2.8	2.6	2.2	3.7	5.4	4.4
2. 식재료 유통법인	9.2	7.7	19.7	11.3	14.5	14.2
3. 개인 도매상	24.8	25.0	30.7	20.4	17.8	22.0
4. 식자재 마트	24.1	24.7	24.3	20.0	18.9	19.2
5. 일반대형마트	4.3	4.5	3.4	4.4	1.8	1.8
6. 농수산물도매시장	14.0	15.3	5.6	14.0	8.8	2.7
7. 소매상	2.6	2.7	2.4	3.4	0.2	0.3
8. 산지직거래	4.7	5.0	3.8	3.0	3.9	0.0
9. 직접 생산	0.5	0.6	0.2	0.0	0.0	0.0
10. 프랜차이즈 본사	11.3	10.5	6.5	14.5	25.7	31.5
11. 온라인마트	0.8	0.6	1.0	1.3	2.3	0.4
12. 수입상	0.3	0.2	0.2	0.7	0.8	2.7
13. 기타	0.6	0.5	0.1	3.2	0.0	0.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매빈도(단수응답, %)						
1. 매일	18.3	18.7	19.0	19.0	9.6	11.4
2. 일주일에 3~4회	53.4	53.0	56.7	56.1	53.2	47.4
3. 일주일에 1~2회	21.3	21.2	20.4	17.9	26.1	27.6
4. 월 2~3회	4.2	4.0	1.8	4.4	10.5	10.3
5. 월 1회	2.8	3.0	2.0	2.7	0.7	3.3
6. 기타	0.0	0.0	0.0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매형태(복수응답, %)						
1. 원물상태	67.7	68.7	63.8	68.6	59.8	56.4
2. 전처리상태	28.9	27.9	33.2	27.9	33.8	39.0
3. 가공상태	3.5	3.4	3.0	3.5	6.5	4.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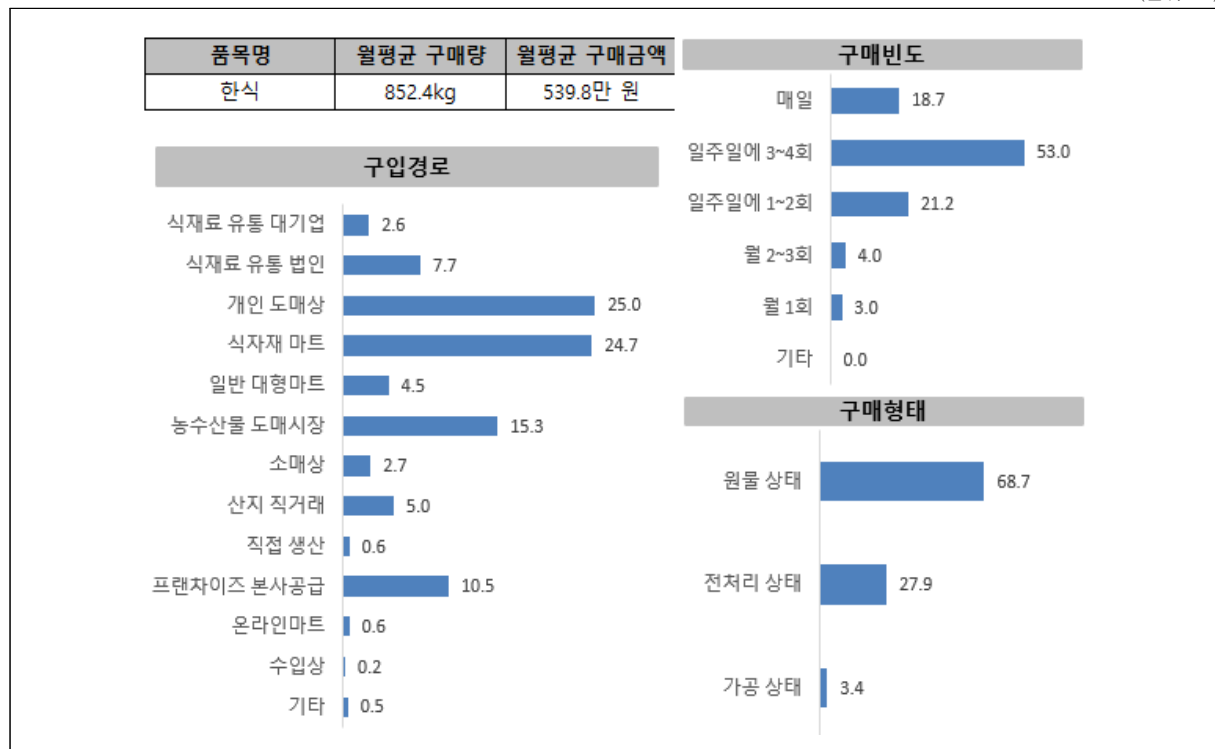
주 1) 품목별 구매량을 고려하지 않고 응답 업체 수 기준으로 단순 평균한 값임.

2) 0값을 결측치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세부 품목의 평균 합이 전체 평균과 다를 수 있음.

3) 구매형태에서 일반계란은 원물, 액란은 전처리로 분류하였으며, 쌀의 경우 조리된 밥은 전처리, 기타는 가공으로 집계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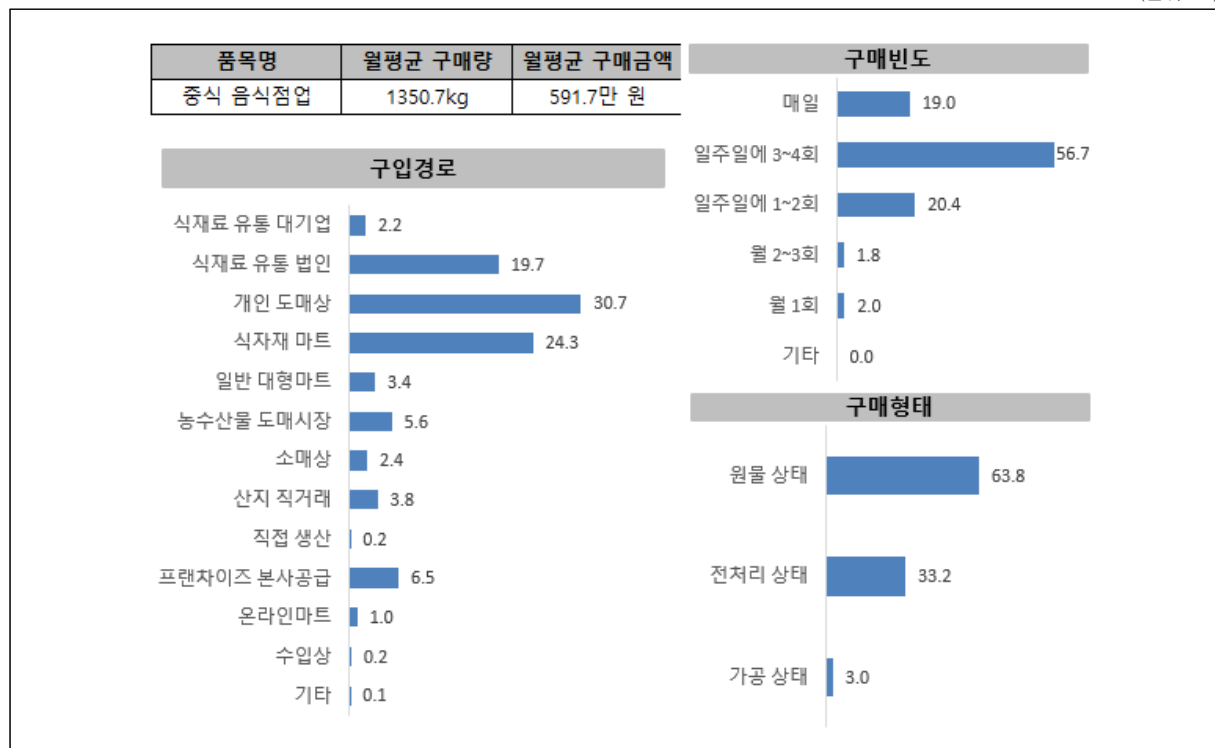
〈그림 4-36〉 일반음식점 업종별 식재료 구매 행태 - 한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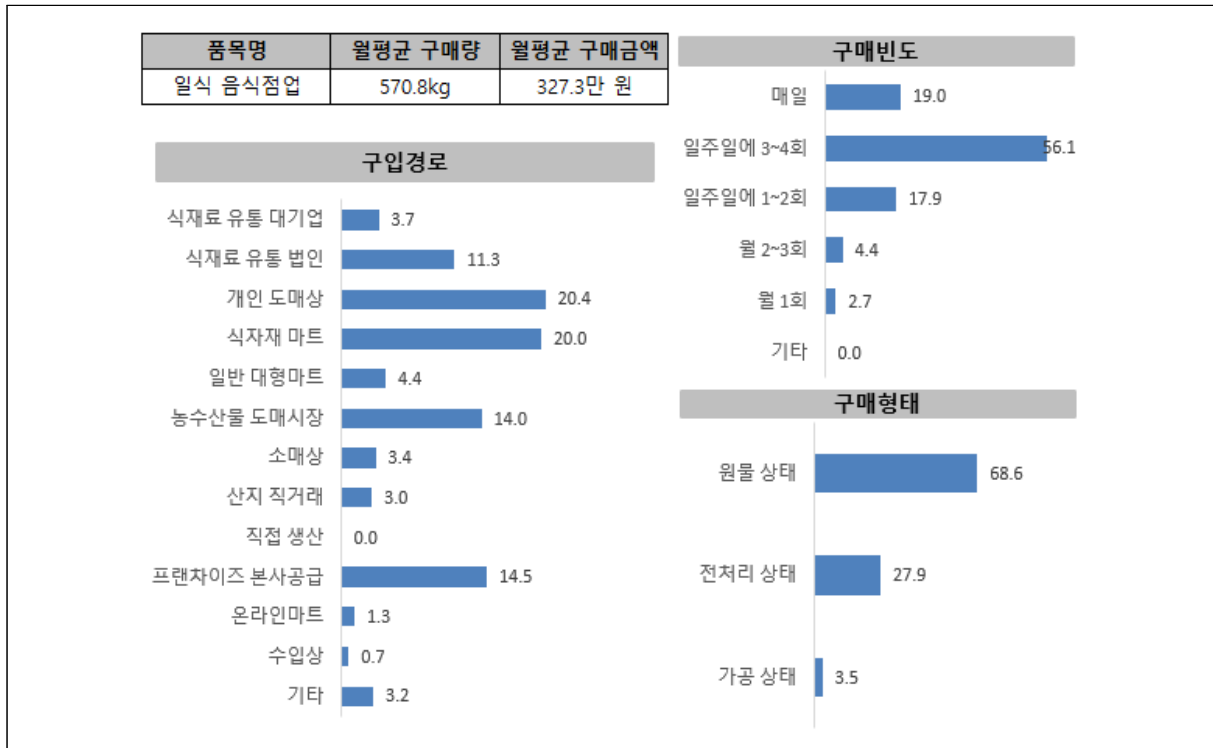
〈그림 4-37〉 일반음식점 업종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중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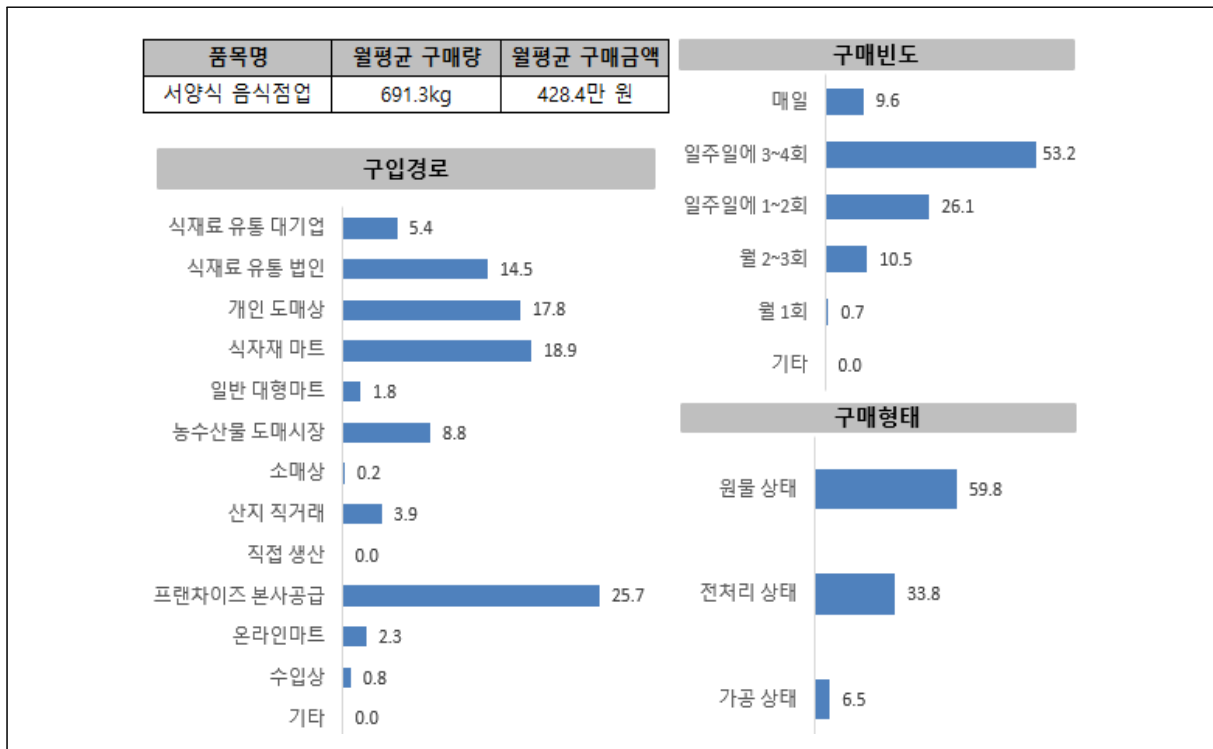
〈그림 4-38〉 일반음식점 업종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일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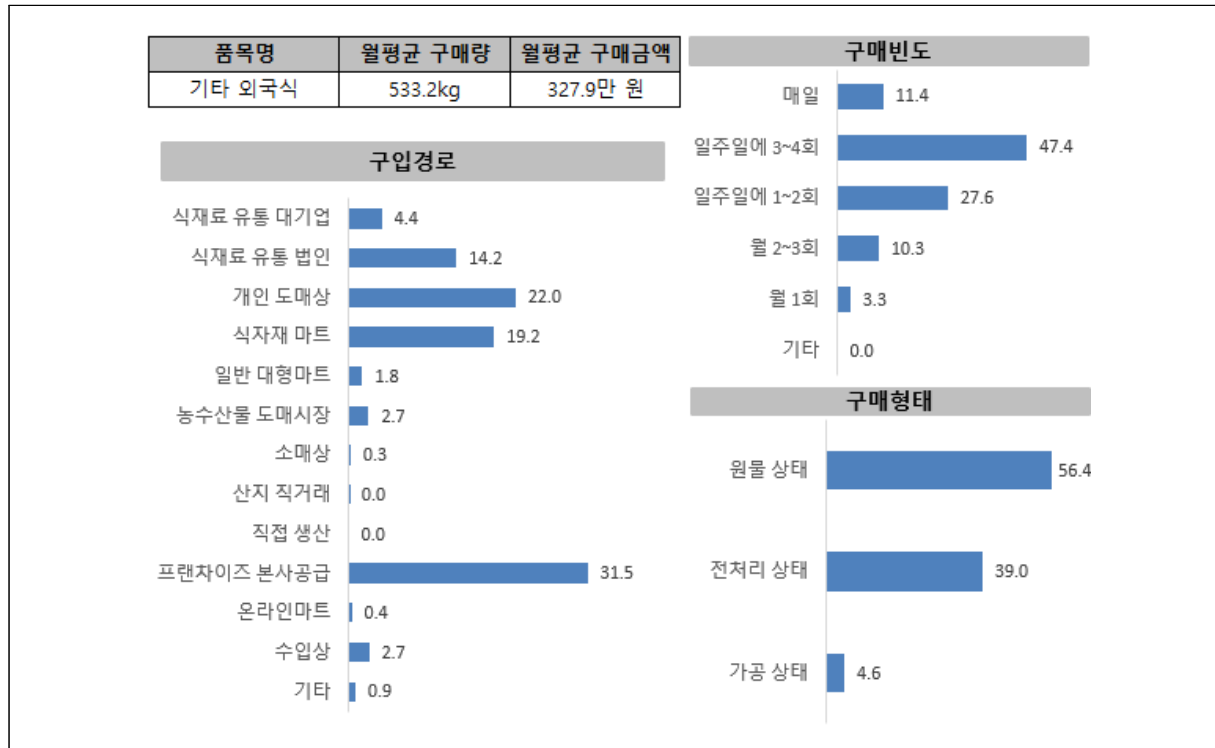
〈그림 4-39〉 일반음식점 업종별 식재료 구매 행태 - 서양식

(단위: %)



〈그림 4-40〉 일반음식점 업종별 식재료 구매 행태 - 기타 외국식

(단위: %)



9) 한식 세분류별 식재료 구매 행태²²⁾

- 한식 외식업체의 월평균 식재료 구매량은 852.4kg이고, 월평균 식재료 구매금액은 539.8만 원임.
 - 월평균 식재료 구매량은 세분류별로 한식 육류(1,114.7kg), 한식 일반(823.2kg), 한식 면류(751.7kg), 한식 해산물(468.8kg)의 순서임.
 - 월평균 식재료 구매금액은 세분류별로 한식 육류(863.2만 원), 한식 일반(494.5만 원), 한식 면류(308.2만 원), 한식 해산물(223.4만 원)의 순으로 많음.
- 한식 외식업체의 식재료 구매경로는 개인 도매상(25.0%), 식자재 마트(24.7%), 농수산물도매시장(1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는 한식 일반, 한식 육류, 한식 해산물에서는 식자재 마트 비중이 가장 높고, 한식 면류는 개인 도매상 비중이 가장 높음.
- 한식 외식업체의 식재료 구매빈도는 일주일에 3~4회(53.0%), 일주일에 1~2회(21.2%), 매일(18.7%) 등의 순서임.

22) 한식 세분류별 식재료 구매 행태 그래프에서 구매형태는 전체 품목에 대한 구매 형태로, 품목별로 세분화된 표에서의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한식 외식업체의 식재료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68.7%)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어서 전처리 상태(27.9%), 가공상태(3.4%) 등임.

- 한식 세분류 업종에 관계없이 원물 상태로 구매한 비중이 가장 높음.

〈표 4-15〉 한식 세분류별 식재료 구매 형태

구분	전체	한식 일반	한식 면류	한식 육류	한식 해산물
월평균 구매량(kg)	852.4	823.2	751.7	1,114.7	468.8
월평균 구매금액(만 원)	539.8	494.5	308.2	863.2	223.4
구매경로(비율응답, %)					
1. 식재료 유통대기업	2.6	2.6	3.4	3.0	0.4
2. 식재료 유통법인	7.7	6.3	7.1	12.2	6.1
3. 개인 도매상	25.0	24.5	25.8	25.3	27.1
4. 식자재 마트	24.7	26.0	36.0	18.0	23.2
5. 일반대형마트	4.5	5.3	2.6	3.2	4.1
6. 농수산물도매시장	15.3	17.3	10.0	9.5	21.0
7. 소매상	2.7	2.5	3.1	3.2	2.9
8. 산지직거래	5.0	3.9	3.0	6.6	10.7
9. 직접 생산	0.6	0.8	0.6	0.3	0.5
10. 프랜차이즈 본사	10.5	9.4	5.6	17.7	3.5
11. 온라인마트	0.6	0.7	0.4	0.7	0.3
12. 수입상	0.2	0.3	0.0	0.0	0.0
13. 기타	0.5	0.4	2.4	0.3	0.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매빈도(단수응답, %)					
1. 매일	18.7	20.5	12.3	15.1	21.4
2. 일주일에 3~4회	53.0	51.1	50.0	60.2	50.1
3. 일주일에 1~2회	21.2	22.3	28.1	17.0	18.7
4. 월 2~3회	4.0	3.6	4.5	3.6	7.3
5. 월 1회	3.0	2.5	5.1	4.1	2.4
6. 기타	0.0	0.0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매형태(복수응답, %)					
1. 원물상태	68.7	69.2	69.3	65.3	73.9
2. 전처리상태	27.9	27.2	24.8	32.6	23.5
3. 가공상태	3.4	3.6	6.0	2.2	2.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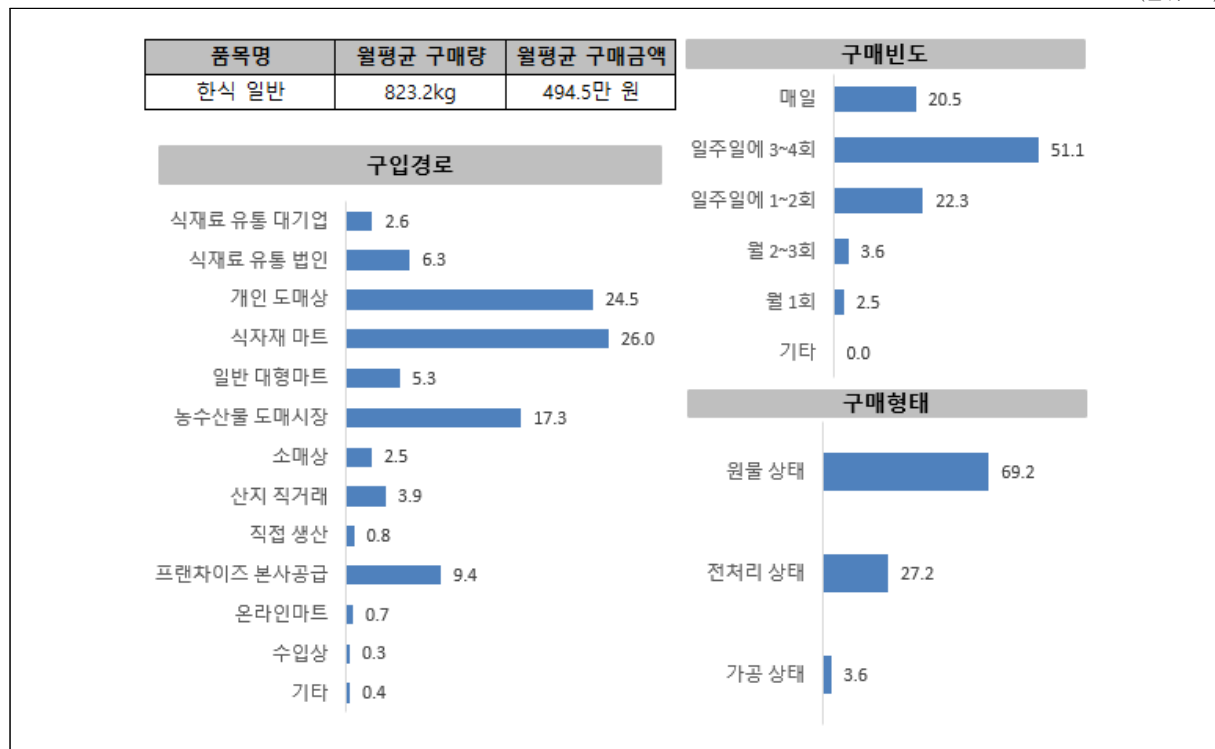
주 1) 품목별 구매량을 고려하지 않고 응답 업체 수 기준으로 단순 평균한 값임.

2) 0값을 결측치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세부 품목의 평균 합이 전체 평균과 다를 수 있음.

3) 구매형태에서 일반계란은 원물, 액란은 전처리로 분류하였으며, 쌀의 경우 조리된 밥은 전처리, 기타는 가공으로 집계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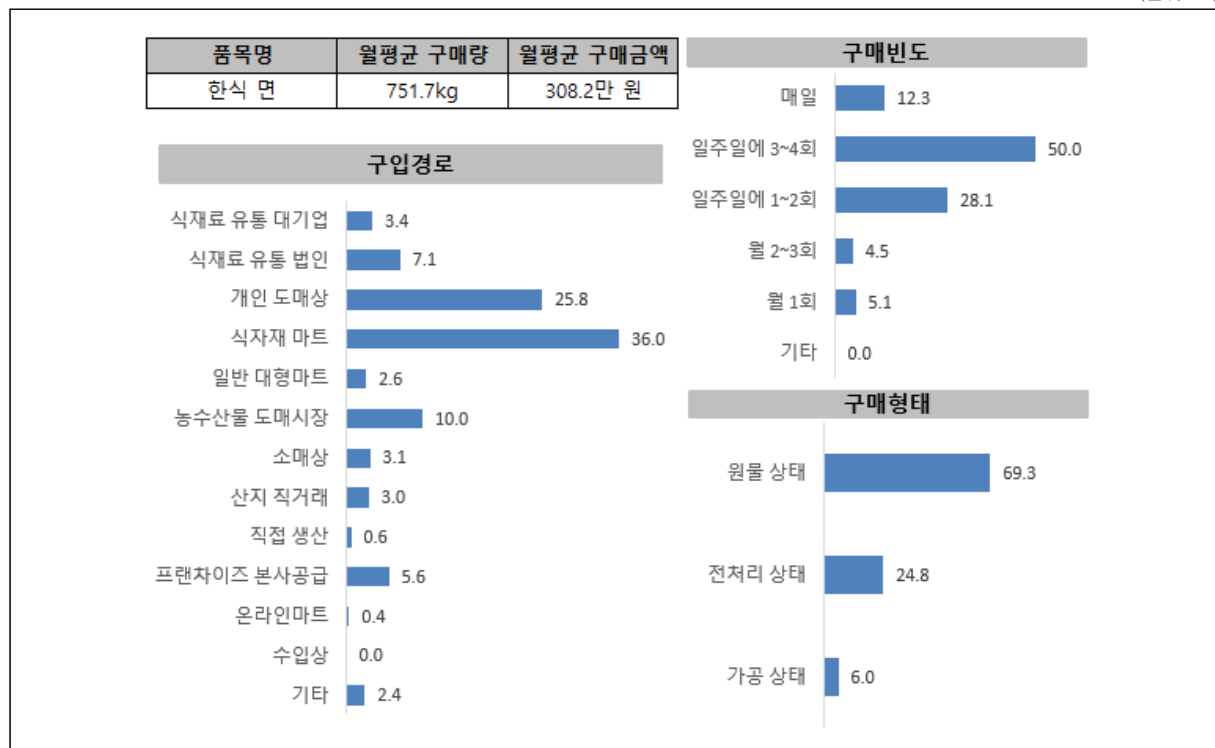
〈그림 4-41〉 한식 세분류별 식재료 구매 행태 - 한식 일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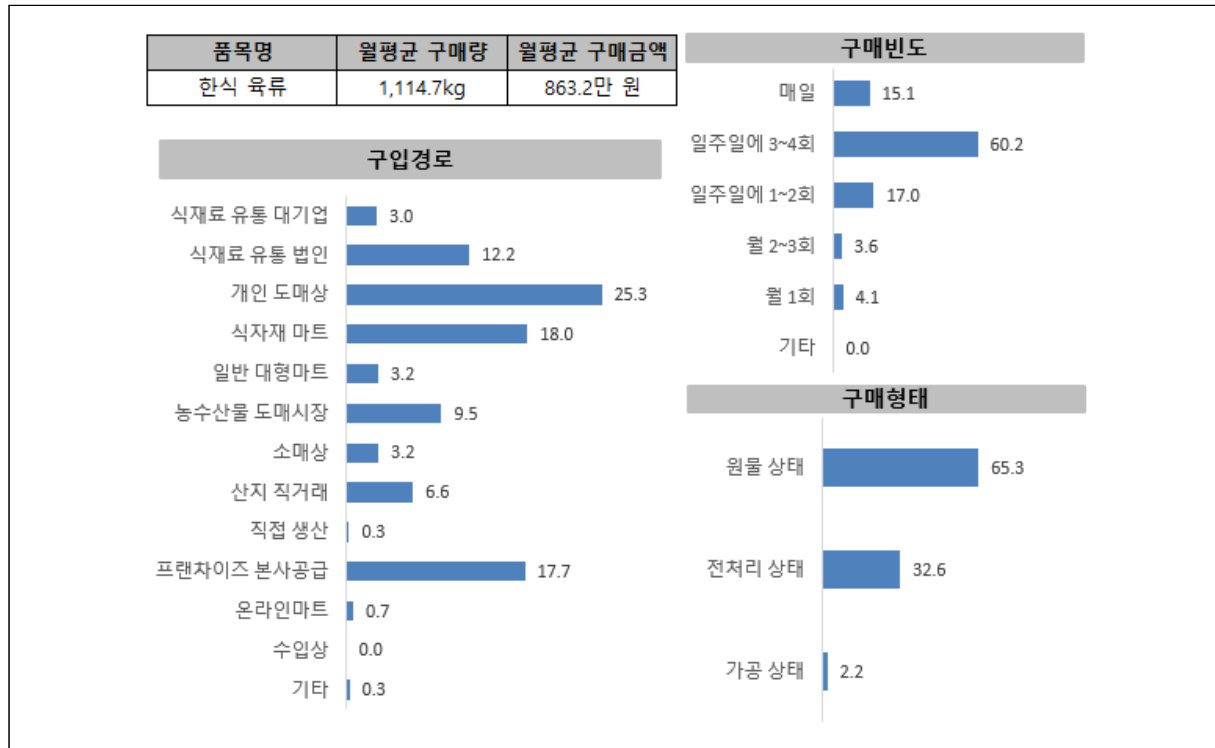
〈그림 4-42〉 한식 세분류별 식재료 구매 행태 - 한식 면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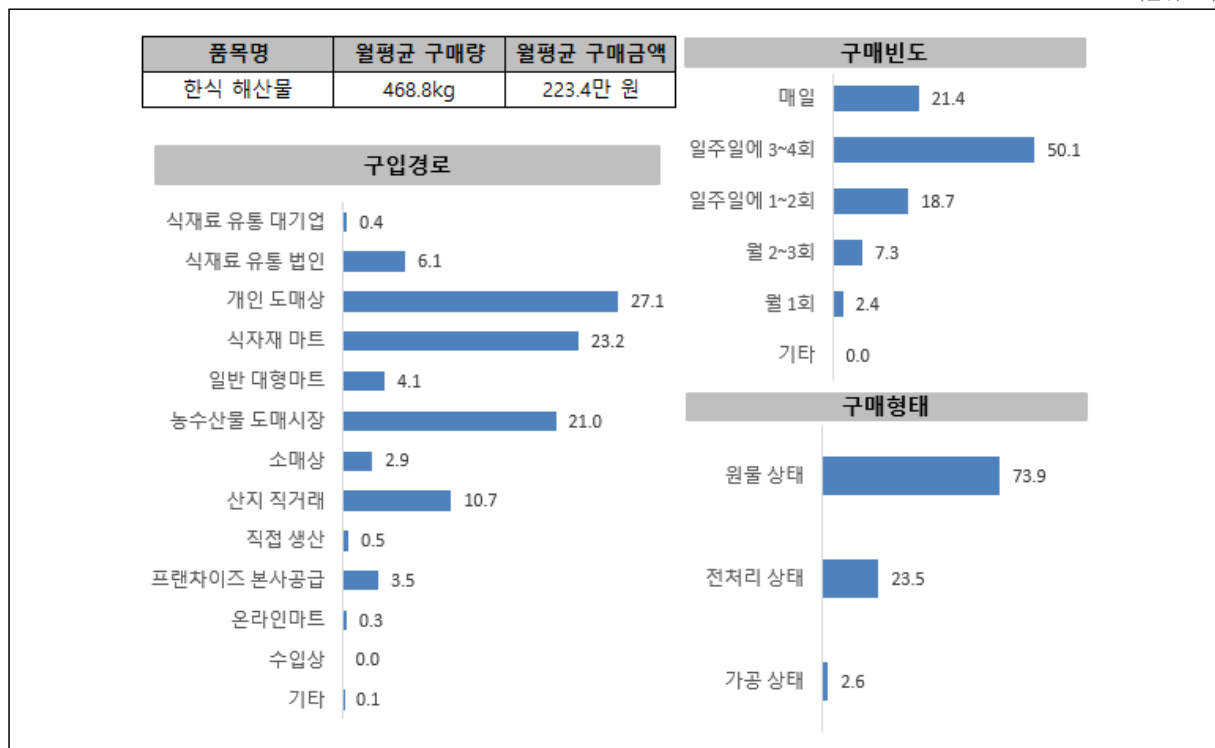
〈그림 4-43〉 한식 세분류별 식재료 구매 행태 - 한식 육류

(단위: %)



〈그림 4-44〉 한식 세분류별 식재료 구매 행태 - 한식 해산물

(단위: %)



10) 운영 형태별 식재료 구매 행태²³⁾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월평균 식재료 구매량은 832.4kg이고, 월평균 식재료 구매금액은 523.1만 원임.

- 구매경로는 프랜차이즈 본사(72.1%), 식자재마트(7.2%), 개인 도매상(6.7%) 등의 순으로 조사됨.
- 구매빈도는 일주일에 3~4회(54.7%), 일주일에 1~2회(24.9%), 매일(17.1%) 등의 순으로 높음.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53.8%)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어서 전처리 상태(38.4%), 가공상태(7.8%)임.

○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월평균 식재료 구매량은 597.6kg이고, 월평균 식재료 구매금액은 360.0만 원임.

- 구매경로는 개인 도매상(29.8%), 식자재 마트(26.7%), 농수산물 도매시장(1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구매빈도는 일주일에 3~4회(48.6%), 일주일에 1~2회(27.4%), 매일(13.6%) 등의 순임.
- 구매형태는 원물 상태(69.2%)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이 전처리 상태(27.0%), 가공상태(3.8%) 등임.

〈표 4-16〉 운영 형태별 식재료 구매 행태

구분	전체	프랜차이즈	비프랜차이즈
월평균 구매량(kg)	660.3	832.4	597.6
월평균 구매금액(만 원)	403.5	523.1	360.0
구매경로(비율응답, %)			
1. 식재료 유통대기업	2.6	1.3	3.2
2. 식재료 유통법인	8.0	3.9	9.7
3. 개인 도매상	23.4	6.7	29.8
4. 식자재 마트	20.9	7.2	26.7
5. 일반대형마트	4.5	1.2	6.2
6. 농수산물도매시장	9.6	3.8	11.7
7. 소매상	2.5	0.8	3.2
8. 산지직거래	3.0	1.0	3.7
9. 직접 생산	0.3	0.1	0.4
10. 프랜차이즈 본사	20.7	72.1	0.0
11. 온라인마트	2.7	1.3	3.2
12. 수입상	1.2	0.3	1.6
13. 기타	0.5	0.1	0.7
합계	100.0	100.0	100.0
구매빈도(단수응답, %)			
1. 매일	14.5	17.1	13.6
2. 일주일에 3~4회	50.2	54.7	48.6
3. 일주일에 1~2회	26.8	24.9	27.4
4. 월 2~3회	4.8	2.0	5.9
5. 월 1회	3.4	1.2	4.2
6. 기타	0.3	0.2	0.3
합계	100.0	100.0	100.0
구매형태(복수응답, %)			
1. 원물상태	66.1	53.8	69.2
2. 전처리상태	29.3	38.4	27.0
3. 가공상태	4.6	7.8	3.8
합계	100.0	100.0	100.0

주 1) 품목별 구매량을 고려하지 않고 응답 업체 수 기준으로 단순 평균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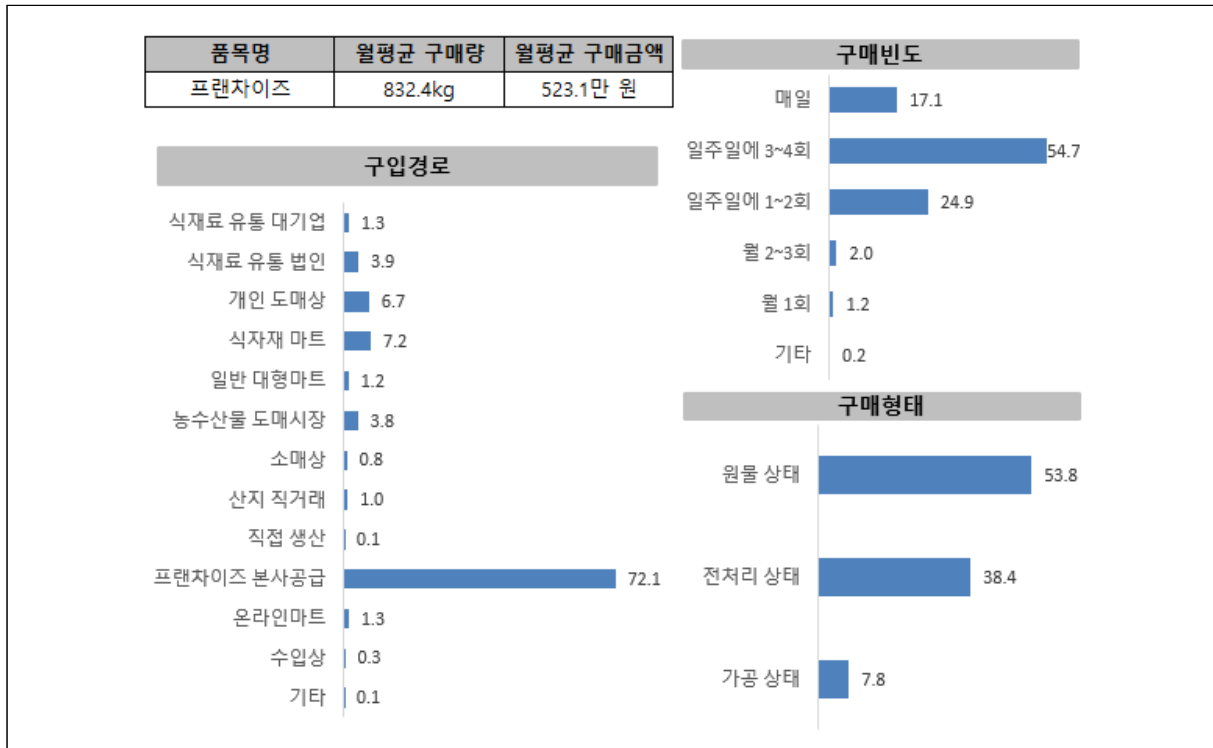
2) 0값을 결측치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세부 품목의 평균 합이 전체 평균과 다를 수 있음.

3) 구매형태에서 일반계란은 원물, 액란은 전처리로 분류하였으며, 쌀의 경우 조리된 밥은 전처리, 기타는 가공으로 집계된 값임.

23) 운영 형태별 식재료 구매 행태 그래프에서 구매형태는 전체 품목에 대한 구매 형태로, 품목별로 세분화된 표에서의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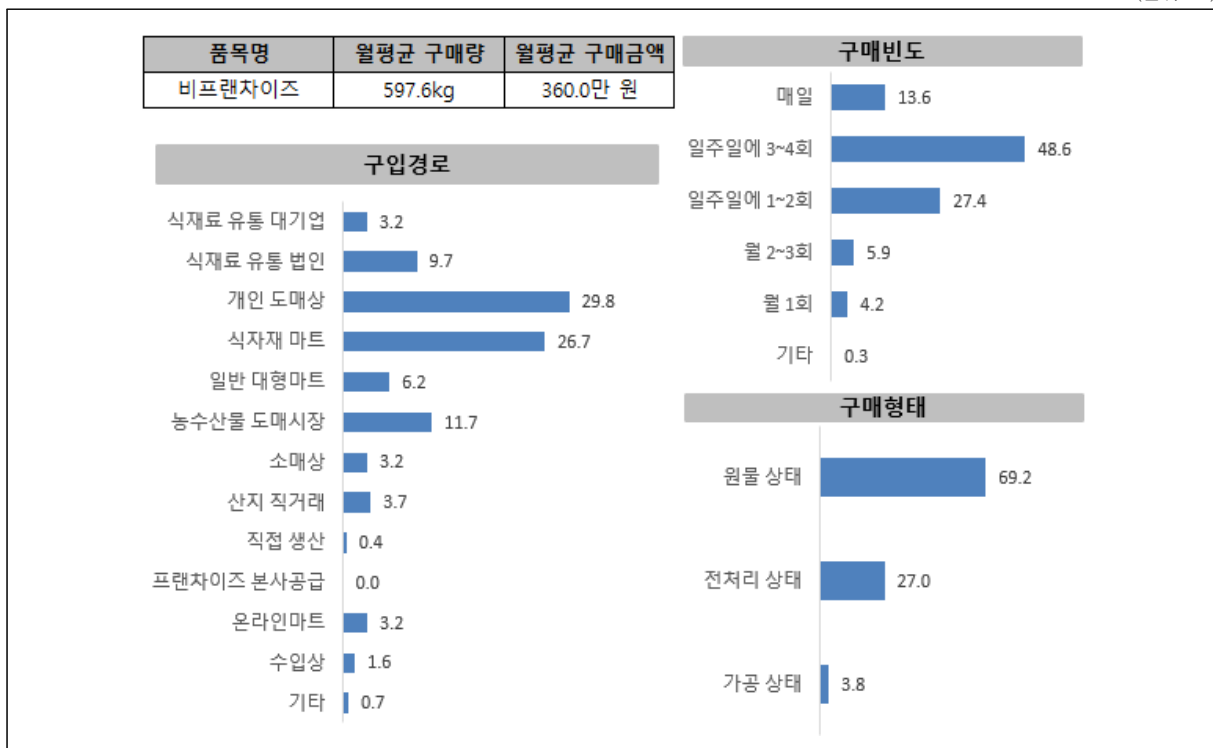
〈그림 4-45〉 운영 형태별 식재료 구매 행태 - 프랜차이즈

(단위: %)



〈그림 4-46〉 운영 형태별 식재료 구매 행태 - 비프랜차이즈

(단위: %)



11) 연매출 규모별 식재료 구매 행태²⁴⁾

- 연매출 규모별로 5천만 원 미만 외식업체의 월평균 식재료 구매량은 185.5kg이고, 월평균 식재료 구매 금액은 99.6만 원으로 분석됨.
 - 구매경로 비중은 개인 도매상(26.5%), 식자재 마트(19.6%), 농수산물 도매시장(17.8%)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
 - 구매빈도는 일주일에 1~2회(47.8%), 일주일에 3~4회(17.4%), 월 2~3회(15.2%) 등의 순서임.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74.3%)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전처리 상태(21.9%), 가공상태(3.8%)임.
- 연매출 규모별로 5천~1억 미만 외식업체의 월평균 식재료 구매량은 315.1kg이고, 월평균 식재료 구매 금액은 195.5만 원 수준임.
 - 구매경로는 식자재 마트(26.0%), 개인 도매상(23.6%), 농수산물도매시장(10.0%) 등의 순서임.
 - 구매빈도는 일주일에 3~4회(39.8%), 일주일에 1~2회(36.9%), 매일(8.2%)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음.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71.8%)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전처리 상태(24.8%), 가공상태(3.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매출 규모별로 1억~5억 미만 외식업체의 월평균 식재료 구매량은 673.2kg이고, 월평균 식재료 구매 금액은 403.0만 원으로 조사됨.
 - 구매경로는 개인 도매상(24.2%), 프랜차이즈 본사(21.3%), 식자재 마트(21.2%) 등의 순임.
 - 구매빈도는 일주일에 3~4회(54.6%), 일주일에 1~2회(24.7%), 매일(14.3%) 등의 순으로 높음.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65.1%)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어서 전처리 상태(30.1%), 가공상태(4.8%) 순인 것으로 파악됨.
- 연매출 규모별로 5억 이상 외식업체의 월평균 식재료 구매량은 1,458.8kg이고, 월평균 식재료 구매 금액은 965.2만 원임.
 - 구매경로는 프랜차이즈 본사공급(32.4%), 개인 도매상(17.8%), 식자재 마트(15.7%) 등의 순임.
 - 구매빈도는 일주일에 3~4회(48.7%), 매일(30.5%), 일주일에 1~2회(14.9%)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구매 형태는 원물 상태(63.8%)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이 전처리 상태(31.5%), 가공상태(4.7%) 등의 순으로 조사됨.

24) 연매출 규모별 식재료 구매 행태 그래프에서 구매형태는 전체 품목에 대한 구매 형태로, 품목별로 세분화된 표에서의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4-17〉 연매출규모별 식재료 구매 행태

구분	전체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1억 원 미만	1억 원~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월평균 구매량(kg)	660.3	185.5	315.1	673.2	1,458.8
월평균 구매금액(만 원)	403.5	99.6	195.5	403.0	965.2
구매경로(비율응답, %)					
1. 식재료 유통대기업	2.6	0.8	2.3	2.7	4.3
2. 식재료 유통법인	8.0	3.5	4.7	9.2	8.1
3. 개인 도매상	23.4	26.5	23.6	24.2	17.8
4. 식자재 마트	20.9	19.6	26.0	21.2	15.7
5. 일반대형마트	4.5	10.4	9.4	3.7	3.0
6. 농수산물도매시장	9.6	17.8	10.0	8.8	11.7
7. 소매상	2.5	3.9	5.0	2.1	0.6
8. 산지직거래	3.0	3.5	2.4	3.0	3.8
9. 직접 생산	0.3	0.0	1.1	0.2	0.4
10. 프랜차이즈 본사	20.7	2.4	7.8	21.3	32.4
11. 온라인마트	2.7	3.5	4.2	2.5	1.1
12. 수입상	1.2	3.5	2.4	0.9	0.8
13. 기타	0.5	4.5	1.1	0.2	0.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매빈도(단수응답, %)					
1. 매일	14.5	11.4	8.2	14.3	30.5
2. 일주일에 3~4회	50.2	17.4	39.8	54.6	48.7
3. 일주일에 1~2회	26.8	47.8	36.9	24.7	14.9
4. 월 2~3회	4.8	15.2	7.3	3.6	5.4
5. 월 1회	3.4	7.8	7.1	2.7	0.5
6. 기타	0.3	0.4	0.8	0.1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매형태(복수응답, %)					
1. 원물상태	66.1	74.3	71.8	65.1	63.8
2. 전처리상태	29.3	21.9	24.8	30.1	31.5
3. 가공상태	4.6	3.8	3.4	4.8	4.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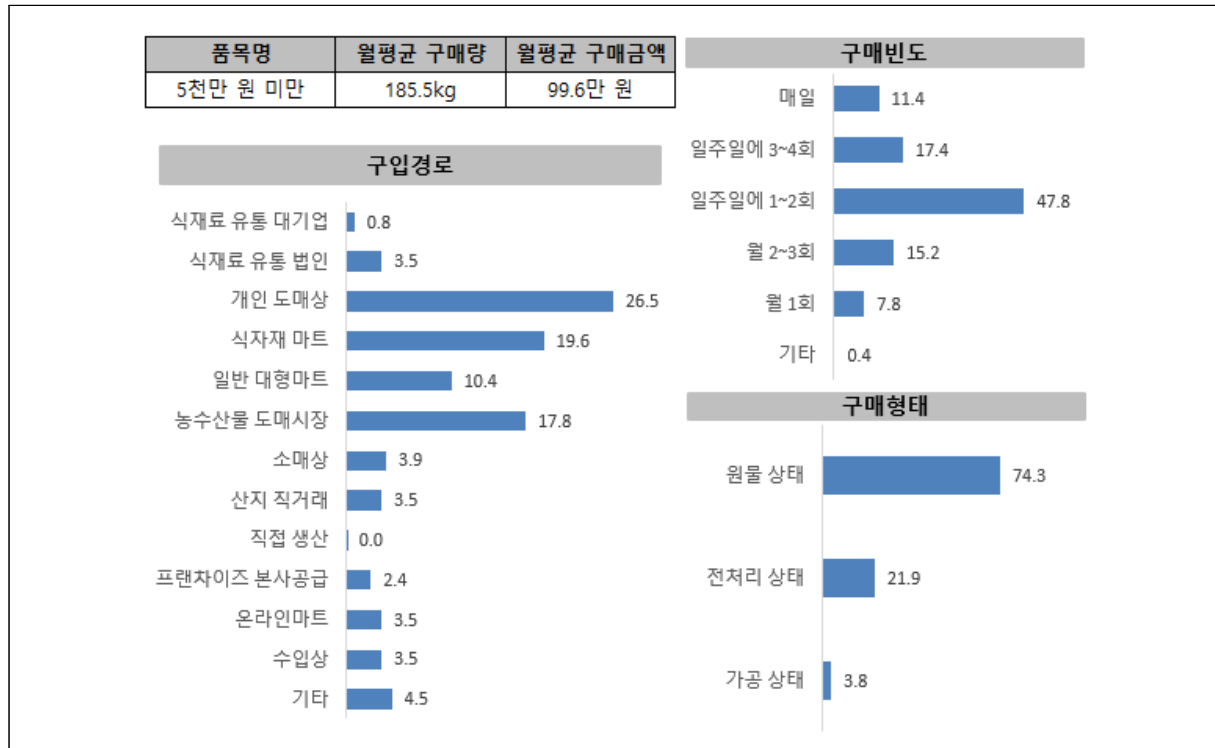
주 1) 품목별 구매량을 고려하지 않고 응답 업체 수 기준으로 단순 평균한 값임.

2) 0값을 결측치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세부 품목의 평균 합이 전체 평균과 다를 수 있음.

3) 구매형태에서 일반계란은 원물, 액란은 전처리로 분류하였으며, 쌀의 경우 조리된 밥은 전처리, 기타는 가공으로 집계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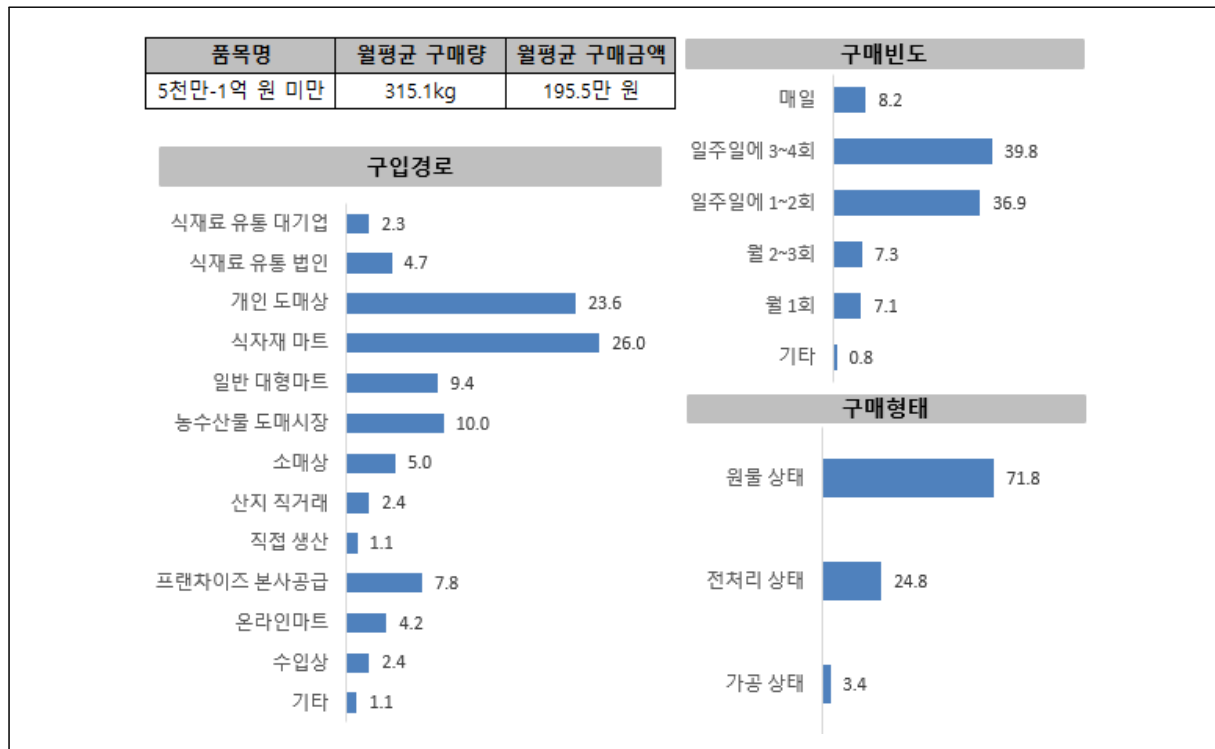
〈그림 4-47〉 연매출규모별 식재료 구매 행태 - 5천만 원 미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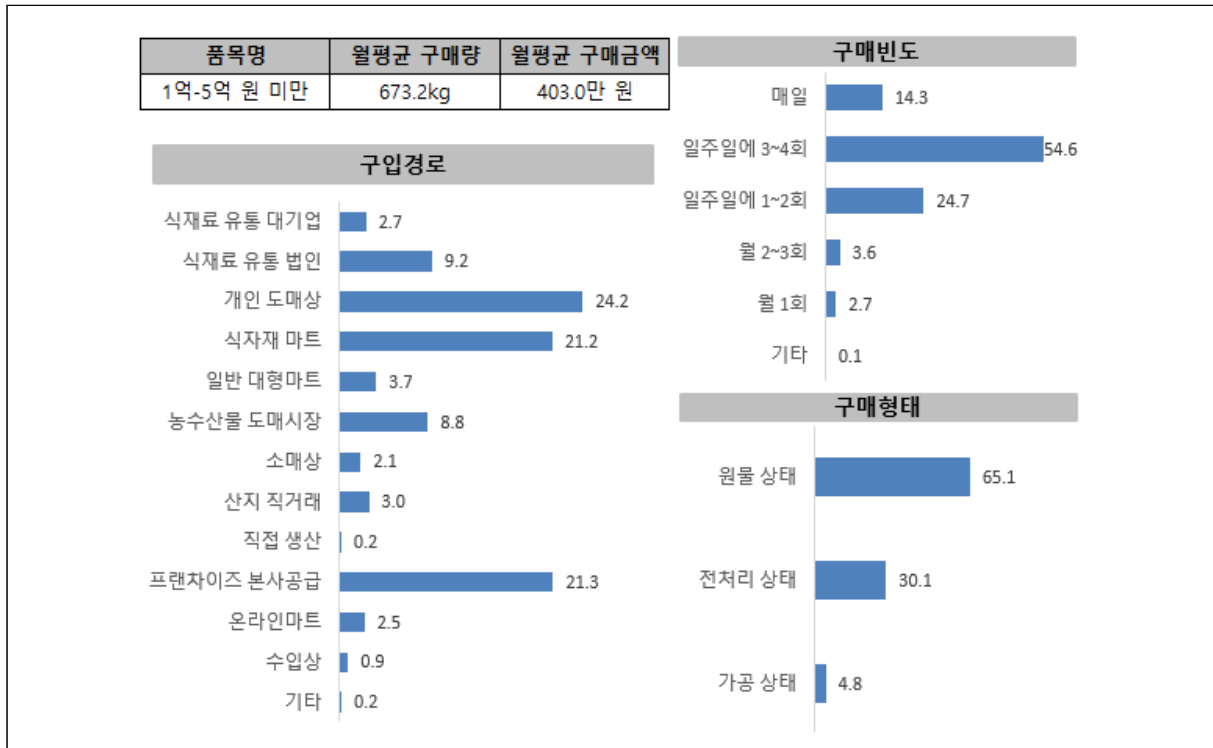
〈그림 4-48〉 연매출규모별 식재료 구매 행태 - 5천만 원~1억 원 미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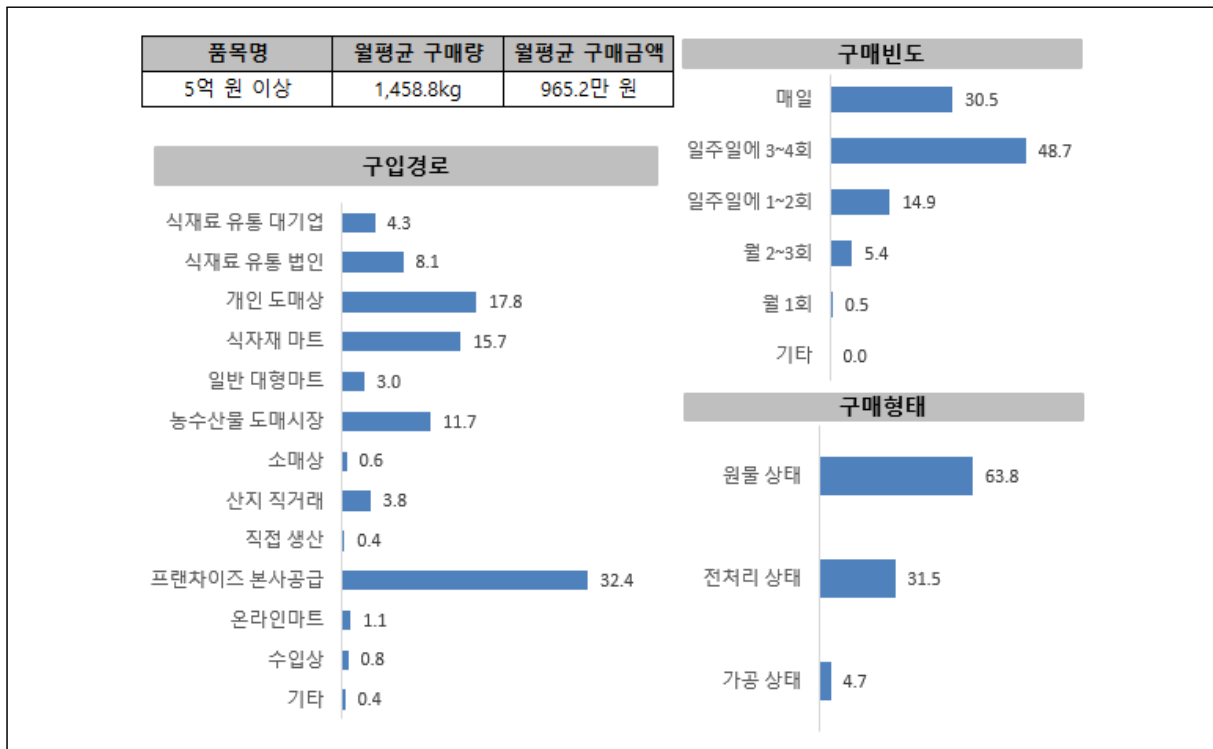
〈그림 4-49〉 연매출규모별 식재료 구매 행태 - 1억 원~5억 원 미만

(단위: %)



〈그림 4-50〉 연매출규모별 식재료 구매 행태 - 5억 원 이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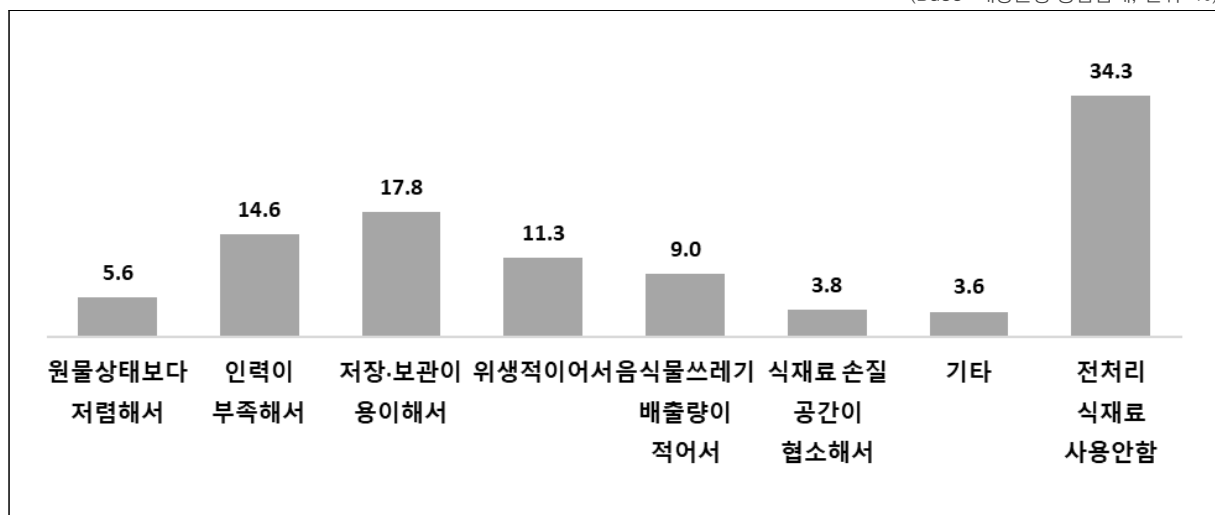


12) 전처리 식재료 구매이유

- 외식업체가 식재료를 전처리 상태로 구매하는 이유는 저장·보관이 용이해서(17.8%)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인력이 부족해서(14.6%), 위생적이어서(11.3%),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적어서(9.0%)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일반음식점의 세부 업종별로는 한식, 중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은 저장·보관이 용이해서, 일식의 경우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음.
- 일반음식점 외 외식업체의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관 구내식당업,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은 인력이 부족해서, 출장·이동음식점업, 제과점,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주점업에서는 저장·보관이 용이해서,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에서는 기타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운영 형태별로는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 모두 저장·보관이 용이해서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권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와 저장·보관이 용이해서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에서는 저장·보관이 용이해서, 수도권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경북권에서는 위생적이어서라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 1억 원~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업체에서는 저장·보관이 용이해서, 5천만 원~1억 원 미만 업체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됨.

〈그림 4-51〉 전처리 식재료 구매 이유_1+2순위(중복응답)

(Base: 해당문항 응답업체, 단위: %)



주: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표 4-18〉 전처리 식재료 구매 이유_1+2순위(중복응답)

(Base: 해당문항 응답업체, 단위: 개소, %)

			사례수	원물상태 보다 저렴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저장· 보관이 용이해서	위생적 이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적어서	식재료 손질 공간이 협소해서	기타	전처리 식재료 사용 안함
전체			3,138	5.6	14.6	17.8	11.3	9.0	3.8	3.6	34.3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5.9	17.8	22.8	13.8	11.5	4.6	3.2	20.3
		한식	1,091	5.6	17.2	22.5	13.9	12.3	4.7	3.2	20.7
		중식	158	8.1	18.8	23.7	16.4	9.4	5.7	1.6	16.4
		일식	117	5.4	22.7	22.2	11.4	7.9	2.2	3.7	24.7
		서양식	118	8.0	19.4	25.6	10.1	5.7	4.4	6.6	20.2
		기타 외국식	72	8.1	25.3	33.4	14.0	4.0	5.5	1.3	8.4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5.3	10.7	11.9	8.2	6.1	2.8	4.1	50.8
		기관 구내식당업	78	3.1	30.3	19.0	15.2	3.0	3.8	0.0	25.7
		출장·이동음식점업	78	2.2	12.5	24.1	23.3	6.6	4.6	0.5	26.2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1.3	1.8	9.8	4.0	5.2	0.5	76.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4.9	6.4	15.7	9.2	6.2	3.0	37.7
			치킨 전문점	172	5.4	14.6	15.4	9.5	7.2	6.1	23.8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10.1	19.3	17.2	11.6	9.9	4.4	22.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7.2	9.0	14.9	8.8	11.6	4.2	41.7
		주점업	318	8.7	15.3	16.3	11.7	8.3	3.8	0.3	35.4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0.7	1.6	1.6	2.4	1.6	0.0	0.3	91.7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4.5	9.4	15.8	9.7	6.4	3.3	13.5	37.4
	비프랜차이즈		2,114	6.0	16.3	18.5	11.8	9.9	4.0	0.3	33.2
지역	서울권		491	6.9	13.9	13.9	11.8	4.8	5.0	0.8	43.0
	수도권		595	6.0	15.7	14.3	9.2	6.8	2.7	2.4	43.0
	충청권		581	9.8	15.0	23.5	6.6	8.0	7.0	2.3	27.8
	호남권		467	2.9	11.5	15.8	14.9	7.0	2.3	4.9	40.7
	경남권		611	5.8	10.6	20.6	6.2	18.0	3.6	9.2	25.9
	경북권		393	0.8	22.9	17.2	23.8	7.2	1.3	0.5	26.3
매 출 액	5천만 원 미만		92	6.6	9.0	10.8	8.6	10.1	3.9	1.2	49.8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5.4	14.4	12.7	8.4	10.3	3.1	1.6	44.2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5.8	14.9	19.0	11.9	8.6	4.0	4.0	31.9
	5억 원 이상		446	4.6	14.2	20.8	12.7	9.9	3.2	5.4	29.3

주: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2. 식재료 거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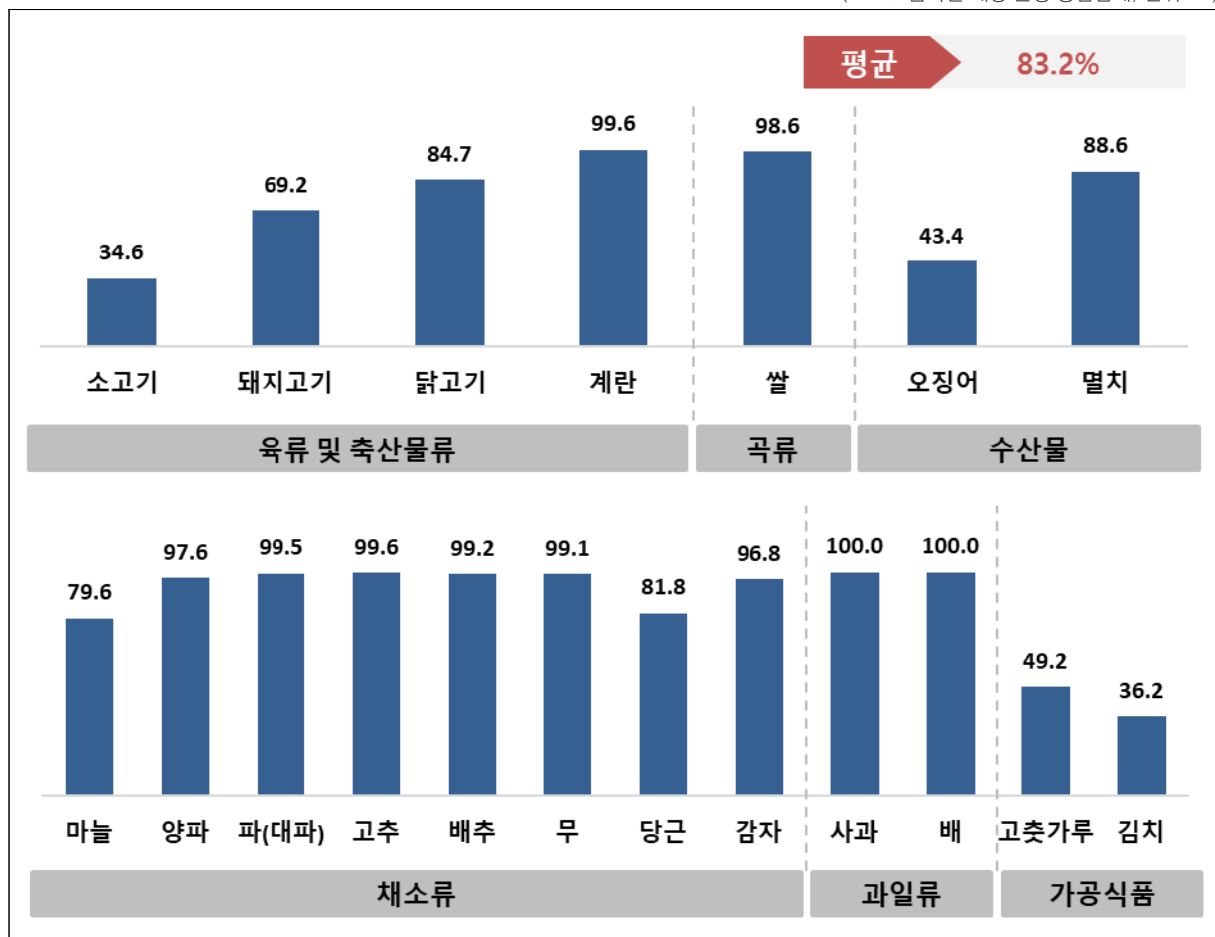
1) 국내산 비중²⁵⁾

○ 외식업체가 이용하는 식재료 중 국내산 비중은 전체 평균 83.2%임.

- 국내산 이용 비중이 80% 이하인 품목은 소고기(34.6%), 돼지고기(69.2%), 오징어(43.4%), 마늘(79.6%), 고춧가루(건고추 포함)(49.2%), 김치(36.2%)로 나타남.
- 국내산 이용 비중이 높은 품목은 사과와 배(각 100.0%), 계란과 고추(각 99.6%), 파(대파)(99.5%), 배추(99.2%), 무(99.1%), 쌀(98.6%), 양파(97.6%), 감자(96.8%), 멸치(88.6%) 순임.

〈그림 4-52〉 세부 품목별 국내산 비중 분포

(Base: 품목별 해당 문항 응답업체, 단위: %)



25) 본 조사에서는 외식업체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의 국내산 비중을 추정하기 위해 업체별로 품목별 구매량과 국내산 비중을 조사하였음. 보고서에서는 업체별 국내산 식재료의 구매량을 반영하여 국내산 식재료 사용 비중을 산출하였음.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text{국내산 비중}_i = \left(\sum_k \text{구매량}_{ik} \times \text{국내산 비중}_{ik} \right) \div \left(\sum_k \text{구매량}_{ik} \right) \times 100, i = \text{품목}, k = i \text{ 품목 사용 업체}$$

- 일반음식점에서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업종은 기타 외국식(74.8%)으로 나타남. 일반음식점 외 업종에서는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업종은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78.1%)임.
- 한식 세분류별로 국내산 비중이 가장 낮은 업종은 한식 육류(83.4%)임.

〈표 4-18〉 업종/한식 세분류/품목/지역/매출액별 국내산 비중 분포

(Base: 품목별 해당 문항 응답업체, 단위: 개소, %)

			사례수	50% 미만	50%~100% 미만	100%	[평균 : %]	
전체			23,360	14.0	8.6	77.3	83.2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459	14.1	8.3	77.6	83.1
		한식		10,778	12.4	8.1	79.4	84.5
		중식		2,014	23.5	6.3	70.2	75.1
		일식		1,026	16.9	11.7	71.4	81.3
		서양식		992	17.0	13.3	69.7	80.0
		기타 외국식		649	23.3	12.2	64.5	74.8
	일반 음식점 외	소계		7,901	14.0	9.4	76.6	83.5
		기관 구내식당업		1,089	18.2	15.8	66.1	80.6
		출장·이동음식점업		1,016	17.4	19.2	63.3	8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350	3.8	0.5	95.7	96.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05	13.5	11.8	74.7	83.2
			치킨 전문점	670	8.0	8.8	83.2	89.1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업	1,490	18.7	7.9	73.5	79.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378	16.8	13.0	70.1	78.1
		주점업		2,176	13.8	9.8	76.4	83.2
	비알코올음료점업		227	6.9	1.8	91.3	92.8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4,673	12.8	7.5	79.8	84.4	
	한식 면류		1,690	12.7	5.9	81.3	85.6	
	한식 육류		2,729	12.4	10.5	77.1	83.4	
	한식 해산물		1,686	9.7	8.6	81.7	87.0	

- 비프랜차이즈 업체(83.5%)는 프랜차이즈 업체(82.2%)보다 국내산 원료 사용 비중이 1.3%p 높음.
- 지역별로 국내산 원료 사용 비중은 호남권(90.6%)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울권(84.6%), 수도권(84.0%), 경남권(81.5%), 경북권(80.3%), 충청권(79.7%)의 순임.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87.7%)이 국내산 원료 사용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5천만~1억 원 미만(85.3%), 5억 원 이상(83.4%), 1억~5억 원 미만(82.7%)의 순인 것으로 조사됨.

〈표 4-19〉 업종/한식 세분류/품목/지역/매출액별 국내산 비중 분포 (계속)

(Base: 품목별 해당 문항 응답업체, 단위: 개소, %)

		사례수	50% 미만	50%~100% 미만	100%	[평균 : %]
	전체	23,360	14.0	8.6	77.3	83.2
품목	소고기	851	60.1	16.1	23.7	34.6
	돼지고기	1,349	22.3	24.0	53.8	69.2
	닭고기	841	9.3	19.6	71.1	84.7
	계란	1,824	0.3	0.4	99.3	99.6
	쌀	1,853	1.2	2.4	96.4	98.6
	오징어	692	52.7	11.1	36.1	43.4
	멸치	735	7.6	9.4	83.0	88.6
	마늘	2,019	15.1	15.9	69.0	79.6
	양파	2,165	1.3	3.7	95.0	97.6
	파(대파)	1,912	0.2	1.7	98.0	99.5
	풋고추·홍고추	1,636	0.3	0.4	99.4	99.6
	배추	847	0.7	1.2	98.2	99.2
	무	1,172	0.8	0.5	98.7	99.1
	당근	1,216	15.0	9.2	75.9	81.8
	감자	714	2.9	1.1	96.1	96.8
	사과	376	0.0	0.0	100.0	100.0
	배	274	0.0	0.0	100.0	100.0
	고춧가루(건고추 포함)	1,563	41.4	30.5	28.1	49.2
	김치	1,321	60.9	11.6	27.6	36.2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5,417	14.8	10.5	74.7	82.2
	비프랜차이즈	17,943	13.9	8.2	78.0	83.5
지역	서울권	3,726	12.8	7.6	79.6	84.6
	수도권	3,899	12.9	12.4	74.6	84.0
	충청권	4,535	17.5	10.1	72.4	79.7
	호남권	2,982	7.5	6.5	86.0	90.6
	경남권	5,295	15.5	7.0	77.5	81.5
	경북권	2,923	17.1	8.5	74.4	80.3
매 출 액	5천만 원 미만	562	9.5	7.8	82.7	87.7
	5천만 원~1억 원 미만	2,526	12.4	7.8	79.8	85.3
	1억 원~5억 원 미만	16,608	14.6	8.7	76.7	82.7
	5억 원 이상	3,664	13.4	9.6	77.0	83.4

- 업종별·품목별 국내산 식재료 사용 비중을 살펴보면, 한식의 경우 소고기(42.8%), 김치(37.4%), 고춧가루(51.7%), 오징어(43.7%)의 국내산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중식은 소고기(10.2%), 김치(22.2%), 오징어(33.7%), 일식은 소고기(32.7%), 김치(38.2%)의 국내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서양식은 소고기(22.3%), 오징어(32.2%), 고춧가루(41.4%), 기타 외국식은 소고기(29.5%), 김치(34.9%), 오징어(42.0%)의 국내산 비중이 대체로 낮음.

〈표 4-20〉 업종별/품목별 국내산 식재료 사용 비중

(Base: 품목별 해당 문항 응답업체, 단위: 개소, %)

	전체	업종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외
		소계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소계
사례수	23,360	15,459	10,778	2,014	1,026	992	649	7,901
전체	83.2	83.1	84.5	75.1	81.3	80.0	74.8	83.5
소고기	34.6	36.8	42.8	10.2	32.7	22.3	29.5	29.0
돼지고기	69.2	69.8	71.3	63.9	62.4	70.4	57.1	67.6
닭고기	84.7	84.9	91.4	74.9	53.3	79.6	60.2	84.5
계란	99.6	99.8	99.9	99.7	98.6	100.0	99.8	99.3
쌀	98.6	99.2	99.5	97.6	98.4	100.0	90.0	96.3
오징어	43.4	40.7	43.7	33.7	50.9	32.2	42.0	47.0
멸치	88.6	87.7	88.5	78.7	76.0	99.5	98.8	90.8
마늘	79.6	79.9	81.9	65.3	79.0	73.3	63.8	78.6
양파	97.6	97.6	97.9	95.6	94.3	99.3	99.3	97.4
파(대파)	99.5	99.5	99.7	99.4	96.7	100.0	99.4	99.6
풋고추·홍고추	99.6	99.4	99.5	100.0	98.0	100.0	97.9	100.0
배추	99.2	99.3	99.4	99.3	100.0	91.7	100.0	98.1
무	99.1	99.2	99.1	99.1	100.0	100.0	100.0	98.7
당근	81.8	82.5	84.3	72.7	83.4	84.6	62.7	80.5
감자	96.8	96.6	96.2	100.0	95.4	96.4	91.9	97.2
사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고춧가루(건고추 포함)	49.2	50.1	51.7	41.4	42.1	41.4	43.2	46.3
김치	36.2	36.2	37.4	22.2	38.2	47.7	34.9	35.8

○ 한식 일반은 소고기(35.7%), 김치(36.6%), 한식 면류는 오징어(18.2%), 고춧가루(48.3%), 소고기(50.1%)의 국내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한식 육류는 오징어(40.2%), 한식 해산물은 소고기(42.5%)의 국내산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됨.

〈표 4-21〉 한식 세분류별 국내산 식재료 사용 비중

(Base: 품목별 해당 문항 응답업체,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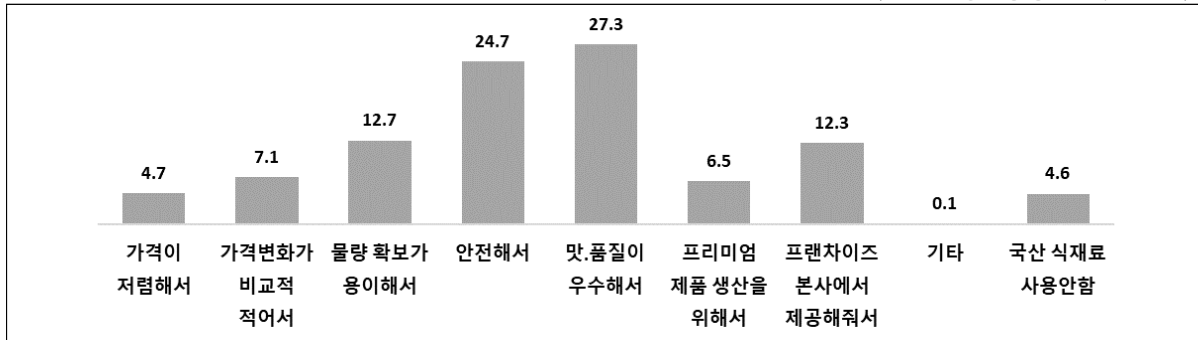
	전체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한식 면류	한식 육류	한식 해산물
사례수	23,360	4,673	1,690	2,729	1,686
전체	83.2	84.4	85.6	83.4	87.0
소고기	34.6	35.7	50.1	54.7	42.5
돼지고기	69.2	71.4	73.4	70.5	81.0
닭고기	84.7	92.6	80.0	89.8	79.0
계란	99.6	100.0	100.0	99.3	100.0
쌀	98.6	99.5	99.1	99.4	99.9
오징어	43.4	45.5	18.2	40.2	53.2
멸치	88.6	86.5	95.4	90.6	88.1
마늘	79.6	81.8	84.0	80.5	83.7
양파	97.6	97.5	100.0	98.2	98.3
파(대파)	99.5	99.7	100.0	99.6	99.6
풋고추·홍고추	99.6	99.5	99.7	99.2	99.6
배추	99.2	99.4	100.0	99.1	100.0
무	99.1	99.6	98.0	96.7	100.0
당근	81.8	85.2	85.6	81.0	83.9
감자	96.8	97.9	94.8	90.0	97.0
사과	100.0	100.0	100.0	100.0	100.0
배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춧가루(건고추 포함)	49.2	50.6	48.3	52.7	59.8
김치	36.2	36.6	48.0	35.7	38.0

2) 국내산 원재료 사용 이유(1+2순위 중복응답 기준)

- 외식업체가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맛, 품질이 우수해서가 27.3%로 가장 높고, 이어서 안전해서(24.7%), 물량 확보가 용이해서(12.7%),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해줘서(12.3%), 가격변화가 비교적 적어서(7.1%) 등의 순서로 나타남.

〈그림 4-53〉 국내산 원재료 사용 이유_1+2순위(중복응답)

(Base: 해당 문항 응답업체, 단위: %)



〈표 4-22〉 국내산 원재료 사용 이유_1+2순위(중복응답)

(Base: 해당 문항 응답업체, 단위: 개소, %)

			사례수	가격이 저렴해서	가격 변화가 비교적 적어서	물량 확보가 용이해서	안전해서	맛, 품질이 우수해서	프리미엄 제품 생산을 위해서	프랜 차이즈 본사 제공	기타	국산 식재료 사용 안함	
전체			3,138	4.7	7.1	12.7	24.7	27.3	6.5	12.3	0.1	4.6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3.8	7.5	12.4	29.8	31.8	7.8	6.7	0.1	0.1	
		한식	1,091	3.7	7.4	11.9	30.9	32.3	7.6	6.0	0.1	0.1	
		중식	158	3.2	7.2	14.1	27.6	36.0	7.3	4.2	0.0	0.3	
		일식	117	4.7	8.9	17.9	23.6	23.4	8.8	12.5	0.0	0.2	
		서양식	118	3.5	9.1	12.3	23.6	27.0	11.7	12.6	0.0	0.0	
		기타 외국식	72	7.0	6.1	12.0	21.0	28.8	4.2	18.4	2.5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5.8	6.6	13.0	18.8	22.2	5.0	18.7	0.0	9.7	
		기관 구내식당업	78	10.5	7.6	17.6	20.5	34.2	1.8	7.0	0.0	0.8	
		출장·이동음식점업	78	6.2	5.6	18.5	29.9	32.1	3.7	4.0	0.0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2.5	4.3	13.5	25.1	20.7	7.6	19.9	0.2	6.2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2.5	1.5	7.1	12.5	12.4	3.9	57.2	0.5	2.2
			치킨 전문점	172	4.4	7.9	10.3	14.8	16.1	3.6	41.9	0.0	1.1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6.9	6.2	8.1	23.7	27.1	8.4	18.8	0.0	0.8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3.8	2.5	13.8	27.2	27.4	3.9	18.2	0.0	3.1
		주점업	318	9.3	9.8	19.6	21.6	25.9	5.9	5.8	0.0	2.1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3.7	5.2	10.2	14.2	19.3	3.3	15.8	0.0	28.2	

〈표 4-22〉 국내산 원재료 사용 이유_1+2순위(중복응답) (계속)

(Base: 해당 문항 응답업체, 단위: 개소, %)

		사례수	가격이 저렴해서	가격 변화가 비교적 적어서	물량 확보가 용이해서	안전해서	맛, 품질이 우수해서	프리미엄 제품 생산을 위해서	프랜차이즈 본사 제공	기타	국산 식재료 사용 안함
전체		3,138	4.7	7.1	12.7	24.7	27.3	6.5	12.3	0.1	4.6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2.9	3.3	6.5	15.2	16.2	4.8	46.6	0.2	4.3
	비프랜차이즈	2,114	5.3	8.3	14.7	27.7	30.9	7.1	1.4	0.1	4.7
지역	서울권	491	10.5	7.5	14.2	20.2	23.6	7.7	10.8	0.1	5.4
	수도권	595	4.6	10.5	19.5	23.9	20.2	3.7	14.9	0.1	2.5
	충청권	581	9.2	12.5	14.4	14.1	27.4	7.6	12.5	0.0	2.3
	호남권	467	1.8	3.9	13.1	29.2	28.1	5.9	11.4	0.3	6.3
	경남권	611	1.0	1.6	5.4	26.5	35.4	11.0	15.3	0.0	3.9
	경북권	393	0.9	6.6	8.7	37.8	29.0	1.4	6.7	0.0	8.8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5.3	3.2	14.9	24.3	33.0	6.1	1.8	0.0	11.6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2.9	8.6	10.6	25.6	31.1	5.7	6.1	0.0	9.5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5.3	7.2	13.1	24.5	26.2	6.8	13.3	0.1	3.4
	5억 원 이상	446	2.5	4.9	12.0	24.4	27.5	5.9	20.5	0.0	2.4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450	3.6	6.7	11.9	32.0	33.0	7.2	5.5	0.0	0.2
	한식 면류	175	6.1	11.0	12.5	26.6	32.5	8.0	2.9	0.5	0.0
	한식 육류	275	2.1	6.9	11.6	30.5	30.5	7.7	10.5	0.2	0.0
	한식 해산물	191	6.5	10.8	12.2	27.7	31.7	10.0	0.9	0.2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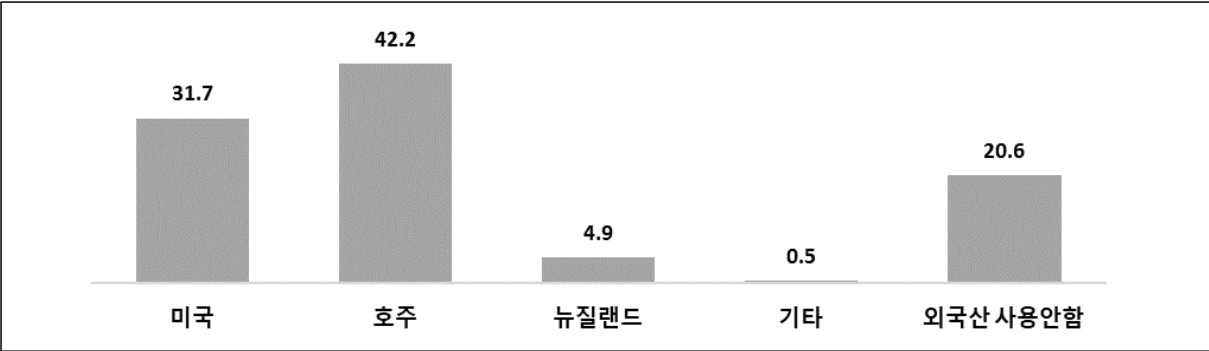
주: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3) 수입산 국가(소고기)

- 외식업체가 소고기를 수입하는 국가로 호주가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국(31.7%), 뉴질랜드(4.9%) 순으로 조사됨.

〈그림 4-54〉 수입산 국가_1+2순위(중복응답)

(Base: 해당 문항 응답업체, 단위: %)



〈표 4-23〉 외국산 소고기 원산지(중복응답)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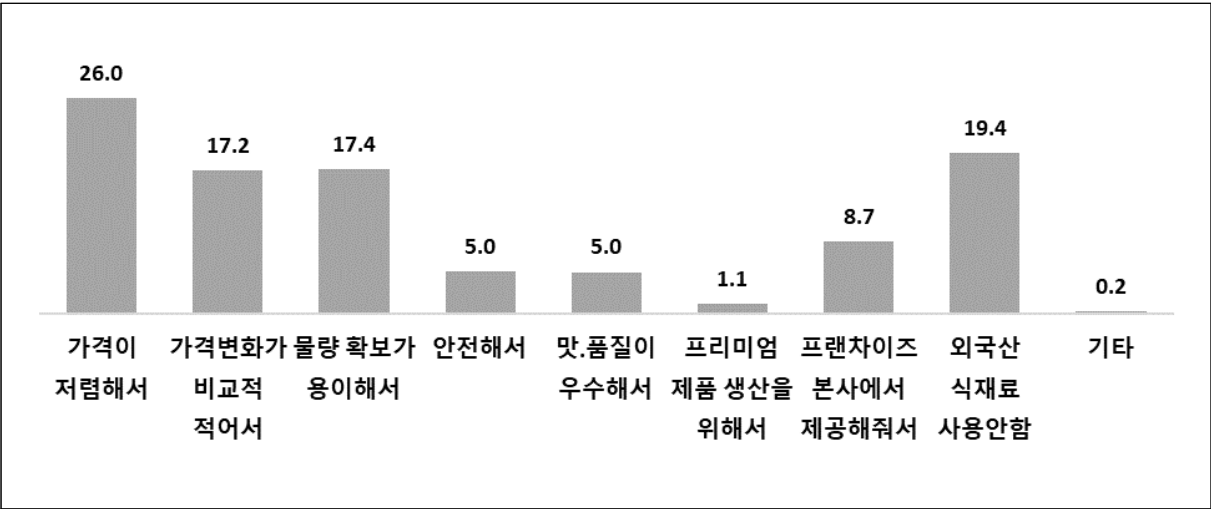
			사례수	미국	호주	뉴질랜드	기타	외국산 사용안함
전체			848	31.7	42.2	4.9	0.5	20.6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539	30.5	41.1	5.5	0.6	22.3
		한식	309	26.9	40.5	4.2	0.6	27.7
		중식	69	50.5	44.6	2.9	0.0	2.1
		일식	37	26.7	42.0	7.8	2.0	21.5
		서양식	73	33.7	43.3	16.5	0.0	6.5
		기타 외국식	51	36.1	36.5	13.1	1.6	12.7
	일반 음식점 외	소계	309	35.3	45.4	3.3	0.0	16.0
		기관 구내식당업	60	51.6	29.5	1.4	0.0	17.6
		출장·이동음식점업	62	60.1	31.5	2.2	0.0	6.3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6	60.4	19.7	0.0	19.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7	38.7	51.0	1.7	8.6
			치킨 전문점	2	100.0	0.0	0.0	0.0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48	30.7	55.7	6.2	7.4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16	20.9	44.6	15.3	19.2
		주점업	52	30.6	36.5	1.9	0.0	31.0
		비알코올 음료점업	6	0.0	100.0	0.0	0.0	0.0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254	36.4	48.1	4.2	1.7	9.7
	비프랜차이즈		594	30.1	40.3	5.2	0.1	24.3
지역	서울권		157	25.3	51.3	6.5	0.0	16.9
	수도권		161	26.0	39.7	12.1	0.0	22.2
	충청권		113	32.7	37.5	9.8	1.7	18.3
	호남권		103	23.2	33.4	3.2	0.8	39.4
	경남권		180	43.9	47.2	0.2	0.5	8.2
	경북권		134	29.8	36.7	0.0	0.0	33.5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8	10.0	32.7	0.0	0.0	57.3
	5천만 원~1억 원 미만		69	33.8	43.0	4.5	0.0	18.8
	1억 원~5억 원 미만		587	30.9	42.4	5.6	0.6	20.5
	5억 원 이상		184	36.7	41.6	2.1	0.0	19.6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138	30.3	42.6	4.0	0.7	22.3
	한식 면류		40	5.5	51.7	3.3	0.0	39.5
	한식 육류		121	24.2	34.5	4.9	0.7	35.7
	한식 해산물		10	11.8	53.8	0.0	0.0	34.4

4) 수입 원재료 사용 이유(1+2순위 중복응답 기준)

○ 외식업체가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해서가 26.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물량 확보가 용이해서(17.4%), 가격변화가 비교적 적어서(17.2%),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해줘서(8.7%), 안전해서와 맛,품질이 우수해서(각 5.0%) 등의 순서로 나타남.

〈그림 4-55〉 수입 원재료 사용 이유_1+2순위(중복응답)

(Base: 해당 문항 응답업체, 단위: %)



〈표 4-24〉 수입 원재료 사용 이유_1+2순위(중복응답)

(단위: 개소, %)

			사례수	가격이 저렴해서	가격 변화가 비교적 적어서	물량 확보가 용이해서	안전해서	맛, 품질이 우수해서	프리미엄 제품 생산을 위해서	프랜차이즈 본사 제공	기타	외국 식재료 사용 안함
전체			3,138	26.0	17.2	17.4	5.0	5.0	1.1	8.7	0.2	19.4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31.6	21.0	18.1	5.5	3.9	1.0	5.3	0.1	13.5
		한식	1,091	31.6	20.5	18.0	5.1	3.9	0.9	4.9	0.1	14.9
		중식	158	36.4	25.6	18.9	6.3	2.9	1.1	3.5	0.0	5.3
		일식	117	25.2	17.8	20.0	8.3	6.5	0.5	8.0	0.0	13.9
		서양식	118	30.3	23.9	16.5	7.3	3.3	1.7	11.0	0.0	6.0
		기타 외국식	72	28.1	21.9	19.4	7.0	2.2	1.7	11.3	0.0	8.5

〈표 4-24〉 수입 원재료 사용 이유_1+2순위(중복응답)

(단위: 개소, %)

			사례수	가격이 저렴해서	가격 변화가 비교적 적어서	수량 확보가 용이해서	안전해서	맛, 품질이 우수해서	프리미엄 제품 생산을 위해서	프랜 차이즈 본사 제공	기타	외국 식재료 사용 안함	
전체			3,138	26.0	17.2	17.4	5.0	5.0	1.1	8.7	0.2	19.4	
일반 음식점 외	소계	소계	1,582	19.0	12.5	16.5	4.5	6.3	1.3	12.8	0.4	26.7	
		기관 구내식당업	78	36.3	17.7	19.8	10.5	5.3	0.9	3.0	0.0	6.5	
		출장·이동음식점업	78	29.4	28.5	19.6	4.1	0.8	0.8	4.3	0.0	12.6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4.7	2.8	8.1	1.3	1.8	0.0	10.4	0.0	71.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16.1	9.9	6.6	4.7	3.2	0.8	31.4	1.0	26.3
			치킨 전문점	172	14.1	4.7	8.3	3.1	1.8	0.8	16.3	0.0	50.8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27.6	16.9	14.2	4.9	7.7	0.5	13.5	0.0	14.6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23.7	15.4	10.7	6.2	3.0	1.8	12.3	0.0	26.8
		주점업	318	24.5	18.1	18.4	3.2	3.9	1.1	3.4	0.0	27.3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12.3	8.8	22.2	5.6	11.3	2.2	17.9	1.1	18.7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17.2	11.7	9.1	3.3	2.5	1.0	33.3	0.2	21.7		
	비프랜차이즈	2,114	28.8	18.9	20.0	5.6	5.7	1.1	1.0	0.3	18.7		
지역	서울권	491	19.9	16.9	18.7	6.6	7.5	1.2	7.3	0.0	21.8		
	수도권	595	17.0	17.6	15.1	9.5	6.9	0.7	10.2	0.0	23.0		
	충청권	581	28.3	10.4	22.3	7.5	5.5	1.4	8.0	1.2	15.5		
	호남권	467	20.8	13.9	21.2	1.3	3.0	1.4	8.5	0.1	29.9		
	경남권	611	34.6	28.0	11.0	0.2	1.5	1.0	10.4	0.0	13.3		
	경북권	393	35.3	13.7	17.8	5.2	6.3	0.8	6.6	0.0	14.3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30.4	16.0	17.2	3.9	5.0	1.1	1.2	1.3	23.9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26.0	15.0	19.6	5.2	5.7	0.6	3.8	0.3	23.7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25.7	17.7	17.2	5.1	4.9	1.2	9.3	0.2	18.7		
	5억 원 이상	446	26.6	17.5	15.1	4.0	4.5	1.0	15.5	0.4	15.4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450	32.9	21.0	16.9	4.6	3.3	0.9	4.8	0.2	15.5		
	한식 면류	175	31.5	17.3	20.1	4.9	2.2	0.0	3.3	0.4	20.2		
	한식 육류	275	30.5	20.4	20.2	5.4	5.1	1.0	7.4	0.0	10.1		
	한식 해산물	191	25.9	20.2	18.4	7.9	6.5	2.1	0.8	0.0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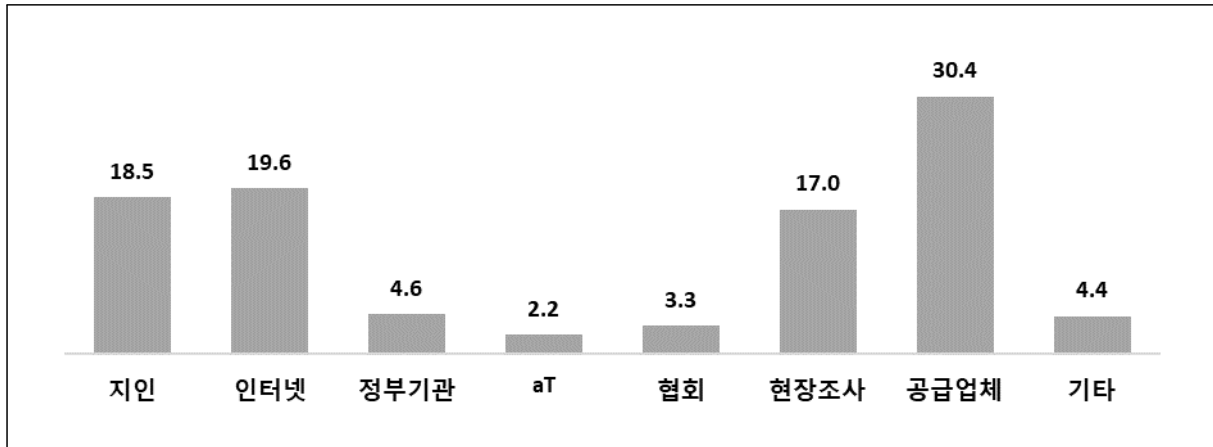
주: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5) 식재료 가격 정보 획득 경로

- 식재료 가격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식재료 공급업체(30.4%)를 통한 방법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터넷 사이트 탐색(19.6%), 지인(동종업체)으로부터 참고(18.5%), 직접 현장 조사(17.0%), 정부기관(4.6%) 등의 순서로 나타남.

〈그림 4-56〉 식재료 가격 정보 획득 방법 분포

(단위: %)



- 일반음식점 업종 대부분이 식재료 공급업체를 통한 가격 정보 획득 비중이 높음.
- 일반음식점 외 업종별로 기관 구내식당업(41.3%), 출장·이동음식점업(54.8%), 제과점(37.2%),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22.8%),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33.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21.7%)은 주로 식재료 공급업체를 통해 가격 정보를 얻고 있음. 치킨 전문점의 경우 지인으로부터 참고(22.4%), 주점업(25.5%)과 비알코올 음료점업(28.6%)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 탐색의 비중이 비교적 높음.
- 운영 형태별로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 모두 식재료 공급업체를 통해 가격 정보를 획득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지역별로 호남권(39.5%), 충청권(21.5%), 경남권(36.3%), 경북권(78.3%)은 식재료 공급업체를 통해, 서울권(28.4%)과 수도권(30.6%)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으로부터 참고하여 가격 정보를 획득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매출액 규모별로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1억 원 미만, 1억 원~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모두 식재료 공급업체를 통해 가격 정보를 획득하는 비중이 높음.
- 한식 세분류 모든 업종에서 식재료 공급업체를 통해 가격 정보를 획득하는 비중이 높고, 한식 일반(38.7%), 한식 해산물(37.9%), 한식 면류(36.4%), 한식 육류(33.6%)의 순서로 식재료 공급업체를 통해 가격 정보를 획득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5〉 업종/지역/매출액/한식 세분류별 식재료 가격정보 획득방법 분포(중복응답)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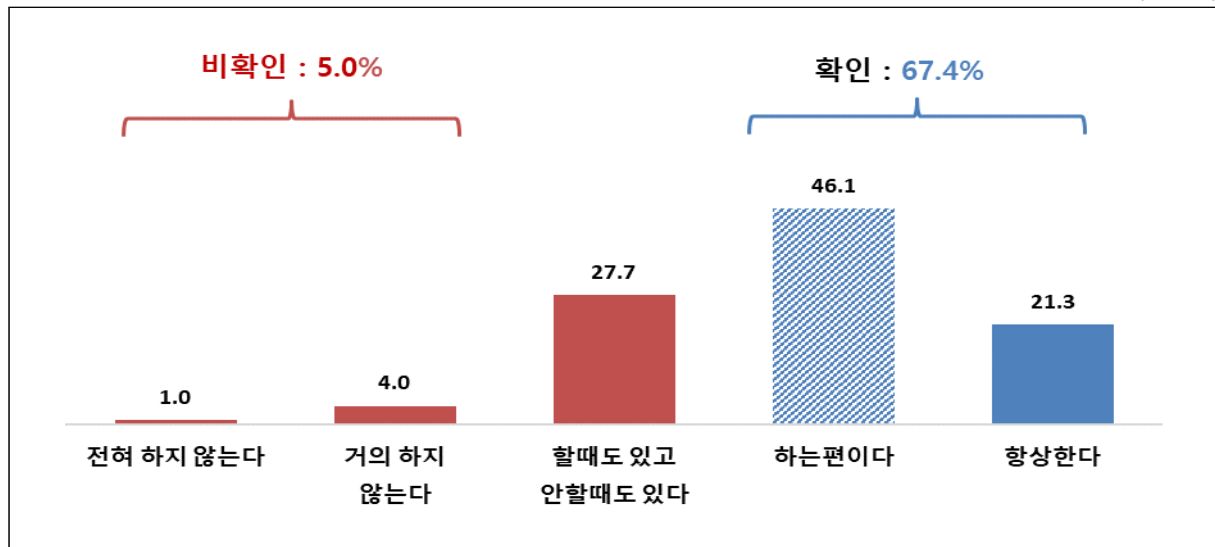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지인 (동종업체) 으로부터 참고	인터넷 사이트 탐색	정부기관 공시정보 를 통해서	aT 농산물 유통정보 (KAMS)를 통해서	협회 등 커뮤니티를 통해	직접 현장조사	식재료 공급업체	기타	
전체			3,138	18.5	19.6	4.6	2.2	3.3	17.0	30.4	4.4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17.9	15.2	4.8	2.9	2.9	18.5	35.7	2.0	
		한식	1,091	17.6	14.8	4.9	2.9	2.3	18.5	37.3	1.8	
		중식	158	19.1	10.8	4.1	2.4	5.6	17.6	37.9	2.5	
		일식	117	21.1	23.3	6.1	3.7	3.8	18.6	22.4	1.0	
		서양식	118	16.4	16.6	4.1	3.8	7.4	20.4	26.9	4.6	
		기타 외국식	72	21.6	26.7	1.4	1.5	3.8	19.2	20.2	5.6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19.1	24.0	4.4	1.4	3.7	15.5	25.0	6.9	
		기관 구내식당업		78	18.3	12.5	4.4	4.1	3.9	13.1	41.3	2.4
		출장·이동음식점업		78	20.4	14.4	0.0	1.1	0.0	9.2	54.8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16.0	18.6	3.6	2.2	1.9	15.5	37.2	4.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21.2	18.3	0.4	0.0	5.7	9.8	22.8	21.9
			치킨 전문점	172	22.4	21.5	3.8	2.2	5.3	12.7	17.9	14.2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9.5	19.0	3.8	1.2	4.9	19.7	33.3	8.6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14.2	19.8	6.6	0.3	3.9	21.6	21.7	11.9
		주점업		318	19.7	25.5	3.9	0.9	3.1	22.9	22.3	1.7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21.1	28.6	6.2	1.7	3.4	9.4	23.7	5.9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15.9	24.2	3.2	0.7	4.6	9.5	25.2	16.7	
	비프랜차이즈		2,114	19.4	18.0	5.1	2.7	2.9	19.6	32.2	0.1	
지역	서울권		491	23.4	28.4	5.8	1.3	3.9	13.2	21.3	2.7	
	수도권		595	20.6	30.6	9.1	2.8	3.2	18.9	13.3	1.5	
	충청권		581	11.9	13.0	5.8	6.0	7.4	17.3	21.5	17.1	
	호남권		467	24.0	7.7	1.8	1.5	1.2	19.9	39.5	4.3	
	경남권		611	15.3	20.3	1.5	0.8	2.9	22.2	36.3	0.6	
	경북권		393	11.5	3.4	0.0	0.0	0.3	4.1	78.3	2.3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13.3	17.9	0.5	2.4	1.6	26.4	35.9	2.0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20.8	15.5	5.6	2.5	3.4	20.1	28.7	3.4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18.5	20.5	4.7	2.1	3.4	16.4	29.9	4.6	
	5억 원 이상		446	16.5	19.8	4.2	2.4	3.4	12.8	35.2	5.7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450	17.8	13.6	4.6	2.7	2.2	18.5	38.7	1.9	
	한식 면류		175	19.7	10.7	8.1	2.7	1.9	18.3	36.4	2.3	
	한식 육류		275	15.3	19.2	4.7	2.7	3.2	19.5	33.6	1.9	
	한식 해산물		191	19.3	15.4	5.0	4.5	1.4	16.5	37.9	0.0	

6) 식재료 원산지 확인 여부

- 외식업체가 식재료를 구매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는 비중은 67.4%이며, 확인하지 않는 비중은 5.0%로 조사됨.
- 세부적으로는 하는 편이다(46.1%), 항상 한다(21.3%),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다(27.7%), 거의 하지 않는다(4.0%), 전혀 하지 않는다(1.0%)로 나타남.

〈그림 4-57〉 식재료 원산지 확인 여부

(단위: %)



- 식재료 원산지를 확인한다(하는 편이다+항상 한다)의 비중은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서양식(80.4%), 기타 외국식(78.9%)이, 일반음식점 외 업종의 경우 주점업(75.4%), 기관 구내식당업(83.3%)이 상대적으로 높음.
- 원산지를 매번 확인하는 비중은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서양식이 25.7%, 일반음식점 외 업종의 경우 기관 구내식당업(44.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프랜차이즈 업체 중에서 식재료 원산지를 확인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58.2%로 비프랜차이즈(70.7%)보다 12.5%p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지역별로 식재료 원산지를 확인하는 비중은 수도권(80.7%), 경북권(75.7%), 충청권(71.1%), 호남권(70.2%), 서울권(62.5%), 경남권(47.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에서 식재료 원산지를 확인하는 비중이 73.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천만 원~1억 원 미만(71.0%), 1억 원~5억 원 미만(66.9%), 5억 원 이상(62.7%)의 순임.
- 한식 세분류별로는 한식 면류(75.4%), 한식 일반(66.2%), 한식 해산물(61.8%), 한식 육류(60.9%)의 순서로 식재료 원산지를 확인하는 비중이 높음.

〈표 4-26〉 업종/지역/매출액/한식 세분류별 식재료 원산지 확인 여부

(단위: 개소, %)

			사례수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하는 편이다	항상 한다	
전체			3,138	1.0	4.0	27.7	46.1	21.3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1.3	3.2	28.3	44.6	22.6	
		한식	1,091	1.3	3.5	30.0	43.2	22.1	
		중식	158	0.8	1.6	22.4	50.6	24.7	
		일식	117	0.0	4.6	24.2	46.3	24.9	
		서양식	118	3.6	1.8	14.1	54.7	25.7	
		기타 외국식	72	0.2	0.0	20.8	56.9	22.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0.7	4.7	27.1	47.7	19.9	
		기관 구내식당업	78	0.0	1.1	15.6	38.8	44.5	
		출장·이동음식점업	78	1.3	1.6	27.7	59.9	9.5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1.1	6.8	33.6	40.4	18.1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1.5	4.4	36.5	38.2	19.3
			치킨 전문점	172	0.1	4.6	28.5	34.1	32.7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0.6	4.8	28.5	49.1	17.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0.4	8.4	37.5	37.7	16.0
		주점업	318	0.4	5.0	19.3	62.7	12.7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1.0	4.1	29.3	44.1	21.6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1.8	5.8	34.1	39.6	18.6		
	비프랜차이즈	2,114	0.7	3.3	25.3	48.5	22.2		
지역	서울권	491	0.6	1.7	35.2	53.8	8.7		
	수도권	595	0.5	2.3	16.5	56.4	24.3		
	충청권	581	2.3	2.7	23.9	37.3	33.8		
	호남권	467	1.1	5.9	22.8	32.8	37.4		
	경남권	611	0.9	8.1	43.4	38.1	9.6		
	경북권	393	0.2	1.8	22.3	65.3	10.4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1.3	7.6	17.9	48.0	25.3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0.1	4.1	24.8	48.5	22.5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1.2	3.7	28.3	46.2	20.7		
	5억 원 이상	446	0.6	3.9	32.8	40.2	22.5		
한식 세분류	한식 일반	450	1.3	3.8	28.7	43.4	22.8		
	한식 면류	175	0.6	2.3	21.7	50.8	24.6		
	한식 육류	275	1.1	2.3	35.8	42.2	18.7		
	한식 해산물	191	2.4	5.1	30.7	37.7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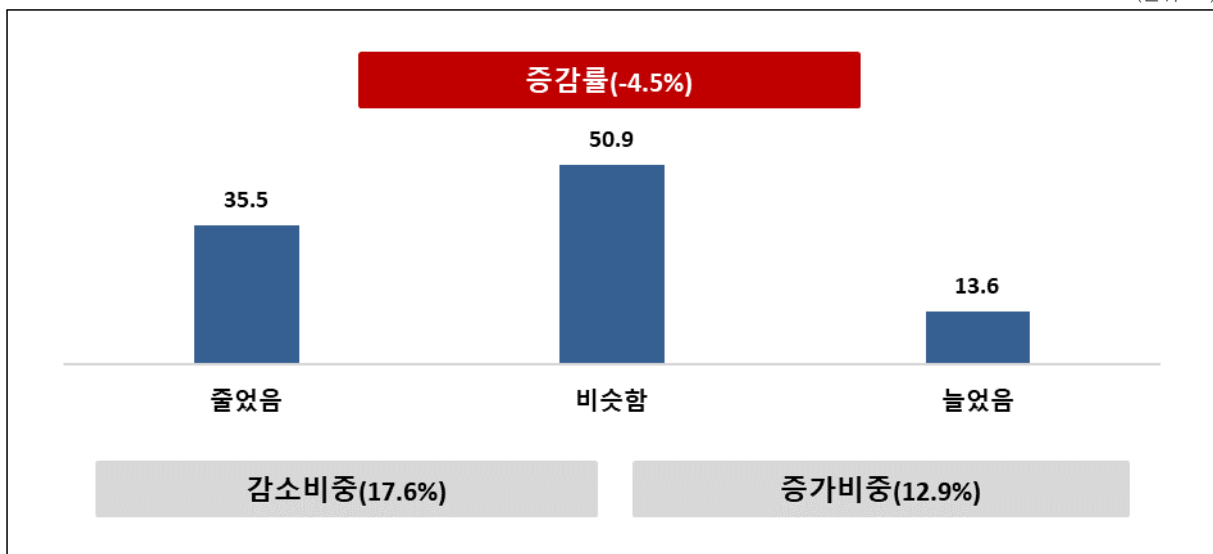
3. 기타

1) 2024년 대비 현재 매출 변화

-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5%, 비슷함(50.9%), 늘었음(13.6%)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인 증감률은 -4.5%이며, 매출의 감소 비중은 17.6%, 증가 비중은 12.9%로 나타남.

〈그림 4-58〉 2024년 대비 현재 매출 변화

(단위: %)



- 2025년 매출의 2024년 대비 증감률은 한식(-5.4%)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중식(-4.2%), 일식(-2.9%), 서양식(-2.2%), 기타 외국식(-1.2%) 순으로 조사됨.
- 프랜차이즈 업체(-4.3%)가 비프랜차이즈 업체(-4.6%)보다 감소 폭이 낮음.
 - 2025년 매출의 2024년 대비 증감률은 경남권(-10.2%)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호남권(-7.4%), 경북권(-3.5%), 충청권(-2.9%), 수도권(-1.3%), 서울권(-0.6%) 순으로 조사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에서 -15.1%, 5천만 원~1억 원 미만에서 -7.6%, 1억 원~5억 원 미만에서 -3.5%, 5억 원 이상에서 -2.4%로 나타남.

〈표 4-27〉 2024년 대비 2024년 매출 변화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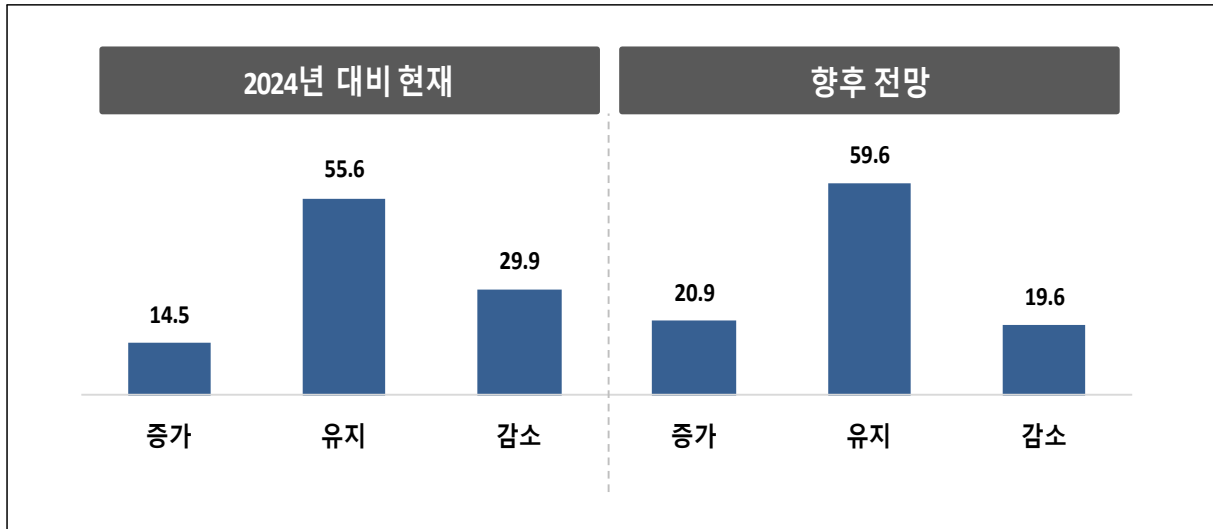
			사례수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감소비중	증가비중	증감률
전체			3,138	35.5	50.9	13.6	17.6	12.9	-4.5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39.2	46.3	14.5	18.0	13.8	-5.0
		한식	1,091	40.8	45.0	14.2	18.5	14.4	-5.4
		중식	158	33.6	53.3	13.1	16.1	9.6	-4.2
		일식	117	35.3	47.7	17.0	14.9	13.6	-2.9
		서양식	118	29.0	51.2	19.8	15.2	11.0	-2.2
		기타 외국식	72	21.1	62.6	16.3	13.5	10.2	-1.2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31.6	55.6	12.7	17.2	11.9	-4.0
		기관 구내식당업	78	17.5	61.0	21.5	17.6	13.8	-1.1
		출장·이동음식점업	78	25.0	51.2	23.8	19.1	9.9	-2.4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44.3	44.7	11.0	16.0	-5.9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29.2	57.8	13.0	13.1	-2.7
			치킨 전문점	172	24.6	67.5	7.9	15.0	-2.7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37.1	49.1	13.8	16.1	-4.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32.4	54.7	12.8	16.5	-3.5
		주점업	318	37.4	44.6	18.0	19.7	13.0	-5.2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26.0	64.9	9.0	16.8	9.9	-3.5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33.0	56.6	10.4	16.2	10.7	-4.3
	비프랜차이즈		2,114	36.4	48.8	14.8	18.1	13.5	-4.6
지역	서울권		491	26.2	52.4	21.4	11.5	12.1	-1.6
	수도권		595	21.0	64.5	14.5	13.2	10.2	-1.3
	충청권		581	16.6	77.4	6.0	23.3	15.3	-2.9
	호남권		467	49.7	39.7	10.7	19.5	21.3	-7.4
	경남권		611	62.7	24.7	12.6	18.9	13.0	-10.2
	경북권		393	34.0	46.4	19.6	16.0	9.9	-3.5
매출 액	5천만 원 미만		92	64.3	27.8	7.9	25.4	15.5	-15.1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43.8	45.7	10.5	21.0	15.2	-7.6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32.7	52.8	14.6	16.2	12.7	-3.5
	5억 원 이상		446	29.9	55.4	14.7	13.6	11.4	-2.4

2) 연도별 판매유형 및 전망 : 홀영업

- 2024년 대비 2025년 홀 영업은 55.6%가 유지했다고 응답하고, 14.5%는 증가, 29.9%가 감소했다고 응답함. 향후 전망으로는 홀 영업을 유지할 것이라는 비중이 59.6%로 나타나고, 증가는 20.9%, 19.6%는 감소할 것으로 응답함.

〈그림 4-59〉 연도별 판매유형 및 전망 : 홀영업

(단위: %)



- 일반음식점 업종별로 향후 증가 전망은 중식(28.7%)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서양식(28.2%), 기타 외국식(27.3%), 한식(21.4%), 일식(19.8%) 순으로 나타남.
- 운영 형태별로 향후 전망 중 증가 비율은 비프랜차이즈(21.9%)가 프랜차이즈(18.1%)보다 높고, 유지 비율은 프랜차이즈(63.6%)가 비프랜차이즈(58.1%)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 2024년 대비 현재 증가 비율은 충청권(28.0%)이 가장 높고, 서울권(16.2%), 경북권(12.9%), 수도권(11.2%), 호남권(9.4%), 경남권(9.1%) 순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 2024년 대비 현재 유지 비율은 5억 원 이상에서 59.9%, 1억 원~5억 원 미만에서 56.6%, 5천만 원~1억 원 미만에서 54.1%, 5천만 원 미만에서 34.5%로 파악됨.

〈표 4-28〉 연도별 판매유형 및 전망 : 홀영업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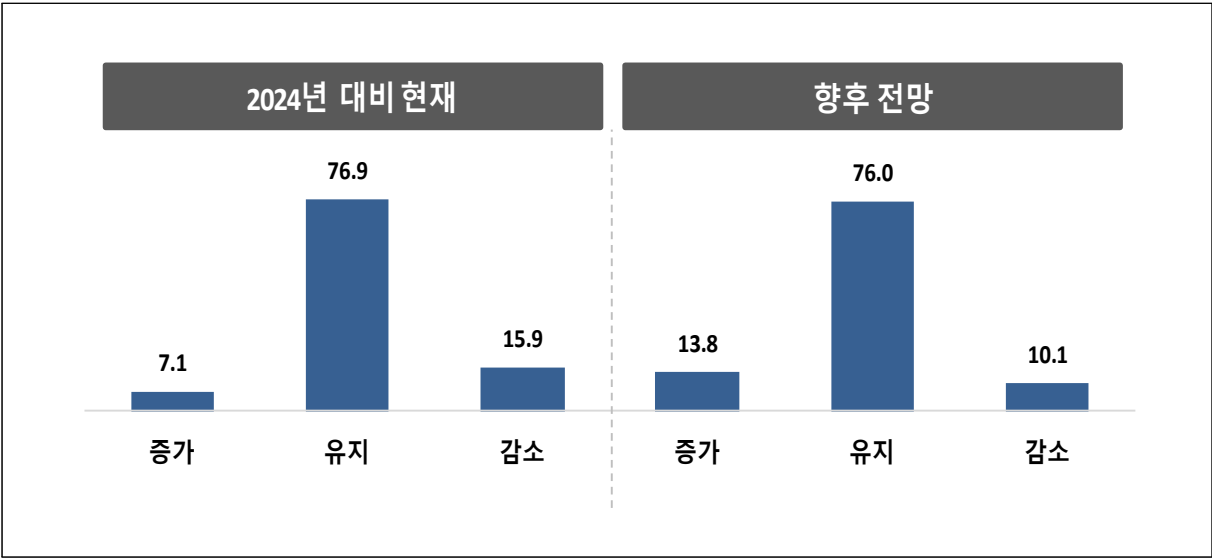
			사례수	2024년 대비 현재			향후 전망			
				증가	유지	감소	증가	유지	감소	
전체			3,138	14.5	55.6	29.9	20.9	59.6	19.6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14.6	53.1	32.3	22.3	57.0	20.7	
		한식	1,091	13.8	52.4	33.8	21.4	57.0	21.6	
		중식	158	17.9	55.3	26.8	28.7	55.8	15.5	
		일식	117	15.2	55.3	29.6	19.8	63.0	17.2	
		서양식	118	21.7	54.1	24.2	28.2	53.2	18.6	
		기타 외국식	72	19.6	65.1	15.3	27.3	54.7	18.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14.4	58.3	27.3	19.4	62.3	18.3	
		기관 구내식당업	78	18.6	58.3	23.0	35.7	57.7	6.6	
		출장·이동음식점업	78	12.4	68.0	19.6	15.9	74.3	9.8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7.6	60.2	32.2	20.5	62.0	17.5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14.1	60.4	25.5	22.6	64.2	13.2
			치킨 전문점	172	17.3	60.9	21.9	15.6	69.1	15.4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12.0	55.4	32.6	20.3	62.7	16.9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12.9	66.2	20.9	18.7	68.2	13.1	
		주점업	318	19.6	46.8	33.6	19.6	57.0	23.5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11.2	66.6	22.2	17.8	63.8	18.3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13.2	59.9	26.9	18.1	63.6	18.3		
	비프랜차이즈	2,114	15.0	54.1	31.0	21.9	58.1	20.0		
지역	서울권	491	16.2	61.1	22.7	26.3	62.5	11.2		
	수도권	595	11.2	65.5	23.4	24.1	63.7	12.2		
	충청권	581	28.0	56.9	15.1	9.9	78.2	11.9		
	호남권	467	9.4	55.5	35.1	13.1	60.6	26.3		
	경남권	611	9.1	39.0	52.0	14.9	51.6	33.5		
	경북권	393	12.9	58.9	28.1	45.6	33.3	21.1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15.0	34.5	50.6	13.0	45.0	42.1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11.4	54.1	34.5	16.9	54.6	28.5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14.9	56.6	28.4	21.2	62.0	16.9		
	5억 원 이상	446	16.5	59.9	23.6	29.8	55.5	14.7		

3) 연도별 판매유형 및 전망 : 배달

- 2024년 대비 2025년 배달 판매는 76.9%가 유지했다고 응답하고, 7.1%는 증가, 15.9%가 감소했다고 응답함. 향후 전망으로는 배달 판매를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76.0%로 가장 높은 가운데, 13.8%는 증가, 10.1%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림 4-60〉 연도별 판매유형 및 전망 : 배달

(단위: %)



- 일반음식점 업종별로 향후 증가 전망은 서양식(17.5%)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중식(16.0%), 기타 외국식(13.7%), 한식(10.8%), 일식(8.8%) 순으로 나타남.
- 운영 형태별로 향후 전망 중 증가 비율은 프랜차이즈(15.4%)가 비프랜차이즈(13.3%)보다 높고, 유지 비율은 비프랜차이즈(77.4%)가 프랜차이즈(72.3%)에 비해 높음.
- 지역별로 2024년 대비 현재 증가 비율은 충청권(10.3%)이 가장 높고, 경남권(9.1%), 경북권(7.5%), 수도권(6.5%), 서울권(5.5%), 호남권(3.5%) 순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 2024년 대비 현재 증가 비율은 5천만 원 미만(12.5%)이 가장 높고, 5천만 원~1억 원 미만(8.3%), 1억 원~5억 원 미만(6.7%), 5억 원 이상(6.1%) 순으로 조사됨.

〈표 4-29〉 연도별 판매유형 및 전망 : 배달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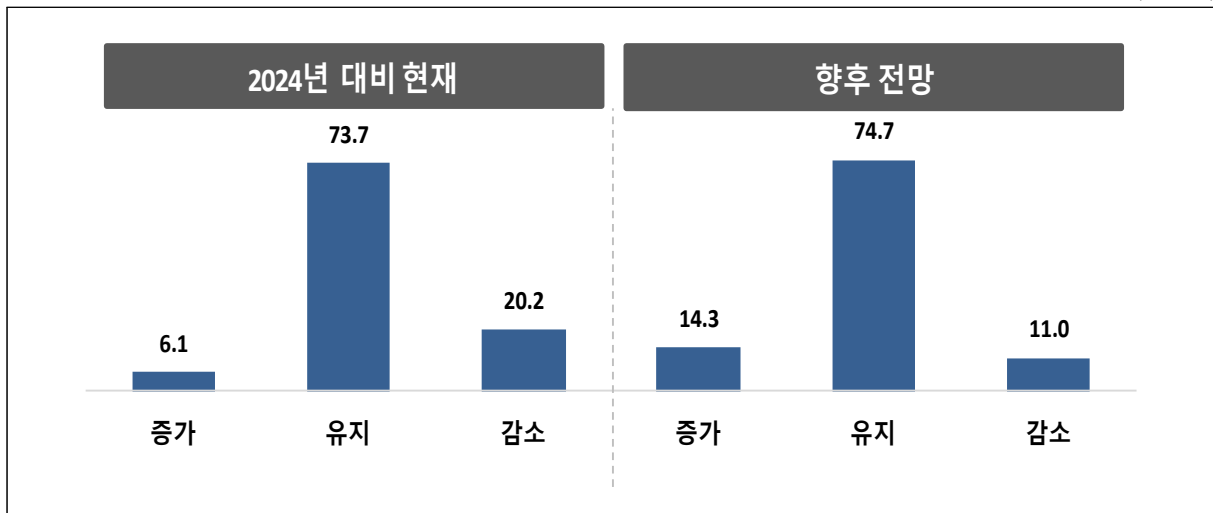
			사례수	2024년 대비 현재			향후 전망			
				증가	유지	감소	증가	유지	감소	
전체			3,138	7.1	76.9	15.9	13.8	76.0	10.1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6.4	77.2	16.4	11.4	78.3	10.3	
		한식	1,091	6.3	77.7	15.9	10.8	79.1	10.1	
		중식	158	6.5	70.4	23.1	16.0	70.9	13.2	
		일식	117	6.3	76.7	17.0	8.8	80.3	10.9	
		서양식	118	7.6	79.4	13.0	17.5	74.5	8.0	
		기타 외국식	72	5.6	82.4	12.0	13.7	77.4	8.9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7.9	76.7	15.4	16.4	73.7	9.9	
		기관 구내식당업	78	7.5	83.4	9.1	18.0	79.1	2.9	
		출장·이동음식점업	78	15.7	73.1	11.2	27.4	67.5	5.1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6.8	75.4	17.8	20.9	68.7	10.4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11.1	67.6	21.3	28.4	63.6	8.0
			치킨 전문점	172	3.4	75.4	21.2	12.2	75.5	12.3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9.3	69.2	21.5	20.9	65.5	13.6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6.7	83.7	9.5	20.2	71.7	8.1	
		주점업	318	13.5	72.5	14.0	15.0	74.1	10.9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3.8	84.4	11.8	13.0	78.8	8.2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5.7	74.2	20.1	15.4	72.3	12.3		
	비프랜차이즈	2,114	7.7	77.9	14.4	13.3	77.4	9.4		
지역	서울권	491	5.5	88.9	5.6	14.5	82.1	3.4		
	수도권	595	6.5	88.8	4.7	10.9	87.0	2.2		
	충청권	581	10.3	82.4	7.3	11.9	82.7	5.5		
	호남권	467	3.5	71.8	24.7	4.3	76.4	19.3		
	경남권	611	9.1	54.2	36.7	14.4	64.4	21.2		
	경북권	393	7.5	79.3	13.2	32.7	60.0	7.2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12.5	69.6	17.9	13.4	72.5	14.1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8.3	71.5	20.2	14.0	71.0	14.9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6.7	78.1	15.2	13.3	77.6	9.2		
	5억 원 이상	446	6.1	81.4	12.5	18.8	74.1	7.1		

4) 연도별 판매유형 및 전망 : 테이크아웃

- 2025년 테이크아웃은 2024년 대비 73.7%가 유지했다고 응답하고, 6.1%는 증가, 20.2%가 감소했다고 응답함. 향후 전망으로는 테이크아웃을 유지할 것이라는 비중이 74.7%로 나타나고, 증가는 14.3%, 감소는 11.0%로 파악됨.

〈그림 4-61〉 연도별 판매유형 및 전망 : 테이크아웃

(단위: %)



- 일반음식점 업종별로 향후 유지 전망은 중식(82.5%)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한식(77.3%), 일식(76.7%), 서양식(72.7%), 기타 외국식(72.3%) 순으로 나타남.
- 운영 형태별 향후 전망에서 비프랜차이즈는 증가 비율 14.4%로 프랜차이즈(14.0%)보다 높고, 유지 비율도 75.2%로 프랜차이즈(73.5%)보다 높음.
- 지역별로 2024년 대비 현재 증가 비율은 경북권(9.4%)이 가장 높고, 경남권(7.9%), 수도권과 충청권(각 6.1%), 서울권(4.5%), 호남권(3.4%) 순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 2024년 대비 현재 증가 비율은 5천만 원 미만(9.0%)이 가장 높고, 1억 원~5억 원 미만(6.4%), 5억 원 이상(6.0%), 5천만 원~1억 원 미만(4.6%) 순으로 조사됨.

〈표 4-30〉 연도별 판매유형 및 전망 : 테이크아웃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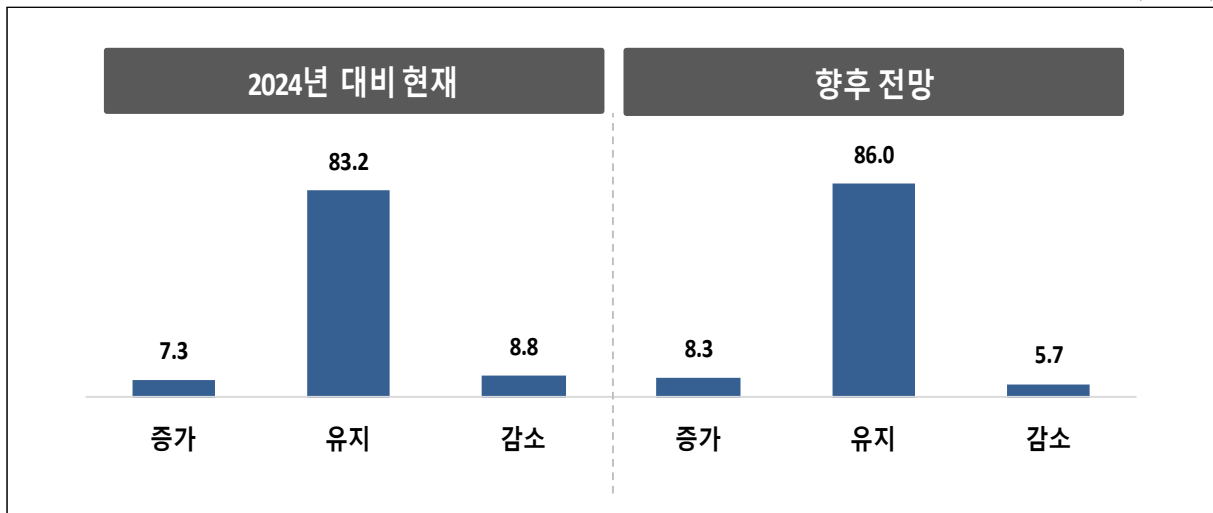
			사례수	2024년 대비 현재			향후 전망			
				증가	유지	감소	증가	유지	감소	
전체			3,138	6.1	73.7	20.2	14.3	74.7	11.0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4.7	75.1	20.2	12.0	77.4	10.5	
		한식	1,091	4.8	74.6	20.6	11.8	77.3	10.8	
		중식	158	3.8	79.2	16.9	10.4	82.5	7.1	
		일식	117	5.1	77.2	17.7	12.9	76.7	10.5	
		서양식	118	4.6	74.0	21.4	16.5	72.7	10.8	
		기타 외국식	72	3.3	76.3	20.4	15.4	72.3	12.2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7.6	72.2	20.2	16.7	72.0	11.4	
		기관 구내식당업		78	7.5	81.8	10.8	18.0	79.1	2.9
		출장·이동음식점업		78	15.0	78.6	6.4	13.2	82.3	4.6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7.4	58.2	34.4	23.5	60.1	16.4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5.1	73.3	21.6	19.2	71.7	9.1
			치킨 전문점	172	3.5	74.1	22.4	11.0	75.2	13.8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8.7	62.5	28.8	20.5	64.8	14.8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11.9	64.2	23.8	16.2	70.2	13.6
		주점업		318	12.7	71.8	15.6	14.3	75.2	10.5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4.4	78.3	17.3	16.9	73.0	10.1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6.1	72.3	21.6	14.0	73.5	12.6	
	비프랜차이즈		2,114	6.1	74.2	19.7	14.4	75.2	10.4	
지역	서울권		491	4.5	86.0	9.5	12.8	82.7	4.6	
	수도권		595	6.1	89.6	4.4	10.6	87.3	2.1	
	충청권		581	6.1	72.6	21.4	10.4	82.4	7.1	
	호남권		467	3.4	70.2	26.4	8.3	72.1	19.6	
	경남권		611	7.9	52.2	39.9	12.4	65.5	22.1	
	경북권		393	9.4	75.1	15.5	38.8	53.0	8.2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9.0	62.0	29.0	15.6	64.7	19.7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4.6	69.5	26.0	14.3	67.7	18.0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6.4	74.3	19.4	13.7	76.9	9.4	
	5억 원 이상		446	6.0	82.2	11.7	19.2	74.3	6.5	

5) 연도별 판매유형 및 전망 : 밀키트 판매

- 2024년 대비 2025년 밀키트 판매는 83.2%가 유지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7.3%는 증가, 8.8%가 감소했다고 응답함. 향후 전망으로는 대부분인 86.0%가 유지할 것으로 나타나고, 증가는 8.3%, 감소가 5.7%로 조사됨.

〈그림 4-62〉 연도별 판매유형 및 전망 : 밀키트 판매

(단위: %)



- 일반음식점 업종별로 향후 증가 전망은 한식(8.9%)이 가장 높고, 기타 외국식(8.3%), 서양식(6.4%), 중식·일식(각 6.0%) 순으로 나타남.
- 운영 형태별 향후 전망에서 증가 비율은 프랜차이즈(9.3%)가 비프랜차이즈(7.9%)보다 높고, 유지 비율은 비프랜차이즈(87.2%)가 프랜차이즈(82.9%)보다 높음.
- 지역별로 2024년 대비 현재 증가 비율은 호남권(17.4%)이 가장 높고, 충청권(10.1%), 경남권(8.8%), 서울권(2.9%), 수도권(2.0%), 경북권(0.6%) 등의 순으로 파악됨.
- 매출액 규모별 2024년 대비 현재 증가 비율은 5천만 원 미만에서 16.5%, 5천만 원~1억 원 미만에서 11.1%, 1억 원~5억 원 미만에서 6.2%, 5억 원 이상에서 5.6%로 조사됨.

〈표 4-31〉 연도별 판매유형 및 전망 : 밀키트 판매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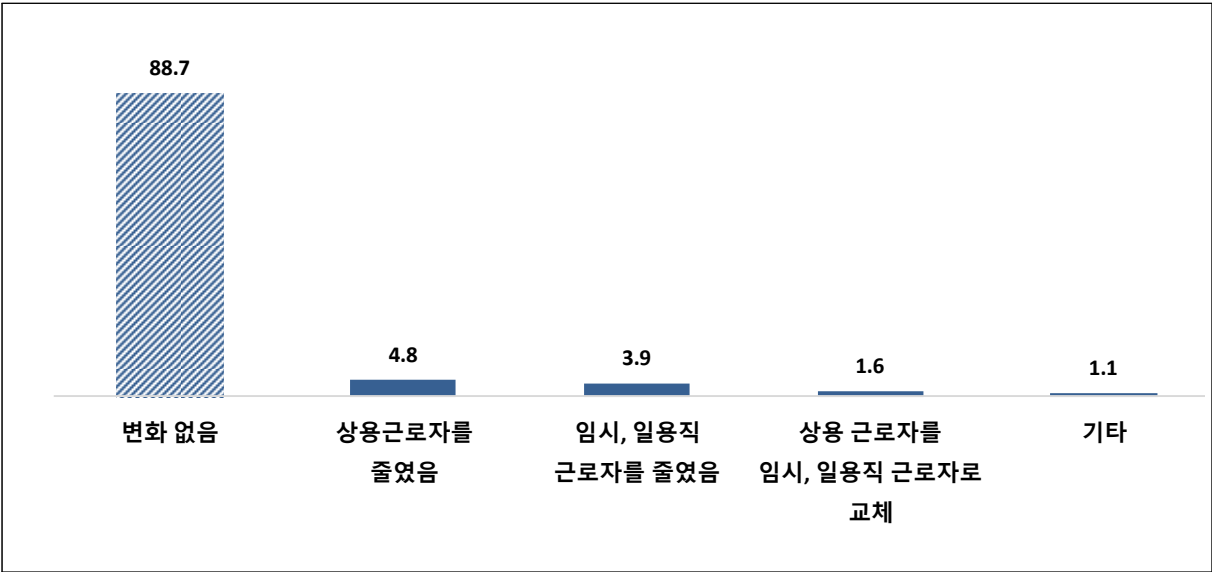
			사례수	2024년 대비 현재				향후 전망			
				증가	유지	감소	무응답	증가	유지	감소	
전체			3,138	7.3	83.2	8.8	0.7	8.3	86.0	5.7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7.8	83.2	8.3	0.7	8.4	86.2	5.3	
		한식	1,091	8.5	82.5	8.3	0.7	8.9	85.8	5.3	
		중식	158	4.2	88.3	7.5	0.0	6.0	90.1	4.0	
		일식	117	5.7	82.3	11.3	0.7	6.0	87.1	6.9	
		서양식	118	4.7	87.2	7.4	0.7	6.4	87.7	5.8	
		기타 외국식	72	4.7	89.2	4.2	1.9	8.3	85.3	6.4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6.8	83.1	9.4	0.7	8.2	85.8	6.0	
		기관 구내식당업	78	1.6	88.2	10.2	0.0	12.2	85.3	2.5	
		출장·이동음식점업	78	4.4	90.0	5.6	0.0	5.6	90.0	4.4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10.2	75.7	14.1	0.0	13.7	80.6	5.7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4.1	80.5	15.4	0.0	7.2	83.8	9.0
			치킨 전문점	172	2.4	82.4	13.9	1.3	2.9	86.3	10.7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10.4	74.8	13.6	1.1	11.1	78.8	10.1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7.0	86.7	6.3	0.0	8.2	85.4	6.3	
		주점업	318	7.4	84.4	7.1	1.1	8.0	87.3	4.6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6.7	86.8	6.1	0.3	7.5	88.7	3.8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7.9	81.1	10.7	0.4	9.3	82.9	7.8		
	비프랜차이즈	2,114	7.1	83.9	8.1	0.8	7.9	87.2	4.9		
지역	서울권	491	2.9	96.3	0.8	0.0	4.1	94.8	1.1		
	수도권	595	2.0	95.9	2.1	0.0	3.5	96.2	0.3		
	충청권	581	10.1	82.3	3.8	3.8	10.4	86.1	3.5		
	호남권	467	17.4	74.7	7.9	0.0	16.4	79.3	4.3		
	경남권	611	8.8	61.0	30.2	0.0	9.0	71.5	19.5		
	경북권	393	0.6	96.0	3.4	0.0	5.3	92.2	2.6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16.5	70.6	12.9	0.0	16.5	73.4	10.1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11.1	78.6	10.2	0.1	12.1	82.0	5.9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6.2	84.6	8.4	0.9	6.9	87.7	5.3		
	5억 원 이상	446	5.6	86.0	7.9	0.5	8.9	85.3	5.8		

6) 고용 형태 변화 : 2024년 대비 현재

- 고용 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변화 없음이 88.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상용 근로자를 줄였음(4.8%), 임시, 일용직 근로자를 줄였음(3.9%), 상용 근로자를 임시, 일용직 근로자로 교체(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63〉 고용형태 변화 : 2024년 대비 현재

(단위: %)



- 고용 형태 변화 없음의 비중은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중식(93.7%)이 가장 높고, 기타 외국식(89.5%), 한식(88.7%), 일식(86.2%), 서양식(83.7%) 순이며, 일반음식점 외 업종의 경우 출장·이동음식점업(96.8%)이 상대적으로 높음.
- 프랜차이즈 업체 중에서 고용 형태 변화 없음을 응답한 비중은 87.0%로 비프랜차이즈(89.3%)보다 2.3%p 낮음.
- 지역별로 충청권(96.0%), 호남권(92.4%), 경북권(91.8%), 수도권·경남권(각 85.9%), 서울권(81.0%) 순서로 고용 형태 변화 없음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에서 고용 형태 변화 없음 비중이 94.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천만 원~1억 원 미만(91.6%), 1억 원~5억 원 미만(88.9%), 5억 원 이상(79.3%) 순임.

〈표 4-32〉 고용형태 변화 : 2024년 대비 현재

(단위: 개소, %)

			사례수	변화 없음	상용근로자를 줄였음	임시, 일용직 근로자를 줄였음	상용 근로자를 임시, 일용직 근로자로 교체	기타	
전체			3,138	88.7	4.8	3.9	1.6	1.1	
업종	일반 음식점	소계	1,556	88.8	3.9	4.5	1.4	1.3	
		한식	1,091	88.7	3.8	4.7	1.2	1.6	
		중식	158	93.7	2.5	2.3	1.5	0.0	
		일식	117	86.2	8.9	2.1	2.9	0.0	
		서양식	118	83.7	4.0	8.4	2.5	1.5	
		기타 외국식	72	89.5	3.7	2.2	4.6	0.0	
	일반 음식점 외	소계	1,582	88.6	5.7	3.2	1.7	0.8	
		기관 구내식당업	78	93.0	0.0	0.0	1.4	5.6	
		출장·이동음식점업	78	96.8	0.7	2.6	0.0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	166	86.7	7.4	4.1	1.6	0.3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43	87.9	3.5	5.8	0.7	2.0
			치킨 전문점	172	90.3	3.4	1.7	2.1	2.5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	203	95.0	3.8	0.5	0.0	0.6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2	89.1	9.4	1.3	0.0	0.2
		주점업	318	88.0	5.7	3.0	3.3	0.0	
	비알코올 음료점업	352	86.4	7.4	4.5	1.2	0.5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1,024	87.0	6.1	4.5	1.1	1.3		
	비프랜차이즈	2,114	89.3	4.3	3.7	1.7	1.0		
지역	서울권	491	81.0	8.6	6.7	2.4	1.3		
	수도권	595	85.9	7.4	1.7	3.4	1.6		
	충청권	581	96.0	1.9	1.1	0.8	0.3		
	호남권	467	92.4	3.7	2.0	0.9	1.0		
	경남권	611	85.9	3.6	9.6	0.2	0.7		
	경북권	393	91.8	3.8	0.7	1.9	1.8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92	94.6	1.9	3.5	0.0	0.0		
	5천만 원~1억 원 미만	412	91.6	4.6	2.2	1.1	0.5		
	1억 원~5억 원 미만	2,188	88.9	4.3	4.0	1.8	1.1		
	5억 원 이상	446	79.3	10.2	6.7	1.3	2.5		

〈표 4-35〉 식재료 취급 품목 가이드

대분류	세분류	품목	원물	전처리	가공
1. 육류 및 축산물	육류	소고기	소고기 원물	절단된 소고기	삶은 소고기 소금에 절인 소고기 양념에 절인 소고기 등
		돼지고기	돼지고기 원물	절단된 돼지고기	삶은 돼지고기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양념에 절인 돼지고기 등
		닭고기	닭고기 원물 삶은 닭고기	절단된 닭고기	소금에 절인 닭고기 양념에 절인 닭고기 등
	축산물	계란	날계란	액란	삶은계란, 훈제란 등
2. 곡류/ 곡류가공품	곡류	쌀	흰쌀, 적미, 흑미, 현미, 잡쌀 등		찐쌀, 쌀가루 등 (완성된 밥 제외)
	곡류가공품	밀가루	밀가루		
3. 수산물류	수산물류	오징어	오징어 원물	손질된 오징어(내장제거)	삶은 오징어, 오징어 분말 소금에 절인 오징어 양념된 오징어 (마른 오징어, 오징어 젓갈 등 제외)
		멸치	멸치 원물		말린 멸치 소금에 절인 멸치 (멸치젓갈, 멸치액젓은 제외)
4. 채소류	조미채소류	마늘	마늘 원물(흑마늘 포함)	깐 마늘	건조마늘, 마늘분말, 마늘즙 등 (마늘장아찌, 락교, 마늘조림 제외)
		양파	양파 원물	깐 양파	건조양파, 절단된 양파, 양파분말, 양파즙 등 (양파튀김, 양파장아찌 제외)
		파(대파)	파 원물	깐 파	건조파, 절단된 파, 파분말 등 (대파장아찌 제외)
		고추	고추 원물(파리고추, 오이고추 포함)	절단된 고추 등	건고추 (고춧가루의 경우 아래 가공식품류에 응답) (고추장아찌, 고추무침 제외)
	근채류	무	무 원물(총각무, 열무, 알타리 등 제외)	절단된 무	절인 무, 무말랭이 등 (단무지, 치킨무 제외)
		배추	배추 원물 (김장용 배추만 포함)	절단된 배추	절임배추, 말린배추 등
	서류	당근	당근 원물, 당근즙 등	깐 당근	건조당근, 절단된 당근, 당근분말 (당근조림 제외)
		감자	감자 원물,	깐 감자, 절단된 감자	건조감자, 감자분말, 감자전분 등 (감자튀김 제외)
5. 과일류	과일류	사과	사과 원물	깐 사과	말린사과, 절단된 사과, 사과분말 사과즙 등 (사과청, 사과식초 제외)
		배	배 원물	깐 배, 절단된 배	말린배, 배즙 등(배청 제외)
6. 장류 및 가공식품류	장류 ※ 제조원 기준	고추장	고추장		
		된장	된장		
		간장	간장		
	가공식품류	김치	김치 (배추김치, 무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동치미, 파김치, 양파김치, 백김치 등 포함)		
		고춧가루	고춧가루		
		식용유	식용유		
		치즈	치즈		
		설탕	설탕		
		생두	생두		
		원두	볶은 원두		

※ (계란 1알)=0.05kg / (배추 1포기)=3.3kg / (무 1개)=1.3kg / (사과 1개)=325g / (배 1개)=650g 기준